

시민을 위한  
이천시지

1

테마로 읽는  
이천의 뿌리

##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 문화 길잡이



이천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도시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하사한 “이섭대천(利涉大川)”의 고을명에서 비롯된 이천(利川)은 조선시대 이천도호부(利川都護府)를 거쳐 군(郡)에서 시(市)로 승격하여 도농복합형 도시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세계 유수의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역사 문화와 삶의 영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이천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자 1955년 『이천대관(利川大觀)』 발간을 시작으로 1984년 『이천군지(利川郡誌)』를 편찬하였습니다. 이천시 승격 이후 2001년에 『이천시지(利川市誌)』를 발간하였으며, 세월은 흘러 17년 만에 새롭게 ‘시민을 위한 이천시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쓴 ‘시민을 위한 이천시지’는 2000년대 이후 SK하이닉스 증설, 택지개발, 경강선 개통 등 행복도시 이천의 도시 발전상과 생활문화의 변천사를 다양한 국면에서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기록되지 않은 자료를 추가하고 보완하여 일반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사진자료와 도표 등을 활용하여 생활문화 중심으로 생동감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원고를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22만 인구의 이천시 위상에 걸맞게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사랑하고 애용하는 이천의 역사 문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이천시지’는 이천의 역사적 변화과정과 정체성을 정립하여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총체적인 역사 문화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이천시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이천 시민 여러분과 편찬위원 및 집필위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5월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위원장 조 병 돈(이천시장)

## 이천 문화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천시는 한반도의 중심부인 경기도 동남부에 위치하여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천은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교차하고, 경충산업도로와 42번국도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첨단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하던 쌀의 생산지로 알려진 농업이 발달한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이천시는 찬란한 문화유산을 꽃피운 지역으로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였습니다. 80만 대군을 이끈 거란의 소손녕을 상대로 외교적 담판을 이끌어낸 장위공 서희, 국난에 처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어재연 장군, 선정을 베푼 이홍망, 독립투사 이수홍 등을 비롯한 수많은 학자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입니다.

이천문화원에서는 이천시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이천도자기축제와 쌀문화축제의 모태인 설봉문화제를 주관하고, 민속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이천 10개 읍면지역과 4개의 동지역 ‘문화유적·민속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천시의 전통문화 발굴과 재현을 위해 이천거북놀이, 정승달구지, 이천민요의 발굴과 재현에도 힘쓰고 있으며, 이천의 인물, 문화재, 독립운동가, 옛이야기 등의 단행본을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2001년 발간한 『이천시지』는 그간 이천에 산재해 있던 이천의 자연, 인물, 정치, 사회, 역사 자료를 한데 모아 집대성한 소중한 자료입니다.

『이천시지』 발간 후 17년 만에 3권으로 된 대중서 ‘시민을 위한 이천시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이천시지』가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를 가졌다면 대중서로 만든 본 책은 일반 시민들을 위한 안내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천 시민이 이천에 대해 배우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대중서, 타 지역민들에게 이천을 알릴 수 있는 책입니다. 1권에서는 이천의 역사와 전통을 다루고, 2권에서는 현대 이천시민의 삶을 다루었으며, 3권에서는 이천의 인물·지명·행정 등 다양한 부분을 백과사전 형식으로 정리하여 이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책을 통해 시민들이 이천을 좀 더 잘 알고 이천의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이천의 문화가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5월

이천시지편찬위원회 부위원장 조 명 호(이천문화원 원장)

## 미래에 대한 새로움과 희망이 넘치는 이천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을 맞은 뜻깊은 올해, 상생과 조화의 우리 고장 이천의 역사 문화를 총망라하여 17년 만에 다시 쓴 ‘시민을 위한 이천시지’ 편찬을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01년 7권의 『이천시지』가 발간되어 각종 학술지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는데 이어 이번에 인구증가와 도시화 등 달라진 이천시의 모습과 변화된 생활문화상을 상세하게 담은 이천시지가 발간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특히, ‘시민을 위한 이천시지’에는 이천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적 모든 분야의 변화상을 총정리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뿐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애郷심을 일깨울 수 있는 좋은 교육 자료가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합니다.

이천에 대한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이천시지’가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 수고하여 주신 편찬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이천을 빛내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며, ‘시민을 위한 이천시지’가 시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읽혀짐으로써 우리 고장에 대한 종합적인 역사 문화 자료이자 지역을 이해하는 안내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이천시지’에는 우리 고장의 역사적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천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정치철학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번의 통일이 있었습니다. 삼국통일과 후삼국통일인데 공통적으로 우리 이천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천<sup>세리</sup>의 지명이 비롯될 만큼 이천은 통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통일된다면 바로 우리 고장 이천이 그 중심에 있을 것이며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이천시지’ 발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모든 시민들과 이천시에 많은 유익을 끼치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국회의원 송 석 준



## 이천시 역사 문화 이해의 밑거름



이천시의 삶과 영혼이 담겨있고, 역사 문화의 변천상을 총망라한 ‘시민을 위한 이천시지’가 17년 만에 새롭게 편찬되는 것을 22만 이천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집필·인쇄·편집 등 ‘시민을 위한 이천시지’가 편찬되기까지 관계한 모든 분들과 이천 시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처럼 종족, 민족 또는 경계를 이룬 지역 안에서 그들이 가진 고유의 역사·문화를 소홀히 한다면 결코 발전된 미래를 기약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역사를 결코 잊지 않아야 하며, 그것을 더욱 계승 발전 시켜나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도시로 나아가는 이천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이 발간된 ‘시민을 위한 이천시지’는 급속도로 성장한 이천시의 위상에 맞게 그간 증가된 인구와 도시화 등 지난 2001년 『이천시지』 편찬 이후 달라진 이천시의 모습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고 하니 앞으로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쪼록 오늘의 ‘시민을 위한 이천시지’ 편찬은 문화의 고장을 이끌어갈 후손들에게 큰 기틀이 되는 이천 역사의 의미 있는 날로 기록될 것이며, 앞으로 역사와 전통을 보존·계승하여 지역의 역사 문화 이해의 밑거름이 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시민을 위한 이천시지’ 편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 책의 편찬을 통해 다시금 이천시 역사 문화의 토대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이천시의 변함없는 정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이천시의회 부의장 홍 현 표

## 일러두기

### 1. 구성 및 기획 방향

- 본책은 2001년 7권으로 편찬된 『이천시지』를 기초로 하여 시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대중서로 기획되었으며,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권 ‘테마로 읽는 이천의 뿌리’는 이천시의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역사와 자연 지리를 비롯하여 인물, 세거성씨, 문화유산, 교육, 민속 등을 주제별로 나누어 한눈에 이천의 뿌리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제2권 ‘테마로 보는 이천의 문화’는 이천시를 대표할 만한 아이콘(icon)과 랜드마크(land mark)를 분야별로 선정하여 현대 이천의 문화상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제3권 ‘꼭 읽어 알려주는 이천 길잡이’는 이천시의 연혁과 인문지리, 그리고 현대 이천의 변화상을 간략하게 다루었다. 또한 이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지리 등 전 분야에 걸친 내용을 백과사전 형식으로 요약하여 수록함으로써 시민들이 이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 2. 서술 범위와 원칙

-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상 이천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과거 음죽현에 속하면서 청미천을 경계로 충청도와 생활권을 함께한 장호원읍처럼 역사적 이해와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영역을 인근으로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 시간적 범위 : 기획과 집필 시점을 고려하여 선사시대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편찬 시점과의 차이를 또한 고려하여 항목별로는 2017년과 2018년까지도 확대하여 서술하였다.
- 내용적 범위 : 본책의 편찬 의도와 각 편·장의 주제 및 기획 의도를 고려하여 해당 주제가 요구하는 범위에 부합하도록 서술하였다. 또한 내용의 일관성과 통일성, 그리고 충실성을 기하기 위하여 집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윤문과 교열, 첨삭을 수행하였다.

### 3. 저작권과 출처

- 이 책의 저작권은 이천시에 있다.
- 수록된 내용과 도표·사진 등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그 외의 타당한 사유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천시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서 안 된다.
- 사용된 사진과 자료에 대해서는 제공자 또는 출처를 표기하였으며, 집필자가 직접 촬영하거나 제출한 자료, 이천시청 미디어자료실 자료, 그리고 이천시지편찬위원회에서 직접 생산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기를 생략하였다.
- 집필자가 제출한 자료로 발생하는 저작권 및 관련 문제의 책임은 해당 집필자에게 있다.

## 집필위원(가나다순)

김금향 | 건국대학교 아시아콘텐츠연구소 선임연구원  
 김기흥 | 이천문화원 시민기록자  
 김명자 | 이천문화원 시민기록자  
 김영옥 | 이천문화원 시민기록자  
 김종연 | 이천고등학교 교사  
 김태란 | 이천문화원 시민기록자  
 김희정 | 자유기고가, 전 이천시·경인일보 시민기자  
 박영희 | 이천문화원 시민기록자  
 박태현 | 방송작가, IT전문대학 강사  
 박형숙 | 방송작가  
 서영일 | 한백문화재연구원 원장  
 서정걸 | 한국도자재단 대표  
 손승호 | 인천대학교 연구교수  
 송명자 | 이천문화원 시민기록자  
 송인길 |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연구원  
 신배섭 | 문학박사, 이천문화원 이사  
 양경직 |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유선영 |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연구원  
 이동준 |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이선민 | 이천문화원 문화사업팀장  
 이성복 |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선임연구원  
 이인수 | 이천향토사연구회 회장  
 이태호 | 이천시 학예연구사  
 장준구 | 이천시립월전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성균관대학교 미술학과 겸임교수  
 정선화 | 이천문화원 시민기록자  
 채기순 | 자유기고가, 이천문화원 편집위원  
 최석재 | 여행작가, 이천시역사문화연구회  
 최의광 | 이천문화원 이사, 공주대학교 겸임교수  
 최현숙 | 자유기고가  
 한정혜 | 이천문화원 시민기록자  
 허홍범 | 추사박물관 학예연구사  
 황미애 | 이천문화원 도슨트동아리 회원

##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위원장	조병돈   이천시장
부위원장	조명호   이천문화원 원장
편찬위원	김종연   이천고등학교 교사 김지영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 김지옥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부장 신배섭   문학박사, 이천문화원 이사 오문선   서울시 학예연구사 이인숙   호법초등학교 교감 최진아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 한승남   전 설봉서원 원장 한영희   이천시 복지문화국장(전임 신성현) 허홍범   추사박물관 학예연구사 홍현표   이천시의회 의원
간사	김시훈   이천시 문화관광 과장(전임 류봉열)
서기	윤희동   이천시 문화관광과 문화팀장
행정지원	이태호   이천시 학예연구사
선임연구원	이성복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선임연구원
연구원	유선영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연구원
교정위원	김금향, 송인길, 정민채, 최현숙

## 편집 · 제작

디자인 · 제작	홍익문화인쇄사(대표 김태익)
제작 총괄	최윤규(이사)
아트 디렉터	윤진남(실장)
책임 디자인	장은경(팀장)
편집 디자인	차인우

## CONTENTS

발간사  
축간사  
일러두기  
집필위원, 이천시지편찬위원회

### 1편 이천의 탄생

#### 01 이천의 역사

1. 지석리 고인돌이 보여주는 이천의 선사시대 / 20
2. 삼국시대 백제 토기의 발견과 고려시대 이천 이름의 탄생 / 22
3. 학문의 발달과 읍호승강이 반복된 조선시대 / 27
4. 강제 개항과 의병항쟁 / 31
5. 일제의 침탈과 이천의 독립투쟁 / 34
6. 6·25전쟁과 현대 이천의 시기별 변화 / 42

#### 02 이천의 숨결이 서려 있는 산천(山川)

1. 북하천 유역권의 산천 / 64
  - 1) 태조 왕건의 꿈이 흐르는 북하천 / 64
  - 2) 이천관아를 감싸 안은 내산들 / 66
  - 3) 이천부의 북서쪽을 감사는 외산들 / 75
2. 청미천 유역권의 산천 / 83
  - 1) 하늘이 선택한 청미천 / 83
  - 2) 청미천 유역권의 산 / 84

#### 03 이천, 땅 이름의 유래

1. 땅 이름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 96

2. 지리적인 관점에서 본 땅 이름 / 99
3. 역사적 관점에서 본 땅 이름 / 104
4. 민속학적 관점에서 본 땅 이름 / 111
5. 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땅 이름 / 114
6. 고을과 마을 이름의 유래 / 118
7. 글을 마치며 / 122

## 2편 성씨와 인물

### 01 이천에 자리 잡은 성씨들

1. 세거성씨와 유래 / 128
2. 이천의 관직성씨와 동족마을 / 131
  - 장위공 서희를 배출한 고려의 명문 이천서씨 / 131
  - 장호원지역을 대표하는 음죽이씨 / 133
3. 이천의 세거성씨와 동족마을 / 134
  - 설봉서원 제향 인물인 이관의를 배출한 광주이씨 / 134
  - 시문으로 이름을 떨친 최숙정과 양천최씨 / 135
  - 기묘사화로 이천과 인연을 맺은 진주강씨 / 137
  - 세거 햇수 600년이 넘는 이천의 토박이 남양홍씨 / 138
  - 계산처사 오경이 장동리에 터를 잡은 해주오씨 / 139
  - 제일 먼저 봄이 찾아오는 곳, 백사면 도립리 영월엄씨 / 140
  - 오옥 선생 이성임을 배출한 전주이씨 / 142
  - 귀양살이로 이천과 인연 맺은 용인이씨 / 144
  - 외암 이식이 동촌에 터전을 마련한 연안이씨 / 145
  - 풍담 이승경과 지조 있는 선비 이현문을 배출한 전의이씨 / 147
  - 병자호란 때 적진에서 순절한 충신 박난영과 고령박씨 / 149
  - 충신 김응건과 효자 김도흥을 배출한 선산김씨 / 150

## 02 이천을 빛낸 대표 인물

1. 용기와 지혜로 국난을 극복한 외교의 귀재 서희(徐熙) / 154
2. 성리학을 몸소 실천한 은거 학자 김안국 / 159
3. 국가에는 충(忠), 백성에게는 사랑을 실천한 이흥망 / 165
4. 살신보국의 무장 어재연 / 167
5. 초지일관 지조를 지킨 의사 구연영 / 171
6. 제2의 안중근을 희망한 독립투사 이수홍 / 175
7. 이천이 낳은 민족지도자 류달영 / 178
8. 여성교육의 선각자 김동옥 / 181

## 03 의병활동과 독립운동에 나타난 이천의 혼

1. 한말 의병항쟁과 이천의병들의 활동 / 188
  - 1) 이천 사람들도 잘 모르는 이천의병전적비 / 188
  - 2) 전기 의병항쟁과 이천수창의소의 활동 / 190
  - 3) 남한산성 함락과 그 후의 이천의병들 / 194
2. 후기 의병항쟁과 이천충화사건 / 197
  - 1) 후기 의병항쟁의 시작과 이천의병의 활약 / 197
  - 2) 일본군의 만행으로 빚어진 이천충화사건 / 199
  - 3) 구연영의 애국계몽운동 / 202
3. 일제강점기 이천의 독립운동 / 205
  - 1) 이천의 3·1운동 / 205
  - 2) ‘국내 4개월대전’이라 불린 이수홍의 의열투쟁 / 209
  - 3) 장호원 권총 청년 이선훈의 활극 이야기 / 214

## 3편 길 따라 추억 따라

### 01 강은 산을 가르고, 길은 사람을 잇는다!

1. 그냥 좋은 길이 가장 좋은 길 / 223  
애련정 둘레길 / 장호원 과수원길
2. 길은 시간을 잇는다 / 228  
3번국도(1) / 3번국도(2) / 연당길
3. 우리가 처음 만나는 길 / 236  
설봉산 여러 길 / 어농성지, 단내성지 둘레길
4. 당신과 함께 걷는 이 길이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 242  
성호호수 연꽃길 / 산수유 둘레길
5. 너와 나, 그리고 이천 사람 모두의 길 / 247  
도니울 둘레길 / 모가면 논길, 이천의 들관길

### 02 이천의 옛길에서 조상들의 발자취를 보다

1. 옛 이천지역의 역과 원 / 255
2. 이천의 옛길 / 275
  - 1) 울면을 스치듯 지나가는 영남10길 돌원대로(兪院大路) / 275
  - 2) 영남 옛길 봉화대로(奉化大路)와 파발길(擺撥路) / 284

### 03 수여선 꼬마기차, 이천을 달린다

1. 협궤열차는 낭만을 싣고 / 292
2. 새로운 시대의 산물, 혹은 수탈의 상징 / 294
3. 갑작스러운 몰락, 의외의 반전 / 298
4. 느릿느릿 학교도 가고, 시장도 보고 / 301
5. 이천역의 마지막 역무원 / 305
6. 주민 여러분 안녕! / 308



## 4편 천년의 흔적

### 01 격동의 발자취, 성곽

1. 이천의 옛 성곽 / 318
2. 삼국통일의 무대 설봉산성 / 326
3. 산성 발굴 이야기 : 설봉산성 · 설성산성 / 333

### 02 불교문화재로 보는 기록

1. 부처의 재현 : 불상 / 345
2. 진신사리의 상징 : 석탑 / 356
3. 불교의 성지 : 사찰 / 360
4. 향교 앞 오층석탑 환수운동 / 363

### 03 백년을 넘어 교육 천년대계로

1. 이천교육의 뿌리, 이천향교 / 368
2. 김안국의 향촌교화와 ‘괴정육현’의 교유 / 374
3. 성현의 학문과 덕행을 가르치며 인재를 양성한 설봉서원 / 379
4. 백년의 기억을 간직한 이천초등학교 / 383
5. 여성 중등교육의 출발지, 양정여자중 · 고등학교 / 393

## 5편 전통에 담긴 삶의 흔적

### 01 삶의 양식, 민속

1. 마을신앙 / 407
  - 1) 이천의 마을신앙 현황 / 407
  - 2) 부발읍 산촌리 산신제 / 409
2. 200년 넘게 전승되어 온 용면리 용줄다리기 / 413
3. 액운을 물리치는 거북놀이 / 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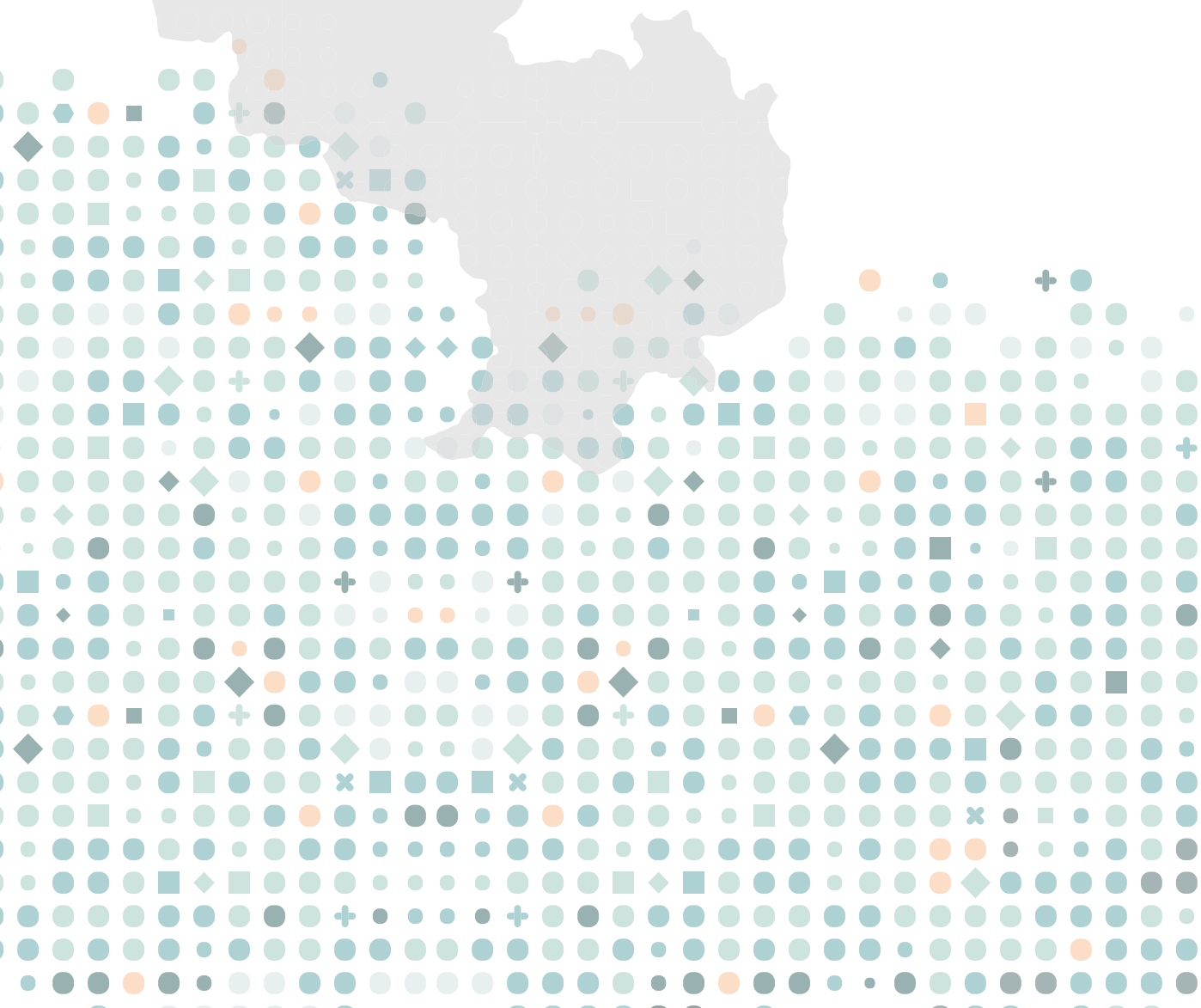
### 02 언제나 정겹고 활기찬 전통시장

1. 우리나라 시장의 역사와 이천의 5일장 / 430
2. 엄마가 생각나는 추억의 시장 / 436
  - 1) 그 많던 소들은 어디로 갔을까? / 438
  - 2) 이전 최초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앙시장 / 441
  - 3) 그 시절 이천 최대의 마트였던 이천농협연쇄점 / 444
3. 이천의 시장이 달라지고 있다! / 445
  - 1) 지붕을 덮어 아케이드가 된 관고재래시장 / 445
  - 2) 또 하나의 전통시장, 사기막골전통시장 / 447
  - 3) 대를 이어 판매하는 상인과 대를 이어 구매하는 소비자 / 449

### 03 전통마을과 주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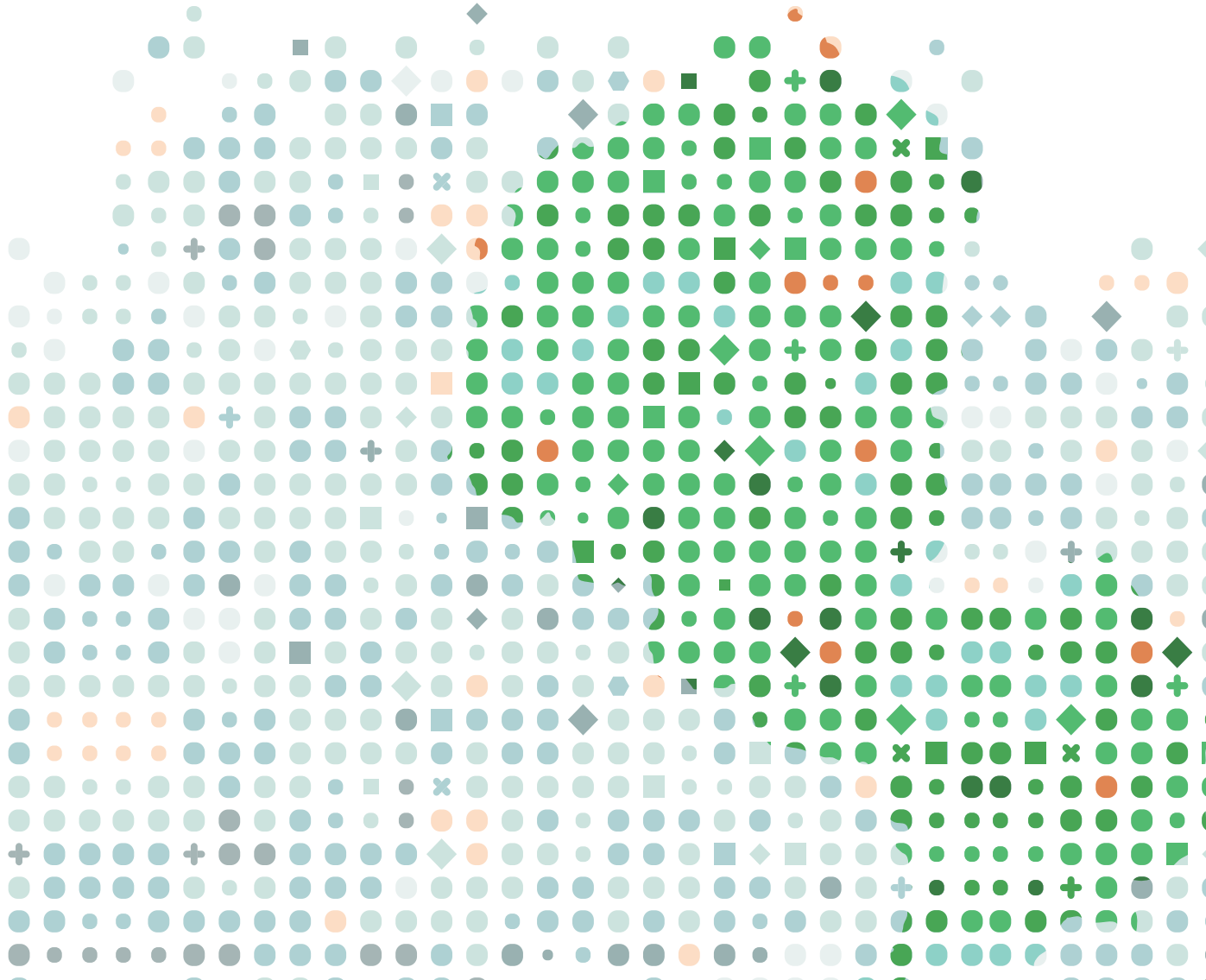
1. 모가면의 산골 동네 산안마을 / 452
2. 산내리의 공동체 / 454
  - 1) 산내리에 오면 산내리 법을! / 454
  - 2) 산내리의 공동체 활동 / 462
  - 3) 산내마을 공동체의 특징 / 468

# 이천의 탄생



# 1편

---





01

# 이천의 역사





신배섭 | 문학박사, 이천문화원 이사

## 제1장 이천의 역사

경기 동남부의 중심에 위치한 이천은 남한강에서 갈라진 북하천(福河川)과 청미천(淸美川)이 흘러 평야와 완만한 기복을 이루고 있고 지형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예로부터 재해 및 재난이 없는 평화로운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남북의 중부고속도로와 동서의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고 서울에서 충주를 잇는 3번국도와 수원에서 여주를 잇는 42번국도가 교차하며, 성남-여주 복선 전철이 지나가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서 좋은 산업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세계 도예의 중심축을 이루는 도요지가 있으며 장인의 예술혼이 어우러져 천년을 살아 숨 쉬는 전통도자기를 재현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쌀 맛을 자랑하는 이천쌀과 유백색에 유난히 크고 당도 높은 복숭아가 유명하다. 그밖에도 이천의 진산인 설봉산과 도드람산을 병풍으로 삼아 솟아오르는 알칼리성 천연 온천까지 있어 첨단산업 · 전원 · 관광 · 레저도시 등으로 조화를 이룬 살기 좋은 고장이다.

### 1. 지석리 고인돌이 보여주는 이천의 선사시대

이천지역에서 발견된 특별할만한 구석기시대 유적은 없지만 지표조사에서 수습된 석기 몇 점이 있다. 구석기 유물은 주로 신둔면 지석리와 소정리, 부발읍 신원리, 마장면 이평리, 장호원읍 대서리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석기 유물의 존재는 이천지역에 이른 시기부터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천의 선사시대 사람들은 구석기시대부터 타제석기가 사용되었으며, 집단 정착생활을 이루었다. 토기를 제작하였고, 농경과 목축 등이 주요 생활방식이었다. 이

선사시대(청동기) 이천  
의 무덤양식인 고인돌  
(지석리 지석묘, 이천  
시 향토유적 제4호)



천의 신석기 문화는 중서부 지역군地域群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지표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갈산동과 진리동 등 하천유역 주변이 당시 생활의 중심지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는 기원전 13~10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에 해당하며, 이천지역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청동기시대 무덤양식은 고인돌이었다. 고인돌은 땅 위에 몸돌과 지붕돌을 올려 봉분封墳으로 삼은 것인데, 그 형식에 따라 북방식과 남방식으로 나누어진다. 북방식 고인돌의 남방한계선은 경기도 수원과 용인에서 북한강을 연결하는 지역이다. 남방식 고인돌은 지하에 석곽·석관 등 매장시설을 만들고 주변에 돌을 약간 깎아 다음 흙을 덮고 지상에 큰 상석을 몇 개의 작은 받침돌로 고여 놓은 것들이 있다. 이천지역 선사시대 지석묘는 대부분 남방식이며, 신둔면 도암리·수하리·남정리·소정리와 백사면 현방리 등에서 발견되고 있다.<sup>1)</sup>

지금까지 신둔면과 백사면 등지에서 청동기유적지가 발견되었으며, 인근 지역의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하천유역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을 것이다. 즉 이천에서 비교적 큰 하천인 북하천과 청미천을 중심으로 소국의 영역이 나누어질 수 있다. 특히 이천의 효양산성孝養山城과 설성의 설성산성雪城山城은 청동기부터 철기에 걸치는 유물이 출토됨으로써 청동기시대부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 『이천시의 문화유적-매장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 박물관, 1998, 29~52쪽.



## 2. 삼국시대 백제 토기의 발견과 고려시대 이천 이름의 탄생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까지인 삼한시대에 이천은 백제가 진출하기 이전에 마한(馬韓)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한에 소속된 54국은 대체로 임진강 이남에서 전라도 남해안에 이르는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각 소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이천에는 노람국(怒藍國)과 자리모로국(咨離牟盧國) 등이 존재하였다.<sup>2)</sup>

이후 이천은 백제에 속하였으나 고구려 장수왕(475)이 백제의 수도 위례성을 공격해 개로왕(蓋鹵王)을 죽이고 한강유역을 빼앗은 뒤로는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그 후로 이천은 남천현(南川縣)과 남천주(南川州)로, 그리고 신라 경덕왕(757)대에 황무현(黃武縣)으로 개명되었다가, 고려 태조(936)가 후백제를 정벌할 때 이천군(利川郡)이라 칭하였고, 고려 고종(1257) 때에는 영창(永昌)이라 불렀다. 그리고 공양왕(1390)대에 다시 남천군이라 이름을 바꾸고 승격하였지만 다시 이천군으로 개명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음죽은 고구려의 노음죽현으로, 신라 경덕왕 때에는 음죽현으로 개명된 후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사용되었다.

### 1) 백제의 전진기지에서 통일신라의 남천정 설치까지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의하면 온조왕(溫祚王)대에 경기도 일대는 백제의 영토였다. 백제의 이천지역 진출은 백제 토기와 설봉산성 지표조사에서 밝혀졌다. 효양산성에서도 백제 토기가 출토된 것으로 미루어볼 때 백제의 이천 진출과 관계가 깊다.

이천지역 백제 토기는 대체로 4세기경 설봉산성, 효양산성, 설성산성, 망이산성 등지에서 출토되었다. 특히 설봉산성은 북쪽에서 이천지역으로 진출할 때 초입에 위치하고 산줄기를 따라 군사기지를 형성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설봉산성 장대지(將臺址)와 서문지(西門址)에서 백제의 토기가 출토되어 6세기 이전에 백제가 축조한 석성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설봉산성은 남쪽으로 진출하기 위한 백제의 전진기지였

2)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설봉산성 출토 백제시대 시루(출처: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이천시, 『이천 설봉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1)



고, 이 지역을 방어하고 통치하기 위한 성城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3)</sup>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고구려시대의 이천은 ‘남천南川’ 혹은 ‘남매南賈’로 불렸다. 매賈는 물[水]을 뜻하는 것이므로 ‘남천’이나 ‘남매’나 모두 같은 의미이다. 즉 ‘남천’이나 ‘남매’는 모두 하천의 이름에서부터 유래한 것이다. 현재 이천시에 있는 하천 중에서 고구려 때 남천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은 복하천福河川이다. 신둔천도 있지만 복하천에 비하여 작고, 청미천은 음죽에 속했기 때문이다. 고려 태조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천이란 지명이 생겨났다는 옛이야기를 보더라도 복하천이 이천지역의 상징적인 하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라가 이천지역에 진출한 것은 6세기 중반이다. 신라는 551년 고구려로부터 한강 중·상류 지역의 땅을 차지하였으며, 553년에는 백제가 회복하였던 한강 하류 지역마저 빼앗아 신주新州를 설치하고 한강유역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다. 이천지역도 이때 신라의 영토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단국대학교 박물관, 『이천설봉산성 1차 발굴조사보고서』, 이천시, 1999.



설봉산성 출토 벼루 앞면(왼쪽)과 “咸通六年”이 적힌 뒷면(출처 :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 이천시, 『이천 설봉산성 1차 발굴조사보고서』, 1999)

이천지역은 신라의 한강유역 통치에 있어서 중요한 군사적 거점으로 기능하였다. 그 예가 바로 남천정南川停의 설치이다. 『삼국사기』 직관지職官志에 의하면 남천정은 568년신라 진흥왕 29 신주정新州停을 없애고 설치한 것이며, 604년신라 진평왕 26에 다시 남천정을 없애고 한산정漢山停을 설치하였다. 이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도 확인되는데 “진흥왕 29년 북한산주를 폐지하고 남천주를 설치하였으며, 다시 진평왕 26년에 남천주를 폐지하고 북한산주를 설치하였다”고 기록되었다.

신라 통일전쟁기 660년신라 태종무열왕 7에 백제를 공격하기에 앞서 “태종무열왕이 군신群臣을 거느리고 남천정에 행차했다”는 기록이 있다.<sup>4</sup> 또한 남천주에 대한 기록도 있는데, 661년신라 문무왕 1 “군관軍官 · 수세戴世 · 고순高純 등을 남천주 총관總管으로 삼았다”는 기록과 662년에 “남천주 총관 진흙眞欽이 병을 핑계로 국사國事를 돌보지 않아 죄를 물어 처형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남천주에서 흰 까치를 바쳤다”는 기록도 있다.<sup>5</sup>

신라본기뿐만 아니라 『열전 김유신조』에도 “문무왕이 고구려를 향해 가다가 남천주에 이르렀다”는 기록과 “당나라 장수 유인원이 사비泗水에서 배를 띄워 해포鞋浦에 상륙하여 남천주에 진영을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보아 660년대에도 남

4)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7년 3월 · 8년 3월조.

5)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2년 8월조.

천정과 남천주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757년 통일신라경덕왕 16 남천주南川州의 이름을 황무현黃武縣으로 개명하였다. 황무현은 한주漢州에 소속된 고을로 고려시대의 광주廣州에 해당하며, 대체로 고려나 조선시대 광주목廣州牧과 비슷하였다. 따라서 한주의 직할 영역은 동시대 다른 군이나 현의 영역과 비슷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금의 서울시 강동구와 경기도 하남시·광주시 일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황무현과 구성현을 다스리고 있었으므로 이천과 용인 일대도 한주 관할에 들어갔다. 남천정은 여전히 한주의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주에는 모두 2개의 정亭이 설치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한주가 국방상의 요지였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남천정 외에 여주驪州에는 골내근정骨乃斤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이천과 여주에 각각 하나의 정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음죽현은 통일신라시대에 개산군介山郡, 지금의 죽산에 소속된 땅인데, 지금의 설성면·장호원읍·율면 일대로 추정된다. 또 설봉산성 동문지 위쪽 등에서 “함통咸通 6년<sup>865</sup>”이라는 글이 새겨진 벼루가 출토되었다. 이는 설봉산성이 삼국시대에 축성되어 9세기 중엽까지도 사용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 2) 고려 왕건이 하사한 이름 ‘이천’

태조 왕건王建이 후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떠났으나 이천을 지날 무렵 큰 홍수가 났다. 하는 수 없이 왕건은 이천에서 군사들을 쉬게 하였다. 이때 효양산 기슭에 살고 있던 서목徐穆이라는 사람이 왕건을 도와 무사히 남천南川, 지금의 북한천을 건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태조 왕건이 이 지역을 이천利川이라 부르게 하였다.<sup>6</sup> 이는 ‘강을 건너감이 이롭다[利涉大川]’는 의미라고 한다. 어의적語義的으로는 ‘큰 내大川를 건너 이로웠다’는 것이다. 『주역周易』에 의하면 ‘이섭대천利涉大川’은 ‘학문과 덕을 쌓고 몸을 기르면 험난한 과정이라도 이겨내 큰 공功을 세울 수 있으며 온 천하가 이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신라 말과 고려 초기에 이천은 여러 세력이 존재하였지만, 그중 이천서씨利川徐氏가 대표적이다. 이천서씨는 서목이 태조 왕건을 도와 길을 안내하였다는 『고려

6) 『고려사』 권56, 지리1, 이천군조.



거란의 소손녕과 담판을 벌이는 서희(서희테마파크)

사』 지리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천의 강력한 기반을 가졌던 지방세력이었다. 특히 이천서씨 중에 고려의 외교가이자 문신<sup>文臣</sup>인 서희<sup>徐熙</sup>는 993년<sup>고려 성종 12</sup> 거란의 침략이 있자 중군사<sup>中軍使</sup>가 되어 거란의 침략에 맞서, 홀로 적진에 들어가 적장 소손령<sup>蕭遜寧</sup>과 담판을 벌여 거란군을 물리친 바 있다. 그 후 평장사<sup>平章事</sup>가 되어 청천강 이북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장흥진<sup>長興鎭</sup>과 곽주<sup>郭州</sup> 등 강동6주를 고려 영토로 편입해 압록강까지 국경을 확장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고려 후기에는 이천지역에서 이천서씨와 이천신씨<sup>利川申氏</sup>가 문벌이 좋은 집안이었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쇠약하였다.

고려 말에는 공민왕<sup>恭愍王</sup>이 홍건적의 침입을 피하여 남쪽으로 피할 때 며칠간 이천에 머문 것으로 추측되는데, 공민왕이 축성하였다는 원적산<sup>圓寂山</sup>의 산성지와 원적산 주봉인 천덕봉<sup>天德峰</sup>을 공민봉<sup>恭愍峰</sup>이라 부르는 것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백사면 현방리의 휴궁교<sup>休宮橋</sup> 등에는 공민왕이 쉬어 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한편 공민왕이 개경을 탈환하기 전에 경기도 광주를 거쳐 이천과 음죽에 머무를 때<sup>7</sup> 백성들이 모두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음죽 사람 배원경<sup>裵元景</sup>이 마을 사람들과 남아서 공민왕을 극진히 대접한 덕분에 음죽 감무에 임명된 일도 있었다.

7) 『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 10년 11월 기사.



### 3. 학문의 발달과 읍호승강이 반복된 조선시대

#### 1) 이천향교와 실학의 유입

이천현을 승격시켜 이천도호부로 한다는 『세종실록』 기록(세종 26)



조선시대 이천은 경기도 동남부의 중심에 위치하였고 남한강의 지류인 복하천과 청미천 유역에 넓고 기름진 경작지가 잘 발달되어 있었다. 1392년태조 1 남천군南川郡에서 이천현利川縣으로 지명이 변경되었으며, 광주목廣州牧의 소속으로 감무監務가 배치되었다. 이후 1394년에 경기도에 귀속되었고 1413년에는 지방제도 정비와 함께 강원도에 귀속되었으며, 감무가 폐지되고 현감으로 교체되었다가 지현사知縣事로 바뀌었다. 1444년세종 26에는 1,000호가 넘으면 부府로 승격시킨다는 전례에 따라 이천도호부사로 승격되었다. 당시 이천의 가구가 1,026호에 이르러 종3품의 부사 1명과 교수 1명이 배속되었다.

이로써 이천은 상당한 규모의 가가와 논과 밭에 물리는 세금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더 큰 행정단위로 성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음죽현은 1413년 충청도에서 경기도에 소속되어 현감 1명과 훈도訓導가 파견되었으며, 선조 때에는 죽산현에 속했다가 다시 복원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권근權近의 기록1403년에 의하면 1389년고려 공양왕 1에 감무 이우李愚가 안흥정사安興精舍라는 절에 학생들을 모으고<sup>8</sup> 가르쳤으나 미처 향교가 세워지지는 않았다. 그 후 1402년태조 1 감무 변인달邊仁達이 읍내 서북쪽 1리쯤 되는 가까운 곳에 터를 잡아 7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그해 8월에 완성하였다. 당시 이천은

8) 『동국여지승람』 권8, 이천도호부, 학교신치향교기조.

도호부都護府로 향교에 교수 1인과 70여 명의 생도가 있었으며, 앞쪽에는 명륜당明倫堂이 있고 뒤에는 대성전大成殿을 두었다. 1653년효종 4에는 사마司馬 권현權賢이 대성전을 다시 지었고, 1786년정조 10과 1906년에 부서진 곳을 보수하였으며,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것을 후에 다시 고쳐지었다. 조선 후기 이천향교는 지금의 규모보다 컸다고 하며, 홍살문紅箭門은 최근에 세운 것이다.

한편, 이천은 서울로 들어가는 남한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동향에 민감한 성향이 있었다. 그래서 이천은 한양의 정치투쟁에서 패배한 재야학자와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못하는 서얼 등이 재기의 날을 기다리며 학문과 실력을 양성하던 장소였다. 특히 남한강유역에 속하는 이천·여주·양평·광주 등에는 성호星湖 이익李瀾으로 대표되는 성호학파의 인물이 많이 거주하였다. 조선 후기 실학의 조종祖宗 여주이씨 이익李瀾이 광주군 침성리현 안산시에 거주하였으며, 이천에는 성호학파 이기양李基讓이 거주함에 따라 영향을 받았으며 일찍부터 서학西學 및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 2) 조선시대 내내 부군현의 격이 오르내린 읍호승강

이천은 정치적인 역모사건과 연루되어 강등降等과 회복을 반복하였다. 1613년 광해군 5에는 대북파가 영창대군 및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칠서지옥七庶之獄이 발생해 도호부에서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1623년인조 1에 다시 도호부로 승격되었다. 1644년에는 홍양결洪陽傑이 역적으로 처형당한 사건 때문에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1653년효종 4에 다시 부府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1729년영조 5과 1777년정조 1에 또 역모사건이 발생하여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도호부都護府로 복구되었다.

조선 후기에도 이천지역에서는 여러 차례 중대한 범죄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경준李耕準이 관련된 사건이 있다. 당시 높은 벼슬이나 관리들의 자제이지만 첩이 나온 자식이라는 이유로 벼슬길이 막혀 세상을 증오했던 선비들이 있었다. 중국 위나라 말기에 부패한 정치권력에 등을 돌리고 거문고와 술을 즐겼던 ‘죽림칠현竹林七賢’을 모방해 ‘강변칠우江邊七友’라 이름 짓고 강가에 정자를 지어 시와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가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고자 자금을 마련한 사건이다. 이들

훈련원봉사 이열 등이  
조직한 의병이 이천으로  
침입한 왜군 1,000  
명을 물리쳤다는 『선  
조실록』 기록(1592)



은 여주 일대에서 활동하는 상인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그 재물을 이용해 중요한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만든 뒤, 자신들이 직접 선전관·내금위·수문장 등으로 조정에 들어가 왕과 세자를 죽이려는 역모를 구상했으나 모두 탄로가 났고 이 사건으로 이천도호부는 현으로 강등되었다.

이 외에도 1728년 **영조 4** 박필상의 난, 이인좌의 난이라고도 불리는 무신의 난은 남인과 소론이 중심이 되어 경종 **景宗**의 독살설을 주장하면서 영조와 노론을 제거하고 소현세자의 증손인 밀풍군 이탄 **李坦**을 추대하기 위해 일으킨 반란이 있었다. 이때 홍

양걸과 유한신 등이 관련되어 이천이 강등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강등과 회복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은 이천이 지리적으로 광주 **廣州**와 충주의 중간에 위치한다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권근 **權近**의 「이천신지향교기」를 인용하여 이천 지역을 “땅은 넓고 기름지며, 백성은 많고 부유하다”라 하였다. 한편, 조선 후기 이천에는 매 5일마다 열리는 시장이 있었다. 2일과 7일에 열리는 읍내장은 주로 쌀·면포·삼배·과일·어물·소금·송아지·옹기 등을 사고팔았다. 음죽현에 소속된 장호원장은 4일과 9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거래된 물품은 쌀·면포·생선·소금·대추·밤·배·감·술·놋그릇·담배·송아지 등으로 이천과 비슷했다.

### 3)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임진왜란 초기에는 이천과 용인 등에서 일본군의 움직임이 그다지 보이지 않았으나, 1592년 **선조 25** 8월에는 전 **前** 훈련원봉사 **訓練院奉事** 이열 **李悅** 등이 조직한 의병이 이천으로 침입한 왜군 1,000명을 물리치고 물러나는 왜적들을 쫓아 50여 명을 벤 일이



있었다. 당시는 전란 초기 선조가 피란하면서 더불어 이천·용인·원주 등에서 경기 일대의 병력을 모아 후퇴하였기 때문에 남은 병사들만으로는 이천지역을 되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의병의 폐해도 늘어갔다. 의병이 관부官簿에 등록만 되어 있을 뿐, 왜적들 앞에서는 이곳저곳으로 도망하는 등 싸움에서 이겼다는 기록이 없었다. 그 후 9월에 적지로 파견된 순찰사 심대沈岱의 보고로 이천과 여주, 음죽과 죽산 일대의 의병은 여주목사驀州牧使 성영成泳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또한 1592년 10월에는 이기빈李箕賓이 이천부사에 제수되고 민심을 수습하는 등 흩어진 관군의 체계를 정비하였다. 아울러 이천 인근에 있는 안성 죽주산성竹州山城은 임진왜란 때 격전지였다. 왜군에게 내주었던 죽주산성을 황진黃進 장군이 탈환하여 왜군은 더 이상 용인과 이천을 넘보지 못했다.

한편, 임진왜란 때 신립申瑰 장군이 충주에서 왜군과 맞서 겨루었으나 싸움에 패하고 신립 또한 전사하였다. 신립의 시신을 한양으로 옮기던 중 이천에 이르자 비로소 그의 넋[魂]이 나갔다는 전설이 신둔면 수광리 광현廣峴에 전해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광현을 ‘넋고개’라 부르기도 하지만 실제 지명은 ‘넓고개’이다.

정유재란 때 이천은 이웃과 가까운 군현郡縣과의 군사작전만이 아니라 군인들의 양식도 담당하였으며, 광주부廣州府의 병력과 합하여 서울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뿐만 아니라 군사 거점인 남한산성이나 여주의 파사성婆娑城에 군량미 공급의 책임도 주어졌다.

1593년 왜군이 퇴각한 뒤 헐어진 성곽들을 고치고 경비를 강화해 온 조선은 왜군이 다시 침략할 것에 대비하여 도체찰사 류성룡을 파견하여 방비상태를 점검하게 하였다. 이때 류성룡과 여주까지 동행한 동지사同知事 노직盧稷은 여주의 파사성에서 이천·죽산·안성 등지의 방어시설을 점검하였다. 정유재란 당시 이천지역은 한성漢城과 가까운 교통로이며 보급로이기 때문에 대부분 왜군의 영향권에 있었다. 또한 적군이 대규모로 주둔한 탓에 의병활동이 활발하지도 못했고 왜군에 극심한 약탈을 당했다. 그런 가운데 이천지역은 가까운 여주의 병력과 합동 작전을 벌여 왜군의 남한강 보급로를 끊어 놓는 등의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 4. 강제 개항과 의병항쟁

### 1) 신미양요와 어재연 장군의 전사

1866년 **고종 3** 제너럴셔먼호 사건이 일어난 후 미군은 이를 문책하는 동시에 강제로 통상조약을 맺기 위해 북경주재 미국 공사에게 훈령하여 아시아함대를 출동케 했다. 그 후 1871년에는 미국 군함이 강화도에 상륙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아시아 함대 사령관 로저스J. Rodgers 등이 다섯 척의 군함과 1,200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조선에 통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하지만 미군은 강화해협을 측량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강화도의 관문인 손돌목(孫勿項)을 지나 광성진(廣城鎭)으로 들어섰고, 이에 강화도 병사들과 맹렬한 포격을 주고받는 일이 발생하였다. 미군은 초지진(草芝鎭)에 상륙하여 포대를 점령하고 광성진을 공격했고, 미군과 어재연(魚在淵) 장군 부대 사이에 치열한 육박전이 벌어졌다. 어재연 장군은 임전무퇴의 결의로 항전하였으나 우세한 무기를 가진 미군에게 패하였고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이때 진무중군(鎭撫中軍) 어재연

신미양요 사건 때 미군에 의해 파괴된 요새와 전사자들(출처 : e뮤지엄)



2007년 미국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서 장기입대 방식으로 고국에 돌아온 어재연 장군기(출처 : 『문화일보』)



신미양요 때 노획한 어재연 장군기를 함선에 걸어 놓은 미군(출처 : 『한국근현대사전』)

등 53명이 전사하고, 미군은 매키McKee 해군 중위 이하 3명이 전사하였으며, 10여 명이 부상당했다. 다음날에는 첨사兪使 이염李濂이 미군 선박을 공격 하자 미국 군함이 우리 해역에서 물러갔다. 이 신미양요辛未洋擾 사건은 조선이 ‘척화비’를 세우는 등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을 한층 굳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신미양요 당시 미군은 어재연 장군기를 강탈하였는데, 오랫동안 미국 아나폴리스에 있는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였으나 2007년 6월 장기대여 형식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어재연 장군기는 장수를 뜻하는 ‘수帥’자를 넣어 일명 ‘수자기帥字旗’라고도 하는데, 가로 4.13m · 세로 4.3m의 대형 크기이며 삼베 재질로 된 현존 유일의 조선시대 장군 깃발이다.

## 2) 의병항쟁과 저항운동

이천은 구한말 항일의병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펼쳐진 지역이다. 을미사변乙未事變과 단발령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일어나기 시작한 항일의병운동은 이천의 의병조직인 ‘이천수창의소利川首倡義所’가 일본군과의 첫 싸움인 광현전투에서 크게 승리함으로써 의병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

광주와 이천을 잇는 3번국도 옆 ‘넓고개’에는 광현전투를 기념하는 ‘이천의병전적비’가 세워져 있다. 이 전적비는 구연영과 신용희 · 김태원 · 김하락 · 민승천 등이 신둔면 수광리 일대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으로 일어난 항일의병운동은 이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때 가장 먼저 의병을 조직하여 경기도지역 의병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이천이다.

1896년 1월 17일, 김하락 · 구연영 · 김태원 · 조성학 · 신용희 등이 이천에서 1,000여 명의 병사를 모아 ‘이천수창의소’라는 의병조직을 결성하였다. ‘이천수창의소’는 일본군 수비대가 이천으로 공격해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광현신둔면수광리넓고개에 군사를 매복시켜 일본군 수십 명을 사살하고 승리를 이끌었는데, 이 전투가 ‘광현전투’다. 의병들은 김하락의 지휘 아래 다음날 새벽까지 치열하게 싸워 이겼고, 후퇴하는 일본군을 광주廣州까지 추격하여 완전히 섬멸하였다. 이때 구연영 의병

광현전투를 기념하는  
이천의병전적비



대와 신용희 의병대가 합세하여 일본군을 포위하고 공격하여 크게 승리하였다.

1907년 군대해산 이후 의병들의 항일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일제는 조선에 주둔해 있는 무장병력을 총동원하여 무자비한 소탕작전으로 의병을 진압하였다. 특히 초기 의병항쟁의 중심무대가 되었던 이천을 포함한 경기 동남부와 충청, 강원도지역이 일본군 토벌작전의 집중적인 표적이 되었고, 이렇게 의병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이천충화사건利川衝火事件’이 일어났다. 이 천충화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1907년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음력 7월 13일, 읍내 유춘달과 송진순 가옥에 대한 일본군의 방화를 시작으로 7월 15일에는 마장면 오천과 신둔면 고척·광현廣峴 등이 집중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어서 7월 16일에는 부발면 신점막, 7월 22일 영월암과 신면 절음리, 7월 24일 발면 북하신하리 등에서 일어났다.

이천충화사건은 의병 토벌과 관련하여 당시 일본군들의 무자비한 만행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물이다. 이천충화사건에 대해서는 당시의 피해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영국의 언론인 맥켄지Frederick A. McKenzie의 생생한 기록<sup>9)</sup>이 남아 있고, 같은 시기의 『대한매일신보』를 비롯한 신문보도를 통해서도 단편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또 당시 이천 군수가 관찰사에게 보고한 피해기록 문서에는 사망 14명, 부상 2명 등으로 피해자는 모두 16명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의병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일반 주민들이었다.<sup>10)</sup>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난 구연영1864~1907은 김하락金河洛과 함께 ‘이천수창의소’를 주도한 인물이다. 구연영은 이천에서 광현전투를 승리로 이끈 지 6개월 만에 다시 고향인 광주로 귀향하였다. 이후 1897년 기독교에 입문하고 광주·이천·여주·장호원 지역에서 기독교 전교를 시작했으며, 이천 읍내로 이주해 24개 교회를 돌보

9) F.A·맥켄지, 『조선의 비극』, 을유문화사, 1984.

10) 이인수, 「정미년 의병항쟁과 이천충화사건」, 『설봉문화』 봄·여름호, 이천문화원, 2009, 9~32쪽.



구연영, 구정서 순국추모비(이천중앙교회)

는 책임까지 맡았다. 그의 아들 구정서도 부친의 뒤를 이어 부자가 함께 이천·광주 지역 교회를 돌보았다.

1907년에는 구연영을 중심으로 한 ‘구국회救國會’가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고, 김봉기·임형순·신창현 같은 의병장들이 이천을 무대로 활약하였다. 당시 이천의 의병항쟁이 매우 격렬하다 보니 일본군들의 무차별한 보복과 만행으로 ‘이천 충화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던 중에 구연영은 서사書司로 일하던 이용주의 밑고로 아들 구정서와 함께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1907년 7월 16일 순국하게 된다. 당시 구연영의 나이는 44세, 아들 정서의 나이는 25세였다.<sup>11</sup>

## 5. 일제의 침탈과 이천의 독립투쟁

### 1) 행정구역 개편

이천도호부와 음죽현에서 행정구역의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은 1895년에 이르러

11) 김동옥, 『순국열사 순교자 구연영 전도사』, 한국감리교회사학회, 1988.



서였다. 이때부터 음죽지역은 이천군에 소속되어 이천군수가 겸임하였으며, 이천과 음죽은 여주·용인·양지와 함께 충주부에 소속되었다.

1912년 이천군에는 둔면屯面·신면新面·사면沙面·백면栢面·부면夫面·발면鉢面·초면草面·월면月面·가면加面·모면幕面·대면大面·호면戶面·장면長面·마면麻面·읍면邑面 등 15개 면에 126개 동·리가 있었고, 군청은 읍면 사고전司庫前에 있었다. 또 음죽군은 군내면郡內面·남면南面·동면東面·근북면近北面·원북면遠北面·서면西面·하울면下栗面·상울면上栗面 등 8개 면에 80개 동·리가 있었고, 남면 평촌坪村, 현 장호원에 군청 소재지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으로 도의 위치, 관할구역과 부·군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개편을 대대적으로 단행했다. 당시 경기도에 소속된 부와 군은 경성부京城府·인천부仁川府·고양군高陽郡·부천군富川郡·시흥군始興郡·수원군水原郡·진위군振威郡·안성군安城郡·용인군龍仁郡·이천군利川郡·김포군金浦郡·강화군江華郡·과주군坡州郡·개성군開城郡·포천군抱川郡·연천군漣川郡·광주군廣州郡·양평군楊平郡·양주군楊州郡·가평군加平郡·여주군驪州郡·장단군長湍郡 등 2부 20개 군이었다.

이천군과 음죽군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천군 일원과 음죽군 일부, 충북 음성군 법왕면과 두의면 일부 등을 통합하며 이천군으로 묶었다. 이 시기에 개편된 이천군의 행정구역은 해방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천시와 부발읍의 승격 및 몇몇 동洞을 나눈 것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었다.

한편, 이천은 전통적으로 농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1915년 당시 이천의 인구는 조선인 1만여 호 4만 7,600여 명, 일본인 90호 270명이었다. 100호 이상의 집단지로는 읍내면이 689호 2,9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미면·오천리·도립리·신갈리·단월리 등은 모두 200호 이내에 불과하였다. 1929년에는 조선인 5만 4,984여 명, 일본인 359명으로 14년 동안 인구 약 14%가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조선 전체의 폭발적인 인구증가율 20%에 미치지지는 못하였지만 증가율 자체만으로 본다면 구한말과 비교하여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다. 그 후 1937년 이천의 인구는 전체 6만 6,367명으로 8년 동안에 무려 17%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2) 비운(悲運)의 향교 석탑과 수여선

이천향교 앞에 있던 오층석탑은 이천의 대표적인 불교 미술작품의 하나였다. 높이 6.5m에 보존상태가 뛰어나서 고려 석탑의 형식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 탑은 1915년 일제가 조선물산공진회(朝鮮物産共進會)를 열면서 경복궁 경내(당시는 조선총독부 박물관 경내로 옮겨갔다. 공진회장에 진열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는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사실은 우수한 조선의 문화재들을 수탈하기 위한 속셈이었던 것이다.

일제의 권력층을 등에 업고 대재벌이 된 오쿠라(大倉)는 경제침략만이 아니라 문화재수탈에도 앞장서 엄청난 양의 우리 문화재들을 일본으로 빼돌린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경복궁 자선당(慈善堂) 건물을 통째로 뜯어다가 자신의 저택에 옮겨 짓고는 자선당을 돈보이게 한다는 핑계로 조선의 잘 생긴 석탑에 눈독을 들였다. 처음에는 평양의 팔각칠층석탑을 욕심냈으나 서슬 퍼런 조선총독부 관리들도 당시 조선인들의 이목이 두려웠기에 평양석탑을 양도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가 없었다. 그 대신 조선총독부 박물관 경내로 이미 옮겨 놓은 탑을 선택하게 되었고,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총독의 비호와 협조 아래 이천향교 석탑은 1918년 10월경 일본 동경의 오쿠라호텔 옆 오쿠라 슈코칸(大倉集古館) 경내로 옮겨지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sup>12)</sup>

한편, 일제는 1912년 6월 「조선경편철도령」을 제정·공포하여 사설철도를 건설하였다. 수원을 출발하여 용인과 이천을 거쳐 여주까지 다닌 수여선(水驪線)은 1928년 8월에 설립된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에서 건설하였다. 본사는 수원에 두었으며, 1930년에 수원-이천, 1931년에는 이천-여주를 운행하였다.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는 수여선 이외에도 수원-이천 간 54km의 수인선을 보유하여 총 127.4km의 영업선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선의 철도는 화물수송이 여객수송을 능가했다. 이는 이천과 여주로 모이는 화물수송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지로서 기능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시 수여선은 증기선으로 하루 5회 운행되었고, 수원-여주 간 소요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였다. 일제강점기에 수원-용인-이천-여주를 잇는 수여선이 개통된 것은 경기 동남부의 쌀을 인천항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것

12) 이인수, 「이천오층석탑의 수탈과정과 가치 및 의의」, 『설봉문화』 가을·겨울호, 이천문화원, 2008, 19~26쪽.

일제가 경복궁 경내로  
옮겼다가 일본으로 빼돌  
린 이천향교 오층석탑



수여선을 달리던 열차  
(나우용 제공)



이었다. 수여선은 광복 이후에도 운행되다가 1972년에 운행을 중단하였다.

### 3) 3·1만세운동과 독립투쟁

#### 이천지역 3·1만세운동

이천의 3·1만세운동은 3월 말과 4월 초에 걸쳐 신문면·마장면·모가면·백사면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1910년대 이전에 일어났던 민족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개성에 있는 기독교 계통의 ‘한영서원’ 학생과 목사가 시위를 준비하여 3월 3일 만세운동을 시작했으며, 이어 고양군에서 일어났다. 9일에는 인천, 10일에는 양평, 11일에는 평택과 안성에서도 일어났고 이후 경기도 내 모든 시·군 지역으로 확산되었는데,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 동안 이천군 전 지역에서 대대적인 만세운동이 펼쳐졌다.<sup>13</sup>

이천 읍내면의 시위는 함규성·문건식, 그리고 이천공립학교 학생 최종석·강문형·서석운 등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문건식은 4월 2일 이천장날을 택해 태극기를 미리 준비하고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300여 명이 참가한 시위에서는 일본 헌병대의 발포로 인해 7~8명이 즉사하고 많은 부상자가 생겼다. 상인도 시위에 동참하여 가게 문을 닫았고, 밤에는 인근 산 위에서 봉화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읍내에서 이발업에 종사하던 21세의 함규성은 이날 밤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주도했다. 이날의 시위는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지속되었다.

마장면은 박종설·이창호·김기재 등이 주동이 되어 3월 30일 오천 장날을 시작으로 2~3일간 계속되었다. 오천의 시위는 천도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1,000여 명의 군중이 합세하였다. 덕평에서는 별도로 약 300여 명이 모였지만, 시위가 격렬하게 진행되어 일본 헌병분견소장이 이창호를 체포하여 심문하였다. 주민들은 주재소로 가서 이창호의 석방을 요구했고, 오후에는 산으로 올라가 봉화를 올리고 밤새도록 만세시위를 펼쳤다. 다음날 풀려난 이창호·김기재 등은 일본군의 발포에도 거리낌 없이 다시 만세시위를 주도했다.

신문면은 4월 1일 수광리 신문면사무소에서 농민인 서기창·이상혁을 중심으

13) 이인수·신배섭·임혜봉, 『이천독립운동사』, 이천문화원, 1996.



1920년대의 이천읍(당시 읍내면)



신둔면 수광리 독립운동기념비

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3월 31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사발통문沙鉢通文을 작성하여 집집마다 돌려 읽었다. 이들은 500여 명을 소집하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했다.

모가면은 권중효·한석동이 중심이 되어 일어났다. 권중효는 신둔면 만세운동을 위한 사전 모임에 참가했다가 모가면 서경리에서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같은 마을에 사는 매형 한석동과 협의했다. 이들은 4월 2일 저녁, 마을사람을 설득하여 주민 150여 명과 함께 인근 용봉산에 올라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청미면은 4월 4일 주민들이 백족산 정상에 올라 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했다. 이때 인근 여러 면에서 호응하여 연합시위를 펼쳤는데, 시위에 참여한 수는 각기 100여 명에 달했다. 이에 일본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발

포하면서 해산시키려고 했는데, 시위에 참가한 주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산 위에 올라가 돌을 던지며 저항했다.

백사면은 송말리에서 임덕재·임예제·임경순·임재순 등 4명이 주동이 되어 주민과 함께 산에 올라가 만세를 부른 후, 면소재지인 현방리로 향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마을을 돌며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글을 뿌렸으며, 시위 도중 참가자 수가 점차 늘어나자 백사면장을 시위대 앞에 세워 독립만세를 부르게 했다.

대월면 부필리에 사는 김세환이 주동이 되어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그는 곧 이천 헌병대에 검거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다. 군량리에서는 김보연이 중심이 되어 마을주민들과 뒷산에 모여 만세시위를 벌였다. 한편 부발면은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으나 면사무소 마당에 모여 100여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한다.

### 이천지역 독립투사들

1905년 읍내면 창전리에서 태어난 이수홍은 중국 길림<sup>吉林</sup>에 있는 ‘신명학교’에서 독립군 간부 훈련을 받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 주만참의부 특무정사로 임명받아 독립군 활동에 참가했다. 그는 1926년 5월 권총 2정과 실탄 176발을 휴대하고 국내로 잠입하였다. 군자금 마련을 위해 그해 7월 6일 황해도 평산군의 김상렬과 부잣집인 함성호에게 군자금을 요구했고, 같은 달 10일 서울 동소문파출소를 습격하여 일본인 순경에게 중상을 입혔다. 또한 일본경찰의 검문 속에서도 9월 9일 안성 부잣집 박승육이 군자금 요구에 불응하자 그의 아들을 사살했으며, 10월 20일 이천군 백사면 면사무소와 현방리 경찰주재소를 공격했다. 7월부터 5개월에 걸친 그의 활동은 6촌 형의 밀고로 붙잡혀 1929년 25세의 나이로 사형당했다.

한편 이수홍의 활동을 도왔다는 이유로 유택수와 유남수 형제가 일본 경찰에 검거되었다. 유남수는 이수홍과 동갑으로 보통학교 졸업 후 잠시 조선총독부 식산국<sup>朝鮮總督府 殖産局</sup>에서 사환<sup>使喚</sup>을 했으며, 1926년 4월부터 9월까지 조선일보 이천지국 기사를 지냈다. 당시 언론사 지방 지국은 신문사의 보급처 업무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정을 전국적으로 알리며 지역 민족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담당했다. 유택수의 경우 동생을 통해 이수홍을 만났고 그를 도와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 수은동<sup>현 종로구 묘동</sup>의 전당포를 습격했다.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와 피신하다가 그





순국선열 이수홍 동상(창전동)



「이수홍 의사 옥중서한비」

해 11월 이수홍이 체포될 때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28년 12월 경성복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1929년 2월 서대문형무소에서 29세의 나이로 순국했다.

이기룡은 부발읍 출신으로 3·1운동 후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했다. 당시 35세의 나이로 임시정부 의정원 경기도의원 8명 중 한 사람으로 선출되어 임시헌법과 의정원법을 제정하고 구급의무금 모집, 인두세 징수 등을 가결하는 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1919년 7월 8일에 열린 제5회 의정원회의에서 공채발행과 이승만·김규식·서재필 등 3인을 국제연맹에 특파원으로 보낼 것을 가결하고 의정원법 제3장 제21조에 의하여 각 분과위원회를 선출할 때 청원위원회 이사로 선정되었다. 같은 해 7월 1일 상해에서 조직된 대한적십자회의 상의원을 역임했다.

한편, 만주 독립군의 비밀연락기관을 서울에 설치하기 위해 활약하다 옥사한 김원조金遠祚가 있다. 또한 김구金九의 정보원으로 활약하다 옥사한 여기환余基煥, 국민교육회 및 신민회 조직에 힘쓰고 전국적으로 배일운동을 지도한 전덕기全德基 목사 등이 있다.



## 6. 6 · 25전쟁과 현대 이천의 시기별 변화

### 1) 8 · 15해방과 6 · 25전쟁의 발발<sup>1945~1950년대</sup>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새로운 국가수립의 기회이자 격렬한 정치투쟁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천지역도 예외가 아니라 좌익계열의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우익진영에서도 지역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과 지주층을 중심으로 치안대와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등을 조직하였다.

이천은 일제강점기에 징용과 징병이 많았는데, 마을당 4~5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리고 지리적 관점에서도 미군정의 주둔 등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천은 경기도 동남부에 위치하며 전통적으로 서울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는 수도권 지역이다. 대부분의 토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지주<sup>地主</sup>들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서울과의 인접성으로 인해 부재지주<sup>不在地主</sup>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이었다.

북한의 남침 소식은 6월 25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천 전역에 알려졌다. 26일 오후에는 북한군이 서울에 이르렀으며 정부가 피난을 갔다는 풍문도 돌았다. 주민들은 별로 혼란스러워 하거나 술렁이지 않았으며 피난 준비를 하는 이들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뒤늦게 짐을 꾸려 서울을 떠난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밀려오면서 상황의 급박함을 느끼게 되었다. 7월 1일에는 광주군 도착면 노곡리에서 싸우다 다친 부상병 10여 명이 트럭에 실려 오기도 했으며, 7월 3일에는 마장면 오천에서 또 부상병을 실은 트럭이 오는 등 전쟁의 검은 그림자는 성큼성큼 이천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부상병들을 남쪽으로 옮겨간 직후인 7월 4일 오후부터 이천읍에 북한군의 공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천읍은 7월 4일부터 북한군의 통치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군이 코앞에 다다른 7월 4일 오후, 이천 읍내는 피란을 떠나는 이들로 아수라장이었지만 미군이 곧 도착한다는 소식에 대한 기대로 피란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다. 피란을 떠난 사람들은 인천상륙작전으로 북진하는 국군과 유엔군을 따라 10월 초에야 이천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38선을 돌파한 국군과 유엔군은 빠른 속도로 북진하였지만 중국군이 참전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군은 게릴라 전술을

‘썬더볼트전투’  
작전 요도



결합시켜 유엔군과 국군을 궁지에 몰아넣었고, 북한군과 함께 남진하여 1951년 1월 4일 다시 서울을 장악했다. 중국군의 참전 이후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이 다시 빠른 속도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사람들은 다시 피란을 떠나야 했다.

1950년 연말부터 후퇴하던 군대가 이천에 주둔하고 임시교사 건물을 사용하면서 열었던 학교도 다시 문을 닫게 되었다. 이천 사람들이 다시 피란을 떠난 것은 서울을 빼앗긴 1월 초였다. 이들은 대부분 충북 보은까지 내려갔고, 1월 15일 이후에는 보은군에 설치된 12수용소에 머무르면서 겨울을 견뎌내야 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이천 인근에서도 여러 차례 격전이 벌어졌다. 그중에서도 1951년 1월 이후 이천 북방 10km 지점인 원적산(圓寂山) 고지에서 벌어진 전투가 있다. 전략적 요충지를 빼앗길 경우 국군과 유엔군으로서는 이천 인근의 여러 지역을 방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격렬한 공방전 끝에 국군과 유엔군은 방어에 성공했고 전선은 다시 이천 북쪽으로 옮겨졌다.

1951년 2월에도 여주 방면에서의 공격을 격퇴하고 국군과 유엔군이 여주 동북 방으로 진출한 전투<sup>2월 2일</sup>, 이천 동북방 16km 지점에서의 전투<sup>2월 9일</sup>, 9일과 마찬가지로 이천 북방 16~20km 지점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려 했던



이천시 6·25참전기  
념비

1,000여 명의 적군과 벌인 전투<sup>2월 12일</sup> 등 여러 차례 교전이 있었다.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되찾은 후 피란을 떠났던 이천 사람들은 3월 10일 전후로 이천으로 돌아왔으며,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다시 피란을 떠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 후 학교들이 수업을 재개하고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움직임들이 계속되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리고 1953년 7월에는 전국적인 물난리로 인해 이천지역도 큰 피해를 입는 등 휴전이 될 때까지 이천 주민들은 힘겨운 생활을 지속해야 했다.

정부수립 후 미군정기 지방행정제도가 존속되었고, 「지방자치법」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군·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종전대로 유지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정부수립 당시 이천군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천읍과 장호원읍 등 2개 읍과 신둔면·백사면·부발면·호법면·마장면·대월면·모가면·설성면·율면 등 9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천의 행정 및 치안체계는 막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6·25전쟁을 계기로 심한 타격을 입었다. 이천은 1950년 7월 4일에 인민군에게 점령되었으며, 수복과 후퇴를 반복한 후 1951년 2월 26일에서야 경찰대를 필두로 행정·치안 관서가 들어올

1953년 이천 읍내 전경



수 있었다. 그래서 행정·치안 방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중 하나는 인민군의 점령으로 인해 행정·치안체계가 붕괴되고 민간차원의 갈등이 격화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 중에 주요시설 및 서류가 대부분 소실·파손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행정과 치안은 안정을 되찾아 갔으며, 1952년에는 전쟁 중에서도 읍·면의회 의원선거를 치루기도 했었다.

1954년 군청직원 정원은 국가공무원 26명과 지방공무원 10명이었다.<sup>14</sup> 본래 이천군청은 일제 때 헌병대를 거쳐 경찰서로 빼앗겼기 때문에 옛 관아 앞에 있는 건물을 군청으로 사용하다가 그 자리에 신축하였다.

## 2) 이천군 행정체계 변화(1960~1980년대)

1950년대 면(面) 중심이던 지방행정체계는 1960년대에 들어와 군(郡)을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행정조직 또한 점차 세분화되면서 확대되어 나갔다. 5·16군사정변으로

14) 이천대관편찬위원회, 『이천대관』, 1955, 75쪽.





1960년대 이천경찰서 호법지서  
(1968)



1970년대 새마을운동 배수로 청소  
(1971, 이천읍 창전리 현 중앙통,  
이규상 제공)



1980년대 이천읍내(1986)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기관이던 군<sub>郡</sub>이 자치단체로 승격되었고, 종전에 자치단체이던 읍·면은 자치단체의 기능을 상실하고 군의 보조기구화 되었다. 행정기구는 1961년 내무과·재무과·교육과·산업과·건설과 등 5개 부서가, 1962년에는 공보실·농촌지도소·보건소가 설치되었다. 이천군청 기구의 확대에 따라 공무원은 1964년 59명에서 1965년에는 84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반면 이천읍과 장호원읍사무소 등 9개 면 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964년 126명에서 1965년에는 137명으로 증가하여 군청에 비해 적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다.

1970년대 들어서도 행정기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1970년 정부는 ‘농촌 근대화 10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농촌의 발전을 추진하였는데, 농촌 근대화의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새마을운동’이었다. 1972년 농촌 근대화를 위해 추진된 새마을운동의 전국적 실시에 따라 내무과에 새마을계가 신설되었고, 감사실이 내무과에 흡수되었다. 1973년에는 새마을계가 새마을과로 확대되었다. 새마을과에서는 농사개량, 생활개선,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갔다. 1973년에는 농림과가 농산과와 산림과로 분리되었고, 1974년에는 부군수직제가 신설되면서 새마을과의 업무가 부군수실로 흡수되었으며 1975년 민방위과가 설치되었다. 1977년 이천군 행정기구를 살펴보면 각 과 산하에 새로운 부서들이 등장하고 있다. 내무과에는 복지계·위생계·부녀아동계가, 농산과에는 산업행정계가 새롭게 신설되었다. 1978년에는 부군수실에 주택계가 신설되었고, 1979년에는 새마을과가 독립하고 사회과가 신설되었으며 공무원은 440명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농산과에 원예계가, 식산과에는 상공계, 건설과에는 지역계획계가 신설되었다. 1982~1983년에는 두 차례 개편이 있었는데, 부군수직제가 폐지되었고, 문화공보실에 문화공보계가 신설되었으며, 내무과의 병사계가 민방위과 병사계로 이동하였다. 사회과는 위생계가 분리되면서 공해방지계가 신설되었다. 식산과 내의 잠업계는 폐지되고 농산과의 원예계가 특작계로 개칭되었다. 보건소에는 가족보건계가 신설되었으며 방역계가 예방의약계로 변경되었다. 1985년에 부군수제도가 부활되었고, 기획실이 신설되어 기획·예산·통계 등 기본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문화공보실에는 문화관광계가 신설되었고, 내무과에는 민원계와 위민실이 신설되어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지적과·환경보호과·지역경제과·도



시과가 신설되었고 사회과의 업무는 대폭 확충되었다.

한편, 농촌 행정기구의 변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화관광사업·환경개선사업·도시계획사업 등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었다. 1975년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이천군과 서울간의 시간적 거리가 단축되기 시작했고, 1980년대 중반부터 많은 제조업체가 들어서 산업발달이 현저하였다. 또한 각종 관공서의 신축·증축 사업과 도로의 확장·포장 사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1982년에는 군민도서관을 개관했고, 1984년에는 이천군 청사가 개축되었다. 1985년에는 이천군 민원실과 장호원을 청사가 신축되었고, 1989년에는 이천군민회관과 체육관이 신축되었다. 이와 함께 도시 계획 사업도 추진되었다. 이천군이 발전함에 따라서 기존의 시가지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천군 향토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관광사업이 발전한 것도 변화된 모습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이천문화원이 주축이 되어 『이천군지』와 향토의 지명유래집이 발간되었으며, 울면의 어재연 장군 생가와 이천읍의 이천향교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도예촌에 대한 지원·육성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88올림픽 개최와 더불어 이천읍 사읍리 사기막골 일원의 도자기 마을 정비·육성계획이 수립되어 관광지로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사읍리 일대가 관광단지로 조성되었고, 1988년에는 이천도예전시관이 문을 열었다. 1983년 10월에 현대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준공하였으며, 1989년 부발면이 부발읍으로 승격되었다.

### 3) 시 승격과 지역축제 활성화<sup>1990년대</sup>

1987년 9월에는 제1회 설봉문화제 및 이천도자기축제가 열렸다. 제1회부터 1994년 제8회까지는 이천문화원이 주관하였다. 초기에는 부족한 예산으로 인한 행사준비의 어려움과 도예인의 저조한 참여로 소규모 형태의 축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이었으나, 1995년 제9회부터는 문화부의 시범행사로 지정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으며 독자적인 축제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또 1996년에는 이천도자기축제가 ‘전국8대관광축제’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를 개최하는 된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이천시내 전경(1999)



1995년에는 전국 최초로 이천에서 생산되는 쌀에 ‘임금님표’란 농산물 브랜드 상표를 붙이고 집중적으로 홍보하면서 이천쌀과 쌀밥이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다. 1996년 3월 이천군이 시로 승격되면서 이천읍이 창전동·관고동·중리동 등 3개 동으로 분할되었고, 대월면 단월리·장록리·대포리·고담리를 중리동으로 편입하였다. 1996년 3월 1일에는 도·농 복합시로 승격됐으며, 2003년 2월 5일 창전동에서 증포동이 분동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시 승격 당시 인구는 16만 명이었으며, 가구수는 4만 9,000가구, 자동차 등록대수는 3만 5,000여 대, 예산은 1,338억 원이었다. 상수도보급률은 36%였으며 기업체 279개소, 의료기관 81개소, 보육시설은 10개소였다.

1998년 7월에는 제1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이 10일부터 24일까지 마장면 해월리에서 개최되었다. 심포지엄에는 한국·아르헨티나·브라질·영국·페루 등 세계 17개국의 조각가 26명이 출품하였으며, 사랑과 평화를 주제로 조각전시회가 열렸다. 제작된 작품은 이천시가 기증받아 설봉조각공원에 영구 전시하고 있으며, 9월에는 김종필 국무총리가 온천광장에서 열린 제12회 이천도자기축제 개막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같은 해 장호원에서는 제1회 ‘햇사레장호원복숭아축제’를 진암리 복숭아과수원에서 개최하였다. 2000년까지는 4월에 복숭아과수원에서 이벤트와 볼거리를 볼 수 있는 작은 축제였지만, 2001년부터는 복숭아 출하시기인 9월에 개최하여 지금까지 이천의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99년에는 안동시와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졌으며 사회·경제·문화예술·체육 등 각 분야에 걸쳐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안동의 탈춤축제와 이천도자기축제 등 대표적인 문화교류를 확대해 양 지역 발전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 이천쌀문화축제는 그해 이천농업인축제로 시작하여 2001년에는 이천햐쌀축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격적인 지역축제로 발돋움하기 시작하였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전통 농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으며 어른들은 옛 향수를 자아내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다. 2004년에 ‘이천쌀문화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이천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금까지 해마다 10월에 개최하고 있다.

세계도자엑스포 2001  
경기도(2001년 8~10월)



#### 4) 세계적인 도자도시로 우뚝 서다<sup>2000년대</sup>

2001년에는 ‘세계도자엑스포2001경기도’의 주행사장으로 설봉공원에 세계도자센터가 준공되었고,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과 곤지암IC 사이에 신설되는 서이천IC가 개통되었다. 특히 ‘세계도자엑스포2001경기도’는 ‘흙으로 빛는 미래<sup>Shaping the Future with Earth</sup>’를 주제로 내걸고 설봉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식은 김대중 대통령 내외를 비롯하여 토니 프랭크스 국제도자협의회<sup>AC</sup> 회장, 주한 외교사절 등 초청 인사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02년에는 미군기지 이천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장관에게 항의 서한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11월에는 한성도읍기<sup>BC 18~AD 475</sup>의 백제 군부대 막사가 처음으로 장호원읍 선읍리 설성산성에서 확인됐다.

2003년에는 창전동에 속해 있었던 안흥동·갈산동·증포동·송정동 지역을 증포동으로 분할하였다. 그리고 설봉산성에서는 연도<sup>年度</sup>가 기록된 통일신라시대 최고<sup>最古</sup>의 벼루가 출토됐다. 이는 865년<sup>통일신라 경문왕 5</sup>에 제작된 것으로 길이 9.6cm, 폭 5.7~7.5cm, 두께 0.3~1cm의 사다리꼴 모양의 벼루이다.

2004년에는 고려의 북진정책을 주도했던 서희<sup>徐熙, 942~998</sup> 선생 동상이 건립됐다. ‘고려는 고구려 땅’이라고 주장해 거란 군사를 철수시키고 강동6주를 회복한 이천 출신 서희 선생 동상은 설봉공원에 세워졌다. 서희 선생 동상은 몸체 높이 2.8m에 좌대 높이 2.5m이며, 사회단체 모금액 4,380만 원을 포함해 8,000만 원을 들여 제작했



2000년대 이천시내 전경(2006)



다. 또한 서울 풍납토성과 부여 나성羅城, 김제 벽골제와 같은 백제성곽이나 저수지에서 확인된 부엽敷葉 공법이 산성山城을 쌓는 데도 적용되었음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고고학 자료가 사읍동 일대에 소재한 삼국시대 고대 성곽인 설봉산성에서 확인됐다.

2005년에는 전국 처음으로 경기도 내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할 광역 소각시설이 건립되었다. 호법면 안평3리 일원 11만 4,510㎡에 들어설 광역 소각장에서는 하루 300톤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설봉공원에 ‘설봉서원’을 복원하기로 하고 기공식을 가졌다.

2006년 6월에는 유승우 이천 시장이 3선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그동안 유 시장은 쌀·도자기·산수유·복숭아 등 이천의 대표 지역 특산물과 연계된 4대 축제의 활성화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구현 등 이천을 경쟁력 있는 문화도시로 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천 시장에 조병돈 부시장 이 당선되었다.

2007년 8월 14일에는 설봉공원에 이천시립월전미술관을 건립해 개관식을 가졌다. 미술관은 국비를 포함한 53억 원을 들여 9,50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1,981㎡ 규모로 건립됐다. 건축물은 음양의 공간, 달[月]의 공간, 학鶴의 비상하는 공간 등을 디자인 콘셉트로 지어졌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로 표기하는 법률이 시행돼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만들어진 새주소로 개편되었다. 새주소는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번 표기 방식에서 도로명과 건물 번호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2008년 4월 11일, 중리동에 이천시 청사 개청식을 갖고 ‘인구 35만 자족도시’를 향한 힘찬 도약과 출항을 대내외에 알렸다. 새로 지어진 청사는 부지 면적 6만 5,333㎡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이고, 시의회동은 지상 3층 연면적 2만 2,115㎡으로 건립됐다.

한편, 현대 한국화의 거장인 고故 월전月田 장우성張遇聖, 1912~2005 선생의 아들인 장학구 월전미술문화재단 이사장이 부친의 생전 유지를 받들어 1,000억 원대의 자산을 이천시에 기부했다. 또한 선생의 유작과 소장품 1,532점 등 시가로 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월전미술문화재단 소유의 소장품도 기증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로서는 전국 최초로 ‘이천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이 창단되었다. 트라이애슬론팀은 주니어 국가대표팀과 경기도 여자팀 감독을 역임한 주귀남 감독과 전





국체전 등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한석주 · 장상근 · 변규태 등 3명의 선수로 구성됐다.

설봉공원과 이천시내  
전경(2017)

2009년에는 옛 이천시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이천시 종합복지타운으로 개관하였다. 이천시 종합복지타운은 어린이도서관과 여성 · 장애인 · 노인종합복지회관 등을 두루 갖춘 복합복지시설로 이천시에서는 처음으로 개관하는 종합복지시설이다. 대지 면적 1만 1,168㎡에 건물 연면적은 8,950㎡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 1동과 별동 1동을 갖추고 있다. 같은 해 8월에는 외교통상부가 서희 선생을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로 선정했다. 외교통상부가 처음 시행하는 외교를 빛낸 인물로 서희 선생을 가장 먼저 선정했다.

#### 5)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민원행정 최우수 도시 선정<sup>2010년대</sup>

2010년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지자체장이 주민과 약속한 공약이행을 성실히 실천하고 온라인 소통을 활성화하며, 공정계약으로서의 공약제안과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에서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공약이행 우수 지자체 Best5’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는 일제강점기에 반출된 오층석탑을 되찾기 위해 10만 9,017명에게 석탑 반환에 대한 서명을 받았다. 서명인 숫자는 이천시 전체 인구<sup>19만 9,125명</sup>의 55%에 달한다. ‘이천오층석탑’은 고려 초기에



“이천역에 설치된 유네스코 창의도시 조형물”

만들어졌으며 높이 6.48m의 석탑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경복궁에서 열린 박람회장에 장식용으로 옮겨놓았던 것을 일본인 오쿠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郎]가 인천항을 통해 도쿄로 반출했다. 현재는 도쿄 오쿠라 호텔 뒤뜰에 세워져 있다.

2010년에는 ‘인구 35만 계획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원년’을 선포하고 7대 핵심 추진사업 과제를 수립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각 부분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중리와 마장지구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등 35만 계획도시 기반을 확충하였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

며, 쾌적하고 편리한 녹색도시환경과 문화관광, 그리고 교육과 체육부문의 지속적인 발전과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2011년에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민원행정 업무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친절은 우리가 프로’란 민원 행정서비스 실천 구호 아래 민원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외부강사를 초청한 아침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장이 직접 민원상담제를 실시하고 야간민원센터도 운영해 왔다. 이와 함께 민원 모니터와 실무종합심의회 및 사전 상담제 운영 등을 통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우수한 민원시책 분야와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 신속하고 친절환 민원서비스 제공 등의 분야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12년 2월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이천·여주 선거구에서 이천이 단독 선거구로 변경되었다. 아울러 꾸준한 인구증가 추세를 이어가며 각종 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6월 30일 기준으로 이천시 주민등록상 인구는 남자 10만 7,008명, 여자 10만 3,130명 등 총 21만 138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장호원에서는 경기도교육연수원 개원식이 있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은 2010년 11월 착공하여 20개월의 공

사기간을 거쳐 개원하였으며, 연면적 2만 7,608㎡<sup>8,366평</sup>에 온누리관<sup>본관동</sup>·나래울관<sup>체육동</sup>·해오름관·달맞이관<sup>속소동</sup> 등 우리말로 명명한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3년에는 ‘쌀’을 테마로 한 이천 농업테마공원이 문을 열었다. 199억 원을 들여 모가면 어농리에 조성한 농업테마공원은 15만 460㎡ 부지에 농촌체험과 사계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입춘마당<sup>春</sup>·신록



2013년에 문을 연 이천 농업테마공원

의 들<sup>夏</sup>·풍년마당<sup>秋</sup>·쉽공<sup>冬</sup>의 구조로 꾸며졌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문화국·여성가족과가 신설되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sup>영아총일제 61가정·시간제 942가정</sup>과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을 모든 계층<sup>0~5세</sup>에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한편 24시간 운영되는 지역응급의료센터도 건립하였다. 그리고 2021년까지 15조원을 투자하는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확정하였고, 중포 3·4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sup>이천고 주변 48만㎡·2,850세대</sup>하였으며, 마장패션물류단지<sup>80만㎡</sup>와 국내 최대규모인 프리미엄 휴게소<sup>중부고속도로 마장휴게소 10만 3,000㎡</sup>를 개장하였고, 중리동에 380억 원을 투자하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유치하였다. 이밖에도 상수도보급률이 2012년 90.8%에서 2013년 92%로 확충되었으며, 농업테마공원을 준공하여 개장하였다. 그리고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문화교류<sup>프랑스 리모주·이탈리아 파엔자·미국 산타페</sup>를 했으며, 배드민턴 실내경기장<sup>종합운동장 부지. 전용경기장 10면</sup>을 착공하였다. LG트윈스 2군 경기장<sup>대월면 부필리. 20만 4,000㎡·관람석 874석</sup>과 두산 베어스파크 2군 경기장<sup>백사면 경사리. 8만㎡·관람석 500석</sup>을 확장·착공하였다.

2014년에는 민선6기로 ‘함께하는 행복도시 A·R·T 이천’ 건설을 위해 ‘따뜻한 성장’, ‘함께하는 시정’, ‘완성과 재도약’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의 대표기업인 SK하이닉스가 M14 라인을 준공하여 이천시와의 동반성장을 주도하였다. 시민의 숙원사업이던 ‘300명상 이상의 종합병원 건립’도 결실을 맺어 2018년 설립을 앞두었으며,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과 성남에서 이천을 잇는 자동차 전용도로 사업, 중리·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활기 넘

치는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그 결과로 ‘민원행정 부문’ 전국 최우수기관 및 대통령 상 수상, ‘국민행복 민원실’ 선정, ‘지방규제 개선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전국 지방재정 균형 집행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경기도 재난관리실태 평가 최우수, 농정업무 평가 최우수, 국가 브랜드 대상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5년에는 정부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sup>나</sup>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이천 중리택지개발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승인받아 본격 개발에 들어갔다. 중리지구는 전국 최초로 한국개발연구원<sup>KDI</sup>의 예비 타당성조사를 거쳐 진행돼 왔으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전제조건으로 KDI 등 전문기관의 사업 타당성조사 등의 조항이 생기면서 중리지구를 전국 최초의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뒤 KDI에 용역을 의뢰하였다. 그리고 2009년 경기도 체육대회에 이어 2011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천시가 또다시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201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하였다. 한편 일제가 불법 반출한 이천오충석탑 반환 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5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제 불법 반출 문화재 이천오충석탑 반환 촉구 결의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이천오충석탑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자료공개를 대한민국정부 차원에서 일본정부에 요청하고, 일본정부도 반환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6년에는 거란의 침략 때 적장과의 담판으로 싸우지 않고 승리를 가져와 ‘외교의 귀재’로 추앙받는 서희 선생을 기념하는 ‘서희테마파크’가 문을 열었다. 서희테마파크는 1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발읍 무촌리 효양산 자락 14만 2,000여㎡에 조성되었다. 테마파크는 지상 2층, 연면적 610㎡ 규모의 서희역사관을 비롯해 스토리텔링 산책로와 추모관으로 구성됐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천 수광리 오름가마’를 등록문화재 제657호로 등록했다. ‘이천 수광리 오름가마’는 1949년에 제작됐으며 22~25°의 경사지에 진흙과 벽돌로 만들어진 길이 27m 폭 2~2.3m의 계단식 등요<sup>登窯</sup>, 오름가마다. 총 12칸의 가마로 구성돼 있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가마의 폭이 넓어지고 천장은 높아지는 구조인데, 현재까지 지속해서 사용되는 ‘장작가마’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그리고 9월 24일 개통한 경강선<sup>성남-이천-여주 복선전철</sup>에 이천 관





내 3개 역사에 이천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했다. 조형물은 역사가 위치한 지역을 상징할 수 있도록 차별화했는데, 신둔도예촌역에는 ‘천년의 혼’이라는 주제로 도자기를 빚는 모습을 형상화해 특성화했으며, 이천의 가장 중심지역인 이천역(利川驛)에는 ‘희망의 이천’이라는 주제로 설치되었다. 부발역에 설치된 조형물은 ‘찬란한 도약’이라는 주제로 반도체 큐브와 회로를 형상화해 기술집약적인 첨단산업의 발전과 기술력 증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이천임을 상징화했다.

경강선은 성남·광주·이천·여주시 등 4개 지역을 잇는 57km 구간인데, 정차역은 광주·곤지암·이천·세종대왕릉 등 11개 역으로 4량의 전동열차가 운행된다. 이로써 판교-여주 간 이동시간이 48분으로 줄어 162만 명에 이르는 수도권 동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향상되었다. 그리고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가 44년간의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시대를 마감하고 이천으로 부대를 이전하였다. 특전사의 이전은 2005년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송파 신도시개발의 하나로 결정됐으며 2011년 공사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부대 이전이 마무리됐다. 이전사업은 국방부가 거여동 옛 특전사 부지 155만㎡<sup>47만평</sup>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하는 대신, LH가 이천시 일대 360만㎡<sup>109만평</sup> 부지에 병영시설과 주거·복지시설 163동, 훈련장 20개소를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됐다.

2017년 4월 6일,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가 2017년 국가브랜드대상(National Brand Award)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임금님표 이천’은 6차 산업 공동브랜드에서 올해까지 6

2016년 개통한 경강선  
(성남-여주 복선전철)  
열차와 내부 모습

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 국내에 수많은 농축 특산물 브랜드 중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그리고 8월 8일에는 제20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이 설봉공원 대공연장에서 ‘망루에 서다 Look forward to the future’를 주제로 개막됐다.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은 지금까지 242점의 작품이 창작돼 설봉공원, 온천조각공원 등 이천시의 공공장소에 설치돼 있다.

2017년 9월 2일 이천에서 처음으로 ‘이천시티투어’가 진행되었다. 이천시티투어는 토·일요일 등 휴일 버스운행으로 이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 이천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10월 13일, 이천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제22회 이천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나눔’과 ‘배려’를 콘셉트로 ‘행복나눔행사’를 준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시민 대화합의 장으로 만들었다.

2017년 9월 현재 행정구역은 2읍·8면·4동·404통리·1,967반이며 행정조직은 4국·1단·3담당관·24과·2직속·5사업소·14읍면동이다. 공무원수는 970명 공무원 1인당 주민수 227명이다. 이천시의 기본현황으로는 인구수가 21만 9,802명(내국인 21만 3,059명 외국인 6,743명)이며, 남자는 11만 2,950명(51%)이고 여자는 10만 6,852명(49%)이다. 세대수는 8만 6,164세대이며 인구규모로는 경기도의 1.65%이고 인구밀도는 467명/km<sup>2</sup> 경기도 1,274명/km<sup>2</sup>, 전국 517명/km<sup>2</sup>이다.

재정규모는 먼저 예산규모가 8,997억 원으로 일반회계 7,641억 원(83.74%), 특별회계 1,356억 원(16.26%)이다. 기타특별회계는 73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22억 원으로 재정자립도가 43.8%(세입과목 개편 후)이고 재정자주도는 64.9%(세입과목 개편 후)이다. 총 면적은 461.4km<sup>2</sup>(경기도의 4.5%)로 농경지가 176.8km<sup>2</sup>(38%), 임야가 169.0km<sup>2</sup>(37%), 기타 115.6km<sup>2</sup>(25%)이다.


주택은 8만 2,883호(보급률 110.96%)로, 단독 3만 6,038호(43.48%), 아파트 3만 4,974호(42.2%), 연립 3,321호(4.01%), 다세대 8,550호(10.31%)로 구성되어 있다. 상수도보급률은 94.7%(인 1일 급수량 289ℓ)이고, 하수도보급률은 96.5%(시설용량 7만 5,000/일)이다. 도로는 431.8km(포장률 71.1%)로 고속도로가 46.4km(100%), 국도 67.6km(100%), 지방도 144.4km(66.8%), 시도는 173.4km(55.7%)이다. 기업체는 1,008개로 3만 8,950명의 근로자가 있으며, 대기업은 18개로 2만 10명이고 중소기업은 990개로 1만 8,940명이 종사하고 있다.



02

이천의  
숨결이 서려 있는  
산천山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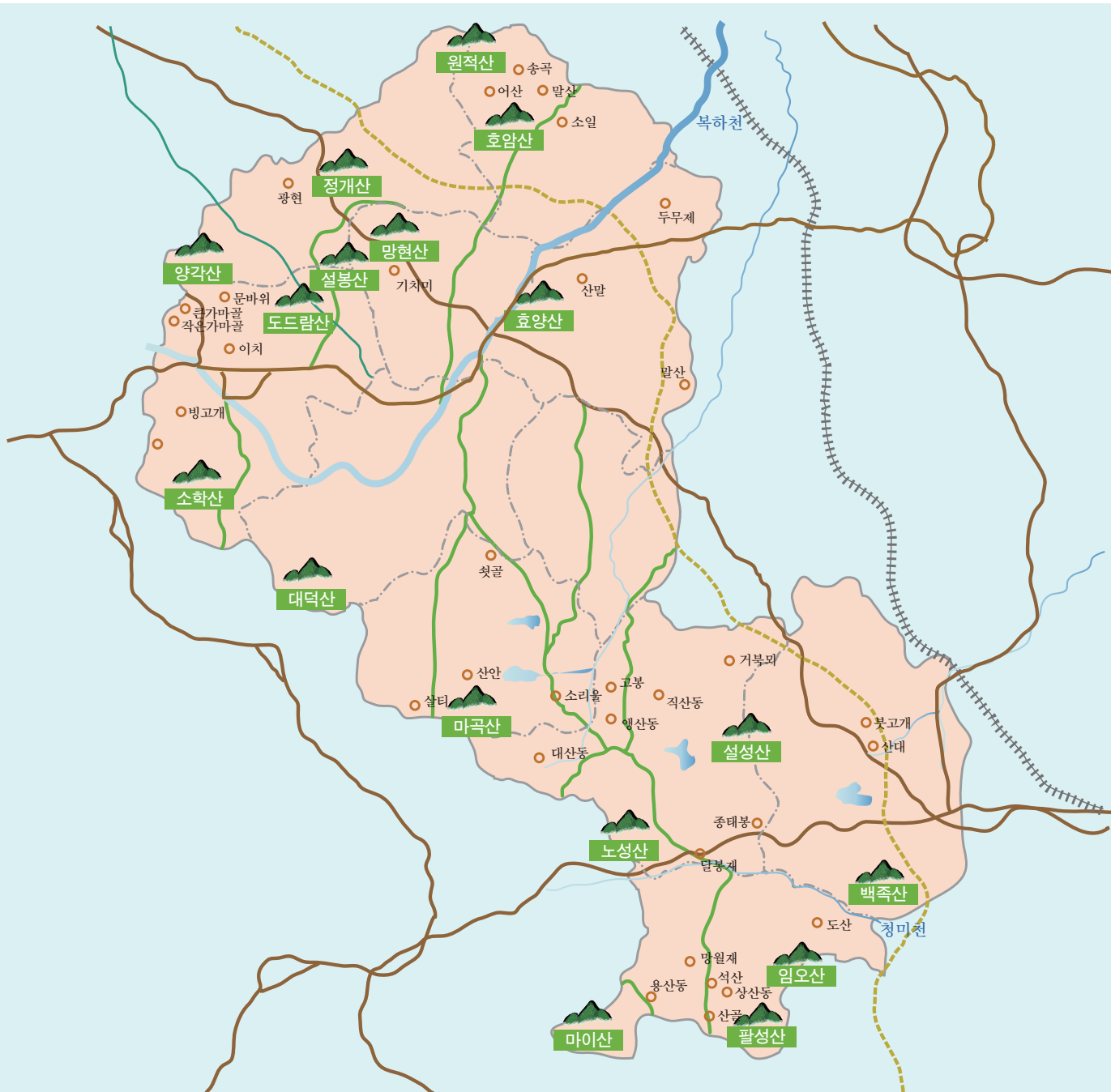


김종연 | 이천고등학교 교사

## 제2장 이천의 숨결이 서려 있는 산천<sup>山川</sup>

이천시 행정권역형태는 남북으로 길게 놓인 표주박형태이다. 현재의 이천시는 조선시대 이천부와 음죽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조선 중기에 제작된 『해동지도』의 「이천부지도」를 보면 북서쪽을 감싸는 외부 산줄기와 이천관아를 감싸는 내부 산줄기가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다. 설봉산의 지맥이 북동쪽으로 뻗어서 기치미고개를 넘어 망현산 줄기가 되어 이천관아를 감싸고 안으니 내부 산줄기가 되고 그 사이를 중리천이 흐른다. 원적산을 기점으로 정개산·양각산·건지산·대덕산·마곡산이 북서쪽을 감싸며 외부 산줄기를 이루고 안으로 북하천이 흘러 호암산과 효양산이 만든 수구<sup>水口</sup>를 지나 남한강으로 유입된다. 양화천을 경계로 남쪽에 자리 잡은 음죽현은 설성산을 주산으로 관아가 자리 잡은 바 있고 남서쪽으로 노성산·마이산·팔성산·임오산·백죽산이 경계를 이루며 그 사이를 청미천이 흐른다. 양화천은 이천에서 시작되는 하천으로 그 규모가 작아 큰 의미를 담기 어렵다.

산은 생활권을 나누고 하천은 같은 생활권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천은 이천부가 위치했던 북하천 유역권과 음죽현 권역인 청미천 유역권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천의 산과 하천

## 1. 복하천 유역권의 산천

### 1) 태조 왕건의 꿈이 흐르는 복하천

복하천은 용인 땅에서 발원하여 마장면 양촌리에서 이천 땅에 첫 발을 들인 후 이천쌀을 생산하는 기름진 옥토를 주고 남한강으로 흘러간다. 고구려 때는 남천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왕건이 후백제 정벌의 복을 얻은 하천이라 하여 복하천이라는 이름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며, 이천 지명도 복하천에서 유래하였다.

고려 태조 왕건은 후백제를 치러 남하할 때 물이 불어난 복하천을 건너기 위해 점을 쳤을 때 ‘이섭대천利涉大川’이라는 점괘를 얻었고, 서목을 만나 무사히 건너서 통일의 위업을 이루었다. 이섭대천이란 ‘큰 내를 건너면 이로움이 있고 가면 공이 있으리라’의 의미이다. 이섭대천 점사는 하늘의 명天命을 받았다는 것으로 고려 왕조 475년의 천명을 이천에서 받은 것이다.<sup>1)</sup>

복하천福河川의 ‘하河’는 강보다 높은 단계의 말이다. 중국의 황하는 양쯔강보다 작지만 중국문명의 뿌리로 황제를 상징하는 하천이다. 복하천은 이천과 함께 고려 태조 왕건이 하사한 이름임을 추측해 본다. 서희 선생의 호가 ‘복천福川’이다. 복하천에서 ‘하’자를 피하고 복천이라 함은 ‘하’자가 임금이 내린 글자임을 짐작할 수 있다.<sup>2)</sup>

복하천은 이천 쌀문화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복하천 주변에는 평야를 뜻하는 ‘평坪’과 ‘~뜰들’자가 들어간 지명이 많다. 덕평리·각평리·이평리·두미뜰·유산리뜰·진리뜰·구만리뜰 등이 이러한 지명이다. 복하천에는 관개시설인 보堡가 설치되어 있었다. 보는 건설과 관리에 많은 비용과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이를 위한 계 획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오천2리 지내개울을 막은 ‘마보’는 오천들에 물을 공급하였고, 후안1리 ‘복대보’는 후안리 앞뜰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였다. 단천리 천주교 성지 주변이 ‘새반들’인데 ‘새보’의 물을 쓰는 들에서 연유한 지명이다. 단천리에

1) 김동욱, 「제1장 연혁」, 『이천시지』 1권,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45쪽.

2) 한승남, 『마마 파헤친 땅이름이요』, 홍익기획, 2003, 19~20쪽.





#### 북하천 전경

서 후안리 사이 ‘서가반’ 들은 ‘서가보’ 에서 연유한 이름으로 고려 때 이천서씨들이 보를 만들고 대규모 벼농사를 지었다고 전해온다. 단월동의 ‘은계보’ 는 계를 조직하여 관리한 사례이다.

북하천에는 조선시대 임금이 쉬어간 역사를 담고 있다. 자유곡류하던 북하천은 범람원을 논으로 개간하며 인공제방을 쌓아 직선화되었다. 이때 북하천 주변 늪지와 숲들에 간직된 역사적 흔적들이 사라졌다. 북하2교는 이천-여주 간 중요한 길목이다. 이곳의 옛 이름이 명머리다리이다. 명머리다리는 『여지도서』에 ‘부의 동쪽 북하천 하류에 있으며 영릉을 가는 대로로 매년 나무로 다리를 놓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구전에 의하면 6·25때만 하여도 북하2교 주변에 늪과 소나무숲이 있어 여름이면 그곳에서 천렵을 즐겼다는 것이다. 다리 머리에 있는 숲은 단순한 숲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동국여지승람』·『여지도서』·『이천부읍지』 ‘고적古跡’ 편에 ‘설봉산성’ 과 ‘남천’ 이 나온다. 하천인 남천북하천을 유물 유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단순

히 하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왕건이 복하천을 무사히 건넌 것을 기념하는 역사적 기념물이 있었을 것이다.<sup>3</sup> 조선 성종의 영릉행차 과정을 보면 1471년 10월 9일 오천역 앞 뜰 파오달임시 막사에서 자고, 다음 날 출발하여 이천의 복하천변에서 점심을 먹었으며, 11일 영릉에서 돌아오며 다시 복하천변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오천역 파오달에서 머물렀다는 것이다. 영릉을 가기 위해 명머리다리를 건넜고, 오고 가며 명머리다리 주변 숲에서 점심 수라를 받은 것이다.

## 2) 이천관아를 감싸 안은 내산들

### 이천관아를 지키는 망현산

망현산은 설봉산과 기치미고개로 연결되어 이천 시내의 북쪽을 감싸고 있다. 망현산은 송정동 쪽에서는 아리산이라 부른다. 고려시대 아리역이 위치한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신사가 위치하여 신사산이라 불리는 아픔을 겪었다.

전통마을 입지의 기본원칙은 배산임수背山臨水로 남향 입지였다. 이천관아현 이천초등학교 자리는 북으로 망현산을 등지고 남으로 중리천을 끼고 남산구 시청을 바라보며 입지하였다. 조선시대 관아 뒤편에는 민가가 위치할 수 없었다. 다만 신성공간으로 향교가 위치하였다. 액운을 막아주는 홍살문을 통과하여 향교에 들어서면 공부공간인 명륜당과 제사공간인 대성전이 경사면을 따라 배치되어 위엄이 넘친다. 성역을 포근하게 감싸 안은 담장 안으로 작지만 질서 있는 건물의 배치는 소우주의 재현인 듯하다. 현재 시립도서관이 향교 위쪽에 자리 잡고 있어 시대를 초월한 배움의 공통분모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기치미고개는 임진왜란 때 배수진의 혼을 사른 신립 장군의 시신 없는 관이 지나는 중 기침 소리가 났다는 역사적 전설을 담고 있다.



망현산 기치미고개의  
도자연덕 조형물

3) 한승남, 『마마 파헤친 땅이름이요』, 홍익기획, 2003, 377쪽.

이천의 진산 설봉산의  
설경



설봉산 정상 희망봉



### 이천의 혼을 담은 설봉산

설봉산은 이천의 진산이다. 삼국시대 격전장의 역사를 담은 설봉산성, 이천의 성현을 모신 설봉서원, 불교문화의 산실 영월암, 시민의 안식처 설봉공원 등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이천의 아이콘이다. 해발 394m의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이천 시민들에게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상징적 산이다. 식생밀도가 높아 녹색댐 효과가 크며, 화강암 풍화토로 지하수 정화능력이 뛰어나 약수터가 발달하였다. 설봉산 정상에서 여주 방향을 내려다보면 낮은 저산성평지가 끝없이 펼쳐지는데 이 지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발달한 저위평탄면 지형이다.

설봉산은 역사적으로 백제 · 고구려 · 신라가 격전을 벌였던 기록을 담고 있다.

설봉산성은 세 곳으로 칼바위 주변을 두른 성이 주성이고, 정상과 장암리 쪽으로 뻗은 봉우리를 두른 성이 부성이다. 성의 형태는 봉우리를 둘러싼 테피식 산성이다.

이천은 고대로부터 동서남북 교통의 요충지였다. 넓고개를 넘어온 도로의 한 줄기가 송정동 쪽으로 뻗고, 다른 줄기는 기치미고개를 통과하는데 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 설봉산성이다. 장대지와 칼바위 쪽은 높으며 신둔 방향으로 낮아지는 산성의 지형은 천혜의 관측 기지였다. 다만 용인 방향이 설봉산 정상 봉우리로 막혀 관측이 어려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상부에 부성 2개를 쌓고 주성과 능선으로 연결하였다.

설봉산성은 여러 차례의 발굴조사 결과 4세기 후반 백제에 의해 축성된 석성<sup>石城</sup>으로 판명되었다. 백제시대 석성이 삼국 중 가장 늦은 6세기 후반에 나타난다는 기존의 학설을 깨는 중요한 사료로 인정되고 있다.<sup>4</sup> 고구려의 남진정책이 최고조인 장수왕 때에는 고구려의 요새로 이용되었으며, 신라의 삼국통일을 위한 북진 때는 신라의 중요한 군사기지 역할을 하였다.

칼바위 주변 장대지 아래에서 8각형 석축이 발견되었는데 건물터라기보다는 제단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산성에서 제사 유적이 발견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로 상당한 격이 있는 산성에서만 발견된다. 신라는 한때 이천에 행정·군사적으로 중요한 남천주와 남천정을 설치하였는데 그와 연계하여 설봉산성의 제사유적을 해석해 볼 수도 있다. 현재는 이 8각 석축에 사직단 간판이 붙어 있다.

설봉산에서 범종 소리를 들으며 석양에 물드는 시내를 바라볼 수 있는 정점에 영월암이 자리 잡고 있다. 영월암 초입에 자리 잡은 600년이 넘음직한 은행나무는 고려 말 나옹대사가 꽃아 놓은 지팡이가 자란 것이라는 전설을 갖고 있다. 영월암의 아담한 가람배치는 선사의 엄숙함보다는 시골 외할머니 집의 포근함이 그윽하다. 영월암은 통일신라시대 의상대사<sup>625~702</sup>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존하는 유물로 보아 통일신라 후기인 9세기경에 창건된 것으로 추측한다. 영월암의 본 이름은 ‘북악사’로 1774년에 낭규대사에 의해 크게 확장되면서 현재의 영월암 명칭을 지니게 된 것으로 보인다.<sup>5</sup> 대웅전·아미타전·삼성각·종각·요사채가 웅기종기

4)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이천설봉산성2차발굴조사보고서』,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1, 489~490쪽.

5) 『영월암사적기』 기록. 19세기 후반에 나온 『이천부읍지』에는 여전히 ‘북악사’로 나온다.



설봉산 칼바위



산세와 조화를 이루며 자리를 잡고 있는데, 눈길이 닿는 곳은 대웅전 서편 경사지 위에 자라 잡은 삼성각이다. 영월암은 불심을 간직하면서도 우리의 토착신인 산신을 모시는 공간을 함께 배치하는 조화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1907년 이천에서 의병봉기가 일어나자 일본군은 영월암을 불태워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되었다.

영월암 동편 뒤 마애여래입상 쪽으로 오르다 보면 오래된 석조광배와 연꽃좌대에 시간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깨끗한 석불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석조광배와 연꽃좌대는 통일신라시대 말기의 것이고 불상은 1981년생이니 어울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신·구의 조화와 시공을 초월하는 불가의 가르침으로 본다면 내포하는 의미가 크다.

대웅전 뒤편 계단을 오르면 보물 제822호 마애여래입상을 만난다. 지그시 감은 눈, 후덕한 코, 두툼한 입술, 목까지 길게 내려온 귀는 고려시대 지방호족의 우락부락함과 후덕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손바닥을 밖을 향해 편 형태로 손바닥의 큰 대\*자가 선명하다. 이천 시가지를 바라보는 눈길이 이천의 발전과 평안을 소원하는 빛이 역력하다.



설봉산 정상에서 남쪽 능선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목리에서 넘어오는 고개를 만나는데 불머리고개<sup>화두재</sup>이다. ‘화두<sup>火頭</sup>’를 ‘불머리’로 해석하여 붙인 이름인 듯하다. 화두재를 목리의 어르신들은 ‘화디재’라고 하며, 용인에서 이천을 연결하는 오늘날의 도로는 42번국도이다. 그러나 42번국도는 일제강점기 때 철도와 함께 만들어진 도로이고 조선시대 길은 오천에서 억만이-고락골-대왕이-정학골-목동<sup>목리</sup>-이천관아로 연결되는 경로였다. 성종과 중종의 영릉 행차길을 보면 한양의 양재역-용인-양지-오천-이천-여주였다.

설봉산은 화강암 산지로 모래의 공급이 많다. 1968년 설봉호수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설봉산에서 흘러온 하천 주변으로 넓은 모래사장이 발달하였는데 이곳이 ‘마전터’이다. 많은 아낙네들이 이곳에 모여 빨래를 하고 모래사장에 빨래를 펼쳐 건조한 데서 연유한 지명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조선시대 대규모 줄다리기가 매년 진행된 기록이 전해온다. 1921년 3월 20일자 『동아일보』에 보면 ‘육천명의 대대회 <sup>大蟹戲</sup>’라는 제목으로 당시 이천 읍내에서 행해진 줄다리를 소개하고 있다. 줄다리기에 직접 참여한 인원이 6,000여 명이고, 구경꾼의 수가 3만여 명에 달하였을 뿐 아니라 줄다리에 사용한 줄의 길이가 800여m이고, 줄의 두께가 60cm라고 하였으니 그 규모에 놀랄 뿐이다. 신문에서 줄다리기를 중 죽은 사람이 3명에 사상자가 9명이었다고 전하는 것을 보면 당시의 줄다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짐작이 간다. 드넓은 백사장에 약 3만 6,000여 명이 모여 줄다리를 하는 장면은 오늘날 올림픽 개폐회식에서나 볼 수 있는 장관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대규모의 이천줄다리는 1921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볼 수 없는 놀이가 되었다. 3·1운동에 겁먹은 일제는 한꺼번에 수만 명이 운집하는 줄다리기가 자칫 항일저항운동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지시켰던 것이다.

### 멧돼지를 울게 한 효자산! 도드람산

도드람산은 마장면 목리·표교리·장암리를 끼고 우뚝 솟은 이천의 금강산이다. 도드람산 지명 유래도 다양하다. 돌을 암<sup>암</sup>산 즉, 바위가 돌아 있는 산이란 뜻과 저명산<sup>猪鳴山</sup> 즉, 돼지 울음 산이란 의미가 있다. 저명산은 효자와 돼지와 얽힌 전설을 담고 있다. 병든 어머니를 위해 도드람산 절벽에 자라는 돌버섯<sup>색이버섯</sup>을 따던



도드람산 삼봉(이천관  
광 전국사진공모전 입  
선작)

아들이 위에서 들리는 돼지 울음소리에 놀라 올라와 보니, 자신이 몸을 의지했던 동아줄이 바위에 비벼져 다 끊어져가고 있는 것이었다. 도드람산 산신령은 효자를 구하기 위해 돼지를 울게 했던 것이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교감하며 살아가던 조상들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이야기이다.

도드람산 정상에는 산성이 있다. 도드람산 정상부는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 좁은 평탄대지가 발달해 있다. 정상부의 평탄대지 바깥 부분은 절벽으로 천연적 요새를 이루고 있다. 도드람산성은 제3봉에서 북쪽으로 150m 정도 떨어진 봉우리를 감싸 도는 테괴식 산성이다. 도드람산성은 조선시대 문헌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려후기에 축성되어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 후기의 국제 정세를 보면 몽고·홍건적·왜구의 침입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지방 백성들이 피신할 성이 필요했던 것이다. 도드람산 동편 아래 마을이 목리로 원래 이름은 목동木洞이다. 목은 길목을 지칭하는 말로 여러 도로가 만나는 곳이다. 목동사거리를 중심으로 남으로는 호법-죽산으로 이어지고, 북으로는 신둔-광주로 이어지며, 동쪽으로는 설봉산 화두

재를 넘어 이천으로 들어가고, 서쪽으로는 정악골-억만이를 거쳐 오천으로 연결되는 곳이었다. 목동사거리는 주 교통로가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였던 것이다. 목리에서 장암리로 가는 길가에 있는 태평흥국명마애보살좌상은 먼 길 떠나는 나그네가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하기를 기원했던 불교문화의 흔적이다. 교통요지인 목동사거리를 설봉산성과 도드람산성이 내려 보고 있는 것이다.

전통 지리사상에서 돌산은 화기(火氣)를 품는다고 믿는다. 한양에서 관악산의 화기가 경복궁에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해태상을 세워 화기를 제압하려 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신둔면 용면리는 돌산인 도드람산을 남쪽 정면으로 보고 있어 화기를 피하기 위해 조상들이 마을의 위치를 아래로 내려 입지하였다고 전한다.<sup>6)</sup> 우리 조상들의 자연관을 볼 수 있는 사례이다.

### 북하천 수구\* 지킴이 호암산과 효양산

북하천 유로를 따라가다 보면 좁아지는 목이 있다. 원적산에서 갈라진 산줄기가 조읍리 오산을 거쳐 도지리 호암산으로 연결되어 내려오다 북하천에 의해 잘린 곳이다. 이 지질선은 북하천을 건너 부발읍 무촌리(苴)진로 쪽으로 이어져 효양산을 이룬다. 호암산과 효양산이 만드는 목이 북하천의 수구이며 유역의 물 흐름을 통제하는 검문소 역할을 한다. 남는 양의 물은 밖으로 내보내고 땅 속의 물은 가두어 가뭄을 모르고 자재쌀을 생산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호암산은 이름 그대로 호랑이 형상의 산이다. 해발 110m 밖에 안 되지만 북하천 평야에서는 눈에 띄는 산으로 톡톡히 대접을 받고 있다. 호암산은 많은 전설을 담고 있다. 중국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은 원래 조선 사람으로 부모 묘를 금반형의 명당인 호암산에 쓰고 난 후 중국의 황제가 되었다거나, 일제강점기 때 호랑이 형상의 호암산에 쇠말뚝을 박아 혈을 끊었다거나, 용늪과 관련하여 날개 달린 아이 전설 등 다양하다. 전설이 많다는 것은 지형을 특별하게 인식했다는 것이다.

호암산에는 큰 바위들이 많다. 구전에 의하면 마고할머니가 돌 7개를 행주치마에 담아 가지고 서쪽을 향해 던졌는데, 이것이 호암산에 떨어져 칠성바위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중 3개는 경지정리사업으로 없어지고 4개만 남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6) 김종연, 「이천시의 동족촌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과 석사학위논문, 2000, 22~23쪽.

북하천 평야와 호암산  
원경



바위들은 단순히 전설의 흔적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이천 문예의 풍류를 담고 있다.

조선 중기 기묘사화로 이천 죽당리에 내려와 있던 김안국이 쓴 『모재집』에 호암산 ‘어풍대’ 이야기가 나온다. 호암산 정상 전망 좋은 바위 위에 널다란 평지를 만들고 ‘어풍대’라 불렀으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이명효·강은·홍인필 등과 풍류를 즐겼다는 내용이다. 김안국은 부발읍 죽당리에 거처를 두고 백사면 도립리 육괴정을 왕래하며 괴정육현과 교류하였다.<sup>7)</sup> 호암산은 죽당리와 도립리의 중간에 위치한 산으로 주변은 북하천과 신둔천이 합류하여 드넓은 호수 늪을 이루고, 가운데는 ‘안흥서’라는 섬이 있어 경치가 아름다웠던 곳이다. 달 밝은 밤에 어풍대에 올라 술잔을 기울이면 하늘의 달, 호수에 드리운 달, 북하천에 비친 달, 신둔천에 어린 달, 여인의 눈에 서린 달 등 강릉 경포대 못지않은 운치를 자아냈을 것이다. ‘하늘에는 휘영청 달 밝고 앞으로는 큰 시내가 흐르니 학의 등을 타고 푸른 하늘을 나는 듯하다’라는 김안국의 시구는 어풍대의 야경을 짐작하고도 남게 한다.

효양산은 이천의 조산으로 해를 머리에 이고 아침을 선사한다. 효양산은 북서쪽이 가파르고 남동쪽이 완만한 형세로 중턱에 토성이 두르고 있다. 성터는 효양산 능선을 경계로 하여 은선암과 이천서씨 시조묘를 포함한 산촌리 쪽 약 5만여 평의 넓고 평평한 지형을 에워싸고 있다. 삼국시대 말엽 신라군에 의해 축성된 것으로 보고

7) 이인수, 『이천의 인맥』, 이천문화원, 1997, 54쪽.



있다.

효양산 정상에 올라서면 서쪽으로 설봉산성을 정면으로 마주한다. 삼국의 치열한 영역 쟁탈이 한창일 때 신라와 고구려는 이천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였다. 신라는 남하하는 고구려를 막기 위해 이천에 남천정을 설치하였다. 지금까지 남천정의 위치를 설봉산성으로 보고 있으나 규모면에서 5만 대군이 머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효양산성을 주장하기도 한다.<sup>8</sup>



효양산 정상의 금송아지상

효양산에는 신라 때 아간 벼슬을 한 서신일의 신도비와 묘소가 있다. 서신일은 이천서씨의 시조이며 서희의 할아버지이다. 신라 52대 혜공왕 때 아간 벼슬을 지내다가 기울어 가는 신라의 국운을 안타까이 여겨 동생 서신통과 함께 이천의 서아성 **효양산**으로 은거하였다. 스스로 처사라 칭하며 포성당을 짓고 후학들을 가르쳤다고 하였으니, 포성당은 이천의 첫 번째 교육기관이었던 셈이다.<sup>9</sup>

쫓기는 사슴을 구해준 서처사 이야기는 효양산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감초이다. 8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어 근심인 서신일은 쫓기는 사슴을 구해주고 산신령의 선물로 아들을 얻었으니 고려 광종 때 명재상인 서필이다. 서필의 아들이 서희로 이천서씨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서신일 동생 서신통의 아들은 서목으로 왕건이 북하천을 건널 때 도움을 주어 이천이라는 지명을 갖게 한 장본인이다. 현재 서희테마파크가 효양산에 조성되어 있다.

효양산 정상에 오르면 금송아지 한 마리가 앉아 있다. 효양산 금송아지 전설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맛볼 수 있는 이야기다. 금송아지를 가지러 온 중국 황제의 신하에게 효양산까지 가려면 오천리-억만리-억억다리-구만리를 가야하며, 효양산에서 여기까지 오느라 석자가 넘었던 쇠지팡이가 찢막하게 달았음을 상기시켜 돌려보낸 효양산 산신령의 지혜가 정겹다.

8)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천시 부발읍 문화유적·민속조사보고서』, 이천문화원, 1998, 38쪽.

9) 이인수, 『이천의 인맥』, 이천문화원, 1997, 28~29쪽.



### 3) 이천부의 북서쪽을 감싸는 외산들

#### 공민왕의 한을 담은 원적산

원적산은 해발 635m로 이천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천덕봉과 원적봉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천을 감싸 안고 있다. 강원도 오대산이 비로봉을 정점으로 불교의 문수사상을 상징한다면, 원적산은 천덕봉을 정점으로 불교의 무소유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에서는 원적산을 무적산無寂山이라 기록하고 있다. 불교에서 무적無寂은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원적산을 갈마산葛麻山이라고도 부른다. 도립리 육괴정에 모셔진 조선 중기 유학자 엄용순의 묘표에 나오는 이름이다. 원적산 영원사의 약사여래좌상을 수마호석水馬胡石을 갈아서 만든 데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한다. 원적산·무적산·갈마산 모두가 불교와 관련된 이름들이다.

원적산에는 고려 말 홍건적의 난을 피해 내려온 공민왕의 한이 깃들여 있다. 몽골의 침략이후 고려의 자주권은 원나라에 넘어갔고, 왕의 이름도 원나라에 충성을 의미하는 ‘충○왕’으로 변경되었다. 공민왕은 자주권을 찾기 위해 친원세력의 대표격인 기씨奇氏 일파를 숙청하고, 변발과 몽골 복장의 착용을 금지하였으며, 원나라의 내정간섭기관인 정동행성을 폐지하였다. 당시 중국에서는 약화된 원나라를 멸하고 한족을 중심으로 한 왕조를 세우기 위한 혼란기였다. 1360년 홍건적의 1차 침입은 잘 막았으나, 이듬해 대규모 홍건적의 침입을 받아 개경이 위태하자 공민왕은 남하하여 11월 24일 이천에 도착 후 며칠간 머문 것으로 추측된다. 공민왕이 축성하였다는 원적산 산성, 천덕봉을 공민봉이라 부르는 것이 그 증거이다. 또한 백사면 현방리에 휴궁다리休宮다리는 공민왕이 원적산으로 피난 갈 때 이 다리 위에서 잠시 쉬어갔다고 하여 유래된 이름으로 전해진다. 구전에 의하면 원적산과 여주군 금사면 주록리 안산마을 사이 계곡에 여기수女妓水, 여계수女溪水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왕을 따르던 궁녀들이 개경 함락 소식에 통곡하며 이 연못에 몸을 던진 데서 연유한 지명으로 전한다.<sup>10</sup> 『고려사』에 의하면 공민왕이 이천과 음죽에 머무를 때 홍건적의 침입에 겁을 먹은 관리와 백성들이 모두 도망갔을 때, 음죽 사람 배원경이 10여 호의 고

10)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천시 백사면 문화유적·민속조사보고서』, 이천문화원, 1996, 75쪽.



이천에서 가장 높은 산  
원적산

을 사람과 남아 공민왕을 극진히 대접하여 후에 음죽 감무에 임명된 일화를 전하고 있다.

### 이천에서 가장 높은 산 원적산

원적산에는 이천 시민의 무병장수를 관장하는 약사불을 모신 영원사가 자리 잡고 있다. 영원사의 정점은 석조약사여래좌상이다. 약사불은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재앙을 소멸하여 무병장수를 관장하는 불이다. 왼손에 들려있는 약단지는 건강을 소망하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기 충분하다. 보기에 인자한 불상의 이면에는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다. 머리 부분은 다시 제작하여 봉합하였으며 왼쪽 무릎은 깨진 것을 붙인 것이다. 왼쪽 어깨에서 흘러내린 옷 주름이 바람에 날릴 듯하다. 상처 입은 심신의 고통을 잊은 듯 세상의 많은 중생의 병마를 치유하기 위한 고생의 끝자락에서 느끼는 안도감이 가득하다. 경내의 동편에 위치한 요사채는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책과 씨름하는 고시생들이 있다. 조용한 산사의 아늑함 속에서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름은 경쟁의 속세가 함께하기 때문인 듯하다.

### 이천의 북쪽 관문 넓고개를 품은 정개산

정개산은 원적산 줄기가 서편으로 이어지다 동원대학교 뒤편에서 우뚝 솟은 산이다. 정개산의 서편 줄기를 가로지르며 3번국도가 넘어가는데 고개 이름에 사연이 있다. 대부분의 옛 자료에는 넓고개넓은 고개, 廣峨로 나오나 전설에는 넓고개넓 고개, 魄峨로 등장한다. 넓고개는 기치미고개와 함께 신립 장군의 상여길과 연관되어 있다.

조선 중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물밀 듯 밀려오는 왜구를 막기 위해 신립 장군은 문경새재를 중심으로 방어전선을 구축하려다 포기하고 충주의 탄금대에 배수진을 친다. 탄금대는 지형적으로 달천과 남한강으로 뒤편이 막혀 있어 후퇴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진 곳이었다. 무기와 수적 열세로 패한 신립 장군은 부하들과 함께 장렬히 산화하였으나 시신을 찾지 못하였다. 그 후 한 어부가 달천에서 큰 잉어를 잡았는데 그 배 속에서 신립 장군의 투구 끝에 달았던 금관자가 나왔다. 그 금관자를 시신 대신 관속에 넣고 한양으로 운구하는데, 장군의 넋이 계속 관을 따라와 ‘장군님’ 하고 부르면 ‘오냐’ 하고 대답을 하였다. 이천을 지나던 중 다산고등학교 앞 고개에 와서 잠시 쉬는데 ‘장군님’ 하고 부르니 대답 대신 ‘에헴’ 하고 기침소리가 나서 ‘기치미고개’가 되었다고 한다. 또 넓고개에 와서는 관에서 대답이 없어 관에서 넋이 나

정개산 전경



갔다하여 ‘넋고개’라 하였다 한다.

넋고개는 조선 말기 의병항쟁의 중심지였다. 지금도 고갯마루 동편에 의병항쟁 기념비가 서 있다. 일제에 의한 을미사변과 단발령은 의병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천에서는 김하락·구연영을 중심으로 ‘이천수창의소(利川首倡義所)’가 성립되었다. 1986년 1월 18일 넋고개에서 의병과 일본군 간의 첫 전투가 전개되었다. 유인작전과 매복에 당한 일본군은 광주 방면으로 도주하였고 살아 돌아간 자가 소수였다고 한다. 이를 ‘광현전투’라 부른다.<sup>11</sup>

### 문무의 정기를 담은 양각산

양각산은 두 개의 봉우리가 양(羊)의 뿔을 연상한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전한다. 양각산은 관리천의 발원지로 지역 농민들에게는 신성한 산으로 산신제를 지낸다. 양각산 산신제는 마장면 관리 주민들이 격년제로 음력 정월초순에 지낸다.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관동보수회(官洞保守會)’를 조직하였으며, 음력 정월 초순 회장의 통문으로 시작된다. 산신제 날짜가 잡히면 제단 주변을 깨끗이 한 뒤 금줄을 두르고 황토를 놓아 부정을 막는다. 모두 아침저녁으로 목욕재계를 해야 한다. 마을 사람들도 제사 3일 전부터 비린 것을 삼가고 마을 입구마다 새끼를 꼬아서 문창호지를 매달고 대문에 황토를 몇 줌 놓아 부정을 막는다. 양각산에는 제사 기간 동안 제관들이 숙식하기 위한 당집이 1채 있고, 제단이 2개 마련되어 있다.<sup>12</sup>

양각산에서 발원한 관리천은 유역 주민들에게는 생명수이다. 이 생명수로 살아가는 관리는 이관의와 같은 명현을 탄생시켰으며, 오늘날 특전사부대가 들어오니 양각산 자락이 문무를 겸비한 명당임을 실감나게 해 준다.

### 충신 박난영의 혼이 깃든 소학산

소학산은 고령박씨 동족마을인 호법면 매곡1리 돈의실(敦義室) 뒷산이다. 안돈의실 마을 뒤편 소학산 기슭에 사각형의 벽돌 담장을 두른 충숙공 박난영의 사당이 있다.

박난영은 병자호란을 의(義)로써 마감한 충신이다. 조선시대 명과 후금 사이에서

11) 이인수·신배섭·임혜봉, 『이천독립운동사』, 이천문화원, 1996, 112~113쪽.

12)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천시 마장면 문화유적·민속조사보고서』, 이천문화원, 1998, 283~287쪽.



양각산 전경



소학산 전경

중립외교를 펼치던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인조가 명과의 의리를 강조하며 후금과 적대적 관계로 돌아섰고 이에 병자호란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난영은 사신으로 활동하면서 회답관·선위사·춘추신사의 자격으로 후금의 심양을 왕래하며 마부대·용골대 등과 휴전 교섭을 벌였다. 후금을 치기 위한 명나라의 요청에 원병으로 출전했던 박난영은 후금의 포로가 되었다. 청은 조선의 왕자와 대신을 인질로 보낼 것을 명령했다. 조선 조정에서는 신변의 위험을 걱정하여 능봉수를 왕자로, 형조판서 심집을 대신으로 변장하여 보낸다. 청나라에서는 이들이 왕자와 대신이 맞는지를 포로로 잡혀있던 박난영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박난영은 왕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사실이라고 말하였다. 이후 거짓임이 탄로 났으나 박난영의 충절을 가상히 여겨 “살고자 하면 그대로 앉아 있고, 죽고자 하면 일어나라”며 목숨을 유지할 기회를 주었다. 박난영은 홀연히 일어나 조선 왕이 있는 남한산성을 향해 절을 올리고 의젓이 참형을 받아 최후를 마치니 향년 62세였다. 후에 인조는 박난영에게 ‘보국숭록대부영돈령부사’에 증직하고 이천 소학산에 장사를 지내 주었다.<sup>13</sup>

돈의敎義는 의를 세운다는 뜻이다. 박난영은 충절의 의를 세웠다. 숙종 원년인

13) 이인수, 『이천의 인맥』, 이천문화원, 1997, 104~105쪽.



1675년에 영의정에 추증되어 정려의 은전이 내려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려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규모에 맞배지붕을 하고 있다. 정려각 옆에는 사당을 세워 박난영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 고승<sup>高僧</sup> 대덕<sup>大德</sup>이 살았던 대덕산

대덕산은 이천의 서쪽을 병풍 두른 대표적 산으로 북으로는 봉의산·소학산·건지산으로 연결되고, 남으로는 마국산으로 연결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임진왜란과 6·25전쟁 때 대덕산으로 피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하여 ‘큰 덕을 입은 산’이란 데서 대덕산 지명유래를 찾기도 한다.

어룡리 골프장 한가운데 ‘선유암’이란 글씨가 새겨진 바위가 있다. 이 바위 옆이 기록으로만 전하는 입석사<sup>立石寺</sup> 절터이다. 선유골에서 백암으로 넘어가는 고개도 입석재이다. 『동국여지승람』에는 대덕산에 입석사가 있다고 나온다. 입석사는 여주군 북내면에 있는 고달사의 말사<sup>末寺</sup>였다. 고려의 국교는 불교로, 고달사는 고려 조정의 사찰이었다. 임금을 비롯한 많은 대신들이 고달사를 왕래하였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큰 스님들은 입적<sup>入寂</sup>에 앞서 거처를 말사로 옮기는 것이 관례이다. 고달사의 큰 스님이었던 고승 대덕도 말년에 말사인 입석사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추측된다.

대덕산 전경



고려 임금은 고승 대덕을 뵈기 위하여 이곳을 찾았을 것이다. 고려 임금이 입석사에 오르기 위해 절 아래에서 잠시 머무른 데서 연유한 지명이 ‘어룡<sup>御龍</sup>골’이다. 고승 대덕이 머물렀던 것에서 대덕산 지명을 찾아 볼 수도 있겠다.<sup>14</sup>

### 아흔아홉 미완의 여운을 간직한 마국산

마국산은 이천시 남쪽에 위치하여 사실터 고개와 함께 안성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마국산은 마옥산이라고도 하며, 『동국여지승람』·『이천읍지』 등에는 오음산 五音山이라고도 나온다. 조선 개국 초, 태조 이성계가 도읍지를 물색하기 위해 공주 계룡산으로 가는 도중 마국산을 지나게 되는데 오색구름이 드리우고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 오음산이라 했다는 전설이 전하고 있다.

마국산 이야기의 백미는 아흔아홉 골짜기 전설이다. 마국산에서 홀로 사냥을 하며 사는 젊은이가 어느 날 미모의 여인을 만나 부부의 연을 맺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와 보면 유모와 아내는 하루 종일 쏘다니다가 해질 무렵이 되어서 지친 몸으로 돌아오곤 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이는 맹수를 잡기 위해 독약을 바른 먹이를 맹수의 길목에 던져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해가 저물어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다음날 온 산을 헤매며 두 여인을 찾았다. 어제 독약 바른 먹이를 놓아둔 골짜기에서 온 몸에 여우털을 뒤집어 쓴 채 신음하고 있는 아내와 유모를 발견하게 되었다. 아내와 유모는 본래 사람이 아니라 여우였다. 두 여우는 사람이 되고픈 욕망에 열심히 소원을 빌었는데 마국산 산신령이 나타나 이 산에서 골짜기 100개를 찾으려면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두 여우는 매일 같이 골짜기를 찾아 헤맸으나 99개를 찾았을 뿐 한 개의 골짜기를 찾을 수가 없었다. 아내는 소원으로 마지막 골짜기를 찾아 줄 것을 부탁하고 죽었다. 젊은이는 아내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 평생을 마지막 한 개의 골짜기를 찾았으나 끝내 찾지를 못하였다.<sup>15</sup> 마국산은 100의 완전함보다는 99의 여운을 가진 산이다.

마국산을 끼고 아늑한 분지에 들어선 마을이 산안마을<sup>산내리</sup>이다. 산안마을에는 안동권씨 묘역이 위치하고 있다. 안동권씨 묘역에서 핵심은 권균 묘소<sup>이천시 향토유적 제18호</sup>이

14) 한승남, 『마마 파헤친 땅이름이요』, 홍익기획, 2003, 176~179쪽.

15)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천시 모가면 문화유적·민속조사보고서』, 이천문화원, 2002, 97~100쪽.



마국산 정상 표석

다. 권균은 연산군 때 공조판서를 지내다가 연산군의 폭정을 종식시킨 중종반정에 가담한 정국공신으로서 호조판서와 한성부판윤을 거쳐 우의정에 올랐다. 사림파가 주동한 정국공신의 위훈 삭제로 공신호가 삭제되었다가 기묘사화 이후 복직되었다.

묘역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권균 신도비이다. 신도비는 무덤 앞이나 무덤으로 가는 길목에 세워 놓는 죽은 이의 생애에 관한 사항을 새긴 비이다. 권균의 신도비는 귀부아랫부분과 이수윗부분을 갖춘 형태로 비신중앙부분은 대리석이다. 신도비 전면 상단에 횡서로 「충성공신도비명」이라 새겼으며, 비문은 전면에만 있다. 비문의 내용으로 보아 1529년(중종 24)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묘역의 가장 끝부분에는 소나무가 자리하고 있는데 신도비를 세우면서 후손들이 추모하여 심은 것으로 수령이 470여 년이나 된다.

## 2. 청미천 유역권의 산천

### 1) 하늘이 선택한 청미천

청미천은 용인시 원삼면에서 발원하여 이천 땅에 들어와 북으로는 설성산을 끼고, 남으로는 외로운 섬 울면을 보듬고 흐르다 백죽산을 휘감아 북진한다. 좌로는 장호원을 끌어안고 우로는 감곡 땅을 가르며 여주 점동 삼합리에서 남한강에 합류한다.

청미천의 이름은 역사적으로 다양하다. 『동국여지승람』<sup>1481</sup>에는 ‘천민천天民川’, 『동국여지지』<sup>1656</sup>에도 ‘천민천天民川’, 『여지도서』<sup>1760</sup>에는 ‘천미천天尾川’, 『음죽읍지』<sup>1842</sup>에도 ‘천미천天尾川’, 『대동지지』<sup>1862</sup>에는 ‘천민천天民川’으로 나오다가 『음죽읍지』<sup>1899</sup>에서 오늘날 지명인 ‘청미천淸漢川’으로 나온다. 1914년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 때 음죽군의 일부분이 ‘청미면’으로 묶여 이천군에 편입되었고, 또한 청미

청미천 전경



면이 장호원읍으로 이름이 바뀌어 승격되었다.

이처럼 천민천(天民川)→천미천(天尾川)→청미천(淸漢川)으로 이름이 바뀌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지명 변천의 사유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지명의 원뜻은 원래의 이름에 담겨있다. 청미천의 원이름은 천민천으로 봐야 한다. 천민천의 ‘천민(天民)’은 뜻 그대로 ‘하늘 백성’이다. 천민(天民)은 하늘이 낸 백성, 하늘의 이치를 다하는 백성, 도(道)를 얻은 사람이라 풀이 할 수 있다. 동양사상에서는 물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면 최고의 길지(吉地)로 여겼다. 이천 관내를 흐르는 청미천은 서에서 동으로 흐른다. 지세에서 동쪽은 새로움·아침·밝음을 상징한다.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을 향하는 청미천은 새 힘을 받는 하늘 축복의 상징으로 본 것이다.

청미천은 조선시대 내륙 수운이 발달한 하천이었다. 장호원 장시의 발달과 풍부한 농산물은 남한강 수운이 청미천을 따라 장호원까지 많은 배들이 드나들게 하였다. 갈수기에 청미천의 수심이 낮아지면 배가 움직이지 못하고 수위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 그래서 당시의 하천을 운행하는 배들은 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이었다.<sup>16)</sup>

장호원 부근 청미천에는 조선시대 돌로 만든 다리(石橋)가 있었다. 한양과 부산 동태를 연결하는 영남대로 선상에 위치한 장호원은 육로 교통의 요지로 물자와 사람의 통행이 많았다. 조선시대는 토목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육로는 주로 하천을 건너기보다는 우회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미천에 석교를 설치했다는 것은 장호원의 물동량이 많았음을 뜻한다.

## 2) 청미천 유역권의 산

### 음죽현의 진산 설성산

설성산은 장호원읍 선읍리 서쪽에 있는 산으로 주변 지형이 평평하여 대접받는 산이다. 설성산 동쪽 기슭에 조선시대 음죽현 관아가 위치하고 있었다. 설성산에는 경기도 지방기념물 제76호인 설성산성이 있다. 눈이 쌓인 곳을 따라가며 축성하여 설성(雪城)이라 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하지만, 새로 쌓은 성(새성)을 이두식 표기로 눈 설

16) 김종연, 「이천시의 동족촌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과 석사학위논문, 2000, 31쪽.



설성산 전경



❄자를 쓰다 보니에 : 새날-설날 설성이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음죽 관아의 서쪽에 있는 토성土城을 노성老城-오래된 성, 노성산이라 부르고, 설성산에 새로 쌓은 석성石城을 새성 즉, 설성이라 부른 데서 설성산이 되었다는 것이다.<sup>17)</sup>

설성산성은 설성산 정상부와 그 북쪽에 위치한 봉우리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계곡을 포함하여 쌓은 포곡식계곡을 감싼 성 산성이다. 설성산은 해발 290m이지만 주변 지역이 넓은 평야지대인 관계로 정상부에서 북쪽으로는 이천 시내와 여주, 남쪽으로는 음성 일대가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요충지이다. 설성산성은 백제가 처음 쌓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축성 방법이나 출토 유물을 고려할 때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유한 이후 쌓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설성산에는 설성산성과 관련된 전설이 있다. 신라시대 임금의 신임이 두터운 한 장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 장수가 임금이 애지중지하는 공주와 연애를 하다가 발각되어 왕의 노여움을 샀다. 왕은 장수를 죽이려 했으나 신하들의 만류로 사형을 면하고 대신 설성을 혼자 힘으로 5일 만에 완성하라는 엄명이 떨어졌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형과 마찬가지로 형벌이었다. 임금은 어느 날 꿈속에서 눈보라 속에서 혼

17) 한승남, 『마마 파헤친 땅이름이요』, 홍익기획, 2003, 401쪽.

자서 성을 쌓는 장수의 모습이 보이자 이를 안타까이 여겨 죄를 용서한다는 교서를 내린다. 그래서 성 이름을 눈보라 속에서 쌓았다하여 설성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 이천의 금강 노성산

노성산은 설성면에 위치한 해발 269m의 낮은 산이지만 주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평지에 위치한 산이다. 병풍바위 · 말바위 · 굴바위 등이 어우러져 이천의 금강산이라 불린다.

노성산은 이름이 여럿이다. 노성산<sup>老星山</sup> · 노성산<sup>老城</sup>



노성산 말머리바위

산 · 노승산<sup>老僧山</sup> · 노송산<sup>老松山</sup> 등 다양하며 사연도 각양각색이다. 노성산<sup>老星山</sup>은 『여지도서』에 처음 나오는 이름으로 별성<sup>星</sup>자를 쓰고 있는데 그 사연은 알 수 없다. 노성산<sup>老城山</sup>은 토성<sup>土城</sup>과 관련된 지명으로 설성산에 새로 쌓은 성을 ‘설성새성’이라 부르고 상대적으로 이전에 있던 노성산의 토성을 오래된 성<sup>老城</sup>이라 하여 노성산<sup>老城山</sup>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노승산<sup>老僧山</sup>은 스님과 관련된 지명이다. 노승산 지명은 나이 많은 어른들 사이에서 주로 통용되며, 특히 원경사 사찰 신도들을 중심으로 스님과 관련된 노승산 지명을 많이 쓰고 있다. 노승산 지명에는 전설도 한 몫 한다. 옛날 노승산을 중심으로 서편 일죽은 논농사를 하여 부자들이 많았고, 동편 설성은 밭이 많아 가난하였다고 한다. 몇 년 동안의 흉년이 계속되어 인근 주민들이 기근과 질병에 허덕이고 있었다. 이때 노승산에 노스님이 나타나서 매일 아침이면 산 정상에 넘어 부자 동네인 일죽에서 탁발하여 얻은 공양미를 어려운 동편의 주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노스님이 며칠째 마을에 나타나지 않자 주민들이 찾아 나섰다. 노스님은 탁발하신 바를 어깨에 멘 채 눈 속에 묻혀 죽어 있었다. 주민들은 열반하신 노스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산을 바라보며 “노스님! 노스님!” 하고 칭송하였다. 여

기서 노승산이 유래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노승산 소재 사찰의 기록이 없고 현재의 원경사도 1920년경에 설립된 것으로 보아 노승산 이름을 쫓아 만들어진 전설로 보인다. 노송산<sup>老松山</sup>은 소나무가 많아 붙은 이름이다. 그러나 현재 있는 소나무는 수명으로 보아 산 이름을 결정할 만큼 오래 되지 않았다. 노송산은 노성산의 변음으로 보인다.

노성산의 백미는 말머리바위이다. 지금은 마모되어 개머리와 비슷하나 말바위에는 산신령들의 투쟁사를 담고 있다. 설성면에는 명산이 셋 있다. 설성산·노성산·마국산 등이 그것이다. 세 산의 산신령들은 영험과 힘을 자랑하며 경쟁하였다. 그러던 차 마국산에서 바위를 깨고 나온 명마를 걸고 서로 힘을 겨루었다. 몇 날 동안 힘을 겨루었으나 승부가 나지 않아 말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노성산 산신령은 머리를, 설성산 산신령은 몸통을, 마국산 산신령은 뒷부분을 가졌다. 각자 나누어 가진 부분을 산마루에 올려놓아 후에 바위가 되었다. 그리하여 세 산 모두 말바위가 있다. 노성산신은 머리 부분만 차지하여 마무리 먹어도 항상 배가 고팠고, 몸통을 차지한 설성산신은 아무 일을 않고 놀아도 항상 배가 불렀고, 꼬리 부분을 차지한 마국산신은 똥만 치우느라 바빴다고 한다.<sup>18</sup>

### 이천 땅을 한눈에! 마이산

마이산과 망이산성 안내 표석



마이산은 이천 땅 최남단에 위치하여 충북 음성군과 경기 안성시가 접하는 울면 산양리에 위치한다. 마이산의 원 이름은 망이산이다. 『동국여지승람』 ‘충주목’ 조에 망이산이 나오는데 옛 신라군의 요충지로서 북쪽 오랑개인 고구려를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망이산이 마이산으로 불리어진 것은 일제강점기 때로 보인다.

마이산은 해발 472m로 산세가 가파르

18)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천시 설성면 문화유적·민속조사보고서』, 이천문화원, 1997, 66~67쪽.

고 험하며, 정상에는 꽤 넓은 분지가 발달해 있다. 이 분지를 에워싸고 망이산성이 자리 잡고 있다. 망이산성은 봉수대가 있는 정상부와 헬기장이 있는 봉우리를 감싸고 동서로 뻗은 계곡부를 감싸며 축조된 포곡식 산성이다. 발굴 조사 결과 설봉산성·설성산성 등에서 출토된 백제 토기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백제가 4~5세기경 축성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는 6세기 중반에 한강유역에 진출하는데 이 시기 망이산성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가 고구려와 대치할 때 망이산성은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을 것이다.<sup>19)</sup> 마이산에서 북쪽을 보면 멀리 원적산까지 조망되는데 신라의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감시하는 요충지로 충분했을 것이다.

마이산 정상부에 봉수대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봉수대는 동래-안동-충주-음성 가첩산으로 올라오는 직봉과 남해-진주를 거쳐 진천 소울산<sup>봉화산</sup>으로 올라오는 간봉을 받아 용인 건지산으로 중개하여 한양 목멱산<sup>남산</sup>으로 넘기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 봉수대의 북쪽과 서쪽은 5~11단의 석축이 잘 남아 있으나, 남쪽은 거의 파괴되었다. 봉수대의 출입문은 동쪽 벽에 있고 음성 방향으로 설치되었다.

마이산은 당대의 군사적 요충지였던 만큼 사방으로 탁 트인 전망이 그만이다. 봄철에는 산 전체를 온통 붉게 수놓는 진달래와 넓은 평원을 뒤덮은 키를 넘는 갈대 숲이 천하일경이다. 음력 9월 9일이면 구절초의 약효가 뛰어나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 전설의 고향! 팔성산

팔성산은 울면 산성1리와 충북 음성군 생극면의 접경에 위치한 해발 378m의 산으로 어재연 장군 생가를 품고 있다. 도<sup>道</sup>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이라서 전설도 다양하다. 팔성산<sup>八姓山</sup>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산 주변에 여덟 성씨<sup>姓氏</sup>가 산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전한다. 팔성산을 중심으로 산성리 함종어씨, 석산리 성주이씨·제주고씨, 오성리 장수황씨·개성왕씨, 월포리 전주유씨, 고당리 고령박씨·한양조씨 등이다. 그러나 여덟 성은 울면 전체를 대표하는 성씨로 팔성산이 여덟 성씨를 포괄하는 규모를 가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산 이름도 여러 가지<sup>八姓山·八聖山·八星山</sup>로 다양하다.

19)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천시 울면 문화유적·민속조사보고서』, 이천문화원, 1997, 47~49쪽.



팔성산 어래암



산성리 팔성산 중턱에 어래바위가 있다. 마을에서는 이 바위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전한다. 어래바위의 색깔이 하얗게 보이는 때는 다음날 틀림없이 비가 온다고 한다. 그래서 장마의 시작을 바위 색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미리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농경문화의 속성을 담고 있는 듯하다. 또 이 바위의 형상이 마치 상여가 나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도 한다. 상여 전설은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에서 구전되는 것으로서 길흉 모두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어래바위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양촌 권근과 더불어 국사를 논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다. 고려 말 왜구와 홍건적이 잇따라 고려를 침략해 오자 젊은 장수 이성계는 수차에 걸쳐 이들을 격파하여 두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잇단 전란과 나약한 왕권, 부패한 관리들의 국정문란으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자, 이성계는 은밀히 뜻이 맞는 동지를 모아 고려를 뒤엎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시기 권근은 어래암이 바라보이는 이곳에 은거하고 있었다. 권근의 인품과 학문의 도가 뛰어남을 들은 이성계는 멀리 개성에서 권근을 찾아 왔다. 의기투합한 두 사람은 정치 좋은 어래암에 올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국사를 논하였다. 그 후 이성계는 위화도회군으로 조선을 건국하였다. 그래서 임금이 오른 바위라 하여 어래암(御來岩)이라고 한다.<sup>20)</sup>

20)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천시 읍면 문화유적·민속조사보고서』, 이천문화원, 1997, 91~92쪽.





임오산 전경  
(출처 : 'toyou10123' )

팔성산은 많은 전설을 담고 있다. 전설이 많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중요한 산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전설은 현실이 되어 구한말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어재연·어재선 형제를 탄생시켰다.

### 울면의 주산 임오산

임오산은 울면 월포리와 충북 음성군 생극면 임곡리 경계에 위치하는 해발 341m의 제법 우뚝한 산이다. 고당리 앞뜰에서 보면 남동부를 가리키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임오산을 중심으로 월포리와 총곡리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며 고당3리까지 산줄기가 뻗어 있고, 예로부터 명당 터가 있다고 해서 관심을 끌어난 울면의 주산主山이다.

임오산은 『음죽읍지』<sup>1842</sup> 지도에 임우산<sup>霖雨山</sup>으로 나오며, 현재의 지명인 임오산<sup>林烏山</sup>은 『대동여지도』<sup>1862</sup>에 처음 등장한다. 임우산은 장마<sup>霖</sup>와 비<sup>雨</sup>의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물이 풍부한 산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오산은 흙산이다. 흙산은 토양층이 두껍고 식생 밀도가 높아 녹색담 효과가 크기 때문에 물이 풍부하다.

임오산은 풍수지리와 관련된 전설을 많이 갖고 있다. 임오산에 임오탁시형<sup>林烏琢</sup>

尸形의 명당자리가 있다는 소문이 중국에까지 알려졌다고 한다. ‘임오탁시형’은 금까마귀가 시체를 부리로 찌는 형상으로 명당 형국이다. 조선 말기 안동김씨 세도가의 상징 인물인 김병기의 아버지 김영근과 할아버지 김복순의 묘소가 고당리에 지금도 있는 것으로 보아 명당 터로 인식했음이 분명하다. 김병기는 풍수의 명당 터를 찾아 가문의 번성을 꾀한 대표적 인물이다. 김병기는 양아버지 김좌근의 묘를 쓰기 위해 원적산 자락 어디엔가 있다는 ‘금반형지’를 찾아 해마다가 결국 내촌리를 택해 묘지를 썼던 인물이다.

고당리 사람들에게 임오산은 중요하다. 임오산에서 시작한 산줄기가 청미천 주변 들판을 행해 오다가 끝나는 곳에 고당리가 걸려 있는 형상이다. 고당리 앞 청미천 주변은 망망대해요, 고당리는 조각배로 임오산 자락에 매어 있는 형국이다. 고당리는 배가 떠나가는 형세인 것이다. 물 위에 떠있는 배는 많은 짐을 실으면 가라앉는다. 그래서 고당리 사람들은 3~4대까지 오래 살며, 재산을 모으면 모아 둔 재산을 잃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고당리는 임오산 자락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물에 빠지는 것이다. 임오산은 고당리 사람들에게겐 중요한 생명줄인 셈이다. 그래서 고당리에서는 임오산 웅달샘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임오산에는 ‘빈대절터’ 전설도 전해져 온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는 폐사에 얽힌 대표적인 유형이다. 임오산에 있는 절에서 빈대가 극성을 부려 살생을 못하는 스님들이 결국 절을 떠나고 뒤에 주민들이 빈대를 잡기 위해 절에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이다. 꽤 규모가 컸던 사찰 임오사가 사라진 알려지지 않은 사연을 대신하는 이야기로 보인다.

### 남이 장군 전설의 백족산

백족산은 장호원의 진산이다. 청미천 물줄기와 산기슭의 복숭아꽃이 어우러지는 백족산의 봄은 장호원의 절경이다. 청미천이 휘감아 돌며 만든 어석리·진암리·오남리의 비옥한 벌판 한가운데 우뚝 솟은 백족산은 군계일학이다.

백족산에는 지네와 남이 장군 전설이 내려온다. 백족산(百足山)의 이름도 지네산에서 따온 것이다. 지네를 한자로 백족(百足)·토충(土蟲)·오공(蜈蚣)이라 부른다. 전설에 의하면 백족산 굴바위에 수백 년 묵은 큰 지네가 살았다고 한다. 그 지네는 도술을 부



백죽산 전경

려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 굴바위 근처에 있는 사찰의 스님들이 하나둘 지네에게 잡아 먹혔다. 마지막 남은 스님이 마을로 내려와 신도들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는데 마을의 학자 한 분이 스님에게 옷에 담뱃진을 묻혀 입도록 하였다. 마지막 날 지네가 스님을 잡아 먹으려 할 때 담뱃진에 의해 지네는 죽고 스님은 살아남았다. 지네가 죽으면서 과관 서기가 서려 청미천 건너 어느 집으로 들어가서 아기가 태어나니 남이 장군이었다는 것이다. 이 아이가 커서 서당에 다니게 되었는데 지네 제거술을 알려 준 서당의 훈장은 이 아이의 신분을 알고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 아이는 훈장의 방에 조용히 들어와 자고 있는 훈장을 마구 찔렀다. 그러나 위협을 감지하고 미리 다락에서 숨어있던 훈장은 아이를 호령하며 밖으로 나오니 아이는 굴복하고 지네의 서기가 사라졌다. 그 아이는 후에 훌륭한 남이 장군이 되었다.<sup>21)</sup>

남이 장군은 태종 이방원의 외손으로 17세의 나이에 무과에 장원급제하여 세조의 지극한 총애를 받았다. 특히, 세조 때 가장 큰 국난인 ‘이시애의 난’을 평정한 공로로 적개공신 1등에 오르고 의산군에 봉해졌으며, 28세에는 병조판서까지 올랐다.

21)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천시 장호원을 문화유적·민속조사보고서』, 이천문화원, 1997, 100~101쪽.

그러나 남이는 예종 때 유자광의 모함을 받아 능지처참되니 나라는 젊은 인재를 잃게 되었다. 남이는 익평부원군 권람의 사위로 처가가 생극면 방축골이었다. 백족산에서 내려다보이는 남이의 처가와 백족산 지네가 결합되어 남이+지네 전설이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백족산 밑 청미천에 있는 보가 자점보이다. 자점보의 연원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조선 인조 때의 역신 김자점이 쌓았다는 전설이 전할 뿐이다. 김자점은 인조반정의 주동 인물로 정사공신에 올랐으며 그의 손자를 인조 후궁의 딸 효명옹주와 결혼시켜 왕실의 외척으로 막강한 권력을 소유했던 인물이다. 전설에 의하면 김자점이 평소 명당을 물색하던 중 백족산에 비룡상천형(飛龍上天形)의 명당을 발견하고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인조반정이 성공하고 정사공신 1등에 오른 김자점은 권세를 이용하여 부친의 묘를 이곳에 썼다. 그러나 용이 하늘로 오르면[飛龍] 물이 있어야 하나 백족산 주변의 청미천만으로는 물의 세력이 부족한 것이 한 가지 흠이었다. 김자점은 수많은 주민들을 동원하여 청미천을 가로질러 보를 쌓아 사시사철 푸른 물이 있는 인공 호수를 만듦으로 부친의 묘를 확실한 비룡상천형의 명당으로 만들었다. 보가 만들어진 후 주변의 주민들은 가뭄이 들면 자점보의 물을 몰래 뽑아 썼던 탓에 장호원별은 가뭄을 모르는 옥토가 되었고, 김자점이 이곳에서 나는 쌀을 가져다 먹었기 때문에 권세가가 되었다는 말도 생겨났다. 김자점이 역모죄로 처형된 후 백족산에 있는 그의 부친의 묘를 파헤치니 장례를 지낼 때 얹어서 묻었던 시체가 용의 모습으로 변하여 자점보 쪽으로 굴을 뚫고 전진해 가는 중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형리들이 용의 목을 잘랐는데, 지금도 그 자리는 바람이 몹시 부는 날에도 바람기가 조금도 없이 잔잔하다고 한다.

A detailed, stylized map of Jeonju, South Korea, in a traditional ink-wash style. The map shows the city's layout with rivers, mountains, and various landmarks. The title text is overlaid on the map. The text is in a clean, modern sans-serif font, with the number '03' in a larger size than the title. The background map is a detailed, stylized map of Jeonju, South Korea, in a traditional ink-wash style. The map shows the city's layout with rivers, mountains, and various landmarks. The title text is overlaid on the map. The text is in a clean, modern sans-serif font, with the number '03' in a larger size than the title.

03

이천,  
땅 이름의 유래





이인수 | 이천향토사연구회 회장

### 제3장 이천, 땅 이름의 유래

#### 1. 땅 이름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야트막한 산자락을 끼고 한 폭의 그림처럼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햇볕이 잘 드는 남향이라서 이름이 양달말이다. 마을 뒤로는 산등성으로 이어지는 몇 개의 골짜기가 있다. 그중에서 제일 긴 골짜기가 긴골이며, 가재가 많은 가재골, 찬 샘물이 솟아나는 찬샘골도 있다. 마을 앞에 펼쳐진 들판이 문앞들과 붓들이며, 그 너머에 있는 넓은 들이 너른들이다. 양달말 뒤로 산기슭을 돌아가면 뒷말이 나온다. 들판 건너에 있는 마을이 건넌말, 물레방아가 있는 개울을 건너 주막거리를 지나면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새말이 있다. 땅 이름은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와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운 이름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소리[音]나 뜻[意]이 바뀌기도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초목이나 동물들의 이름이 그랬던 것처럼 땅 이름들도 처음에는 순수한 우리말 이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마땅한 기록수단이 없다보니 중국의 한자를 빌어서 우리 문자를 대신하게 되었다. 그렇게 양달말이 양촌리[陽村里]가 되었고, 뒷말은 후동[後洞], 건넌말은 월촌[越村]이 되었다. 우리말을 음운체계가 전혀 다른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은 비슷한 음을 따서 적기도 하고 어떤 것은 뜻을 취해 적기도 했다. 음차[音借]와 훈차[訓借]가 하나의 고유명사 속에 뒤섞이기도 했는데, 이렇듯 원래의 우리말 땅 이름들이 한자로 바뀌는 과정을 거치면서 모습이 크게 달라졌다. 뜻은 같지만 발음이 다른 우리말과 한자 이름이 함께 쓰이거나, 뜻도 발음도 다른 몇 개의 이름들이 뒤섞여 사용되는 복잡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한글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쉽고 쓰기



옛 지도 속의 이천(『동  
여비고』, 조선시대)

편한 우리글이 엄연히 있는데도 대부분의 기록물들이 여전히 한자로만 이루어졌던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땅 이름들은 또 한 차례 커다란 수난을 맞게 된다. 1914년 일제는 효율적인 식민지 통치를 위한 목적에서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였다. 당시 이천군도 음죽군의 대부분 지역을 흡수하면서 18개 면 158개 리가 11개 면 132개 리로 통폐합되는 개편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때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진 읍·면·동·리에 대한 행정구역 명칭들이 오늘날 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한자명이 아닌 우리말 이름들도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구전으로만 전해지다 보니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경우가 적지 않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실체는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수수께끼 같은 기호나 퍼즐조각을 마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오늘날의 땅 이름들인 것이다.

땅 이름에는 그 고장의 자연환경과 역사·민속·언어 등의 문화적인 특성이 살아 숨 쉬고 있다. 따라서 땅 이름은 향토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땅 이름이 갖는 특성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자. 첫 번째는 지리학적 관점에서 땅 이름은 그것이 놓인 장소의 생김새나 위치, 방위에 따라 이름 지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 고장의 지리적인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 양달말·웅달말·별말·긴들·너른들·좁은골·독넘어 같은 이름들은 이름만 들어도 마을이나 들판, 골짜기 등이 자리 잡은 곳의 위치나 생김새를 짐작할 수 있다. 바위나 개울, 연못, 나무 같은 특징적인 자연물이 땅 이름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

두 번째로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땅 이름에는 그 고장의 특징적인 사건이나 지난 일들이 반영되어 내려오는 탓에 역사 연구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특히 옛 문헌이나 자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향토사의 경우는 땅 이름이 갖는 의미가 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다. 또 중요한 인물과 문화유산, 역사적인 기념물 등의 존재가 땅 이름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인물의 행적과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발굴하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지석묘·고인돌의 존재에서 마을 이름이 유래된 신둔면 지석리의 경우나 향교말·불당골·능골·비석거리·탑골 같은 이름들이 이와 관련 있는 경우이다. 필자는 실제로 부처바위와 사기실이라는 이름에서 단서를 얻어서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마애불상과 옛 도요지를 찾아낸 경험도 있다.

세 번째로 민속학적인 관점에서 땅 이름에는 그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세시풍속과 민간신앙, 생활관습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땅 이름에는 그것이 생겨나게 된 유래나 얽힌 이야기가 민담이나 설화를 통해 전해오고 있어 구비문학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천지역의 경우도 ‘효양산 금송아지 이야기’, ‘기치미고개와 넝고개 이야기’, ‘울면 밤골의 유래’ 같은 땅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수 전해 오고 있다.

네 번째로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땅 이름은 강한 보수성과 구어성을 지니고 있는 탓에 그 고장의 특징적인 방언이나 음운현상을 연구하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땅 이름의 대표적인 것이 마을 이름이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산과 골짜기, 그리고 논밭이 자리 잡은 들판 이름들이다. 고개와 언덕·바위·숲·길·다리·강· 시내·저수지·보·연못·샘·수령 등에도 저마다 이름이 있다. 근

래에 와서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 땅 모습이 크게 달라지면서 거리·시장·다리 같은 새로운 이름들이 계속 생겨나는 반면, 예로부터 불리던 귀에 익은 이름들은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천문화원이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 의뢰하여 각 읍면별로 지명 유래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천지역에는 마을 이름만 1,5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들판과 골짜기를 비롯한 모든 이름들을 합하면 땅 이름은 7,000여 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sup> 제한된 지면상 이 글에서는 이천지역의 땅 이름들을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그중 대표적인 예만 간추려 소개하고자 한다.

## 2. 지리적인 관점에서 본 땅 이름

### 1) 위치·방향·크기에서 온 이름들

마을과 골짜기, 들판 등 대상물이 자리 잡은 곳의 상대적인 위치나 방향 및 크기를 의미하는 아래·위·가운데·앞·뒤·안·밖·크기의 대소 등이 땅 이름이 된 경우이며, 땅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보편적인 예에 속한다.

아래·위 : 웃말[上村, 上洞], 아랫말, 윗골, 밑골[미테골, 미테울], 윗들[윗벌, 상들], 아랫들[하들],  
우대거리, 웃산미테들, 우렛논  
앞·뒤·마루·머리 : 앞말, 뒷말[後洞], 앞들[전들], 뒷골, 당앞, 마룻들, 용머리  
안·밖 : 안말[內村], 바깥말, 산안[山內], 속골, 안고래  
가운데·사이 : 가운데말[간데말, 중말, 中里], 중터말, 셋말[閭村], 셋논  
가장자리·곶 : 가골[갯골], 가재울, 가장굴, 기슭들, 행길곶, 철다리곶  
넘어·건너 : 넘말[越村], 건넌말, 너먼들, 장등너머, 개너머

1)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이천문화원과 강남대학교 인문기술공감연구소(학술조사단, 인문과학연구소)가 공동 조사하여 각 읍면별로 편찬한 문화유적·민속조사보고서 「지명유래편」 참조.



크다 · 작다 · 넓다 · 좁다 : 큰말[大洞], 작은말, 큰골, 작은골, 너븐들, 광대들, 좁은골  
 동서남북 · 양지 · 음지 : 서편말, 동촌, 남천, 양달말[양지말, 陽村], 웅달말  
 모퉁이 : 서밭모퉁이, 띠밭모퉁이, 당모레이, 동양모텡이, 솟돌모랭이, 종종모랭이

마을 이름 가운데 위치를 나타내는 윗말[윗말]과 아랫말은 이천지역에서도 가장 많이 불리는 이름이다. 두 번째가 지리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이름은 아니지만 새로 생긴 마을을 뜻하는 새말[新村] · 새터[新堡] · 새터말이며, 그다음이 양달말과 웅달말이다. 이어서 안말[內村] · 중말 · 별말[坪말, 坪村] · 건너말 · 큰말 · 곶말 · 넘말의 순이다. 골 이름의 경우는 큰골[큰바래기, 큰저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문화유산의 존재에서 유래된 절골[절터골, 불당골]과 능골[능안]이며, 이어서 안골[안테] · 윗골 · 가골 · 뒗골 · 밑에골 · 앞골 · 가재골 등이다. 들 이름 가운데 첫 번째는 봇들[새봇들, 큰봇들, 건너봇들]이며, 이어서 앞들[앞벌, 터앞, 문앞] · 긴들 · 방아다리 · 구렁자리 · 아랫들 · 안들 · 너븐들 · 윗들의 순이었다.<sup>2</sup>

부밭읍 산촌리나 모가면 산내리[산안], 울면 산성리의 산골도 산속에 자리 잡은 마을이므로 위치에서 온 이름으로 분류되며 별말도 마찬가지다. 부밭읍 아미리의 두 고실은 뒗+고실로 고실[庫室] 역시 산마을의 뜻으로 본다. 신둔면의 웃산미테들은 하나의 이름 속에 위치를 나타내는 복합명사가 들어있는 드문 예다. 크고 넓은 들은 ‘큰들’이라는 호칭보다도 비단들 · 노들 · 군들 · 백석지기 · 천냥짜리 · 아홉마지기 배미 · 너븐들 · 광대들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반면 지형이 협소한 곳은 비렁뱅이들 · 궁골 · 뒗가리 · 잔다랑이 등의 이름이 조사되었다. 관고동 기치미 고개 아래 골짜기를 옛날부터 개배미라고 불렀는데, 땅이 협소하다보니 논이 손바닥만 해서 논 한 배미와 개 한 마리를 서로 바꾸었기 때문에 개배미라고 했다는 유래가 전해온다. 모가면의 소리울[송곡리]과 장호원읍의 솔따배기들도 작은 지형 때문에 생긴 이름일 가능성이 있다.

2) 이인수, 『확 뜯어고쳐야 할 이 땅의 이름들』, 이천문화원, 2008, 5~26쪽.

## 2) 지형적인 특징에서 온 이름들

### 갈라진 길목 : 갈미<sup>[葛山]</sup> · 가래울<sup>[漉洞]</sup>

갈미갈산동, 모가면 신갈리는 근처 산에 칙녕쿨이 많아서, 가래울장호원을 방추리, 설성면 신평리, 울면 신추리는 산에 가래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유래가 전해오고 있으나, 갈미 · 가래울은 모두 동사 ‘갈라지다’에서 온 이름이다.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지형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길목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 높은 고개 : 고갯말<sup>[高尺里]</sup> · 고갯골

‘高尺’은 ‘곧재’ 또는 ‘고갯’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다. 고갯말<sup>신둔면 고척리</sup>, 울면 고당리의 고갯은 높은 산고개를 의미하는 옛말에서 온 이름이며, 고잔들<sup>부발읍 대관리</sup> 역시 마찬가지다.

### 둥글게 둘러싸인 지형 : 두무재 · 둔터 · 둔촌 · 가마골

두무재<sup>부발읍 고백리</sup>는 옛날 두시춘<sup>杜時春</sup>이라는 지관이 원적산에 있다는 금반형지를 찾아 헤매다가 이 고개 위에서 발견하고는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덩실덩실 춘 데

울면 신추리 옛 모습  
(1969, 양경직 제공)



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그러나 ‘두무’는 산자락이나 언덕으로 둥글게 둘러싸인 지형을 의미하는 이름이다. 둔터<sup>신둔면 수남리</sup>와 둔춘<sup>장호원을 진암리</sup>도 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를 의미하는데, 옛날 군사주둔지였거나 둔전<sup>屯田</sup>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마골<sup>마장면 관리</sup> 역시 가마솥처럼 둥근 지형을 말한다.

### 비스듬한 지형 : 비끼미 · 비아매기 · 빗가래

비끼미<sup>단월동</sup> · 비아매기<sup>모가면 송곡리</sup> · 빗가래<sup>설성면 장천리</sup> 등은 비탈이나 비알, 즉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지형을 의미한다.

### 물가나 벌판 쪽으로 튀어나온 지형 : 소고지 · 도구머리 · 용머리

바다나 강에서 물가 쪽으로 튀어나온 지형을 곶<sup>串</sup>, 고지, 꺾이이라 부르는데, 육지에서도 드물게 고지 계열의 땅 이름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소고지<sup>모가면 소고리</sup>는 마국산에서 갈라진 낮은 산줄기가 길게 벌판 쪽으로 뻗어 나온 지점에 자리 잡은 마을로 이천지역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고지 계열의 땅 이름이다. 도구머리<sup>백사면 모전리</sup>는 ‘돋머리’에서 온 이름이며, 용머리<sup>호법면 후안리</sup> · 용지머리 등 ‘~머리’가 붙는 이름들



호법면 후안리 옛 모습  
(1968)

역시 산이나 들판 쪽으로 머리를 내민 지형에 나타나는 이름들이다. 머리[마리]는 마을을 뜻하기도 한다.

### 잘록한 지형 : 병목안 · 장구배미 · 장구자리

병목안모가면 송곡리는 병목처럼 입구가 좁은 지형의 안쪽이란 뜻이며, 들 이름인 장구배미와 장구자리는 장구처럼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지형이다.

### 외진 마을 · 후미진 곳 : 후미촌 · 구석말 · 은골 · 오미 · 요골

호법면 후안리는 ‘厚美村’이란 그럴듯한 한자 차용어를 쓰고 있지만 큰길가에 서 들어간 후미진 마을이란 뜻으로 봐야 한다. 장호원을 어석리 은골[於鑿] 역시 어진 선비가 세상을 등지고 이 마을에 은거했기 때문에 유래된 이름이라고 하지만 길가에서 떨어진 외진 마을이란 뜻으로 풀어야 한다. 은골은 이천 관내에서도 여러 지역에 나타나는 이름이기도 하다. 오미호법면 유산리와 요골종포동도 길가에서 들어간 마을이란 뜻으로 추정된다. 마장면 작촌리에 ‘나라모르기’라는 골짜기가 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넓은 분지인데 너무 외진 곳이어서 나라에서조차 모르는 궁벽한 땅이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 돌아 들어가는 곳 : 도니피 · 도니울

백사면 도립리 역시 ‘道立’이란 한자명을 쓰고 있지만, ‘도니피’는 큰길가에서 돌아 들어가야 하는 외진 마을이란 뜻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도니울대월면 도리리 역시 마찬가지다.

### 방죽이나 보가 있는 지형 : 봇들 · 방죽골 · 천방들 · 저수지들

들 이름 중에서도 봇들 · 방죽들 · 저수지들 · 웅덩자리 · 샘들 같이 물과 관련된 땅 이름들은 논농사에서 생명과도 같은 물의 중요성이 반영된 이름이라고 하겠다. 마장면 이평리의 마을이름인 진들은 땅에 물기가 많은 들이 아니라 긴들[長埤]의 음운 변화로 봐야 할 것이다. 기단들 · 진사리 · 뱀골대월면 사동리 등도 같은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구비재 · 구븐들 · 곱사리들 · 고브랭이는 굽은 지형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신둔면 수광리의 섬말[島村]은 편편한 들판 가운데 섬처럼 우뚝 솟은 지형을 말하며, 나뭇가지는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마을이기 때문에 생겨난 이름이라는 유래가 전해 온다. 그밖에도 오래 묵은 나무나 바위 · 고개 · 연못 · 샘 · 구렁 · 수렁 등의 존재에서 나온 상나무골 · 은행나무골 · 문바위 · 검은돌 · 굴바위골 · 연못말 · 찬샘물 · 옷샘골 · 구렁자리 · 쉬골 · 한우물 같은 이름들 역시 지형적인 특징에서 유래된 땅 이름들이다.

### 3. 역사적 관점에서 본 땅 이름

#### 1) 역사유적이나 유물에서 유래된 이름

##### 불교유적과 유물에서 온 이름 : 절골 · 불당골 · 부처골 · 미륵당 · 탑골

이천시 전역에 분포돼 있는 절골 · 절터 · 절터골 · 절답 · 난절터 · 불당골 같은 이름들은 절이 있거나 있었던 곳이다. 그런데 불당골은 골짜기 안을 가리키는 옛말인 ‘반안골’이 ‘불안골’ → ‘불당골’로 음운변화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절이 있었던 곳에는 옛날 빈대가 많아서 스님들이 절을 불태우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는 이야기가 전해 오기 때문에 빈대절터라 불리기도 한다. 안흥동安興洞은 조선 전기까지도 안흥사安興寺라는 큰 절이 있었기 때문에 유래된 이름이다. 절터였던 곳이 택지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안흥사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조각들이 출토되기도 했다. 마장면 표교리 도드람산 남쪽 기슭에 있는 정חק골은 이곳에 정악사定岳寺라는 절이 있었기 때문에 유래된 이름이다.

부처당골장호원을 진암리 · 부처댕이울면 산양리 · 부처골장호원을 선읍리, 울면 고당리 · 총곡리 · 부처바위모가면 소고리, 장호원을 나래리 · 미륵당장호원을 어석리 · 미륵댕이모가면 두미리 · 미륵골관고동, 마장면 이평리는 모두 석불상의 존재와 관련 있는 이름들이다. 장호원을 어석리 미륵당 마을에 있는 어석리석불입상의 네 귀퉁이에는 지금도 잘 다듬어진 네 개의 돌기둥이 남아 있어서 미륵당의 존재를 뒷받침하고 있다. 부발읍 수정리 탑골에는 옛날



어석리 석불입상



오층석탑이 있었다는 말이 전해 오고 있지만 지금은 행방을 알 수가 없다. 장호원읍 노탑리와 신둔면 마교리에도 탑거리가 있고, 장호원읍 선읍리에는 탑산골이 있다. 또 마장면 회억리, 설성면 제요리와 송계리에도 탑골이 있다. 마찬가지로 이들 지역에도 석탑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행방은 역시 알 수가 없다.

### 이름만 남은 이천관아와 음죽관아 : 창전리 · 사고리 · 행궁터 · 음죽읍내

조선시대 이천도호부의 관아가 있었던 곳은 창전동사무소 뒤 서희청소년센터가 들어선 자리이다. 『이천읍지』 기록을 보면, 22칸짜리 아사衙舍 건물을 중심으로 형방청 · 노방청 · 토포청 · 사령청 같은 아문들이 좌우로 포진하고 있었다. 관아 동쪽에는 객사와 행궁이 있고, 그 앞쪽에는 관아에 딸린 각종 창고가 자리 잡고 있었다. 창전동은 과거에는 창전리倉前里와 사고전리司庫前里로 나뉘었는데, 창전리는 한자의 뜻 그대로 창고 앞마을이란 뜻이다. 사고전리 역시 사고 앞마을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네거리를 뜻하는 이름인 ‘사거리’로 와전되었다. 행궁은 조선시대 임금들이 여주 영릉을 오갈 때 묵었던 별궁인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행궁터란 이름만 남아 있다. 평구재는 관아에서 열음을 보관했던 빙고氷庫가 있었던 곳이다. 관고洞官庫洞은 옛 명칭이 관후리官後里인데 글자 그대로 관아 뒷마을이다.

장호원읍 선읍리 역시 옛날 음죽군의 치소가 있었던 곳이라서 이름이 음죽읍

내, 또는 읍내다. 선읍리는 과거 읍내리·향교리·원하리 등으로 나뉘었는데, 지금은 향교말[생거말]·원하·관서터·빙정말의 이름만 남아 있다. 원하院下는 글자 그대로 원 아래에 있는 마을, 관서터는 원님이 살았던 곳이라고 한다. 장호원읍 오남리의 오창말 역시 관아에 속한 창고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추정된다. 향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관립학교였던 탓에 아무 곳이나 함부로 세울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 향교골모가면 송갈리·생거모룡이마장면 이치리·생거골설성면 대죽리 같은 이름들이 있어 궁금증을 자아낸다.

### 도자기를 굽던 마을 : 사기막골·사기실·점말

사기막골관고동, 마장면 목리·사기실마장면 해월리·점말·점촌신둔면 수광리·남정리, 백서면 모전리, 마장면 해월리·이치리, 울면 본죽리는 옛날에 도자기를 굽던 곳의 이름이다. 사기막골이나 사기실은 청자나 백자 등을 구웠던 곳이며, 점말·점촌은 대부분 향아리나 뚝배기 같은 옹기그릇을 구웠던 곳으로 보인다. 신둔면 수광리와 남정리의 점말은 1960년대 초반까지도 칠기漆器라 부르는 일종의 옹기그릇을 생산하던 곳이다. 이 칠기가마를 찾아서 당시 몇 안 되는 도자기장인들이 신둔면으로 모여들었고, 이들에 의해 본격적인 도자기제작이 이루어지면서 오늘의 이천도에촌이 탄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둔면 점말은 이천 현대도자기의 발상지인 셈이다. 울면 본죽리 점말에는 조선 말 천주교 박해를 피해 멀리 경상도 청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1920~1930년대까지도 칠그릇을 만들면서 살았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다.

### 큰 무덤이 있는 곳 : 능골·능안말

능골장록동, 장호원읍 이황리·방추리·진암리, 호법면 단천리·능말신둔면 수광리과 능안장호원을 대서리·능안말송정동 등은 대부분 큰 무덤이 있거나 있었던 곳이다. 송정동의 능안말에는 숙종 때 영의정을 지낸 남구만南九萬의 증조모 성주현씨의 묘가 있다. 묘갈과 문인석·망주석·상석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비문은 증손 남구만이 지었다. 신둔면 수광리의 능말은 세조 때 호조판서를 지낸 김길통金吉通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호법면 단천리 능골에는 고려 말 공신인 고양부원군 박우생朴雨生의 묘가 있었으나, 영동고속도로가 묘역을 지나가게 되자 1971년에 울면 고당리로 천묘하였

신둔면 수광리 능말의  
유래가 된 김길통의 묘



다. 부발읍 대관리는 옛 이름이 대왕리大旺里인데 이곳에 왕무덤이[왕구데미]라는 땅 이름이 있다. 왕무덤이는 공민왕의 아들로 왕위에 올랐다가 이성계에 의해 폐위되어 죽음을 당한 우왕禔王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라고 전한다.

### 역로와 철도가 지나가는 길목 : 원터 · 파발막 · 철다리계

조선시대에 전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로에는 일정한 거리마다 역참驛站과 원院을 설치하고 공무로 오가는 관리들을 위한 숙식과 편의를 제공하였다. 또 길목마다 이정표를 세우고 정자를 지어 길손들이 쉬어 갈 수 있도록 했다. 한양에서 경상북도 내륙지방을 잇는 영남대로에 위치한 이천과 음죽에는 오천역吾川驛 · 아천역阿川驛 · 유춘역留春驛 · 무극역無極驛, 현 음성군 무극면 등 4개의 역이 있었다. 참으로는 발소고척참撥所高尺站 · 대포참大浦站 · 소사참素沙站 · 발참撥站이 있었고, 원으로는 잉읍원仍邑院 · 관천원貫川院 · 부민원富民院 · 장해원長海院 · 관사원貫寺院 등이 있었다. 아천역은 송정동 아리마울로, 장해원은 장호원읍으로, 부발읍 응암리에 있었던 소사참은 파발막이란 땅 이름으로 각각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울면 산성리의 돌원[石院]은 관사원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며, 원아래院下, 장호원 선읍리는 부민원과 관련 있는 이름으로 추정된다. 울면 신추리에도 원터가 있다. 석교촌장호원을 장호원리, 울면 신추리이란 마을 이름도 역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면서 길가에는 하나 둘씩 오고 가는 길손들을 위한 주막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주막거리와 주막 이름은 이천지역에만 30여 곳에 남아 있다. 장호원을 이황리의 배나무정(梨木亭)과 신문면의 소정리(小亭里)는 길손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길가에 세운 작은 정자의 존재에서 유래된 이름일 것이다. 이천시 지도 위에 원터·파발막·주막거리·장터·갈미·가래울 같이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던 길목에 나타나는 이름들을 표시하고 이를 선으로 연결하면, 옛 역로와 역로에서 갈라지는 도로의 자취를 파악할 수 있다. 지형적인 특징과 땅 이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물인 셈이다.<sup>3)</sup>

수여선 철도와 관련된 이름들은 식민지 시절의 근대사가 땅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경우다. 수원에서 이천을 거쳐 여주 사이를 오고 갔던 수여선 열차는 1931년에 개통

3) 이인수, 『확 뜯어 고쳐야 할 이 땅의 이름들』, 이천문화원, 2008, 17~19쪽.



되어 일제 패망 이후에도 계속 운영되었다. 그러나 1972년 경영부진으로 문을 닫으면서 이천의 40년 철도시대가 막을 내리고 말았다. 나이 지긋한 이천사람들에게 추억의 산물이기도 한 수역선 열차의 기억은 역전로타리·철다리계<sup>총리동</sup>·철뚝넘어<sup>땀갈산동</sup>·오천역터<sup>마장면 오천리</sup> 등의 이름으로만 남아 있다. 장호원읍지역에도 경남철도회사가 천안-장호원 간 열차운행을 실시했으니, 노탑리의 장호원 역터와 철뚝계·철뚝넘어<sup>들송산리</sup>이 이와 관련된 이름들이다. 이포사거리와 수원사거리 역시 일제강점기 시절 자동차 도로망이 정비되면서 생겨난 이름이다.

### 정문말과 비석거리 : 정문말 · 정문고개 · 비석거리

울면 산성리의 정문말은 신미양요 때 광성진전투에서 순절한 어재연<sup>魚在淵</sup> 장군의 충신정문이 있어서 유래된 이름이다. 근처에는 어재연 장군이 젊어서 무술을 연마했다는 사장터와 장군의 애마를 묻은 곳이라는 말무덤 터도 있다. 신둔면 수남리의 정문고개는 병자호란 때 적에게 항거하다가 순절한 청주한씨의 열녀문이 있어 생겨난 이름이다. 비석거리<sup>장호원을 장호원리</sup>, 신둔면 고척리, 부발읍 신하리는 모두 비석이 있었던 곳이다. 관고동 비각거리는 양정여자중고등학교 교문 건너편 마을의 이름이었다. 1970년대 후반까지도 길목에 이천부사 이서영<sup>李瑞永</sup>의 송덕비를 세운 비각이 남아 있었으나 지금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마을은 흔적조차 사라져 버렸다.

선사유물의 존재가 마을 이름이 되기도 하는데, 고인돌에서 유래된 신둔면 지석리의 ‘권돌’과 선돌에서 유래된 장호원읍 오남리의 ‘입암<sup>立岩</sup>’이 그것이다. 모가면 진가리 진안<sup>陣內</sup>과 신둔면 수남리의 둔터는 옛날 군사주둔지와 관련된 이름으로 추정된다. 신둔면 남정리의 한성부<sup>漢城府</sup>라는 마을이름은 특이한 이름이지만 생성 동기를 전혀 알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다. 백사면 내촌리 궁터는 옛날 궁이 있었던 곳으로 양녕대군이 이천에서 귀양살이를 할 때 거주했던 곳이라는 유래가 전해 온다. 설성면 제요리의 제투골은 제촌부곡<sup>蹄村部曲</sup>이라고도 부르는데, 삼국시대 이래 특수한 천민계층의 주민들이 모여 살았던 행정구역인 부곡의 흔적이 이천지방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예라 하겠다.



## 2)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에서 유래된 이름

백사면 원적산에는 공민왕과 관련된 옛이야기가 전해 온다. 1361년<sup>고려</sup> 공민왕 10 홍건적이 압록강을 건너 고려를 침입해 오자 고려 조정은 급히 군대를 보내 적을 방어토록 했다. 그러나 절령<sup>岳嶺</sup> 방어선이 무너지자 공민왕은 남쪽으로 피난길에 올라 11월 24일 이천현에 도착하였다. 이천에서 수일 동안을 머문 왕과 왕비 일행은 개경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음죽을 거쳐 복주현<sup>안동</sup>로 피난길을 떠난다. 공민왕이 이천으로 피난을 왔던 사실이 땅 이름을 통해 전해 오는데, 원적산 천덕봉을 왕이 머물렀던 곳이라고 하여 공민봉<sup>恭愍峰</sup>이라고도 부른다. 조읍리에서 현방리 쪽으로 가다보면 시궁다리<sup>休宮橋</sup>라 부르는 다리가 있고, 도립리에는 가마번당이 있는데 모두 공민왕의 어가가 쉬어간 곳이라는 유래가 전해 온다. 부발읍 대관리에 있는 국사랭이산 역시 공민왕이 피난 갈 때 쉬어간 곳이며, 국우물은 왕이 타던 말에게 물을 먹인 곳이라고 한다.

‘기치미고개와 녀고개’ 이야기도 임진왜란이란 민족수난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충주 탄금대전투에서 전사한 신립 장군의 시신을 운구하는데, 장군의 녀이 상여를 따라오다가 기침을 한 곳이 기치미고개가 되고, 녀이 사라진 곳이 녀고개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천의 대표적인 땅 이름 관련 설화 가운데 하나다. 장군의 무덤이 넓고개 넘어 곤지암에 있기 때문에 당시 시신을 운구하기 위해서는 이 고개를 넘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시신을 찾지 못하고 투구 끝에 달았던 금관자를 대신 운구했다는 설도 있다. 그런데 녀고개는 ‘녘고개’가 아니라 넓은 고개라는 뜻의 ‘넓고개’이며 그래서 한자 이름이 ‘廣峴<sup>광현</sup>’이다. 발음의 유사성 때문에 생겨난 이야기지만 구전설화를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없는 일이다.

인물 이름이 땅 이름에 반영된 경우는 주로 지난날 부의 상징이었던 농지와 관련이 있다. 시종지는 한말 궁내부에 속했던 시종<sup>侍從</sup> 벼슬을 지낸 이시종의 땅을 말하며, 강만호들<sup>신둔면 수녕리</sup> 역시 만호<sup>萬戶</sup> 벼슬을 지낸 강씨의 땅이라는 뜻이다. 모가면 군량리의 김만제들<sup>金彦佐들</sup>·서하담밭<sup>백사면 모전리</sup>·설가들<sup>마장면 관리</sup>·이가들<sup>율면 본죽리</sup>도 같은 사례의 이름들이다.

검바위 지명유래가 된  
현방리 고인돌



#### 4. 민속학적 관점에서 본 땅 이름

##### 1) 민속신앙 및 생활풍습과 관련 있는 이름

백사면 현방리 검바위는 한자로는 ‘玄岩현암’, 옛 이름이 ‘黑岩리흑암리’ 인데 같은 뜻이다. 현방리에 있는 현방공원을 비롯한 주변 지역은 고인들이 모여 있는 선사유적지이다. 고인돌은 민간신앙의 대상물이 되기도 했으니, 검바위는 신령스러운 바위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다.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시골마을에서는 정기적으로 산신제나 성황제·우물제사 같은 동제洞祭를 지내는 곳이 적지 않았다. 신둔면 지석리에서는 지금도 마을 뒤에 있는 정개산 중턱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산신제를 지내는데, 산신제를 지내는 곳을 성안 또는 산지사터라고 부른다. 신둔면 수남리에 서도 마을 뒤 산제당골에서 3년마다 산신제를 지낸다. 증일동과 장호원을 진암리의 산지당골 역시 산제사를 올리던 곳이다. 널리 분포된 성황당고개·서낭탱이·장승이·장승백이 같은 이름들도 민간신앙의 산물이라 하겠다.

주막거리·주막들·장터거리·도수장거리·쇠전거리·싸전거리 같은 이름들은 모두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이름들이다. 술막재신둔면 고척리도 같은 경우

이며, 떡전머리~~호법면~~ 유산리는 옛날 이천읍내 장이 서는 날이면 오고 가는 길손들을 상대로 떡을 파는 곳이었다고 한다. 곳집거리와 곳집들은 상여를 보관하기 위한 ‘곳집’이 있었던 곳이라 유래된 것인데, 곳집의 된소리로 꽃집거리~~울면~~ 총곡리가 되기도 한다. 사장터는 활을 쏘던 곳으로 이천읍내에는 동사장거리~~충리동~~와 서사장거리~~관동~~가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주택가로 변모되었다. 병마골~~장호원~~을 내려온 옛날 전염병 환자를 마을에서 격리시켰던 움막이 있던 곳이며, 초빙골~~마장면~~ 작촌리는 초빈장~~草殯葬~~을 치루던 골짜기로 추정된다. 땀띠샘~~울면~~ 고당리는 이곳 물로 몸을 씻으면 땀띠가 없어진다고 하며, 옷샘·옷샘골 역시 옷물이 피부병에 좋다는 속설에서 생겨난 이름이다.

풍수지리설과 관련된 이름들도 있다. 매화지~~부발~~을 신하리는 마을형국이 매화낙지형이라서, 비연개~~부발~~을 산촌리는 제비가 나는 형국이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경기터~~백사면~~ 경사리는 옛날 이곳에 도읍을 정하려고 했다가 땅이 협소하고 강이 너무 멀어서 포기하고 마을 이름만 남게 되었다는 유래가 전해 온다. 소눈골~~부발~~을 송온리·용머리~~호법면~~ 후안리·쇠경들~~모가면~~ 서경리 같은 이름들도 풍수설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

## 2) 땅 이름에 얹힌 옛 이야기들

땅 이름에는 그 지역에 전해 오는 옛이야기들이 얹혀 있어서 구비문학을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 ‘효양산 금송아지 이야기’는 이 고장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린 시절부터 귀에 익숙하게 들어온 이천의 대표적인 전설일 것이다. 옛날부터 부발읍 효양산에는 천하의 보물인 금송아지가 묻혀 있다고 했다. 중국 당나라의 황제가 이 금송아지를 탐내서 신하를 시켜 가져오도록 했다. 온갖 고생 끝에 마장면 오천리 근처까지 온 신하가 지나가는 노인에게 길을 물었다. 노인이 대답하기를 “오천장을 지나서, 억만이고개를 넘어서, 이천장을 지나서, 억억다리를 건너서, 구만리 벌판을 지나가면 효양산이 있소”라고 했다. 노인의 대답 속에 나오는 이름들은 모두 오천 쪽에서 효양산을 갈 때 거쳐야 하는 지명이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당나라 신하는 ‘5,000개의 장오천장, 억만 개의 고개억만이고개, 2,000개의 장이천장, 억억 개의 다리억억다리, 9만 리구만리’로 이해했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 낙심한 채 발길을 돌려 중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나라 신하가 발길을 돌린 그곳 이름





김자점에 얹힌 이야기  
가 있는 자점보

은 작별리마장면 작촌리인 것이다.

백사면 우곡리 거지개는 옛날에는 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개라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 마을의 어느 부자가 매일처럼 찾아오는 행인과 거지들 때문에 심술이 나서 마침 찾아온 스님에게 물었다. “거지들이 오지 않도록 하는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더니, 뒷산에 있는 제비바위가 보이지 않도록 길게 독을 쌓으라고 가르쳐 주었다. 부자가 옳다구나 하고 독을 쌓았더니, 그 후 거짓말처럼 거지들이 사라졌고 부잣집도 망해 버렸다. 마을의 다른 부자들도 하나둘씩 망해서 마을을 떠나버려 거부개가 아니라 거지개가 되었다는 것이다. 제비바위가 재물을 물어다 주는 형국이라서 마을이 흥했던 것인데, 앞에 독을 쌓자 뱀이 제비를 잡아먹는 형국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단월동에 있는 원통산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 온다. 옛날 산 밑에 절이 있었는데 손님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이를 귀찮아하던 스님이 절 앞에 있는 노적봉을 꿇었더니 손님도 꿇어지고 절이 망해 버렸다는 것이다.

발음의 유사성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이천 사람들이 하루에 팔천장을 보는 이야기가 있다. 이천장을 보고 나서 오천장을 본 뒤 집에 와서 천장을 보면 팔천장이라는 것이다. 울면 고당리 상알에는 누에머리라 부르는 언덕이 있다. 이 언덕이 누에가 뽕잎을 갹아먹는 형국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마을이 가난하다는 유래가 전해 온다. 장호원에 있는 설성산은 신라 때 젊은 장수가 이 산에 성을 쌓는데, 꿈속에서 신령님의 계시를 받고 눈이 내린 곳으로만 돌아가면서 성을 쌓았기 때문에 이름을 설성雪城이라고 했다고 한다. 울면의 팔성산八星山도 ‘八姓’으로 풀이해서 산 밑에 여덟 개의 성씨들이 살았기 때문에 팔성산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유래가 전해 온다.

옛날에는 장호원을 장후원藏后院이라 부르기도 했다는 말이 전해 온다. 풍수의 대가로 이름을 떨친 남사고南師古가 백족산에 올라 지세를 살피다가 장차 왕후가 숨을 곳이라고 하여 생긴 이름이라는 것인데, 과연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명성황후가 장호원에 와서 피난살이를 하게 된다. 당시 명성황후가 밟고 건넌 징검다리는 후답교后踏橋라 불렀다고 한다. 산돼지가 울어서 절벽에 매달려 약초를 캐던 효자의 목숨을 구했다는 도드람산의 유래, 울면 본죽리 열두밤골의 유래, 인조 때 역신 김자점과 장호원 지재미보자점보에 얽힌 이야기 등도 땅 이름과 관련 있는 이야기들이다.

## 5. 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땅 이름

### 1) 음운변화를 통해 본 땅 이름

땅 이름 가운데는 오랜 세월을 사람과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해 전해 오는 과정에서 음운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많다. 한자 이름보다도 우리말 이름의 경우 변화의 폭이 더욱 크며, 한자와 우리말이 복잡하게 뒤섞여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백사면 내촌리의 우리말 이름인 ‘소일’의 예를 들어보자. 소일은 마을 뒷산의 형국이 소를 닮아서 소가산이라 부르고, 마을 이름을 ‘소골’이라고 했다는 유래가 채집되고 있다. 그러나 소일은 ‘첫골’이나 사잇골을 뜻하는 ‘셋골’이 ‘첫골셋골→쇠



골→쇠길→쇠일→소일’로 음운변화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사잇말이 셋 말→샘말~~울면~~ 북두리로, 기와를 굽던 마을을 의미하는 옛말~~북두리~~은 자음동화 현상으로 워말·웡말로 변했다가 우엥말이 되기도 한다.

넬다리·넙은들 같이 ‘ㄹ’이 탈락하면서 너더리·너븐들로 호칭이 바뀌기도 한다. 또한 ‘숲안들→수반들~~단월동~~’, ‘면화골→미나골~~설성면 제요리~~’, ‘거북뿔→거부미 ~~설성면 암산리~~’로 부르기 쉽게 바뀐다거나, 별관 가장자리를 뜻하는 별가에가 별가테~~울면 북두리~~로, 사거리결이 사겨테~~호법면 소사리~~로 음운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손바닥만 한 작은 다랑이논이 있는 잔다랑이골이 잔드랑골로 바뀐 것을 비롯하여, ‘기와집담→가집담’, ‘여우바위골→여우박골’, ‘원아랫들→원알뜰’처럼 어휘가 줄어드는 현상도 흔한 예에 속한다. 다음은 음운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곳집거리 → 꽃집거리 → 고추거리~~울면 총곡리~~

터기슭 → 터기실 → 토끼실~~호법면 단천리~~

바깥억만이 → 박억만이 → 바닥만이~~마장면 회억리~~

솔밭모퉁이 → 솔밭모텡이 → 솔밭텡이 → 소빠텡이~~모가면 신갈리~~

드린바위 → 드룸바위 → 드룸바우~~설성면 암산리~~

오얏모퉁이 → 오얏모랭이 → 웯모랭이 → 웬모랭이~~설성면 수산리~~

벌밭 → 벌앗 → 버리앗~~백사면 모전리~~

그 지방의 독특한 방언이 땅 이름 속에 반영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장호원읍의 ‘닭모랭이’는 과거에 당집이 있어서 당모퉁이였거나 옛말의 산을 의미하는 단모퉁이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여겨진다. 울면 북두리의 ‘지시랭이’는 기슭의 사투리인 기스락이 음운변화 한 것이다. 또 모퉁이는 이천지방에서는 모텡이/모랭이/모랭/모룽이 등으로 변한다. 이외에도 구덩이→구텡이/구데미, 성황당→서낭텡이, 워말→웃말, 워거리→웃꾸리, 비탈→비얏, 바위→바우, 뿌리→뿌랭이/뿌레기, 향나무→상나무/상낭구, 길다→질다 등이 이천지역 방언에서 나온 이름들이다.

## 2) 옛 언어에서 생긴 땅 이름

땅 이름을 조사 연구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그 이름의 어원을 밝히는 일이다. 음운변화 이전의 본래 모습을 알아야만 생성동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땅 이름이 아주 오래전에 생겨나서 당시의 언어인 고대어나 중세어로 이름 지어진 경우이다. 산을 뜻하는 우리말은 ‘뢰’ 인데 뫼가 ‘매’ 로 바뀌고, 여기에 ‘梅’ 나 ‘鷹’ 같은 한자 차용어까지 통용되면서 매화꽃이 어떻다거나 매사냥꾼이 무엇을 했다는 등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마을 지명유래가 생겨나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 옛말에 한자 차용어가 뒤섞이고 거기에 음운변화까지 일어나면서, 복잡하게 뒤엉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땅 이름들이다.

이천의 젓줄, 북하천  
전경

지명연구가들이 밝힌 내용을 보면, 산을 의미하는 옛말로는 갈·감·검·곧·달·단·당·둑·뫼·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들에게서 나온 파생어와 한자 차용어까지 합하면 수십 가지나 된다. 갈[葛/秋]에서 갈래/가래[槲] 등이, 단에서 닷·닥[酉]·당堂·단[丹]·땃·대大/竹 등이, 반에서 뱃[田/外]·땃[栗]·바랑[鉢]·북北·붓[筆] 등이 줄을 이어 파생되는 식이다. 마을을 의미하는 말인 마라는 말[馬/水]·물·모래[沙]·마루·머리[頭]로 바뀌기도 한다. 붓고개장호원은 ‘筆峴’ 이 아니라 산고개를 뜻하는 호칭일 가능성이 더 크며, 당고개는 당堂이 있었던 고개가 아니라 산고개를 뜻하는 단고개에서 나온 이름은 아닌지, 불당골은 부처를 모셨던 곳이 아니고 골짜기 안을 뜻하는 분안골→붓단골에서 나온 이름은 아닌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천지방은 대나무가 자랄 수 있는 지역이 아닌데도 죽곡장호원을 선읍리·죽골부발음 죽당리·효죽설성면 대죽리·죽을동울면 본죽리처럼 대나무 죽자가 들어가는 이름들이 있다. 이들 마을은 대개 옛날에 대나무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는 유래가 채집되지만, 역시 산골을 의미하는 닷골이나 닷고개에서 파생된 이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6. 고을과 마을 이름의 유래

### 1) 이천의 유래

‘이천利川’의 유래에 대해서는 『고려사』 지리지에 처음으로 “태조가 남정할 때 군인郡人 서목徐穆이 인도하여 물을 건너 이로웠으므로 이천군이라는 이름을 내렸다”고 밝힌 이래, 『세종실록지리지』를 비롯한 여러 문헌들이 빠짐없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 정설로 굳어져 있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면 “혹은 말하기를 태조가 후백제 정벌을 앞두고 이천에 주둔하여 짐을 쳤는데, 이섭대천利涉大川이란 점괘를 얻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점괘에서 따다가 이천이라고 했다”는 또 하나의 설이 더해지게 된다. 이섭대천은 주역에 나오는 글귀인데 ‘큰물을 건너 이로움을 얻는다’는 뜻이다. 당시 태조 왕건에게 서목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왕건의 군사들은 물을 건너지 못하고 되돌아가야만 했을 터이고, 후백제 정벌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섭대천은 거센 물살을 헤쳐 앞으로 나아가듯 어려움을 헤쳐 나가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말을 얻게 된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이천은 ‘고구려의 남천현南川縣’이라고 하여, 고구려 때의 이름이 ‘남천’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천지역이 고구려의 영토가 되기 이전인 백제시대에는 어떤 이름이었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남천은 남매南買라고도 불렀는데 고대어에서 ‘買’는 내[川], 또는 물[水]을 의미하는 한자 차용어였다. ‘南川’의 어원과 호칭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다. 먼저 신태현辛兌鉉은 ‘南’을 방위가 아니라 느르-늘-늦-느의 음차音借로 緩느리다. 늘어지다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川’은 ‘나리’의 훈차訓借이며, 따라서 南川의 원래 이름은 ‘느내’라고 했다.<sup>4</sup> 그런데 유창균兪暢均은 ‘南’은 방위를 나타내는 말로 고구려어로 ‘골’이며 ‘川’은 ‘물’이므로, ‘골물’의 한자 차용어가 南川·南買라고 하였다.<sup>5</sup>

일본인 학자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조선고적조사보고서』 이천군편 서두에서 밝

4) 신태현, 『三國史記 지리지연구』, 『이천군향토문화자료총람』 제3집, 이천문화원, 1979, 59쪽에서 재인용.

5) 유창균, 『韓國古代漢字音의 연구 I』,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0, 282~283쪽.

한 주장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sup>6</sup> 이마니시는 ‘南川’을 고구려어인 ‘아리매阿利買’에서 온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민족 고대어에 ‘아리[菴利]’는 방위[南] 말고도 크다[大]·먼저[先]·앞[前] 등의 여러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훈몽자회』에서 ‘南道’를 ‘압대’라 부르고 있음을 한 예로 들었다. ‘南’ 역시 앞[前]·먼저[先]와 함께 크다[大]는 의미가 있으므로, 아리매의 훈차가 남천이라는 것이다. 이마니시는 심지어 고려 태조가 내린 이름인 이천도 阿利買, 즉 ‘阿利川’에서 阿를 생략하고 利川으로 명명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남천의 어원 문제는 앞에서 밝힌 학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 더 조사·연구돼야 할 부분이다.

고구려의 땅이었던 이천은 신라의 북진정책과 함께 신라의 영토로 바뀌게 되며, 진흥왕은 이천에 남천주南川州를 두고 삼국통일을 위한 교두보로 삼았다. 삼국통일 후 경덕왕 때 남천주는 다시 황무현黃武縣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신태현은 ‘황무’를 ‘느르르’의 훈차로 보고 남천과 같은 의미라고 보았다. 고려 건국 초인 936년고려 태조 19부터 이천현이 되고, 1257년고려 고종 44에 영창永昌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1392년고려 공양왕 4에는 왕의 할머니인 신씨 부인의 고향[祖妣申氏之鄉]이라고 하여 남천군南川郡으로 승격하게 된다. 조선 건국 후 이천현으로 다시 이천이란 이름을 되찾아 오늘에 이른다. 한편 음죽현陰竹縣은 고구려 때는 노음죽현奴音竹縣이라 불렀다가 신라 경덕왕 때 음죽현이 되어 이천군에 통합되기 전까지 존속하였다.

## 2) 일제가 바뀌버린 마을 이름들

시군과 읍면동리로 이루어진 오늘날의 행정구역은 100년 전인 1914년에 일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지금까지도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일 강제병합 이후 일본은 효율적인 식민지 통치를 목적으로 제일 먼저 한반도 전역에 대한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착수하여, 1914년 3월과 4월에 걸쳐 이를 실천에 옮겼다. 이천군과 음죽군이 하나로 합쳐지고, 기초 행정단위인 면과 리의 통폐합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두세 개의 마을을 단순히 하나로 합치다보니 명칭 문제

6) 이마니시 류, 「概記 및 郡驛名稱의 조사」, 『朝鮮古蹟調査報告書』 이천군편, 1917, 95~96쪽.



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일본인들의 손에 무참하게 난도질당한 이름들이 해방이후로도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

『여지도서』에 따르면 당시 이천도호부에는 읍내면<sub>邑內面</sub>·신동면<sub>新洞面</sub>·둔지산면<sub>屯之山面</sub>·백토리면<sub>栢土里面</sub>·사북면<sub>沙北面</sub>·부모곡면<sub>夫毛谷面</sub>·발산면<sub>鉢山面</sub>·호법면<sub>戶法面</sub>·마전동면<sub>麻田洞面</sub>·장수왕면<sub>長壽旺面</sub>·대양면<sub>大陽面</sub>·초지곡면<sub>草枝谷面</sub>·월량촌면<sub>月良村面</sub>·모산면<sub>暮山面</sub>·가마동면<sub>加麻洞面</sub> 등 15개의 면이 있었다. 또 음죽현은 읍내면<sub>邑內面</sub>·동면<sub>東面</sub>·남면<sub>南面</sub>·북면<sub>北面</sub>·서면<sub>西面</sub>·상율면<sub>上栗面</sub>·하율면<sub>下栗面</sub>·무극면<sub>無極面</sub> 등 8개의 면이 있었다. 대한제국기에 면제도가 일부 개편되었는데, 이천군의 경우 읍내면을 제외한 14개 면의 호칭이 신면·둔면·백면·사면 하는 식으로 모두 간소화되었다. 음죽군의 경우는 북면이 근북면<sub>近北面</sub>과 원북면<sub>遠北面</sub>으로 분리된 것 외에는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1914년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으로 무극면을 제외한 음죽군 전 지역이 이천군과 합쳐짐에 따라, 관할 17개 면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이 이루어졌다. 이때 음죽군 읍내면과 동면·남면을 하나로 통합하여 청미면<sub>淸湊面</sub>이라 이름하고, 근북면·원북면·서면을 합쳐서 설성면<sub>雪星面</sub>으로, 상율면과 하율면은 율면으로 개칭하였다. 옛 이천군지역은 신면과 둔면을 합쳐 신둔면으로, 백면과 사면이 백사면으로, 부면과 발면이 부발면으로, 마면과 장면이 마장면으로, 모면과 가면이 모가면으로 합쳐지고, 대면·월면·초면은 대월면으로 통합되었다. 이렇게 읍내면과 호법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의 관할구역과 명칭이 모두 바뀌면서 11개의 면으로 개편이 이루어 졌다.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은 전국의 리 단위까지도 빠짐없이 손길이 미쳤다. 광무3년판 『이천군읍지』에 보면 모두 90개의 방리가 기록되어 있고, 『음죽군읍지』에는 75개가 나와 있어 두 지역을 합치면 모두 165개의 방리가 있었다. 이 중 음성군으로 분리된 무극면 8개 리를 제외한 22개 면 157개 리가 일제의 손을 거쳐 11개 면 132개 법정리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두세 개의 마을을 하나로 합쳐 새로운 마을이 생기다 보니 호칭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때 바뀐 마을 이름은 모두 88개소로 전체 132개 리 중 67%를 차지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과거 음죽군이었던 읍내면·설성·율면이 특히 심하여 설성면의 경우는 12개 리 전체의 명칭이 모두 바뀌었으며, 읍내면은 나래리 1개소, 율면은 총곡리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의 명칭이 바뀌었다. 과거

의 이천군지역은 부발·호법·대월·모가·마장면의 경우 변화가 심하고, 읍내면과 신둔면은 비교적 변화의 폭이 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sup>7)</sup>

개칭된 88개의 리명들을 보면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선흥리와 읍내리를 합치면서 글자 하나씩을 따다가 선읍리라 하고, 척오리·장성동을 합쳐 오성리로 이름 지은 경우로 가장 일반적인 예에 속한다. 두 번째는 도월암리를 도암리로, 어농동리를 어농리로 줄이거나 획수가 많은 한자를 쉬운 글자로 바꿔 간소화한 경우이다. 세 번째는 본래의 이름과 뜻도 소리도 다른 이름으로 바꾼 경우이다.

### 한 글자씩 따온 경우

사읍리사기막+절음리, 방추리방각동+추동, 송산리송곡리+산대, 대서리대정+근서, 선읍리선흥리+읍내, 오남리오창리+남천동, 와현리와동+호현, 진암리진촌+계암, 이황리이정+황정포, 노탑리노평리+탑촌, 풍계리풍토+적계리, 수광리수북+광현, 인후리인배+후동, 현방리현암+온방, 경사리경사대+사옥, 상용리상촌+용머리, 죽당리죽골+당재, 신원리신대동+원적동, 안평리안고나+상평, 매곡리매작+토곡리, 회억리회다라+억만이, 장암리장수왕+문암, 대흥리대동+범흥이, 진가리진안+가동리, 두미리두역리+시미동, 금당리금성골+당앞, 장능리장수골+능골, 행죽리행심촌+분죽, 제요리제갈+요곡, 신필리신추동+세필, 장천리장각동+한천동, 자석리저은동+흑석, 암산리수암리+구산동, 송계리송골+팔계리, 수산리수곡리+앵산동, 대죽리대산동+효죽, 고당리고척리+못골, 본죽리본울동+죽울동, 산양리용산동+양아리, 오성리척오리+장성골, 월포리도월리+퇴포 등이다.

### 간소화한 경우

갈산리신갈산리, 도암리도월암리, 조읍리조읍동리, 도지리도지곡리, 가좌리가좌동리, 아미리아미대리, 신하리매화곡리, 유산리유량곡리, 주박리주박촌리, 동산리동산책리, 송갈리송갈산리, 관리관동리, 목리목동리, 각평리각씨동리, 단월리단월천리, 도리리도리동리, 대포리대포천리, 고담리고대암리, 초지리초지곡리, 구시리구시동리, 송라리송라곡리, 소고리소고지리, 어농리어농동리 등이다.

7) 이인수, 『확 뜯어고쳐야 할 이 땅의 이름들』, 이천문화원, 2008, 43쪽.

### 발음과 뜻을 모두 바꾼 경우

관고리<sup>관후리</sup>, 장호원리<sup>장해원</sup>, 무촌리<sup>거차아리</sup>, 대관리<sup>대왕리</sup>, 고백리<sup>고사리</sup>, 송말리<sup>말곡리</sup>, 후안리<sup>후미촌</sup>, 작촌리<sup>작별리</sup>, 표교리<sup>툰전리</sup>, 양평리<sup>군량리</sup> 등이다.

### 발음은 같으나 한자를 바꾼 경우

대월면 부필리<sup>富必里→夫必里</sup>, 모가면 원두리<sup>元頭里→院頭里</sup>, 울면 북두리<sup>北頭里→北斗里</sup>는 발음은 그대로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한자를 바꾼 경우이다.

## 7. 글을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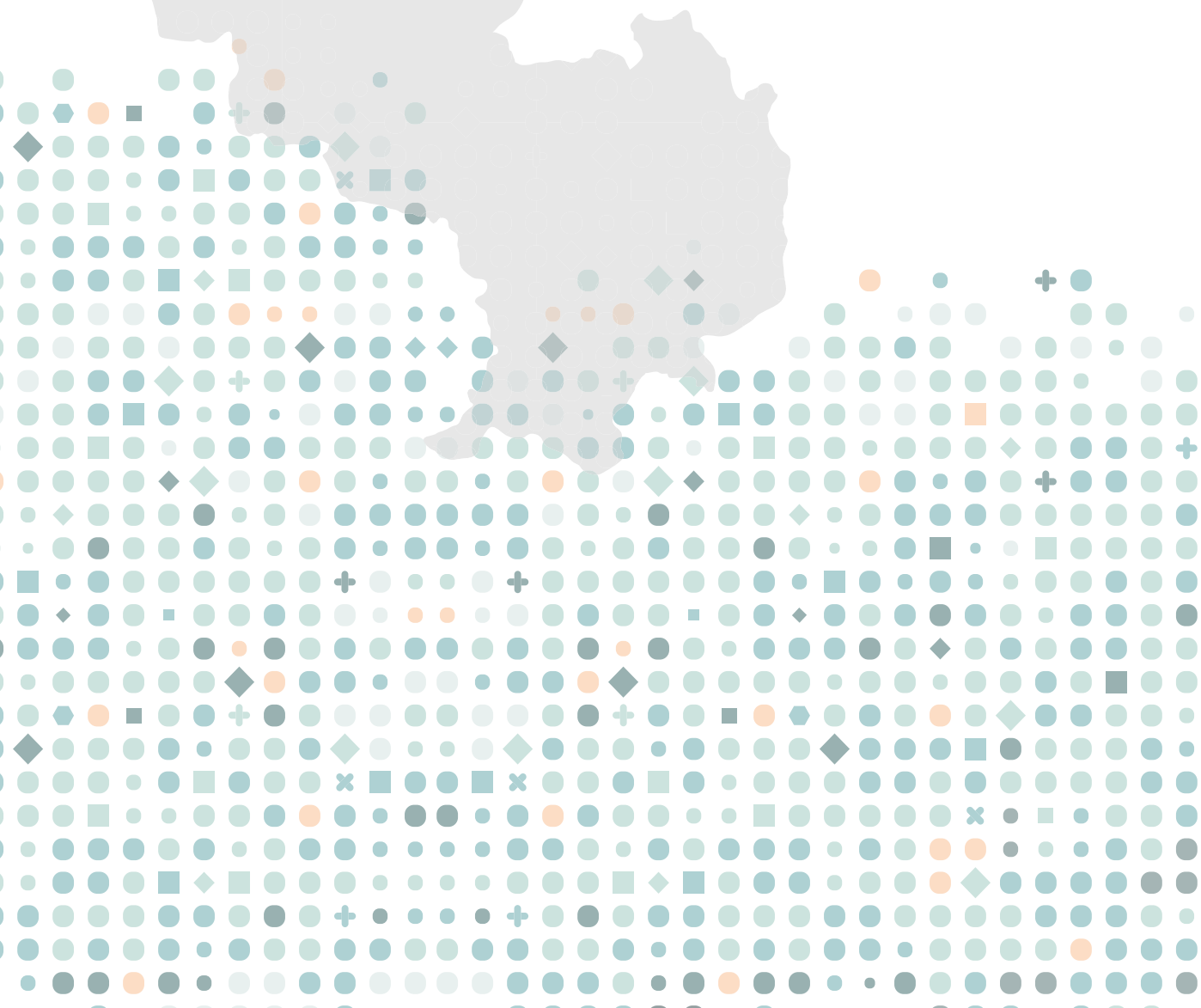
땅 이름에는 반드시 그것이 처음 생겨나게 된 동기가 있게 마련이며, 유래나 얽힌 이야기들이 전해 오는 경우가 많다. 언제 들어도 반갑고 정답기만 한 것이 우리의 땅 이름인 것이다. 그런데 일제가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미명아래 바뀌놓은 땅 이름들을 보면, 원래의 이름이 지녔던 의미는 사라지고 뜻이 완전히 달라졌거나 아무 뜻도 없이 무미건조하기 짝이 없는 죽은 이름들이 되어 버렸다. 예를 들어 부발읍 죽당리<sup>竹堂里</sup>의 경우를 보자. 죽당리는 죽골<sup>[竹谷]</sup>과 당재<sup>[堂峴]</sup>에서 한 글자씩 따온 이름인데, 죽골은 옛 문헌에 ‘注村’ 또는 ‘注叱洞’으로 나와 있어 대나무골이 아닌 ‘죽골’이며 텃골의 뜻으로 풀이된다. 당재는 옛날 이곳에 당집이 있었거나, 산고개를 뜻하는 ‘단재’에서 온 이름일 것이다. 그런데 엉뚱하게 죽당리로 바뀌 놓았으니 일제의 소행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대나무집과 마을이 관련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착각할 수도 있다.

장호원읍 노담리<sup>老塔里</sup>는 노들<sup>[老坪]</sup>과 담거리<sup>[塔村]</sup>가 합쳐진 이름인데 억지로 이름을 짓다 보니 ‘늙은 탑마을’이란 이상야릇한 이름이 되어 버렸다. 울면 본죽리<sup>本竹里</sup>의 경우는 본을동과 죽을동 두 개의 마을 이름 중 ‘밤골’이란 원래의 의미는 쏙 빼 버리고 첫 글자만을 따서 본죽이라 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뜻인지 짐작도 할 수 없는 이름이 되어 버렸다. 이정<sup>梨亭</sup>과 황정포<sup>黃庭浦</sup>가 합쳐진 이황리<sup>梨黃里</sup>는 졸지에 누

런 배꽃마을이 되고, 수북냇물 북쪽 마을과 광현넓고개 아랫마을이 합쳐져서 생긴 수광리水廣里는 지도상에도 나오지 않는 물이 넓은 마을이 되어 버렸다. 부필리富必里는 꼭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을 사람들의 꿈이 담긴 이름이다. 그런데 어렵지도 않은 한자를 굳이 ‘夫必’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모를 일이다. 사음리沙音里 · 오남리梧南里 · 풍계리豊界里 · 대서리大西里 · 인후리印後里 · 경사리京沙里 · 회억리灰億里 · 송계리松界里 · 신필리新筆里 · 제요리諸蓼里 · 행죽리行竹里 · 신추리新楸里 · 산성리山星里 등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이름들인 것이다.

땅 이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리고 기록되며, 자손 대대로 물려주게 될 우리의 소중한 정신 문화유산이다. 그런데 땅 이름 속에는 해방 70년이 넘은 오늘날까지도 일제가 남긴 아픈 상처의 흔적들이 버젓이 남아 있다. 일제의 손으로 난도질당한 우리 땅의 이름들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 예로부터 불려왔던 원래의 이름들을 가능한 되살리고, 그것이 어렵다면 일제가 만든 마구잡이식 이름 대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 이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차제에 부르기 쉽고 듣기에도 좋은 우리 말 이름들이 되살아나도록 해야겠다. 한샘골 · 살개골 · 소리울 · 미리울 · 매지울 · 우무실 · 도달미 · 앵모루 · 지시랭이 · 보포랭이 · 솔모랭이 · 비누구미처럼 영롱한 이름들이 당당하게 얼굴을 내밀 수 있도록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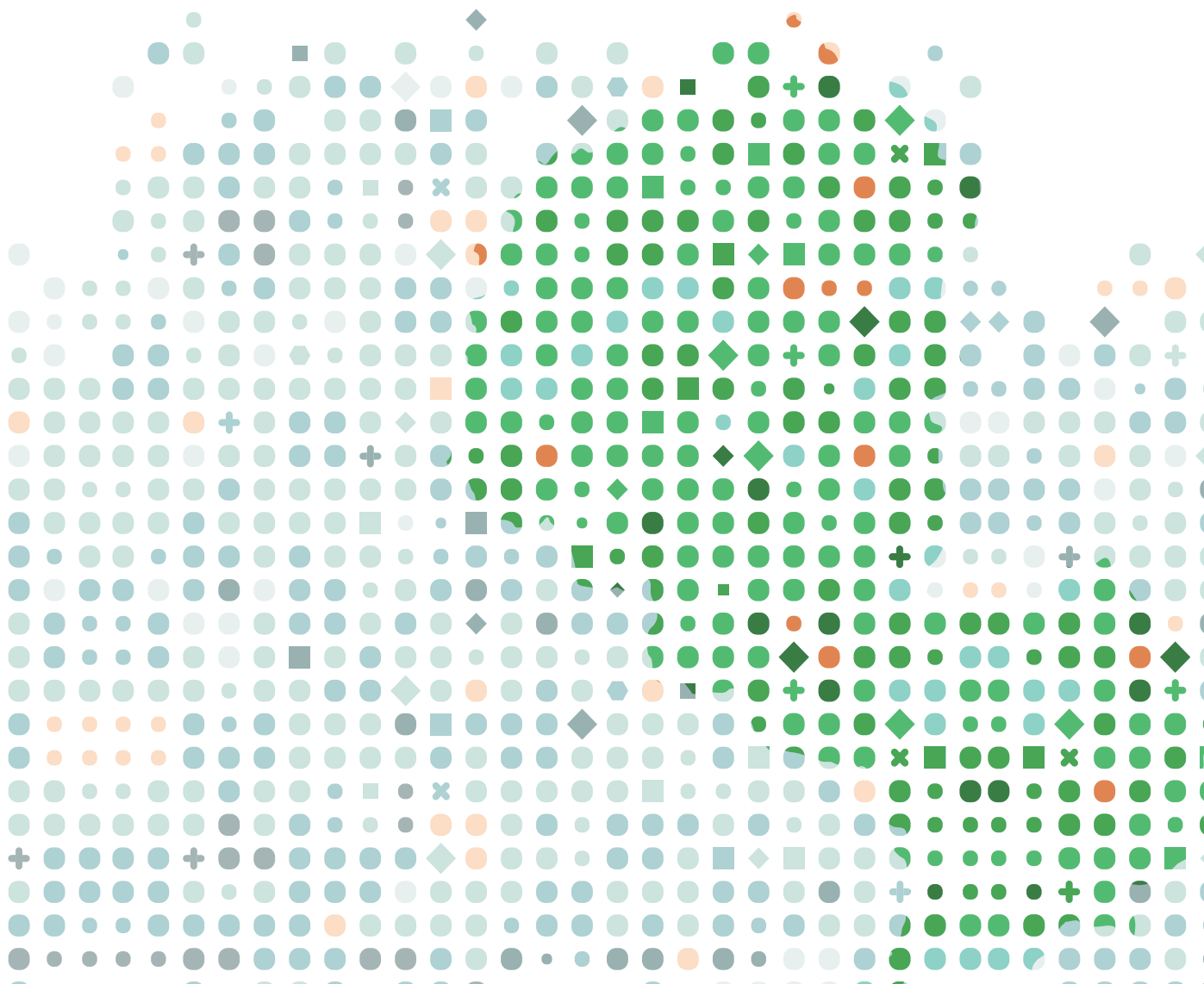
# 성씨와 인물





# 2편

---



The background is a light green line drawing of a traditional Korean village scene. It features a stone bridge with a decorative gate, a group of people standing on the bridge, and a traditional Korean boat (Jangjuk) in the foreground. The scene is set against a backdrop of rolling hills and trees.

01

## 이천에 자리 잡은 성씨들



이인수 | 이천향토사연구회 회장

## 제1장 이천에 자리 잡은 성씨들

### 1. 세거성씨와 유래

한 고장의 역사는 옛날부터 그 고장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씨족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장의 역사를 하나의 산맥에다 비유한다면, 산맥에서 뿔어 나온 산등성이와 골짜기, 숲과 바위, 계곡과 웅달샘 같은 것들이 각각 한 가문의 역사인 셈이다. 가문의 흥망성쇠와 인물들의 행적이 그 고장의 역사와 문화 전통으로 이어지면서, 오늘날 우리들 삶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장의 세거성씨들을 조사하는 일은 향토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성씨(姓氏)’란 ‘성’과 ‘씨’가 합해진 말로 원래는 서로 의미가 달랐지만, 오늘날에는 성과 씨의 구분이 없이 성에 대한 존칭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양식 성씨 제도가 처음 생겨난 중국에서 성은 출신종족을, 씨는 성의 계통이나 거주지역을 나타내는 말이었다고 한다. 성은 ‘女’와 ‘生’이 합해진 한자어의 뜻처럼 옛날 모계(母系)가 중심이 된 씨족사회에서 같은 모계혈통임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 후 부계사회가 되면서 부계(父系)의 혈통을 나타내는 칭호로 바뀌게 되고, 세월이 흐르면서 인구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하나의 성에서 갈라진 같은 혈족들을 구분하기 위해 씨를 사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성씨 역시 부계혈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성씨는 남녀 구분 없이 평생 동안 바뀌는 일이 없다.

우리나라가 중국식 한자 성(姓)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중국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삼국시대 중반부터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왕실과 중앙 귀족들을 비롯한 일부 계층에 불과했다. 고려시대에 와서 지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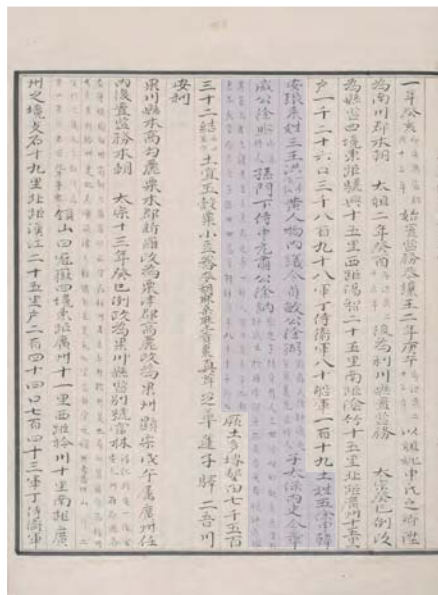
급을 중심으로 현재와 같은 성씨와 본관제도가 점차 확립되었으며, 특히 고려 건국 초기에는 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귀화인(歸化人)들에게 성을 내리는 사성(賜姓) 제도가 성행하여 성씨 보급에 한몫을 했다. 고려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성씨는 점차 일반 양민층까지 확대되지만, 인구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노비나 천민층은 아직도 성을 가질 수 없었다. 1894년 갑오경장을 계기로 종래의 신분계급 타파가 이루어지고, 1909년 새 「민적법」이 시행되면서 누구나 성과 본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성씨는 가족 전체가 아닌 부계혈통만을 표시하기 때문에, 성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출신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성씨제도에는 본관(本貫)이란 것이 있어서 성씨와 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같은 조상을 둔 혈족임을 나타낸다. 본관은 본(本)·향관(鄕貫)·관적(貫籍) 등으로도 부르는데, 성씨가 처음 생기게 된 시조의 출신지나 거주지역 등 연고지의 지명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른 민족에게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성명제도 가운데 하나가 이름자에 들어가는 향렬(行列)이다. 한국인의 성명을 보면 성과 본관은 그 사람의 가문을, 이름자의 향렬은 가문의 세대수를 나타내는 글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름 석 자만 보면 그 사람의 가문과 세대까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2000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성씨의 종류는 토착성씨 286개, 귀화성씨 442개를 합해 모두 728개이며, 본관은 모두 4,179개로 나와 있다. 그러나 김·이·박·최·정 5대 성씨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이 넘는 54%를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김씨가 21.6%나 되어 한국인 다섯 명 중 한명은 김씨인 셈이다. 반면 인구 1,000명 미만의 희귀성씨도 112개나 된다. 귀화성씨 가운데는 일본계가 139개로 가장 많으며, 필리핀계 135개, 중국계 85개 순이다. 귀화성씨가 토착성씨보다 더 많은 이유는 최근에 와서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정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성씨들이 계속 생겨나고 또 사라지기도 하는 일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천을 본관으로 하는 관적성씨로는 과거에는 이천서씨(利川徐氏)를 비롯한 이천신씨(利川申氏)·음죽이씨(陰竹李氏)·음죽환씨(陰竹桓氏) 등 여러 성씨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천서씨가 거의 유일하다. 통일신라 말 아간(阿干) 벼슬을 지내다가 이천 효양산에 들어와 은거한 서신일(徐神逸)을 시조로 하는 이천서씨는, 서희(徐熙) 선생을 필두로 특히 고려시





이천의 본성(本姓)과 래성(來姓), 인물 등을 기록한 『세종실록지리지』(왼쪽)와 『신증동국여지승람』 이천도호부 인물조

대에 이름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이천의 대표적인 명문이다. 고려 때 평장사를 배출한 음죽이씨들은 조선 중기까지도 무과와 잡과 급제자의 이름이 보이는 등 일정한 세를 유지했지만 지금은 그 후손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역시 고려 때 상서尙書 벼슬을 지낸 신진申璲을 시조로 하고 있는 이천신씨도 지금은 후손들을 찾을 수 없어 사라진 성씨로 여겨진다.

『세종실록지리지』를 보면 당시 군현별로 세거성씨들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여 수록하고 있다. 지리지에 소개된 전국 250여 성씨들 가운데 이천지방과 관련 있는 성씨로는, 당시 이천도호부가 본성本姓 5[徐·申·安·韓·張]·래성來姓 3[洪·王·黃] 등 8성이었다. 음죽현은 본성 3[金·李·桓]·래성 2[文·翼]의 5개 성을 손꼽았는데 그중에서도 익씨는 당시 이미 없어졌다고 하였다. 조선 초기에 음죽군을 포함한 이천지방에는 이천서씨를 비롯한 대략 12개의 성씨 가문들이 세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보다 시대가 약 80년쯤 뒤진 『신증동국여지승람』 이천도호부 편에도 성씨에 관한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데 그 후 18세기 중반의 사정을 기록한 『여지도서』에는 ‘이천도호부의 성씨가 과거의 8성 가운데 이천서씨를 제외한 나머지 7성은 모두 없어졌다[只有徐七姓無]’라고 하였다. 음죽현의 경우도 김·이·

문씨는 있으나 환·익 두 개의 성씨는 없어진 것으로 되어 있어, 약 300년이 흐르는 사이 이천 향촌 사회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에서 한말에 나온 각종 읍지류들도 내용은 『여지도서』와 다르지 않으며, 『음죽현읍지』의 경우 아예 성씨조 항목을 비워놓은 것을 보면 음죽의 관적성씨들은 이 무렵에 이미 모두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닌가 추정되기도 한다.

고종 때 편찬된 『증보문헌비고』에는 과거에 존재했으나 도중에 없어진 모든 성씨들을 조사하여 수록해 놓았기 때문에 무려 496종이나 되는 성과 수많은 본관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그중 이천지역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를 찾아보면 모두 38개 성씨에 45개의 관적이 기록돼 있어, 적지 않은 수효의 관적성씨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진 사실을 알 수 있다. 『문헌비고』에 따르면 이천지씨利川知氏와 음죽환씨는 전국에서 하나 뿐인 단일본이지만 당시에는 이미 없어졌다고 하였다.<sup>1</sup> 1987년 경제기획원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그밖에도 이천김씨 1,014명, 이천이씨 1,373명, 이천임씨 424명, 남천문씨南川文氏 15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에는 이들 성씨를 찾아볼 수 없고, 1987년 조사에는 없었던 설성김씨雪城金氏<sup>2</sup>가 전국에 2,162명, 이천에는 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이천의 관적성씨와 동족마을

### 장위공 서희를 배출한 고려의 명문 이천서씨

이천서씨는 부발읍 산촌리 효양산에 묘가 있는 신라 아간 서신일을 시조로 하고 있다. 서씨의 유래에 대해서는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인 기준箕準의 후예라는 설과 백제 의자왕의 후손인 부여扶餘씨가 서씨로 바뀐 것이라는 설이 전해 온다. 한국의 서씨들은 모두 이천서씨에서 비롯되어 달성·대구·남평·연산·부여 등 여러 동성이본으로 갈라졌다고 한다. 신라 말 서신일이 어지러운 세상을 등지고 이천 효양산

1)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이천시지』 2권, 2001, 26~27쪽.

2) 설성은 음죽현의 별호이다.



이천서씨의 시조  
서신일 묘

에 숨어 살았다. 슬하에 자식이 없어 걱정이었는데 사냥꾼의 화살을 맞고 쫓기는 사슴을 구해준 은덕으로, 효양산 산신령의 계시를 받고 나이 80세에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고려사』를 비롯한 옛 문헌에도 나오는 유명한 일화이다.

서신일이 나이 80세에 얻었다는 아들이 고려 광종 때의 명재상 서필(徐弼)이다. 내의령을 지낸 서필은 청렴 강직한 인물로 임금인 주는 금술잔을 받지 않고, ‘신하들이 금술잔을 쓰면 폐하께서는 장차 무슨 그릇을 쓰시렵니까?’ 하고 광종의 사치함을 간한 이야기는 유명하다. 이천이 자랑하는 인물인 서희는 서필의 아들이다. 성종 때 거란의 대군이 고려를 침입해 오자 적장과 외교담판으로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웠던 나라를 구했고, 그 후로도 압록강지역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국경을 넓히는 데 힘썼다. 벼슬이 태보내사령에 오르고 시호는 장위(章威)이며 성종 묘정에 배향되었다. 서희의 장남인 서눌(徐訥)이 내사령을 지내고 정종 묘정에 배향됨으로써, 서필에서부터 서눌에 이르는 조선 3대가 나란히 임금 묘정에 배향되는 영예를 누렸다.

서희가 서눌·서유결(徐惟傑, 상서·서유위(徐惟偉·서주행(徐周行) 네 아들을 두어 이들 사형제를 기점으로 이천서씨들이 크게 번창하게 된다. 시조 서신일과 함께 효양산에 은거한 동생 서신통(徐神通)의 아들이 서목(徐穆)이다. 효양산에 살면서 후백제와의 일전을 앞두고 출정길에 오른 태조 왕건의 군사들을 잘 인도하여 물복하천을 건너게 함

으로써 이 땅에 ‘이천’이란 고을 이름을 내리도록 한 장본인이다. 서희의 증손인 서공(徐恭)은 담력과 지략이 있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해서 양계(兩界) 병마사를 여섯 번이나 지냈다. 평소 문신들의 교만함을 미워하여 무신들을 차별하지 않고 예우했던 까닭에, 무신들의 난에도 무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천서씨들은 고려 초기에 서필과 서희를 정점으로 5대에 걸쳐 7명의 재상을 배출한 명문이었다. 그러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점차 쇠퇴한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에는 무신란에 이은 무관들의 장기집권이 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조선 세종 때 형조판서를 지낸 서선(徐選)은 서희의 11세손이다. 1402년 태종 2에 이천향교를 처음 세울 때 대학자인 양촌 권근(權近)에게 부탁해서 「이천향교기」를 짓도록 했다.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에 이천서씨들은 모두 19만 9,792명이 있고 이천 관내에는 1,02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정작 씨족의 발원지인 이천지역에는 뚜렷한 세거마을이 남아 있지 않고, 대월면 사동리와 군량리, 부발읍 수정리 등지에 비인공파와 목사공파 후손들 일부가 살고 있을 뿐이다.

### 장호원지역을 대표하는 음죽이씨

음죽이씨는 장호원지역의 관적성씨 중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성씨다. 음죽이씨의 시조인 이방서(李方瑞)는 고려 때 밀직사사를 지낸 인물이며, 손자 이헌조(李憲兆)는 음죽지역의 토호로 평장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헌조의 손(孫)이 이연호(李延昊)이며, 이연호가 이맹문(李盟文)·이중문(李仲文)·이계문(李季文) 세 아들을 두어 가계를 잇고 있다. 음죽이씨를 대표하는 인물로는 선조 때 역관(譯官)이었던 이언화(李彦華)가 있다. 중국어에 능통하여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을 의주로 호종하고 명나라로 보내는 각종 문서들을 도맡아 썼다. 중국으로 사신이 오갈 때마다 통역이 되어 임무를 수행했으며, 1629년 인조 7 사은사를 수행하여 명나라로 가다가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화를 입었다고 한다. 해서체에 능해서 당대의 명필로도 손꼽혔으며 판중추부사로 추증되었다.

이언화의 손 이익장(李益章)은 1643년 무과에 급제하여 교수를 지냈고, 이익장의 아들 이상하(李相夏)도 잡과 급제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다. 그밖에도 15세기 초에서 18세기까지 10여 명의 잡과 급제자들 이름을 찾을 수 있어, 조선 후기까지도 음죽이씨들은 중인 가문으로 일정한 세력을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1987년 인구조사



에서 전국에 음죽이씨들은 모두 30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정작 발원지인 이천지역에서는 후손들을 찾을 수 없다.

### 3. 이천의 세거성씨와 동족마을<sup>3)</sup>

#### 설봉서원 제향 인물인 이관의를 배출한 광주이씨

광주이씨廣州李氏는 원래가 신라 내물왕 때 내사령을 지낸 이자성李自成的 후예라고 하는데, 고려 말 학자인 둔촌遁村 이집李集을 시조 1세로 하여 후손들이 크게 번창하였다. 광주이씨는 둔촌의 직계후손들 외에도 둔촌의 다른 형제 4인을 각각 시조로 하는 네 개의 문파가 있으며, 이들의 선대에서 갈라진 다른 문파도 있다. 이천에 가장 먼저 뿌리를 내린 광주이씨들은 둔촌의 백부인 이한李漢에게서 갈라져 나온 율정공파 후손들이다. 율정栗亭 이관의李寬義는 뛰어난 학행으로 서희·김안국金安國과 함께 설봉서원에 제향되고, 『이천읍지』 인물편에 이름이 오른 문중이 자랑하는 인물이다.

율정은 이한의 증손인 이지李知, 판관의 아들이다. 사마시에 합격한 뒤 여러 차례 과거를 보았으나 운이 없었던 탓인지 계속 낙방하게 되자, 처가가 있는 양각산 밑 관동冠洞. 현 마장면 관리으로 낙향하여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점차 문명이 세상에 알려지자 배움을 구하려는 많은 선비들이 모여들었다. 거유 정여창鄭汝昌도 젊은 시절 율정의 문하에서 학문의 기초를 닦았으며, 스승의 고결한 인품을 칭송하는 시를 남기기도 했다. 율정의 나



이천지역 광주이씨 입향조 율정 이관의 묘갈

3) 본 장에서 다룬 이천의 세거성씨들은 제한된 지면상 『이천읍지』 인물편에 수록된 성씨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75세 때 소문을 들은 성종이 어전에 불러 학문을 시험해 보니 과연 소문과 같았다. 성종이 기뻐하면서 벼슬을 내리려고 했으나 간곡한 말로 사양하고 향리로 돌아와 여생을 마쳤다. 율정의 낙향으로 율정공과 후손들의 500년 세거지가 된 관동에는 그가 서당을 짓고 후진들을 가르쳤다는 서당터가 아직도 남아있다. 율정이 이점李堧, 한성판윤 · 이퇴李堆, 용천부사 · 이지李址, 갑산교수 세 아들을 두어 후손들이 번창하였다. 율정과 아들 이점의 묘소가 마장면 관리에 있다.

다시 둔촌의 인맥을 보면 둔촌이 이지직李之直, 형조참의 · 이지강李之剛, 판서 · 이지유李之柔, 성주목사 아들 삼형제를 두고, 장남 이지직이 또한 이장손李長孫, 사인 · 이인손李仁孫, 우의정 · 이예손李禮孫, 관찰사 삼형제 아들을 두었다. 이인손의 아들 오형제가 나란히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모두 당상에 오르는 등 크게 현달하여 문중의 대표적인 명맥을 이끄는 데, 이극배李克培, 영의정 · 이극감李克堪, 형조판서 · 이극증李克增, 한성판윤 · 이극돈李克墩, 좌찬성 · 이극균李克均, 좌의정이 그들이다. 성현이 『용재총화』에서 ‘지금 문벌이 가장 번성하기로는 광주이씨가 으뜸’ 이라고 했던 것도 이들을 두고 한 말이었다.

형조판서 이극감의 장남이 이세좌李世佐, 예조판서이며, 명종 때 상신인 이준경李浚慶, 영의정은 이세좌의 손이다. 또 이극감의 2남이 이세우李世佑, 경기관찰사, 이세우의 손이 이약빙李若氷, 좌통례이다. 이약빙의 아들이 이홍남李洪男, 참의이고, 이민각李民覺, 판결사 · 이민병李民秉, 참판 · 이민이李民彝는 이홍남의 아들이다. 이민이는 연이은 사화와 당쟁으로 가문에 화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고 벼슬을 단념하고 호법면 유산리로 낙향하여 스스로 이름 짓기를 유산처사라고 했다. 유산리의 광주이씨들은 이민이의 후손들이며, 이민이의 둘째 형인 이민병의 후손들은 마장면 작촌리에 터를 잡았다. 이천에는 이준경을 중흥조로 하는 동고파 후손들도 다수 살고 있으며, 율정공과는 관리 외에도 장호원을 와현리가 세거마을이다. 2015년 인구통계를 보면 이천의 광주이씨들은 모두 2,49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문으로 이름을 떨친 최숙정과 양천최씨

양천최씨陽川崔氏는 전주최씨의 시조인 최순작崔純爵의 9세손이라는 최원崔遠을 시조 1세로 하고 있다. 최원이 고려 때 밀직부사를 지내고 양천백陽川伯에 봉해진 탓에 본관을 양천으로 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김포군에 속했던 양천지방이 서울

시에 편입되면서 시조에서 3대 최우보(崔雨甫, 사재감정)까지의 단묘를 이천시 단월동으로 이전하였고, 문중이 최고의 인물로 손꼽는 최숙정(崔淑精)이 이천 사람인 탓에 지금은 이천이 제2의 관향처럼 되어있다. 우보의 아들 삼형제 중 막내가 최승흡(崔承洽, 사직)이며, 최중생(崔仲生)은 최승흡의 아들이다. 이들 부자의 묘소가 예전부터 대월면에 있어온 사실로 미루어 양천최씨들은 이미 조선 초에 이천에 터를 마련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양천최씨 최숙정 「소요재시비」 제막식(1998)

최중생이 네 아들을 두었으니 최숙정(崔淑貞) · 최숙형(崔淑亨, 관찰사) · 최숙정(崔淑精, 부제학) · 최숙경(崔淑卿, 명천부사이며, 이들 중 셋째인 최숙정이 양천최씨 문중의 중흥조로 손꼽는 인물이다. 최숙정은 대월면 고담리에서 태어나 호를 소요재(逍遙齋)라고 했다. 1462년(세조 8)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사관으로 발탁되고, 1466년 문과중시와 발영시에 연이어 급제하여 독서당에 들어갔다. 승문원교리와 춘추관기주관으로 『세조실록』과 『예종실록』 편찬에 참여하고, 노사신 · 서거정 등 당대의 석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삼국사절요』를 편찬하기도 했다. 여주목사로 있던 1478년(성종 9)에 홍문관부제학으로 발탁되었으나 이듬해 48세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소요재는 시문으로 당대에 이름났던 인물이며 『동국여지승람』과 『동문선』에도 그 시가 여러 편 전해오고 있다. 일찍이 경릉전사(敬陵典祀)라는 한직에 있을 때 재실 벽에 써 놓은 그의 시를 세조 임금이 보고 매우 칭찬하여 갑자기 높은 벼슬에 올랐다고 한다. 그가 일찍 사망한 이유도 외직인 여주목사로 나가는 바람에 의기소침하던 중, 부제학에 발탁되자 기쁜 나머지 임금이 내린 하사주를 너무 마신 것이 원인이었다고 하니 시인다운 죽음이었던 셈이다. 철종 때 설봉서원에 제향되고 『이천읍지』 인물편에 이름이 올랐으며, 1998년 문중과 이천문화원이 공동사업으로 이천시립도서관 앞뜰에 「소요재시비」를 건립해 놓았다.

소요재가 최광윤(崔光潤, 용인현령) · 최광연(崔光演) · 최광한(崔光潑) 세 아들과 1녀를 두었으니, 딸인 최씨 부인이 율현동 현풍곽씨 문중의 광계형(郭季亨)에게로 출가하여 뛰

난 정절로 『이천읍지』 효열편에 이름이 올랐다. 기묘사화로 이천 죽골에서 은거생활을 했던 모재 김안국이 소요재의 3남인 최광한과 가깝게 교유하며 주고받은 시가 『모재집』 속에 실려 있다. 양천최씨는 원래 대월면 고담리가 세거지였으나 호법면 후안리로 거주지를 옮긴 이후, 후안리가 이천의 유일한 세거마을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2015년 인구통계를 보면 양천최씨들은 이천 관내에 11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 기묘사화로 이천과 인연을 맺은 진주강씨

우리나라의 강씨들은 수나라의 침략을 물리친 고구려 강이식(姜以式) 장군의 후예들이라고 하며, 진주강씨(晉州姜氏)들은 신라 현강왕 때 인물인 강진(姜縉)이 진양후(晉陽侯)로 봉해진 탓에 진주를 본관으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 강진의 후손인 강창서(姜彰瑞)가 강계용(姜啓庸, 박사·강위용(姜渭庸, 소감·강원용(姜遠庸, 시중 세 아들을 두었는데 이들을 중흥조로 박사공파·소감공파·시중공파가 갈라진다. 박사공파는 강계용의 손인 강사첨(姜師瞻)이 어사를 지냈기 때문에 어사공파로 부르기도 한다. 진주강씨는 이들 외에도 강민첨(姜民瞻, 병부상서를 중흥조로 하는 은열공파와 강감찬(姜邯贊) 장군의 아버지인 강궁진(姜弓珍, 공신을 중흥조로 하는 인헌공파가 있다.

이천의 진주강씨들은 강계용의 박사공파 후손들이 대부분이다. 백사면 우곡리와 장호원을 나래리가 대표적인 세거마을이며, 호법면 안평리에도 후손들이 대를 이어 살고 있다. 백사면 우곡리의 진주강씨들은 박사공 강계용의 13세손인 강은(姜源, 한림의 후손들이다. 강계용의 증손이 강창부(姜昌富, 대정군이며, 고려가 망하자 절의를 지킨 강문우(姜汶优, 첨사는 강창부의 증손이다. 강문우의 증손인 강첨(姜瞻, 예조참판은 학문과 이치에 통달하여 세상일을 다 안다는 소리를 들었다. 강첨의 아들이 수군절도사를 지낸 강효정(姜孝貞)이며 강은은 강효정의 손이다.

강은은 1487년(성종 18)에 태어났으며 호는 규정(葵亭)이다. 1519년(중종 14) 조광조가 신진사류들을 널리 등용하기 위해 만든 현량과에서 뛰어난 재주와 품행으로 천거되어 한림학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해 기묘사화가 일어나 사림파가 몰락하게 되자, 이천 우곡리로 낙향하여 복하천이 감돌아 흐르는 호암산 양지 바른 곳에 정자를 짓고 은둔생활을 하였다. 복하천을 사이에 두고 부발읍 죽당리에 터를 잡았던 모재 김안국

과 의기투합하여 왕래하며 주고받은 시가 여러 편 『모재집』속에 전해 온다. 모재가 여주 이포 강변으로 거처를 옮기고 나서도 두 사람은 이천과 이포 사이를 오가면서 우의를 나누었다. 인종이 즉위하고 현량과가 복구되면서 전적典籍에 임명되었으나, 사은하고 돌아와 평생을 욕심 없이 살면서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도립리 육괴정에서 모재를 중심으로 모였던 괴정육현槐亭六賢의 한 사람으로 『이천읍지』 인물편에 이름이 올라 있다.



장호원을 나래리에 있는 문정공강맹경사당

백사면 우곡리는 강은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며 살아온 세거마을이다. 그가 이천으로 내려오게 된 동기는 사촌인 강택姜澤이 이천부사를 지냈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선대부터 이천에서 살았다고도 하여 분명치가 않다. 장호원을 나래리와 호법면 안평리의 진주강씨들은 박사공 강계용의 증손인 강창귀姜昌貴, 판관의 후손들이다. 강창귀의 10세손인 강순기姜順起, 주부가 임진왜란 때 난리를 피해 나래리에 처음 터를 잡은 입향조라고 한다. 지금도 마을에는 세조 때 공신인 중흥조 강맹경姜孟卿, 영의정의 부조묘不祧廟가 있다. 안평리의 진주강씨들은 박사공 강계용의 7세손인 강이행姜利行의 후손들이며, 강이행의 5세손인 강종설姜宗說이 입향조라고 한다. 강종설의 증손인 강진기姜震耆는 뛰어난 효행으로 『이천읍지』에 이름이 올랐다.

### 세거 했수 600년이 넘는 이천의 토박이 남양홍씨

남양홍씨南陽洪氏는 관직은 같지만 계통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중이 있다. 먼저 중국에서 고구려로 귀화한 홍천하洪天河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당홍唐洪이 있는데 이천의 남양홍씨들이 당홍에 속한다. 반면 고려 때 별장을 지낸 홍선행洪先行을 시조로 하는 남양홍씨들을 토홍土洪이라고 부른다. 『세종실록지리지』 이천도호부편에 나오는 8개의 성씨 가운데 왕·홍·황 3개 성씨를 래성來姓이라고 했으니, 홍씨는 이천에서 적어도 세종대 이전부터 세거해 온 상당히 오래된 성씨임을 알 수 있다. 세거마을로는 대포동과 백사면 모전리가 있다.

당홍은 홍천하의 후손인 고려 태사 홍은열<sup>洪殷悅</sup>을 시조 1세로 하여 20개가 넘는 지파로 나뉘는데, 그중에서도 홍은열의 12세손 홍주<sup>洪澍</sup> 삼사사를 파조로 하는 남양군과 후손들이 가장 번성하였다. 홍주의 증손인 홍지<sup>洪智</sup>는 조선 건국 후 태조가 벼슬을 내리며 불렀지만 응하지 않고 절의를 지킨 인물이다. 홍지의 아들 사형제 중 만이인 홍하손<sup>洪賀孫</sup> 사정이 이천으로 낙향하였으며, 호법면 단천리에 묘가 있다. 홍하손은 처음 단천리에 터를 잡았으나, 후손들이 대포동으로 이주하여 세거 했수가 500년이 넘는다. 대포동 홍촌말은 원래가 장씨들의 마을이었다고 하는데 홍씨들이 세거하면서 마을 이름도 홍촌<sup>洪村</sup>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다. 입향조 홍하손의 증손인 홍사원<sup>洪士元</sup> 강동현감은 시문으로 이름난 부제학 최숙정의 사위이며, 12세손 홍병검<sup>洪秉儉</sup>은 뛰어난 효행으로 정려문이 내려졌다.

백사면 모전리의 남양홍씨들은 남양군 홍주의 동생인 홍언유<sup>洪彦猶</sup> 판밀직을 파조로 하는 판밀직공과 후손들이다. 홍언유의 증손이 세종 때 청백리로 이름난 홍계방<sup>洪桂芳</sup> 참판이며, 홍계방의 아들 홍오행<sup>洪五行</sup>이 모전리에 처음 터를 잡은 인물이다. 원래 부친 홍계방이 여주 금사면으로 낙향했는데 홍오행이 모전리에 살던 진주유씨가문의 규수와 혼인하여 모전리로 이주하게 된 것이 입향의 동기라고 한다. 홍오행의 손이 홍인필<sup>洪仁弼</sup> 오위장이며, 홍인필의 아들이 『이천읍지』 인물편에 이름을 남긴 홍흡<sup>洪洽</sup>이다. 홍흡은 어릴 때부터 효행이 뛰어났으며 모재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중종 때 학행으로 천거되었지만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다. 그 후 홍천현감이 되어 선정을 베풀었으나 일찍 세상을 떠난 탓에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고 한다. 문과 급제하여 대사간과 좌승지 등을 지낸 홍인수<sup>洪仁秀</sup>는 홍흡의 9세손이다. 2015년 인구통계를 보면 이천의 남양홍씨들은 모두 3,730명이 살고 있다.

### 계산처사 오경이 장동리에 터를 잡은 해주오씨

이천에서 제일 높은 원적산 천덕봉 아래 자리 잡은 신둔면 장동리는 옛날 고려 시대 때 관아가 있었던 곳으로 알려진 유서 깊은 마을로 해주오씨<sup>海州吳氏</sup>의 세거지이기도 하다. 장동리의 오씨들은 도립리 괴정육현의 한사람으로 『이천읍지』 인물편에 이름이 오른 계산처사<sup>溪山處士</sup> 오경<sup>吳慶</sup>을 입향조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오씨 성은 대부분이 신라 지증왕 때 중국에서 귀화한 오침<sup>吳瞻</sup>의 후예로 알려져 있다. 해주오씨



들은 오침의 후손인 오인유吳仁裕, 군기감을 시조 1세로 하여 가계를 잇고 있다.

시조의 6세손이 고려 예종 때 윤관 장군과 함께 부원수로 출정하여 여진 정벌에 공을 세운 오연충吳延寵, 판이부사이다. 오연충의 5세손이 오순吳淳인데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아들 오예손吳禮孫이 1497년 연산군 3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예조좌랑을 지내는 등 촉망을 받았으나 역시 일찍 세상을 떠났다. 오예손은 오경·오하吳賀·오상吳祥 세 아들을 두었는데 할머니가 어린 손자들을 데리고 친정인 장동리로 내려와 정착하면서 해주오씨의 세거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오경은 1490년 성종 21에 태어났다. 젊어서 동생 오상과 함께 모재 김안국의 문하에서 수학했는데, 학문과 자질이 뛰어나서 많은 문하생들 중에서도 촉망받는 인물이었다고 한다.

1531년 중종 26 사마시에 합격했으나 이튿날 바로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는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세상을 피하려는 고상한 뜻이 있어 장동리 계곡 옆에 거처를 마련하고 마을 이름을 미록麋鹿이라 하였다. 자호하기를 계산溪山이라 하고, 늘 해금을 켜면서 시 읍기를 낙으로 삼았으며, 가난함을 근심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경의 막내 동생 오상은 1534년 알성문과에서 급제하여 대사헌·경상도관찰사·병조판서 등을 지냈으며, 문장에도 뛰어나서 당대 8문장의 한사람으로 손꼽혔다. 오경이 오정립吳挺立을 비롯한 아들 4형제를 두었으며, 오여해吳汝諧, 창성부사는 오정립의 손이다. 오면吳冕은 오경의 6세손으로 장동리에 살았는데 효행이 뛰어나 숙종대에 효자로 정려되었다. 2015년 인구통계를 보면 이천에 해주오씨는 2,110명이 살고 있으며 장동리가 유일한 세거마을로 남아 있다.



괴정육현의 한 사람인  
해주오씨 계산처사 오  
경 묘비

### 제일 먼저 봄이 찾아오는 곳, 백사면 도립리 영월엄씨

해마다 봄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산수유꽃이 노란 안개구름처럼 피어나는 곳, 백사면 도립리는 영월엄씨寧越嚴氏들이 500년이 넘게 터를 잡고 살아온 마을이다. 이천에서 제일 높은 원적산이 병풍처럼 북쪽을 에워싸고, 육괴정을 둘러싼 느티나무



영월엄씨 엄용순 등  
괴정육현의 숭모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린  
육괴정

와 산수유가 우거진 돌담길이 옛 정취를 자아내는 이 마을도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모습이 변해가고 있다. 영월엄씨는 중국 사신으로 신라에 왔다가 그대로 눌러 살았다는 엄임의(嚴林義)를 시조로 하고 있다. 엄임의의 아들 삼형제가 엄태인(嚴太仁, 군기감 · 엄덕인(嚴德仁, 주부 · 엄처인(嚴處仁)인데 둘째 엄덕인의 증손 엄광(嚴光, 좌복야이 복야공파를 이끌며,

도립리의 영월엄씨들은 엄광의 복야공파 후손들이다.

엄광의 6세손이 조선 개국공신인 엄유온(嚴有溫, 동지총제이다. 엄유온의 아들이 엄극인(嚴克仁)이고, 엄극인의 장남이 엄산수(嚴山壽, 오위사직인테 엄산수의 딸이 성종의 후궁인 엄귀인이다.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윤비 폐비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여 엄귀인은 죽음을 당하고, 엄산수와 큰 아들 엄훈(嚴訓, 선공감부정이 도립리로 유배되었다가 역시화를 입었다. 그의 묘가 도립리에 있다. 엄훈이 엄용관(嚴用寬 · 엄용홍(嚴用弘 · 엄용공(嚴用恭 · 엄용순(嚴用順 네 아들을 두었는데, 막내 엄용순이 선대의 묘가 있는 도립리로 낙향하여 영월엄씨 이천파가 뿌리를 내리게 된다.

엄용순은 호를 남당(南塘)이라 하였는데 천성이 어질고 효성스러우며 학문에도 조예가 깊었다. 종종 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만 정진하였다. 기묘사화가 일어나서 사람과가 대거 몰락하게 되자 도립리로 낙향하여 당대의 명현인 모재 김안국을 중심으로 강은 · 오경 등의 선비들과 가깝게 교유했다. 작은 연못가에 정자를 짓고 느티나무 여섯 그루를 심어 육괴정(六槐亭)이라 이름 지었는데, 정자는 그 후 여러 차례 중건을 거쳐 옛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지만 느티나무 세 그루가 아름다리 고목이 되어 아직도 남아 있다. 모재가 이천에 머무는 동안 특히 엄용순 · 강은과 가깝게 교유했음을 『모재집』을 통해 알 수 있다. 엄용순은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매년 봄 생신날이 되면 잔치를 열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는데, 그때마다 모재도 함께 참석하여 소회를 읊은 시가 남아 있다. 괴정육현의 중심 인물로 『이천읍지』에 이름이 올랐다.

엄용순은 엄위(嚴緯, 현감)를 비롯한 아들 삼형제를 두었으며, 임진왜란 때 의병을 조직하여 여주 영릉을 지키려다가 순절한 엄유윤(嚴惟尹, 충신정려)은 엄위의 아들이다. 후손들이 도립리를 중심으로 인근 경사리·송말리 지역에 세거마을을 이루고 있으며, 송정동에도 집성촌이 있는데 이곳의 영월엄씨들은 시조의 9세손인 엄인보(嚴仁輔, 동지총제)의 후손들이다. 2015년 인구통계를 보면 이천의 영월엄씨들은 모두 1,10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오옥 선생 이성임을 배출한 전주이씨

전주이씨(全州李氏)는 신라 때 사공 벼슬을 지낸 이한(李翰)을 시조로 하고 있으나, 태조 이성계의 고조부 이안사(李安社) 이전의 세계(世系)에 대해서는 분명치가 않다. 태조는 시조 이한의 22세손이라고 한다. 전주이씨들은 ‘제왕을 조상으로 부를 수 없다’고 하여 왕위에 오른 정종·태종을 제외한 태조의 다른 아들들, 그리고 역대 임금들의 소생인 대군과 군을 각각 파조로 하는 120개가 넘는 지파들로 갈라진다. 그중에서도 손꼽는 명문으로는 세종이 총애했던 아들 이침(李琛)을 파조로 하는 밀성군과와 이여(李璵)의 광평대군과, 정종의 아들인 이후생(李厚生)의 덕천군과, 세종의 둘째 형 이보(李補)의 효령대군과 등이 있다.

태조의 셋째 아들이 익안대군 이방의(李芳毅)이며, 이방의의 두 아들이 이석근(李石根, 익평부원군)과 이승(李昇, 영가정)이다. 이석근의 6세손 이의경(李儀卿, 부사과)과 이의경의 아들 이상진(李尙晋)의 묘가 모가면 송곡리에 있으며, 이의경의 아우 이현경(李賢卿)의 후손들이 설성면 장릉2리에 세거마을을 이루었다. 다시 영가정 이승의 손자가 이무창(李武昌)인데 이천서씨 서형(徐迥, 도사)의 사위가 되어 대월면 군량리 월량촌(月良村)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무창의 손자 이형(李諲)은 경력을 지냈으며, 호를 석계(石溪)라 하고 군량리 양화천이 감돌아 흐르는 바위언덕에 무우정(舞雩亭)을 지었다.

이형의 아들이 오옥 선생 이성임(李聖任)으로 1555년(명종 10) 월량촌에서 태어났다. 별시문과에 급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용모와 음성·문장·글씨·노래솜씨가 모두 옥과 같이 뛰어나다고 하여 오옥(五玉)이라 불렀다고 한다. 문과정시에서 활쏘기를 하여 문무 양과에 장원으로 뽑혔다. 선조가 안장을 갖춘 내구마(內廐馬) 두 필을 하사하여 공이 양 손으로 한 마리씩 끌고 나오니 사람들이 모두

대월면 군량리 무우정  
(1984)



청송하고 부러워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도관찰사가 되고, 순찰부사로 민병 800여 명을 거느리고 임진강 방어에 나섰으나 실패하였다. 강원도관찰사·길주목사·황해도관찰사를 지냈으며, 『이천읍지』 인물편에 이름이 올라 있다.

이성임의 장남 이용진李用晉은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부승지를 지냈으나 이괄의 난에 연루되어 화를 입었다. 이용진의 2남이 이한구李翰衡, 현감이며, 이사성李思晟, 관찰사는 이한구의 증손이다. 풍운아 이사성은 군량리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무장으로 뛰어난 자질을 보였다고 한다.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부정·전라우도수군절도사·경상도병마절도사 등을 지냈으며, 1728년영조 4 평안도관찰사가 되었다가 이인좌의 난에 연루되어 처형되었다. 이사성이 역모사건에 연루되는 바람에 후손들이 군량리를 떠났다고 하며, 장호원을 대서리에는 이성임의 둘째 아들 이용항李用恒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정종의 아들 이후생을 파조로 하는 덕천군파의 가계를 보면 이후생의 5세손 이로李輅의 후손들이 부발읍 대관리에 터를 잡고 살아왔으며, 이후생의 다른 5세손 이현李憲의 후손들은 호법면 유산리·매곡리 등지에 집성촌을 이루었다. 사음동에 세거마을을 이룬 전주이씨들은 이후생의 4남 이효창李孝昌, 송림군의 후손들이다. 그밖에 도 세종의 5남 밀성군 이침李琛을 파조로 하는 밀성군파 후손들이 호법면 송갈리와



마장면 관리 등지에 대를 이어 살고 있다.

### 귀양살이로 이천과 인연 맺은 용인이씨

용인이씨龍仁李氏는 고려 태사 이길권李吉卷을 시조로 하고 있다. 용인지방의 토호였던 길권이 태조 왕건을 도와 고려 건국에 공을 세워 공신이 되고 구성백에 봉해짐으로써 후손들이 구성을 본관으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구성현이 처인현과 합해져서 용인현으로 개편됨에 따라 용인이씨가 되었다. 시조의 14세손이 중시조인 이중인李中仁, 우시종인데 고려가 망하자 머리를 풀고 두문동으로 들어가서 절의를 지킨 인물이다. 이중인이 자손 3대까지는 새 왕조에서 벼슬을 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긴 탓에 후손들이 이를 따랐으나, 둘째 아들 이사위李士渭, 관찰사만은 벼슬길에 나가 부친의 뜻을 어겼다. 이는 황희 정승의 경우처럼 재주와 덕망 있는 인재들 몇 사람에게 벼슬살이를 시켜서 화를 줄이려고 한 주위 사람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한다.



용인이씨 이흥망 선정 송덕비

이사위의 아들이 청백리로 녹선된 이백지李伯持, 관찰사이며, 이수강李守綱, 이천부사를 비롯한 아들 다섯을 두었다. 그중 셋째가 이수상李守常, 판관이며, 이수상의 손이 이성달李成達, 정주목사이다. 용인이씨 이천 입향조인 이명효李明孝는 이성달의 아들이다. 이명효는 일찍이 학문에 뜻을 두고 조정암의 문하에서 수학하던 중,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스승에 연루되어 이천 안흥서<sup>4</sup>로 귀양살이를 오게 된 것이 용인이씨들이 이천과 인연을 맺게 된 동기라고 한다. 이명효의 아들 육형제 중 장남 이양복李陽復과 차남 이양승李陽升, 교수의 후손들이 백사면 조읍리에, 셋째인 이양진李陽晉, 증 좌찬성의 후손들은 모전리에, 막내인 이양절李陽節, 참봉의 후손들은 도지리에 각각 터를 잡아 세거마을을 이루었다.

입향조 이명효의 셋째 아들 이양진이 다시 아들 삼형제를 두었는데 둘째 아들이

4) 安興嶼는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1917년에 작성한 『조선고적조사보고서』 이천군편에 보면 안흥지 복판에 인공으로 쌓은 작은 섬을 말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기개 있는 외교로 오만방자한 청국의 콧대를 꺾은 이홍망李弘望이다. 이홍망은 상투를 대들보에 묶어놓고 잠을 쫓으며 공부했다는 면학의 주인공으로, 1605년선조 38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지평·헌납·필선 등 여러 벼슬을 지냈다.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왕을 강화도로 호종하고, 병자호란으로 치욕적인 화의를 맺을 때도 국서를 받들고 심양으로 가는 두 왕자를 수행했다. 세 차례나 사신이 되어 심양을 오가면서 청의 협박과 회유에도 흔들림 없이 의연한 태도로 임무를 수행하여, 인질로 잡혀갔던 조선인 수백 명을 구출해 데려오기도 했다. 함평현감·동래부사를 비롯한 일곱 고을의 수령을 지내면서 가는 곳마다 선정을 베풀어 고을 사람들이 그의 공덕을 추모하는 선정비를 세웠다. 벼슬은 동래부사를 거쳐 승정원우부승지를 지냈다.

이홍망은 아들 4형제를 두었는데 장남이 이이철李以哲, 증 호조참판이며, 이이철의 손자가 증조부 이홍망과 함께 『이천읍지』 인물편에 이름이 오른 이진은李震殷이다. 이진은 1678년숙종 4 증광문과에 장원급제하고, 문신정사에서 또 다시 장원하여 문명을 떨쳤다. 전적·응교·고성군수·판결사 등 여러 벼슬을 거쳐 동지중추부사를 지냈으나, 갑자기 별세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문인을 잃었다’며 슬퍼했다고 한다. 2015년 인구통계를 보면 이천 관내에 용인이씨들은 모두 44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외암 이식이 동촌에 터전을 마련한 연안이씨

연안이씨延安李氏는 첨사공파의 17세손 외암畏庵 이식李栻이 뛰어난 학행으로 『이천읍지』 인물편에 기록되고, 후손들이 대대로 이천읍 동촌東村에 세거하면서 ‘동촌이씨’라 불린 읍내의 명문이었다. 외암은 학행으로 천거되어 조선의 르네상스 시대를 연 영조를 가르친 인물이다. 연안이씨의 시조 이무李茂는 당의 장수로 소정방을 따라 왔다가 신라로 귀화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조 이후의 가계는 알 수 없고 고려에 와서 벼슬한 후손들을 중흥조로 하여 10개 파로 갈라지게 된다. 그중에서도 이습홍李襲洪을 파조로 하는 태자첨사공파와 이현려李賢呂의 판소부감공파, 이지李漬의 통례문사공파의 3개 파가 주류를 이룬다.

첨사공 이습홍의 5세손이 고려 멸망 이후 절의를 지킨 이원발李元發, 전공판서, 중종반정의 공신인 이곤李坤, 판결사과 이말李沫, 직제학은 이원발의 5세손이다. 이곤의 증손이 이요신李堯臣, 한산군수이며, 외암의 부친 이제현李齊憲은 이요신의 증손이다. 외암은 성

품이 어질고 효성스러우며 어릴 때부터 학문에 몰두하여 15~16세 때 이미 책을 저술하였다. 이를 일기<sup>日記</sup>라고 했는데 모두 수십 권이나 되었다고 한다. 당대의 대학자 정시한의 제자로 퇴계 이황의 학통을 이어 일가를 이루었으며, 35세 때인 1694년<sup>숙종 20</sup> 이천 읍내 동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학행으로 천거되어 의릉참봉이 되고, 의금부도사, 장흥고주부 등을 거쳐 64세 때인 1722년<sup>경종 2</sup> 세제익위사<sup>世弟翊衛司</sup>의 익위가 되어 세제인 영조를 가르쳤다. 영조가 즉위하자 자신의 스승인 외암을 다시 세자익위로 불렀지만 이듬해 병으로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외암이 이도익<sup>李道翼</sup>, 광흥주부<sup>廣興主簿</sup>을 비롯한 아들 삼형제를 두고, 다시 이도익이 아들 오형제를 두어 후손들이 크게 번창하였다. 후손들 대부분이 가풍을 이어 학문적 자질이 뛰어났으며, 외암의 증손 이수옥<sup>李壽玉</sup>은 학행으로 세자익위사에 천거되었지만 나가지 않았다. 같은 증손인 이장옥<sup>李章玉</sup>, 동지중추<sup>同知中樞</sup>과 이창옥<sup>李昌玉</sup>, 증 참의<sup>參議</sup>은 이천에 살면서 1818년<sup>순조 18</sup> 당시 뜻이 통하는 선비들과 함께 남천구로회<sup>南川九老會</sup>란 시회를 열고 활동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장옥의 손이 이봉춘<sup>李鳳春</sup>이며, 이봉춘의 아들 삼형제 중 장남인 이일형<sup>李日馨</sup>이 이수흥<sup>李壽興</sup> 의사의 부친이다. 이일형은 일찍이 면암의 문하에서 의병항쟁에도 참여하였다.

이천 연안이씨 문중의 자랑인 독립투사 이수흥은 1905년 이천 읍내에서 이일형의 외아들로 태어나 이천공립보통학교를 2학년까지 다녔다. 독립운동에 뜻을 품고 만주로 건너가 김좌진 장군이 세운 신명학교를 나온 후 대한민국임시정부 육군주만 참의부 특무정사가 되었다. 22세 때인 1926년 국내로 잠입하여 백사면 현방리주재소 습격을 비롯한 ‘기내4대사건’을 일으키며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26세의 꽃다운 나이로 교수형을 받고 순국하였다. 1919년 4월 1일 신둔면 만세운동의 중심인물인 이상혁<sup>李商赫</sup>도 연안이씨 문중에 인물이다. 당시 27세였던 이상혁은 다른 주동 인물들과 함께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 동안 옥살이를 하였다.

이종성<sup>李宗聖</sup>은 일제강점기 때 보기 드문 조선인 변호사로 이수흥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변론을 담당했던 기개 있는 인물이었다. 해방 후 대법관과 반민특위 특



외암 이식 영정(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별검찰관 등을 지내고 이천에서 제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나, 한국전쟁 때 납북되어 끌려간 후 북한에서 별세하였다. 2015년 인구통계를 보면 이천의 연안이씨들은 모두 863명이 살고 있지만, 세거마을이었던 동촌이천초등학교 동쪽 마을은 도시화로 인해 옛 모습을 찾을 수 없다.

### 풍담 이승경과 지조 있는 선비 이현문을 배출한 전의이씨

전의이씨金義李氏는 고려 태조가 후백제를 정벌 할 때 공을 세워 개국공신이 된 이도李樸, 태사를 시조 1세로 하고 있다. 시조의 7세손인 이천李仟, 시종이 아들 셋을 두었는데 이자원李子簾, 대사성 · 이혼李混, 첨의정승, 문장공 · 이자화李子華, 전서로 각각 대사성공파, 문장공파, 전서공파를 이끌면서 후손들이 번창하였다. 전서공 이자화의 손이 이구직李丘直, 전서이며, 이구직의 장남이 세종 때 강원도관찰사를 지낸 이정간李貞幹, 효정공이다. 노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으로 세종이 ‘가전충효 세수인경家傳忠孝世守仁敬’이란 친필 글씨를 내렸는데 이 글이 대대로 문중의 가훈이 되어 내려온다.

이정간의 장남이 이사흙李士欽, 대호군이며, 이사흙의 증손이 이창신李昌臣, 호조참판이고, 전의이씨 입향조 이승경李崇慶은 이창신의 손이다. 1540년중종 34 사마시에 합격했으나 벼슬에는 뜻을 두지 않고 신둔면 고척리 양악산 아래에 터전을 마련하여 은거 생활을 하였다. 학문이 뛰어나고 시와 글씨에도 능해 박순 · 임억령 등 당대의 이름난 문인들과 가깝게 교유했으며, 조정대신들이 찾아와서 자문을 구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천지방에는 예부터 ‘일고척 이관동一高尺二冠洞’이란 말이 전해 오는데, 고척리의 이승경과 마장면 관리 사람인 이관의의 학문이 뛰어남을 칭송하는 말이다.

다시 효정공 이정간의 2남이 이사관李士寬, 한성부윤이고, 이사관의 현손이 이문성李文誠, 병마사이며, 이제신李濟臣은 이문성의 아들이다. 이제신은 어려서부터 영민하여 대학자 조식이 보고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하고 울산군수로 부임하여 선정을 폈다. 함경북도 병마절도사가 되었으나 여진족 니탕개의 침입을 막지 못했다고 하여 의주로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별세했다. 4남 이명준李命俊, 대사간과 부자가 나란히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이제신의 서자 이경준李耕俊은 서출이란 이유로 벼슬길이 막히자 같은 처지의 명문가 서출들과 어울리며 자신들을 ‘강변칠우’라고 불렀다. 정인홍 등의 대북파가 영창대군과 반대



이구준 묘갈(마장면 오천리)



전의이씨 이구준 묘지명(墓誌銘)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해 일으킨 계축옥사에 연루되어 처형당했으며, 후손들도 고향을 떠나서 흩어지게 되었다. 이경준 사건으로 이천부는 현으로 강등되었다.

이승경이 족제(族弟) 이제신의 3남 이구준(李耆俊, 증 좌참찬)을 양자로 하여 가계를 이었다. 이구준은 동생 이경준이 역모사건으로 처형되자 함남 흥원으로 유배되었다가 9년 만에 풀려났으며, 인조반정 후 상의원주부와 의빈부도사를 지냈다. 시와 글씨에 능했는데 특히 초서를 잘 써서 초성(草聖)이란 소리를 들었으며 마장면 오천리에 묘가 있다. 이구준의 후손들이 대대로 고척리에 세거해 왔는데 무과 급제자 24명을 배출하여 무관으로 관직에 오른 인물들이 많다.

효정공 이정간의 동생이 이진간(李珍幹, 홍문관부제학)이며, 이진간의 7세손이 대월면 고담리 전의이씨들의 입향조인 이충정(李忠貞)이다. 호법면 주미리와 송갈리에 세거해 온 전의이씨들은 이충정의 장남 이찬(李璨, 선공감감역)의 후손들이다. 이찬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이창문(李彰門, 진천현감)과 이현문(李顯文)이다. 대쪽 같은 성품의 소유자로 『이천읍지』 인물편에 이름이 오른 이현문은 1569년(선조 2)에 출생하여 광해군 때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조정대신들이 인목대비를 폐위시키려 하자 이를 극구 반대하는 상소를 열두 차례나 올렸다. 이 일로 정권을 쥐고 있던 대북파의 미움을 사서 3년 동안이나 옥에 갇혀 지내다가 심한 장형을 받고 옥사하였다. 인조반정 후 신면되어 예조정랑 신민일을 보내 후하게 장사 지내도록 하였으며 사헌부 지평에 추증되었다. 2015년 인구통계를 보면 이천에 전의이씨들은 1,18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병자호란 때 적진에서 순절한 충신 박난영과 고령박씨

고령박씨高靈朴氏는 신라 54대 경명왕의 둘째 왕자 고양대군 박언성朴彦成을 시조로 하고 있으며, 박언성의 후손 박섬朴暹, 어사과 박환朴還, 부창정, 박연朴連, 주부 3인을 각각 중흥조로 하여 15개의 지파로 나뉜다. 부창정공 박환의 증손이 박인걸朴仁傑, 상장군이 고 박인걸의 손이 박광순朴光純, 찬성사이며, 박광순의 아들이 올면 고당리에 묘가 있는 고양부원군高陽府院君 박우생朴雨生, 문하시중이다. 박우생의 묘는 원래 호법면 단천리 능골에 있었으나 영동고속도로가 묘역을 지나가게 되자 고당리로 천묘하였다. 박우생의 아들이 박임귀朴林貴, 판사와 박임종朴林宗, 문하평리으로 고려 후기 손꼽히는 무인 가문이었다.

박임귀의 아들이 박간朴簡, 판서과 박진朴珍, 현감이고, 박임생의 아들이 무숙공武肅公 박만朴蔓, 병조판서으로 이들에게서 각각 관서공파·현감공파·무숙공파로 갈라진다. 이천의 고령박씨들은 박만을 파조로 하는 무숙공파 후손들로 올면 고당리와 월포리, 호법면 매곡리가 세거마을이다. 박만의 손자가 박문간朴文幹, 교리이며, 박문간의 아들이 박진朴鎭, 전적이다. 박진은 아들 오형제를 두었는데 막내 박자환朴自菡이 이천 입향조라고 하며 고당리 가래산에 묘가 있다. 박자환은 선대 때 광주 땅에 세거하였는데 부인 충주안씨가 세상을 떠나자 사남매를 데리고 처가가 있는 올면 고당리로 이주한 탓에 이후 후손들의 세거지가 되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박자환의 6대조 박우생의 묘가 원래부터 이천에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고려 말부터 이미 이천이 고령박씨들의 연고지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박문간의 동생 박중간朴仲幹, 판결사의 아들이 박륙朴陸, 광주목사와 박양朴壤, 생원이다. 박양의 아들 박영로朴永老, 진사가 호법면 매곡리 입향조이며, 고당리 입향조인 박자환과는 재종간이다. 박종수朴宗秀, 증 판서는 박영로의 증손이며, 박종수가 아들 삼형제를 두었으니 박계영朴桂英, 부정·박규영朴葵英, 선천부사·박난영朴蘭英이다. 막내 박난영이 병자호란 때 사신으로 활약하다가 적진에서 화를 당해 충신으로 정려됨으로써 『이천읍지』에 이름이 오른 인물이다.

박난영은 1594년선조 27 무과에 급제하여 창성부사를 지냈다. 광해군 때 명의 요청으로 조선이 구원군을 보낼 때 도원수 강홍립의 부장으로 출정했다가 후금의 포로가 되어 억류생활을 했다. 억류에서 풀려난 뒤 회담관·선유사 등으로 심양을 왕



래하면서 외교에 힘썼으며,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휴전 교섭의 임무를 띠고 적장과 회담하였다. 청이 조선에 왕자와 대신을 인질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자, 조선에서는 종친 1명과 참관 심집을 왕자와 대신으로 가장시켜 청의 진영으로 보냈다. 적장 용골대가 이를 의심하고 박난영에게 물었는데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진짜 왕자와 대신이라고 했다가 거짓이 탄로 나서 적진에서 죽음을 당했다. 나라에서 충신으로 정려하고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고령박씨 세거지 울면  
고당리 전경

2015년 인구통계를 보면 이천의 고령박씨들은 모두 58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거마을은 호법면 매곡리, 울면 고당리와 월포리인데 특히 고당리는 전국에서도 손꼽는 고령박씨 집성촌이다.

### 충신 김응건과 효자 김도흥을 배출한 선산김씨

선산김씨(善山金氏)는 신라 문성왕의 후손으로 왕건을 도와 고려 건국에 공을 세워 전주백(善州伯)에 봉해진 김선궁(金宣弓, 文하시중)을 시조로 하고 있다. 선산김씨에게는 김선궁계 외에도 경순왕의 8왕자이며 왕건의 외손인 김추(金鍾)를 시조로 하는 별개의 문파가 있다. 김선궁 집안은 후대에 와서 대장군파·화의군파를 비롯한 18개 지파로 나뉘는데, 거유(巨儒) 김숙자(金淑滋)와 김종직(金宗直, 중종 대 상신 김응기(金應箕, 좌의정) 등이 문중이 자랑하는 인물이다. 시조의 7세손 화의군(和義君) 김달상(金達祥, 금위제조관)은 홍건적의 난을 피해 피난길에 오른 공민왕을 수행한 공으로 호종공신이 되었다. 아들 김계수(季壽)와 함께 신돈을 제거하려다가 탄로 나서 부자가 함께 죽음을 당했다. 당시 김계수의 여섯째 아들인 김진덕(金振德, 성균관대학사이 네 살배기 어린 몸으로 유모 등에 업혀 신돈면 고척리로 피신함으로써 선산김씨들이 이천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고 한다.

김진덕의 아들이 김승경(金承敬, 사헌부감찰)이며, 손자 김정신(金鼎臣)은 1524년(중종 19) 문과 급제하여 안동부사를 지냈다. 김정신의 아들은 김신기(金愼幾, 호조정랑)이며, 김신기의 아




선산김씨 문중 묘역(이천 송덕원, 출처 : 선산 김씨 쌍림사람들)

들이 김응건(金應健)으로 임진왜란 때 진주성 싸움에서 순절하여 『이천읍지』에 이름이 오른 인물이다. 김응건은 화의군 김달상의 6세손이다. 성품이 어질고 다재다능하여 문무를 겸전하였다. 젊은 나이에 과거 급제하여 결성현감으로 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왜군의 공격을 받고 진주성이 위급하게 되자 김응건은 즉시 수하 군사들을 이끌고 진주성으로 달려가 병마절도사 황정(黃琰)과 함께 군사들을 독려하여 결사항전을 벌이다가 전사하였다. 시신을 찾지 못하여 전장에서 혼을 불러다가 고척리 선영 아래 장사지냈다고 하며, 충신으로 정려되고 병조참의에 증직되었다.

김응건의 손자가 무과 급제하여 경기방어사를 지낸 김여온(金汝溫)이며, 김여온의 아들이 김경일(金景鎰, 동지중추이공), 김경일의 손자 김홍채(金弘采, 부호군)는 덕행과 학문으로 이름이 알려졌다. 김홍채의 아들 김도흥(金道興, 증 참의)은 부모의 병이 위독하자 여러 차례 손가락을 잘라 입에 피를 흘려 넣는 등 뛰어난 효행으로 1746년(영조 22)에 효자로 정려되어 『이천읍지』에 이름이 올랐다. 학문에도 자질이 뛰어났다고 하며 참의로 증직되었다. 묘소가 마장면 덕평리에 있으며, 후손들이 신둔면 고척리와 증일동, 그리고 마장면 덕평리에 세거해 오고 있다.

한편 화의군 김달상의 넷째 아들 김문구(金文久)의 8세손이 김홍우(金弘遇, 영유현령), 김홍우의 아들이 선조 때 문신으로 동서봉당의 빌미를 제공한 김효원(金孝元)이다. 김효원의 동생으로 선조 때 두 번이나 문과 급제하여 세자시강원 보덕, 대사간 등을 지낸 김의원(金義元)의 묘가 백사면 백우리에 있다. 김의원이 형 김효원의 아들 김극선(金克銑)을 양자로 하여 가문을 이었는데, 이들의 후손들이 백사면 상용리에 살고 있다. 2015년 인구통계를 보면 이천 관내에 선산김씨는 모두 73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2

## 이천을 빛낸 대표 인물





최의광 |

이천문화원 이사 · 공주대학교 겸임교수

## 제2장 이천을 빛낸 대표 인물

### 1. 용기와 지혜로 국난을 극복한 외교의 귀재 서희<sup>1)</sup>

이천에서 태어난 본토박이 이천인이며, 충군 애국의 모델인 장위공(章威公) 서희(徐熙, 942~998)는 이천서씨(利川徐氏)로 호는 복천(福川)이다. 그의 할아버지 서신일(徐神逸)은 이천서씨의 시조로 신라 말 아간대부를 지냈으며, 지역의 전설에 따르면 80세에 서희의 아버지 이기도 한 아들 서필(徐弼)을 얻었다고 한다. 서필은 성품이 강직하고 총명한 사람으로 내의령을 지냈으며 고려 4대 임금 광종을 섬김에 많은 공적을 남겼다.

서희는 내의령 서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960년(광종 11) 18세의 어린 나이로 문과에 급제하면서 처음 벼슬길에 나아갔는데, 광평원외랑(淸平院外郞)에 제수되었다. 문관이었던 서희는 972년 내의시랑 직에 있으면서 왕명으로 고려의 사신이 되어 송(宋)에 파견되었는데, 이때부터 외교가로서 명성을 이미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외교활동은 매우 비중 있는 것으로 10여 년 간 단절되어 있던 중국 정통왕조와의 관계회복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일종의 조공형태를 띄고 있으나 그 결과가 주목되는 외교였음에 틀림없다. 서희는 이 외교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되는데, 그가 사절로 다녀온 후 송과 고려가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당시 송의 태조 조광윤은 서희의 인품을 가상하게 여겨 검교병부상서를 제수하였다고 한다.

이후 서희는 고려 조정에서 승승장구하여 983년(성종 2)에는 상서좌승을 거쳐 군정의 책임을 맡은 병판어사직에 올랐다. 문관직에서 무관직의 성격을 띤 위치로 옮겨진 것이다.

당시 동북아 국제정세를 잠시 살펴보면, 서쪽 바다 건너에는 당 왕조를 대신한

1) 『이천시지』(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2권 90~91쪽 서희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우리나라 최고의 외교  
관으로 추앙받는 장위  
공 서희 동상



송이 있었고, 북쪽 옛 고구려 땅에는 유목민족으로 916년에 부족을 통합하여 요나라를 세운 거란이 성장하고 있었다. 거란은 일찍이 차지한 송의 북쪽지역연운 16주에 대한 송의 반환요구를 거절하는 등 그 강대함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장차 송을 장악하고자 하는 거란은 남쪽의 고려가 단지 송과 친교할 뿐 자신들을 외면하는 것에 불만이였다. 또 장차 송을 공격하려면 송과 친교를 맺고 있는 배후의 고려를 먼저 공략할 필요가 있었다.

993년 거란 장수 소항덕소손녕. 당시 동경유수의 직을 갖고 있었음은 80만 대군으로 고려를 침공하였다. 고려 조정에서는 박양유를 상군사로, 서희를 중군사로, 최랑을 하군사로 지명하여 북계에 머물고 있는 거란을 방어하게 하였다. 성종은 몸소 거처를 북쪽 서경오늘날 평양으로 옮기고 전세를 주시하고자 하였다. 소항덕의 거란군이 고려의 선봉부대를 봉산에서 격파하자 전세가 고려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형국에서 고려 조정의 대신들은 거란군의 기세에 눌려 화친을 도모하기를 원하며, 심지어 그동안 통치했던 북쪽 서경오늘날 평양 이북의 땅을 떼어주자고 까지 하였다. 성종도 조정대신들의 이 할지론割地論을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이었다. 그래

서 서경 창고에 있는 군량미를 풀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은 군량미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대동강에 던져버리라고 지시하였다. 이 상황에서 서희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전쟁의 승패는 병력이 약하고 강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의 약점을 보아 군사를 움직이는 데 있다’고 역설하며, 싸워보지도 않고 서둘러 항복하자고 하는 조정대신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강변하였다. 이러한 때 마침 거란군이 안용진을 공격하다가 고려의 중량장 대도수에게 패하는 상황이 되었다. 소항덕은 이때를 즈음하여 조정대신과의 면담을 청하였다. 생명을 건 이 면담에 자원하여 나간 사람이 바로 서희였다. 서희는 위협을 무릅쓰고 적의 진영 심층부에 들어가 적장 소항덕을 만났다. 그러나 적장은 신하의 예를 다하라며 서희를 압박하였다. 서희는 그의 요구에 강경히 맞섰으며 퇴각하면서까지 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면담이 무산되는 듯 했고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소항덕이 자신의 의지를 굽힘으로써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역사적인 담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소항덕의 침입 동기는 고려 점령에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고려가 일방적으로 송과 친교하면서 거란을 배척한 것에 대한 불만이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고려가 송과 화친하고 있는 한 거란이 송을 공격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외교적으로 고려를 설득하여 자신들과 화친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담판 중에 고려의 친송 외교와 북진정책에 대한 불만 등이 소항덕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것이다.

그대 나라는 옛 신라 땅에서 일어났으므로 고구려의 땅은 우리의 것이다. 그런데 그대들이 우리 땅을 점령했다. 또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도 바다 건너 송나라를 받들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고려를 정벌하게 된 것이니 만약 지금이라도 옛 고구려 땅을 돌려주고 화친을 맺겠다면 무사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소항덕의 이 주장을 통해 서희는 거란이 고려를 침략해 온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이는 거란이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며, 또한 고려가 송과 외교관계를 맺은 것에 대한 불만이었다. 이에 대해 서희는 한 차원 위에

서 화답하였다. 즉,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당연히 현재 북쪽지역의 상당 부분이 고려의 것이며, 우리가 거란에 사신을 보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국경지역의 여진족들이 통행을 방해하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응대하였다.

그대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고려는 바로 고구려의 후신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 하였고 평양 근처에 도읍했다. 만약 경계를 논한다면 그대 나라의 동경도 모두 우리 경내에 있는 땅인데, 어쩌서 국경을 침범했다고 하는 것인가? 또한 압록강 안팎도 역시 우리의 땅인데, 여진족이 들어와 살면서 교활하게도 길을 막아 부득불 송나라와 사귀는 것이오, 만약 여진을 몰아내고 우리 옛 땅을 되찾아 돌려주고 성을 쌓아 도로를 통하게 하면 어찌 수교하지 않겠는가? 만일 나의 말을 장군이 그대로 장군의 임금에게 전달한다면 틀림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서희의 주장은 논리적이었고 타당한 것이었다. 결국 소항덕은 서희의 주장에 수긍하며 거란 황제에게 철군 승낙을 받아냈다. 이같이 서희의 외교적 수완으로 거란과 고려와의 첫 전쟁은 큰 싸움 없이 손쉽게 종결되었다. 거란이 순순히 물러난 것은 땅을 차지할 목적보다 고려가 자신들을 상국으로 대우해 주는 것에 일단 만족했기 때문이다.

또 “압록강유역의 땅을 고려에 넘겨준다면 여진족을 몰아내고 길을 내어 사신을 파견할 수 있다”고 한 부분도 소항덕의 마음을 움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에 틀림없다. 때는 11월 초로 계절은 겨울을 향하고 있던 시절이었다. 이에 소항덕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많은 군사와 함께 월동<sup>越冬</sup>의 부담도 있었기에 무조건 전쟁만 하는 것은 실리가 없다고 판단, 고려의 주장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압록강유역 강동6주를 넘겨주고 고려는 사신을 파견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거란은 군대를 물렸으며 고려는 오히려 북쪽 땅 강동6주를 차지하였다.

소항덕과의 담판으로 거란 군을 물리치고 오히려 강동6주를 획득한 이 사건은 민족사적 쾌거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고려충신인 이천 출신 서희 개인의 외교역량과 담력, 그리고 정확한 정세판단이 어우러진 결과라 할 수 있다. 고려 조정의 충신들이 지레 겁먹고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화친과 할지<sup>割地</sup>의 주장이 대세를 이룰 때 서희는 때를 기다렸으며 담대히 적장을 만나 한판의 승부로 난국을 정면 돌파하였던 것



서희 묘 전경

이다.

담판이 끝나고 소항덕은 서희의 인품과 뛰어난 언변에 감복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고 한다. 단신으로 적진에 들어가서 세치 혀로 적장을 설복시키고 대접까지 받은 서희는 거란군 진영에 들어간 지 7일 만에야 돌아왔다. 서희가 담판에 성공하여 귀환한다는 소식을 들은 성종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강가까지 마중하러 나왔다.

그 후 서희는 자신이 획득한 강동6주 주변의 지역을 찾아 여진족을 평정하고 성곽을 수리 수축하였고, 애초 6주에 2성을 더하여 강동8성을 고려의 영역 안에 들어오게 하였다. 거란 침략 이후 서희는 국경지역에 자주 행차하며 그 지역을 평정하는 공무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활동으로 지친 서희는 병을 얻어 개국사(開國寺)에서 요양하게 되었다. 성종은 몸소 어의를 대동하여 서희를 문병하였으며, 어의 한 벌과 말 세필을 내렸고, 곡식 1,000석을 시주하여 서희의 쾌유를 빌었다고 한다.

거란이 물러간 후 강동6주 정비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던 서희는 과로로 병을 얻어 결국 998년(목종 1) 7월 사망하였다. 그의 나이 55세로 강동6주를 찾은 지 불과 5년 후였다. 고려조정에서는 장위의 호를 제수하였고, 필요한 모든 부의를 내려 주어 예

를 갖추어 장사지내게 하였다. 서희의 묘소는 이천에 인접한 여주시 산북면 후리에 있는 후산에 마련되었으며 옆에는 부친 서필의 묘소가 있다.

그 후 서희는 1027년<sup>현종 18</sup> 성종 묘에 배향되었으며, 1033년<sup>덕종 2</sup>에는 대사의 직을 추증하였다. 이어 1392년 이성계는 고려 왕조를 끝내고 조선을 개국하였는데, 그해 경기도 마전현<sup>경기도 연천군 미산면</sup>에 고려 왕실의 제향을 위해 숭의전을 건립하였으며, 서희도 이곳에 고려의 공신들과 함께 배향되었다. 1564년<sup>명종 19</sup>에는 이천읍 동쪽 5리 안흥지 옆에 삼헌사<sup>三賢祠</sup>를 건립하였는데, 서희를 비롯하여 율정 이관의, 모재 김안국을 배향하고자 함이었다. 매년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이천의 유생들이 제례를 행한다.

서희의 공훈을 논하자면, 담력과 정세를 꿰뚫어보는 통찰력 등으로 거란족을 물리친 부분을 우선 꼽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거란 퇴치 후 강동6주를 비롯한 국경지역 평정을 들 수 있겠다. 하나 더 들자면 조정에 머무는 동안 보여준 충직과 강직의 모습이었다. 이 강직한 성품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나타났다. 983년<sup>성종 2</sup> 병관 어사로 왕의 행차를 수행하여 서경에 갔는데, 왕이 남모르게 유희를 즐기려 영명사라는 절에 들리고자 했다. 이에 서희가 글로써 옳지 않음을 간언하고 만류하니 성종이 그 계획을 중지하고 오히려 말과 안장을 서희에게 상으로 내리고 내사시랑으로 승진시켰다는 일화가 전하고 있다.

## 2. 성리학을 몸소 실천한 은거 학자 김안국<sup>2</sup>

김안국<sup>金安國</sup>. 1478~1543의 본관은 의성<sup>義城</sup>으로, 아버지 김연<sup>1452~1494</sup>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천 출생은 아니지만 관직에서 퇴거한 이후 약 18년 이상을 이천과 여주에 머물며 이천 향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는 한훤당<sup>寒暄堂</sup> 김굉필<sup>金宏弼</sup>의 문인으로 성리학에 밝을 뿐만 아니라 시문에도 능하여 많은 글을 남겼다.

2) 『이천시지』(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1권 178~194쪽의 김안국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특히 이 내용을 보완하는데 이인수 저 『이천의 인물』(이천문화원, 2010) 183~189쪽의 내용 또한 큰 도움이 되었음을 밝힌다.



김안국은 24세까지 수학修學하고, 25세부터 관직에 나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산부사·경상도관찰사·전라도관찰사를 역임하였으며, 1519년<sup>중종 14</sup> 파직되어 18년간을 야인으로 지내다가 다시 서용되어 약 5년간 관직에 몸담았다. 이에 따라 그의 생애를 흔히 4시기로 나누어 고찰하기도 하는데, 1기는 수학기라 하여 1~24세까지, 2기는 환로기라 하여 25~41세까지, 3기는 퇴거기라 하여 42~59세까지, 4기는 재서용기라 하여 60~65세까지이다.<sup>3</sup>

그가 관직에 있던 시절 많은 저술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경상도관찰사 재임기에 『소학』을 간행하고, 『이륜행실』을 편찬하였으며, 『여씨향약』과 『농잠서』 등을 언해하여 널리 보급하였다. 그리고 경상도의 66개 주와 현에 있는 향교 학생들이 『소학』을 공부하도록 권려하였다고 한다. 이는 그가 향촌교화와 성리학적 사회질서 정착을 위해 몸소 노력하였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이다.

그러나 김안국은 1519년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 그해 12월 16일 전라도관찰사에서 파직당한 후 주로 이천과 여주지역에 머물면서 시문을 짓거나 지역의 많은 유생들과 교유하면서 살았다. 그의 퇴거생활은 40대에 시작하여 50대 말에 이르기까지 약 18년의 세월이었으며, 왕성한 사회적 활동기로 볼 수 있다. 그의 문집 『모재집』에 실린 시가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쓰였는데, 이는 퇴거기가 그의 생에서 또한 의미 있는 시기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로 그의 퇴거생활 18년을 다시 나누면 이천 거주기간이 8년간으로 1520년부터 1527년까지이고, 여주 거주기간은 1528년에서 1537년까지 약 10년여의 기간이다.

그런데 김안국이 퇴거한 후 이천과 여주지역에 머물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고지도 아닌 곳에서 그렇게 긴 시간 머문 이유가 궁금하기 때문이



김안국이 저술한  
『여씨향약언해』

3) 최재남, 「김안국의 향촌생활과 시가향유」, 『사람의 향촌생활과 시가문학』, 국학자료원, 1997, 102쪽 참조(이천 시지편찬위원회, 『이천시지』 1권, 2001, 179쪽에서 재인용).

김안국의 시문집  
『모재집』



다. 우선 당시 교통상황으로 볼 때 남한강 줄기를 활용한 교통의 편리성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으로 본다. 또 많은 사류들이 남한강유역에 별서하고 있었는데 그들과의 손쉬운 교류를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남한강 주변 이천·여주지역의 풍광이 수려하다는 점 또한 은거지역으로 선택한 이유일 것이다. 즉, 우거 사류들은 대부분 이처럼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거처를 선택하였으며 대개는 정자를 짓고 동학(同學)을 찾아내어 교류하였다. 김안국이 이천·여주와 관련을 맺게 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그가 이천에 은거하면서 보여준 생활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적 형편은 『모재집』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리 풍요롭지는 않았던 것 같다. 여기에는 동리 사람들이 그에게 양식을 지원해 주었음을 알게 하는 사료가 있다. 또 물고기와 뽕잠 등은 이웃에 사는 노병들의 도움에 의해서 해결되었음도 기록에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주에 머무는 동안에는 생업을 위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하며, 양반들의 교류활동에서 상호 주고 받는 선물은 그들의 경제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안국의 퇴거기 활동모습은 그의 사류간의 교류양상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역시 『모재집』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직접 교류한 경우는 가족 친지의 방문, 사류들 간의 교류, 재지수령과의 교류 등이 있고, 간접적인 교류에는 시문의 주고받음, 묘도문자의 수증, 서찰의 교환 등이 확인되고 있다.

먼저 사류들 간의 일상적인 교류방식은 대부분 술자리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역시 『모재집』의 시문을 통해 확인된다. 이들의 모임은 대부분 시회의 성격을 갖는데 그중 ‘전춘’ 이니 ‘답청’ 이니 ‘칠석’ 이니 ‘중양절’ 이니 하는 것은 절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로 이러한 절기에 모임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재지사류들과의 수연이 있을 때 종종 함께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여주 이포 우거시기에는 가끔 뱃놀이도 함께 했음을 알 수 있다.

김안국이 퇴거 전에도 당대의 대가였으므로 퇴거 후 많은 사람들이 명정<sup>名亭</sup>이나 기문<sup>記文</sup>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그가 지은 많은 명정이 남아 있는데, 이 또한 교류의 증거로 볼 수 있겠다. 이 시기 재지사류간의 일상적인 교류범위는 보통 군·현 단위의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대개는 거주하는 군현을 중심으로 인접한 서너 개의 군·현이 활동 범위였다. 이천·여주에 거쳐하는 동안 김안국이 외지로 나간 횡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비교적 원거리로 교통하는 경우는 대개 친족을 만나러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김안국의 학문은 당대에 꽤 알려져 있었던 것 같다. 『동유사우록』을 살펴보면 그의 문인은 총 44명 정도 된다. 그가 관찰사 재임 시 향촌교화를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행동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퇴거기에도 향촌교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주로 향음이나 향회에 참석하였다는 잦은 기록들이 이를 말해 준다. 그는 기회가 있으면 향음이나 향회에 반드시 참석하였다. 또한 향교나 역원의 중수기와 누정기를 적거나 가요를 지어 성리학의 보급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그중 이천지역에 관련된 사례로는 퇴거 2년째에 지은 「이천중수향교기」, 퇴거 4년째 지은 「애련루기」, 퇴거 6년째 지은 「이천교생가요」가 있다. 특히 「이천중수향교기」가 눈에 띄는데, 조선시대 관립학교인 이천향교를 중수할 때 쓰인 이 내용 중 주목되는 곳은, “교학을 일으키는 한 가지 일은 왕정의 대단<sup>大端</sup>이다”라고 한 부분이다. 즉, 이는 교학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그는 평상시에도 이렇듯 학교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유생들이라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한편, 돌아간 모친을 위해 3년간 여묘 살이에 사당을 지어 단청까지 하고 삭망에 제사를 모셔서 향당의 칭찬이 자자한 공변좌라는 민간 노비가 있었는데, 당시 공변좌가 거주한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천이나 여주 어디였을 것으로 본다. 김안국은 이를 칭송하여 “이러한 순효<sup>純孝</sup>는 사대부로도 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천예로서야 가당키나 하겠는가?”라고 하여 그를 칭송하는 글을 부채에 써주었다고 한다. 유교의 덕목을 실천함에 충실한 사람이라 여겨지면 신분을 가리지 않고 칭송하는 그의 품성이 돋보인다. 어쨌든 그는 퇴거기에 이 정도로 향촌 교화에 힘쓰고 있었다.

여주 이포 퇴거기에는 수태지<sup>水苔紙</sup>라는 새로운 종이를 만들어 스스로 주위 사람

들에게 권유하였으며, 후일 다시 서용되었을 때 이를 진상하여 각 도에 보급할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 일상의 삶속에서 배움을 실천하는 자세가 돋보인다.

김안국이 이천 향당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임은 앞의 내용으로도 알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산수유마을로 유명한 백사면 도립리에 있는 육괴정을 중심으로 한 그의 활동을 통해서 뚜렷이 확인된다.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한 이천지역의 사류들은 김안국을 비롯하여 성담령, 강은, 엄용순, 오경, 임내신 등 총 여섯 명을 괴정육현이라 불린다. 육괴정은 도립리가 고향인 엄용순이 지은 정자亭<sup>7</sup>로 김안국이 자신의 학문의 보급과 유학자로서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한 곳이다. 또 퇴거의 긴 공백기간의 외로움을 달래는 공간으로도 활용되었을 것이다.

#### 김안국 퇴거 당시 괴정육현 현황<sup>4</sup>

성명	본관	거주지	당시 나이	생몰년
성담령(成聃齡)	창녕	둔지산면 수출리(신둔면 남정1리 남정골)	68세	1452~1523
김안국(金安國)	의성	부모곡면 주촌(부발읍 죽당1리 죽골)	42세	1478~1543
		여주목 이포(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강 은(姜 澣)	진주	사북면 호암산 남쪽(백사면 우곡3리)	33세	1487~1552
엄용순(嚴用順)	영월	사북면 도립리 도리파(백사면 도립1리 도니파)	30대 중반?	미상
오 경(吳 慶)	해주	사북면 장동리(신둔면 장동2리 하남촌)	29세	1490~1558
임내신(任鼎臣)	풍천	사북면 말곡리(백사면 송말1리 송곡)	7세	1512~1588

육괴정에서 교유한 인물들은 표와 같이 여섯 명에 이른다. 1519년<sup>중종 14</sup> 발생한 기묘사화 때에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과 지도자들이 대부분 죽음을 당했지만 때마침 전라도관찰사로 외직에 나가있던 김안국은 큰 화를 면하고 파직당하는 것으로 끝이 났으며, 파직 이듬해인 1520년 이천 주촌에 내려가 작은 정자를 짓고 후진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육괴정을 지은 엄용순 또한 기묘사화로 인해 낙향한 인물이다. 이 육괴정에 함께한 인사들은 시회를 열고 학문을 강론하였으니 이들을 괴정6현이라 불렀다.

4)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이천시지』 2권, 2001.





김안국이 이천 주촌에만 8년 정도 거주하다 1528년에 여주 이포로 옮겼는데, 그가 지은 『모재집』에는 주촌에 있는 동안 주고받은 많은 시와 문장이 실려 있고, 이포에 거주할 때도 이천에 자주 왕래하며 교류하였음이 드러난다. 그는 안일하게 자신의 안락만을 추구하지 않고 향촌의 대소사에 참여하는 성의를 보였다. 또한 농사일을 담당하면서 이삭을 손수 줍고 경작한 곡식들을 저장했다가 보릿고개에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빌려주기도 하였다.

그가 은거생활을 청산하고 벼슬길에 다시 나아간 것은 1537년<sup>중종 32</sup>으로 20여 년만의 일이다. 그는 예조판서·대사헌·병조판서·좌참찬·대제학·판중추부사·세자이사<sup>世子貳師</sup> 등을 역임하였다. 1541년 병조판서로 있을 때 천문·역법·병법 등에 관한 서적의 구입을 상소하고 물이끼와 닳나무를 화합한 태지<sup>苔紙</sup>를 만들어 왕에게 바치고 그 제조를 권장하기도 하였다. 학문을 통해 익힌 성리학적 지치주의<sup>治主義</sup>를 실현시키려 평생 노력했으나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온건과 실용성을 늘 견지했기에 그의 학문적 성과에 대해서는 후세에 비평이 따르기도 했다. 근면 성실한 성품으로 매사 정밀하여 관직에 있을 때 많은 일화를 남겼으니, 특히 과거의 사관 역할을 맡았을 때는 채점이 공정하고 세밀하기로 이름이 높았다. 시문에도 뛰어나 김인후·유희춘

괴정육현이 모여 시회를 논하던 정자 육괴정



등 많은 후학들을 길러 조선시대 성리학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남겼다.

사후 인종 묘정에 배향되고, 이천 설봉서원과 여주 기천서원, 의성 방계서원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 3. 국가에는 충충, 백성에게는 사랑을 실천한 이흥망<sup>5</sup>

이흥망李弘望은 조선 중기 선조와 광해군, 그리고 인조 대에 활동한 문신으로, 국가에는 충충, 백성에게는 선정을 베푼 유교정신에 충실했던 인물이다. 본관은 용인龍仁으로, 이천 입향조 이명효의 손孫 중 좌찬성 이양진의 아들로 백사면 도지리에서 태어났다.<sup>6</sup> 조실부모하였으며, 가난한 어린 시절 학업에 전념하여 급제하기 전 공부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었는데, 특히 잠을 쫓기 위하여 상투를 서까래에 매달고 공부했다는 이야기는 향촌에 미담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흥망이 급제한 것은 1601년선조 34 그의 나이 30세 되던 해로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다. 1605년에는 증광문과에 올라 3인 중 한사람으로 급제하면서 벼슬길에 나아간다. 이후 20여 년 간을 관료로서 봉사하는데 지평·정언·수찬을 거쳐 1622년광해군 4 외직인 함평현감이 되었다. 함평현감으로 부임한 그는 고을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어 임기가 끝나자 함평현 백성들이 쌀 300석을 비변사에 바치면서 그를 다시 현감으로 제수해 달라고 청하였다. 이에 즈음하여 조정에서는 그를 군수로 승진시키려 했으나 굳게 사양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사관이 평하기를 “당시 수령들은 제수하는데 있어 모두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수탈을 일삼았는데, 흥망이 청렴하고 근신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청을 받았으니 백성들의 마음이 또한 감동적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7</sup> 늘 선정을 베풀었기에 이직하여 그곳을 떠날 때에는 그곳의 현민縣民들이 자원하여 송덕비를 세워줄 정도였다. 이흥망은 안변·연안·해주 등을 거쳐 동래부

5) 『이천시지』(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2권 114~115쪽의 내용을 보완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특히 내용을 보완하는데 이인수 저 『이천의 인물』(이천문화원, 2010) 183~189쪽의 내용을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6) 이인수, 『이천의 인물』, 이천문화원, 2010, 184쪽.

7) 이인수, 『이천의 인물』, 이천문화원, 2010, 185~186쪽.



이홍망 묘 전경

사가 되었고 긴 세월 외직으로 나갔다가 1626년<sup>인조 14</sup> 형조참의로 제수되면서 조정으로 들어왔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국왕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했는데 이때 왕을 호종하기도 하였다. 한편 후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고 화약이 성립된 뒤에 후금은 조선에 왕자를 볼모로 요구하였는데, 조선 조정에서는 원창군 이구를 인조의 왕자로 가장하여 신사<sup>信使</sup>로 심양에 보냈으며, 이홍망은 부사로 따라갔다. 이때 후금은 이홍망을 회유하려 국서의 내용을 트집 잡아 협박하고, 혹은 미녀와 술로써 회유하려 하였으나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의연하고 당당한 기개로 오히려 상대를 감동케 했다고 한다. 그는 이와 같은 태도로 임무를 수행했으며 인질로 잡혀있던 조선인 남녀 수백 명을 송환시켰다. 이때 돌아온 포로 가운데 황해도 해주 사람인 김굉인 형제는 훗날 높은 벼슬에 올랐는데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여 죽을 때까지 그의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이후 1636년 조선은 청과 다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바로 병자호란이다. 당시 이천의 집에 머물고 있던 차라 급히 왕을 호종하러 길을 나섰으나 광주 경안<sup>慶安</sup>에 이르자 적군이 길을 막고 있어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다. 청과 조선이 화약을

한 후 이홍망은 탄핵의 대상이 되었다. 그 이유는 바로 왕을 호종하지 않고 피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조는 공이 가난하여 거마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일축하고 오히려 동부승지를 제수하였다.

한편, 공은 일찍이 선대先代 광해군 재위 때 인목대비 폐비 여부로 논의가 분분했을 당시에도 헌납獻納 사간원 정5품 관직에 있으면서도 강직한 성품이었기에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외직에 있을 때, 일곱 고을 수령을 지냈는데, 가는 곳마다 선정을 베풀어 모두 송덕비가 남아 있다.<sup>8</sup> 『이천읍지』에 인물로 이름이 올랐고, 묘는 백사면 모전리에 있다.

이홍망은 조선 유교에서 강조하는 선비의 표상이 아닐까 한다. 그는 청소년 시절 최선을 다해 학문에 전념하였고, 벼슬에 나아가서는 충심으로 임금과 국가에 충성하였으며, 외직에 거하면서는 백성을 사랑하여 송덕비로 추도된 인물이다. 조선 시대 많은 선비들이 정치사건에 연루되어 남을 해치는데 앞장서거나 혹은 자신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그러나 공은 권력이나 높은 벼슬에 큰 욕심이 없었던 듯하다. 자신의 영달을 위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기에 큰 환난에 휩싸이지 않았고 소신所信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 4. 살신보국의 무장 어재연<sup>9</sup>

이천이 낳은 대표적인 근대 인물 어재연魚在淵 장군은 조선 후기 무장으로 본관은 함중咸從이며, 증조할아버지부터 무인의 기질을 타고난 무관가문이었다. 장군의 증조할아버지 어유남은 무과에 급제하여 정헌대부 지중추부사를 지냈으며, 할아버지 어석명도 무과에 급제하여 인동부사를 지냈다. 어재연은 1823년순조 23 어용인魚用仁의 장남으로 이천에서 태어났다. 그의 생가가 올면 산성리에 보존되어 있어 그의 일대기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장군은 1841년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급제

8) 이인수, 『이천의 인물』, 이천문화원, 2010, 183쪽.

9) 『이천시지』(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2권 167~168쪽 ‘어재연’ 편의 내용을 보완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특히 이의 내용을 보완하는데 이인수 저 『이천의 인물』(이천문화원, 2010), 183~189쪽을 참조하였다.



어제연 장군 영정



어제연 장군기 '수자기'

이전에는 산성리 현 고택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생가 주변에 있는 산세가 바로 무과시험을 준비하는데 좋은 환경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생각된다.

벼슬은 대구영장을 거쳐 광양현감·평양중군平壤中軍·풍천부사직 등을 역임하였으며, 1866년고종 3에는 공충도公忠道, 충청도병마절도사가 되었다. 이후 두 차례의 외환에 참여하였는데, 하나는 1866년 병인양요이고 또 하나는 1871년 신미양요이다. 한국의 근대사에서 제국주의 외세의 침략으로 대표되는 두 사건은 모두 강화도를 중심으로 발발하였다. 우선 병인양요는 프랑스의 내침을 막아낸 것으로 유명한데, 프랑스 로즈함대가 조선과의 통상을 요구하며 침략해온 사건이다. 당시 프랑스는 통상요구뿐 아니라 1866년 병인박해 사건 때 프랑스 신부가 살해된 사실에 대한 보복을 조선침략의 또 다른 명분으로 삼고 있었다. 당시 집권자였던 흥선대원군은 “서양 오랑캐와 화친하는 것은 곧 나라를 파는 것과 같다”라는 논리로 결사항전을 주문했

고, 이는 병인양요 당시 병사들의 사생결단 저항으로 나타났다. 어재연도 우선봉(右先鋒)으로 병사를 이끌고 광성보(廣城堡)를 수비하였다.

이후 장군은 함경도 회령부사로 전직하여 북쪽지방에 자주 출몰하는 비적들을 소탕하는 등 큰 전과를 올렸는데, 비적 소탕으로 국경지역에 있는 회령지방의 개시(開市)와 경원지방의 개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다고 한다.

병인양요 발생 5년 후인 1871년 이번에는 미국의 로저스제독이 지휘하는 아시아함대가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바로 신미양요 사건이다. 사실 그 전인 1866년에 미국함대 제너럴셔먼호가 통상을 목적으로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다 평양 군민들의 화공을 받아 함대가 불타고 침몰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트집삼아 1871년 강화도에 침범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비록 많은 병사가 전사하는 등 피해는 컸지만 강화도 수비병은 사력을 다하여 미 해병대를 막아내었다. 당시 미 해병대는 로저스의 지휘 하에 강화도 광성보에 접근하였고, 그곳을 지키던 수비대장은 강화도 진무중군 어재연이었다. 어재연 장군은 동생 어재순과 600여 명의 군사로 항전하였는데, 실로 처절한 싸움이 전개되었다. 수자기(帥字旗, 장군기를 게양하고 최후의 일인까지 결사항전 하였으나 화력의 열세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군은 전원이 전사하였다고 하는데,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투혼을 발휘하던 그 모습이 미 해병대 전사에 기록되어 있다. 어재연은 물론 그의 동생 어재순도 이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어재연 장군의 충성심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두 전투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특히 이 중에서도 신미양요에서의 그의 모습은 애국의 표상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는 군사를 총지휘하는 사령관임에도 불구하고 살신애국함으로써 병사들의 귀감이 되었다. 전장에서의 그의 죽음이 이를 말해준다. 이 전투가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다음과 같은 미국 측 기록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10)</sup>

조선군은 근대적인 총기를 한 자루도 보유하지 못한 채 노후한 전근대적 무기를 가지고서 근대적인 화기로 무장한 미군에 대항하여 용감하게 싸웠다. 조선군은 그들의 진지를 사수하기 위하여 용맹스럽게 싸우다가 모두 전사하였다. 아마도 우리는

10) 송라문화연구원, 「1871년 이천인 어재연 장군의 활약」, 『이천문화』 7, 2008, 85쪽.





중요민속자료 제127  
호 어재연 장군 생가



어재연 장군과 동생 어재순을  
기리는 쌍충문

가족과 국가를 위하여 그토록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은 국민을 다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사실상 조선군의 패배임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더 이상 진격하지 않고 퇴각하였다. 흥선대원군은 이 신미양요를 자신의 대외정책을 강화하는데 이용하였다. 전국에 척화비를 세워 서양과의 통상은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로 간주하며 백성들에게 서양세력을 경계할 것을 지시하였다.

어재연 장군은 이천이 낳은 무장으로서 조선 말 서구의 침략 등 어려운 시기에

조국을 지켜낸 살신보국(殺身輔國)의 표상이다. 조정에서도 장군의 충성심과 기개를 높이 사 자헌대부 병조판서 겸 지의금부 삼군부 훈련원사를 수여하고 시호를 충장(忠壯)이라 하였으며 정문을 내려 치하하였다. 동생 어재순에게 역시 통정대부 이조참의를 증수하고 정문의 은전을 내렸는데, 이에 따라 충장사 입구에 세워진 정문을 쌍충문이라 불렀다.

어재연 장군이 태어나고 자란 생가는 1984년 1월 중요민속자료 제127호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 3월 현재 후손 어용선이 소유 및 관리하고 있다. 생가는 19세기 초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마을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뒤쪽으로 규모가 큰 소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다. 건물은 안채, 사랑채, 광채 모두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건물의 질도 우수한편이다. 광채는 20세기 초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사랑채도 이때 개축한 것으로 보인다. 집 앞에 사방으로 개방된 바깥마당이 있고, ‘-’ 자형 사랑채가 바깥마당과 접해 있으며, 지붕의 형태는 우진각형이다.

한편, 강화도 불온면 덕성리에는 당시에 전사한 장군과 장병들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표충비가 세워져 있으며, 1973년에 생가 아래 우측에 충장사를 세워 제향하고 있다.

## 5. 초지일관 지조를 지킨 의사 구연영<sup>11</sup>

구연영(具然英)은 민족운동가이며 종교인이다. 1895년 을미의병 때 이천의병을 이끌었고, 비폭력 구국운동으로 방향을 바꾸면서부터는 애국계몽운동가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순국하였다.

일제는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등 노골적인 조선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자 그해 11월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강탈하였다. 이어 1907년 정미7조약을 강요하여 직접 중앙관직을 차지하는 등 대한제국의 숨통을 조여 오다 끝내 1910년에 병합조약을

11) 김동욱, 『순국열사 순교자 구연영 전도사』(1989)의 내용을 많이 참조했음을 밝힌다.

강요하였다.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던 이 시기에 침략행위에 맞서 우리 민족 또한 온 힘을 다해 항거하였다. 일제침략기 민족운동은 두 갈래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의병운동이며 하나는 애국·계몽운동이었다. 의병운동은 일제의 침략에 무력저항의 방식을 택하여 총격전을 벌이며 나라를 지키고자 한 운동이고, 애국계몽운동은 국민들의 실력을 키워 나라를 지키자는 보다 온건한 방법의 민족운동이었다.

이러한 항일민족운동은 서울을 구심점으로 하여 움직이곤 했으나 더러는 지방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였는데, 이천지역도 많은 애국지사들이 이 흐름에 동참하였기에 지역의 자존심을 지켰다.

구연영 의사의 이천에서의 활동은 1895년 일제에 의한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단발령에 항거해 일어난 을미의병 발발 때부터이다. 이 시기 구연영은 김하락 등 몇 명의 동지와 함께 이천에서 의병들을 규합하였다. 이때 화포군 1,000여 명이 모인 이천수창의소利川首倡義所를 결성하고 중군장中軍將이 된다. 서울에서 가까운 곳인 이천에서 의병의 불길이 오르자 불안을 느낀 일본군 수비대는 100명의 병력을 급파하여 이천의병을 진압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이천의병은 일본군이 넘어오는 광현고개에서 복병계로 일본군을 공격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래서 일본군수비대와와의 첫 전투는 1896년 1월 넓고개[廣峴]에서 벌어지게 된다. 이 전투에서 의병이 대승을 거두었고, 패주하는 적으로부터 무기와 군량을 빼앗아 이천으로 당당히 개선하였다. 같은 해 2월 13일 일본군 수비대의 반격이 시작되었는데 4개 대대로 나누어 오던 적과 이현梨峴에서 격전을 벌였다. 그러나 당시는 엄동설한인데다가 때마침 바람을 마주하고 싸우는 형세이다 보니 아군이 패배하였고, 장졸들은 모두 흩어졌다.<sup>12</sup> 구연영 중군장도 여주로 피신하였지만 곧바로 동지들과 함께 다시 군사를 모으고 박주영을 대장으로 하는 이천수창의소를 재정비하였다. 이때 모여든 장졸들이 1,600명이 넘었다고 한다. 이 대병력으로 우선 광주 남한산성을 점령하여 본거지로 삼았다. 남한산성에 진을 친 이천의진은 일본군 수비대와 관군 연합군의 1차 공격을 최선을 다해 막아내고 퇴진시켰다. 그러나 이천의진 지도자 일부가 관군의 회유에 변심하여 병사

12) 이현을 점령한 일군은 한동네를 모두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김동욱, 『순국열사 순교자 구연영 전도사』, 1989, 55쪽.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의연했던 구연영 의사와  
순국기념비



들이 쉬고 있는 한밤중에 남한산성 문을 열어 주었고, 몰려든 관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결국 패전하여 흩어져 도주하고 만다. 구연영은 이번에도 동지들과 함께 의병들을 다시 수습하고 김하락을 대장으로 추대하였으며, 김하락의 고향인 안동으로 부대를 옮기기로 한다. 이때 구연영도 함께 떠났지만 이동 도중 김하락 대장과의 의견 충돌로 인하여 30여 명의 이천 출신 의병들과 다시 이천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구연영 의사의 애국활동에 있어서 무력에 의존한 활동은 이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때부터 구연영 의사의 활동은 비폭력 운동으로 바뀐다. 그는 기독교로 개종하여 1899년 마장면에 있는 덕들(德坪)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이천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을 다니며 전도에 힘쓰고 아울러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1904년 전도사가 된 구연영은 1905년에 이천지역의 책임자로 부임하였다. 그러나 그가 기독교인이 되었어도 기울어가는 나라를 외면할 수는 없었으며 어떻게든지 조국을 구해야 한다는 신념은 버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기독교를 발판으로 비폭력 구국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국민 정신계몽을 통한 구국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로 신빙·망望·애愛를 강령으로 하는 구국회(救國會)라는 비밀조직을 결성하여 활동하였는데, 회원분포가 이천은 물론 여주·안성 등지까지 퍼져 있었다.

구국회 회원들 대부분은 의병시절부터 구연영과 함께 분투했던 동지들이었다. 한편, 1905년 11월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은 1907년에 이르러 고종을 퇴위시키고 정미7조약을 강요하여 직접 대한제국 고위관직을 차지

하였고, 이어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였다. 을사조약 체결 당시에도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년<sup>1895</sup> 때처럼 의병이 발발했는데, 1907년 고종이 퇴위되고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의 불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게 타올랐다. 해산된 군인들이 직접 의병에 합류하였기에 더욱 그러하였다.

정미조약이 체결되고 군대해산으로 의병활동이 확산되어가던 이때 이천·여주 지역도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의병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었다. 구연영의 구국회도 이천과 인근 지역은 물론 강원지역까지 순회하면서 군중집회를 열어 민중을 계몽하고 일제와 일제의 앞잡이 일진회를 규탄하였으며, 정미7조약의 철회를 촉구하였다. 국민들에게 단결을 호소했으며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시장의 철시를 주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구연영의 이러한 활동이 일진회와 일제에 달가울 리 없었다. “경성京城 동편 10여 군郡에는 구연영만 없으면 기독교도 없어질 것이요, 배일자排日者-필자주도 근절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모은 일진회원들이 구연영을 일본군 수비대에 밀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일진회의 밀고로 일본군 수비대가 출동했음을 안 구국회에서는 구연영에게 피신을 권유하였으나 그는 태연히 있다가 아들 구정서와 함께 체포되어 이천경찰서당시 일본군 수비대에 수감되었고 심한 취조를 받았다. 일본군은 구연영 부자를 나란히 포박해 놓고 동지들을 대라고 모진 고문을 자행하였다. 그러나 구연영은 “무슨 동지들을 대라고 한단 말이나? 일진회 회원을 뺀 모든 백성이 나의 동지다”라고 태연한 자세로 저들을 질책하였다. 구연영 부자가 혹독한 악행에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자 저들은 결국 이천 읍내 시장터에서 두 부자를 총살하였다.

구연영 의사는 이천에서 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일생 중요한 시기를 이천에서 보냈으며, 조국을 구하기 위한 의병활동으로 그리고 일제의 침략상을 알리는 민중계몽 활동에 헌신하였다. 의병활동을 이끌면서 구국활동에 참여한 이래 애국계몽운동에 앞장서다 결국 일제의 총칼에 희생될 때까지 그의 의義는 일관성 있게 나타났으며 모진 고문에도 지조를 굽히지 않은 우리 고장의 의인이었다.



## 6. 제2의 안중근을 희망한 독립투사 이수홍<sup>13</sup>

이천의 대표적인 항일독립투사 이수홍 초상화



이천이 낳은 독립투사 이수홍李壽興 의사는 본관이 연안延安이며, 이천읍 창전리 동촌에서 1905년에 출생하였다. 그의 출생 시기는 바로 일제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해오던 시기로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을사늑약이 체결되던 해였다.

이수홍의 학력은 매우 짧아서 11세가 되던 1915년에 일제가 운영하던 이천공립보통학교현 이천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약 2년간 다니다가 자퇴한 것이 전부였다. 이후 그는 친아버지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 사춘기 시절 가정

사로 인한 어려움도 겪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14세 되던 1919년 부친이 서울로 이사를 하였고 부모가 이혼 하는 등 가정형편이 순탄치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수홍은 승려가 될 결심을 하고 출가하여 2년여 동안 수도 생활을 하였다. 이때 몸담았던 사찰이 백사면 원적산에 있는 영원암이다. 부친의 간청으로 하산하였으나 마음을 잡지 못하고 한강에 뛰어들어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였다.

이수홍의 독립운동은 그가 19세 되던 1923년 만주간도로 망명하여 당시 김좌진 장군이 운영하던 신명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이다. 이후 그의 일생은 민족을 위한 헌신으로 일관된다. 그해 8월경에는 만주지역의 통합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통의부에 가입하여 당시 통의부 총장이었던 채상덕의 지도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직할 부대인 육군 주만참의부에 가담하여 특무정사로 활약하기도 하였다.

그의 애국활동은 국내로 잠입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1926년 5월 국내에 잠입한

13) 『이천시지』(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2권 220~222쪽 '이수홍' 편의 내용을 축약 보완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특히 이의 내용을 보완하는데 이인수 저 『이천의 인물』(이천문화원, 2010) 183~189쪽에 실린 '이수홍' 내용을 많이 수용하였음을 밝힌다.



2015년 2월의 독립운동가  
이수홍 묘(국립현충원)



2년간 다녔던 이천초등학교  
앞에 세운 이수홍 동상

이수홍 의사는 군자금 확보를 위하여 고군분투하는데, 우선 찾아간 곳이 황해도 평산에 사는 김상렬·함성호였다. 이들을 만나 군자금을 요구하였으나 성과가 없었다. 그해 7월 10일 서울 동소문 혜화문을 달리 이르던 말 과출소를 습격하여 일경 덕영승차에게 중상을 입혔다. 이후 수원으로 피신하였다가 같은 해 9월 7일에 고향 친구였던 유택수와 함께 안성의 은행을 털어 군자금을 마련기로 합의하고 안성에 도착하였으나 마침 일요일이라 거사가 불가하였다. 이에 안성의 부호 박승육의 집을 찾아가 장남인 박태병에게 군자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를 사살하고 60원을 강탈한

후 이천으로 피신하였다.

9월 25일 여주군 흥천면 외사리에 거주하는 이민응을 찾아가 군자금을 요청하였으나 역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0월 20일에는 백사면에 위치하고 있던 식산회사를 습격하려 하였으나 현방 경찰주재소가 있음을 보고 먼저 주재소를 습격한 후 백사면사무소를 습격하여 면서기 송천의를 사살하고 이후 수원으로 몸을 피해 은신하였다. 한편, 유택수는 10월 27일 서울 수은동의 대성호 전당포를 습격하여 군자금을 마련코자 하였으나 전당포 주인 전기영을 사살하였을 뿐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때 부친이 별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수원에 내려가 장례를 치르고 이천으로 갔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당시 일제는 이수홍 검거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천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4대 사건의 주인공인 이수홍 의사를 체포하려 혈안이 되었는데, 무려 무장경찰 300여 명을 동원하였다고 한다. 이수홍의 신장이 매우 작다는 정보를 입수한 일제는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남자를 수색하였다. 그러던 중 현상금을 노린 친척의 밀고로 11월 6일 다른 친척의 집에서 체포되었다.

이수홍은 3년에 걸친 긴 취조를 받고 1928년 5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죄명은 치안유지법 위반, 국체변혁죄, 총포화약취체령 위반죄 등이었다. 7월 10일 형이 선고되었는데 유택수와 함께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는 재판 중에도 “안중근 선생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을 본받고 싶었다.” “내가 조선에 들어온 것은 대관을 암살해서 국체를 변혁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당당히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형언도를 받고도 항소하지 않았는데 일제강점기 사형선고 후 항소하지 않은 사례는 이수홍 의사를 비롯하여 강우규와 허위 등이었다고 한다.

결국 이수홍은 1929년 2월 27일 악명 높은 서대문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순국하였다. 김구와 함께 중국에서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독립운동가이자 해방 후 정치에 몸담았던 삼균주의자三均主義者 조소앙은 『이수홍·유택수전』을 지어 민족을 위해 헌신한 그의 공로를 기리었는데, 특히 이수홍의 의거를 ‘국내 4개월 대전’이라 칭송하였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고, 이천시 창전동 이천초등학교 앞에 주먹을 불끈 쥔 그의 동상이 우뚝 세워져 있다.

## 7. 이천이 낳은 민족지도자 류달영

류달영柳達永 박사는 1911년 5월 이천시 대월면에서 출생해 모가면과 설성면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으며, 2004년 10월 서거할 때까지 이 땅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우리 지역의 큰 별이다. 1933년 서울 양정고등보통학교 졸업하고 1936년 수원고등농림학교 서울대학교 농대 전신 농학과를 졸업한 류달영은 일제강점기 개성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 교사로 부임한 이래 서거하는 날까지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각자의 길을 걸었다. 특히 이천지역과 관련해 서회 동상 건립을 비롯하여 서회 업적 선양에 앞장섰으며, 그가 개량한 무궁화를 기증하여 설봉공원에 무궁화동산을 만들기도 하였다.

1930년대에 발표된 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실제 주인공 최용신崔容信과 함께 농촌계몽운동을 벌였고, 최용신이 사망한 뒤 『농촌계몽의 선구 최용신의 소전』을 집필하였다. 민족말살 정책이 기승을 부리던 일제 말 1942년 성서조선사건으로 김교신·함석헌·송두용 등과 투옥되는 등 조국의 독립을 희망하는 애국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해방 후 서울대학교 농대 교수로 취임하였으며, 6·25전쟁 중이던 1951년에는 피란지 대구에서 『새 역사를 위하여』를 저술하였다. 이 책은 26쇄를 인쇄할 정도로 많이 읽혔으며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한다.

1956년에는 교환교수로 미국 미네소타대학과 코넬대학에서 연구하였으며, 귀국 후에는 1961년 재건국민운동본부장 취임 이후 1981년 대한민국 국정자문위원회 위촉, 1985년 한국무궁화연구회 초대회장을 역임하는 등 정치·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펼치며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상허문화재단에서 수여하는 농촌부문 상허대상을 수상하였으며, 1994년 자랑스런 서울시민상을 수상하였고, 제1회 대산농촌문화상, 1999년 금탑산업훈장, 2001년 인제인성대상<sup>14</sup>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러한 그의 삶과 역사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난의 시기에 애국을 실천한 민족의 지도자였다. 그것도 1940년대 일제

14) '인제인성대상'은 인제대학교의 교훈인 정직·성실·근면을 실천해 온 시민을 선발·표창하기 위하여 1999년 인제대학교 개교 20주년을 기념해 백낙환 이사장이 제정한 상이다.

호수돈여자고등보통  
학교 재직 시절 류달영  
(왼쪽)과 김교신



설봉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류달영시비(우)



가 가장 악랄한 민족말살정책을 자행하던 시기에 우리 민족의 양심을 지켰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서조선사건이다. 1927년부터 발행하던 월간지 『성서조선』 발행자이기도 했던 김교신이 1942년 3월 판에 「조와<sup>青蛙</sup>」라는 글을 썼는데, 내용은 겨울에도 생명을 유지하는 개구리를 조선의 운명에 빗댄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일제는 많은 독자들을 잡아들였는데, 이때 류달영도 김교신·함석헌·송두용 등과 함께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취조 중 일본 형사가 “너희들이 가장 악질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의 행위를 심각하게 보았던 것으로도 이 사건의 비중을 헤아릴 수 있다.

둘째, 류달영은 민족교육자였다. 일제강점기인 1936년 수원고등농림학교를 졸업한 후 개성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 교사로 출발하여 해방 후에는 서울대학교 농대 조교수로 부임하였다. 이후 1956년 교환교수로 미국 미네소타대학과 코넬 대학에서 연구하였으며, 귀국 후에는 1961년 재건국민운동본부장, 1967년 대한가족협회장, 1973년 서울대학교교수협의회 회장, 1979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역임하는 등 대부분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안 1951년에는 피란지 대구에서 『새 역사를 위하여』를 저술하였는데, 각계 각층이 관심을 가져 26쇄나 인쇄되었다고 한다. 이 서적은 국내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류달영은 사회 계몽운동가였다. 1983년 한국농축수산물유통연구원을 창설해서 초대원장에 취임하였고, 1984년 주간 『농축수산물유통정보』를 창간 발행하였으며, 1985년 한국무궁화연구회 초대회장, 1990년 『한국농어민신문』 창간, 1991년 성천문화재단 설립하고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이러한 부문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상허문화재단 농촌부문 상허대상, 1994년 자랑스런 서울시민상, 1995년 대산농촌문화재단 제1회 대산농촌문화상, 대한적십자 인도장 금장, 1997년 유한재단 제2회 유일환상 등을 수상하였다.



국립대전현충원 2017년 8월의 현충 인물 선정패 증정식

한국이 낳은 근현대 인물 중 류달영 박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귀감이 된 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는 언제나 국민과 조국을 위한 헌신적 자세로 일하였고, 자신의 명예나 권력, 입신출세를 위한 활동은 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에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을 몸소 실천했고, 해방 이후에는 교육자로서 사회계몽가로서 헌신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어느 한 구석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또 신념과 소신의 소유자로서 군사정권 시기 박정희 정권의 고위직 권유에도 이를 거절하며 소신을 지켰던 바<sup>15</sup> 권력 앞에 맥없이 지조를 굽혔던 여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다.

주지하듯이 류달영은 문장가로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김태길金泰吉 등과 함께 현대 수필의 개척자로 꼽히는데, 수필집 『새 역사를 위하여』·『인생노우트』·『조용한 아침의 나라 무궁화 꽃은 활짝 피고』 등과 자서전 『소중한 만남』·『만남의 인생』을 남겼다.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도 실린 ‘슬픔에 관하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겨울정원에서』는 또한 이에 버금가는 진솔한 수필로 평가되고 있어 그가 평소에 간직하고 있는 사고와 정서를 헤아려 보게 한다.

한편, 국립대전현충원은 2017년 8월의 현충 인물로 류달영 박사를 선정하였다. 그의 삶이 진실했고, 개인의 욕심보다는 사회와 서민대중을 위한 것이었기에 많은 사람들

15) 『한국농어민신문』, 2004. 11. 1.

이 그의 애국적 공로에 지금까지도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천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였으며, 이천을 잊지 않고 활동한 류달영의 큰 뜻은 향후 더욱 조명될 것으로 생각한다.

## 8. 여성교육의 선각자 김동옥

교육자이자 목회자,  
그리고 사회운동가였  
던 김동옥



김동옥金東玉은 1910년 3월 이천군 마장면에서 출생하여 2006년 4월 숙환으로 별세하기까지 이천을 무대로 생활한 이천인이다. 일찍이 일제강점기에는 항일 애국지사로서, 또 해방 후에는 교육자이자 기독교 목사로서,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회운동가로서 그 공로가 지대한 이천의 인물이다.

김동옥은 흔히 양정여중과 여고 설립자이기에 ‘이사장’으로, 또 자신이 설립한 학교의 교장을 역임했기에 ‘교장’으로도 불리는 등 주로 교육자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교육 이외에도 많은 공로와 업적이 있기에 이를 정리해 본다.

김동옥의 족적에서 우선 주목할 것은 교육자로서의 공적일 것이다. 그는 아주 이른 시기인 해방 직후 1946년 10월 교육의 불모지인 이천 땅에 이른바 이천양정여자중학교를 설립하고 초대교장에 취임하였다. 당시 여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아직은 남성위주의 사회였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그 주도권이 남성에게 있던 시대에 그것도 보수성향이 강한 이천 땅에서 교육자로서의 소신과 고뇌의 과정이 없었다면 선택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는 건학 이념에서도 나타난다. 양정여중·고는 “훌륭한 어머니가 훌륭한 자식을 키운다”라는 교육자적인 깊은 인식에 따라 설립되어진 학교이다. 교육을 아버지의 역할로 인식하던 사회적 통념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의 역할이 큰 것으로 헤아린 그 통찰력은 선구자적 자세가 아니면 나오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천양정여자중·고등학교 교정의 김동옥 동상

◁ 부산아동을 위해 김동옥이 설립한 이천옥학원 원생들



▽ 등교하는 양정 학생들을 맞이하는 김동옥 교장





그는 또한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학교 경영관을 갖고 있었다. 이 생각은 그가 죽는 날까지 강조한 것으로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그는 1970~1981년에는 한국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 중앙이사를 비롯하여, 1972~1976년 경기도교육회 부회장, 1976~1978년 대한교육연합회 부회장, 1977년 사단법인 한국사학재단연합회 경기도회장직을 역임하였다. 이는 그가 학교경영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지역사회와 교육계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증거이다. 실제로 이러한 직책들을 수행하면서 교육 전문가로서의 큰 역량을 발휘하였다.

둘째 주목되어야 할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이다. 그는 본래 신앙인이었다. 그래서 1939년 30살 되던 해에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1940년 감리교 중부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음으로써 교육자이면서 동시에 평생을 개신교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었다. 1981년 4월 5일에는 학내 교회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양정교회를 설립하고 원로목사에 취임하였으며 노년기에도 주일 설교를 맡는 등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김동옥 목사’라는 칭호 또한 타계할 때까지 함께하였다.

셋째 주목할 부분은 지역사회 활동이었다. 1943년 7월 무산아동을 위한 옥학원 旭學院을 설립하고 원장에 취임한 이래, 1951년 6·25전쟁 중에는 전쟁미망인과 그 자녀들을 위한 구호사업으로 신애모자원 信愛母子院을 설립하여 원장에 취임하기도 하였다. 이는 그가 약관의 나이부터 사회의 어두운 곳에 관심을 가졌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희생과 봉사를 기꺼이 할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980년에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09G지구 총재에 취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나섰으며, 1985년 4월에는 이천향토사연구회를 설립하고 초대회장에 취임하는 등 지역사회 연구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또한 고향 이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남달라 이천의 지역사 연구에 전념하여 많은 성과를 내기도 하였는데, 많은 관련 저술이 그를 말해 준다. 1988년 2월 『순국열사 순교자 구연영 전도사』를 저술하여 이천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숨 바쳐 일제와 싸운 의병장 구연영 의사를 깊이 성찰하였고 공로를 정리하였다.

한편, 김동옥은 지역사회의 현안문제에도 관심을 보였고 행동으로 옮겼다. 특히 1993~1994년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진 안흥지가 이천경찰서 신청사 부지로 지정되면서 훼손될 위기에 처하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철회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

철회운동에는 지역의 많은 인사들이 참여하였는데, 사람들은 김동옥의 역할을 단연 으뜸으로 꼽는다.

김동옥이 살아온 여정을 지역사회 및 다양한 분야에서 접한 지인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그를 평가하고 있다. 특히 그가 설립한 양정여중·고 학생들로부터도 존경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990년대 말 김○○ 학생은 “아침에 등교하다 보면 이사장님이 운동장 주변을 산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너무 멋있어요!” 라면서 진심으로 존경과 애정을 전하고 있다. 양정여중·고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김○○ 선생님도 최근 필자와 만난 자리에서 ‘학생 중심 교육에 헌신한 분’ 이라 평하면서 교정에서 교사들을 만나면 늘 ‘수고하신다’ ‘감사하다’ 가 입버릇처럼 되었다고 하며, 그를 훌륭한 인품을 지닌 교육자로 평하고 있다.

김동옥의 높은 인덕과 교육분야 및 지역사회에 끼친 공로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었고, 이는 다양한 포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1966년 5월 16일에는 5·16민족상교육부문을 수상한 바 있으며, 1970년 8월 15일에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여 그의 교육자로서의 공로와 사회공헌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늘 사색하고 연구하는 자세도 후세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 또 생전에 저술한 다양한 서책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직접 집필한 저술만도 여러 권에 달하는데, 1979년 고회기념 문집 『정암의 그리메』 출간 이후 1981년 『십청헌선생문집』 국역, 1984년 1월 회고록 『설봉 기슭에서』, 1989년 2월 『순국열사 순교자 구연영 전도사』, 2001년 5월 설교집 『마르지 않는 샘』 등 생전의 탐구열정이 활자된 책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하였던가?! 이 땅을 떠난 지 몇 해 되지 않았기에 김동옥에 대한 평가는 현재진행형이다. 물론 존경과 호평이 대세지만 한편 어두운 면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1970년대 말 이전에 이른바 서울 명지대학교 제2캠퍼스를 계획하던 시기에 이를 반대하여 용인으로 결정하게 한 장본인으로 그를 지목하기도 한다. 참고로 필자는 우연한 기회에 명지대학교 이전에 대한 김동옥 이사장의 견해를 직접 들어본 적이 있는데, 세간의 소문과는 전혀 달랐음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한다.



### 참고문헌

『강도일기』, 『고려사』 「열전 서희」, 『국조방목』, 『국조인물고』, 『모재집』, 『쌍충집』, 『연산군일기』, 『영조실록』, 『이천부읍지』, 『인조실록』, 『중종실록』, 『충장공유사』.

박은식, 『독립운동지혈사』, 1920.

국가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965~1969.

김원모, 『근대한국미교섭사』, 흥성사, 1984.

이천군지편찬위원회, 『이천군지』, 1984.

김동옥, 『순국열사 순교자 구연영전도사』, 1989.

경기도, 『경기인물지』, 1991.

이인수, 『이천의 인맥』, 이천문화원, 1997.

홍순석 · 허홍범 편저, 『이천시읍지』, 이천문화원, 199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인물대사전』, 중앙M&B, 1999.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이천시지』, 2001.

『한국농어민신문』 (2004.11.01).

『설봉신문』 (2006.4.22).

양정60년사편찬위원회, 『양정60년사』, 2006.

『중앙일보』 (2006.4.22).

송라문화연구원, 『이천문화』, 2008.

김동옥 · 신배섭 · 이인수, 『안흥지와 애련정』, 이원회, 2010.

이인수, 『이천의 인물』, 2010.

성천문화재단, 「성천 유달영 전 이사장 추모」, 『진리의 빛이 되어』 특집호, 2005년 1월호.

# 의병활동과 독립운동에 나타난 이천의 혼



이인수 | 이천향토사연구회 회장

## 제3장 의병활동과 독립운동에 나타난 이천의 혼

### 1. 한말 의병항쟁과 이천의병들의 활동

#### 1) 이천 사람들도 잘 모르는 이천의병전적비

서울에서 3번국도를 타고 이천을 향해 오다 보면 광주시와 이천시의 경계를 이루는 넓고개[廣峴]를 넘어오게 된다. 넓고개 동쪽 언덕 위에 자연석을 다듬어서 세운 기념비 하나가 서 있다. 옛날에는 고갯길이 지금보다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도로 옆에 서 있는 기념비도 비교적 눈에 잘 띄는 편이었다. 그런데 도로 확장과 함께 길을 낮추면서 비석은 사람들의 시야를 벗어나 덩그러니 혼자 있는 외로운 존재가 되고 말았다. 비석이 서 있는 장소는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단지 않는 외진 곳이다. 질주하는 수많은 차량들만 발밑을 스쳐 지나갈 뿐, 이천의병들의 역사를 증언하는 기념비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이천 사람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이천의병전적비利川義兵戰蹟碑」라 부르는 이 비석은 1896년 1월, 이천의병들이 넓고개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벌여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 월등한 군사력을 지닌 일본군 수비대를 상대로 이른 새벽부터 벌어진 전투는 하루 종일 치열하게 계속되어 해가 저물도록 끝날 줄 몰랐고, 마침내 일본군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채 도주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광현전투는 한말 의병사에서 우리 의병들이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치른 최초의 대규모 전투였다. 게다가 이천의병들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듭으로써 의병항쟁이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의병이란 국가가 외침을 받아 위급할 때 국민 스스로 일어나서 자원 종군하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외로이 서 있는 이천의  
병전적비



민군民軍을 말한다. 의병항쟁의 역사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비롯되었으며, 특히 임진왜란 때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의병들의 눈부신 활약이 왜적을 물리치고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의병들이 스스로 떨치고 일어나서 외세에 항거했던 전통이, 조선 말에 와서 또 다시 일본이 노골적인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자 나라를 구하기 위한 거국적인 의병항쟁으로 되살아났다.

이천지역은 특히 한말 의병항쟁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고장이다. 한말 의병은 1895년에 일어난 을미사변乙未事變과 단발령斷髮令이 도화선이 되어 이듬해 1월 경기·강원·충청도 내륙지방부터 시작되었다. 이때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의병을 모집하여 항쟁의 기치를 내걸면서 경기의병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이천이었다. 넓고개에서 벌어진 일본군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이천의병들은 2,000명이 넘는 병력으로 남한산성을 점령하고 ‘서울진공계획’을 추진하는 등 크게 기세를 떨쳤으나, 동료의 배신으로 성을 빼앗기면서 큰 타격을 입고 흩어지고 말았다. 이천의병들의 주력 부대는 멀리 경북 의성지방까지 부대를 이동하면서 끝까지 항쟁을 계속했다.

1907년을 전후한 후기 의병항쟁 때도 이천에서는 김봉기金鳳基·임형순任亨淳·



신창현(申昌鉉) 같은 인물들이 의병을 조직하여 항쟁을 전개하였다. 을미의병장 출신인 구연영(具然英)은 기독교 전도사가 되어 이천에서 구국회(救國會)를 조직하고 비폭력 구국운동인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다가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순국했다. 이천의병들의 항쟁이 눈에 띄게 활발하다 보니 일본군의 무참한 보복과 만행으로 민가 수백 호가 불타버린 ‘이천충화사건(利川衝火事件)’이 일어나기도 했다.

## 2) 전기 의병항쟁과 이천수창의소의 활동

1896년(고종 33) 1월부터 그해 여름까지 전국적으로 일어난 의병들의 항쟁은 일본으로 대표되는 외세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난 한말 의병항쟁의 서막이었다. 당시 의병활동에 불을 당긴 것은 명성황후(明成皇后)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과 그해 음력 11월에 발표된 단발령이었다. 일본은 동학농민혁명을 무력으로 진압한 데 이어 청일전쟁에도 승리하면서 조선 침략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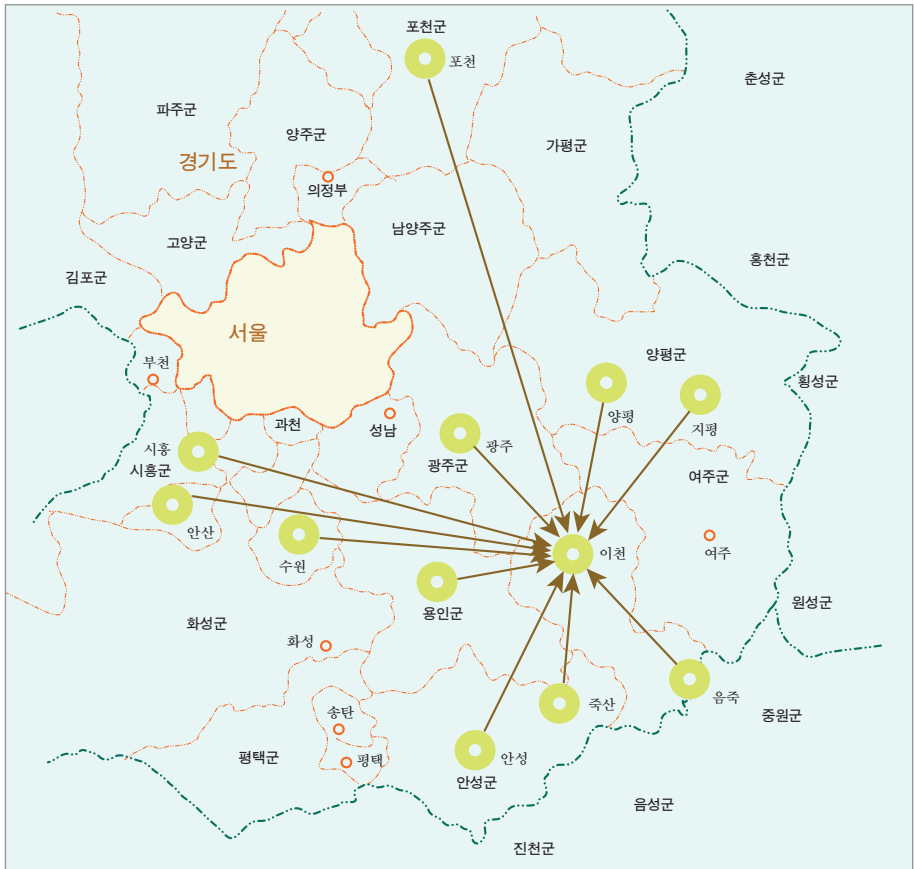
당시 명성황후는 러시아와 손을 잡고 친러 내각을 구성하여 일본의 영향력을 벗어나려고 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은 미우라(三浦梧樓) 공사를 중심으로 눈엣가시인 명성황후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진행하였다. 1895년 음력 8월 20일 새벽, 일본군대가 출동하여 궁궐을 에워싼 가운데 일본 낭인(浪人)들로 이루어진 행동대가 대궐을 습격하여, 황후를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명성황후 시해는 일본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악랄하고 비인도적인 수단이나 방법도 서슴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을미사변 이후 일본의 각본대로 친일정부가 들어서고, 1896년 1월 1일(음력 11월 17일)을 기해 단발령을 비롯한 개혁정책이 발표되었다. 을미사변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는 가운데 격앙된 상태에 있던 조선 민중들의 배일 감정이 단발령을 기폭제로 폭발하면서 거국적인 의병항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단발령에는 단순히 상투를 잘라야 한다는 것 이상으로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상투로 상징되는 수백 년 전통사회의 질서와 가치관의 붕괴를 의미함으로써 유교사회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불러 왔다. 또한 동학농민혁명과 을미사변에 이어 조선 지배를 꿈꾸는 일본제국주의의 검은 속내를 또 다시 보여준 상징적인 사

명성황후를 무참히 살  
해한 일본 낭인들



이천수창의소 봉기도  
(봉기 초기 상황)



건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전기 의병의 봉기는 외세침략에 대응한 국권수호라는 명분과 함께, 전통유교사회에 대한 위기의식이 중요한 원인이었으므로 대부분 재야의 유생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천의병의 중심 인물인 김하락<sup>金河洛</sup>과 그의 동지들 역시 유생 신분이었다.

김하락과 구연영·김태원<sup>金泰元</sup>·신용희<sup>申龍熙</sup>·조성학<sup>趙性學</sup> 등 다섯 명의 동지들은



이천의병진 격전지 넓고개의 옛 모습

단발령이 발표된 이튿날 바로 서울을 떠나 하루 만인 1896년 1월 1일 이천에 도착했다. 이어 곧바로 화포군 도령장<sup>都領將</sup> 방춘식<sup>方春植</sup>을 만나서 포군을 선발한 뒤 의병모집에 착수했다.<sup>1</sup> 구연영은 포군 2개 대와 함께 양근과 지평으로 가고, 조성학은 광주로, 김태원은 안성으로, 신용희는 음죽으로 흩어져서 의병을 모집한 결과 각 지역에서 1,000명이 넘는 의병들이 모여들었다. 의병진의 이름을 이천수창의소<sup>利川首倡義所</sup>라 하고, 창의대장에는 안성 사람인 민승천<sup>閔承天</sup>을 추대하였다. 김하락은 도지휘<sup>都指揮</sup>를 맡고, 구연영은 중군장, 김태원은 선봉장, 신용희는 우군장 등으로 각각 임무를 맡아 대오를 편성하고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1월 17일, 이천수창의소 의병진에게 일본군 수비대 100여 명이 이천을 향해 진격해 오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김하락은 대장에게 건의하여 복병계를 쓰기로 하고 군사를 나누어 넓고개 주변에 매복시킨 다음 적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이튿날 1월 18일 새벽, 드디어 일본군이 넓고개로 접근해 오면서 이천수창의소 의병들의 첫 전투 광현전투가 벌어졌다. 새벽부터 시작된 전투는 하루 종일 치열하게 계속되어 해가 저물도록 그칠 줄 몰랐는데, 김하락은 그의 『진중일기<sup>陣中日記</sup>』에서 당시의 전투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 이인수, 『이천의 의병활동과 독립운동』, 이천문화원, 2009, 34쪽. 김하락과 동지들이 의병 모집을 위해 이천으로 오게 된 이유는 밝혀지지 않지만,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천의 화포군 도령장인 방춘식을 만난 사실로 미루어 그와의 특별한 친분 관계 때문이 아닌가 추정된다.

한참 동안 무찌르다 보니 날은 이미 저물어 초생달은 서쪽 하늘에 떠 있는데 서릿바람은 뿔속을 뚫는 듯하였다. 이윽고 달은 지고 저녁 10시 경이 되자 적은 한 가닥 길을 찾아서 암암리에 도망함으로, 좌우의 우리 군사들은 밤새도록 뒤를 쫓아 광주장항<sup>獐項</sup> 장터에 도착하였는데 바로 초닷새 날 새벽이었다.<sup>2</sup>

이처럼 이천의병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일본군을 상대로 한 첫 전투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도망치는 적들을 광주 노루목 장터까지 추격하는 눈부신 전과를 올렸다. 광현전투의 승리는 다른 지역의 의병활동을 고무시켜 의병봉기가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군은 전력을 보강하여 다시 이천의병진을 공격해 왔다. 2월 12일 새벽, 이현<sup>梨峴</sup>에서 200명의 일본군을 상대로 두 번째 전투가 벌어졌다. 의병들은 용감하게 맞서서 하루 종일 치열하게 싸웠지만, 이 날은 승부를 내지 못하고 양군이 일시 후퇴하였다. 이튿날인 2월 13일 새벽부터 다시 전투가 벌어졌는데, 오전 10시경이 되자 갑자기 서북풍이 크게 불면서 눈보라를 안고 싸워야 하는 의병들이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불리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결국 험악한 날씨 때문에 패전한 의병들은 사망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일본군은 이현으로 들어와 의병을 수색한다고 마을을 몽땅 불태우고 닭과 개까지도 없앴다.

김하락과 동지들은 의진을 재정비하여 대장을 이천 사람인 박주영<sup>朴周永</sup>으로 교체하고, 서울에서 가깝고 지형이 험준한 군사상 요충지인 남한산성으로 근거지를 옮겼다. 광주와 양군의 의병들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의병들이 다수 합류해 오면서 이천수창의소의 군사력은 2,000명으로 늘어났다. 의병들의 기세에 크게 위협을 느낀 일본은 조선 정부에 압력을 가해 관군을 출동시켜 토벌에 나서도록 했다. 3월 5일, 드디어 관군이 성을 공격해 왔지만 의병들은 유리한 지형을 이용해 가볍게 이들을 물리쳤다. 그 후로도 관군의 공격이 수차례 더 있었지만 그때마다 토벌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다.

남한산성의 의병들은 관군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수호하는 한편 다른 의병진들과 힘을 합쳐 ‘서울진공계획’을 추진했다. ‘서울진공계획’은 3단계로 나누어 추진

2) 金河洛, 『陣中日記』, 『독립운동사료집 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586~587쪽.

되었는데, 먼저 1단계는 수원 근방의 의병들이 연합하여 서울의 남쪽 관문인 수원을 점령함으로써 수도권 요충지를 장악한다. 2단계는 남한산성 의병진과 춘천·분원·공주·청주 및 수원의병들이 연합하여 남한산성을 포위한 일본군과 관군을 격퇴한다. 마지막 3단계는 충청·경상도 등 삼남지방의 의병들까지 총동원하여 서울로 진격해서 일본군을 몰아내고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해 있는 고종황제를 환궁시킨다는 작전이었다.<sup>3</sup> 한말 의병운동사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남한산성 의병진의 서울진공계획은, 인근 지역 의병들은 물론 조선팔도 의병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려고 했던 야심찬 계획이었다.

### 3) 남한산성 함락과 그 후의 이천의병들

일본군도 우려할 만큼 위세를 떨쳤던 이천수창의소의 의병활동은 1896년 3월 22일 관군이 남한산성을 점령하면서 허무하게 막을 내린다. 김하락의 『진중일기』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관군과 미리 내통한 대장 박주영과 좌익장 김귀성이 전날인 3월 21일 저녁 소를 잡고 술을 내어 병사들이 취해서 잠들도록 한 후, 이튿날 새벽 몰래 성문을 열고 관군을 불러들인 탓이라고 하였다. 관군 측이 박주영과 김귀성에게 높은 벼슬을 주겠다고 몰래 설득하여 동지들을 배신하도록 했다는 것인데, 김귀성은 배반한 사실이 분명하지만 박주영 대장은 배신자가 아니라는 설도 있다.

의병진에서는 급히 박주영 삼부자를 붙잡아 처형하고 항전에 나섰지만 전세는 이미 기울어 성을 빼앗긴 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선봉장 김태원이 지은 『집의당유고集義堂遺稿』에도 22일 새벽 3시부터 날이 밝을 무렵까지 남한산성을 사수하려는 의병들과 관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전투에서 의병 500여 명이 전사하고 관군도 300명이 전사했다고 하니, 성이 함락되는 과정에서 의병들의 큰 희생이 뒤따랐음을 알 수 있다.<sup>4</sup> 남한산성이 함락되면서 이천수창의소의 의병진은 그동안 힘들게 다져놓은 기반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3) 이인수, 『이천의 의병항쟁과 독립운동』, 이천문화원, 2009, 49~50쪽.

4) 이인수, 『이천의 의병항쟁과 독립운동』, 이천문화원, 2009, 55쪽.



이천수창의소 의병진  
을 이끈 김하락(왼쪽)  
과 그가 쓴 『진중일기』



체포된 의병들



이천으로 몸을 피한 김하락은 구연영·김태원 등의 동지들과 더불어 흩어진 군사들을 수습하여 항쟁을 계속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천과 인근 지역에서는 일본군 측의 압박으로 더 이상 의병활동이 어려운 탓에, 김하락의 고향인 영남지방으로 근거지를 옮기기로 했다. 4월 9일, 이천을 출발한 김하락 일행은 여주·홍원을 거쳐 제천에 도착하여 제천의병진 유인석(柳麟錫) 대장으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그 후 단양을 거쳐 풍기·영천·안동·예천·의성 등지로 부대 이동을 계속해 가는 동안, 의흥관아를 습격하여 탄약을 조달하고 의성·청송지역 의병들과 연합하여 성황현(城隍峴)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다시 경주로 부대를 이동한 김하락 대장은 6월 17일 경주지역 의병들과 힘을 합쳐 경주성을 점령하였다. 6월 21일, 대구감영과 안동진위대에서 출동한 관군의 습격을 받았으나 이를 격퇴하고, 6월 23일 새벽 다시 관군의 공격을 받고 하루 종일 접전을 벌였는데 성중에 탄약이 동이나 버렸다. 어쩔 수 없이 경주성을 버리고 탈출한 김하락 의병진은 영덕으로 부대를 이동하여 영덕관아를 공격하기 위한 작전을 짰다. 7월 14일,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관군 수백 명이 공격해 격전이 벌어졌다. 김하락 대장은 의병들을 독려하며 앞장서서 전투를 지휘하다가 탄환 2발을 가슴에 맞고 말았다.

김하락은 하늘을 보며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우리 500년 예의의 나라가 짐승과도 같은 섬 오랑캐에게 먹힌단 말이냐! 나는 차라리 고기 뱃속에 장사할망정 살아서 왜적 놈들에게 욕을 당하지 않겠다”고 외친 후 강물에 몸을 던져 순국하였다.<sup>5</sup> 영덕전투를 끝으로 약 7개월에 걸쳐 치열하게 전개된 이천수창의소의 의병항쟁도 막을 내렸다.

이천수창의소는 조직과 활동 면에서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단발령이 공포된 후 가장 먼저 기의한 의병이라는 점, 둘째 서울에서 거주하던 유생들이 중심이 된 유일한 의병진이라는 점, 셋째 경기도 이천에서 의병활동을 시작한 후 경북 영덕지방까지 최장거리를 이동하면서 항쟁을 계속했다는 점, 넷째 서울에 근접한 남한산성을 근 1개월 동안이나 점령하고 의병운동 사상 최초로 대규모 서울진공 계획을 추진했다는 점, 다섯째 완전히 패전할 때까지 끝까지 항전하여 끈질긴 저항력을 보여준 점 등이 그것이다.<sup>6</sup> 이천의병들의 강인한 투쟁정신은 영남지역 의병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 ‘이천의병들은 매우 강하다’는 평판을 받게 했다.

5) 金河洛, 「陣中日記」, 『독립운동사료집 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9, 616쪽.

6) 유한철, 「김하락 의진의 의병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 2. 후기 의병항쟁과 이천총화사건

### 1) 후기 의병항쟁의 시작과 이천의병의 활약

1907년 7월에 일어난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황제를 강제로 물러나도록 한 일제는, 이완용의 친일내각과 한일신협약을 체결하여 조선에 대한 사실상의 통치권을 장악했다. 이어서 8월 1일, 경성시위대의 해산을 시작으로 각 지방 주둔 진위대의 강제해산을 단행하니, 조선 병합을 눈앞에 두고 조선 정부를 아무런 실권도 능력도 없는 허수아비로 만들었던 것이다. 고종의 강제 퇴위로 온 국민이 분노하는 가운데 또 다시 전국적인 의병봉기의 기운이 무르익게 되고, 구한국군의 강제해산으로 갈 곳을 잃은 해산군인들이 적극적으로 의병에 가담하면서 거국적인 의병항쟁으로 이어졌다.

후기 의병항쟁은 제일 먼저 해산당한 경성시위대와 원주진위대의 군인들이 봉기한 경기 동남부와, 강원·충청도 내륙지방부터 시작되어 점차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당시 『대한매일신보』를 보면 1907년 8월 중순부터 수개월 동안 이천을 포함한 중부내륙에서는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의병들의 항쟁이 이어지고 있다. 의병들은 월등한 군사력을 지닌 일본군 토벌대를 상대로 기습전을 펴는 한편, 경찰관서와 우편취급소 같은 기관을 습격하여 타격을 주거나 일본 거류민과 친일파들을 공격하기도 했다. 적의 통신시설을 마비시키기 위한 전신주와 전신선로 파괴도 중요한 항쟁수단 중 하나였다.

후기 의병항쟁기에 이천지역을 무대로 항쟁을 벌인 의병장들로는 신둔면 출신 김봉기金鳳基와 백사면 출신 임형순任亨淳이 있다. 그밖에도 시위대 중대장을 지낸 허준許俊과 정봉준鄭鳳俊·이구채李球采·김정한金禎漢·방인관方仁寬 등이 이끄는 의병부대들이 이천과 인근 지역을 무대로 활동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경성시위대 출신 신창현申昌鉉은 이천으로 내려와서 김봉기 부대에 들어가 활동하다가, 김봉기 대장이 체포된 뒤로는 자신의 의병부대를 이끌면서 항쟁을 전개하였다.

김봉기는 신둔면 남정리 사람이다. 1907년 8월, 이천 이근풍李根豐의 집에서 주

창룡朱昌龍·신규희申奎熙·임옥여任玉汝 등 동지들과 의논하여 포군 32명을 모집하고 의병을 일으켰다. 8월 15일, 음죽에서 순사분파소를 습격하고, 8월 21일에는 이천 읍내를 습격하여 일본군 기병들을 물리친 뒤 순사분파소와 우편취급소를 파괴하였다. 김봉기 부대는 새로 가담해 오는 의병들로 점점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천과 광주·용인·죽산 등 인근 지역을 누비며 항쟁을 계속하고 친일파 일진회원을 붙잡아 처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병활동을 계속하다 보니 무기와 군량을 마련하는 일이 문제였다. 군자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김봉기 대장은 양주군에서 만난 한국군 정위 출신 홍병수洪秉壽의 꾀에 빠지고 말았다. 자신의 당숙을 찾아가면 군자금을 줄 것이라는 홍병수의 말을 믿은 김봉기는 나무장수로 변장하고 서울로 잠입했다가 체포되어 이듬해인 1908년 5월 28일 교수형으로 순국했다.

의병봉기에 앞서 김봉기 대장은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파 각료들을 성토하는 격문과 각국 영사들에게 보내는 글을 지어 『대한매일신보』를 통해 발표하려고 했으나 사전에 계획이 탄로나 실패하였다. 그 격문에는 “너희 역적 완용·병준·병무 등은 머리를 숙이고 들으라. 지난 을사년에 5조 약으로 우리 이천만 동포가 노예의 지경으로 몰리게 되었으니 그 큰 죄 하나요, 지금 7조 협약으로 일본을 위해 충성을 다하니 큰 죄 둘이며, 황상을 위협하여 강제로 선위케 하니 큰 죄 셋이요……” 하고 친일 대신들의 죄상을 열거해 가지나 열거해 가면서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sup>7)</sup> 김봉기는 여러 지역을 누비며 활동하면서 한 번도 패전한 적이 없다고 했을 만큼 의병장으로서 자질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의병장 김봉기 추모비



의병장 임형순 순국 추모비

7) 이인수·신배섭·임혜봉, 『이천독립운동사』, 이천문화원, 1996, 482~483쪽.

임형순은 백사면 송말리 사람이다. 1907년 여름 고향인 송말리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이천수창의소를 결성하였다. 임형순 부대는 주로 원적산을 주무대로 하여 인근 지역 의병진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해가며 이천과 광주·양지·양근·여주 등지에서 항쟁을 전개하였다. 이포에서 충주지역으로부터 군량미를 싣고 남한강을 따라 내려오는 적의 보급선을 습격하여 큰 타격을 주기도 했다. 그 후 이천수창의소의 의병들은 계속되는 일본군의 토벌전에 밀려 쫓기게 되고, 대장 임형순은 제천 방면으로 퇴각했다가 이듬해 5월, 안동의 어느 계곡에서 적군과 교전하다 전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2) 일본군의 만행으로 빚어진 이천충화사건

군대해산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벌떼처럼 의병봉기가 일어나자 일본은 즉시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의병진압에 나섰다. 특히 의병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한 지역에는 아예 주둔 병력을 배치하여 월등한 군사력과 통신 및 정보망을 이용한 토벌작전을 폈던 탓에, 시간이 지날수록 의병들은 힘을 잃고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이천지역은 일본군 보병 제51연대가 관할했는데, 제1대대본부를 충주에 두고 제2대대본부는 이천에 두었으며, 여주·광주·장호원과 원주·영월·제천·홍천·춘천 등지에도 각각 2개 소대에서 1개 분대까지 주둔 병력을 배치하였다. 대대본부를 이천에 둔 것은 그만큼 이천과 주변 지역 의병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의병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일본군은 크고 작은 만행들을 저질러 일반 주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일본군은 가는 곳마다 닥치는 대로 마을을 불태우고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했으며,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약탈을 자행하였다. 일본군대가 지나간 마을은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버리기 일쑤였고, 하루아침에 집과 재산과 가족을 잃어버린 난민들이 정처 없이 떠돌거나 줄지어 피난길을 떠나야만 했다. ‘이천충화사건利川衝火事件’은 이천지역 의병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1907년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 사이에 일어났다.

당시 이천군수가 일본군의 의병 토벌로 인한 피해사항을 조사하여 관찰사에게





맥켄지 기자가 촬영한  
의병들(『조선의 비극』)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읍내면을 비롯한 관내 5개 면에서 모두 229호의 집들이 일본군의 방화로 불탄 것으로 나와 있다.<sup>8)</sup> 그중에서도 피해가 심했던 지역은 신둔면 고척리<sup>24호</sup>와 광현<sup>45호</sup>, 남정동<sup>32호</sup>, 절음리<sup>34호</sup>, 현 사음동, 부발면 산촌리<sup>30호</sup> 등이다. 신둔면 고척리와 남정리의 경우는 각각 의병장 김필수<sup>金弼洙</sup>와 김봉기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본보기로 마을을 통째로 불태워 버렸다고 했다. 의병들을 숨겨 주었다거나 먹을 것을 주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한 경우는 그래도 나은 편이었다. 의병들이 마을 근처에 있는 전신주를 파괴하고 사라졌는데 이를 말리지 않았다고 해서, 또는 의병의 소굴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불을 질러 마을을 잿더미로 만든 경우도 적지 않았다. 충화사건 중에서도 가장 황당한 일이 부발면 복하마을<sup>신하리</sup>에서 일어났다. 때는 여름이 물러가고 논에 벼가 황금빛으로 익어갈 무렵이었다. 마을 아이들이 들판에서 새떼를 쫓기 위해 파대<sup>破帶</sup><sup>9)</sup>를 쳤는데, 때마침 지나가던 일본군이 파대소리를 총소리로 잘못 알고 몰려와서 온 마을을 불태워 버렸던 것이다. 설봉산 영월암과 마장면 오천리에 있는 친일대신 민영휘<sup>閔泳徽</sup>의 50칸짜리 기와집이 불탄 것도 이 무렵의 일이며, 일본군의 만행으로 사망자 14명과 부상자 2명 등 16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 신둔면 용평<sup>용면리</sup> 사람인 박복성은 조상 묘 벌초

8) 이인수, 『이천의 의병항쟁과 독립운동』, 이천문화원, 2009, 138~139쪽. 1896년 을미의병 때도 이천 관내에서 930호의 민가가 일본군의 방화로 불탔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9) 가을철 논밭에 새를 쫓기 위해 짚이나 삼·말총 따위를 꼬아서 만든 채찍의 일종. 이것을 휘둘러 치면 총소리 비슷한 소리가 난다.

를 하다가 의병으로 오인한 일병에게 피살되었으며, 다른 사람들 역시 대부분 무고하게 희생된 양민들이었다.

의병 토벌지역에서 일본군이 자행한 만행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자료가 있는데, 당시 영국 신문기자로 서울에 체류 중이던 맥켄지 F. A. McKenzie가 쓴 『조선의 비극』이라는 책이다. 영국 데일리메일 기자였던 맥켄지는 의병전쟁의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유일한 백인이며 언론인이었다. 그는 의병항쟁이 어느 곳보다도 격렬했던 이천지역을 거쳐 경기·강원·충청도 내륙지방을 여행하면서, 일본군이 도처에서 저지른 만행들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고, 의병들을 만나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기행문 형식으로 남겼다.

맥켄지는 당시 지방으로부터 들려오는 의병들에 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을 자신이 직접 확인해 보려고 했다. 지방 여행을 하려면 통감부의 승인이 필요했는데, 일 본인 관리는 생명이 위험하다는 핑계로 맥켄지의 여행을 허락하지 않았다. 맥켄지는 감시의 눈을 피해 몰래 떠나기로 작정하고 조선인 안내자를 구해 무작정 길을 나섰다.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대답을 들려주었다. 그것은 이천으로 가보라는 것이었다. 이천을 향해 길을 재촉한 맥켄지 일행은 드디어 모든 것들이 잿더미로 변해 버린 한 마을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곳은 70~80호 정도의 꽤 큰 마을이었는데 한 채의 집, 한 쪽의 벽조차도 남아 있지 않을 만큼 철저히 파괴되어 있었다. 그 후 일행이 가는 곳마다 불타고 부서진 마을들이 널려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런 광경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정도였다고 한다.<sup>10)</sup>

길을 가는 동안 맥켄지는 주민들의 입을 통해 그동안 일본군이 저지른 끔찍한 만행들을 귀가 아프도록 들을 수 있었다. 일행은 마침내 이천 읍내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사람들이 모두 떠나서 유령처럼 변해버린 텅 빈 거리였다. 겨우 주민 한 사람을 만나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먼 하늘 저 쪽에 보이는 별거숭이산을 가리키며 모두 일본군을 피해 산속에 숨었노라고 하는 것이었다. 충주·제천·원주를 거쳐 양근으로 간 그는 마침내 의병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맥켄지가 본 의병들은 하나같이 다 떨어진 남루한 옷차림에 빈약하기 짝

10) F. A. 맥켄지, 『朝鮮의 悲劇』, 을유문화사, 1984, 161~164쪽.

이 없는 구식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14~16세의 어린 소년들도 있었다. 초라하기만 한 이들이 막강한 일본 정규군 1개 사단과 맞서서 목숨을 건 항쟁을 벌이고 있는 조선의 의병들이었던 것이다. 한 젊은 의병 지휘관이 맥켄지에게 들려준 다음의 말은 목숨을 걸고 구국항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당시 의병들의 절박한 심정을 잘 대변해 주는 듯하다.

우리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로 살기보다는 자유스러운 인간으로 죽는 편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 3) 구연영의 애국계몽운동

2014년 2월 24일, 서울 효창공원에 있는 백범기념관에서는 구연영 의사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강연회가 열렸다. 국가보훈처는 1992년부터 매월 한 사람씩 이 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여 추모 행사와 강연회 등 기념사업을 열고 있는데, 구연영<sup>具然英</sup>이 2014년 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었던 것이다. 구연영은 1896년 1월에 일어난 이천수창의소 의병활동의 중심인물 중 한사람이다. 이천의병진의 중군장으로 늘 앞장서서 항쟁을 이끌었던 그는 의병생활을 중도에서 그만둔 뒤 기독교로 개종하여 감리교 전도사가 되었으며, 아들 구정서<sup>具禎書</sup> 전도사와 함께 이천을 비롯한 경기 동남부지역을 무대로 맹렬한 선교활동과 함께 비폭력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구연영의 활동을 눈엣가시처럼 여긴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부자가 함께 총살형으로 순국하였다.

일본의 침략이 갈수록 노골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의병들의 무력항쟁과 함께 민족지도자들에 의한 애국계몽운동이었다. 애국계몽운동



2014년 2월의 독립운동가 구연영(출처 : 국가보훈처)



은 국민교육과 계몽을 통해 민족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운동이며, 경제적 자립과 민족문화의 육성을 통해 자주성 확립과 국권수호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했다. 비폭력 구국운동인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한 세력은 전통 유림사회의 인물들보다도 새로운 서구문물을 받아들여 개화사상에 눈뜬 지식인들이 많았으며, 이들이 종교계와 교육계·언론계 등에서 몸을 담고 활동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천의 애국계몽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인 구연영은 고향이 경기도 광주이며 전직 관료였다고 한다. 1896년 1월, 김하락을 비롯한 동지들과 함께 이천으로 내려와 이천수창의소를 결성하고 중군장이 되었다. 넓고개에서 일본군 수비대와 벌린 첫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패주하는 적을 광주 장항장터까지 추격하여 무기와 군량을 노획했다. 그 후 벌어진 이현<sup>梨峴</sup>전투에서도 월등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일본군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지만, 병력의 열세와 심한 눈보라로 인해 패주하였다. 전열을 재정비한 이천의병들은 근거지를 남한산성으로 옮기고 관군을 방어하면서 서울진공계획을 추진하지만, 적의 꾀에 빠진 동료의 배신으로 성을 빼앗기고 말았다. 구연영과 동지들은 흩어진 군사들을 다시 모아 김하락을 대장으로 추대한 다음, 멀리 경상도지방으로 부대를 이동해 가면서 항쟁을 계속했다. 그런데 구연영은 도중에 김하락과 헤어져 수하의 이천의병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

김하락은 『진중일기』속에서 구연영이 의병활동을 중도에서 포기한 이유를 관군의 위세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천수창의소가 결성되면서부터 줄곧 중군장의 임무를 맡아 각종 전투의 최선봉에서 의병들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이다. 수백 명의 전사자를 낸 남한산성 혈전까지 헤쳐 나온 그가 상황이 조금 불리해졌다고 해서 갑자기 겁을 먹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데 구연영의 그 후 행적을 보면 의병항쟁을 중도에서 포기한 이유를 알 수 있다. 그것은 수많은 의병들의 목숨을 던진 희생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의병투쟁에 대한 한계 때문이었고, 그래서 그는 새로운 구국운동의 길을 찾게 되었던 것이다.

1899년 스크랜턴 선교사에 의해 이천지역 최초로 마장면 덕평리 덕들에 감리교회가 세워졌다. 이때 구연영이 덕들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 기독교에 입문하고 나서도 그는 3년 동안이나 망설이던 끝에 세례를 받는데, 일단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



민족운동가 구연영 순국  
기념비 제막식(2007)

는 맹렬한 선교활동과 애국계몽운동을 함께 펴나갔다. 구연영은 1904년에 전도사가 되고 이듬해인 1905년 이천감리교회 책임자로 부임하였다. 이 무렵 **신·망·애**를 강령으로 하는 구국회(救國會)를 비밀리에 조직했다. ‘믿음·사랑·소망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조국과 동포를 사랑하고, 정의로 단결하여 우매한 민중을 일깨우는 일이 조국광복의 기초가 된다’고 했으니, 이것이 구국회의 설립목적이며 이를 실천하는 일이 구연영의 애국계몽운동이었던 것이다. 의병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동지들이 구국회의 중요한 멤버들이었다.

1907년 한일신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구연영의 구국회는 이천과 인근 지역은 물론 충청·강원도지역까지 순회하면서 군중집회를 열었다. 일본과 일진회의 만행을 규탄하고 조약철회를 촉구했으며, 국민들의 단결을 호소했다.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시장철시(市場撤市)를 주도하기도 했다. 마침내 일진회의 밀고로 출동한 일본군에게 아들 구정서와 함께 체포되고 말았다. 일본군은 그에게 모진 고문을 가하면서 동지들의 이름을 대라고 강요했지만, ‘일진회원 외에는 모든 동포가 나의 동지’라고 하면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다가 부자가 함께 이천 읍내 시장터에서 총살형으로 순국하였다. 구연영 부자가 순국하던 날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더니 요란한 뇌성벽력



2·8독립선언의 주역  
인 한국인 유학생들



과 함께 소나기가 퍼부었고, 출동했던 일본군은 이튿날 여주 이포나루에서 강을 건너다가 의병들의 습격을 받아 참패했다고 한다.<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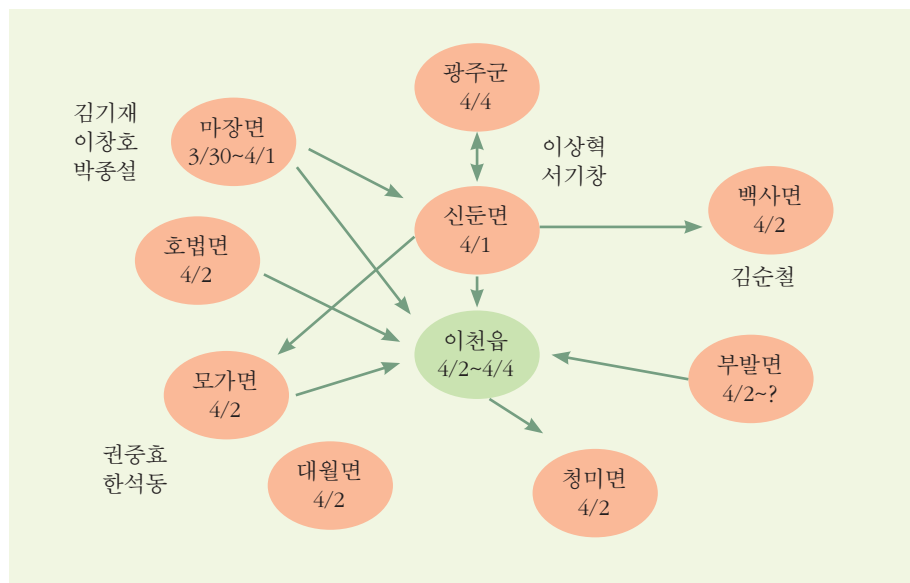
의병 시절에는 항상 최선봉에 앞장서서 적과 싸웠고, 의병을 그만두고 기독교 전도사가 된 뒤에도 구국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목숨을 바친 구연영 의사는 지금 국립대전현충원에 잠들어 있다.

### 3. 일제강점기 이천의 독립운동

#### 1) 이천의 3·1운동

조선총독부는 조선 강제병합과 함께 강력한 군대와 경찰력을 앞세운 무단통치

11) 이천대관편찬위원회, 『이천대관』, 1955, 115쪽.



이천지역 3·1독립만  
세운동 전과 양상



이천지역 3·1독립만  
세운동의 주역들(상단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  
로 서기창, 이상혁, 권  
중효, 이창호, 한석동,  
김기재)

로 조선 민중들을 억압하였다. 이에 따라 의병활동을 비롯한 국내에서의 항쟁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뜻있는 민족운동가들은 중국 대륙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로 근거지를 옮겨 항일투쟁을 계속해 나갔다.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발표된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은, 식민 지배를 받는 조선과 같은 처지의 약소민족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주었다. 그런 가운데 동경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앞장서서 「2·8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은 국내에서도 각계 대표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독립선언을 준비하게 되었다. 마침내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민족대표 33인이 서울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조선의 자주독립을 선포하였다.

민족대표들의 독립선언에 이어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힘차게 울려 퍼진 대한독립만세의 우렁찬 외침은 들불처럼 맹렬하게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같은 날 평양·진남포·의주·원산 등지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3월 2일에는 경기도 개성과 충남 예산, 4일에는 전북 옥구, 8일에는 대구, 10일에는 전남 광주와 강원도 철원 등지로 확대되었다. 그러다가 3월 하순경에는 전국의 거의 모든 지방에서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만세운동의 중심세력은 처음에는 기독교와 천도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단체와 교사나 학생 같은 지식인층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일반 서민들과 특히 다수의 농민층이 적극 참여하여 만세시위를 벌였다.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전국에서 일어난 시위운동의 횟수는 일제가 확인한 기록만도 1,200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83회로 가장 많았고, 황해도<sup>137회</sup>와 경상남도<sup>121회</sup>가 뒤를 잇고 있다. 일제는 헌병과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총칼을 앞세운 강제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2만 2,000명이 넘는 조선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 구금되어 모진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사람만도 1만 8,000여 명에 달했다.<sup>12</sup>

이천지역은 3월 30일 마장면의 만세운동을 시작으로, 하루 이틀 간격을 두고 신둔면·읍내면<sup>이천읍</sup>과 백사면·모가면·대월면·부발면·청미면<sup>장호원</sup> 등지로 확대되었다. 이천지역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들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천도교인을 비롯한 종교계와 학생·농민층이었다.

12) 3·1운동에 관련된 통계자료는 디지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였다.

마장면의 만세운동은 이천지역에서는 가장 빠른 3월 30일 저녁부터 시작되었다. 마장면의 시위를 주도한 인물은 관리 사람인 김기재金起載·이창호李昶鎬·박종설朴鍾高 등이었다. 이들은 오천 장날인 3월 30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집집마다 사발통문을 돌렸다. 그러나 오천분견소 헌병들이 밀정을 통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삼엄한 경계를 펴는 바람에, 낮에는 시위를 하지 못하고 이날 밤 각 마을별로 만세와 봉화시위를 벌였다. 마장면의 시위운동은 2~3일 간을 두고 산발적으로 계속되었는데 천도교인들을 중심으로 약 1,000명의 시위 군중들이 모여 들었다고 하며, 일본헌병대와 충돌로 1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한다. 일본헌병들은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킨 후 밀정을 앞세워 주동 인물들을 모두 체포하고 이천헌병대로 압송했다. 김기재와 이창호·박종설이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였으며, 이성문을 비롯한 33명의 주민들이 매를 맞고 풀려났다.

신둔면에서는 수하리 사람인 서기창徐基彰과 이상혁李商赫이 중심이 되어 3월 31일 준비모임을 갖고, 같은 마을 김영익金永益이 사발통문을 작성해서 집집마다 돌렸다. 이날 준비모임에는 다른 지역 사람인 권중효權重孝·김순철金順哲 등도 참석했다. 이튿날인 4월 1일이 되자 거사장소로 정한 신둔면사무소 앞에는 약 500여 명의 민들이 모여들어, 이상혁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서기창이 만세를 선창함으로써 시위가 시작되었다. 시위행렬이 이천 읍내로 향하면서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급히 출동한 일본헌병대가 총칼로 위협하여 강제로 해산시켰다. 서기창·이상혁·김영익·송면호宋冕浩·이치조李治朝 등이 주동인물로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으며, 징역 1년에서 6개월까지 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였다.

이천 읍내의 만세운동은 이천 장날인 4월 2일에 일어났다. 당시 이천공립보통학교 학생이었던 최종석崔鍾奭·강문형姜文馨·서석운徐錫雲 등이 주도하였다. 이날 시위에는 약 300명의 시위 군중들이 모여들었으며 일본 헌병들과의 충돌로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날 저녁에도 읍내에서 만세시위가 벌어졌는데 이발업을 하는 함규성咸奎成이 주동인물로 체포되어 매를 맞고 풀려났다. 4월 2일 저녁에는 이천 읍내 말고도 마장면 덕평리와 모가면·호법면·대월면·백사면·부발면 등 7개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인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모가면 서경리의 만세운동은 마을 사람인 권중효와 한석동韓石東이 주동인물이

다. 권중효는 3월 31일 신둔면 만세운동을 위한 준비모임에 참석했다가 돌아온 뒤, 매형인 한석동과 의논하여 4월 2일 저녁 마을 주민 150여 명을 이끌고 근처 응봉산에 올라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일본헌병대에 체포된 권중효와 한석동은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였다. 백사면 송말리에서는 임덕재(任惠宰) · 임예재(任禮宰) · 임경순(任競淳) · 임재순(任載淳) 등 4인이 주동이 되어 마을 주민들을 이끌고 송말리 앞산에 올라가 만세를 부른 후 면소재지가 있는 현방리로 향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주동인물 4인은 이천헌병대로 끌려가서 5일 동안이나 심한 고문을 받고 업혀서 나왔다고 한다. 백사면의 경우는 신둔면 만세시위 준비 모임에 참석했던 현방감리교회의 김순철 목사가 각 마을을 돌며 격문을 돌렸다고 하며, 그 후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6개월 간 옥살이를 하였다.

대월면에서는 부필리에 사는 김세환(金世煥)이 중심이 되어 만세시위를 벌인 후 헌병대에 체포되어 매를 맞고 풀려났다. 군량리에서는 김보연(金輔淵)을 비롯한 마을 주민 다수가 뒷산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다. 김보연이 주동 인물로 지목되어 심한 고문을 받고 풀려났으나 고문의 후유증으로 정신이상이 되어 행방불명되었다고 한다. 부발면에서는 주민 100여 명이 부발읍사무소 마당에 모여 만세시위를 벌였다. 청미면(淸美面)에서도 4월 4일 밤 100여 명 주민들이 백족산 정상에 올라가서 봉화를 올리며 만세를 불렀다.

이처럼 이천지역의 만세운동은 3월 30일부터 마장면을 시작으로 4월 4일까지 약 일주일간에 걸쳐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일어났으며, 시위 진압에 나선 일본군과의 충돌로 사망자는 없었지만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일본헌병대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부락민들이 모여 만세를 부르고 나서 그대로 헤어지거나, 밤중에 인근 산에 올라가서 봉화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주동인물 대부분이 헌병대에 끌려가서 폭행을 당하고 옥살이를 하였으며, 다행히 풀려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고문의 후유증 때문에 일찍 사망하거나 두고두고 고통에 시달려야 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 2) ‘국내 4개월대전’ 이라 불린 이수홍의 의열투쟁

6·10만세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난 1926년 7월 10일 저녁, 서울 동소문과





이수홍 의사



이수홍과 유택수가 벌인 권총 사건을 다룬 1926년 11월 17일 『동아일보』 기사 제목

출소에 피청년이 나타나서 보초를 서고 있던 일본인 경관에게 권총을 발사하여 중상을 입힌 후 바람처럼 종적을 감춘 사건이 일어났다. 이어서 안성군에 있는 부호의 집에 청년 두 명이 나타나서 권총을 겨누며 독립군 군자금을 요구한 안성군 사건, 이천군 백사면에 있는 경찰관주재소와 면사무소가 피청년 한 명에게 잇달아 습격당한 이천군 사건, 서울 수은동에 있는 전당포에 피청년이 나타나서 군자금을 요구한 수은동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기내4대사건畿內四大事件”이라고 해서 당시 신문들이 호외까지 발행해 가면서 대서특필하여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이 사건의 주인공이, 당시 22세의 젊은이였던 이천 사람 이수홍李壽興이다.

3·1운동 이후인 1920년대는 상해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만주 일대의 독립군조직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보다 강력한 무력항쟁을 이어나간 시기였다. 을미년 의병항쟁 때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꾸준히 맥을 이어온 항일운동의 기운이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승화되어 나타났던 3·1운동은, 방법에 있어 한 가지 문제점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강력한 힘을 가진 일본을 상대로 평화적인 만세시위만으로는 민족의 염

원인 독립을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민족 자력에 의한 무력항쟁인 독립군의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되고, 투쟁방법도 더욱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

독립군의 항쟁은 김좌진<sup>金佐鎭</sup> 장군의 청산리전투 같은 조직적인 군사활동 외에도, 이수홍 의사의 경우와 같이 무장한 소수의 정예요원을 국내로 잠입시켜, 요인 암살과 군자금 모집, 식민지 통치기관 파괴 등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의열투쟁이 중요한 항쟁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의열투쟁은 안중근<sup>安重根</sup> 의사의 이토오 히로부미<sup>伊藤博文</sup> 암살이 대표적인 본보기가 되어 특히 1920년대에 와서 두드러진 활동으로 나타난다. 1919년 강우규의 사이토<sup>齋藤</sup> 총독 암살미수사건을 시작으로 김익상·김상옥·박열 등의 의열투쟁이 이어지고, 이수홍의 국내 4개월대전이 일어나던 1926년에도 송학선의 김호문 의거와 나석주의 동양척식주식회사 습격사건이 잇달아 일어났다.

이수홍은 1905년 이천읍 창전리에서 유생 이일형<sup>李日螢</sup>의 외동아들로 태어났다. 부친은 일찍이 면암 최익현<sup>崔益鉉</sup> 선생을 따라 의병활동에도 참여했다. 이수홍이 독립투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부친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1915년 11세 때 이천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해서 2학년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부친이 가산을 정리하여 서울 어의동으로 이사를 하여 어의동공립보통학교 2학년에 편입했다. 그러나 1년 뒤 학교를 자퇴하고, 승려가 되려고 백사면 원적산에 있는 영원암<sup>靈源庵</sup>에 들어가 수도 생활을 했다. 그 후 다시 서울에서 일본인이 경영하는 사진통신사에 들어가 점원생활을 했는데, 이때 일본인들이 조선인에 대해 심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을 보고 독립운동에 투신할 것을 결심했다고 한다.

나이 19세가 되던 1923년 봄, 이수홍은 독립운동의 뜻을 품고 만주로 건너갔다. 만주에 도착한 그는 부친의 절친한 친구이며 당시 의군부<sup>義軍府</sup> 총장으로 있던 채상덕<sup>蔡相惠</sup>을 찾아가서 스승으로 섬기며 가르침을 받았다. 채상덕은 이수홍을 청산리대첩으로 유명한 김좌진 장군이 길림성<sup>吉林省</sup> 액목현<sup>額穆縣</sup>에 세운 신명학교에 입학시켜 본격적인 독립군 훈련과정을 배우도록 했다. 1925년 3월, 이수홍은 주만참의부<sup>駐滿參議府</sup><sup>13</sup> 제2중대 특무정사가 되어 본격적인 독립군 생활을 시작한다. 그런데 그가 독립군

13) 주만참의부의 정식 명칭은 大韓民國臨時政府 陸軍駐滿參議府이다. 백광운 등이 상해 임시정부의 승인을 받아 1924년에 설립하였다. 산하에 5개 중대를 두고 압록강에서 사이토 총독이 탄 배를 기습 공격하고 경찰관 주재소 습격·군자금 모집·친일파 습격 등의 활발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고마령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참의부는 산하 5개 중대의 간부들이 모인 군사회의를 이수홍의 부대가 있는 환인현(桓仁縣) 고마령(古馬嶺) 산속에서 열고 있었다. 그런데 밀정을 통해 이 사실을 미리 탐지한 일본군이 기습 공격을 가해왔던 것이다.

급히 응전태세를 갖춘 참의부 대원들은 끝까지 항전했으나 참의장 최석순(崔碩淳) 이하 29명이 전사하고 이수홍을 포함한 3명의 대원만이 겨우 살아남았다. 왼쪽 다리에 총상을 입은 채 겨우 목숨을 건진 이수홍은 스승 채상덕에게로 가서 이 소식을 알렸다. 채상덕은 부하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이수홍의 부상이 낫기를 기다렸다가, 그를 불러놓고 말하기를, ‘앞으로 기회를 엿보아 거사를 감행하되, 안중근 의사를 본받아서 민족의 정기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스승의 장례를 치르고 난 이수홍은 부상으로 쇠약해진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한 해를 보냈다. 스승의 일 년 상이 끝나자 직속상관인 참의부 중대장을 찾아가 스승의 유언을 실천하기 위한 자신의 거사 계획을 설명하고 승낙을 받는다.

1926년 5월 26일, 권총 2정과 실탄 980발을 몸에 지닌 채 만주를 출발한 이수홍은 경비가 삼엄한 압록강을 건너 국내로 들어왔다. 서울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던 그는 7월 6일 군자금 마련을 위해 황해도 평산군에서 부호 함성호(咸聖鎬)의 집을 찾아갔으나 주인이 미리 눈치 채고 도망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7월 10일, 서울에 도착한 이수홍은 밤 10시경 노동자 차림으로 동소문파출소 앞을 지나가다가 파출소 정문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일본인 순경 덕영승차(德永勝次)에게 권총을 발사하여 중상을 입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후일 법정에서 그는 자신이 허리에 찬 권총을 상대방이 눈치 채는 것 같아서 먼저 총을 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바람처럼 나타난 괴청년이 대담하게도 경찰관서를 습격하여 경찰관에게 총격을 가한 이 사건은 장안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일본인 경찰들은 서둘러 비상경계망을 펴고 범인 찾기에 나섰다.

이날 이수홍은 삼각산으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튿날 강을 건너 사흘만



순국선열 이수홍 동상

인 7월 13일 고향 이천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 길로 보통학교 시절 친구인 유남수(柳南秀)를 만나 자신의 신분을 밝힌 다음 두 번째 거사를 준비하였다. 9월 10일, 이수홍은 유남수의 형인 유택수(柳澤秀)와 함께 안성으로 가서 안성 읍내에 있는 호남은행을 습격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았다. 그런데 이미 은행이 문을 닫은 뒤였으므로, 은행 습격을 포기하고 안성의 부호 박승륙(朴承六)의 집을 찾아갔다. 두 사람은 주인의 아들 박태병(朴泰秉)을 만나 자신이 독립군이라는 것을 밝히고 군자금을 요구했으나, 박태병이 화를 내며 거절하므로 일이 누설될 것을 염려하여 권총을 쏘아 그를 숨지게 했다.

동소문사건이 일어난 지 100일째 되는 10월 20일 오전 8시, 이수홍은 또 다시 군자금을 탈취할 목적으로 백사면 현방리에 있는 식산회사를 습격하기 위해 현방리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런데 식산회사 옆에 경찰관주재소가 있어서 일을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주재소부터 먼저 습격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권총을 겨누 이수홍이 주재소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안에 있던 일본인 경관 두 명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이수홍이 그들을 향해 권총을 발사했으나 공교롭게도 두 발이 모두 불발이었다. 이어서 백사면사무소를 습격하여 군자금을 요구하려 했으나 불응하는 면서기 송천의(宋天義)를 사살하고, 원적산으로 들어가서 옷을 바꿔 입은 다음 일단 수원으로 몸을 피했다.

한편 10월 27일, 서울 수은동에 있는 대성호 전당포에 괴청년이 나타나 군자금을 요구하다가 주인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자취를 감춘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사건은 유택수가 이수홍 의사를 도우려는 마음에서 혼자서 감행한 사건이었다. 4개월 동안이나 신출귀몰한 활약으로 동원된 수천 명의 일본경찰들을 혼란에 빠트렸던 이수홍은 현상금을 탐낸 친지 이준성(李俊聖)의 밀고로, 11월 6일 창전동에 있는 친척집에서 긴급 출동한 무장 경찰대에게 포위되어 결국 체포되고 말았다. 재판과정에서도 이수홍은 조금도 굴함이 없는 당당한 태도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그것이 당시 일본을 상대로 전쟁 중인 독립군의 한사람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재판장] 조선에 진입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수홍] 대관(大官)을 암살하고 공청(公廳)을 파괴하는 것이 나의 입국한 목적이다.

[재판장] 어째서 대관을 암살하고 공청을 파괴하려 했는가?

[이수홍] 을사년 이후 20여 년간을 우리 군대는 너희들을 상대로 항명혈전을 아니 한 날이 없다. (중간생략) 이제 우리들은 국내에 깊숙이 들어와서 너희 무리들의 소굴을 도륙하려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 독립군의 직무다. 너희는 지금 한일 양국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가?

[재판장] 그러면 임시정부 만주참의부의 명을 받았는가?

[이수홍] 그렇다. 작전의 모든 계획은 반드시 상부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작전 시 나의 임의대로 하는 것은 나의 전권이다.

[재판장] 네가 말하는 소위 대관이란 누구를 말함인가?

[이수홍] 적 총독 이하 그 밑에서 현재 녹을 먹는 자들은 한·일인 불문하고 다 죽이려는 것이다.<sup>14</sup>

3년에 걸친 재판 끝에 이수홍에게는 사형 언도가 내려져서 1929년 2월 27일, 한창 꽃다운 나이인 25세를 일기로 순국하였다. 민족운동가인 조소앙(趙素昂)은 그의 문집에서 이수홍의 의거를 가리켜 ‘국내 4개월대전’ 이라고 이름하였다. 송상도(宋相燾)의 『기려수필』에서도 “죽음을 무릅쓴 투쟁으로 경천동지하여 적의 간담을 서늘케 했으니, 이준(李準)이 할복한 일이라든지, 안중근이 적 이등을 살해한 일과 마찬가지로 그 이름이 천추에 빛나리라”고 칭송하고 있다. 이수홍의 유해는 동지 유택수와 함께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 잠들어 있다. 1984년 2월 이천 시민들이 뜻을 모아 이천 초등학교 앞 근린공원에 기념 동상을 건립하였다.

### 3) 장호원 권총 청년 이선룡의 활극 이야기

1932년 3월 30일, 사람들이 봄비는 백주 대낮에 동일은행 장호원지점에 권총을 든 청년 한 사람이 나타나, 만주에서 온 독립군이라고 신분을 밝히면서 거금 약 1만 3,000여 원을 빼앗아 바람처럼 자취를 감춘 사건이 일어났다. 설렁탕 한 그릇에 5전, 기와집 한 채 값이 1,000원이던 시절이다. 독립군을 사칭한 괴청년이 거금을 탈취하여 사라지자 일제는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범인 찾기에 혈안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장호원동일은행 습격사건’ 이라고 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이 사건의 주인공

14) 『동아일보』, 1928. 6. 29.



권총 청년 이선룡



이선룡이 벌인 동일은행 장호원지점 습격사건을 다룬 신문기사



이 장호원 출신으로 당시 23세였던 이선룡李先龍이다.

이선룡은 1910년 생으로 가정환경이 불우하여 청미면장호원을 장호원리에 있는 할아버지 이은식李殷植의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장호원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여 5학년을 마치고 17세 때 자퇴했는데, 학교 성적은 그리 우수한 편은 아니지만 재주가 있고 성격이 야무지며 싸움을 잘했다고 한다. 학교를 퇴학한 후 장호원 자동차부에서 잠시 견습생활을 하다가 이복형 이용기李瑤琪를 따라 만주 봉천으로 건너갔다. 만주로 간 이선룡은 정의부正義府에 들어가 활동했으며, 정의부가 신민부新民府·참의회參議府와 합해져 국민부國民府로 개편되자 국민부 소속 통신원으로 일했다. 그

후 국민부 산하 독립군조직인 조선혁명군<sup>朝鮮革命軍</sup>의 일원이 되어 군사훈련을 받았으며, 사령관 양세봉<sup>梁世奉</sup>으로부터 국내로 잠입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라는 밀명을 받고 만주를 떠나 고향인 장호원으로 돌아오게 된다.

고향에서 기회를 엿보며 은행 습격을 준비하던 이선룡은 장호원 장날인 3월 30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대담하게도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시간인 오후 1시 30분경 시내 동일은행 장호원지점에 모습을 나타냈다. 권총을 겨누며 꼼짝 말라고 소리친 이선룡은 지배인을 시켜 거금 1만 2,175원을 지폐로만 골라서 보자기에 싸도록 한 다음, ‘나는 보통 강도가 아니라 만주에 있는 유력단체에서 나온 사람인데 이 돈은 유용한 곳에 쓰도록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태연자약하게 은행문을 나가 종적을 감추었다. 당시 『조선일보』는 통신시설이 미비한 시절인데도 당일로 기사를 장호원으로 보내서 현지 상황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은행을 나온 이선룡은 시가지를 벗어나 청미천을 건넌 다음, 음성군 감곡면 매산 밑에서 곁에 입었던 작업복을 벗어 놓고 청미천 건너에 있는 오갑산으로 들어갔다. 그날 오후 4시경 남한강 중류에 있는 샘재나루에 도착해 10전을 주고 나룻배로 강을 건넌 다음 충주군 소태면 청계산에 들어가 하룻밤을 노숙하였다. 한편 급보를 받은 일본 경찰은 경기도 경찰부 고등과장과 형사과장이 지휘하는 무장경찰대를 장호원으로 급파하여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범인 추격에 나섰다. 괴청년이 잠적한 지역이 경기·충청·강원 삼도의 경계지역인 탓에, 삼도의 경찰병력이 총동원된 물샐 틈 없는 경계망이 펼쳐졌다. 그런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튿날인 3월 31일 오후, 경계 근무 중이던 경찰 간부가 괴청년이 쏜 총탄을 맞고 쓰러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원주군 귀래면 운남리에서 행인을 검문 중이던 원주경찰서 모리<sup>森</sup> 순사부장이 이선룡이 쏜 권총 두 발을 맞고 중상을 입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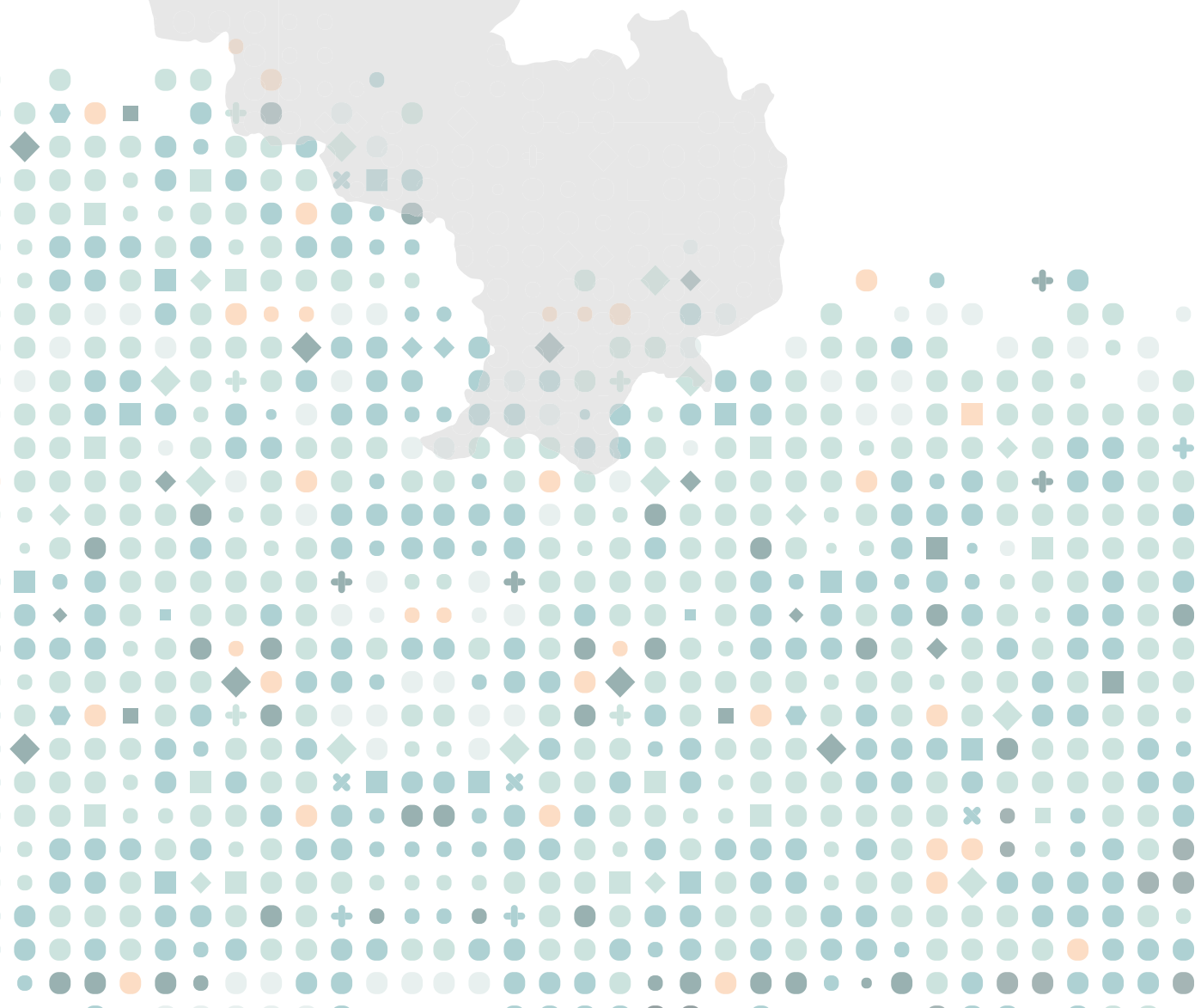
그 후 이선룡은 원주군 동면에 있는 화전민의 집에서 돈을 주고 헌옷을 사서 바꿔 입은 다음, 근처 산속에서 이틀째 밤을 보냈다. 사흘째인 4월 1일 저녁은 충주군 엄정면 어느 민가에서 유숙하고, 4월 2일과 3일도 각각 원주군 백운산과 미륵산에서 노숙을 하면서 경찰대의 추격을 따돌렸다. 이렇게 5일 동안이나 숨바꼭질을 계속하던 이선룡은 끝내 4월 4일 정오 무렵 원주군 문막에 나타났다가 무장경찰대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이날 이선룡은 동정을 살피기 위해 농부차림을 하고 문막에 있는 한

민가에서 신문을 빌려보려고 했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마을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대의 추격을 받게 되었다. 이선룡은 경찰이 쏜 총탄에 왼쪽 다리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40리나 되는 거리를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결국은 힘이 빠져 붙잡히고 말았던 것이다.

당시 신문보도를 보면 그가 체포되기까지 5일 동안 동원된 경찰들이 연인원 6,000명에 달하며, 소요된 비용만도 약 2만 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선룡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막대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였음은 물론, 경비의 손실 또한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수홍 의사의 재판과정에서도 밝혔듯 이선룡 역시 국민부에 소속된 독립군 신분으로,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적진교란과 군자금 모집을 목적으로 활동하였다. 비록 동족의 밀고로 체포되어 군자금 모집은 아깝게 실패하고 말았지만, 수천 명의 경찰병력을 혼란에 빠트리고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으며, 시간과 경비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도록 했으니 적진교란이란 의열투쟁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다. 또 한 가지 당시 온 나라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선룡의 거사가 식민지 통치에 점차 길들여지고 있던 조선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고 독립을 열망하는 한민족의 기개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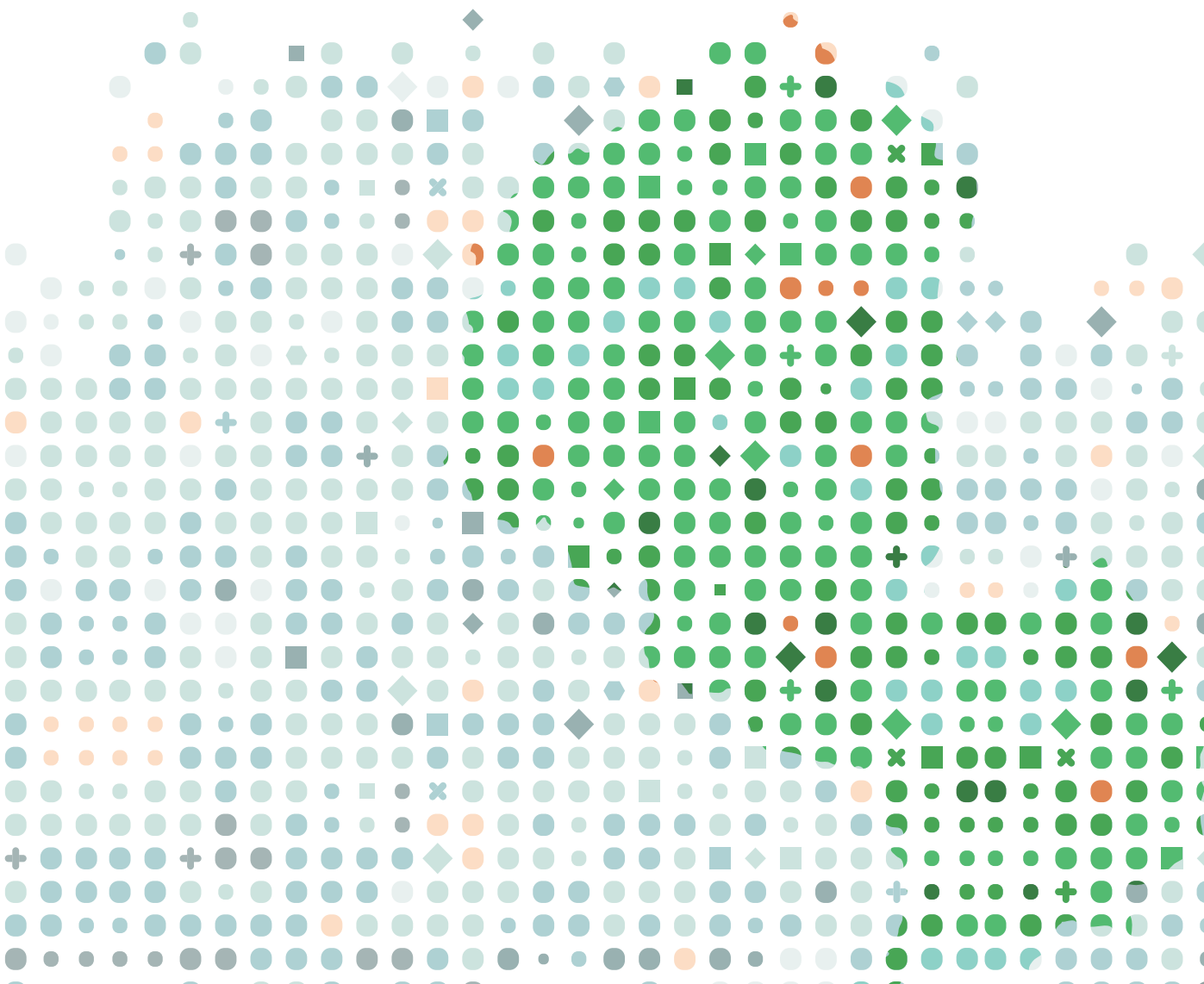
같은 해 5월에 열린 공판에서 이선룡에게는 징역 15년 형이 선고되어 평양감옥에서 옥살이를 하였다. 출감한 뒤 고향인 장호원을 잠시 다녀가면서 만주로 간다는 말을 남겼는데, 그 후 소식이 끊어져서 생사를 알 수 없었다고 한다.

# 길 따라 추억 따라



# 3편

---







01

강은 산을 가르고,  
길은 사람을 잇는다!





최석재 | 여행작가 · 이천지역사문화연구회

## 제1장 강은 산을 가르고, 길은 사람을 잇는다!

수능을 끝내고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 입학 전에 뭘 하면 좋겠냐고 질문을 해 온다. 짧지 않은 시간의 절반 이상을 공부로 바친 아이들은 내심 ‘맘껏 놀아라’ 라든지, ‘배낭여행’ 이라는 스케일 큰 대답을 원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해준다. “뭘 하긴, 당연히 『열하일기』 읽어야지!” 연암의 『열하일기』는 새 출발을 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지니고 있다. 옛 것에서 벗어날 용기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응원, 또한 어떻게 길을 헤쳐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까지 연암은 『열하일기』를 통해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다.

연암은 좀 특이한 인물이다. 우람한 풍채와 괄괄한 성격으로 당대의 박제가나 이덕무 같은 지식인들과 교우하며 지성을 뽐내던 박지원, 그는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런 그도 우울의 심연에 빠져 식음을 전폐할 때가 있었다. 허나 연암은 우울의 늪에서 헤어나와 삶으로 돌아왔고, 이내 조선을 뒤흔든 역작을 남겼다. 상처받은 그의 영혼을 위로해준 것은 무엇이었을까? 다시 붓을 잡아 글을 쓰게 하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한, 우울의 깊은 연못에서 그를 건져낸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를 보듬은 것은 돈과 명예가 아니었다. 권력의 홍진에 묻힌 사람들 역시 그를 위로하지 못했다.

먼저 세 장면을 살펴보자. 첫 번째 장면, 길에서 똥지기를 만난 연암. 남들은 똥지기를 피해 다녔지만 연암은 그와 교우한다. 연암과 친구들은 그 똥지기를 예덕 선생이라 불렀는데 분수대로 즐겁게 사는 모습과 의를 깨끗하게 지키는 모습에서, 학문에서 얻을 수 없던 작은 희열을 느끼게 된다. 두 번째 장면, 조선을 벗어나 만주벌의 넓은 지평선 길을 처음 목도한 연암. 별관을 울음터라 부르며 그동안 눌러오던 감정을 터트리고 만다. 세 번째 장면, 삼종형을 따라 생일을 맞은 청나라 황제에게

알현하러 가는 길. 연암은 말 위에서 잠들기 전 시종에게 특별한 것을 만나면 깨우라고 당부한다. 마침 연암 일행 앞길에 등장한 것은 낙타의 무리. 하인은 연암을 연신 깨웠지만 그냥 지나치고 만다. 역시나 잠에서 깨어나 불 같이 화를 내는 연암. 그는 새로운 것을 만나 무엇이든 채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조선 사회에서는 찾을 수 없던 통지기의 의와 덕, 닭 벼슬보다 못한 기득권을 가지려 다투던 노론·소론·시파·벽파의 진흙구덩이를 벗어나 만났던 만주 벌판, 그리고 조선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시들어가던 그의 허기진 영혼을 위로하지 않았을까? 헤아려보면 위 셋의 공통분모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길은 어떤 마력과 매력이 있기에 심연에 빠져있던 영혼을 보듬을 수 있었던 것일까. 때론 연암을 흥분케 하고 위로해주던 그런 길, 새로운 이야기가 피어나고 지는 길, 옛 이야기 살아 숨 쉬는 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고 싶은 길. 이천에도 있으리라 그런 길이.

## 1. 그냥 좋은 길이 가장 좋은 길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일까?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도 마음 편해지고 행복해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천에는 바라보고만 있어도 행복한, 그냥 좋은 길이 있을까?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은 다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냥 좋은 길’ 두 곳을 소개하려 한다.

### 애련정 돌레길

가끔 사람들은 이천에는 갈 곳이 없다고 말한다. 멀리서 손님이 오면 모시고 둘러볼 곳이 없다 말하기도 하는데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천의 구석구석엔 정다운 이야기꽃 피어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여러 해 전이던가? 학교 선배가 이천을 찾은 적이 있다. 나는 이천에 처음 방문한다는 선배를 위해, 이천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도예촌을 지나 도자박물관으로 이어지는, 도자를 주제로 코스를 짜볼까?’

안흥지와 애련정

‘장호원과 설성, 울면도 근사하겠지만 돌아보기엔 시간이 걸리겠지?’

‘아니면 산수유마을에서 연당을 거쳐 김좌근 고택으로 이어지는, 사화와 풍수지리를 주제로 여행길을 잡아볼까?’

아직 결정 못한 채 이런저런 고민을 하며 터미널에서 선배를 태우고 안흥지를 한 바퀴 돌아나가려는 참이었다. “잠깐만 석재야! 여기가 낫겠다.” 선배의 시선이 안흥지로 향한 순간,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안흥지 둘레길을 걷고 또 걸었다. 걷다 힘들면 애련정에 앉아서 몇 시간이고 얘기를 나눴다. 선배는 얘기를 나누는 동안 열 번도 넘게 안흥지와 애련정을 칭찬했다.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운치 있는 연못과 근사한 정자가 있는 곳은 드물다는 것이다. 서울 사람들 중에서도 63빌딩을 못 가본 사람 많듯이, 이천에 살면서도 안흥지를 걸어보고 애련정에 앉아본 사람들 역시 많지 않다. 차 한 잔 들고 애련정에 앉아본다. 가끔 근처 학교의 아이들이 들르기도 한다. 학생 커플들이 종종 보이는데,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청춘의 풋풋함이 애련정 옆 버드나무 잎보다 더 푸



르게 느껴지는 싱그러운 안흥지 둘레길. 안흥지는 안흥동에 있는 연못이다. 그래서 안흥지다. 애련정은 안흥지의 작은 섬에 지어진 정자다. 안흥지와 애련정의 역사는 깊다.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자연습지였던 이곳을 반듯하게 정비한 사람은 1474년 성종 시절에 이천부사로 부임한 이세보였다. 이세보는 연못을 정비한 뒤 정자를 지었고, 신숙주에게 부탁해서 ‘애련정’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전한다.

이곳 안흥지와 애련정이 행복했던 시절만 있던 것은 아니다. 일본의 고종황제 강제 퇴위와 군대해산에 반발한 의병들이 일제히 저항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은 의병 대병력의 근거지였던 이천을 초토화하며 의병을 몰아냈다. 그리고 이천의 백성들이 의병을 도울 거란 생각에 이천 시내의 민가까지 모두 불태웠는데, 이 환란 때 애련정도 함께 소실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을 역사는 ‘이천충화사건’이라 부른다. 비록 일제에 의해 애련정이 불타 사라졌지만 연못은 근근이 옛 모습을 유지한 채 이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토록 유서 깊은 연못에 다시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었다. 1970년대까지 안흥지는 적지 않은 물이 솟아 구만리 뜰에 농업용수를 댈 정도였다. 그러나 인근이 개발되면서 물도 말랐는데, 바닷물 빠진 아랄해처럼 흉흉하기 그지없었다. 이렇게 황무지가 되어버렸던 안흥지를 탐내던 곳이 있었다. 쓸모없어진 안흥지를 눈여겨보던 곳은 경찰서였다. 새로운 관사를 짓겠다며 토지를 양보하라는 것이었다. 그때 시가 안흥지를 포기했다면 우리는 영영 안흥지와 애련정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다행스럽게도 지역 원로들이 나서서 안흥지 보존을 요구하면서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는 안흥지를 재건하겠다고 경찰서의 제의를 거절하면서 안흥지와 애련정은 지금 이 자리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생각해보니 애련정 둘레길과 관련된 추억이 더 있다. 안흥지는 터미널과 가깝다. 서울로 학교를 다니던 아내와 연애를 할 때, 퇴근하면 나는 이곳 안흥지에서 기다리다 만나곤 했다. 버스가 도착하길 기다리는 안흥지 둘레길에서는 모든 것들이 좋았다. 아직 정비가 덜 된 길이었지만 수면에 반사되는 불빛의 일렁임을 보며 걷는 것도 좋았는데, 안흥지의 밤은 군생활을 했던 여수밤바다 보다 서정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연애 시절 사랑하는 아내를 기다리던 시간과, 두근거리며 함께 걸었던 안흥지 둘레길의 설렘을 여전히 잊지 못한다.







장호원 진암리  
배꽃밭의 배꽃

### 장호원 과수원길

한때 SNS에 ‘100문 100답’이라는 글이 유행한적이 있다. 여러 질문 중에 하나. ‘가장 좋아하는 꽃은?’ ‘글쎄, 내가 좋아하는 꽃은 뭐였지?’ 나는 우리 집 100년 가까운 사철나무의 푸른 가지 마디마디에서 누르스름한 꽃을 피웠을 때의 장관을 좋아한다. 또한 어머님께서 심어놓으셨던 뒤결 백합꽃의 우아함도 빼놓을 수 없고, 3월 말이면 백사지역을 노랗게 물들이는 산수유도 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누군가 좋아하는 꽃 한 송이만 고르라 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나는 사과꽃을 선택할 것이다. 사과나무의 잎은 푸석해서 헤쳐서 보이지만, 하얗고 뽀얀 꽃잎에 싸인 불그스레한 화심의 사과꽃은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달뜨게 만든다.

하지만 ‘꽃들’이라고 하면 대답은 달라진다. 나는 배꽃과 복숭아꽃들 가운데 한참 고민할 것이다. 그래도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고민 끝에 배꽃을 선택할 것이다. 복숭아꽃도 나름 매력이 있지만 요즘엔 복숭아의 품질을 높이려고 꽃을 따주기 때문에 옛날 복숭아꽃보다는 화려함이 좀 떨어진다. 그에 비해 배꽃은 정말 예술이다. 사과꽃의 꽃잎은 화심 쪽으로 붉은 기운이 스며들지만, 배꽃은 하얀색 꽃잎에 푸른 기운이 화심을 감싸고돌아 꽃잎을 더욱 창백하게 만드는데, 나는 배꽃이 활짝 핀 과수원의 봄길을 좋아한다.

정말 4월 중순, 배꽃과 복숭아꽃이 활짝 핀 장호원 진암리 과수원길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 봄날의 하얀 배꽃밭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단아하고 우아하게 만든다. 이러한 연유로 은한이 삼경인 제, 진암리 배꽃 밭을 걷는 것이 내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다. 시조 속 이조년이 느꼈던, 배꽃 핀 날 밤의 다정을 꼭 느끼고 싶어서 벼르고 벼르다 작년 4월 보름달이 뜬 밤에 몰래 다녀왔다. 원래는 아들과 함께 다녀오려고 얘기라도 하고 싶었는데, 시험기간에 공부하는 애 데려간다고 아내에게 등짝 스매싱을 당할 것 같아 말도 못 꺼내고 하얀 배꽃밭을 홀로 걸어야 했다. 하얀 달빛보다 더 하얀 진암리 배꽃밭…….

한밤 중 진암리 배꽃 길의 감동이 ‘메밀꽃 필 무렵’ 속 성서방네 처녀를 처음 만난 메밀밭의 서정에 버금간다면 지나친 억측일까? 여름밤 메밀꽃밭이 뿌려 놓 소금이라면, 봄날 밤 하얀 숨을 벌여놓은 것 같은 진암리의 배꽃밭길! 시인은 왜 은한이 삼경인 제 하얀 배꽃을 보고 싱송생송 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니, 나는

정말 달밤 아래 걷는 배꽃길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한밤 중 배꽃밭길은 완전 서정 터진다!

사과꽃과 복숭아꽃, 그리고 배꽃 가득한 장호원 봄길. 진암리 과수원 길에 그냥 앉아 봄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도연명의 무릉도원도, 이조년의 봄밤의 다정도 다 만날 수 있다.

## 2. 길은 시간을 잇는다

요즘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걷는 길들이 늘어간다. 산업화 시절 새로 생기는 길은 자동차를 위한 길이였다면 요즘 생기는 길은 온전히 사람을 위한 길이다. 제주의 올레길에서 시작된 걷기 열풍은 남도의 둘레길을 거쳐 전국 각지로 퍼져서, 지금은 ‘둘레길’이라 검색하면 수십 수백의 길이 탐방객을 기다린다. 길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시간을 잇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길이 늘어간다는 것은 행복한 만남도 더 늘어나는 것이리라.

많은 길 가운데 걷고 싶은 길이 몇 군데 있다. 부여에 있는 ‘부여 백제역사길’에는 백제 성왕의 중흥의지와 좌절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여차하면 무왕의 황금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조령길도 걷고 싶다. 높아서 새도 넘기 힘들다는 그 길, 영남지방 선비들이 한양으로 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했다는 그 길, 급제한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높이높은 조령을 단숨에 넘어 돌아갔을 그 길을 걷고 싶다. 조령을 넘은 선비들은 장호원을 거쳐 이천 광주로 이어진 길로 한양으로 들어서기도 했다. 청운의 꿈을 품고 걸었을 길, 장호원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3번국도. 3번국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이천의 옛이야기를 만나보자.

### 3번국도(1)

3번국도는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평안북도까지 이어지는 국토대동맥 길이다. 길 이만큼 오랜 역사를 안고 있는 3번국도는 곤지암에서 이어지는 넉고개부터 장호원

박씨부인 정려



사기막골 도예촌

청미천까지 30km가 넘게 이천에 걸쳐 있다. 예전에는 곤지암장을 끝낸 장꾼들이 이천장을 향해 고개를 넘었다. 또한 공맹을 본받겠다며 한양으로 향하던 유생들이 넘었을 고개가 너고개·광현이다. 모가면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나 역시 푸른 꿈을 품고 대도시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그런 까닭으로 언제나 일요일 저녁에는 이곳 3번국도 넓고개를 넘어 옛 자취방으로 향해야 했다.

우리 고등학교에 이천 출신 학생이 흔치 않아서 내 별명은 언제나 ‘이천’이었다. 잊히지 않는 고등학교 시절 수업이 있다. 3·1운동을 배우던 역사 시간,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이 표시된 지도에 이천은 허전하게 비어 있었다. 아이들은 진심을 섞어 놀리기 시작했다. 이천이 겨우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이라며 말이다. 사실은 좀 부끄러웠다. ‘이천’이라는 별명을 좋아할 만큼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끄러움은 내 무지함 때문이었다.

이천은 단발령과 을미사변 이후 일어난 구한말 최초의 의병인 을미의병 중 가장 크게 일본을 물리친 의로운 곳이다. 이를 ‘광현전투’라고 부른다. 또한 이천지역의 지속적인 의병운동으로 일본은 이천을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이 사건이 앞에서 말한 ‘이천충화사건’이다. 일본의 탄압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라 당연히 3·1운동을 주도할 여력이 없었을 것이다. 영국 출신의 기자 맥켄지가 “조선의 의병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천으로 가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전설이 되었을 정도로 이천은 의병운동으로 가장 뜨거운 곳이었다. 구만리뜰과 효양산

을미의병의 격전지였던 녑고개, 광현을 거쳐 신문 별관을 지나면 다시 고개가 하나 나오는데 이 고개의 이름은 기치미고개다. 이 기치미고개를 오르기 전 수남리 마을길에서 특별한 정려를 만날 수 있다. 정려의 이름은 박씨정려문이다. 이 정려에는 사연이 담겨 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박씨부인의 남편 무장 한검은 전장으로 달려갔으나 얼마 후, 박씨에게 전해진 것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한양을 점령하고 3번국도를 따라 남하하던 청군이 기치미고개에 당도한다는 소식을 들은 박씨부인은 칼을 한 자루 숨겨두고 청나라 군인들에게 향했다. 하늘하늘 여린 여성이 다가오자 거친 청나라 군사는 크게 경계하지 않은 듯하다. 이 틈을 타 박씨부인은 청군 셋을 죽이고 자결했다고 한다. 억울하게 죽은 남편에 대한 복수였다. 나중에 조선 정부는 박씨부인을 기리며 알량한 정려 하나를 내렸다. 과연 조선 정부가 그녀에게 표창을 내릴 자격이 될까? 외교와 국방에 무능했던 조선 정부는 정려가 아니라 사죄비를 그녀에

게 바쳤어야 하지 않을까? 그들은 명분만 외치며 전쟁을 방조했을 뿐 아니라 개인의 불행을 견뎌내는 것 역시 개인의 몫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집권자들의 무능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했다. 언제나 그랬다.

기치미고개를 향해 오르다보면 오른쪽에 사기막골 도예촌을 만날 수 있다. 해방 후 젊은 도공들이 3번국도를 따라 이곳 사음동 사기막골에 터를 잡고 도공의 혼을 불어넣었다. 결국 이천은 유니크한 도자와 현대적 도자로 유명한 도자의 메카가 되었고, 그 중심에 이곳 도예촌이 있다.

기치미고개를 넘어 시내 쪽으로 내려가면 오른쪽에 독특한 관고동 불상이 우리를 기다린다. 신라시대의 불상이 세련되고 통일감 넘쳤다면, 지역색이 두드러진 고려의 불상은 독특하고 개성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실제 관고동 불상은 고려시대의 불상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큰 키보다 더 도드라진 커다란 오른손은 정상적으로 보기 힘들다. 함께 불상을 찾았던 아들과 ‘돈 달라는 것 같다’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던 관고동 불상.

불상 앞길을 지나 시내를 벗어나면 북하천 유역의 넓은 들판을 만날 수 있다. 이 넓은 벌판은 ‘구만리뜰’로 불린다. 구만리뜰은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커다란 늪지였다. 비가 많이 내리면 여지없이 북하천에서 물이 넘쳐 습지로 변해버리는 탓에 농지로 사용하기도, 건너지도 쉽지 않았다. 큰물이라도 지면 시내부터 신하리 쪽까지 큰 강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후삼국을 통일하려던 왕건에게는 이곳 습지가 커다란 장애물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렇게 고민하던 왕건 앞에 나타난 사람은 서목이다. 서목의 안내로 왕건의 군대는 북하천을 무사히 건너 후백제군을 격퇴했고, 왕건은 그 고마움을 담아 이곳 땅에 ‘이섭대천’이라는 귀한 이름을 내려주었다. 서목은 그 유명한 서희의 작은 아버지다.

왕건의 이야기를 증명하듯, 북하천 인근의 3번국도는 이렇게 비만 오면 질퍽했기에 신하리 일대를 옛사람들은 진구렁, 혹은 진골이라 불렀다. 또한 신하리에서 하이닉스로 이어지는 3번국도 일대를 ‘비석거리’라 불렀다. 이곳은 유생들이 서울로 과거시험을 보러갈 때 머물던 주막이 있던 곳인데, 이들이 과거시험의 성공을 바라며 돌을 쌓아 놓았던 것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3년을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로 향하던 유생들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혼한 돌맹이 하나라도 주워 정성껏 올려놓았을 그



나래리 개비석과 독방길

간절한 마음을. 예전 사동중학생들과 역사탐방을 떠날 때 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한 학생이 비석삼거리라는 버스정류장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역시 옛 이야기는 그것을 기억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빛이 나는 법이다.

### 3번국도(2)

3번국도는 이천의 남부지방에 당당하게 자리 잡은 장호원을 가르고 남쪽으로 향한다. 장호원은 조선 성종 때의 지리서 『동국여지승람』에는 장해원長海院으로 기록되어 있다. 장해원의 유래는 이렇다. 장호원의 젓줄인 청미천이 예전에는 자주 범람했다고 한다. 물이 넘치면서 장호원 노답리 쪽과 풍계리 쪽에는 끝없이 넓은 호수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 호수가 마치 길고 넓은 바다와 같다고 해서 장해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이다. 이후 물이 줄어들면서 바다 대신 호수가 적당하다 하여 장호원이란 이름으로 굳어졌을 것이다.

장호원 읍내로 들어가기 전 왼쪽으로 넓은 나래리 평야가 자리 잡고 있다. 나래리에는 사연을 담고 있는 명물들이 많다. 그중에 첫 손에 꼽고 싶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유니크한 비석이다. 나래리 비석은 3번국도에서 나래리로 향하는 직선길이 끝나는 지점에 누워 있다. 비석은 원래 세워져 있어야 하지만 나래리의 비석은 눕어져 있다. 특별한 주인공을 위한 비석이기 때문이다. 개비석의 사연은 이렇다.

아주 먼 옛날 나래리에 개를 아끼는 농부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농부는 외출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항상 개와 함께 다녔다고 한다. 하루는 농부가 힘들게 일을 하고 막걸리를 마시고 독에 누워 쉬다가 잠이 들었다. 한참 자고 있는데 저쪽 독에서 부터 불이 번지기 시작했다. 개는 힘껏 짖었으나 술에 취한 주인은 깨어나지 못했다. 점점 불길의 다가오자 개는 옆의 도랑에서 온몸에 물을 묻힌 뒤 번져오는 불길에 자신의 몸을 던져 불을 끄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참 뒤, 주인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강아지는 검게 그을린 채로 주인의 옆에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개의 죽음을 슬퍼한 주인은 정성껏 비석을 조각해서 독에 죽은 개처럼 누어 놓았다고 한다.

나래리의 다른 주민 말에 의하면, 개의 주인은 농부가 아니라 음죽현에서 여주로 향하던 상인이었을 거라고도 하고, 과거시험을 보러가던 선비였다고도 말한다. 개비석에는 글자가 없다. 개에게 글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비석에는 다만 추모의 정을 마음으로 새겨 놓았을 뿐이다.

나래리를 지나 조금 더 남쪽으로 향하면 오른쪽에 높고 경사진 산이 하나 보인다. 이 산이 그 유명한 장호원의 진산 백족산이다. 백족산은 말 그대로 백 개의 다리를 가진 산이다. 산이 정말 백 개의 다리를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백 개의 다리를 가진 전설 속 지네가 사는 산이라는 뜻이다. 옛 이야기를 증명하기라도 하려는 듯이 백족산 어딘가에는 커다란 지네굴도 있다고 한다. 지네굴이나 백족산 정상까지는 아니어도 무량사에 차를 세워두고 자드락길을 따라 약수터까지 산책은 어떨까 싶다.

3번국도를 따라 장호원 읍내 초입의 샘재고개 너머엔 청미천 유역의 넓은 장호원 시가지가 펼쳐진다. 어떤 사람들은 장호원이 중심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 소외된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장호원은 1930년대까지만 해도 기차가 들어올 정도로 물산이 풍부했던 곳이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서울의 세도가들이 장호원에 땅 하나 갖는 것이 꿈이라 말할 정도였다. 샘재고개를 넘어 3번국도를 따라 조금만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청미천이 나온다. 복하천이 구만리뜰에 축복을 안겨준다면 장호원 풍요의 근원은 청미천이다. 청미천은 백족산을 휘돌아 나가면서 장호원의 넓은 들에 물을 나누는데, 이곳 청미천 옛길은 병자호란으로 유명한 인조 시절 간신의 대명사인 김자점과 관련된 옛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김자점은 천명배금을 부르짖으며 반정을 주도한 자로 인조가 왕이 되자 출세가도를 달린 인물이다. 그러나 그가 말하던, 명을 위해 의리를 지키자는 춘추대의는



허상에 불과했다. 그는 단지 복인으로부터 권력을 뺏어오길 원했을 뿐이다. 병자호란 뒤 철저한 청나라 앞잡이로 변했던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김자점은 자신의 손자를 공주와 결혼시키며 외척 세력으로 입지를 키워가더니 결국, 국정을 농단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똑똑했던 소현세자와 대장군 임경업의 억울한 죽음 뒤에도 그의 마수가 뻗어 있었다.

김자점은 권력의 정점에 서자 전국에서 가장 풍수가 뛰어난 길지를 찾기 시작했다. 최고의 풍수터에 아버지의 무덤을 만들어야 본인이 왕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 때문이었다. 탐문 끝에 찾은 곳이 바로 장호원 진암리와 오남리 부근이다. 이곳은 용이 승천한다는 ‘비룡상천형’으로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단 하나 물이 부족했다고 한다. 용이 승천하려면 청미천의 수량으로는 약간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김자점은 장호원 사람들을 동원해서 청미천에 커다란 보를 쌓기 시작했다. 보의 높이만큼 수량이 많아지면 용이 승천할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탐욕으로 기인한 일은 언제나 그르치기 마련인 것 같다. 그는 그 후 역적으로 내몰려 죽었고 이곳 김자점이 만든 보는 근방 백성들이 사용하게 되었



연당길



는데, 다른 곳은 가뭄으로 고통을 받아도 이곳은 청미천 보의 넘치는 물로 언제나 풍요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한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탐욕으로 시작된 공사가 오히려 백성을 행복하게 했으니 말이다. 김자점의 자점이보는 지금의 현대적인 모습으로 청미천의 물을 더욱 풍성하게 담고 있다.

### 연당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약 70여 년 전에 한양에서 이천으로 낙향한 여섯 양반 가문이 있다. 그들은 당시의 엄혹한 정치현실을 피해 3번국도를 따라 이곳 이천으로 내려왔다. 여러 번의 사화에서 부모와 스승을 잃고 위급한 상황에서 내려온 여섯 가문은 신문면과 백사면에 나란히 터를 잡고 그들만의 마을을 일구기 시작했다.

영월임씨는 산수유마을이 있는 도립리에, 계산 오경 가문은 장동리, 퇴휴 임내신 가문은 송말리에 터를 잡는 식으로 정착했다. 그들 중 가장 부유했던 가문은 풍천임씨 임내신의 가문이었다. 임내신은 퇴계 이황의 제자로 아버지는 현감까지 지냈고, 본인은 강원도관찰사까지 지낼 정도로 다른 집안에 비해 넉넉했다.

풍천임씨 가문이 백사면 송말리에 은거하게 되는 과정에는 재밌는 사연이 있다. 이 이야기는 5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풍수지리 지관인 박상익이 임씨 가문의 초대를 받아 송말리에 방문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당연히 임내신은 자신들이 자리 잡은 터가 풍수상 어떠한지 궁금했을 것이다. 박상익은 송말리에 도착하자마자 웃웃을 벗더니 송말리의 지세를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 이곳의 터는 좋지만 재물과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형상입니다. 재물과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고, 유명한 인물이 나오려면 저기 보이는 마을 입구에 연못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송말리 뒤쪽을 감싸고 있는 원적산 줄기가 끊겨 마을 앞쪽이 열려 있어서 원적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막힘없이 마을 바깥으로 빠져 나간다는 것이다. 좋은 기운을 머물게 하려면 연못을 조성해서 물을 일부 가두고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이런 내력으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연당과 연당숲이다.

그렇다면, 정말 지관의 말대로 유명한 사람이 이곳에서 태어났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오르지 않아도 된다. 이곳 출신 영화배우 임창정이 지관의 예언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한말 의병장으로 끝까지 일본에 저항하며 숨을 거둔 송말리 출신의 임형순 의병장이 지관의 예언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나는 시간을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는 연당길을, 임형순 의병장도 걸었을 이 길을, 선조의 지혜를 생각하며 걸을 수 있는 이곳 연당숲길을 좋아한다. 그래서 여름 휴가 때마다 이곳 연당숲을 찾는다. 이천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일상의 묵은 때를 씻어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신록을 내뿜고 있는 500년의 오랜 연당숲은 언제나 나를 위로해준다. 연당숲길의 변함없이 서있는 상수리나무며 느티나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나무는 ‘충분히 너도 시간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어’라며 위로를 해준다.

### 3. 우리가 처음 만나는 길

오래전 나도 연암처럼 우울에 잠시 빠진 적이 있다. 심연에서 벗어난 뒤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다. ‘인간의 우울은 어디서 오는 걸까?’ 오랜 고민 끝에 인간이 우울에 빠질 때는 두 가지 상황에 직면했을 때라는 걸 알게 되었다. 길이 너무 잘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와 너무 잘 보여 삶이 뻔할 때라는 짧은 도를 얻었다.

삶의 여정에는 적당한 위기가 있고 그 삶의 파고에 맞서 도전하고, 그 도전의 열매를 에너지 삼아 나아갈 때 인생의 길은 행복할 수 있다. 적당한 고난과 새로움이 있는 길, 약간의 두려움과 도전이 있는 길은 어쩌면 여행길이 아닐까 싶다. 우울에 빠진 연암을 구제해준 열하로 가는 여행길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행길의 미덕 중 하나는 또한 객창감이라 생각한다. 적당히 낮설고, 나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명분 속에 찌든 옷을 벗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감정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객창감이라 부른다. 낮익은 이천에서도 객창감까지는 아니어도 낮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몇 군데 손꼽아 보도록 하자.

### 설봉산 여러 길

이천 사람들에게 설봉산은 익숙하다. 그러나 익숙한 것이 낯설 때가 있다. 익숙한 동선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색다르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설봉산 정상으로 오르는 길은 다양하다. 가장 편하게 오를 수 있는 등산길은 칼바위 방면이 아닐까 싶다. 칼바위 등산길은 시내에서 설봉산 능선을 만나자마자 시작되는 길이기도 하지만 경사가 비교적 완만해서 편하게 걸을 수 있다. 또한 칼바위 부근에서 이천 남부지방의 풍광은 덩으로 따라온다. 칼바위에서 정상으로 이어지는 구간에는 설봉산 옛 성터를 끼고 걷는 즐거움도 있어서, 산책을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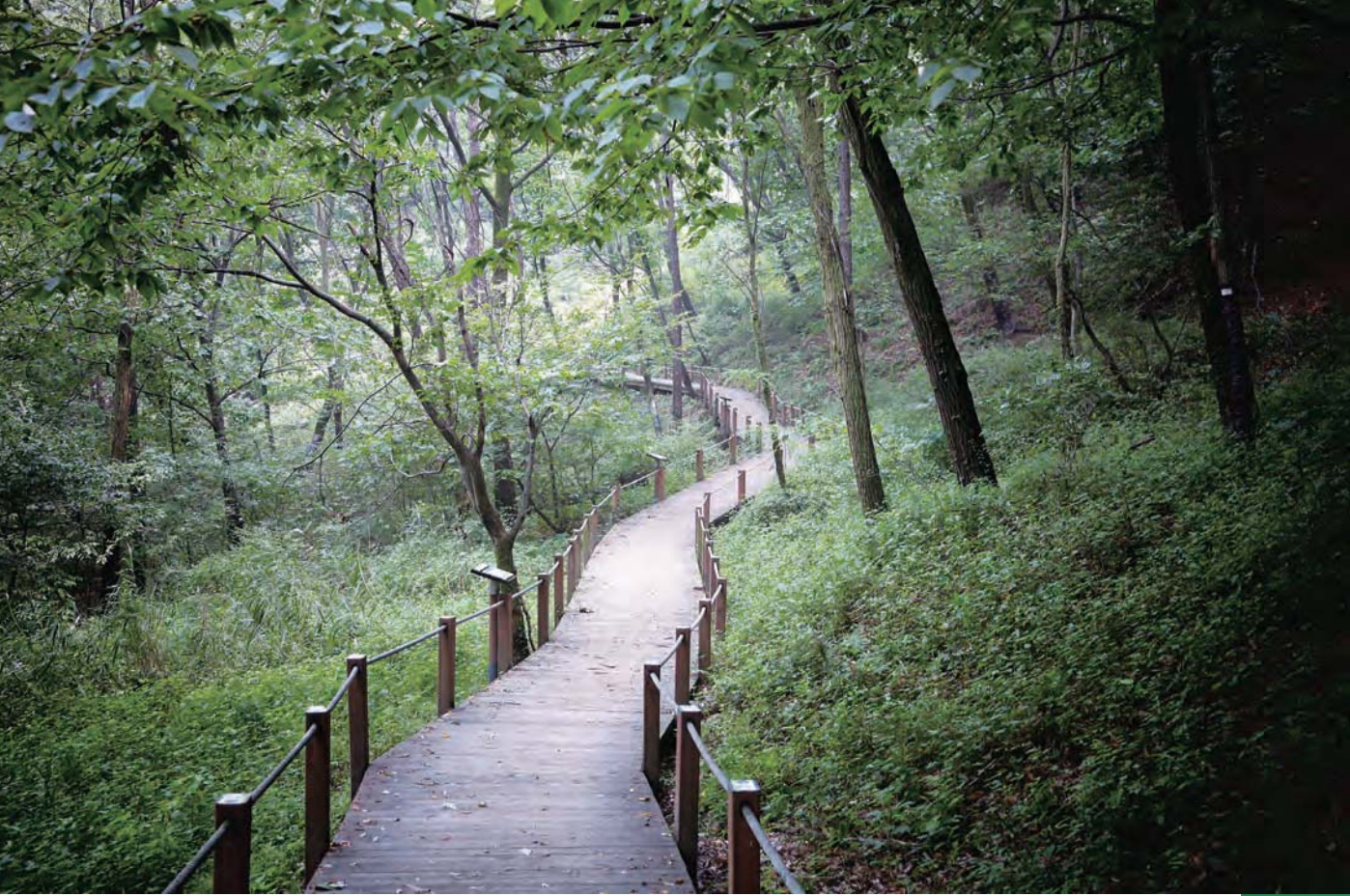
또한 이천 사람들은 구암약수 등산길을 사랑한다. 이곳은 세라피아 옆길로 이어지는 시원한 그늘 길에 아기자기한 약수들이 숨어 있는 곳으로 건강을 위한 사람들이 찾는 등산길이다. 가장 대중적인 등산길답게 많은 사람들이 물통을 이고지고 이 길을 걷는다. 그러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설봉산 길은 이곳을 약간 벗어난 낯선 길이다.

나는 설봉서원에서 삼형제바위를 통해 정상으로 오르는 길을 좋아한다. 이 길은 설봉산 등산로 중 가장 경사가 급해서 빠르게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데, 이 경사진 등산로 한가운데 턱 하고 나타나는 평지를 좋아한다. 이곳은 옛 암자터로 설봉산에서도 가장 신비한 곳 중 하나다. 커다란 바위 절벽 주변 평지에는 근사한 조릿대 군락이 자생하는데 이 군락 가장 안쪽에는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샘물이 있다. 마치 영화 전우치전의 도사들이 사는 곳 같다고나 할까. 이 조릿대군락을 더욱 신비롭게 하는 것은 바로 옛 탑의 기단이다. 샘물 앞쪽에는 시대를 알 수 없는 근사한 옛 탑의 기단이 버려져 있는데, 그 옛날 도를 닦던 노승의 전설이라도 안고 있지 않을까?

조릿대군락을 벗어나자마자 나타나는 곳이 풍성한 전설의 삼형제바위다. 이 바위는 내가 살고 있는 부발에서도 보일 정도로 장쾌하고도 유니크한 형상을 하고 있다. 삼형제바위를 지나면 영월암이 불쑥 나타난다. 영월암에는 이천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은행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재밌는 전설만큼이나 묘하다. 바로 은행잎이 손톱만큼 작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손톱잎 은행나무라 부르는데, 떨어지는 노란 눈송이들을 맞으려 매해 이 나무를 찾는다.

손톱잎 은행나무의 클라이맥스는 10월 말, 영월암 삼성각 부근에서 바라보는 경





설봉산 등산로



설봉산 조릿대군락

치가 아닐까 싶다. 나는 절의 지붕과 노란 은행나무, 그 사이로 보이는 이천 시내의 풍광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무 사이로 살짝 보이는 모습은 마치 동화 속 신비의 도시를 몰래 지켜보는 것 같다.

삼형제바위 등산길과 함께 좋아하는 설봉산 길은 이섭봉 능선길이다. 많은 등산객들은 구암약수에서 88계단을 지나 화두재에서 잠시 쉬어간다. 화두재는 설봉산 정상 능선에서 가장 낮은 곳이다. 옛날에는 마장면 표교리 쪽에서 이천 시내로 오갈 때 이곳 설봉산 화두재를 건넜다. 대부분의 등산객은 이 화두재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설봉산 정상으로 향한다. 그러나 나의 등산길은 화두재에서 왼쪽으로 꺾어야 만날 수 있다. 내가 사랑하는 ‘이섭봉 능선길’은 말 그대로 화두재에서 이섭봉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나는 10여 년 전에 산악자전거로 처음 이곳을 오를 수 있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지 못한다.

군 생활할 때 버스를 타고 전주 쪽에서 산길을 타고 진안으로 향한 적이 있다. 산에 올랐으면 내려가는 것이 만고의 진리이거늘 진안은 예외였다. 산 위에 펼쳐진 평원의 낮선 아름다움은 긴 시간이 흐른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그 정도까지의 감흥은 아니어도 이섭봉으로 향하는 능선길 역시 비슷한 감정을 갖게 한다. 한참 이섭봉 능선을 걷다보면 이곳이 높은 능선길이라는 것을 잊게 되니 말이다. 힘들게 오른 길 끝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난 느낌이랄까?

이번 주말엔 항상 다니던 길 말고 조금 다른 등산로로 설봉산을 올라보는 건 어떨까 싶다.

### 어농성지, 단내성지 돌레길

이슬람교도에겐 다섯 가지 의무가 있다고 한다. 그중 다섯 번째 의무가 성지순례인 ‘하지’다. 평생 한 번은 자신이 모은 돈으로 메카를 순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이스라엘 인근의 성지를 순례하길 원한다. 그렇다면 성지란 어떤 곳일까? 교인들에게 성지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지는 종교에서 신성하게 여기는 장소로 종교의 발상지나 종교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순교한 곳을 말한다. 그러니 성지순례의 목적은 그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의 옛 자취가 어린 길을 걸으며 그들의 삶을 떠올려 자신을 돌아보는 데에 의미가 있지





어농 성지 이팝나무길





않을까?

이천에도 성지순례길이 있다. 먼저 소개할 곳은 어농성지 순례길이다. 이곳 어농성지에는 순교한 열일곱 분을 모시고 있다. 성당을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성지에 오면 경건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은은하게 울리는 성가를 들으며 산책할 수 있는 길도 여럿인데, 산책길 가운데 ‘십자가 길’은 예수가 십자가를 메고 고통 속에서 걸었던 그 마음을 떠올리며 걸을 수 있다.

어농성지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어농성지 이팝나무 동굴길이다. 5월 이팝꽃이 활짝 피었을 때 어농성지 이팝나무 동굴길을 걷는 것을 좋아하지만, 장마철 여름날의 이 길을 더 좋아한다. 교황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우리 부부는 신자도 아니면서 이곳에 들렀었다. 마침 여름 소나기가 내리고 있었는데, 아내와 함께 처음 걸던 이팝길의 감동을 나는 잊지 못한다. 축축하게 적셔진 이팝나무 동굴길을 걷고 있으면 몸과 마음이 이팝나무의 파란 빛깔보다 더 푸르게 물드는 느낌이었다.

호법면 단천리 단내성지는 우리나라 유일의 가족 성지다. 다른 성지와는 의미가 약간 다른 곳이다. 이곳에서 추모하는 순교자는 모두 가족관계로 신을 믿다 옥고를 치르고 참수 당했다. 그래서 이곳을 성가정 성지라고 부른다. 성가정 단내성지의 뒷산 등산길은 참 예쁘다. 이곳 신부님들께서 가꾼 길이다. 신자에게는 박해 받았던 순교자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고, 신자가 아니더라도 가족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등산길이다. 신도들은 이곳을 순례길이라고 부른다. 고난을 당했던 순교자 가족의 아픔과 신앙심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일 거다. 길게 돌면 5.2km의 등산길을 즐길 수 있고, 짧게 돌면 2km 내로 가볍게 산책할 수 있다.

순례길에서 우리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곳이 한 군데 있다. 바로 굴바위다. 단내성지 둘레길을 한 바퀴 돌아 나오는 길에 만날 수 있는데, 박해를 피해 순교자 가족들이 숨어 지내던 곳이라 한다. 허나 굴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웅색한 틈에 가깝다. 그 넓지 않은 틈에서 가족

들은 서로를 보듬고 위로하며 그들의 신념을 지키려 노력했을 것이다. 순례길을 걷다보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종교에 대한 그들의 열망과 가족에 대한 애뜻한 마음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4, 당신과 함께 걷는 이 길이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오래전에 일본 홋카이도 섬을 홀로 여행한 적이 있다. 무슨 객기였는지 자전거 하나 달랑 들고 여행길을 떠났더랬다. 홋카이도는 북방의 제주도 같은 섬이랄까?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홋카이도의 바닷길, 가도 가도 끝없는 습지가 이어지는 구시로습원길은 자전거 라이딩 길로는 최고가 아닐까 싶다. 여행 후 오래도록 내 교감신경을 자극케 한 것은 웅장한 홋카이도의 자연이 아니라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들이었다.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할아버지 세 분이 기억난다. 일흔 살이 훨씬 넘은 나이에 친구 셋이서, 오토바이로 일본 일주를 한다는 일본의 할아버지들. 그들은 오랜 친구라 했다. 아마 어릴 때 꿈이었을 것이다. 나이 들어서도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 여행을 한다는 것, 일흔 중반의 나이에 쉽지 않을 여행이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나이와 꿈의 상관관계, 그 그래프를 무너뜨린 홋카이도의 할아버지들. 이들은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 내 삶의 지표가 되어주고 있다. 여행길의 매력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지도 않던 인생을 만나며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천에도 좋은 사람들과 길을 만난 그런 길들이 여럿 있을 것이다.

#### 성호호수 연꽃길

성호호수는 금당리와 장천리에 걸쳐진 커다란 호수다. 어릴 때부터 금당저수지로 불려서 아직 성호호수라는 단어가 입에 설다. 어릴 때 낚시를 좋아해서 이곳을 수도 없이 다녔는데, 이 호수는 커다란 크기만큼이나 다양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생긴 모습이 기괴한 가물치부터 빠가사리에 떡붕어까지 낚을 수 있었던 최고의 낚시터가 이곳 성호호수다. 얼마 전 호수 상류를 나눠 연꽃단지를 조성해 놓았는데,



성호호수 연꽃길

최근에 걷기 좋은 곳으로 떠오르고 있다.

성호저수지 연꽃길은 역시 꽃이 활짝 핀 여름이 제철이다. 하지만 제철 연꽃 구경길이라도 ‘굵’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수 정도 되는 사람은 한낮에 연꽃 구경을 하며 걷는다. 낮에는 환한 연꽃을 밝게 볼 수 있어서 사진 찍기에 가장 좋기 때문이다. 환하게 쏟아지는 햇살 아래 밝게 빛나는 연꽃은 최고의 피사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역시 여름에는 쏙는 땀을 진정시켜야 하기에 편히 감상할 여유가 없다.

중수 정도 되면 뜨거운 낮을 피해 아침 일찍 연꽃단지를 걷는다. 땀을 흘릴 필요도 없고 연앞에 구르는 물방울을 보는 재미도 좋다. 안개라도 낀 날 아침이면 더욱 몽환적이다. 아무도 없는 아침에 구경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연꽃 구경을 가장 잘 했다는 뿌듯함과 함께 예쁜 사진을 안고 돌아간다.

그러나 역시 최상급 답사객들은 해질 녘에 연꽃길을 걷는다. 더위도 피할 수 있고, 석양에 은은하게 빛나는 연꽃은 낮과는 전혀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과연 이곳이 같은 곳이 맞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화려했던 연꽃은 해가 지면서 점점 흑백사진이 되어 가는데, 다른 시간대에는 감상할 수 없는 감동임에 틀림없다.

해질녘이 되면 연꽃단지 풀벌레와 연

못 생물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아니, 해가 사라지면서 밝아지는 낮달처럼 낮에도 연꽃의 생명들은 소리를 내고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 소란으로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뿐이지. 김기택 시인처럼 여름날 연꽃단지의 저녁 공기를 크게 들이쉬면 허파 속으로 작은 생명의 소리들이 들어오고, 연꽃의 향기도 묻어 약간은 마음이 맑아질 지도 모를 일이다.

얼마 전 이천시역사문화연구회 여러 회원들과 이천 남부지역 답사를 다녀오며 성호호수 연꽃길을 둘러온 적이 있다. 한여름 한낮이라 빛나는 연꽃을 만날 수 있던 연꽃길, 여름의 그 길을 함께 걸으며 한 회원분의 결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아들 셋을 키우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던 웃음이 특히 밝던 그 여성분. 게다가 시누이가 아이까지 맡겨서 평소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그분에게 함께 걷던 다른 사람들은 시집살이가 고되겠다고 편을 들어주었지만 정작 본인은 시집살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다며 담담하게 말한다.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지고 볶는 그 시간이 즐겁다 한다. 역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누군가의 노래는 거짓이 아닌 것 같다. 한여름 연꽃길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은 역시, 아름다운 사람들의 삶의 길이 아닐까 싶다.

### 산수유 둘레길

아들과 나의 관계는 좀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우리 역시 기나긴 인연의 끈으로 부자<sup>父子</sup>의 연을 맺게 되었다. 그러나 아이가 어렸을 때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와 온전한 저녁도, 평온한 아침도 함께 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 자정이 넘도록 일하고 일주일에 단 하루 쉬던 시절, 아이에 대한 미안함으로 쉬는 날이면 이천의 길들을 아이와 함께 걷곤 했다. 길을 걷는 시간만큼은 아이와 마음을 온전히 주고받을 수 있었다.

버스여행도 자주 다녔다. 아들과의 버스여행은 단순하다. 정류장에 서서 기다리다 가장 먼저 도착하는 버스를 탄 뒤에 종점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오는 것이 여행의 전부였다. 돌아오는 길에는 큰 도로보다는 들길을, 아스팔트보다는 오솔길을 찾아 걸었는데 처음 보는 들꽃도, 갑자기 날아온 벌도 이야기 손님이 되어 함께 길을 걸었다.







함께 걸었던 여러 길 가운데 가을의 산수유 둘레길을 빼놓을 수 없다. 산수유 둘레길은 정개산과 원적산의 낙수재에서 영원사를 끼고 크게 도는 산책길이다. 둘레길에서 내가 좋아하는 코스는 영원사를 한 바퀴 돌아나가는 길이다. 우리의 둘레길 산책은 영원사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절집 구경 한번 하고 시작된다. 여전히 그대로 서 있는 오래된 영원사 은행나무를 확인하는 것도 반갑고, 슬픈 전설을 간직한 약사여래불을 둘러보는 것도 좋지만 가장 반가운 것은 주엽나무와 풍경風景이다. 곧 쓰러질 것 같지만 봄이면 몸을 받침대에 의지한 채 여전히 푸르른 생명임을 증명해내는 주엽나무,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너머로 보이는 영원사 절집 처마와 원적산의 풍경風景도 멋지다.

영원사를 뒤로하고 둘레길의 다른 코스로 향하는 길. 절집의 목탁소리는 이별을 아쉬워하는 듯 점점 목소리를 낮출 때 또 다른 자연의 목탁소리로 바뀌어 더욱 청아하게 둘레길에 울려 퍼진다. 바로 물박달나무를 쪼는 딱따구리 소리다. 가을의 산수유 둘레길에는 봄의 생강나무 꽃잎보다 더 노란 단풍잎이 산책길을 풍성하게 해주는데, 산수유둘레길의 가을에 취한 듯한 아들은 내게 이렇게 말한다. “여긴 그냥 좋네~.”

산수유 둘레길의 하이라이트는 연인의 길 코스다. 연인의 길은 육괴정을 중심으로 산수유마을을 한 바퀴 이어진 길이다. 봄에는 노란 산수유꽃 활짝 핀 근사하고 포근한 산책길이 일품이라면, 가을의 이 길은 빠알간 산수유 열매가 열린 축축한 길로 아버지의 사랑은 물론 연인의 사랑까지 확인할 수 있다.

산수유 연인의 길이 더 애뜻한 건 육괴정과 엄씨 가문의 사연 때문이다. 때는 16세기 초반 임혹했던 연산군과 중종 시절, 남당 엄용순은 두 번의 사화에서 아버지와 스승을 잃게 되자 식솔을 이끌고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이곳 백사면으로 낙향하게 된다. 엄용순은 고통스런 시간에도 여유를 잃지 않았나보다. 낙향할 때 집 주변에 심을 산수유나무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원적산 자연의 목탁소리를 들으며 봄에는 산수유꽃, 생강꽃과 노랗게 걸을 수 있고, 가을이면 산수유열매와 함께 빨갛게 되어 가족과 함께 걷는 이 길. 시간이 한참 흘러 내 아들의 혈액에도 빨간 산수유 알알이 녹아있길 바라는 이곳은 산수유 둘레길이다.

## 5. 너와 나, 그리고 이천 사람 모두의 길

내가 가장 사랑했던 우리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그 당시 나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할머니께서는 내가 보고 싶다 말씀하시고 눈을 감으셨다고 한다. 옆집 할머니를 통해 전해들은 유언은 의아하게도 “소도니에 가고 싶어…….”라는 한 마디였다. 어머니에게 여쭙보니, 소도니는 할머니의 고향이라고 한다. 할머니의 소도니는 여전히 할머니의 어머니와 어깨동무 친구들이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할머니는 삶의 길 끝에서 길이 시작된 곳을 생각한 것이다.

### 도니울 둘레길

도니울마을, 전국의 여러 농촌체험마을 가운데 가장 핫한 곳 중 하나다. 도니울의 정식 명칭은 도리리다. 얼마 전, 도니울마을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았다. 시골 어르신들 이야기로 책을 한 권 엮어보는 게 어떠하겠냐는 것이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 생각하고 있었다. 시골이야기를 글로 쓴다면 첫 번째가 이 마을일 거라 믿고 있었다. 도니울마을에는 깊은 사연과 필연적 우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자란 신갈리에서 땡땡이산 너머에 있는 도니울마을, 나는 이 동네와 정말 인연이 깊다. 나의 누나는 이곳 도니울마을로 시집을 왔다. 또한 누나의 소개로 잠깐 사귀던 처자가 살던, 익숙한 곳이기에 깊은 인연을 느낄 수도 있으리라. 도리리마을을 옛 사람들은 소도니라 불렀다. 그렇다. 옆집 할머니의 소도니가 바로 이곳이다. 도니울마을의 길을 걸어보며 할머니를 떠올려 본다.

도니울마을의 매력은 역시 도니울 둘레길이다. 도니울 마을회관에서 시작하는 둘레길은 시작부터 근사한 숲길을 만난다. 이 숲길을 나는 도니울 동굴길이라 부른다. 울창한 참나무들 때문에 한여름에도 어두운 이 길은 언제 걸어도 시원하다. 또한 마을회관에서 바로 이어지는 길은 접근성에서도 매력적이다.

동굴길을 벗어나면 마을길이 시작된다. 시골집들은 재밌다. 대개 시골집 정원을 꾸미는 일은 어머니들의 몫인데, 어머니들의 시샘은 여중생 못지않다. 어떤 집에서 근사한 꽃을 심었다 소문이 나면 다음 계절이 오기 전에 온 골목은 그 꽃으로 물





도니올마을 둘레의 동  
굴길

드는데, 어머니들의 그런 마음까지 읽어가며 시골집 꽃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좋은 곳이 바로 마을길이다. 논과 밭길을 따라 마을길이 끝나는 곳에는 커다란 나무가 있다. 내 생각에는 이천의 모든 나무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지 않나 싶다. 근사한 도리리 은행나무, 이 마을의 터줏대감인 송씨 가문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 은행나무는 노란 은행을 품고 있었다고 한다.

도니올 둘레길, 얼굴 깊이 주름 팬 어르신들이 논밭으로 향하는 오래된 길. 농촌 체험여행 왔다고 신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새로운 길. 과거와 미래는 이곳 도니올 마을에서 만난다.

### 모가면 논길, 이천의 들판길

“죽기 전 마지막 세 끼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 TV 다큐멘터리에서 홍콩의 최고 요리사에게 던져진 질문이다. 요리사는 고민할 것도 없이 “Fish!” 이렇게 답했다. 홍콩에서 태어나 가족과 함께 섬에서 항상 보고 맛본 것이 생선이었기 때문이었으리라. 같은 질문을 누군가 내게 해온다면 나는 주저 없이 “쌀밥!” 이라고 말할 것이다. 뭐, 나뿐이 아니더라도 이천 사람 누구라도 같은 대답을 하지 않을까?

다시 길이야기로 돌아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본다. “죽기 전 마지막으로 걷고 싶은 길이 있다면?” 이 또한 오래 고민을 하지 않겠다. 내가 굳이 생의 마지막에, 연인들의 프랑스 세느강 길이나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택하겠는가. 나는 옆집할머니처럼, 태어나 자란 이천의 들길을 걷고 싶을 것이다. 나뿐 아니라 이천 사람 대부분 비슷한 선택을 하리라 생각한다.

이천 사람들이 태어나서 걸었을 이천의 아름다운 들길을 떠올려 본다. 양녕대군의 옛이야기 담긴 군량리 자채방아마을의 호방한 들길, 매곡리·단천리·주미리·후안리를 흐르는 복하천 주변의 풍요로운 호법면의 들길, 산양리·석산리·북두리·오성리·신추리·고당리를 끼고 도는 석원천의 넉넉한 울면 들길, 1930년대에는 전국에서 가장 부유했던 곳 가운데 하나였던 장호원 청미천의 들길을 이천 사람들은 걷고 또 걸었을 것이다. 죽당천이 흐르는 신하리·아미리와 죽당리, 그리고 무촌리·수정리의 옛 들길과 효양산과 설봉산을 사이에 둔 전설 가득한 구만리 별판의 들길도, 정개산과 원적산이 감싸고 있는 백사와 신둔의 들길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이천의 들길





논길과 들판



이천의 쌀

이다. 또한 금당저수지로 더 이름난 성호호수 인근의 들판 길도 빼먹으면 아쉬울 것이다.

나는 모가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비교적 넉넉한 집안으로 남보다 험한 일은 덜했지만, 어쩔 수 없는 시골 아이라 집안일을 거들지 않을 수 없었다. 내 담당은 ‘소’였다. 그래봐야 소죽 쏘 때 할머니 옆에 앉아 있거나, 저녁이 되면 냇가에 묶어 놓은 소를 집까지 끌고 오는 것이 내가 할 일의 전부였다.

아버지는 우리 소를 뒷내개울에 묶어 두셨다. 모가면과 호법면의 들길을 가르며 흐르는 뒷내개울은 모가면 두미리에서 발원해서 어농리·석당리·송갈리와 신갈리를 거쳐 대포동에서 앞내개울과 만나고 고담동에서 복하천 줄기와 만난다. 소와 함께 걸었던 뒷내개울 독방길. 독길 옆 넓은 들의 이름은 작들이다. 작들의 원래 이름은 ‘관작들’이라고 아버지에게 들었다. 관에서 운영해서 궁궐에 진상을 하거나 관의 운영비로 쓰이는 쌀을 생산하는 들판이란 뜻이다. 작들에는 우리 집의 커다란 논이 있었다. 모내기를 할 때면 1980년대 초반 해도 수십 명이 달라붙어 겨우 하루에 끝낼 수 있던 크기의 논이었다. 친구들과 놀다가도 어머니가 작들로 밭 내가야 한다 하면 막걸리 주전자를 들고 어머니 뒤를 따라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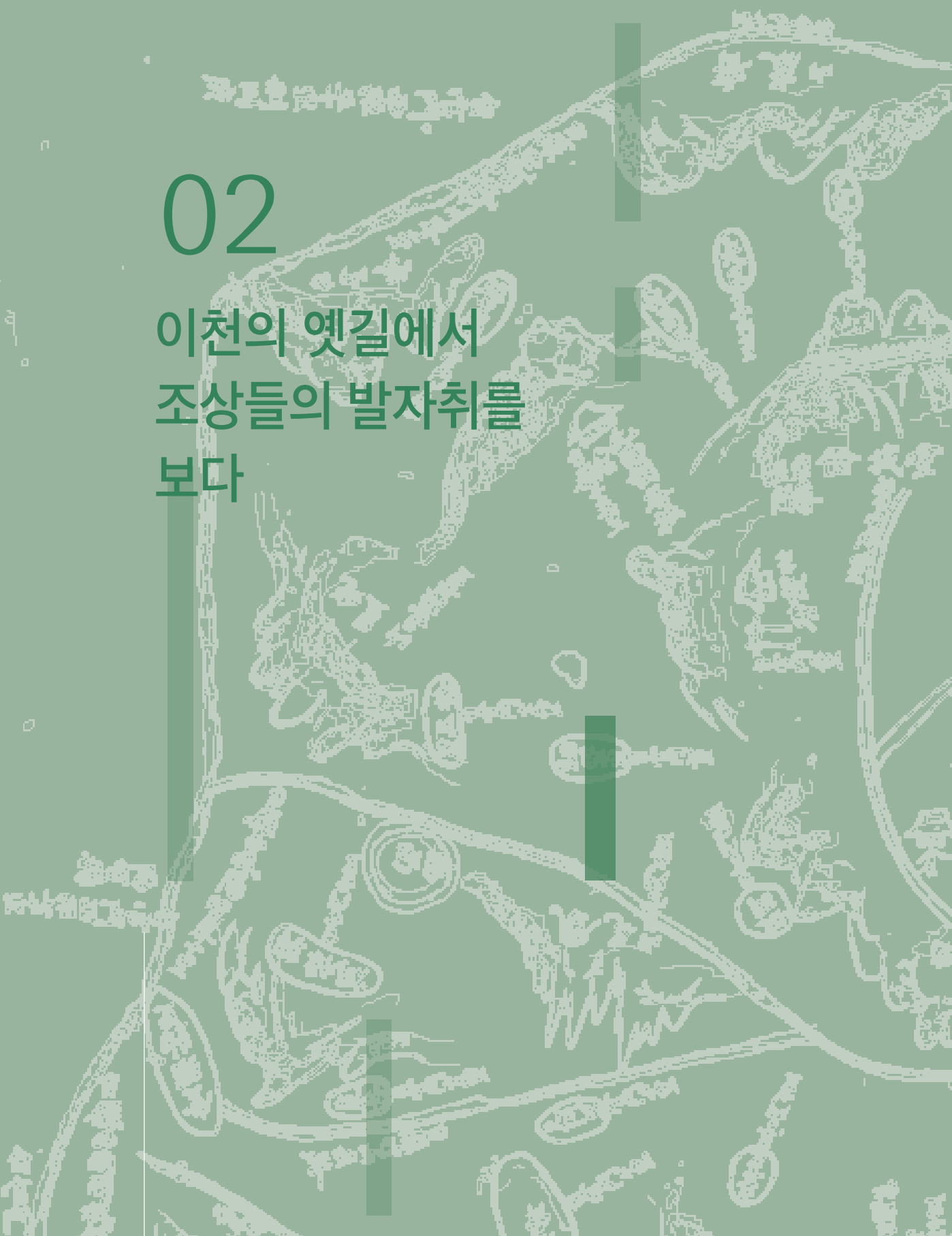
들밥을 이고 가시던 어머니, 그 뒤를 막걸리 주전자를 들고 따라 걷던 모가면의 들길과 햇볕이 뜨거워지는 5월의 논길. 논이 뻗어는 독특한 냄새가 나는데 거기에 풀냄새와 막걸리냄새가 섞여 풍기던 모가면의 들판길. 꼬마 애가 막걸리 들고 왔다고 칭찬해주는 등판 넓은 아저씨들과 말없이 대견한 눈길로 봐주시는 아버지의 따뜻함이 감싸던 논길. 신성한 노동과 생산의 경건함이 있던 그 길.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걷고 또 걸었을 부모님의 들길.

지금도 연로하신 부모님을 도와 일을 할 때면 예전의 따뜻한 기운이 남아 우리 논과 부모님, 그리고 나를 감싸고도는 모가면의 들판 길. 나는 모가면의 들길을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필자주 :** 내용 중 일부, 특히 감상은 길을 걷던 바로 그때의 생생한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자가 『설봉문화』 54호(이천문화원, 2016)에 실었던 내용과 단행본으로 펴낸 『그림다면 한번쯤 이천』(상상출판, 2015)에 실었던 내용 일부를 부득이 재수록 하였음을 밝힌다.

# 02

## 이천의 옛길에서 조상들의 발자취를 보다





양경직 |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제2장 이천의 옛길에서 조상들의 발자취를 보다

길은 사람이 만든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사람들은 흔적을 남긴다. 한 사람이 지나가면 발자국을 남기지만 열 사람이 지나가면 길이 생긴다. 그렇게 역사가 만들어진다. 길이란 선사시대에 사냥 다니던 길에서부터 시작한다. 강을 건너 어디 별판에 가면 어떤 동물이 많고, 언제 어느 때 어느 지역에 가면 또 어떤 동물이 많은지 때면 그 길로 다니면서 사냥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길은 후대에 고스란히 전해진다. 바위에 동물이나 고기 그림을 그려 놓는데 후손들이 사냥감을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표시한 것이다.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에 소재하고 있는 반구대 암각화가 좋은 예다. 이런 그림들이 발전하여 별판이나 산에 주로 나타나는 특정한 동물을 그려 놓고, 이때 실선으로 길 표기를 하였다. 이것이 현대 지도의 시초가 된 것이다.

길이 생기면 자연스레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먹고 마시고 쉬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역참과 역원을 설치하였고 장시場市 또한 자연스레 생기게 되었다. 신경준<sup>1712~1781</sup>은 『여암유고旅菴遺稿』<sup>1770</sup> 「도로고서道路考序」에서 “길이란 주인이 없고, 오로지 길 위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므로 옛 성왕이 경계를 바로 잡은 것이다. 밭을 나누어주고 길을 다스리는 것을 일시에 함께 행하게 하여 농부로 하여금 원할 때 밭에서 일하게 하고, 나그네로 하여금 길에 나가게 하였으니, 이 둘을 나란히 세우는 것은 어진 정치의 대체太體로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선비가 과거 시험을 위해 길을 나서고, 농부가 장을 가기 위해 길을 나서고, 장돌뱅이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 길을 나선다. 길 위에 길이 있듯이 길을 나서야 자신의 길이 열린다. 특히 조선시대 선비들이 합격의 부푼 꿈을 안고 걸었던 과거길에는 그들이 남긴 갖가지 사연들이 길 위에 흩뿌려져 있다. 과거 합격으로 영달榮達의 길에 들어선 선비들의 들뜬 모습도 그려지고, 불합격한 선비들이 터덜터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그려진다.

또한 중앙의 관리<sup>官吏</sup>들과 선비들이 역관에 머물면서 썼던 한시들, 특히 귀양길에 참담한 심경을 읊은 시들이 생각난다. 또한 장을 떠돌아다니며 장사를 했던 보부상들, 그리고 영남지방에 내려가서 소를 사서 서울을 비롯하여 경인지방 우시장<sup>市場</sup>에 비싼 값으로 되팔았던 소장수들이 그려진다. 이에 이들이 길 위에 떨군 역사를 이야기하려 한다.

## 1. 옛 이천지역의 역과 원

### 1) 이천 · 음죽 지역의 역驛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 이천지역을 지나가는 역은 총 네 개의 역이 있었다. 이 중에 오행역 · 안리역 · 무극역은 고려시대 역제도가 22역도-525속역 체제로 정비된 995년<sup>고려 성종 14</sup>에서 1136년<sup>고려 인종 14</sup> 사이에 광주도<sup>廣州道</sup>에 딸린 역이었다. 이후 조선 태종 1401년에 음죽현에 유춘역<sup>留春驛</sup>이 설치되면서 네 개의 역이 되었다.

#### 문헌상에 나타난 이천지역 역 일람

구분	고려사 (1451)	세종실록지리지 (1454)	신증동국여지 승람(1531)	여지도서 (1760)	대동지지 (1862)	이천군읍지 (1899)
이천	오행역 (吾行驛)	오천역 (吾川驛)	오천역	오천역	오천역	오천역
	안리역 (安利驛)	안리역	아천역(阿川驛)	아천역 (牙川驛)	아천역 (阿川驛)	아천역 (牙川驛)
음죽	무극역 (無極驛)	무극역	무극역	무극역	무극역	무극역
		유춘역(留春驛)	유춘역	유춘역	유춘역	유춘역

### 오천역吾川驛

오천역은 고려시대 광주도에 속한 15개 역 중 하나로 『신증동국여지승람』<sup>1530</sup>에 이천부 서쪽 22리 되는 곳에 있다고 하였다. 현재의 마장면 오천리로 1896년 1월에 폐지된 역이다. 고려시대에는 오행역五行驛으로 불렸다. 『여지도서』<sup>1760</sup>에 보면 대마大馬 2필, 기마騎馬 3필, 복마卜馬 5필, 역리驛吏 6명, 역노驛奴 3명, 역비驛婢 2명이 배속되어 있었다.

오천역은 경기도 양지에서 이천을 거쳐 여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안동 및 영덕지역의 진상물과 일본인들이 바치는 공물 등을 수송하는 주요 역 중 하나였다. 단양의 장림역을 거쳐 청풍의 수산역→황간역→충주의 연원역→가흥역→여주의 안흥역→신진역→양화역→이천의 아천역阿川驛→오천역吾川驛→광주의 경안역→덕풍역→양주의 평구역을 거쳐 한양<sup>1</sup>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던 역이다.

또한 1471년 10월 9일 성종이 세종대왕의 영릉英陵 배알을 위해 용인의 합천蛤川가에서 주정晝停하고, 저녁에는 이천의 오천역 앞들 파오달波吾達에서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다. 이후로도 이곳을 지나는 임금들을 위해 이천행궁을 짓게 되는데, 1528년중종 23과 1688년숙종 14에 이곳을 지나갔고, 특히 정조는 1779년 8월 6일 이천행궁에 머물 때 애련정愛蓮亭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였다.

### 아천역阿川驛

아천역은 고려시대 광주도에 속한 15개 역 중 하나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국여지』<sup>1656</sup>에는 이천부 북쪽 20리 되는 곳에 있다고 하였다. 현재 이천시 송정동 옛 송정1리일명 아리로, 1896년 1월에 폐지된 역이다. 이후 『여지도서』<sup>1760</sup>에는 이천부 북쪽 5리에 있다고 하였고, 『이천부읍지』<sup>1842</sup>와 『경기읍지』<sup>1871</sup>에는 이천부 북쪽 10리에 있다고 하였으며 『이천군읍지』<sup>1899</sup>에는 북쪽 6리 신동면에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문헌에 따라 아천역阿川驛과 아천역牙川驛으로 번갈아 가면서 명칭이 바뀌고 있고, 위치도 그때마다 바뀌고 있어 헷갈린다. 하지만 고려시대에 안리역安利驛으로 불렀다는 사실만 알고 나면 그렇게 헷갈리지 않는다.

이에 연유하여 옛 송정1리 속칭 ‘아리’는 아리역牙里驛에서 유래했다고 하였는

1) 『연산군일기』 권28, 연산군3년 10월 병오.

『경기읍지』(1871)  
「이천부지도」에  
표기된 오천역



『경기읍지』(1871)  
「이천부지도」에  
표기된 아천역



데, 『여지도서』에 아리역리牙里驛里로 기록되어 있고, 『조선지리지』<sup>1911</sup>에는 아천역牙川驛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아리’는 고려시대 ‘안리역’에서 유래한 지명임을 쉽게 알 수 있다.



## 무극역<sup>無極驛</sup>

무극역은 고려시대 광주도에 속한 15개 역 중 하나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음죽현 남쪽 30리 지점에 있다고 하였다. 『여지도서』에 보면 무극역에는 역마<sup>驛馬</sup>가 상등마 1필, 중등마 3필, 하등마 1필이 배속되어 있다고 하였다. 무극역은 본래 경기도 음죽군 무극면 관촌리<sup>館村里</sup>였는데, 1906년 9월 28일 전국의 두입지<sup>斗入地</sup><sup>2</sup>와 비입지<sup>飛入地</sup>를 정리할 때 충청북도 음성군에 이속<sup>移屬</sup>되었다. 무극역 앞을 지나가는 길이 영남대로인 동래대로로 무극역은 한양—용인—죽산—음죽을 거쳐 동래로 가는 중간 역이었으며, 이에 딸린 원이 돌원<sup>廻院</sup>이었다. 1896년 1월 폐지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무극역에서 하룻밤 머무르며 갖가지 사연을 시로 남겼다.

적암<sup>適菴</sup><sup>3</sup>의 시를 차운하다. 때마침 노인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면서<sup>4</sup>

적수금릉객<sup>適叟金陵客</sup> 금릉의 나그네 적암<sup>適菴</sup>이  
 귀심일야최<sup>歸心日夜催</sup> 밤낮 돌아가고픈 마음 재촉하는구나.  
 세잔강북설<sup>歲殘江北雪</sup> 강북의 눈 세월 따라 쇠잔해가고  
 춘동영남매<sup>春動嶺南梅</sup> 영남엔 매화는 봄기운이 감도는구나.  
 무극가조반<sup>無極加朝飯</sup> 무극역에서 아침을 밥을 먹으며  
 중원취남배<sup>中原醉臘杯</sup> 중원<sup>中原</sup><sup>5</sup> 땅에서 남주<sup>臘酒</sup><sup>6</sup>에 취하네.  
 부시형삭건<sup>賦詩橫槊健</sup> 시령 위에 가로로 걸어 놓은 시<sup>詩</sup>가  
 경천위왕재<sup>輕踐魏王才</sup> 위왕<sup>7</sup>의 재주를 업신여기는구나.  
 무극역명<sup>無極驛名</sup>

이 시를 지은 박상<sup>朴祥</sup>, 1474~1530은 당대 성현·신광한·황정욱과 더불어 문장사가<sup>文章四家</sup>로 일컬어지던 인물이다. 자는 창세<sup>昌世</sup>, 호는 눌재<sup>訥齋</sup>이고 본관은 충주<sup>忠</sup>

- 2) 군현의 경계가 지세를 무시하고 타군 경계 안으로 깊이 침입한 땅을 말한다. 경계가 마치 개 이빨 모양이라고 해서 견아상입지(犬牙相入地)로 불렸고, 북두칠성처럼 파고들었다 해서 두입지(斗入地)라고도 했다.
- 3) 조신(曹伸, 1450~1524)의 본관은 장녕(昌寧), 자는 숙분(叔奮) 또는 숙도(叔度), 호는 적암(適菴, 適庵)이다. 어려서부터 매형인 점필재 김종직에게 수학한 인물로 서출이었지만 외국어에 능통하여 성종은 사역원정(司譯院正, 종3품)으로 특진시켰고, 추후 공조판서를 추증하고 시호를 효강(孝康)으로 내렸다.
- 4) 박상, 『눌재집(訥齋集)』 三, 律詩, 1843. 한국고전번역원 번역.
- 5) 통일신라시대 충주의 옛 지명.
- 6) 남주: 설달에 빚어 만든 술을 말한다.
- 7) 위왕(魏王): 위나라를 세운 조조(曹操, 155~220)를 말한다. 무장 출신이었지만 문학의 융성을 가져왔을 정도로 시문을 애호하여 우수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州이며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그런 당대의 대문장가가 무극역에 걸어 놓은 조신曹伸. 1450~1524의 현판시가 궁급하여 발걸음을 재촉하여 와서 보고는 감탄하고 있고, 또한 십청헌十淸軒 김세필金世弼, 1473~1533이 조신의 시를 차운하여 쓴 시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행李荇, 1478~1534이 갑자사화甲子士禍, 1504에 몰려 충주로 귀양 가던 길에 무극역에서 쓴 시가 애잔하기만 하다.

### 귀양살이하며 적다 謫居錄<sup>8</sup>

무극無極의 역졸驛卒이 나에게 말하기를, “닷새 전에 한 젊은 벼슬아치가 남방으로 귀양 가더이다” 하기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바로 우리 중열仲說<sup>9</sup>이라. 느껴워 탄식하고 시를 지어 정회情懷를 숨기지 않노라. 때는 4월 11일이다. 3수三首

아계북비석我繫北扉夕	내가 감옥에 묶여 있던 저녁
군선남찬시君先南竄時	그대는 먼저 남쪽으로 귀양 갔지
괴리부중견乖離不重見	서로 어긋나 다시 못 만났으니
상란우여기喪亂偶如期	기약한 듯 우연히 재난을 만났네
무괴삼생지無愧三生志	삼생의 뜻에 부끄러움이 없건만
환차오일지還差五日遲	닷새 더딘 것을 외려 탄식하노라
심지시사별心知是死別	이것이 사별인 줄 내심 아노니
민면막상사黽勉莫相思	서로 애써서 그리워하지 마세나

이행의 본관은 덕수德水이고 자는 택지擇之이며 호는 용재容齋 · 창택어수滄澤漁叟 · 청학도인靑鶴道人이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이 시는 이행이 1504년 사간원헌납으로 있으면서 연산군 생모의 복위를 반대하다가 귀양을 간 충주에서 남긴 시이다. 이후 중종반정으로 복권되어 우의정 · 홍문관대제학 · 좌의정을 지냈으며, 간신 김안로를 논박하다가 평안도 함중으로 유배를 갔고 1534년 적소謫所에서 졸한 인물이다.

이 시는 이행이 귀양 가는 길에 역졸로부터 닷새 전에 자신보다 먼저 무극역을

8) 이행, 『용재집(容齋集)』, 1634. 한국고전번역원 번역, 1504년(연산군 10) 여름 4월에 충주로 귀양 간 후에 지은 글.

9) 박은(朴聞, 1479~1504)은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시인이다.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중열(仲說), 호는 읍취헌(挾翠軒)이다. 1496년(연산군 2)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사가독서자(賜暇讀書者) 선발에 뽑혔다. 그 뒤에 곧 승문원권지(承文院權知)를 받고 홍문관에 선택되어 정자가 되고, 수찬에 있으면서 경연관을 지냈다. 박은은 1504년 갑자사화 때에 동래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의금부에 투옥되어 사형 당했다.



서쪽으로 가다가 유춘역에 이르러 동행에게 보여주며 읊는다[西行至留春驛 吟示同行]<sup>10</sup>

추풍목엽동처처秋風木葉動悽悽	가을바람에 나뭇잎은 쓸쓸히 나풀거리고
십재중래객로미十載重來客路迷	십 년 만에 다시 오니 나그네 길 희미하구나.
고촌월백인성혈孤村月白人聲歇	한적한 마을 달 밝은 밤 사람소리 잠잠한데
독유한공진야제獨有寒蛩盡夜啼	유독 쓸쓸하게 귀뚜리 밤새 울어대누나.

또한 김세필金世弼, 1473~1533이 유배 온 곳이기도 하다. 본관은 경주이고 자는 공석公碩이며 호는 십청헌十淸軒·지비옹知非翁이고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1495년 사마시에 합격한 이후 대사헌과 이조참판을 지내고, 1519년 기묘사화 때 조광조를 사사賜死하자 임금을 극구 규탄하다가 유춘역으로 장배杖配 되었다.

## 2) 이천 · 음죽 지역의 원院

조선시대 이천지역에는 잉읍원과 관천원이 있었고 음죽지역에는 부민원 · 장해원 · 관사원과 돌원臺院이 있었다. 그런데 무극역에 딸린 돌원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문헌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원院은 공적인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나 상인 등 공무 여행자에게 숙식편의를 제공하던 공공여관을 말한다. 공무로 여행하는 관리들을 위하여 역참제도가 설립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으며, 우역제郵驛制가 도입될 당시에 역의 보조기관으로 여행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참站도 함께 설립되었다. 전국의 교통요지에 여행자들이 급증하여 이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였을 것이며 그 필요성에 의하여 많은 원이 설립되어 휴식시설로 이용되었다.<sup>11</sup>

10) 손흥례(孫興禮), 『삼성재유고(三省齋遺稿)』, 1787.

11) 정기범, 「조선후기 충북 동북부의 도로와 취락 : 음성지역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신증동국여지승람』<sup>1530</sup>에 나타난 옛 이천지역 원院의 위치

구분	신증동국여지승람		현 위치
	명칭	문헌상의 위치	
이천도호부	잉읍원(仍邑院)	부 북쪽 22리	백사면 현방리 추정
	관천원(貫川院)	부 남쪽 5리	미상
음죽현	부민원(富民院)	현 동쪽 5리	장호원읍 이황리
	장해원(長海院)	현 동쪽 13리	장호원읍 장호원리
	관사원(貫寺院)	현 남쪽 13리	율면 월포2리로 추정

## 잉읍원 仍邑院

잉읍원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경기읍지』<sup>1871</sup>에 북쪽 22리에 있다고 기록된 이후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세기 말에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천역이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국여지지』<sup>1656</sup>에 북쪽 20리 되는 곳에 있다고 기록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잉읍원은 아천역에 딸린 역원으로 여겨진다. 관아로부터 22리라면 8km 남짓한 거리로 현재 백사면사무소 현방리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마을에 원院과 관련한 지명유래가 채록되지 않고 있어 자세한 위치는 알 수 없다. 다만 오천역에 오천장이 있었듯이 현방리에 장터거리현방장과 웅기점이 채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현방리에 잉읍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관천원 貫川院

관천원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국여지지』에 이천부 남쪽 5리 되는 곳에 있다고 하였고, 『해동지도』<sup>1750년 추정</sup> 「이천부지도」의 지지地誌에는 관천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도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 이후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7세기 말에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관아로부터 5리라면 2km 남짓한 가까운 거리로 현재 북하천 못 미친 근방이 이에 해당하는 거리이다. 다만 자세한 위치는 미상이다.

## 장호원 長湖院

장호원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장해원長海院은 음죽현 동쪽 13리에 있다고 하였다. 현재의 위치는 장호원읍 장호원리이다. 장호원은 예전부터 “땅이 비옥하고 또한

관찬(官撰) 최초로 장호원(長湖院)을 표기한 『여지도(輿地圖)』(1760)



청미천을 따라 물대기가 좋아 살만하였고, 남쪽 길의 요충으로 장사꾼들이 많이 몰려들어 상인들이 그것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sup>12</sup>고 하였듯이 일찍부터 발달하였다.

영남대로 교통의 요지에 오래전부터 유춘역에 딸린 장호원과 늘 성시(盛市)를 이루던 장호원장이 있어,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 말기까지 경기 남부 및 충청 북부지역에서 안성과 함께 가장 번성했던 지역이다. 『동국문헌비고』 1770에도 장해원시장(長海院市場)은 매월 4일과 9일에 월 6회 개시(開市)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이천군 청미면(淸湊面)에 관한 보고」<sup>1941</sup>를 보면 장호원 일대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고래(古來)로 대시장이 있어 상공업 및 교통의 중심지로 경남 일대(京南一帶)의 물산 집산지이다. 경남철도 경기선(京畿線) 개통과, 동일은행(東一銀行) 및 이천농업창고와 기타 각종 관공서 및 회사들이 계속 설립되면서 매년 인구가 팽창한다. 따라서 근대적 지방 도시로서의 읍 제도 설치가 요망되는 이유다”라고 하면서 읍 설치를 요망하고 있다.

1941년 당시에도 이미 장호원은 현대의 신도시에 견줄만한 전형적인 도회지의 균형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장호원의 풍성함을 조선시대 시인묵객들이 시로 남겼다. 그중에 김영행(金令行, 1673~1745)의 「장호원팔경」<sup>13</sup>이 장호원을 장호원답게 한층

12) 성해옹(成海應),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 간행연도 미상.

13) 김영행, 『필운고(弼雲稿)』, 1747.

빛나게 하고 있다. 그는 오갑조옥烏甲朝旭·백죽청람白竹晴嵐·유제목동柳堤牧童·추담어가楸潭漁歌·금교황도金郊黃稻·교시청림橋市靑帘·용두숙운龍頭宿雲·해수귀파蟹首故波 등의 제목으로 시를 지었다. 여기서는 「교시청림橋市靑帘」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 교시청림橋市靑帘<sup>14</sup> : 석교石橋 장시場市의 주점酒店

청림처처울금향靑帘處處鬱金香 술집 곳곳에선 울금향鬱金香<sup>15</sup> 그윽하고  
기개유랑취복성幾箇遊郎醉復醒 몇몇의 노는 사내 취했다가 다시 깨네.  
운우무산유환몽雲雨巫山休喚夢 무산巫山<sup>16</sup>의 사랑 이야기 같은 꿈을 부르지 마소  
장화노류본무정牆花柳本無情 담장의 꽃 길가의 버들은 본래 무정無情한 것이라오.

장호원에 대한 지명유래는 장호원고등학교 앞 들판에 있었던 추택楸澤을 넓은 바다처럼 여기고 ‘바다 해海’ 자를 써서 장해원으로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각종 읍지나 시인묵객들이 장해원長海院·장호원長湖院·장후원長厚院·장호長湖·장원長院 등으로 혼용하다가 최종적으로 장호원長湖院이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 장호원으로 불리게 되었을까. ‘호수 호湖’ 자가 들어가 있는 장호원을 처음으로 기록한 문헌은 『백담유집白潭遺集』 1807년경에서 조우신趙又新, 1583~1650이 쓴 「장호원도중長湖院途中」이 지금까지 알려진 최초의 기록이다.

### 장호원도중長湖院途中

재랑기마돈여외齋郎騎馬鈍如蛙 재랑齋郎<sup>17</sup>이 타고 가는 말은 느리기 개구리 같고  
행향가산망안시行向家山望眼睵 고향을 향해 가며 산을 바라보니 아득 하기만 하구나.  
안득선인축지술安得仙人縮地術 어찌하면 선인仙人의 축지법을 얻을 수 있을까  
토천중험별언괴兔遷重險警然過 험준한 토천兔遷을 언뜻 지나가는구나.

14) 청림(靑帘): 주막에 표지로 세운 푸른 깃발. 곧 주점(酒店)을 뜻하는 표현이다.

15) 울금향(鬱金香): 울금향(鬱金香)을 넣어 만든 술. 울금(鬱金)의 뿌리를 넣으면 술 빛이 황색(黃色)으로 변하고 향기가 난다고 한다.

16) 운우무산(雲雨巫山): 전국시대 초(楚)나라 송옥(宋玉)의 「고당부(高唐賦)」에 초 양왕(楚襄王)이 일찍이 고당(高唐)에서 낮잠을 자는데, 꿈에 한 여인(女人)이 와서 “저는 무산(巫山)의 여자로서 고당의 나그네가 되었는데, 임금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왔으니 원컨대 침석(枕席)을 같이해 주소서”라고 하므로, 과연 그녀와 하룻밤을 같이 잤더니 이튿날 아침에 그 여인이 떠나면서 “저는 무산의 양지쪽 높은 구름의 험준한 곳에 사는데, 매일 아침이면 아침 구름이 되고 저녁이면 내리는 비가 되어, 아침마다 저녁마다 양대의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했다는 데서 온 말로, 이 고사는 흔히 남녀 간의 정사에 관한 일을 의미한다.

17) 조선시대, 묘(廟)·사(社)·전(殿)·궁(宮)·능(陵)·원(園)의 참봉(參奉)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 관사원 貫寺院

관사원은 영남대로 사잇길<sup>間路</sup>인 울면 월포2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국여지지』에 관사원은 음죽현 남쪽 13리 지점에 있다고 기록한 이후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7세기 말에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사원은 임오산에 있었던 사찰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초기 사찰 정리 당시에 국유화된 점을 고려해 볼 때 대부분의 원은 사찰에서 건립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 생각한다. …… 고려시대의 원은 조선왕조의 성립과 동시에 단행된 사찰의 정리에 따라 대부분이 국유화 되어 운영 여관으로 전환되었다. 조선초기의 원은 대부분 사찰에서 운행했던 것을 국유화한 것이었으나, 그밖에 참<sup>站</sup>·관<sup>館</sup>을 원<sup>院</sup>으로 개조한 것, 지방의 유지들이 자발적으로 설립·운영했던 것 등도 적지 않았다.<sup>18)</sup>

그렇다면 관사원의 위치는 어디일까. 음죽현 남쪽 13리 지점의 마을은 퇴포리<sup>退浦里</sup>, 토계와 동문리<sup>洞門里</sup>, 골무니로 현재 울면 월포2리 옥야촌<sup>沃野村</sup>이 이에 해당한다. 임진왜란 이후 1597년 임오산에 임오참<sup>林鳥站</sup>을 설치하였는데 월포2리는 바로 임오산 아래에 위치한 마을로, 이 마을에서 관사원으로 추정되는 지명유래가 채집되었다. 『이천시 울면 문화유적·민속보고서』<sup>1997</sup>에 보면, “원터 : 월포2리 임오산 밑에 있는 터.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과거 보러 왔다가 쉬어가는 숙박지였다”고 채록된 것으로 보아 관사원의 위치는 월포2리로 추정되고 있다. 임오산은 음죽현과 충주목의 경계로 『대동지지』<sup>1861~1866년</sup> 경 충주목조에 “사잇길 임오고개는 서쪽 길 음죽 경계로 대로 육십고개<sup>六十峙</sup>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육십고개<sup>현 아홉사리고개</sup>는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큰바위얼굴 테마파크로 넘어가기 직전의 고개를 말한다.

18) 정기범, 「조선후기 충북 동북부의 도로와 취락 : 음성지역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부민원富民院

부민원은 유춘역에 딸린 역원으로 이천과 광주를 거쳐 한양으로 가던 길목에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국여지지』에 음죽현 동쪽 5리 지점에 있다고 기록된 이후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7세기 말에 폐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해동지도』, 「음죽현지도」를 비롯하여 여러 지도에 부민원이 있었던 곳으로부터 약간 북쪽에 문현원고개(門懸院峴)가 표기되어 있는데 ‘원院’ 자가 붙어 있다. 그렇다면 역원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음죽현읍지』에 나타나지 않지만 지도에 문현원이 계속하여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고개 아래에 원이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현원은 공식 역원은 아니고 폐쇄된 이후 누군가 이름 없이 비공식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이 이곳에 머물다가 떠나면서 과거 합격을 기원하는 축원(祝願)을 써서 문에 매달자 이후로 문현원으로 부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정기범의 「조선후기 충북 동북부의 도로와 취락 : 음성 지역을 중심으로」에서,

원院에서의 교역 행위를 금지했기 때문에 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서 16세기 중반부터 방치되는 원이 속출하였다. 특히 임진왜란 중 영남대로 상의 원이 대부분 폐쇄되었다. 전란 후에도 군읍의 고관들이 사행시(使行時)에 많이 이용한 객관(客館)이나 역관(驛館)들은 대부분 복구되었지만, 하급관리들이 주로 이용했던 원은 거의 복구되지 않았다.

라고 한 것을 보면 그럴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유형원<sup>1622~1673</sup>은 『반계수록(磻溪隨錄)』<sup>1770</sup> 참점조(站店條)에서,

원이란 곳에는 지금 주인이 없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거의 파괴되었다. 원의 설립처는 좋았으나 운영방식에는 찬성할 사람이 드물 것이다. 원의 설립자가 죽은 후에는 대부분 방치되었다. 원에는 땔나무와 음료수만 준비되어 있을 뿐이며, 숙종조 이후에는 원에 관리자가 있는 경우가 드물었다.

라고 하는 점으로 보아 전국적으로 많은 원이 그즈음 이미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광여도』(1800) 「음죽현지도」에 표기된 문헌원고개[門懸院峴]



조선 후기에 이르러 대부분의 원이 폐쇄된 후로 주막촌酒幕村으로 바뀌어 주막이 원의 기능을 대행한 경우가 많았다. 18세기에 원은 거의 폐쇄된 상태라 사설 숙박업소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여점旅店·야점夜店·주막酒幕 등으로 불렸다. 이러한 주막 등은 폐쇄된 원의 기능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막에서는 여행자들로부터 소정의 대금을 받고 침식 및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였으므로, 땀감과 음료만을 제공하는 원보다 주막을 이용하는 자가 훨씬 많게 되었다.<sup>19)</sup>

따라서 부민원은 임진왜란 때 폐쇄된 이후 개인이 문헌원 이름으로 운영하다가 주막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지리지자료』<sup>191)</sup>에 보면 유춘역은 배나무정이에 있었다고 기록하였고, 또한 이 마을에 배나무정이주막[梨木亭酒幕]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이천군지』<sup>1984)</sup>에도 수백 년 전 배나무 정자가 도로 변에 있어 과객에게 휴식처로 이용되어 배나무정이가 되었다는 마을 지명유래가 채집되어 있다.

배나무정이는 곧 장호원을 이황1리이다. 과거 유춘역과 부민원, 그리고 비공식적이지만 원의 역할을 대신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문헌원과 배나무정이주막이 있

19) 정기범, 「조선후기 충북 동북부의 도로와 취락: 음성지역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었던 전형적인 역촌驛村이었다. 여기에서 배나무정이주막에 방점을 찍으면 부민원-문현원-배나무정이주막으로 연결된다. 배나무정이이황리 바로 아랫마을인 선읍1리를 원하리院下里로 부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문현원고개의 명칭 변천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문헌자료를 정리해 보면 1750년에서부터 1800년까지 문현원고개로 기록하였고, 1856~1872년까지 ‘원院’ 자를 빼고 문현산·현문산으로 기록하였으며, 1899년에 현문현으로 기록한 이후 1918년에 ‘문현치文峴峙’로 왜곡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1963년부터 지도에 한글로 문드러니고개를 표기하였는데, 고개 아래에 문드러니 마을[文得村]<sup>20</sup>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1971년 전일훈의 후손 전대하가 구룡바위를 찾으러 이황리를 찾았다가 마을 사람의 구전만 듣고 문득현文得峴으로 기록하였고, 2010년에는 문득원과 문득원치로 다시 또 변질되고 있다. 표의 문드러니고개의 명칭 변천을 참고하기 바란다.

#### 문드러니고개의 명칭 변천

연대	명칭	문헌 출처
1750년대 초	문현원현(門懸院峴)	『해동지도』 「음죽현지도」
1736~1767년 사이	문현원현(門懸院峴)	『여지도』 「음죽현지도」
1776년	문현산(門懸山)	『조선팔도지도』
1776년 이후	문현현(門懸峴)	『여지도』 「음죽현지도」
	문현원치(門懸院峙)	『지승』 「음죽현지도」
1800년	문현원현(門懸院峴)	『광여도』 「음죽현지도」
1834년	현문산(懸門山)	『청구도』
	현문산(懸門山)	『청구요람』
1835년	문갈현(文碕峴), 문봉(文峰)	『구룡암세록』(1981/1997) <sup>21</sup>
1842~1843년경	현문현(懸門峴)	『경기지』 「음죽현지도」
1856~1861년 사이	문현산(門懸山)	『동여도』 「음죽현지도」
1861년	문현산(門懸山)	『대동여지도』
1861~1866년경	문현산(門懸山)	『대동지지』 「음죽현지도」

20) 이천문화원, 『이천시 장호원 문화유적 · 민속조사 보고서』, 1999.

연대	명칭	문헌 출처
1871년	문현산(門懸山)	『경기읍지』 「음죽현지도」
1872년	현문산(懸門山)	『1872년 지방지도』 「음죽현지도」
	문현(門峴)	『1872년 지방지도』 「여주목지도」
1899년 5월	현문현(懸門峴)	『음죽군읍지』 「음죽현지도」
1918년	문현치(文峴峙)	「조선총독부, 1:50,000 지도」
1963년	문드러니(마을), 문드러니고개	「국립건설소, 1:50,000 지도」
1964년	문드러니(마을), 문드러니고개	「국립건설소, 1:50,000 지도」
1971년	문드러니(마을), 문드러니고개	「국립지리원, 1:50,000 지도」
1971년 5월	문드레고개, 문득현(文得峴)	『구룡암세록』(1981/1997) <sup>22</sup>
1972년 4월	문갈현(文磡峴)	「구룡암유지비문(九龍巖遺址碑文)」
1977년	문갈현(文磡峴), 문갈고개	『구룡암세록』(1981/1997) <sup>23</sup>
1997년	문득촌(文得村), 문득현(文得峴)	『이천시 장호원 문화유적·민속조사 보고서』(1999)
2004년	문갈현(文磡峴), 문득현(文得峴), 문드러니고개	『설봉문화』(2004) <sup>24</sup>
2010년	문득원치(文得院峙), 문득원(文得院)	『장호원 이야기』(허섭, 2010) <sup>25</sup>

그러나 표의 갈색 굵은 글씨로 표시한 지명은 문헌적 근거가 없이 기록한 오류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원이라면 적어도 『음죽현읍지』에는 나타나야 하는데 문현원·문득원·문갈현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단지 여러 지도에 문현원고개 門懸院峴만이 꾸준히 기록되고 있다.

21) 박시원의 2남 박종후(1792~1855)가 1835년 8월 28일 마을 사람 신순길(申順吉) 집에 머물며 구룡암 위치를 알아내 바위 앞에 연못을 파고 「고유축문」을 쓸 때 ‘문봉(文峰)’으로 기록하였고, 이후 당시의 일을 기록하여 『구룡암계첩(九龍巖契帖)』(1847)에 실린 「구룡암착당시일기(九龍巖鑿壙時日記)」에 ‘문갈현(文磡峴)’으로 기록하였다.

22) 전일홍의 6대손 전대하(全大河)가 1971년 5월에 쓴 「구룡암을 찾아서」에서 “마을 사람 신두성 씨를 방문하여 문갈현이란 데를 물어보니 ‘문드레고개’가 있긴 한데……”라고 기록하였고, 또한 마을 사람 주한수의 말이 “여기 문드레고개를 옛날엔 문득현(文得峴)이라고도 했는데, 까닭은 영남지방에서 과거 보러 다니는 선비들로서 그 구룡바위에 올라 쉬어간 분은 반드시 길운을 얻어 급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소년 적에 노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23) 박돈서는 「서문」에서 문갈현과 문갈고개로 기록하였다.

24) 『설봉문화』 제32호에 수록된 「구룡암을 찾아서」에서 이인수는 상기 『구룡암세록』(1981/1997)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25) 허섭은 이 책 「문드러니고개」에서 “장호원 나래리에서 이천방면으로 넘어가는 3번국도의 읍 경계에 있는 고개를 문드러니고개(文得院峙)라고 했다. …… 이 고개를 넘은 국도 바로 왼편에는 원(院)이 있어 왕래하는 인마가 숙식을 했다. 국가에서 운영한 숙박소가 바로 문득원(文得院)이었다.”라고 하였다.



‘문현門懸’의 의미는 문門에 글을 써서 매달았다懸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써서 문에 매달았을까? 부민원이 폐원된 이후 과거 보는 선비들이 이곳에서 머물면서 합격을 기원하는 등용문부登龍門符를 매달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입시를 보는 자녀들의 합격을 기원하기 위해 부모들이 교문에 엇 또는 부적을 붙이는 풍습이 지금도 남아 있다. 이와 유사한 지명으로는 선비가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유래한 경기도 광주시 오폭읍 신현리와 문형리에 걸쳐 소재하고 있는 문현산門懸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유로 이곳을 지나 여주로 넘어가는 고개를 자연스럽게 문현원으로 지었을 개연성이 높다. 이후 문현에 의해 전해지기보다는 구전되다 보니 음운변화를 일으켜 문달어니고개 → 문다러니고개 → 문드러니고개로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반만 말린 명태를 코다리라고 하는데, 께어[串] 매달았다고 하여 ‘코달어니’로 부르다가 코다리로 변형되어 지금에 이른 것과 같은 음운변화로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실제로 문드러니고개에는 과거科擧와 관련하여 구룡암계九龍巖契를 맺은 아홉 명의 후손들이 1972년에 세운 「구룡암유지비九龍巖遺址碑」가 장호원을 이황리 341-10번지에 있다. 『구룡암세록』1981/1997에 의하면 구룡암계에 등장하는 아홉 사람은 이주정李周禎, 1750~1818, 이귀성李龜星, 1756~1835, 류회문柳晦文, 1758~1818, 정약수丁若琇, 1761~1816, 권위權偉, 1762~1835, 전일흠全一欽, 1762~1798, 박시원朴時源, 1764~1842, 권보權補, 1765~1831, 이가순李家淳, 1768~1844으로 이들의 후손들이 비를 세운 것이다. 대단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이천 향토사학자 이인수는 “1972년 8월 23일 문드러니고개에서는 마침내 「구룡암유지비」를 세워져 이날 제막식이 열렸다. 그 옛날 선조들이 맺은 아름다운 우정이 180년의 시공을 뛰어넘어 후손들의 손으로 다시 꽃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경충산업도로가 다시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기념비가 또다시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된다. 구룡계九龍契가 다시 나서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교섭을 진행한 끝에 1995년 10월, 가까운 도로변에 있는 장호원JC 동산에 새로운 기념비를 건립하여 오늘날에 이른다”<sup>26</sup>고 하였다.

26) 이인수, 「구룡암을 찾아서」, 『설봉문화』 제32호, 이천문화원, 2004.

구룡암계 9인 중 한 명이었던 이가순은 『구룡암동유록九龍巖同遊錄』<sup>27</sup>에서,

바위는 고개 서쪽 설성陰竹의 古號 이화역梨花驛 북쪽으로 기억한다. 옛날 정조 19년 1795 3월에 성균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홉 사람이 지팡이와 짚신을 신고 같이 이 바위에 올랐다. 철성鐵城 이지현李知縣, 현감 이주정 어른께서 구룡九龍이라 이름 지으시니 여럿이 모두 좋다고 하였다. 그 뒤에 과거에 오른 이가 이미 세 사람인데 여기에 이어 또 장차 몇 사람이나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중에 전형全兄, 전일홍이 1795년의 원한을 풀지 못한 채 아깝게도 세상을 버리게 되었음은 원통하고도 원통한 노릇이다. 이제 그 아들 종익宗翼, 大瀾으로 고침이 나를 선친의 뛰어난 친구라 하여 찾아와 보니 생각하매 슬프다. 인하여 전에 빌렸던 책자冊子 하나를 베끼고 돌려주었더니, 전군全君<sup>28</sup>이 나더러 「용암유록龍巖遊錄」을 써달라고 청하기에 드디어 그 권말에 써서 돌려보낸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음죽현에 이화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시에 그들이 머물던 마을에 있었던 유춘역을 이화역으로 착오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그들이 머물던 마을은 현재의 이황1리로 1789년 『호구총수』에 유춘역이 있어 역촌驛村으로 부르다가, 1842년 『음죽현읍지』에 유춘역으로 기록되면서 줄곧 내려오다가, 1896년 1월에 유춘역이 폐지되고 1911년 『조선지리지자료』에 배나무정이[梨木亭]로 불렸던 마을이다. 이후 1914년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 때 배나무정이[梨木亭]·황정개[黃庭浦]·갈월[蘆洞]을 통합하여 이황리라 하였다.

여기에서 1911년 배나무정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훨씬 이전부터 그렇게 불렸다는 이야기가 된다. 사실, 배나무정이 마을에는 암행어사로 유명한 박문수<sup>1691~1756</sup>의 설화가 전해지고, 아울러 배나무정이[梨亭]의 지명유래 역시 박문수가 지었다<sup>29</sup>고 전해지고 있다. 이런 정황으로 보면 당시 마을의 고유지명이 ‘배나무정이’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차후 더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어쨌든 구룡암계를 맺은 9인 중 문집을 남긴 『대계선생문집大溪先生文集』 이주정, 1846,

27) 안동민속박물관, 『안동의 계(契)』 1, 2006 ; 1806년(순조 6) 전일홍의 아들 전종윤이 이가순에게 「용암유록(龍巖遊錄)」을 요청하였고 계획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차례로 구룡암의 모임을 기념하는 글을 받아 1806년 『구룡암동유록(九龍巖同遊錄)』을 엮었다.

28) 전일홍의 아들.

29) 이천문화원, 『이천시 장호원 문화유적·민속조사 보고서』, 1999.

『속은재문집 俗隱齋文集』 이귀성, 19세기, 『하계문집 霞溪文集』 이가순, 1903, 『일포집 逸圃集』 박시원, 1863~1907 추정, 『석와집 石窩集』 권위, 1863에는 용암 龍巖으로 기록했을 뿐, 유춘역·문현원·문현원고개·문갈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박시원의 2남 박종후가 1835년 「구룡암착당시일기 九龍巖鑿塘時日記」에서 문갈현 文碭峴으로 기록한 것이 최초이다. 1835년 이면 그의 아버지 박시원 1764~1842이 생존하고 있을 시기이므로 아버지에게 듣고 기록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전일흠의 6대손 전대하가 1971년 5월, 구룡암을 찾으러 이황리에 와서도 역시 문갈현을 찾고 있다는 것은 그들은 대대로 문갈현으로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 된다.

그렇다면 박시원은 왜 아들에게 고개 이름을 ‘문갈현’으로 알려 주었을까. 이에 대해서 고개 넘어 여주 쪽에서는 어떻게 불렀는지 알아보았더니 『여지도』 1736~1767와 『광여도』 1800, 그리고 『지승』 1776년 이후 「여주목지도」에 ‘갈로현 葛老峴’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1872년 지방지도』 「여주목지도」에 비로소 ‘문현 門峴’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로 보아 여주 쪽에서는 갈로현 葛老峴으로 부르다가 음죽에서 부르는 문현 門懸峴이 더욱 유명해지다보니 여주에서도 ‘문현 門峴’으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박시원은 갈로현과 문현현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헛갈려 하다가 아들에게 ‘문갈현’으로 알려준 것으로 여겨진다.

문드러니고개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하면 맨 처음에는 문현원현 門懸院峴으로 불리다가 문현이 아닌 구전 口傳으로만 후대에 전해지다 보니 문갈현 文碭峴—문현치 文峴峙—문득현치 文得峴峙로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 돌원 硿院

돌원의 설치 연도는 미상이나 무극역이 고려시대 광주도 15개 역 중 하나로 설치된 것을 감안하면 이른 시기에 생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주목조에 “석원 石院은 주 서쪽 85리에 있다”는 것이 최초의 기록이다. 음죽군은 본래 충청도 충주목 관할이었는데 1427년 세종 9에 경기도에 이속되었다.

그런데 돌원은 어느 문현에도 공식적으로 무극역에 딸린 역원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동역도』 1770에 보면 이천과 음죽지역에서 오로지 장호원과 돌원만 기록될 정도로 주요한 역원인데도 불구하고 『음죽현읍지』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1872년 지방지도』  
『음죽현지도』에 표기  
된 돌원장시(石院場市)



‘기록의 누락인가? 아니면 자연적으로 생겨난 비공식적인 역원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그런데도 돌원과 관련한 자료들이 어느 역원보다도 많이 남아 있다. 돌원장시 역시도 언제 생겼는지는 미상이다. 다만 『동국문헌비고』에 “돌원시장은 매월 2일과 7일<sup>월 6회</sup> 장이 선다”고 하였는데 『음죽현읍지』<sup>1842</sup>에는 지금은 폐하고 서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후 1872년 「음죽현지도」를 보면 돌원장시를 표기하고 초가집 6채를 그려 놓았고, 『음죽군읍지』<sup>1899년 5월</sup>에는 개시일이 1일과 6일로 변경되어 있다. 이는 1597년 파발제를 도입한 이후 역참 노선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돌원은 울면 산성리에 소재하였고, 무극역은 800여m 거리의 옆 마을에 있었는데 10분 남짓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그러나 소재지는 충청북도 음죽군 생극면 관성리로 도도를 달리하고 있다. 돌원은 본래 경기도 음죽군 상울면 팔성리<sup>8里</sup>였는데 『음죽현읍지』에 보면 “팔성리<sup>8里</sup>—또는 돌원<sup>院</sup>이라 칭한다”고 하였고, 『음죽군읍지』에는 팔성리를 밀어내고 석원동<sup>石院洞</sup>으로 개칭되어 있다. 곧 돌원장이 더 유명하다 보니 본래의 지명을 밀어내고 개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팔성리 지명이 1914년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 때 충청북도 생극면 팔성리가 되면서 빼앗기고 말았다.



돌원마을은 신미양요 때에 순국한 어재연魚在淵, 1823~1871 · 어재순魚在淳, 1826~1871 형제가 태어난 마을이다. 이제부터는 돌원에서 읍은 시를 소개하도록 한다. 돌원 앞 영남대로는 과갯길이기도 하고 유배길이기도 하고 관리들이 부임 차 내려가는 길이기도 하였다. 그러다 보니 돌원에서 머물거나 지나는 길에 많은 선비와 관리들이 시는 남겼다.

### 저녁 무렵 돌원에 다다라시[夕抵石院]<sup>30</sup>

이섭황황야已涉荒荒野    황량한 들판을 이미 왔거늘  
 잉봉담담촌仍逢淡淡村    잇따라 담백한 마을을 만났구나.  
 주기의백설酒旗宜白雪    주막집 깃발엔 백설이 쌓였고  
 초창이황혼樵唱易黃昏    나무꾼 노래에 쉬 어두워지누나.  
 호경망변도好境忙邊度    좋은 시절 변두리에서 바빠 보내고  
 유정기처존幽情寄處存    그윽한 정취 붙일 곳이 있으랴.  
 부생본여차浮生本如此    덧없는 인생 본래 이와 같다고  
 합여가인언舍與可人言    사람들 하는 말이 당연하구나.

이 시는 철종 때 영의정을 지낸 조인영趙寅永, 1782~1850이 돌원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읍은 시이다. 조인영은 풍양조씨 세도정치의 중심 인물 가운데 하나로 기해사옥己亥邪獄, 1839. 현종 5을 비롯하여 천주교 탄압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는 문장과 글씨 및 그림에 모두 능했다.

### 석원의 이정표[石院塚]<sup>31</sup>

장영진일불승피將迎盡日不勝疲    온종일 영접하느라 피로함을 못 견디네  
 관세영영박수기觀世營營拍手奇    영리營利의 세상 바라보며 기이하게 손뼉을 쳤노라.  
 적로귀래관로거謫路歸來官路去    유배길에서 돌아오니 벼슬길이 떨어졌나니  
 아생영옥빈성시我生榮辱餐成絲    내 인생의 영욕에 귀밑머리만 희끗희끗하구나.

30) 조인영, 『운석유고(雲石遺稿)』 卷之三, 1868. 조인영의 본관은 풍양(豐壤)이고 자는 회경(羲卿), 호는 운석(雲石)이고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1819년 문과에 장원으로 합격한 이후 함경도 암행어사, 경상도관찰사, 홍문관 부제학, 규장각 직제학, 공조판서, 한성부 판윤, 영의정을 지냈고 1851년 졸한 인물이다.

31) 이민보(李敏輔), 『풍서집(豐墅集)』 卷之一, 詩. 이민보의 본관은 연안(延安)이고, 자는 백눌(伯訥), 호는 상와(常窩) · 풍서(豐墅) · 회심와(會心窩)이고, 시호는 정효(貞孝)이다. 1751년 왕책(玉冊) 감조(監造)의 일로 6품에 오른 이후 음성현감 · 상주목사 · 삼척부사 · 동부승지 · 우부승지 등을 지내다 보국승록대부에 올랐다.

이 시는 이민보李敏輔, 1720~1799가 1762년 6월 군軍에 내린 포布의 품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동래東萊로 유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돌원에 머물면서 인생의 영욕을 읊은 시이다.

또한 동학군을 잡기 위해 토포사討捕使가 돌원에서 하룻밤 묵었다 가기도 하였다. 1894년 출진장위영 부영관 겸 죽산진토포사가 첩보하기를 “동도東徒가 충주 무극無極 장터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들을 초포剿捕하기 위하여 이달 초 9일 미시未時, 오후 1~3시쯤에 죽산부로부터 떠나 행군하여 30리 거리의 음죽陰竹 돌원에 이르러 유숙하였습니다”<sup>32</sup>라는 기록이 있다. 동학군의 뒤를 쫓던 조정의 토포사들이 묵었던 돌원. 지금 마을 앞에 서 있는 200년은 된직한 은행나무가 잎을 노랗게 물들여 가면서 가을을 재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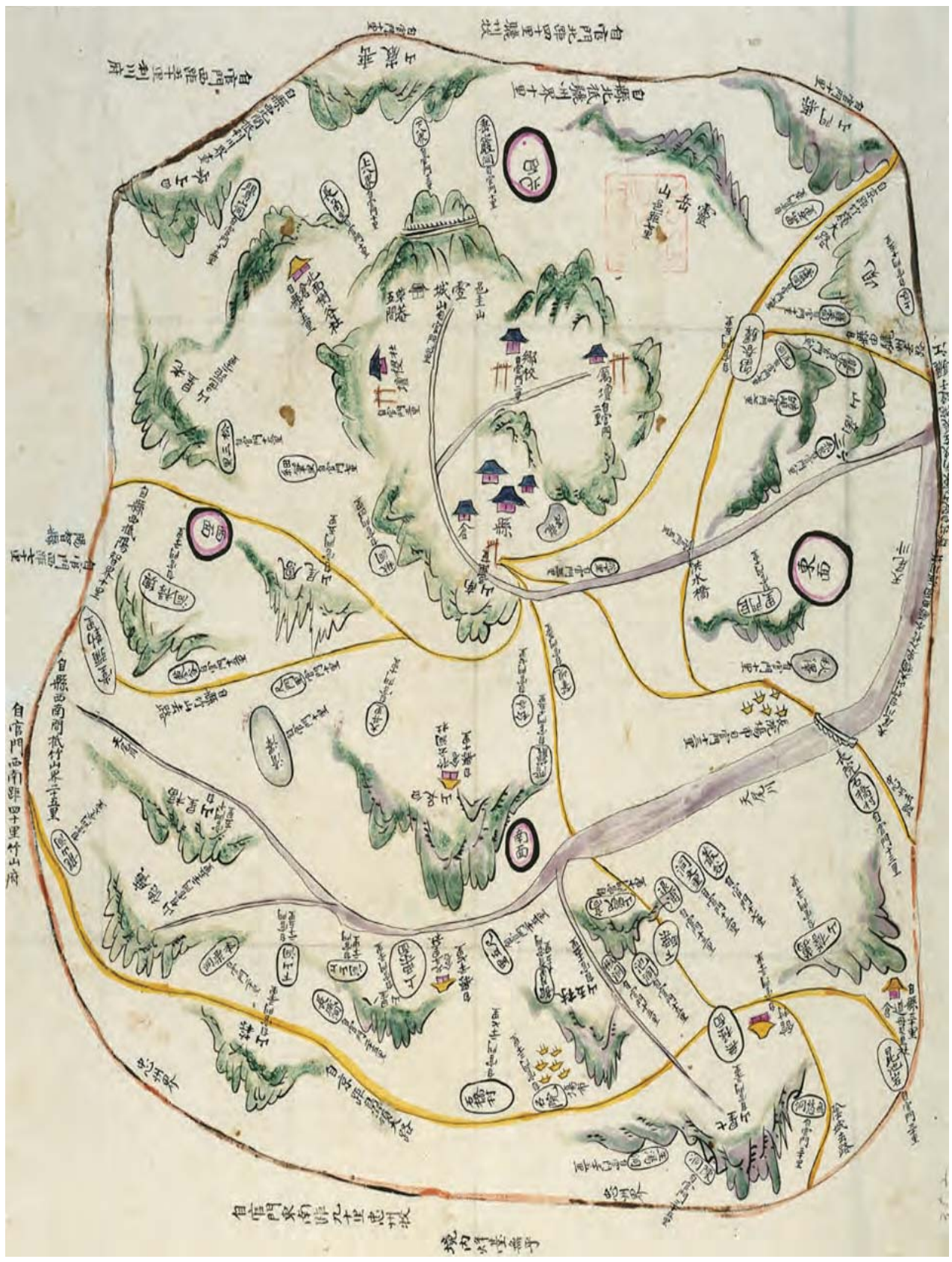
## 2. 이천의 옛길

### 1) 울면을 스치듯 지나가는 영남10길 돌원대로 驍院大路

『1872년 지방지도』 「음죽현지도」 아래에 횡으로 그려진 노란선이 이천시 최남단을 스치듯 지나가는 영남대로 옛길인 동래대로東萊大路이다. 이천지역은 울면-용산동-석교촌-돌원까지 총 5km 남짓한 짧은 거리다. 이 길은 일본의 사행로使行路의 주요한 위치였고, 영남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다니던 과거길로 불리던 길이었고, 죽산 쪽에서는 음죽현 돌원으로 간다고 하여 『1872년 지방지도』 「죽산부지도」에 돌원대로驍院大路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 답사를 해보니 의외로 충청북도 괴산에서 돌원길로 부르고 있었다.

괴강나루에 다리가 생기기 전이니까, 6·25전쟁 끝나고 50년대 중반일거여. 그때

3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선봉진정보첩(先鋒陣呈報牒)」(『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16권), 出陣壯衛營副領官兼竹山鎮討捕使爲牒報事(開國五百三年十月十九日) 출진장위영 부영관 겸 죽산진 토포사가 첩보합니다. 개국 503년(1894) 10월 19일.



境內山嶺

自官門東南距九里屯城

『1872년 지방지도』  
「음죽현지도」

외삼촌이 60년대 중반까지 나룻배를 했어. 다리가 없을 때니 수입이 좋았지. 하루는 안성에서 괴산 외가댁에 놀러 갔다가 소 수십 마리가 나루를 건너는 것을 보았는데, 소 한 마리당 얼마인가를 받더라고, 소장수들이 경상도에 내려가서 소를 사서는 어디루 해서 올라 가냐면, 괴강나루에서 배로 건너서는 음성 무극으로 해서 이천 돌원을 지나서 울면 용산동으로 해서 죽산 미륵당을 지나 용인 백암으로 해서 서울로 가는데, 이 길이 옛날 영남길인데 우리는 돌원길이라고 불렀어. 하ergen에 소장수들이 소를 끌고는 줄느러미 사뭇 소를 끌고 가는데 볼만 했어. 경상도에 가서 소를 싸게 사와야 부천의 뱀내장이나 소사장이나 수원 우시장 그리고 서울 마장동 우시장에 가서 팔면 이문이 많이 남으니까 그 먼 데까지 가서 소를 산 온다는 거여.<sup>33</sup>

라고 하면서 옛 돌원길을 회상하고 있다. 동래대로는 신경준의 『도로고』<sup>1770</sup>에 보면,

한강진漢江津을 건너 신원新院—월천현月川峴—판교점板橋店—힘천險川—용인龍仁—어정개於汀介—직곡直谷—김령역金嶺驛—양지陽智—좌찬역佐贊驛—백암리白巖里—진촌陣村—비립거리碑立巨里—광암廣巖—용산등龍山磴—석원石院—곤지애昆池厓—천곡泉谷—모로원毛老院—송선침崇善站—용안역用安驛—검단점黔丹店—달천진達川津—단월역丹月驛—수회리水回里—안부역安富驛—고사리古沙里—조령산성鳥嶺山城—동화원桐華院—초곡草谷—문경閔慶—마포원馬浦院—신원新院—굴우窟隅—유곡역幽谷驛—덕통역德通驛—낙원역洛源驛—성곡成谷—불현佛峴—낙동역洛東驛—홍덕紅德—석현石峴—여차리餘次里—영향역迎香驛—해평海平—괴곡槐谷—장천丈川—동명원현東明院峴—우암창牛巖倉—칠곡漆谷—금호강琴湖江—대구大邱—오동원梧桐院—팔조령八助嶺—청도淸道—유천역榆川驛—밀양密陽—이창耳倉—무흘역無訖驛—작천鵲川—내포역內浦驛—황산역黃山驛—양산梁山—사배야현沙背也峴—소산역蘇山驛—동래東萊

까지 이어지는 장장 950리 길이다. 조선시대 한양에서 이천지역을 거쳐 영남으로 내려가는 길은 사잇길間路을 포함하여 총 세 갈래 길이 있었다. 첫 번째 길은 한양을 출발하여 과천—용인—죽산—음죽 무극역—음성—연풍—괴산에서 조령을 넘어 상주·부산 지방으로 가는 동래대로이다. 이 길은 조령대로鳥嶺大路이고, 편의상 영남중로嶺南中路로 나누어 불렀다.

33) 양태석(남, 86세,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입암리)이 제보함.



두 번째 길은 한양을 출발하여 광주-이천-음죽-장호원-음성-충주-단양-죽령-봉화-영주-안동 지방으로 내려가는 봉화대로奉化大路인 영남좌로가 있었고, 세 번째 길은 과발길로서 봉화대로와 거의 겹치지만 이천을 지나 음죽현 관아 앞의 관문참官門站에서 임오산에 있었던 임오참林鳥站을 지나 조령대로와 합류하는 간선도로가 있었다. 이 길이 과발길이다.

영남은 조령鳥嶺 이남인 경상북도 지방을 의미하고 문경새재를 가운데 두고 한양에서 영남지방으로 내려가는 길을 편의상 중로, 좌로, 우로로 나누어 불렀다. 다만 이 길들을 언제부터 영남대로로 불렀는지는 미상이나, 『1872년 지방지도』 「죽산부지도」를 보면 분행역分行驛, 현 안성시 이죽면 매산리에 딸린 태평원을 지나자마자 건너는 다리를 영남교嶺南橋로 표기하였고, 또한 영남대로로 표기하고 있다.

영남대로 중에서 과거시험 보러가는 선비들이 가장 선호했던 길은 조령鳥嶺으로 넘어가는 동래대로였다. 문경의 한자지명에 ‘들을 문聞’자와 ‘경사스러운 경慶’자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령을 넘으면 시험에 죽죽 미끄러진다고 속설이 생겨났고, 추풍령을 넘으면 낙엽처럼 떨어진다고 하여 추풍령 왼쪽의 황악산 자락인 패방령掛榜嶺을 더 많이 넘었다고 한다. 이름 그대로 과거 합격 방榜이 걸린다는 이름이니 선비들이 이 길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물론 이 지명도 합격을 기원하며 지어낸 별칭에 불과하다.

### 용산 돌비탈[龍山磴]과 용산주막

옛 영남대로는 산양1리 마을 안으로 휘돌아서 길이 나 있는데 1996년 지도에는 신작로가 곧게 뚫린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영남길 제10길은 마을로 굽어 들어간 원래의 영남 옛길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돌원대로는 한양에서 경상도 동래까지 이어지던 길로 2015년 영남길 경기도 구간인 성남-용인-안성-이천 72.1km를 복원했는데, 마지막으로 복원된 영남길 제10길이 바로 이천시 율면 산양리·석산리·산성리를 스치듯 지나가는 돌원대로이다.

산양리는 본래 경기도 음죽군 상율면 용산동龍山洞과 양아리陽阿里로 이루어졌던 마을인데, 1914년 3월 1일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 때 용산동과 양아리, 그리고 충청북도 음성군 법왕면 용산리를 통폐합하여 이천군 율면 산양리山陽里가 되었다.

율면 산양1리 용산동 마을 입구에 세운 표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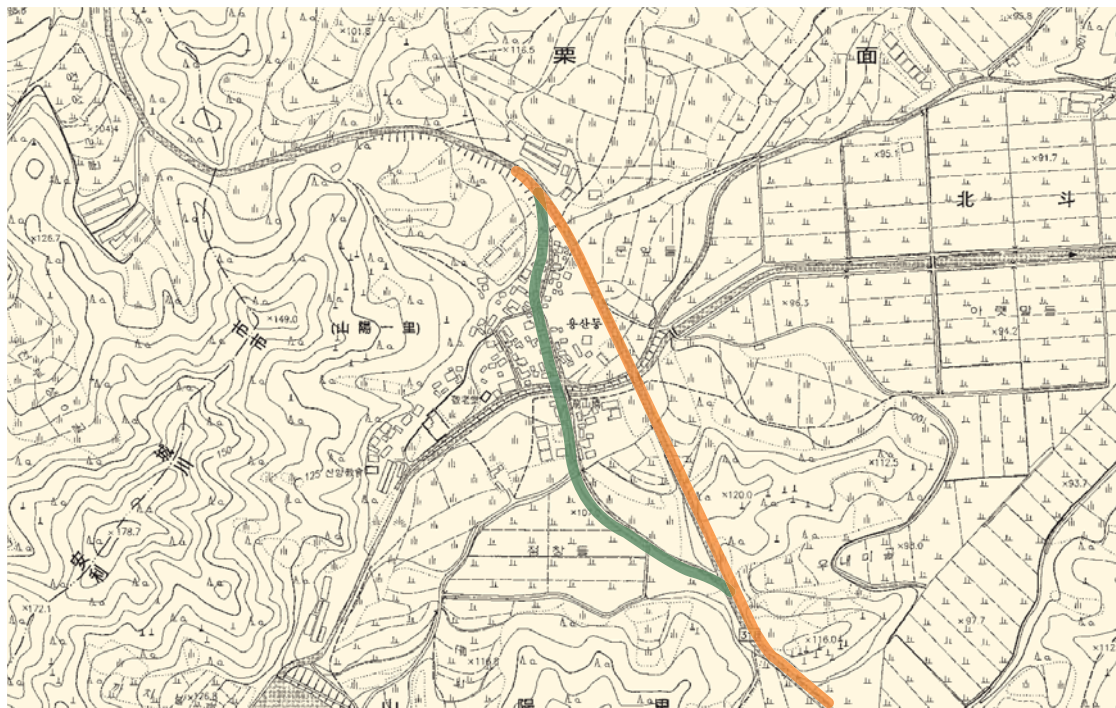


『도로고』와 『대동지지』 1861~1866년 경에 ‘용산동龍山洞’으로 기록되어 있다. 보편적으로는 ‘고개 현峴’ 자를 쓰거나 ‘고개 치峙’ 자를 쓰는데 ‘돌비탈길 등礮’ 자를 쓴 것으로 보아 다른 지역의 고개에 비해 유난히 돌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영남길, 긴 여정의 나그네에게 용산주막은 달콤한 휴식처가 되어주었을 것이다. 신경준의 『도로고』에 경유지로 표기한 것을 보면 나름대로 유명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길과 나그네 그리고 주막, 이 셋 중에 어느 것 하나만 빠져도 길을 나서는 맛이 없다. 여수旅愁를 어디에서 풀 것인가. 비록 1896년 1월에 무극역이 폐지되었지만 『조선지지자료』에 ‘용산동주막龍山洞酒幕’이 기록된 점으로 보아 주막은 여전히 나그네의 발길을 부여잡았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용산동에는 영남길과 용산주막과 관련한 지명이 남아 있다. 『이천시 율면 문화유적·민속조사 보고서』 1997에 ‘삼남대로길’은 장돌뱅이 소장수들이 경상도에서부터 소를 몰고 다니던 길 또는 선비들이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는 삼남대로를 이른 것이고, 주막거리와 주막샘은 옛 용산주막에서 유래한 지명들이라고 채록되어 있다.

용산주막은 의외로 문헌자료가 많다. 용산동·용산등·용산정 등의 제목으로 일기나 시에 많이 남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무극역이나 돌원보다는 술과 음식이 비교적 풍부한 이곳에서 많이 머문 듯하다. 공식적인 역원이 아니지만 수많은 사



람들이 기록을 남기고 있을 만큼 인마<sup>人馬</sup>의 왕래가 빈번하던 길이었다. 그러나 역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도로가 폐쇄되고 장호원에서 서울에 이르는 도로인 3번국도가 확장되면서 용산동은 읍면 내에서도 산골에 속하는 한적한 마을로 변모하였다. 다 음은 용산동과 용산주막을 읊은 시이다.

1996년 1:5,000 지도에 나타난 영남대로 옛길 (초록색)과 신작로(주 황색)도엽번호:장호원 (071)Nj 52-9-28-071]

### 용산 비탈에서 말을 먹이며 [秣馬龍山磴]<sup>34</sup>

용산동반행림시<sup>龍山東畔杏帘詩</sup>

용산 동쪽 언저리 살구나무에 주막 깃발 비껴 있  
으려니

백마편편방구가<sup>白馬翩翩訪舊家</sup>

백마가 날아가듯 옛 집을 찾아 가네.

무연갱주나부몽<sup>無緣更做羅浮夢</sup>

연분 없이 다시 나부산<sup>羅浮山</sup>의 꿈을 어이 꿀까<sup>35</sup>

34) 장심학(張心學)의 『부록 강해문집(江海文集)』(19세기).

35) 중국 광둥성(廣東省)에 있는 산으로 도교(道教)의 명산 중의 하나이며, 매화(梅花)의 고사로 유명한 곳이다. 전설에 의하면, 수(隋)나라 개황(開皇) 연간에 조사웅(趙師雄)이란 사람이 나부산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녀에게서 나는 향기가 너무나 향기롭고 목소리가 청아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대취하였다가 깨어나 보니 큰 매화나무 아래였다고 한다. 『龍城錄』 매화를 나부몽(羅浮夢)이라 한다.

인거매잔설작화人去梅殘雪作花      사람은 가고 매화나무에 잔설만 꽃처럼 피었구나.

장심학張心學, 1804~1862이 용산주막을 백마가 날아가듯 찾아가는 것으로 보아 예전에 연분이 있었던 여인을 보러 갔으나 그 여인이 없자 다소 낙심한 듯하다. ‘사람은 가고 매화나무에 잔설이 꽃처럼 피었구나’라는 문구가 나그네의 쓸쓸함과 인생무상을 노래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용산주막은 소박한 평민들이 찾던 주막이 아니라 기녀妓女가 있고, 술과 춤과 노래가 있으며, 하룻밤 연정을 즐기던 주막으로 보인다. 다음의 한시가 또한 재미나다.

#### 용산주견龍山酒帘, 용산주막 마을 이름[里名]

주기렵령향양번酒旗獵獵向陽翻	주막 깃발 한들한들 햇빛에 휘날리고
묘무섬가단객혼妙舞纖歌斷客魂	교묘한 춤과 노래에 <sup>36</sup> 나그네 마음 애틁는구나.
도갈불수초목문道渴不須樵牧問	목이 마르다고 초부목동樵夫牧童에게 물을 것도 없이
전두지시행화촌前頭知是杏花村	여기가 바로 행화촌 <sup>37</sup> 임을 알겠네.

안인순安麟淳, 1895~1975의 시문집 『현운집軒雲集』 1987에 기록된 율면지역의 아름다운 풍경을 읊은 「율리팔경栗里八景」 중 하나이다. 안인순의 본관은 순흥이고 자는 공서孔瑞, 호는 현운軒雲이다. 1895년 11월 2일 경기도 음죽군 하울면 하추동下楸洞, 현재의 이천시 율면 신추2리이자 속칭 조제釣堤에서 태어났다.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다가 1975년 11월 3일 졸하였다. 안인순은 14세 때부터 학문을 배우고 읽혀서 인근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시와 문장으로 널리 알려졌고, 1950년대까지 율면지역에서 훈장을 지낸 마지막 인물이다.

36) 섬가(纖歌) : 미인(美人)이 부르는 고운 노랫소리.

37) 행화촌(杏花村) : 술집을 가리킨다. 두목(杜牧)의 「청명(清明)」시에 “한번 물어보세 술집이 어디 있는지, 목동이 멀리 가리킨 곳 살구꽃 핀 마을(借問酒家何處在 牧童遙指杏花村)”에서 유래하였다.





울면 산양1리 용산동  
마을 입구

### 용산 비탈길에 이르러서[抵龍山磴]<sup>38</sup>

초목굴신권마성 草木屈伸勸馬聲      초목도 굽실거리듯 권마성 勸馬聲을 내나니<sup>39</sup>  
 의성현령시공명 義城縣令是功名      의성현령 義城縣令 공명 功名이 이러하구나.  
 당년일숙용산설 當年一宿龍山雪      당년 하룻밤 목을 때 쌓인 용산의 눈처럼  
 난도우금불계징 難道于今不繫情      정에 얽매이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기 어렵구나.  
 지신묘밀행 指辛卯密行<sup>40</sup>

조면호趙冕鎬, 1803~1887의 본관은 임천林川이고, 자는 조경藻卿이며, 호는 옥수玉垂·이당怡堂·능계거사菱溪居士·삼연노인三研老人이다. 김정희의 문인으로 박규수·신석우·홍종응 등과 교유하였다.

이 시는 조면호가 1857년철종 8 9월 의성현령을 제수받고 부임 가는 도중에 용산주막에서 쓴 시이다. 시에 주막이란 말은 없지만 시 내용을 보면 마지막 구절에 “정에 얽매이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기 어렵구나” 하고는 “신묘년辛卯, 1831 밀행密行을 가리킨다”고 부연설명까지 하고 있다. 혈기왕성한 28세의 청년이 남몰래 왔다는 얘기를 26년이 지나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그해에 수북하게 쌓인 눈처럼 정을 쌓았

38) 조면호(趙冕鎬), 『옥수선생집(玉垂先生集)』 卷之五, 詩, 1935년 등사(謄寫).

39) 의숙권마지사왈 산천초목 굴신어좌우 청장수파여운(義俗勸馬之辭曰 山川草木 屈伸於左右 靑嶺水波如云). 의숙(義俗)에 권마사(勸馬辭)를 일러 산천초목이 좌우에서 굽실거리듯 푸른 휘장이 물결치는 것과 같다고 이른다.

40) 신묘년(辛卯, 1831) 밀행(密行)을 가리킨다.

다면 무엇을 쌓았을까. 그 연정을 쌓았던 곳을 차마 지나치지 못하고 주막에 들렀다는 얘기를 애둘러 잘 표현했다.

시 중에 권마성勸馬聲이 나오는데 이는 말이나 가마가 지나갈 때 위세를 더하기 위하여 그 앞에서 하인이나 역졸들이 목청을 길게 빼어 부르는 소리를 말하기도 하고, 혼례 때 신부를 태운 가마를 네 사람이 메고 먼 길을 갈 때에 피로를 덜기 위해 발을 맞추기 위해 부르는 노래를 말하기도 한다. 박지원의 『열하일기』<sup>1780</sup> 「일신수필駟汎隨筆」에 보면,

칙내가 모시고 가면서 연송 권마성勸馬聲을 부르니까 대감은 좋아서 웃으시면서 ‘네 목청이 좋구나. 자꾸 불러라’고 합디다. 설 새 없이 권마성을 불렀더니 대감은 연송 잘한다고 칭찬을 하시면서 관산郭山까지 와서는 손수 다담상을 한 상 잘 차려 보냅디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권마성이라고 해서 양반님에 행차 때 ‘비키시오! 대감님 행차다!’ 하고 내지르는 소리만은 아니다.

### 9월 10일 용산등龍山嶺에서 자다[重陽後日宿龍山嶺]<sup>41</sup>

구일용산아역류九日龍山我亦留	9일 용산龍山에 내 머무르니
한등여관불면수寒燈旅館不眠愁	여관의 차가운 등 잠 못 드니 시름겹구나.
타향타석금위객他鄉他席今爲客	타향에 다른 자리 지금 객이 되었는지라
무주무화내해우無酒無花奈解憂	술도 없고 꽃도 없고 어이 근심을 풀으랴.

김영수金永壽, 1829~1899의 본관은 광산光山이고 자는 복여福汝, 호는 하정荷亭이며,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김영수는 1879년 별시 을과에 급제한 이후 이조·예조·병조·호조 판서, 규장각제학, 예문관제학, 홍문관제학, 판의금부사, 판돈령부사, 홍문관대제학, 홍문관태학사 등을 역임하였다.

김영수는 제목을 ‘고개 등嶺’ 자를 써서 용산등龍山嶺으로 하였다. 고개는 고개이니까 틀린 것은 아니나 돌비탈길을 의미하는 ‘등磴’자로 써야 맞다. 어쨌든 이 시가

41) 김영수(金永壽), 『하정집(荷亭集)』 卷之一, 詩, 1923.

쓰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문경새재를 넘어와 이곳 열악한 용산주막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술도 꽃(?)도 없이 밤새 시름겨워 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정황으로 보아 밤도 늦고 무극역에 딸린 돌원에 잠자리가 부족하여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은 듯하다. 그러지 않으면 이곳에서 죽산 분행역에 딸린 태평원으로 가야 하는데 2시간이 넘는 거리이니 할 수 없이 잠을 잤을 것이다.

## 2) 영남 옛길 봉화대로 奉化大路와 파발길 擺撥路

앞에서 언급한 영남대로는 한양을 출발하여 울면 산양리-석산리-산성리를 지나 조령을 넘어가는 길이었다. 또 하나의 갈래 길은 한양을 출발하여 광주-이천-음죽 장호원-충주-단양의 죽령을 넘어 경상북도 영주로 넘어가는 이 길이 ‘봉화대로’, ‘죽령대로’로 불리던 길이다.

그런데 1597년 파발제를 도입하면서 이천지역에는 고척참 高尺站 · 대포참 大浦站 · 소사참 素沙站이 있었고, 음죽지역에는 관문참 官門站과 음죽현과 충주목 경계에 설치되었던 임오참 林烏站이 있었는데, 이 도로는 영남대로와는 약간 다르다. 현재 이천에서 장호원까지 이어진 3번국도 경충대로 京忠大路와 거의 겹치는 길이다. 『대동지지』 김정호, 1861 「정리고 程里考」 동남지봉화5대로 東南至奉化五大路에 의하면,

흥인문 興仁門-전곶교 箭串橋-신천진 新川津-송파진 松波津-울목정 栗木亭-광주 廣州-검북참 黔北站-경안역 慶安驛-쌍령점 雙嶺店-곤지애 昆池厓-광현 廣峴-이천利川-장등점 長磴店-음죽陰竹-장해원 長海院-오갑읍 烏甲-용당 龍堂-복성동 福城洞-봉황천 鳳凰川-가흥창 可興倉-하연진 荷淵津-북창진 北倉津-충주 忠州-신당리 新塘里-황강역 黃江驛-서창西倉-의치衣峙-수산역 壽山驛-장위점 長渭店-단양丹陽-죽령竹嶺-창락역 昌樂驛-풍기 豐基-창보역 昌保驛-영천榮川-내성점 奈城店-봉화 奉化

에 이르는 길이다. 파발 擺撥이란 조선시대에 공문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한 통신 수단으로, 1597년 선조 30 5월 29일 사건 司諫 윤경립과 집의 執義 한준겸이 발참 撥站을 두어야 한다고 임금에게 건의하여 설치되었다.

이후 파발 제도를 설치하여 변경의 공문서를 전달하게 하였다. “기발 騎撥은 25리

마다 1참<sup>站</sup>을 두었고 1참마다 발장<sup>撥將</sup> 1명, 군졸 5명, 말 5필, 보발<sup>步撥</sup>은 30리마다 1참을 두었다. 참마다 발장 1명, 군졸 2명. 배지<sup>陪持</sup>는 직접 통과하고, 보발군은 참마다 파발을 교체한다”<sup>42</sup>고 하였다. 이때 생긴 격언이 “뛰기는 역마<sup>驛馬</sup>가 뛰고 먹기는 홍중군<sup>洪中軍</sup>이 먹는다”는 말이 생겨났다.

파발길은 『대동지지』 「발참」 동남지봉화대로보발<sup>東南至奉化大路步撥</sup>에 보면,

경도<sup>京都</sup> 신천참 20리-광주 울목참 20리-검북참 20리-경안참 20리-쌍교참 20리-이천 고척참<sup>高尺站</sup> 20리-대포참<sup>大浦站</sup> 20리-소사참<sup>素沙站</sup> 20리-음죽 관문참<sup>官門站</sup> 20리-충주 임오참<sup>林烏站</sup> 20리-송선참 40리-단월참 50리-연풍 안부참 50리-문경 요성참 40리-견탄참 40리-함창 덕통참 20리-상주 낙원참 30리-낙동참 40리-선산 영향참 40리-인동 양원참 40리-칠곡 고평참 40리-대구 관문참 30리-오동원참 30리-청도 오서참 40리-유천참 40리-밀양 관문참 30리-무흘참 20리-양산 내포참 30리-동래 소산참 30리-관문참 20리-부산참 20리. 모두 31참<sup>站</sup> 920리

로 기록하였다. 파발제는 이후 1802년<sup>순조 2</sup> 12월 15일 영의정 이시수<sup>李時秀</sup>가 “남발<sup>南撥</sup>의 설치는 오로지 외영<sup>外營</sup>을 위한 것인데, 외영을 이미 혁파하였으므로 남발도 따라서 철폐해야 하는데, 그대로 세월만 보내면서 다만 마줄<sup>馬卒</sup>의 요전<sup>料錢</sup>만 낭비하고 있다”<sup>43</sup>고 건의하여 철폐되었다. 이시수가 말한 남발은 조선시대 경기도 신천참<sup>新川站</sup>에서 경기도 음죽현과 충청북도 충주목 경계에 있었던 임오참을 거쳐 경상도 초량참<sup>草梁站</sup>에 이르는 파발을 말하는데 이때 남발이 철폐된 것을 알 수 있다.

### 고척참<sup>高尺站</sup>

고척참은 『여지도서』에 이천부 서쪽 20리 둔지산면<sup>屯地山面</sup> 광현<sup>廣峴</sup> 탄막<sup>炭幕</sup>에 있다 하였고, 『이천부읍지』에는 둔지산면 광현점<sup>廣峴店</sup>에 있다고 하였다. 주막은 길가에 위치하여 술과 밥을 팔거나 잠자리를 제공하던 집으로 탄막<sup>炭幕</sup>·여점<sup>旅店</sup>·야점<sup>夜店</sup>·점막<sup>店幕</sup>으로 불렸다. 그래서 위에 광현 탄막으로 기록한 것이다.

42) 서영보·심상규, 『만기요람』 군정편 1, 역체(驛遞), 1808년경.

43) 『국역 비변사등록』 193책, 1802년(순조 2) 12월 15일(음).



고척참이 위치했던 마을은 신둔면 수광3리, 즉 옛 광현리이다. 지도에 보면 둔지산면에 고척리高尺里 10리, 후동後洞 15리, 마교리馬橋里 10리, 수남리水南里 10리, 수북리水北里 10리, 광현리廣峴里 10리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1914년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 때 수북리와 광현리를 통합하여 수북리의 ‘水’ 자와 광현리의 ‘廣’ 자를 따서 신둔면 수광리水廣里라 하였다.

이천 고척참에서 광주로 넘어가는 고개를 옛날부터 광현이라 불렀는데, 이 고개에 신립 장군 설화가 전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설화는 『조선지리지』에 “廣峴-넉고개”로 기록한 이후 넉고개[魄峴]로 변질되었는데, 후대에 누군가 지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구한말 공인眞人이며 지씨池氏로 추정되는 사람이 1891년<sup>고종 8</sup>~1911년까지 쓴 『국역 하재일기荷齋日記』,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5에 보면,

1898년 2월 3일. 맑고 바람이 불고 추움. 관아에 들어가니, “일찍이 탁지부의 훈령이 있었으니, 모양을 물론하고 외획전外劃錢을 반드시 탁지부에 보고한 뒤 출금하라”고 하교하였다 …… 가마꾼 2인을 불러 즉시 출발하고, 가마꾼에게 품삯 77냥을 먼저 주었다. 가마를 세낸 돈이 4냥, 최동환 4냥, 주인 밥값 16냥을 계산해 주었다. …… 해가 저물어서야 간신히 광현廣峴 가게에 이르러 머물러 잤다. 어젯밤에 비도匪徒 13명이 갑자기 일로一路로 들어와 가게의 돈과 재물을 싹 쓸어 훔쳐 갔다고 들었다. 매우 놀랍고 탄식스럽다. 2월 4일 꼭두새벽에 광현을 출발하여 곤지암昆池岩에 이르니 아침 해가 밝게 떠올랐다

라고 하였다. 아침에 출발하여 다 저녁에 고척참 광현점에서 잠을 잘 때 주막 주인으로부터 어젯밤에 비도匪徒 13명이 가게의 돈과 재물을 싹 쓸어 훔쳐 갔다고 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 이곳에서 약 5km 남짓한 거리의 광주 곤지암에서 아침 밥을 먹고 있다.

떼강도에게 돈과 재물을 빼앗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 광현점은 마을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야 자동차로 쉽게 넘을 수 있는 고개이지만, 예전에는 이 고개를 넘어가려면 혼자서 넘어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돌연 나타나는 공포의 대상인 산적이 무서웠을 테니까.

『동여도』(19세기 철종  
연간)에 표기된 고척  
참·대포참·소사참



### 대포참大浦站

대포참은 고척참에서 20리 거리에 있는 참으로 『여지도서』에 읍내 홍문紅門에 장교 일원一員과 군졸 2명이 있다 하였고, 『이천부읍지』에는 읍내 홍문 밖에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대포참 밑에 작은 글씨로 관문참官門站으로 쓰여 있다. 이는 참이 이천부 관아 앞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붙여 놓은 별칭으로 『경기읍지』<sup>1871</sup> 「이천부지

도」에 보면 이천행궁 앞에 대포참이 그려져 있다. 현재의 창전동에 있었다.

### 소사참素沙站

소사참은 『여지도서』와 『이천부읍지』에 “부 동쪽 발산면鉢山面 응암리鷹巖里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 위치는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로 소사참이 있었던 마을이다. 『조선지리지』에도 “주막酒幕 : 파발막擺撥幕-이천군 발면 응암리”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응암리에 “파발막-주막거리라고도 불리는데 옛날 조선시대 한양에서 파발 가다가 이곳에서 쉬어갔기 때문에 파발막擺撥幕이라 불렀다. 수십 년 전 까지만 해도 마구간과 마구 따위가 남아 있었다”<sup>44</sup>고 전해지고 있다.

### 관문참官門站

역참의 명칭을 보편적으로 참이 위치한 지역명을 쓰는 것이 보통인데, 음죽현 관아 앞에 있다고 하여 관문참으로 명명하였다. 현 장호원을 선읍리를 말한다. 이곳에서 죽산·돌원·충주·여주로 길이 네 갈래로 나뉜다.

44)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이천시지』 2권, 2001, 388쪽.

## 참고문헌

### 고문헌

『치평요람治平要覽』 1445, 『고려사』 1451, 『고려사절요』 1453, 『세종실록지리지』 1454, 『신증동국여지승람』 1531, 『동국여지』 1656, 『십청집十淸集』 김세필. 1742, 『택리지』 이종환. 1751, 『도로고』 신경준. 1770, 『동국문헌비고』 1770, 『동역도』 1770, 『반계수록磻溪隨錄』 유형원. 1770, 『열하일기』 박지원. 『駙汎隨筆』. 1780, 『구룡암동유록九龍巖同遊錄』 전종윤. 1806, 『백담유집白潭遺集』 조우신. 『長湖院途中』. 1807년경, 『이천부읍지』 1842, 『대계선생문집大溪先生文集』 이주정. 1846, 『일포집逸圃集』 박시원. 1860, 『대동여지도』 김정호. 1861, 『석와집石窩集』 권위. 1863, 『이천부속읍지』 1895, 『음죽군읍지』 1899, 『이천군읍지』 1899, 『속은재문집俗隱齋文集』 이귀성. 19세기, 『조선지리지』 조선총독부. 1911.

### 단행본

이가순, 『하계문집霞溪文集』, 1903.

조선총독부, 『이천군 청미면淸溪面에 관한 보고』, 1941.

박돈서, 『속편 구룡암세록』, 1981.

이천군지편찬위원회, 『이천군지』, 1984.

안인순, 『현운집軒雲集』, 1987.

이천문화원, 『이천시 읍면 문화유적·민속조사 보고서』, 1997.

이천문화원, 『이천시 부발읍 문화유적·민속조사 보고서』, 1998.

이천문화원, 『이천시 장호원 문화유적·민속조사 보고서』, 1999.

박시원, 『국역 일포집逸圃集』, 2004.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국역 하계일기荷齋日記』, 2005.

허섭, 『장호원 이야기』, 2010.



03

수여선 꼬마기차,  
이천을 달리다





이선민 | 이천문화원 문화사업팀장

### 제3장 수여선 꼬마기차, 이천을 달리다

#### 1. 협궤열차는 낭만을 신고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우주 정거장에 햇빛이 쏟아지네.  
 행복 찾는 나그네의 눈동자는 불타오르고,  
 엄마 잃은 소년의 가슴엔 그리움이 솟아오르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999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999 은하철도999

2017년 3월,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 이날 전시회의 주인공은 무려 40년 전에 방영한 일본의 애니메이션, 은하철도999銀河鐵道999였다. 1977년에 마츠모토 레이지[松本零士]가 제작한 이 만화는 1998년 일본 대중문화 개방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방영한 특선만화였음에도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 특히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는 증기기관차’라는 설정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은하계를 누비는 최첨단 열차를 왜 증기기관차 형태로 만들었을까요?” 철이의 물음에 메텔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만큼 초장거리 여행을 하는 승객에게 심리적인 안정과 과거의 향수를 주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일리가 있다. 익숙한 물건이 편한 법이다. 우리는 KTX고속열차가 시속 300km의 속도로 철길을 내달리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기차를 이야기할 때, 반사적으로 증기기관차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만화 캐릭터, 연필깎이, 철도 건널목의 표지는 여전히 증기기관차 형태이다. 한번 각인된 이미지는 여간해선 바꾸기 힘들다.



수여선 철도를 달리는  
허기형 증기기관차(출  
처 : 이천시 멀티미디어 자료실, 기증자 이  
나영)

증기기관차는 역사상 최초로 대량의 사람과 화물을 싣고 달렸던 육상운송 수단이다. 시커먼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와 ‘칙칙폭폭’ 박력이 넘치는 주행소리, 강철로 이루어진 육중한 기계가 엄청난 화물을 싣고 철길을 달리는 모습은 그 자체가 경이롭다.

기왕 추억을 끄집어낸 김에 은하철도999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 ‘은하초특급999호’의 모델은 일본의 C62형 증기기관차이다. 일본 국유철도의 텐더식 증기기관차인 C62형은 1948년부터 2년간 일본에서 제작한 기차모델로서 궤간<sup>1)</sup>이 1,067mm에 불과한 협궤철도차량이다. ‘협궤狹軌’는 말 그대로 표준궤보다 폭이 좁은 철길을 의미한다. 표준궤인 1,435mm에 비해 궤간이 좁기 때문에 철길을 달리는 기차도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협궤열차를 ‘꼬마열차’라고도 불렀다. 수원·용인·이천·여주 등 인근의 주민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물이 수여선水驛線 협궤열차를 타고 들어왔다.

1) 궤간(軌間, rail gauge) : 두 철로 사이의 간격. 전 세계 철도의 60%는 1,435mm의 표준궤를 채용한다.





화물칸에 올라탄 수여선 승객들(1966년 5월 10일, 출처 : 경기도메모리)

수여선 협궤열차의 여객실은 양쪽 벽면에 등이 닿도록 의자를 배치했는데 위낙 폭이 좁아 마주앉은 두 사람이 서로 팔을 잡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나마 여객실에 탈 수 있으면 다행이다. 자리가 없으면 화물칸에 올라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약간의 불편함은 오히려 여행의 낭만을 더 하는 법이다. 좁고 느릴지라도 협궤열차에 올라탄 사람들은 은하계 여행을 떠나는 철이와 메텔처럼 협궤열차 기적소리에 몹시도 설레며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갔다.

## 2. 새로운 시대의 산물, 혹은 수탈의 상징

한양으로 가는 길은 좁다가 넓어지고, 또 넓어졌다가 좁아지기를 반복한다. 소낙비라도 내리치면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긴다. 아무리 조심조심 걸어도 흙탕물에

수레 한 대가 지나가  
기 힘들 정도로 좁고  
험한 조선의 도로(출  
처 : 국립중앙박물관,  
독립기념관)



빠지기 일쑤다. 그뿐인가. 어둑어둑한 산길에서 마주친 산짐승은 차라리 다행이다. 재수가 없으면 산적 떼를 만나 목숨을 잃는 수도 있다. 어지간한 담력의 소유자라도 혼자서 한양으로 가는 경우는 드물었다. 보부상들은 일찌감치 상단(商團)을 꾸려 이동했고, 과거길에 오른 선비는 노비를 앞장세우거나, 그보다 가난한 사람은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걸었다. 간혹 형편이 나은 사람은 말이나 가마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조선의 육상교통 수단은 딱 거기까지였다.

조선의 도로는 수레가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좁고 불편했다. 다산 정약용을 비롯한 많은 선각자들이 도로를 넓히고 수레를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무산되었다. 조선의 위정자들은 국방상의 이유로 일부러 도로관리를 하지 않았다. 도읍으로 통하는 중요한 길목과 고개가 좁고 험할수록 적군의 진군은 늦어질 터, 그동안 원병을 요청하거나 임금을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킨다는 생각에서였다. 답답한 노릇이다.

그나마 육로에 비해 수운교통이 발달하였다. 조선의 수운(水運)은 세곡을 운송하는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남한강 수운으로 발달한 충주의 가흥창(可興倉)과 원주의 흥원창(興原倉)은 각각 충청도와 강원도 영서지방에서 거둔 미곡을 수용하는 국가적인 물류기지였다. 이곳에 집결한 미곡(米穀)을 남한강을 따라 한양으로 운송하였다. 조선시대 이천과 여주는 남한강 수계를 기반으로 이어진 하나의 경제권역이다. 이천의 북부지역은 북하천으로, 장호원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지역은 청미천 물길을 따라 여주의 남한강과 연결된다.

반면 지리상 가까운 용인·수원과의 물적 교류는 의외로 드물었다. 이천과 용인



의 경계를 이루는 광주산맥이 두 지역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그런데 철도수여선이 등장하며 오랜 시간 이어온 교통체계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다. 기차는 그다지 만날 기회가 없었던 지역 간의 교류를 가능하게 했다. 많은 이천 사람들이 수여선을 통해 더 넓은 세상과 만날 수 있었다.

수여선(水驛線), 말 그대로 수원과 여주를 동서로 잇는 기차길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수원-용인-이천-여주를 지나는 762mm 궤간의 협궤열차가 다니던 철길이다. 수여선을 처음 달린 ‘혀기형’ 증기기관차는 앞서 언급한 일본의 C62형(1,067mm)보다도 더 비좁은 철길을 다닌 기차이다. ‘혀기형’이라는 이름 자체가 ‘협궤’의 일본식 발음에서 유래한다. 궤간의 한계로 인해 기차의 폭은 고작 2m 남짓했다. 수여선을 운행한 기차의 여객칸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좁고 불편했을 것이다. 왜 수여선은 표준궤가 아닌 협궤로 놓였을까.

협궤철도는 우선 경제적이다. 기차가 작기 때문에 표준궤에 비해 곡선주로를 더 급하게 만들 수 있고, 궤간 자체가 좁아서 노반을 축조하는 비용도 줄어든다. 게다가 유지·보수비용은 물론, 철거비용도 크게 부담이 없다. 반면 단점도 뚜렷하다. 궤간의 한계로 인해 열차의 대형화가 불가능하고, 기차의 안정성이 떨어지며 속도에도 제한이 있다. 그러나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협궤철도는 여전히 유용한 운송 수단이다. 철도는 기본적으로 대량의 물자를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송하기에 적합하다. 산간지대의 광물이나 여러 현지 산물을 이동하려는 목적이라면 굳이 건설비용이 비싼 표준궤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일제강점기 남한강유역의 조선중앙

수여선 철도가 표시된 1930년대 초 이천군 관내도(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경부선(京釜線) 철도와 만나는 조선경동철도 (수여선)

철도 충북선<sup>조치원-충주</sup>, 조선경남철도 경기선<sup>천안-장호원</sup>, 조선경동철도 수여선<sup>수원-여주</sup>을 ‘일반지역 교통개선’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건설하였지만 이들 3개 노선의 진짜 목적은 남한강유역의 풍부한 쌀과 강원도 서부의 임산물 수탈이었다.

수여선의 운영 주체인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는 타 사설철도에 비해 재정기반이 취약했다. 일본의 철도사업가인 다가와 조이치로(田川常一郎)는 예산부족으로 본래 취득한 표준궤를 포기하고 762mm의 협궤로 수여선을 건설한다.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었다.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협궤철도만으로도 이천과 여주의 쌀을 수탈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는 1930년 12월 1일에 수원과 이천을 잇는 53.1km 구간을 먼저 개통하고, 이듬해인 1931년 12월 1일에 이천과 여주 사이의 나머지 20.3km 구간을 완성한다. 온전히 제 모습을 갖춘 수여선을 이용해 당시만하더라도 오지였던 경기 동남부와 강원도 내륙의 물자가 경부선까지 이어진다.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는 수여선 개통 이후, 종점인 여주와 강원도 원주<sup>홍호리</sup>를



있는 선박사업을 개시하고, 연이어 원주까지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화물트럭 노선도 개설한다. 1935년에는 여주와 원주를 연결하는 철도부설권까지 획득하며 수역선 일대 교통을 완전히 장악했다. 또한 수원과 인천 사이에 수인선<sup>水仁線</sup>을 추가로 건설<sup>1937. 8. 6</sup>하여 강원도의 임산자원과 여주·이천의 수많은 양곡이 수역선 기차에 실려 수원으로, 마침내 수인선을 타고 인천항으로 빠져나갔다. 한양을 중심으로 형성한 우리 고유의 운송체계와 전혀 다른, 오직 식민지 수탈을 위한 교통망이 탄생한 셈이다.<sup>2</sup> 이천에 처음으로 등장한 철도는 아늑한 기차여행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시대의 산물이자 수탈의 상징이었다.

### 3. 갑작스러운 몰락, 의외의 반전

만주사변<sup>1931</sup>을 일으킨 일제는 대륙침략의 야욕을 숨기지 않았다. 고작 6년 후인 1937년, 기어이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군은 전쟁을 위해 일본-조선-만주-중국을 신속하게 연결하는 물자 운송수단이 절실했다. 조선의 남과 북을 종단하는 경부선이 이미 존재했지만 기존의 경부선<sup>서울-부산</sup>만으로는 폭주하는 군수물자와 전쟁병력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경부선은 미국의 함포공격에 노출되기 쉬운 약점도 가지고 있었다.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조선의 험악한 내륙 산악지대를 종단하는 제2의 철도노선이 반드시 필요했다. 중일전쟁 직후 일제는 조선을 관통하는 두 번째 종단노선, 중앙선 철도건설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중앙선의 원래 이름은 서울과 경주를 잇는다하여 경경선<sup>京慶線</sup>이었다. 조선총독부 철도국은 경부선의 우회노선인 중앙선 철도부설에 사활을 걸고 양 종점에서 동시에 공사를 시작한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임에도 수많은 조선인 노동자가 투입되어 불과 6년만인 1942년, 무려 383km에 달하는 1,435mm 표준궤의 중

2)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조선의 도로는 대부분 수도 한양으로 향한다. 그러나 수역선은 바다를 통해 일본으로 향하는 인천항으로 연결되었다. 식민지 조선을 수탈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조선 경동철도주식회사는 수인선 개통 후 3개월 뒤인 1937년 11월, 인천과 오사카를 운행하는 아마가사키 기선과 화물운수 제휴를 체결하며 식민지 수탈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수여선 이천역 풍경  
(1953년 5월, 출처 :  
Do ns rail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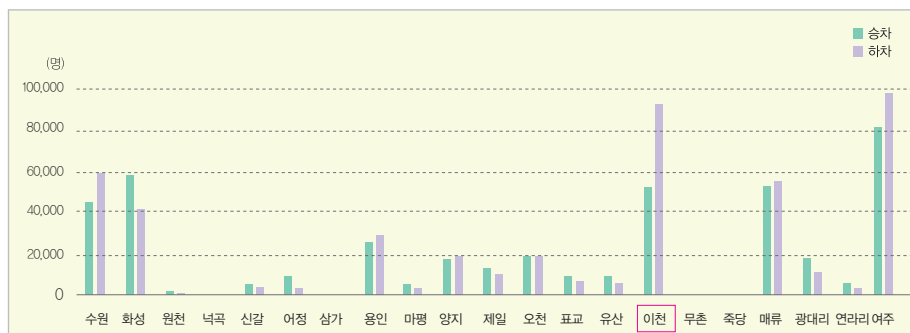


양선 철도를 완성했다. 전쟁 말기에 완공한 중앙선을 타고 일본군의 군수물자와 식민지 조선에서 강제로 차출한 인력, 그리고 조선 내륙지방의 광물 및 목재 등이 엄청나게 실려 나갔다. 그런데 중앙선 철도의 등장은 다소 엉뚱한 결과를 불러왔다. 지금도 그렇지만, 원주는 강원도 영서지방의 물자가 집산하는 중요한 지역 거점이다. 횡성·평창·영월·제천·충주 등지에서 원주로 모인 물자는 남한강 수운을 타고 여주로 이동했고 수여선에 실려 각지로 흩어졌다. 중앙선 개통 직전까지 수여선은 영서지방의 물자를 수송하는 핵심 교통수단이었으나 원주와 서울을 직접 연결하는 중앙선이 등장하자 수여선의 화물수송량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결국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는 충북선을 운영하던 조선철도주식회사와 병합한다.

게다가 수여선은 식민지 수탈형 철도노선이라는 태생적인 한계도 가지고 있었다. 수여선은 서울 근교의 철도임에도 일본으로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서울이 아닌 인천항과 연결된다. 중앙선을 개통한 지 고작 3년 만에 해방을 맞이하자 일본으로 가는 물자는 사라지고, 수여선은 그나마 유지하던 화물수송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만다.<sup>3)</sup> 한때 지역 간선철도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였던 수여선이지만 해방 이후 지역 철도에 국한된, 극히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3) 1936년의 화물수송량을 기준으로 수원에서 여주 방향으로 들어오는 화물보다, 여주에서 수원 방향으로 나가는 화물이 약 60%가량이나 많다. 반면 해방 이후인 1951년의 경우 여주 방향으로 들어오는 물량은 그대로인데 비해 수원으로 나가는 물량은 40%나 줄어든다. 인천항에서 일본이나 만주로 빠져나가는 미국 등의 화물 운송이 사라졌고, 기차가 아닌 화물트럭을 사용하는 경우도 조금씩 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화물수송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여선은 이후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 존속한다. 이천·여주·용인 등지에서 의외로 여객수요가 상당했기 때문인데, 특히 이천역에서 타고 내리는 승객이 많았다.<sup>4</sup> 이는 수원과 여주를 동서로 잇는 수여선 철도와 서울과 충주를 남북으로 잇는 3번국도가 이천에서 교차하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1년부터 19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용인역과 여주역의 승객수는 이천역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버스 이용이 일반화되는 1960년대 중반 이후로 이천역에서 기차를 타고내리는 승객이 확연히 늘어난다. 이천역 주변 지역과 여주 방면의 주민들이 서울로 가려면 수원행 기차를 타고 수원에서 경부선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우회길이고 차라리 이천역에서 내려서 마장동까지 운행하는 국도3호선일명 3번국도의 버스를 타는 편이 훨씬 수월하고 가까웠다.



수여선 철도 노선의 이용객 수(1971년 기준)

『철도통계연보』 1971에 의하면 이천역에서 여주 방향으로 향하는 승객은 5만 1,777명이다. 반면 여주 방면에서 이천역으로 도착하는 사람은 4만 7,420명에 지나지 않는다. 수원 쪽 노선은 반대 성향을 보인다. 수원 방면에서 이천으로 오는 승객은 4만 3,991명이나 되는데 비해, 이천에서 수원 방향으로 가는 승객은 3만 8,795명에 불과하다. 물론 이천읍을 목표로 오는 승객수를 무시할 순 없겠지만, 이천역에서 이처럼 승객 역전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이천에서 버스나 기차를 갈아타고 서울, 혹은 여주 방면으로 가는 여객수가 상당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5</sup>

4) 1960년대 중반까지 수여선의 영업수익 중 여객수송 비중이 60%에 이를 정도였다.

5) 토도로키 히로시, 「水驪線 철도의 성격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64쪽.

용인역에서 급수하는  
증기기관차(1953년 5월,  
출처 : Dons rail photos)



#### 4. 느릿느릿 학교도 가고, 시장도 보고

1950년대만 하더라도 여주는 명승지이지만 교통이 불편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수원역에 도착해서 수여선으로 갈아타고 여주역에 닿으면 거의 7시간이 지났다. 신록사와 영릉을 둘러 보기에다 벅찬 일정이다. 수여선 기차는 형편없이 느렸다. 평균속도는 시속 22km 정도였는데 석탄으로 물을 데워 증기압력으로 달리기 때문에 힘도 약했다. 언덕을 오르는 열차가 힘이 부쳐 속도가 느려지면 손님이 내려서 기차와 함께 걸어가기도 하고, 기회를 노리던 동네 꼬마들이 몰래 올라타기도 했다.

스팀기관차가 운행할 때는 석탄을 떼가지고 스팀 기운으로 올라가는 거거든? 근데 수여선은 고개가 많았어요. 여기서 밤고개, 율현리고개지. 거기가 구배<sup>6</sup>거덩? 저기 오천 지나서 제일리 가는데 양지고개, 유산리 고개. 차가 이상 막 가질 못해서 도로 빠꾸를 해서 내려왔다가, 이 밑에서 다시 스팀을 올려가지고 댕다 그냥 폭

6) 구배(勾配) : 비탈길 등의 기울기를 의미함. 비탈 · 오르막.

꼭거리고 올라갔다고. 힘이 안되니까. (지금으)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엔 그랬다고. 또 스팀기관차가 땡길 적에는 급수를 해야 되잖아요. 물을 끓여서 스팀으로 가는 거니까. 스팀에 물 넣는 장소가 여주역·이천역, 또 오천에도 있었는데 오천 가는 중간에 없어져 버리고, 용인역 이렇게 세 군데서 꼭 물을 넣었어요. (기차가) 가다가 중간중간 그렇게 급수를 했다고. 이천역에 들어오면 벌써 급수부터 해야 하니까는 시간이 걸리지. 그리고 석탄 때는 거니까 밑에 (석탄재를) 떨어내 가지고 다시 이양~ 불길이 올라가도록 맨들어야지. 아주 느린 차지 뭐. 이천역에 한번 들어오면 보통 한 10분 내지 15분 그동안 꼭 섰었다고. (제보자 : 지근환)

어릴 적에 여주에 볼 일이 있거나 놀러 갈 때도 탔어요.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기차가 타고 싶어서 학교도 안 가고 땡땡이 치고 애들하고 그거 타러 갔다 와서 혼났는데……. 초등학교 때는 객차客車에 타면 표를 조사하니까 화차貨車에 탔어요. 화물칸에 타고 갔다가 기차역에 도착하면 문을 조금 열고 뛰어내려서 냅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여주 강가에 가서 놀다가 다시 기차를 타고 오는 거지. 그러다 아버지한테 걸리면 많이 혼나곤 했지. (제보자 : 원인철)

(기차가) 힘이 없어가지고 밤고개 아시죠? 율현동에 작은 고개가 있어요. 기차가 칙칙폭폭 와가지고 그 고개를 못 올라가면 뛰어올라 타고 다시 내려서 기차랑 같이 뛰다가 다시 올라타고, 그리고 또 갈산리에서 올라오는 길이 또 조금 높아요. 그러면 여주에서 오다가 (기차에서) 뛰어내렸다가 기차하고 같이 뛰고 그러다가 다시 (기차에) 올라타고 그랬어요. 그때 기차가 석탄을 때는 거여서 힘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몰래 타고 뛰어내리고 하면서 놀았어요. 얼마나 느렸냐면 여주에서 6시 반쯤 떠나면 수원에는 11시쯤 도착할 정도로 많이 느렸어요. (제보자 : 임명길)<sup>7</sup>

197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국도와 지방도를 정비하며 자동차교통이 발전한다. 지역 철도에 머물렀던 수여선은 주행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여객용 디젤동차를 도입하는 등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하였지만 타 교통수단에 밀려 조금씩 경쟁력을 잃어 갔다. 애초에 수여선 철도는 자동차교통이 대중화되기 전까지 도보와 우마에 의존했던 전근대 육상교통수단을 대체한,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여선은 폐지되기 직전까지 이천과 주변 지역 사람들의 거의

7) 원인철·임명길의 인터뷰 내용은 이천문화원, 『이천시 도심권 문화유적·민속조사 보고서』, 2016에서 발췌하였다.



이천역에서 기차를 타고 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출처 : 이천시 멀티미디어 자료실, 기증 : 이나영)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사랑을 받았다.<sup>8</sup>

비좁고 불편해도 협궤열차의 여객칸은 특별한 공간이었다. 승객으로 가득한 객실은 추억과 낭만, 그리고 정이 흘러넘쳤다. 일제는 조선인의 고등교육을 위한 상급학교 설립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였는데 이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해방 직전까지 이천에는 15여 개의 공립국민학교만 있어 국민학교를 졸업해도 마땅히 진학할 수 있는 상급학교가 없었다. 다만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넉넉한 일부 학생만이 타지의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는데 이들이 수여선의 대표적인 이용객이었다.<sup>9</sup> 비슷한 시간에 좁디좁은 여객칸에서 늘 마주치다보니 서로 자연스럽게 얼굴을 익히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수여선을 이용한 윤필영은 익숙한 얼굴의 학생이 보이지 않으면 상급학교로 진학하였거나 졸업을 한 것이어서 기차 안에서는 그 학생에 대한

8) 수여선 철도노선과 비슷하게 놓인 42번국도를 따라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었으나 비포장 구간이 많아 속도가 느렸고 기차에 비해 운임마저 비싸서 이용객이 적었다.

9) 해방 직전인 1945년 4월에야 비로소 이천지역 최초의 상급학교인 이천공립농업학교(현 이천제일고등학교)가 설립된다. 그나마 수원에는 1907년 세워진 수원농림학교와 1936년 개교한 수원공립농업학교(5년제)가 있어, 이천을 비롯한 수여선 인근의 학생들이 상급학교를 다니기 위해 통학을 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수여선을 이용한 통학생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해방 이후 철도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수여선 학생정기권을 구매한 학생이 전체 이용객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에 달했다.

이야기를 하며 부러워했다고 한다.<sup>10</sup>

수여선의 또 다른 주요 승객은 수원영동시장으로 장을 보러가는 지역 주민이다. 물론 이천에도 이천장이나 오천장이 있고, 용인과 여주에도 각각 지역 시장이 있었지만, 일부러 기차를 타고 수원의 영동시장으로 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일제강점기만 하더라도 수원시장의 매출은 이천의 장호원장이나 여주의 읍내장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애당초 수원의 영향력 자체가 경기도 남부지역의 중심지로 기능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했다. 그런데 한국전쟁 이후 수원천 일대에 피난민이 몰려들어 시장이 형성되고, 수원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상황이 변한다.

예전에는 ‘장을 본다’라는 말에 ‘사다’와 ‘팔다’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었다. 수원 영동시장은 시장을 보기 위한 ‘물건을 사고팔기’에 최적의 장소가 되었다. 수여선 기차를 타고 장을 ‘보러’온 사람들에게 의해 이천의 쌀과 채소가 거래되고, 인천의 소금과 비료가 화물칸에 실려 들어왔다. 내륙에서 보기 힘든 해산물도 장을 보러온 사람들에게 의해 이천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주로 여기이천서 수출 …… 기차로 나간 게 양곡이고 여기로 들어온 거는 인천항에서 수인선타고 들어오는 소금·비료, 이게 주로 많이 들어왔죠. 광궤선으로 수원역으로 들어온 거를 수원역에서 협궤선으로 옮겨 실은 거예요. 그때 운행한 열차는 스팀기관차가 화물차하고 맨 꿈무늬에다가 여객 객실, 여객 객차를 달아가지고 혼합으로 운행을 했고 …… 무슨 저 가락지시장이니, 이런 시장처럼 자기네들이 이천에 와서 장을 벌여놓은 게 아니고, 이천 상인들한테 물건을 갖다 주고 장사를 한 거지. 그 사람네가 수원 수산시장 같은 데서, 인저 수인선이 바닷가니까 거기서 나오는 생선 가지고, 여 와서 아는 집에 넘겨주고 그렇게. 장사지 뭐. (제보자 : 지근환)

잠깐 물건 사러 갈 때는 이천장이나 오천장 가고, 큰 장 볼 때는 영동까지 갔지. 오천장은 조그맣고 금방 없어졌으니까. 이천 많이 갔어. 이천 갈 땐 기차 안타고 장승이고개 그냥 넘어서 갔지. 토끼길인데 국도보다 지름길이거든. (제보자 : 김현우)

옛 곳에서는 쌀농사 잘 못해서 야채·참외·고구마 그런 것들을 심었었지. 팔 때

10) 윤필영, 「수여선 협궤열차를 타다」, 『경기도민이야기2-지금은 잊혀진 협궤열차 이야기 수려선』,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15, 80쪽.

는 영동까지 갔다 왔는데, 거기가 부피가 크고 잘 팔렸으니까. 물건은 짐칸**화물차**랑 에다 싣고 몸은 객칸**객차**에 가서…… 시장에서 하루 앉아 파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나도 화성 내리면 단골 시장상인에게 맡겼어. 그 몸으로 생필품을 사고, (제보자 : 최순희)<sup>11</sup>

## 5. 이천역의 마지막 역무원

지근환은 이제 홀로 남은, 이천역**利川驛**의 마지막 역무원이다. 해방 이전인 1944년, 이천역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여 평생을 철도역무원으로 살아왔다. 인터뷰를 하던 노옹이 품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낸다. 혹시라도 기억을 잊을세라, 스스로 평생의 삶을 기록한 수첩이다. 한 글자, 한 글자 꼭꼭 눌러쓴 글씨에서 애잔함이 묻어난다. 홀로 남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젊은 날의 찬란함과 세월의 무상함, 아쉬움과 그리움이 느껴지는 말투로 지근환은 담담하게 이천역을 추억하였다. 지근환은 해방 이전인 1944년, 조선철도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사촌형의 소개를 받아 수여선 철도와 첫 인연을 맺는다.

글방에서 한문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일본놈들이 신교육이라고, 자기네 교육시킨다고 학교 나와라 그래가지고 국민학교를 뒤늦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나니까 그때 조선철도주식회사예요, 철도원 양성한다고 시험을 봐서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받고 현장으로 배치되는 거죠. 그 때문에 내가 거기 철도에 우리 사촌형님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분 소개로 해서, 가서 시험을 치르고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자 이제 바로 이천역으로다가 취업이 되었죠. 19살? 20살? 그 무렵이요, 그래가지고 기관사들도 있고, 일반 역무원. 이렇게 해서 시험을 해가지고 용산인가 어디로 가서 교육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사촌형님이 철도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천역으로 **발령을 받고** 역무원으로, 그때 직급이 처음 들어가면 역숙, 한참 올라가면 역무원. 거기서 시험보면 조역이나 그 위에 차장이라든가 할 수 있었지.

11) 김현우·최순희의 증언은 토도로키 히로시, 「水驪線 철도의 성격변화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0)에서 발췌하였다.

내가 1944년도에 철도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스타트가 이천역이에요. 일정 때 내가 이천에서 근무를 했지. 해방 전에. 그래서 해방을 이천역에서 맞은 거야. 이천역에 근무한 사람이 아마 현재 나 밖에 남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제 돌아가고 …… 기관사 출신이 용인 쪽에, 양지 쪽에 있는데 그분들도 돌아갔는지 아닌지 연락이 없어서 몰라요. 자꾸 죽어 가면 없어지는 거고, 살아서 경험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 줘야 기록이 남는 거지. 다 죽으면 기록이 묻혀버리고 모르는 거지. 수여선이 그게 뭐여? 있었던가? 하면서.

이천에는 6개의 기차역이 있었다. 수원에서 여주 방향으로 각각 오천역-표교역-유산역-이천역-무촌역-죽당역에 이르는 구간이다. 제일역을 출발한 기차는 용인 양지면에서 가장 높은 금박산 밑을 지나 이천 마장면 소재지인 오천역에 도착한다. 이천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기차역이다. 1972년에 수여선이 폐지되고, 다른 모든 역은 사라졌지만 오천역은 한동안 남아 있었다. 폐선 이후 민가로 사용하다가 전기공업사가 들어서며 최근까지 운영을 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오천역은 수여선의 유일한 역사驛舍 건물로 남아 있었으나, 이천마장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2015년 11월에 철거되었다. 마지막 남은 오천역마저 없어지며 수여선은 이천 사람의 기억에서 영영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폐선 이후 45년이 지난 지금도 이천 곳곳에 옛 수여선의 흔적이 남아 있다.

아직도 연세가 지긋한 이천의 노인들은 이천 시내 도로망의 중심인 분수대오거리를 ‘역전광장’이라고 부른다. 바로 이곳에 ‘이천역’이 있었기 때문이다. 분수대오거리에서 서회청소년문화센터 방향으로, 현재 시민약국 자리가 이천역의 역사驛舍 건물이 있던 자리이다. 지금의 건물 이름도 그래서 ‘역전빌딩’이다. 그 앞에 이천역을 기억하는 작은 표지석이 있다. 다시 발걸음을 돌려 시민약국을 지나 50m쯤 올라가면 당시 농업창고가 있었던 하나로마트가 보인다. 이곳에서 서회청소년문화센터 방향을 바라보고 양 옆으로 먹자골목이 이어진다. 고깃집·횃집·호프집 등 이천의 맛집이 골목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골목에서 소주 한잔으로 고된 하루일과를 마무리한다. 불과 45년 전만 하더라도 협궤열차가 지나던 기찻길이다. 먹자골목 초입현 동부파출소의 신호기가 열차의 진입을 알리고, 옥수목욕탕 자리에 있던 물탱크에서 물을 끌어와 증기기관차의 보일러를 채웠다. 수여선이



이천역에서 근무하던  
시절(왼쪽)과 현재의  
지근환 옹



동료들과 이천역 앞에서(왼쪽 끝이  
지근환)



철거 직전의 오천역 건물(출처 : 이  
천시 공식블로그 '이천가지 행복에  
빠지다')



폐선되기 이전인 1969년 항공사진과 현재의 지도를 비교해보면 당시 이천역 주변의 구조를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6. 주민 여러분 안녕!

수여선 기차는 1972년에 ‘주민 여러분 안녕’ 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달고, 기적 소리를 울리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해방 이후 이천과 여주·용인 등지의 교통을 대신할 별다른 대안이 없어 제법 오랜 시간을 살아남았지만, 수여선은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하면 곧 사라질 운명이었다. 1965년에 경남여객운수회사가 수원-여주 간 직행버스노선을 투입하였고, 1966년을 기점으로 화물수송량마저 화물트럭에 밀리자 수여선의 적자는 쌓여 갔다. 폐선 직전인 1971년의 연간 여객수송인원은 12만 8,407명이며 화물운송량은 8만 7,674톤으로 총 3,641만 4,000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수여선의 연간 유지비용은 운영 수익을 한참 뛰어넘는 2억 원 이상이였다. 적자가 무려 1억 7,0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수여선의 적자운행은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은 운행요금과 시설개량, 인력삭감 등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경영노력의 부재가 어우러진 면이 없지 않다. 그래서인지 수여선 폐선을 다룬 신문기사는 대부분 안타까운 논조로 마지막 모습을 보도하였다.<sup>12</sup>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일지는 모르나 지역주민의 사랑을 받았던 수여선의 마지막치곤 너무나 허무한 결말이다.

수여선을 유용하게 이용하던 지역 주민들이 폐선 반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않았다는 점이 의아하다. 그러나 실상은 지역민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라기보다 낼 수 ‘없었다’에 가깝다. 폐선이 결정될 무렵인 1970년대 초반은 위정자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던 시대였다. 애당초 우리나라 철도부설 자체가

12) “애환신고 40년, 수여선 31일 마지막 운행”(『매일경제』), “사라지는 꼬마열차, 수여선 개통 41년만의 아쉬운 이별”(『동아일보』), “카메라르포, 애환신고 40년 적자의 종착”(『서울신문』) “아듀 수여선 칙칙폭폭 목멘 고별 운행”(『경향신문』) 등 여러 신문에서 수여선 폐선을 안타까워하는 당시 주민들의 인터뷰를 확인할 수 있다.



1969년(왼쪽)과 2016년(오른쪽)의 항공사진. 이천역 앞의 광장은 분수대오거리로, 수여선 기차길은 먹자골목으로 변한 현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네이버지도)



수여선 열차의 마지막 운행  
(출처: 이천시 멀티미디어 자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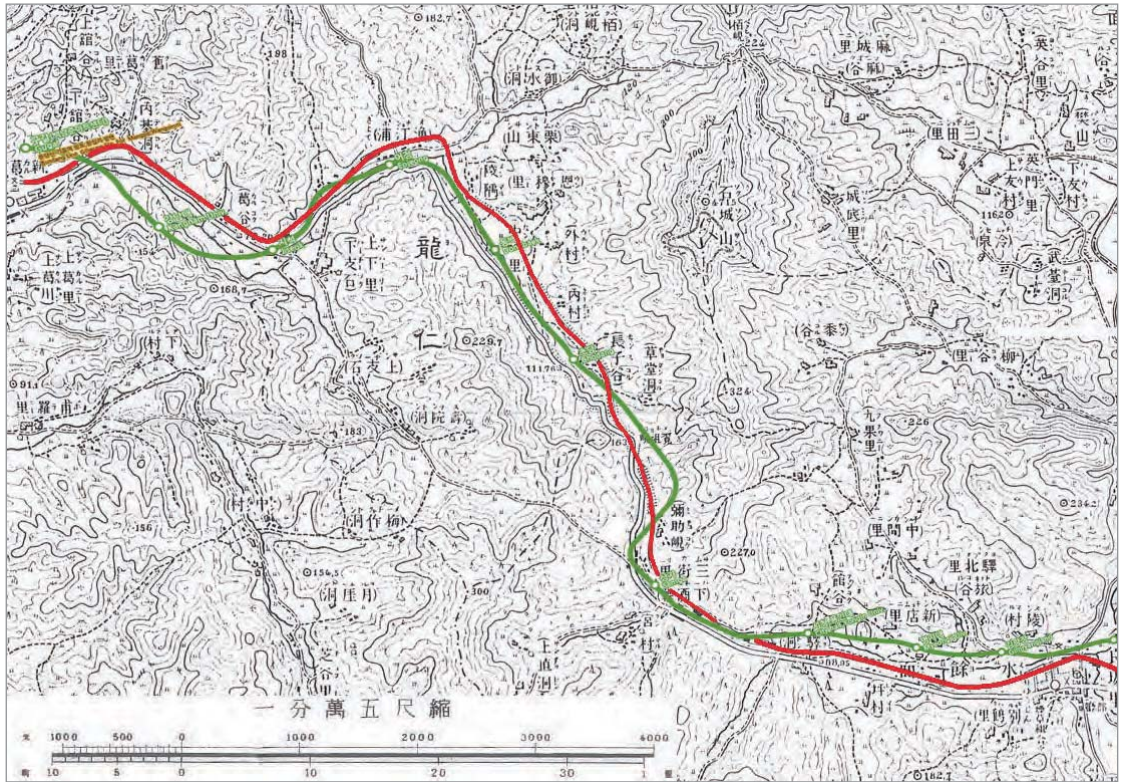
정치적인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억지스러운 면이 많았다는 말이다. 승객의 편의와 이용빈도를 고려한 자연스러운 결정과 거리가 멀었다. 폐선의 과정도 마찬가지다. 반대여론이 적었던 이유도 무엇보다 정부의 결정에 절대 복종해야 했던 사회적인 분위기의 영향이 컸다. 물론 수여선이 사라지더라도 광역버스가 늘어나면 그럭저럭 수요를 감당할 것이라는 전제는 있었지만, 지근환은 지역을 대표하는 몇몇 사람들이 마음만 먹었으면 수여선이 폐선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그 당시에 폐선이 된다고 철도청에서 하니까 여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론. 지역적으로 수원·용인·이천·여주 이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철도청**이 여론을 타진한 거예요. 타진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그냥 뭐야 썩 달갑게 생각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손쉽게 폐선을 해버렸어요.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해야 버티는데 ‘에이 협궤선, 그 까짓 거……’ 그 당시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쟁쟁한 사람들이예요. 수원에 …… 이름이 뱅뱅 돌면서 생각이 안 나네. 그 수원국회의원. 그리고 용인국회의원은 내 이름도 안 잊어버려. 서상린 씨라고 교통체신분과위원장. 교통체신분과위원장을 한 사람이에요.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때 차지철이가 이천. 그리고 여주는 이백일인가? 확실치 않아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무슨 소리냐 광궤로 놔라. 협궤가 적어서 지장이 있는 거 같으면 광궤를 놔라’ 이러면 철도청에서 감히 그런 사람들 말을 헛되이 들을 수가 없었을 거야.

효율적인 공공교통시스템 구축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장기적인 시선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단순히 교통이 편리해지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며,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역민의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수여선은 1972년 3월 31일자로 폐선되고 말았다.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수여선의 폐지는 여러 모로 아쉽다. 철도청은 폐선된 수여선 철도부지를 법인이나 개인에게 매각하였다. 잘 닦인 수여선 부지는 ‘새마을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많은 구간이 ‘새마을도로’로 바뀌었다. 나머지 구간은 논밭으로 쓰이거나 심지어 그냥 방치한 경우도 많다.

그런데 쓸모없을 줄 알았던 옛 수여선 노선에 새로운 기찻길이 깔리고 있다.





수여선 노선(빨간색)과 현재의 용인경전철 노선(초록색). 구갈-김량장역까지 거의 일치한다.

2017년 11월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순환철도망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사업’을 시작하였다. 2019년 사업추진을 목표로 수도권을 순환하는 철도망을 갖추겠다는 복안이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수도권을 감싸며 타원형으로 구성한 철도망, 그중 경기 남부지역의 여러 구간이 옛 수여선과 여러 부분에서 겹친다.

2013년 4월에 개통한 용인경전철 노선도 마찬가지다. 용인경전철은 분당선과 맞닿은 기흥에서 출발하는데 여러 구간이 옛 수여선 노선과 거의 일치한다. 일부 구간은 아예 옛 수여선 부지를 재활용하였다. 특히 어정역에서 김량장역 구간은 수여선 노선을 그대로 옮겨놓았다고 봐도 어색하지 않다.

2016년에 경강선 판교-여주 구간을 개통하며 수여선 폐지 이후 44년 만에 이천에도 열차가 다시 등장했다. 2017년 12월에는 서원주와 강릉 구간도 개통되어 2023년 완료 예정인 원주와 여주 구간만 연결되면 비로소 우리나라를 동서로 횡단하는

경강선이 완전히 제 모습을 드러낸다. 이천에서 기차를 타고 동해바다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안타깝다. 수여선 착공 당시 원주까지 연결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다만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 수여선은 여주에서 멈추고 말았다. 만약 수여선을 1972년에 폐지하지 않고 표준궤로 확장하거나 현실적인 요금책정 등의 방법을 통해 유지할 수 있었다라면 수도권 순환철도망, 용인경전철, 경강선의 사례처럼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낭비는 없었을 것이다.

폐선할 때, 3월 31일이라고 그랬나? 그 3월 31일은 종일 운행하는 차를 거저 전부 태워줬어요. 마지막 날이라고 공짜로. 그러니까 호기심도 생기고 공짜로 한번 타보겠다고, **사람들이** 탔는데. 하도 사람이 몰려가지고 객차 스프링이 눌러앉는 거여. 사람이 많이 타니까. 그러니까는 기관사하고 차장이 돌면서 내리라고, 잡고 끌어내리고, 아니 객차 두량에 각처에서 탔을 테니 각 역마다 탔을 거 아냐. 더 이상은 내려앉아서 운행을 못하겠다. 내려라 내려라. 운행을 못하겠다. 평소에는 그렇게 안 타지. 스프링이 내려앉을 정도로 탔으면 적자가 안 나게?

이별을 아쉬워하는 주민의 인사를 받으며 수여선 협궤열차는 홀연히 사라졌다. 마지막 운행을 기념하여 하루 종일 무료로 기차를 운행하였는데, 여기저기서 수여선 기차를 타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였다. 열차를 지지하는 스프링이 내려앉을 정도였다. 매일매일 만원승객으로 기차가 가득 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껏해야 말이나 배를 타고 여행을 하던 시절, 수여선 기차는 이천 사람들을 새로운 세상과 이어준 고마운 존재였다. 수여선 협궤열차가 이천 주민의 애환과 추억을 싣고 달렸듯이, 이천을 달리는 새로운 철길에서 또다시 이천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길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철도청 기획관리실, 『철도연보 1971』, 1971.

한국철도공사 홍보실, 『철도창설 제111주년 기념 철도주요연표』, 2010.

이천문화원 · 강남대학교 인문기술공감연구소, 『이천시도심권 문화유적·민속조사보고서』, 2016.

수원박물관, 『2017 수원박물관 테마전-다양한 삶의 교차점, 수원역』,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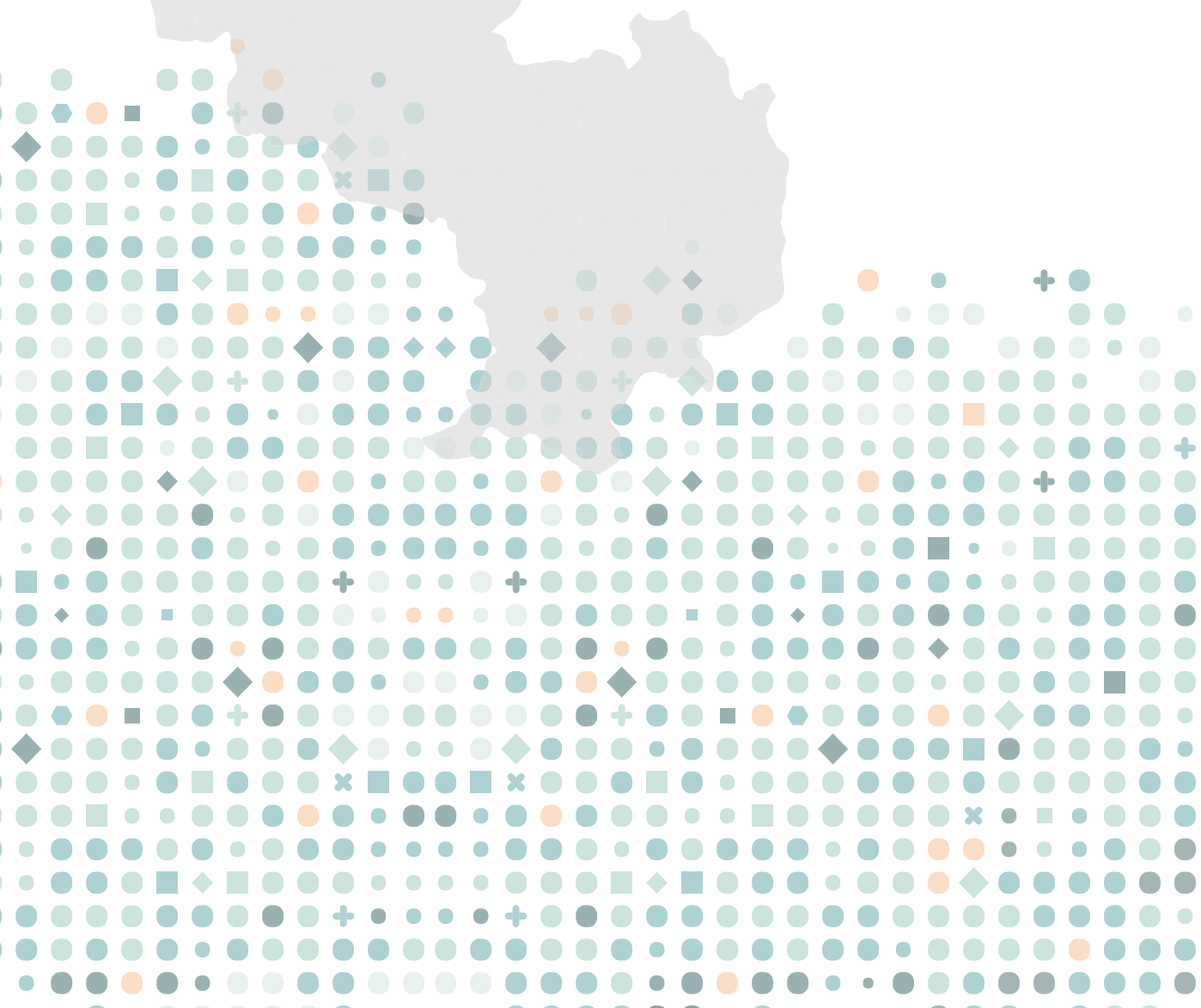
토도로키 히로시, 「水驪線 철도의 성격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이상배, 「朝鮮時代 南漢江 水運에 관한 研究」, 『강원문화사연구』 5권, 2000.

윤필영, 「수여선 협궤열차를 타다」, 『경기도민이야기2-지금은 잊혀진 협궤열차 이야기 수려선』,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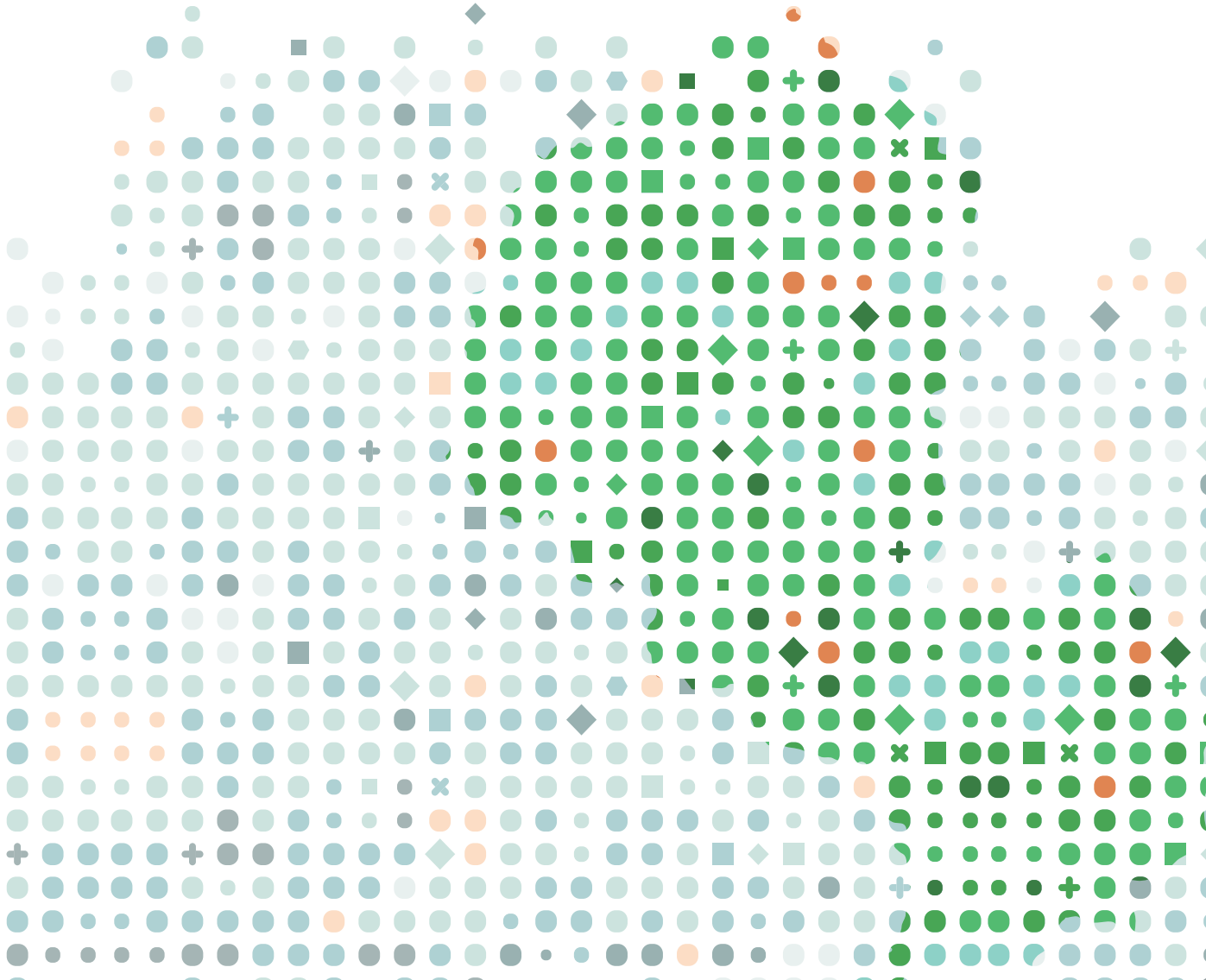
Don's rail photos(<http://donsdepot.donrossgroup.net/dr036.htm>)

# 천년의 흔적



# 4편

---







01

격동의 발자취,  
성곽



서영일 | 한백문화재연구원 원장

## 제1장 격동의 발자취, 성곽

### 1. 이천의 옛 성곽

일반적으로 성곽<sup>城郭</sup>은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한 군사시설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성곽은 대부분 산성이다. 산성은 산에 축조되어 평지에 위치하는 도시나 마을과는 분리되어 있다. 그 때문에 산성은 유사시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평화시에는 관리만 이루어지는 군사시설로 보는 인식도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성곽은 군사목적뿐만 아니라 행정목적을 병행하기 위해서 축조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한양도성이나 읍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고려시대와 통일신라시대, 그리고 삼국시대로 가면, 산성이 행정의 거점으로 활용된 예는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한국에서 산성이 가장 많이 축조·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이다. 삼국이 서로 치열하게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이 빈번하였다. 특히 산성을 중심으로 서로의 세력권이나 경계가 정해지게 되었다. 교통로를 따라 군사와 행정거점에 산성을 축조하였는데 왕도에서부터 변경지역까지 산성이 이어졌다. 여기에 군대가 주둔하고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촌락을 행정적으로 다스리게 되면서 군사와 행정목적이 결합된 지방통치구조도 마련되었다. 그 흔적이 고려 전기까지도 그대로 이어졌다. 따라서 각 군현<sup>郡縣</sup>에는 반드시 군사와 행정의 중심이 되는 산성이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유독 외침이 많았다. 고려 전기와 중기에는 북방에서의 침입이 많았고 후기에는 왜구의 침탈이 자주 있었다. 특히 13세기 고려와 몽골은 60년에 걸친 치열한 항쟁을 펼쳤다. 이때 몽골군에 대항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 많은 산성이 축조





이천의 대표적인 산성인 설봉산성(사적 제423호) 전경



설봉산성에서 출토된 백제시대 토기들

되었다. 그 당시 산성은 전통적인 산성의 입지에 축조되지 않았다. 압도적인 몽골군의 군사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섬이나 산간오지로 대피시키고 마을과 도시를 비우는 청야전술을 활용하였는데, 이때 백성들이 안전하게 대피하여 몽골군에 저항할 수 있도록 높고 험한 산꼭대기에 산성을 축조하였다. 이러한 산성을 입보용 산성이라 부르는데, 일종의 피난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왜구의 약탈이 해안지역에 집중되면서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에는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읍성이 축조되었다. 왜구의 약탈을 피해서 해안지대의 백성들이 내륙으로 도피하였고, 그 결과 왜구의 약탈도 점차 내륙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그 대책으로 해안지대 백성들을 안주시키기 위해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읍성을 축조하였는데, 이것이 조선시대 지방도시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성곽이 축조되었다. 그 결과 현재 각 지자체별로 수 개의 성곽이 존재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이천시 일대에서 조사된 성곽은 설봉산성·설성산성·망이산성·효양산성·장암리성지·제요리성지·중일리토성·저명산성·도드람산성·원적산성·진가리토성 등이다.<sup>1)</sup> 그러나 이 중에는 성벽의 흔적이 뚜렷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

원적산성은 조선 후기 각종 지리서에 공민왕이 홍건적의 침입 당시 머물렀던 곳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진가리토성·장암리토성·제요리토성 등도 주변 마을이나 일부 조사기록에 성이 존재하였다고 하지만 현지실사를 한 결과 성벽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대부분 평지에 위치하여 마을이 확장되거나 주변이 개발되면서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경우 대체로 유물이나 성벽 흔적은 일부가 남아 있지만,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현재 기록이나 실물이 남아 있는 이천지역 각 성곽들을 축조된 시기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것으로 나누어진다. 각각 축조시기에 따라 입지와 기능에도 차이가 있다. 먼저 각 산성들을 축조시기에 따라 나누고 그 역사적 성격을 살펴보겠다.

1) 여기의 10개는 문헌과 고고학 조사로 그 가능성이 확인된 것들이다. 그밖에도 『이천춘추』에는 노성산과 해룡산에 토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하여 필자가 현지조사를 진행했던 적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조선시대 지리서 등 문헌기록도 없다. 따라서 현재까지 고고학 조사로 확인된 성곽은 총 10개로 볼 수 있다.



삼국시대 산성은 설봉산성과 설성산성 등이 대표적이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던 것들이다.

설봉산성은 설봉산 자락 동쪽 봉우리에 위치하며 이천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산성이다. 고구려가 이천에 진출하여 설봉산성을 쌓고 남천이라 부른데서 유래하여, 삼국시대 이천의 지명은 남천(南川·南賈)이라 했다고 한다. 하지만 발굴조사 결과 고구려가 축조하거나 사용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칼바위 부근 일대에서 백제시대 저장구덩이(土壙)<sup>2</sup> 100기 이상 발견되었고, 그중 일부에서 백제 토기도 출토되었다. 곡물이나 생활필수품을 저장하던 항아리와 여기에 주둔하던 군사들이 배식용으로 사용하던 그릇들이었다. 이 토기들은 백제가 처음으로 설봉산성을 쌓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이후 6세기 후반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면서 설봉산성은 신라의 남천주(南川州·南川停)의 치소(治所)로 사용되었다. 그 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산성으로서 기능을 일부 유지하고 있었다.

설성산성은 조선시대 음죽현의 치소였던 장호원을 선읍리에 위치하고 있다. 모두 네 차례에 걸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산성의 중앙부 평탄지에서 백제시대 군막사로 사용되었던 주거지들이 발굴되었다. 또한 주거지와 저장구덩이에서는 한성백제시대 다양한 종류의 토기들과 목곽고<sup>3</sup>가 출토되었다. 설성산성에서는 백제 성벽, 막사, 목곽저장고, 저장구덩이 등 산성의 운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시설이 망라되어 출토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더구나 아직까지 한성백제시대 산성 중에서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이 출토된 예는 없다. 대체로 설봉산성과 같은 시기에 축조된 이후 신라를 거쳐서 고려시대까지 활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설봉산성과 설성산성은 삼국시대부터 이천지역과 경기도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대표적인 산성으로 꼽힌다. 현재까지 알려진 백제 산성 중 가장 오래된 석축성으로도 추정된다.<sup>4</sup> 4세기 후반은 근초고왕 대로 한성백제의 전성기였다. 이 당

2) 단단한 땅을 단면이 플라스크 형태를 이루도록 파내어 지하에 공간을 만들고 그 위에 지붕을 만들어 곡물 등 생활필수품을 저장하던 시설이다. 마을이나 산성 등 주거지 주변에서 출토된다.

3) 땅을 네모나게 파내고 지하에 나무로 지은 창고이다. 저온항습시설로 채소·과일·고기 등 저온저장이 요구되는 식료품과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저장고로 추정된다.

4) 일부 학자들은 백제가 토성을 쌓고 그 후 신라가 진출하여 석성으로 개축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설성산성에서는 석축성 위에서 백제군의 막사가 출토되었다. 석축성은 외벽을 돌로 쌓고 그 뒤로 석재로 뒤채움을 한 후 다시 그 뒤에 진흙에 마사토나 모래를 섞어서 다져 올린다. 구조상 크게 전면 석축부와 후면 토축부로 나누어진다. 백제군의 막사는 바로 이 토축부의 상면을 파서 조성하였다. 이는 석축성이 백제시대에 축조되었다는 근거가 된다.

시 백제는 남한강 상류지역과 금강 상류지역을 공략하여 영토 지배권을 확고히 하였다. 당시 이천지역은 한성에서 충주와 원주, 진천과 청주 방면으로 진출하는 길목이었다. 이 길목에 백제 동남방 진출의 거점으로 설봉산성과 설성산성이 축조된 것이다. 설봉산성과 설성산성이 한성백제 산성으로 확인된 후 충주 장미산성, 진천 대모산성, 증평 추성산성 등 한성백제시대 산성들이 연이어 확인되었다. 설봉산성과 설성산성은 백제 동남방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이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설봉산성과 설성산성은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도 전략적인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신라는 경주에서부터 추풍령로·계림령로·죽령로 등을 거쳐서 한강유역에 진출하였다.<sup>5)</sup> 이 중 이천을 통과하는 계림령로는 신라시대 서라벌과 한산주하남 이성산성을 연결하는 대표적 교통로였다. 설봉산성과 설성산성이 바로 이 계림령에 위치하고 있었다. 553년신라 진흥왕 14 신라가 한강유역 6군을 백제로부터 탈취할 때도 설성산성과 설봉산성을 전진기지로 삼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서울에는 한산주를 설치하고 충주에는 국원소경을 설치하였는데, 설봉산성과 설성산성은 한산주의 배후거점으로 국원소경과 한산주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설봉산성과 설성산성을 제외한 저명산성·증일리토성·원적산성 등 대부분 이천의 성곽들은 고려시대에 축조되었다. 증일리토성은 설봉산 줄기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 대부분 흙으로 성벽을 쌓은 토성이다. 내부에서는 고려 후기의 기와들이 발견되었다. 저명산성은 바위산인 저명산 정상부의 험준한 지형을 활용하여 축조하였다. 성벽을 인위적으로 축조한 구간은 적다. 대부분 자연절벽을 활용하여 일부 구간에만 석축石築하였다. 원적산성은 원적산 정상부의 험준한 지형을 따라 최소한의 구간에만 인공적인 석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훼손되어 현재 인위적인 축성구간은 찾기 어렵다.

이상의 산성들은 삼국시대 석축산성과 비교하면 성벽의 규모나 내부시설이 보잘 것 없다. 단기간에 급하게 축조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아직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구조나 성격은 유동적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축조시기나 배

5) 추풍령로는 추풍령을 지나 보은-청주-진천-안성-화성 당항진으로 연결되는 길이다. 계림령로는 계림령을 지나 충주-장호원-이천-광주-서울 등으로 연결되는 길이다. 죽령로는 죽령을 지나 단양-제천-원주-홍천-춘천 등으로 연결되는 길이다.

경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런데 이런 양식으로 축조한 산성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되었다. 이천 주변 지역으로는 양평 함왕성, 안성 칠현산성, 예산 상중리성 등이 있다. 성벽을 쌓은 방식이 토축과 석축 모두 치밀하지 못하고 자연지형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성벽만 겨우 축조하였다. 내부에서는 모두 고려 후기 13세기경에 해당되는 유물이 발견되었다. 대체로 단기간에 급하게 축조하였고 그리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이다. 모두 13세기 몽골 침략기에 축성된 것이다.

고려 초기 거란의 침입이 개성 북방에 집중되었고, 큰 전투 역시 북쪽 국경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란과 경계가 되는 북계와 동계를 중심으로 성곽의 축조가 활발하였다. 개경 이남에서는 삼국시대 산성을 보수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하였다.

거란과 관계가 안정된 이후 고려는 문치文治주의를 표방하면서 점차 국방력이 약화되었다. 문신들이 무관직까지 독점하면서 무신들의 지위도 하락하자 몽골의 침략이 시작되었다. 몽골은 고려에 비하여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몽골 침입에 고려 조정이 취할 수 있는 방어책은 한계가 있었다. 몽골군은 기동력을 앞세워 고려 전 국토의 구석구석까지 누비고 다녔다. 전국 어디도 안전한 지역이 없었고 백성들은 스스로 살 궁리를 모색해야 하였다.

고려 조정은 전면전으로 대항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백성들을 해도와 내륙으로 피난시켜 산성을 쌓고 농성전籠城戰을 하는 조치를 내놓았다.<sup>6</sup> 문제는 그 많은 산성을 한꺼번에 축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었다.<sup>7</sup> 중앙에서는 방호별감을 각지에 파견하여 몽골군과의 항전을 독려하였다. 방호별감의 지휘아래 각 지방에서는 피난과 농성을 위한 산성을 축조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방수령이나 백성들과 갈등이 발생되기도 하였다. 중앙의 도움 없이 지방민의 힘으로만 축조하다 보니 기술적으로

6) 당시의 축성은 몽골과의 장기항전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청야수성(淸野守城)을 전략으로 삼아 몽골군의 예봉을 피하고 군사력과 백성들을 온존시키고 게릴라전과 같은 비정규전으로 적을 지치게 한 후 퇴각하는 적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몽골군이 쉽게 함락시키기 어려운 고지나 해도에 성곽을 축조하고 민관군이 모두 대피하였다. 이러한 전술은 몽골군에게도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나 고려에게도 부담이 컸다. 즉, 몽골군은 고려의 전략에 맞서서 고려의 농업경제를 황폐화시키고 고려 조정의 통치기반과 백성들의 생활기반을 파괴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몽골과의 장기전에 대한 반감도 발생하였다.

7) 산성을 축조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들어간다. 국가가 노동력을 징발하여 성곽을 쌓으려면 백성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따라서 어느 시대든 성곽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사전에 치밀히 계획되었다. 축성에 필요한 물자나 기술자들도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파견되었다. 하지만 몽골침략기의 축성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전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축성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나 노동력 등 한계에 부딪혀 체계적이고 튼튼한 산성을 축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빠른 시간에 축성하다 보니 입지부터 험준한 지형을 택하였고, 성벽의 축조도 최소한으로 제한되었다.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간단히 흙을 성토하거나 삭토하는 방식으로 성벽을 축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최소한의 노동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축성방안이었다.

물론 삼국시대부터 사용하였던 성곽을 수리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성들은 오랫동안 활용하지 않아서 이를 수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석축성벽은 보수에 필요한 기술자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험준한 지역에 토성을 쌓거나 절벽을 활용하여 일부만 성벽을 쌓는 편이 유리하였다. 설봉산성이 있었는데도 그 주변에 증일리토성이나 저명산성을 축조하였던 것은 그 때문이다.

또한 삼국시대에 비하여 인구가 늘어서 삼국시대 산성만으로 지방민이 모두 대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당시 설봉산성을 수리해서 사용하였다<sup>8</sup> 하더라도, 수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인근 증일리와 저명산에 새로 성을 쌓았을 수도 있다. 설봉산성 주변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서 원적산과 같이 높은 산에 피난성을 축조하였던 것으로도 여겨진다.

저명산성·증일리토성·원적산성 등은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무방비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지배층을 대신하여 지방민이 자신의 고장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쌓은 것들이다. 설봉산성이나 설성산성과 같이 중앙정부의 주도로 축조되지 못하여 성벽의 축조수법이나 모습은 보잘 것 없을지 모르나, 백성들이 국난극복과 생존을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쌓았던 데 큰 의미가 있다.

한편, 효양산성은 축조시기를 짐작하기가 어렵다. 효양산성은 정수장 건설로 일부 성벽이 훼손되었지만 대부분의 성벽이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다.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 신라 남천정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었다. 1989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간돌갈 조각, 무문토기, 신라 토기 등을 발견하였다. 1994년에는 남벽 외부에 정수장 부지 및 남벽 일부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초기 백제시대 주거지 1기 고상가옥의 기둥구멍 등이 발견되었다. 유물로는 백제 토기

8) 설봉산성에서는 고려시대의 건물터가 출토되었고, 신장상과 토제마 등 제의를 지냈던 흔적이 발견되었다. 당시 성 내부에서 외적의 침입에 대하여 안전을 지켜주는 성황신에게 제사를 올린 흔적이다.

증일리토성의 흔적



흙으로 쌓은 효양산성 터

효양산성 터에서 출토된  
신라 토기 조각들



가 출토되었다. 1998년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백제 토기 조각이 다량으로 발굴되었다.

기존의 조사결과, 효양산성에서는 청동기시대부터 삼국시대에 걸치는 유물이 모두 출토되고 있다. 가장 많이 출토된 유물은 백제 토기이다. 백제시대 주거지도 발굴된 것으로 보아 백제마을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백제시대에 이 마을을 둘러싼 성벽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발굴자는 성벽이 백제주거지보다 후대에 축조되었다고 한다.

이후 효양산성은 삼국시대 이후 신라 말이나 고려시대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되지만 이 역시 근거는 부족하다. 아직 이 정도의 발굴조사 결과만으로 효양산성 전체의 성격 문제를 논하기에는 이르다. 성벽이란 여러 차례 개보수를 거쳐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산성의 발굴조사는 전면적인 발굴이 이루어져야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고 효양산성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내성 일대이다. 이곳은 지표에 백제 토기가 산포되어 있고, 해발고도가 188m에 불과하여 백제시대에 이미 마을이 존재했으리라 추정된다. 이미 청동기시대부터 고지성<sup>高地性</sup> 취락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인 것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명확해 질 수 있다.

## 2. 삼국통일의 무대 설봉산성

신라 남천정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 직관지<sup>職官志</sup> 육정<sup>六停</sup>조에 있다. “568년신라 진흥왕 29 신주정<sup>新州停</sup>을 파하고 남천정을 설치하였고, 604년신라 진평왕 26에 다시 남천정을 파하고 한산정<sup>漢山停</sup>을 설치하였다”는 기록이다. 하지만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직관지와 다르게 정<sup>停</sup>이 이동한 것이 아니라 주<sup>州</sup>가 이동된 사실을 기록하였다.<sup>9)</sup> 정은 신라시대 각 주에 설치되었던 군단으로, 주둔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졌다. 신주는 553년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점령하고 설치한 주이다. 새로 획득한 주

9) “진흥왕 29년 북한산주를 폐지하고 남천주를 설치하였다” 또한 “진평왕 26년 남천주를 폐하고 북한산주를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직관지의 정의 이동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직관지는 정의 이동에 초점을 맞추고 신라본기는 주치의 변화를 기록하였을 뿐이다.







라는 의미로 신주라고 하였는데 처음 그 관할 범위는 현재 서울일대를 포함하여 한강 하류지역 대부분과 경기 남부지역 및 충청북도까지 미쳤다. 그 치소는 현재 하남 이성산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5세기 후반 경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에 비견될 정도로 국가체제가 완성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것이 있었으니 독자적으로 대외교섭을 할 수 있는 교역항이 없다는 것이었다. 신라는 한반도의 남동쪽에 치우쳐 있어서 직접 해로를 통해 중국으로 왕래하기 어려웠다. 서해 해로는 고구려와 백제가 양분하였고, 신라는 이 두 나라의 도움이 없이 중국과 교역이 불가능하였다. 삼국이 서로 대결하던 상황에서 신라가 독자적인 교류가 가능한 교역항을 가지는 것은 삼국 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백제에 막혀 신라가 서해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런데 신라에게 그 기회가 갑자기 찾아왔다. 475년 고구려의 공격으로 한성이 함락되고 백제는 왕도를 웅진으로 옮기게 된다. 한강 하류지역은 고구려와 백제의 경계지대가 되었다. 이렇게 되자 신라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때부터 약 50여 년 동안 신라는 한강유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소백산맥 서쪽으로 차근차근 영역확장을 꾀하였다. 드디어 551년과 553년에 각각 2차에 걸친 북진 공략으로 한강유역과 경기도 서해안일대를 모두 점령하였다. 신라는 이 지역을 신주라 칭하였으며, 신주의 군사적 방어와 지방통치를 위해 설치한 것이 신주정이다. 이때부터 삼국 사이에 한강유역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전쟁도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총력전의 형태로 변하였다. 한강유역에서 삼국의 경계는 수시로 변하였다. 그 결과 신라의 주나 정의 주둔지도 이동되었다.<sup>10</sup>

남천정이 설봉산성으로 처음 옮겨 주둔한 것은 568년이다. 이후 604년 다시 북한산성으로 옮길 때까지 약 36년간 남천정은 설봉산성에 있었다. 6세기 후반 대부분 설봉산성이 신라 한강유역 방어의 군사와 행정의 중심지였던 것이다. 북한산에 있

10) 이것은 행정과 군사가 결합된 신라의 독특한 지방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6세기와 7세기 신라 주는 광역 행정구역이면서 동시에 군관구(軍管區)였다. 주는 그 아래 소속된 군현(郡縣)을 통솔하는 상급 행정구역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광역주이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광역주의 군사와 행정거점인 주치(州治)를 가리키는 것이다. 주의 장관은 군주(軍主)였는데 군주가 바로 정을 이끄는 군사지휘관이었다.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 주는 바로 정을 말한다. 그래서 주와 정은 한 몸처럼 이동하는 것이고 이름도 똑같이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신라는 6세기 후반에 신주(553)→북한산(557)→남천(568)→북한산(604) 등으로 정을 옮기면서 정의 주둔지에 따라서 주의 이름도 바뀌었다.



던 신라군단이 왜 설봉산성으로 이동하였는지 그 이유는 기록에 없다.

일단 남천정의 설치는 분명히 한강 이북의 방어거점을 후퇴시킨 것이다. 이성산성과 설봉산성 사이의 광주일대는 광주산맥으로 부르는 산줄기가 가로막고 있다. 설봉산성에서 보면 한강과 광주산맥은 겹겹이 중복된 이중의 자연방어선이다. 설봉산성의 위치로 보아 고구려의 반격으로 신라가 하남지역에서 이천으로 방어의 중심을 옮긴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으나 근거가 될 만한 기록은 없다.<sup>11)</sup> 고구려가 반격한 흔적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이는 것은 『삼국사기』 온달열전이다. 고구려의 온달 장군은 한강유역을 되찾기 위해 신라를 공격하다 전사하였다. 그 시기는 온달열전에 영양왕<sup>590~618</sup> 초라고 한 것으로 보아, 빨라야 590년경이다. 그러나 이때는 남천정이 설치된 568년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이다. 아직 560년대부터 580년대까지 고구려가 재차 남진해서 한강유역을 공략했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백제 관계를 고려한 것일 수도 있다. 554년 신라는 관산성<sup>충북</sup> 옥천전투에서 백제 성왕을 전사시키고 3만의 백제군 대부분을 괴멸시켰다. 그런데 관산성 패전 이후에도 백제는 계속해서 금강 상류 보은·영동지역으로 진출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 일대에서 신라와 백제의 전투 역시 계속되었다. 이 지역은 신라군이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는 길목에 해당된다. 특히 이 지역이 백제에 점령되면 신라가 심혈을 기울여 개척한 당항진<sup>화성·남양</sup>으로 통하는 길목이 차단된다. 따라서 북한산정에서 남천정으로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백제의 공격에 대해서 당항진로의 방비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상과 같이 북한산정을 남천정으로 옮긴 것은 백제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7세기에 들어서면서 백제는 신라를 공격하기 위한 경로를 보은과 영동일대에서 경남 함양일대로 바꾸었다. 반면에 590년대 이후 고구려는 다시 적극적으로 신라 공격에 나섰다. 그 결과 603년 북한산성에서 신라군과 고구려군 사이에 대규모 전투가 발생하였다. 이 전투 초반에는 신라가 고전하였지만, 진평왕이 지원군을 이끌고 참전하여 결국 신라의 대승으로 끝났다. 그 이후 604년 남천정은

11) 6세기 중반 고구려는 왕위계승 문제를 두고 정쟁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신라에게 한강유역을 빼앗긴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고구려의 정쟁은 평원왕이 즉위하면서 국내가 수습되고 왕권도 안정되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고구려의 압박이 『삼국사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다시 재개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이 역시 더 이상의 단서는 없다.



다시 북한산정으로 복귀하게 된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면 신라는 설봉산성이 고구려는 물론 백제를 견제하는데도 유리한 지역이라고 인식하였던 것 같다.

604년 이후 남천정이 다시 설치되었던 기록은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신라가 통일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 다시 남천정이 설치되었던 기록이 있다. 660년신라 태종무열왕<sup>7</sup> 백제를 공격하기에 앞서서 “태종무열왕이 군신을 거느리고 남천정에 행차했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도 661년신라 문무왕<sup>1</sup> “군관 수세<sup>蘇世</sup>와 고순<sup>高純</sup> 등을 남천주 총관<sup>總管</sup>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662년 “남천주 총관 진흙<sup>眞欽</sup>이 병을 핑계로 국사를 돌보지 않아 주살했다”는 기록과 “남천주에서 흰 까치를 바쳤다”는 기록 등도 있다. ‘남천주 총관’은 정을 통솔하는 군사지휘관으로 이전의 군주를 말한다. 남천주 총관이 지휘하는 군단이 바로 남천정이다. 그밖에도 『삼국사기』 김유신열전에는 “문무왕이 고구려를 향해 가다가 남천주에 이르렀다”는 기록과 “당 장수 유인원<sup>劉仁源</sup>이 사비에서 배를 띄워 해포<sup>鞋浦</sup>에 상륙하여 남천주에 진영을 베풀었다”는 기록도 있다.

이렇게 ‘남천정’이란 기록은 660년에 단 한 차례 보이지만 이후 ‘남천주’와 ‘남천주 총관’ 등의 기록이 같은 시기에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 시기는 그리 길지 않았다. 이후 『삼국사기』에는 다시 한산주·한성정에 대한 기록만 보이고 있다.<sup>12</sup> 다시 『삼국사기』 기록을 정리하면 한성정·한산주 등은 660년부터 663년 사이에는 없다. 남천정·남천주 등의 기록은 660년과 661년에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천정이 복치된 것은 660년이고, 663년에서 664년 사이에는 다시 한산주·한성정이 설치되었던 것이다. 660년과 661년은 신라가 백제를 통합한 시기이다. 따라서 백제 통합전쟁과 관련해서 설봉산성의 남천정이 모종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650년대에 고구려는 신라에 대한 파상적인 공세를 펼쳤다. 655년경에는 신라 북경의 33성이 고구려·말갈·백제 등에게 탈취 당하기도 하였다. 660년에는 신라가 백제 통합전쟁에 몰두하고 있는 틈을 타서 고구려는 임진강유역의 요새인 신라 칠중성<sup>파주 적성</sup>을 함락시켰다. 이 때문에 양주일대는 물론 현재의 서울과 여주 일대까지도 고구려 군대의 활동범위에 들어갔다. 661년 술천성<sup>여주 파사산성</sup>과 북한산

12)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太宗武烈王 6년(659)조, 同書 권 6 新羅本紀 6 文武王 4년(664)조 및 同王 7년(667)조 등이다.

성이 고구려군에게 공격당하였으며, 신라는 이 지역 지방민들의 분전 속에 고구려의 공격을 힘겹게 견디고 있었다. 술천성은 현재 이포나루 근처의 파사산성으로 이천과 접경을 이루며 설봉산성과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술천성이 함락되면 남한강 상류의 여주·원주·충주일대가 위협하게 되며 한산주는 고립된다.

660년과 661년 신라의 주력군은 백제 통합전쟁에 투입되었다. 그만큼 고구려 전선의 방비에 문제가 있었다.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서울지역보다 고구려군을 방어하기 유리한 설봉산성으로 방어거점을 일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설봉산성은 나당연합군의 연합작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천은 신라가 당항진으로 나가는 길목에 해당된다. 서라벌에서 당항진에 이르는 안전한 길은 진천이나 충주에서 죽산이나 이천을 거치는 길이며, 그 길의 남쪽에는 설성산성, 북쪽에는 설봉산성이 있다. 즉, 안성<sup>죽산</sup>과 이천일대는 당항진의 배후거점이 되는 것이다.

신라는 백제 통합전쟁을 수행하면서 이천-안성<sup>죽산</sup>-진천 등으로 이어지는 지역을 고구려로부터 온전하게 유지해야 했다. 이 지역은 내륙 곡창지대이며 대외 교통로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금강유역 백제전선을 지원해야 했다. 즉, 고구려와 백제를 동시에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하남 이성산성은 고구려에 치우쳐서 백제를 견제하기에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곳이 설봉산성이다. 이 점이 660~661년 백제 통합전쟁에서 남천정이 한산정을 대신하게 된 이유일 것이다.

660년 태종무열왕은 백제 공격에 앞서서 전군 지휘부를 이끌고 남천정에 행차하였다. 왕과 지휘부는 남천정에 머물면서 덕적도에 태자 법민<sup>문무왕</sup>을 파견하여 당군과 백제 침공계획을 상의하였다. 이후 다시 왕은 지휘부를 이끌고 진천을 거쳐서 보은과 옥천일대로 남하하였다. 그 후 군대를 나누어 김유신 장군에게 백제수도 사비를 공격하게 하였다.

태종무열왕이 도착하였던 남천정은 설봉산성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이때 백제 공격을 위해 한강유역 여러 군현에서 징집된 신라군도 남천정에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방에 주둔한 육정의 병력 중에서 병력의 수나 전투력에서 가장 뛰어난 군단은 남천정이었다. 7세기 전반 고구려와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거두었다.

김유신이 백제 공격에 이끌고 간 병력이 5만이었다. 태종무열왕 역시 상당수의 군대를 거느리고 금돌성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554년 관산성 전투에 참여한 신주정의 병력은 1만 명이었다. 660년 당시 백제 통합전쟁에 동원된 남천정의 병력도 그보다 적지 않았을 것이다. 신라의 영역이 한강 이북과 강원도 영서지역으로 더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한강유역 각 군현에서 남천정으로 모인 후 신라군의 최고지휘부를 따라서 옥천일대 백제 국경으로 이동한 후 사비 공략에 투입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황산벌전투와 사비도성 공략에 참여한 군사들 중 상당수가 남천정 소속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삼국사기』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660~661년 사이 여전히 상당수의 신라 군사들이 남천정과 주변 일대에 배치되어 고구려에 대항하였다. 이 잔류 병력들은 백제 통합전쟁에서 고구려군의 남하를 방어하는 방과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660년 신라가 백제를 통합할 수 있었던 데에는 설봉산성과 여기 주둔한 남천정이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통일신라시대에도 남천정은 여전히 이천지역에 남아 있었다. 다만 이 당시 남천정은 통일 이전과 같이 중앙군단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한주 소속의 지방군단으로 성격이 바뀌어, 그 위상이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한주 도독의 무력적 기반으로 중요시되었다. 또한 통일 후 지방제도가 정비되면서 주의 군사적 기능은 축소되고 행정적 기능이 강화되었다. 주치와 정의 주둔지도 분리되었다. 표면적으로 군사와 행정이 분리되어 행정중심지로서 주치와 군사 주둔지로서의 정의 분리되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주의 장관인 도독은 여전히 주의 행정권과 병마권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 주와 정의 밀접한 관련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 3. 산성 발굴 이야기 : 설봉산성 · 설성산성

우리나라는 중부 이남에만 1,200개가 넘고, 한반도 전역으로는 수천 개에 달하는 산성이 존재하고 있어 ‘산성의 나라’ 라고도 부른다. 성곽은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한국과 같이 산성이 주를 이루는 나라는 거의 없다. 따라서 한국의 산성은 전 세

계의 성곽 중에서도 독특한 유적이다. 하지만 전국 어디에나 있고 그래서 너무 흔하다 보니 산성이 유적으로 주목되었던 시기는 다른 유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늦다. 산성이 처음 국난 극복의 상징적인 유적으로 주목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 관심이 성벽 복원에 치중되어 역사적 성격을 밝히는 고고학적 조사가 부족하였다. 산성 발굴조사는 1990년대 들어와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경기도지역에서 먼저 연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산성조사는 대부분 성벽 복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이전에는 성벽복원에 앞서 원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는 거의 시행된 적이 없었다. 그 결과 상당수의 복원성벽은 복원공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붕괴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성벽 정비에 앞서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소중한 유적을 정비나 복원과정에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능한 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복원과 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7년 설봉산성은 칼바위 부근 성벽에 대한 정비가 예정되어 있었다. 설봉산성 장대지 부근의 성벽이 바로 정비 대상이었다. 발굴조사가 실시되기 전 설봉산성은 고구려의 남진과 관련하여 주목되었다. 따라서 발굴조사에서 고구려가 사용한 흔적이 나타날 것인지가 최대의 관심사였다. 그런데 발굴조사가 진행될수록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 칼바위 일대 평탄지를 조사하자 신라시대 건물지들이 곳곳에서 발굴되었다. 같이 출토된 토기로 보아 6세기 중반에 신라가 진출하였던 것이 분명해졌다. 출토 유물 중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단각고배다리가 짧은 소형토기였다. 이 토기는 6세기의 대표적인 신라 토기로 한강유역에서는 6세기 중반 이후 출토되는 것이다. 이후 8세기의 인화문토기와 9세기의 주름무늬병 등 각 시기를 대표하는 신라 토기도 출토되었다. 6세기 중반에서 9세기까지 신라가 지속적으로 설봉산성을 활용한 근거가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신라 문화층 아래에서 수많은 저장구덩이의 흔적이 노출되었다.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포천 반월산성의 구덩이에서 백제 토기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설봉산성의 저장구덩이도 백제의 유구일 가능성이 높았다. 저장구덩이는 암반층을 파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표층을 제거한 상태에서는 원형의 굴착흔적만 확인된다. 발굴





설봉산성 발굴조사 모습(1997)



설봉산성 출토 백제시대 각종 고배(굽다리 접시)

조사는 그 굴착흔 내부의 퇴적된 흙을 구덩이 어깨선을 따라서 파들어 가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저장구덩이를 여러 개 발굴했지만 그 내부에서 좀처럼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 대부분 비어 있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었다.

칼바위 주변 평탄지에는 이런 저장구덩이의 흔적이 수십 개가 넘었다. 그중 부서진 토기가 가득 들어 있는 몇 개의 저장구덩이가 발견되었다. 구덩이에는 간혹 철기류도 섞여 있었으며, 창·마름쇠·화살촉 등 각종 무기류와 가위·철정 등의 생활도구 등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특히 저장구덩이의 토기는 모두 백제 토기였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이 저장구덩이를 사용하였던 사람과사들이 살았던 주거시설은 발굴되지 않았다. 백제 토기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후반으로 모두 한성백제시대에 해당되었다. 설봉산성이 이 시기에 백제가 축조하여 사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때 쌓은 성벽이 어느 것인지도 알 수는 없었다.<sup>13</sup>

그다음 2차 발굴조사 대상자는 서문지일대였다. 서문지일대는 성벽이 함몰된 형태로 남아 있었다. 발굴조사 결과 서문지는 ‘ㄷ’ 형태로 출입부가 형성되었고 그 앞 성 외부로는 계단의 흔적도 발견되었다. 서문지와 연결된 주변 성벽을 조사하던 중, 서문지 축조 이전에 성벽이 있었던 흔적이 나타났다. 이 성벽은 서문지 외부계

13) 그 당시까지 백제는 한성시대에는 석축성을 쌓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었다.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 등 왕도의 성들이 모두 토성이라는 이유에서 석축성의 존재가 부정된 것이다. 한편 성벽은 후대에 계속 수축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시기의 성벽이 중복되어 있다. 따라서 초축 성벽과 수축 성벽을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구분한다고 해도 그 시기를 판별하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단 하부로 이어졌고 문지가 사용되었던 시기에는 이미 헐렸던 것이었다. 그 흔적은 성 내부에서도 발견되었다. 서문지 안쪽, 문지 통로에서 성 내부로 진입하는 부분에서 서문지보다 이전 시기에 축조된 집수시설과 수로가 노출되었다. 이 수로는 서문지 바닥을 관통해서 앞서 노출된 이전 시기 성벽 외부로 연결되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수로 안에서 백제 굽다리접시 등이 발견되었다. 이는 백제시대 성벽을 허물고 신라시대에 서문지를 축조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설봉산성 내부의 수많은 백제 저장구덩이가 있었던 이유가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백제가 설봉산성 성벽을 처음으로 돌로 축조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웠다. 다만 석축이 아니더라도 설봉산성은 처음 백제가 축조하고 나중에 신라가 활용하였던 것은 분명했다. 이미 포천 반월산성에서도 백제 토기가 출토된 적이 있었다. 그것으로 4세기 후반부터 백제가 한성 외곽 교통의 요지에 산성을 축조하여 운영하였을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었다. 설봉산성 역시 그러한 조사와 연구 성과로 한성백제시대 산성으로 주목되었고 그 결과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설봉산성 조사에서 백제 토기가 출토되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도 발생하였다. 당시 하남 이성산성, 서울 아차산성, 여주 파사산성 등 다른 산성의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이 나타나게 되었다. 설봉산성에서도 백제 토기가 나왔는데 한성백제 중심부의 산성에서 백제 토기가 출토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었다. 막연히 아차산성이나 이성산성이 모두 한성백제시대에 축조한 산성으로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조사자들이 백제 토기가 출토된 것을 감추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까지 받았다. 그 견해의 밑바탕에는 백제의 도성 방어체제를 평지성<sup>평지성</sup>과 산성이 결합된 이중구조로 보는 선입견이 있었다. 고구려의 도성 방어체제를 백제에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이었고, 이 역시 학술적 근거가 없었다. 설봉산성이나 반월산성, 그리고 설성산성에서도 백제 토기는 한두 점이 출토된 것이 아니었다. 신라 토기 못지않게 많은 양이 출토되었다. 이성산성과 아차산성에 백제 토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수용한다고 해도 그것은 전체 유물 중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 백제의 초축을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설봉산성에서 발굴된 유구 중 특징적인 것 중에는 <sup>추정</sup>동문지 상단의 평탄대지에서 출토된 석곽고도 있다. 원래 이곳은 문지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성벽보수를 위



설성산성(경기도 기념  
물 제76호) 성벽



설성산성 성벽 토축부



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성문이 있었던 흔적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sup>14</sup> 대신에 평탄한 대지 위에서는 10여 개가 넘는 저장구덩이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그 중 방형으로 굴착된 큰 구덩이의 흔적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백제 저장구덩이 같이 둥근 형태가 아니고 상면에는 석재도 흩어져 있었다. 그 상황으로 보면 고분이나 저수조일 가능성도 있었다.

발굴조사 결과 지금까지 보지 못한 유구가 출토되었다. 암반층을 방형으로 크게 굴착해서 파낸 다음 약 1m 정도 두께로 진흙을 다져서 벽을 만들고 그 안쪽으로는 다시 돌로 벽을 덧대어 쌓아 올린 후 위에 지붕을 씌웠던 것이다. 바닥에도 역시 1m 이상 진흙을 다지고 얇은 판석을 깔아놓았다. 중앙부를 중심으로 좁은 수로가 ‘+’자형으로 교차하였다. 습기나 물을 모아 배출하던 흔적으로 추정되었다. 유구의 형태나 구조로 보아 저장창고가 분명하였다. 다만 그런 유구가 출토된 적이 없어서 고민되었다. 지하에 이러한 시설을 한 것으로 보아 향온이 필요한 저장품을 보관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내부에서는 신라 토기편이 출토되어 신라의 석곽 저온저장고로 추정되었다.

이후 이와 똑같은 유구가 평택 자미산성에서도 출토되었다. 크기나 형태가 모두 설봉산성의 것과 유사하였다. 자미산성일대에는 고려시대 석곽묘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도굴되었다. 발굴과정에서 도굴을 위해 뚫던 도굴갱이 발견되었는데 도굴꾼은 석곽고도 고분으로 착각한 것이다. 또한 연천 호로고루에서는 방형이 아니라 원형의 석곽고가 출토되었다. 이것은 마치 큰 우물과 유사하였는데 그 속에서 과일씨와 동물뼈 등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예를 보면 설봉산성 석곽저장고는 과일·야채·고기 등 향온이 필요한 식품을 보관하던 창고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으로 치면 대형냉장고가 되는 셈이다.

설성산성은 설봉산성의 조사 성과가 영향을 미쳐서 발굴이 이루어졌다. 설성산성 발굴조사의 가장 큰 성과는 백제주거지<sup>백제군 막사</sup>와 저장시설이 출토된 것이다. 설봉산성을 비롯하여 다른 산성에서도 백제 토기가 출토되었지만 유구는 저장구덩이 외에 확실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설성산성에서는 백제군이 사용했던 주거지<sup>막사</sup>가

14) 동문지 부근의 성벽은 설봉산성에서는 유일하게 조사 이전에 복원된 것이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문지의 흔적이 사라졌을 수도 있다. 이 문제는 현재 복원된 성벽을 헐어내고 조사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어려웠다.

10여 동 정도가 한 지역에 밀집되어 출토되었다. 주거지는 ‘-’ 자형, ‘ㄱ’ 자형 등 쪽 온돌이 갖추어진 것들이다. 땅을 파서 한쪽 편에 치우치도록 온돌과 화덕을 설치하고 지붕을 덮은 수혈 주거지이다. 그 내부에서는 한성백제시대 생활용 토기들이 잔뜩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로 보아 4세기 말에서 5세기 후반 백제군사가 사용한 것이 분명했다. 그중 일부는 성벽에 바짝 붙어 있었다.

성벽을 축조할 때 석축을 한 후 그 석축으로 지하수나 빗물이 스며들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석축 성벽의 뒤편 안쪽으로 진흙을 다져서 성벽 높이까지 쌓아 올린다. 이것을 석축 성벽의 토축부라고 한다. 백제 수혈주거지가 바로 그 토축부 상면에 축조되어 있었다. 이것은 성벽이 최초로 백제시대에 축조되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혈주거지 주변에서는 저장구덩이가 짝을 이루어 발견되었다. 필자에게는 이와 관련된 일화가 있다. 저장구덩이를 발굴하던 어느 날 새벽이었다. 꿈속에서 저장구덩이 내부에 하얗고 큰 알이 가득한 모습을 보았다. 참 이상한 꿈이라 생각하고 설성산성 발굴현장으로 올라갔다. 현장에 도착하니 멀리 조사원들과 인부들이 저장구덩이를 발굴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좀 더 가까이 가니 저장구덩이 속에 햇볕에 반짝이는 큰 알 같은 것들이 보였다. 꿈에서 본 그 장면이었다. 다만 알이 아니라 백제 대형 항아리가 주둥이를 바닥에 대고 엮어진 채로 빼곡히 들어 있었다. 새벽의 꿈이 바로 토기 출토를 알려주는 전조였던 것이다.

저장구덩이에는 대형 저장용 토기 사이사이에서 고배·기대 등의 작은 토기들도 섞여 있었다. 모두 거의 완형인 채로 출토되었다. 무언가를 담기 위해 토기를 엮어서 보관하던 것이다. 이 밖에 주거지 내부에서도 백제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주로 배식용 토기들이었다. 백제군이 설성산성에 주둔하면서 생활하던 집기들이 고스란히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크기로 보아 하나의 주거지에는 약 10명 내외의 사람이 거주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계산하여 약 100여 명 내외의 백제군이 설성산성에 주둔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설성산성에서는 백제시대로 추정되는 목곽고도 출토되었다. 지하를 파서 나무로 창고를 지은 것이다. 이 유구는 처음 발견 당시에는 설봉산성과 같은 석곽이나 저수조일 가능성이 있었다. 암반층을 굴착한 흔적과 석재로 한쪽 벽을 쌓은 모습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년에 걸쳐서 매년 조금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바닥에서 목재로 틀을 짜고 나무기둥을 세운 흔적을 발견하였다. 돌이 아니라 나무로 짠 창고였던 것이다. 이후 이와 유사한 목곽고는 금산 백령산성에서 발견되었고, 최근에는 성환 위례성에서도 발굴되었다. 모두 백제시대 것이었다. 신라는 석곽고, 백제는 목곽고로 뚜렷이 구분되었다.


설성산성 발굴조사는 설봉산성의 조사 결과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주었다. 설봉산성 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백제 토기와 관련된 성벽이나 내부시설이 출토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런데 설성산성에는 백제 주거지와 저장시설 등이 모두 출토되었고, 그 위로 신라의 기와 건물이 있었던 흔적도 확인되었다. 이로써 백제가 축조한 성을 신라가 재활용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설성산성과 설봉산성의 발굴조사로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 경, 백제는 이천지역에 산성을 축조하여 군사와 행정의 거점으로 삼고 이곳을 발판으로 동남 방향으로 영역을 확장했던 것이 분명해졌다. 사료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가 발굴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다.

02

불교문화재로  
보는 기록







장준구 | 이천시립월전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성균관대학교 미술학과 겸임교수

## 제2장 불교문화재로 보는 기록

고려시대는 태조 왕건<sup>王建</sup>이 국가운영의 지침으로 불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래 삼국시대보다 더욱 발전, 확산되었던 시기이다. 실제로 고려는 개국 직후에 수도인 개경을 중심으로 법왕사<sup>法王寺</sup>, 왕륜사<sup>王輪寺</sup>, 자운사<sup>慈雲寺</sup>, 내제석사<sup>內帝釋寺</sup>, 사나사<sup>舍那寺</sup>, 천선사<sup>天禪寺</sup>, 신흥사<sup>新興寺</sup>, 문수사<sup>文殊寺</sup>, 원통사<sup>圓通寺</sup>, 지장사<sup>地藏寺</sup> 등의 10대 사찰을 창건했다. 당시 개경에만 70여 곳에 이르는 사찰이 있었는데, 이는 고려 왕실의 불교에 대한 신앙을 잘 보여준다. 불교가 국가적 지원을 토대로 커다란 발전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불교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수많은 사찰이 전국 방방곡곡에 건립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불교문화재 또한 수적으로 이전 시대를 훨씬 능가하게 되었다.

이천 불교문화재의 상당수는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들로 이러한 시대적 대세의 영향을 이천 역시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수도는 개경이었지만 경기도 동남부지역의 경우에도 정치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북쪽에 위치하여 이천과 맞닿아있는 광주<sup>廣州</sup>의 경우 개경과 수로·육로로 직결되는 교통의 요지였던 곳이다. 광주에는 고려 초 천왕사<sup>天王寺</sup>라는 대형 사찰이 존재했다. 천왕사의 후원세력은 고려 초 정치적으로 가장 유력한 호족 가운데 한 명으로 광주지역에 세력의 기반을 둔 왕규<sup>王規</sup>였다. 왕규는 두 딸이 태조의 15·16번째 왕비가 되면서 호족 가운데 최고의 지위인 대광<sup>大匡</sup>에 되는 등 막강한 권세를 누렸다.<sup>1</sup> 이천의 경우에도 국가적 사찰이 세워져 불교의 성세를 보여주던 광주와 지리적으로 바로 인접해있는 도시로서 적잖은 자극과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1) 최성은,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일조각, 2013, 64~65쪽.

## 1. 부처의 재현 : 불상

불상佛像이란 말 그대로 부처의 상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현재는 ‘불교와 관련된 조각’이라는 의미를 지닌 불교조각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부처 · 보살 · 나한 · 사천왕 등 다양한 불교의 신과 인물들을 3차원으로 표현한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 한국에서 불상이 처음으로 제작되었던 것은 삼국시대였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372년고구려 소수림왕 2 불교를 공식으로 인정했고, 당시 중국 북방의 국가 전진前秦으로부터 순도順道라는 승려가 왔다. 순도가 고구려로 올 때 불교경전과 함께 불상을 가지고 왔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따라서 이 무렵 고구려에서도 불상이 제작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금 · 은 · 청동 · 옥 · 철 · 돌 · 나무 · 흙 등의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불상들이 전해지지만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것은 돌로 만든 석불이다. 돌은 주변 어디에나 있기에 쉽게 재료로 사용할 수 있었던 데다가 강한 내구성인 큰 장점이었다. 현존하는 불상 가운데 돌을 재료로 한 석불이 가장 많은 것은 다른 재료에 비해 월등한 내구성으로 인해 파손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돌의 경우 이러한 강인함 덕분에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 신성한 재료로 여겨졌기에 더욱 불상의 재료로 적극적으로 활용된 측면도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초기부터 돌을 재료로 커다랗게 조형한 거석불이 많이 제작되었다. 대체로 크기가 대형화된 가운데 조형성 자체는 단순해지고 세부묘사가 생략된 불상들이 대거 만들어졌던 것이다. 충청도지역에서 앞서 등장한 뒤 이천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 태조가 후백제 정벌을 기념하기 위해 936년에 제작하였던 개태사 석조삼존불입상을 비롯하여 관촉사 석조보살입상 · 대조사 석불입상 등은 충청도에 유존하는 고려 초기 거석불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대형 석불입상은 왕의 권위와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2)</sup>

이러한 대형 석불입상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이천을 비롯한 남

2) 최선주, 「고려초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에 대한 연구」, 『미술사연구』 14, 미술사연구회, 2000, 3~33쪽.





영월암 마애여래입상(보물 제822호)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 반가상(보물 제982호)



이천 자석리 석불입상(경기도 문화재자료 제41호)



한강 근방에서 두드러졌다.<sup>3</sup> 고려시대 불교의 확산과 신앙층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불상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각 지방에서 장인들이 개별적으로 석불을 조성하면서 심화된 것이다. 이천의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태평흥국명 마애보살좌상, 자석리 석불입상, 관고리 석불입상, 갈산리 석불입상, 대포동 석조여래입상, 어석리 석불입상, 동산리 마애여래좌상, 소고리 마애여래좌상, 선읍리 석불입상 등은 그러한 고려시대 거석불의 중요한 사례에 해당된다.

보물 제822호로 지정되어 있는 영월암 마애여래입상은 영월암 대웅전 뒤편에 자리 잡고 있다. ‘절벽을 갈았다’는 뜻을 지닌 마애磨崖라는 명칭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영월암 마애여래입상은 커다란 바위의 면을 다듬어 만든 높이 9.6m의 대형 부조로서 머리와 양손은 양각으로, 옷 주름은 음각으로 새겼다. 법의法衣는 왼쪽 어깨를 드러낸 편단우견偏斷右肩형으로 표현되었으며, 오른손은 들어 올려 엄지와 약지를 맞대고 있고, 왼손은 옷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불상의 손 모양을 수인手印이라 지칭하는데 이는 특정한 부처나 보살이 깨달은 진리나 중생衆生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방식을 표현한 것이다. 영월암 마애여래입상의 수인은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전한다는 의미를 지닌 설법인說法印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형의 부조로 표현되다 보니 다소 어색하게 표현되었다. 고려 전기의 불상으로 추정되는 영월암 마애여래입상의 경우에도 이러한 고려 건국 초기 대형 석불입상의 제작 성행의 흐름을 따른 불상이라 할 수 있다.

보물 제982호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 반가상은 중부고속도로변에 위치한 마애불상으로 높이 3.2m의 대규모 부조상이다.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모자인 보관寶冠을 머리에 쓰고 연꽃을 오른 손에 든 보살이 반가부좌半跏趺坐의 다리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상하로 긴 보관에는 작은 사람 모습의 실루엣 형태를 띤 화불化佛이 새겨져 있다. 화불이란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구제해 주기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습을 다양하게 바꾸어 나타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보관에 화불이 새겨진 것은 관음보살觀音菩薩의 특징이므로 태평흥국명 마애보살좌상도 관음보살임을 알 수 있다. 관음보살은 중생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심을 다해 ‘관음보살’을 외기만

3) 민활, 「남한강 유역의 고려전기 불상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73쪽.

하면 구원해주는 존재로 불교의 수많은 부처와 보살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았다.

바위의 뒷면에 새겨진 ‘태평흥국 2년 신사 2월 23일太平興國二年辛巳二月二十三日’이라는 명문銘文을 통해 981년에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태평흥국명 마에보살좌상’이라고도 한다. 확실한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고려 초기의 불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명문에서는 향도香徒 20인이 조성했다고도 밝히고 있는데, 이는 고려시대 전시기를 걸쳐 활동했던 향도조직, 신앙결사조직의 활발했던 활동을 시사해준다. 향도란 고려시대 당시의 불교신앙 공동체를 지칭한다. 이는 불교의 확산으로 범대중적 차원에서 불상이 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에 의미가 깊다. 통상 향도 그룹 안에서 불상 등의 불교미술품을 만들 경우 재산이 많은 유력인사는 물질적 지원을, 가난한 사람들은 노동력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41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천 자석리 석불입상은 고려 중기의 불상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설성면 자석리 남쪽 산기슭에 있는 연화정사 대웅전 우측에 자리 잡고 있다. 머리 위에는 지름 116cm의 보개寶蓋가 갖처럼 놓여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보개란 불상이나 보살상의 머리 위를 가리고 장식하는 덮개의 일종이다. 불상의 전체 높이는 353cm로 두 개의 커다란 돌을 연결하여 완성했다. 몸통 부분의 경우 원통형의 돌을 매끈하게 다듬은 뒤 음각을 이용한 최소화된 가공을 통해 완성했다.<sup>4</sup> 마모가 많이 진행되어 법의나 수인의 형식은 명확하지 않다. 반면 얼굴은 계란형으로 큰 눈과 코, 작은 입, 긴 귀 등이 뚜렷하게 표현되었다.

향토유적 제6호로 지정되어 있는 관고리 입상석불은 현재 관고동 법왕사 경내에 자리 잡고 있다. 본래 3번국도변 산골짜기에 있던 것을 1997년 현재에 위치로 옮긴 것이다.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으로 높이 4m에 이르는 큰 사이즈이다. 머리 위에는 상투처럼 보이는 육계肉髻가 두드러진다. 육계란 부처의 정수리에 마치 혹처럼 살이 솟아 올라와 있는 부분으로, 부처의 크고 높은 지혜를 상징한다. 육계는 원래 불교가 시작되었던 인도에서 성인聖人들이 머리카락을 올려 묶었던 상투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얼굴이 납작한 가운데 눈·코·귀가 모두 길게 표현된 점이 특징적인데 상대적으로 입은 작다. 이는 자석리 석불입상의 얼굴 표현과도 유사한 부분이다.

4)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이천시지』 2권, 2001, 400쪽.



관고리 입상석불(향토유적 제6호)



이천 어석리 석불입상(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7호)



갈산리 석불입상(향토유적 제7호)



대포동 석조여래입상(향토유적 제11호)

목 부분에 삼도가 뚜렷이 새겨졌으며 법의는 통견 형식이다. 옷주름은 U자형인데 마치 물결치듯 아래쪽을 향하여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제작될 당시 조형미를 상당히 고려하였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전체 몸체에 비해 과도하게 긴 팔과 큰 손은 비례가 맞지 않아 어색한 부분이다. 그러나 긴 팔의 경우에는 부처를 조각이나 회화로 조형화할 때 적용하는 부처의 신체적 특징으로 규정되어 있는 32상相 80종호種好의 반영일 수도 있다. 32상 80종호란 부처는 인간과 다른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 하에 만들어진 것이다.<sup>5</sup> 실제 32상 가운데 ‘손이 무릎까지 내려간 모습’이라는 항목이 있으므로 이것이 관고리 석불입상의 제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천시 향토유적 제7호로 지정되어 있는 갈산리 석불입상은 고려 중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갈산동 미륵사 경내에 자리 잡고 있다. 4.14m의 대형 사이즈로 본래 두부頭部·상반신·하반신이 분리된 채 방치되던 것을 1980년경 보수·복원한 것이다. 머리 부분은 보관을 쓴 것처럼 위아래로 긴 독특한 모습이다. 장방형長方形에 가까운 얼굴 안에 눈·코·귀가 모두 길게 표현되었는데, 코의 경우 파손된 것을 시멘트로 보수한 것이다.<sup>6</sup> 법의는 통견의 형식으로 표현되었으며, 수인은 마모가 심해 명확하지 않지만 양손 모두 엄지와 중지를 맞댄 것으로 보여 아미타 구품인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갈산리 석불입상을 아미타불을 조형화한 것이 된다. 손의 사이즈나 형태도 자연스럽고, 상반신과 하반신의 법의에 표현된 옷주름도 자연스러운 편이라 4m가 넘는 거석불巨石佛로서는 비교적 조형미가 뛰어난 불상이라고 볼 수 있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7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천 어석리 석불입상은 고려 초기의 불상으로 추정되는데 장호원을 어석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높이 4.2m의 대형불상으로 몸통 부분은 2개의 돌을 연결하여 완성했으며 머리 윗부분에는 팔각형의 보개가 있다. 머리 부분은 전체가 입체적으로 조각되었지만 몸통 부분은 거의 부조에 가깝게 2차원적으로 조각되었다. 이 때문에 기둥 같은 느낌도 주는데 이는 관고리 석불입상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10세기 전반에 조성된 개태사 석조삼존불 이래 고려시대 거석불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마 부분에 백호의 표현

5) 문명대, 『한국 불교미술의 형식』, 한언, 2004, 112~113쪽.

6)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이천시지』 2권, 2001, 402쪽.



을 위한 구멍이 남아 있으며, 유난히 길고 두툼한 귀가 특징적이다. 법의는 통견 형식이며 수인의 경우 양손 모두 펼친 채로 가슴과 배 앞쪽에 둔 형태로 판별하기 어렵다. 다만 왼쪽 손바닥을 펼쳐 위쪽으로 들고 오른쪽 손바닥을 펼쳐 아래쪽으로 내린 모습 자체는 시무외인(施無畏印), 여원인(與願印)과 유사하다. 시무외인이란 모든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의미를, 여원인은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두 손이 신체 중심부로 모인 모습이라 확정하긴 어렵다.

이천시 향토유적 제11호로 지정되어 있는 대포동 석조여래입상은 고려 중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대포동 도로변에 위치해 있다. 머리 부분과 신체 부분 모두 전반적으로 손상이 심한 상태이다. 이목구비도 거의 확인이 안 되지만 백호(白毫)의 표현을 위하여 별도의 재료를 삽입했었을 등근 홈이 이마에 남아 있다. 백호란 부처의 이마에 난 흰털로 오른쪽으로 말려있으며 빛을 내어 온 세계를 비춘다고 전해진다. 불상 제작시 백호가 표현될 때에는 보통 등근 돌기 형태로 새기거나 홈을 판 뒤 별도의 재료를 삽입했다. 법의는 통견 형식이며 수인은 마모가 심해 명확하지 않다. 전체 높이는 2.3m인데 현재 하반신이 소실된 상태로 추정된다. 따라서 대포동 석조여래입상도 본래는 갈산리 석불입상이나 관고리 석불입상처럼 4m가 넘는 거석불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천시 향토유적 제9호로 지정되어 있는 동산리 마애여래상은 고려 중기의 불상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동산리 대덕산 자락의 야산에 자리 잡고 있다. 높이 2.13m의 상하로 긴 판석 위에 음각으로 새겨진 마애상이다. 변화가 풍부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음각으로 표현되어 비교적 조형미가 좋은 불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머리 부분의 육계가 매우 두드러지게 표현되었으며 법의는 통견 형식이다. 오른손은 엄지와 검지를 맞대었고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향하도록 하여 배 앞쪽에 둔 모습으로 아미타구품인에 해당된다. 따라서 동산리 마애여래좌상의 경우도 아미타부처를 조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19호로 지정되어 있는 소고리 마애여래좌상은 고려 초기의 불상으로 추정되며 현재 모가면 소고리 서쪽 산골짜기에 위치한다. 일명 ‘부처바위’의 동남쪽 면을 다듬어 새긴 마애불로 높이 3m 폭 8m의 평편한 면에 유려한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머리 뒷부분에 있는 두광(頭光)과 옷주름을 일정한 간격으로 구불



소고리 마애여래좌상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19호)



동산리 마애여래상(향토유적 제9호)



소고리 마애삼존석불(향토유적 제8호)



신읍리 입상석불(향토유적 제10호)

구불하게 표현하여 장식성을 높인 점이 특징적이다. 육계와 나발, 삼도와 함께 다리 아래 연화좌蓮華坐도 뚜렷이 새겼다. 법의는 통견 형식이며 수인은 아미타구품인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고리 마애여래좌상은 아미타부처를 조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고리 마애삼존석불은 소고리 마애여래좌상이 새겨진 바위로부터 7m 아래 지점에 위치한 화강암 자연석 위에 양각으로 새겨져있다. 고려 후기의 불상으로 추정되며 사이즈는 중앙에 있는 부처의 높이가 2.13m이다. 중앙의 부처와 좌우의 보살 모두 앉아 있는 좌상임에도 불구하고 상반신이 길게 표현되어 입상처럼 보이는 점

이 특이하다. 활짝 웃고 있는 입의 모습, 리본모양처럼 안쪽으로 말린 얇은 팔 등 전체적으로 해학적인 느낌이 강하다. 불상제작에 있어서 주어지는 일정한 격식들을 거의 따르지 않는 독특한 불상이라 볼 수 있다. 법의의 형식이나 수인 역시 확인하기 어렵다. 소고리 마애삼존불상은 도상<sup>圖像</sup>의 불명료성이나 투박한 표현방식을 통해 볼 때 후원자와 제작자가 불교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천시 향토유적 제10호로 지정되어 있는 선읍리 입상석불은 고려 후기의 불상으로 추정되는데 설성산 기슭의 신흥사 진입로에 자리 잡고 있다. 본래 선읍3리 개울가와 논바닥에 흩어져 묻혀 있던 것이 1978년 장마로 인해 발견된 이후 1983년 현재의 위치로 옮기게 되었다. 이 불상은 처음부터 보개·머리·몸통·발과 연화좌 부분으로 나뉘어 조성되었던 것인데 머리 부분은 발견되지 않아 새로 제작하여 부착한 것이다.<sup>7</sup> 법의는 편단우견 형식이며 몸통과 팔 부분의 U자·S자형 주름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정연하게 표현되어 있어 비교적 조형미가 뛰어난 편이다. 다만 손이 전체 신체와 비교했을 때 크고 부자연스럽다. 그렇지만 몸 전체를 감싸는 주형의 거신광과 발아래 연화대좌를 통해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불상이라고 볼 수 있다.

고려시대의 불상은 통일신라시대 불상의 계승성이 강한 점도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향마촉지인<sup>降魔觸地印</sup>의 수인은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 불교조각인 석굴암 본존불의 자세에 반영된 이후로 여러 불상들의 모범이 되었고 그것이 고려시대로도 이어졌는데, 군량리 석불좌상과 신흥사 석불좌상에도 이러한 면이 반영되어 있다. 이외에 영월사 약사불의 경우에도 표현방식에 있어서 통일신라 불상과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군량리 석불좌상은 대월면 군량1리 야산 정상에 놓여 있던 불상으로 팔과 머리가 파손되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해당위치에 있었으나 현재는 완전히 망실<sup>亡失</sup>되었다.<sup>8</sup> 현재 전해지는 사진을 통해서 보면 법의는 통견 형식이며 수인은 향마촉지인이다. 팔이 파손되었지만 오른쪽 무릎 부분에 남아 있는 오른쪽 손등의 일부, 책상다리를 취한 두 다리 위쪽에 위를 향해 펼친 왼손을 통해 수인을 짐작해볼

7)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이천시지』 2권, 2001, 404쪽.

8)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이천시지』 2권, 2001, 405쪽.

수 있다. 전체 불상의 높이는 약 1m 정도였다고 하므로 좌상<sup>坐像</sup>으로서는 꽤 큰 사이즈였던 셈이다. 심한 파손으로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의가 타이트하게 밀착된 점이나 옷주름이 도식적인 가운데에서도 동감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 항마촉지인의 수인을 하고 있다는 점 등 석굴암 불상의 양식을 따른 고려 초기 불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군량리 석불좌상의 경우도 고려 초기의 불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항마촉지인이란 석가모니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깨달음을 얻은 직후에 취했던 손자세로, 수인의 이름 자체도 ‘악마에 대항하여 이겨 내고 땅을 가리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군량리 석불좌상은 깨달음을 얻은 직후 석가모니의 모습을 표현한 불상으로 볼 수 있다.

고려 후기 불상으로 추정되는 신흥사 석불좌상은 설성산 아래 한 가옥에 머리 부분이 망실된 채 몸통만 전해지던 것을 신흥사로 옮겨놓은 것이다. 머리 부분은 마장면 오천마을의 냇가에서 수습된 신흥사에 기증된 불두<sup>佛頭</sup>를 부착한 것이다.<sup>9</sup> 머리 부분과 신체 부분의 사이즈는 유사하지만 본래가 짝이었을 가능성은 낮다. 법의는 통견 형식이며, 전반적으로 마모가 심하지만 옷주름을 부드럽게 표현한 점이 주목된다. 왼손은 두 다리 위에 얹고 오른손은 지면을 향하여 늘어뜨렸는데 항마촉지인의 수인이다.

이천시 향토유적 제12호 영원사 석조약사여래좌상은 머리가 소실된 채 전해지던 것을 1985년 머리를 새로 제작하여 부착하고 손상된 좌측 무릎까지 보수하여 약사전에 안치한 것이다. 법의는 편단우견형으로 표현되었으며 손은 약사부처임을 알아볼 수 있는 약기인<sup>藥器印</sup>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약사부처란 중생의 질병과 무지의 병까지 고쳐주고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구제해 주며 옷과 음식까지 해결해 주는 등 현세에서 직접적 복을 주는 존재이다. 약사부처는 질병치료의 성격이 강한 만큼 손에 약이 든 약함<sup>藥函</sup>이나 약호<sup>藥壺</sup>를 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약기인이라는 수인이다. 신체의 선이 드러나도록 타이트하게 표현된 법의와 적당한 살집, 두 다리 앞쪽에 있는 부채꼴 모양의 옷 주름은 통일신라 후반기 이래 불상의 특징이다.

불교에서 고난에 처한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고 들어, 자비로 널리 보살 퍼줄 것을 맹세한 보살로 관음보살이 있다. 관음보살은 그 이름만 외면 구원을 해준

9)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이천시지』 2권, 2001, 379쪽.





군량리 석불좌상



신흥사 석불좌상

영원사 석조약사여래좌상(향토유적 제12호)



정토사 석조보살입상



다는 특유의 성격 때문에 고려·조선시대에 걸쳐 광범위한 인기를 얻었다.

고려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토사 석조보살입상은 관음보살일 가능성이 높은 불상이다. 본래 머리 위에 보관이 있었지만 많이 파손되어 현재는 하단부의 흔적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통통한 얼굴과 활짝 웃고 있는 입부분의 표현이 인상적이다. 목 부분에는 세 갈래의 주름인 삼도三道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다. 삼도란 불교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상징적으로 시각화하여 나타낸 것으로 부처나 보살의 목 부분에 표현된다. 이는 부처나 보살의 광대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보살은 양손 모두 엄지와 중지를 맞댄 아미타구품인阿彌陀九品印의 손 자세를 취하고 있다. 본래 아미타구품인은 불교세계의 천국인 서방극락정토西方極樂淨土의 우두머리로 무한한 생명을 보장하는 부처인 아미타불阿彌陀佛이 취하는 손자세이다. 이 손자세는 아미타부처가 중생의 신앙심이나 성품에 따라 이해도가 다르므로 9단계로 나누어 가르침을 전하고 구원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미타구품인은 주로 아미타부처가 취하는 손자세이지만 관음보살에게서도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정토사 석조보살입상도 관음보살일 가능성이 높다.

## 2. 진신사리의 상징 : 석탑

석탑石塔이란 용어는 석조탑과石造塔婆를 줄인 말로 산스크리트어인 스투파stūpa를 한문으로 음역音譯한 것이다. 탑은 본래 부처님의 유골인 사리舍利를 봉안한 무덤을 지칭했다. 처음에는 부처님의 진짜 유골인 이른바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모셨지만 점차 여러 곳에서 탑을 만들면서 불상·불경佛經 등을 대신 집어넣게 되었다. 이를 법신사리法身舍利라 부른다. 한국에 불교가 전해진 삼국시대에는 한동안 주로 목탑이 만들어졌지만 7세기경부터 석탑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목탑의 경우 화재에 쉽게 불타버리는 등 내구성이 약했기 때문에 이를 석탑이 대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통일신라의 석가탑과 같은 대표적인 석탑이 등장했고 고려시대에는

석탑이 저변화된다.

고려시대의 석탑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이미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 지역에서 다양한 계층이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지방적 특성이 가미된 것이 특징이다. 수도를 중심으로 일관된 모습을 갖춘 탑들이 만들어졌던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형태상으로는 전반적으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석탑에서 볼 수 있었던 장중함이 줄어들고 아담하고 소박한 느낌을 준다. 이천 중리 삼층석탑, 안흥사지 오층석탑, 관고동 오층석탑, 영월암 석탑, 내원사 석탑, 향교 앞 오층석탑은 모두 이러한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6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천 중리 삼층석탑은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탑이다. 본래 진리 야산에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던 것을 1972년 당시 이천시청 청사 앞뜰로 옮겨 복원한 것이다. 석탑의 경우 가장 하단 부는 전체 탑의 받침인 기단(基壇)에 해당된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헤아리게 되므로 전체 층수가 3층이 되는 것이다. 탑의 높이는 4.65m로 몸통 부분인 탑신(塔身)의 2·3층의 경우 파손된 부분을 복원 당시 새로운 석재로 보강한 것이며, 탑 가장 위쪽을 장식하는 상륜부(相輪部)는 망실되었다.<sup>10)</sup>

이천 중리 삼층석탑은 전체적으로 황복사지 삼층석탑, 불국사 석가탑 등 통일신라시대에 형성된 석탑의 구성과 표현 방식을 계승하고 있다. 다만 기단 부분을 구성하는 돌인 면석(面石)이 한 면당 3개이던 것이 후대인 고려시대로 올수록 2개 혹은 1개로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이천 중리 삼층석탑 역시 이에 해당된다. 탑신과 기단의 층수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물 제354호로 지정되어 있는 천흥사지 오층석탑과 유사하다.

안흥사지 오층석탑은 본래 안흥동 안흥사지에 있던 것이 일제강점기 초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옮겨졌고, 현재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에 자리 잡고 있다. 이천 중리 삼층석탑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하층기단이 있고, 층수가 다르며, 옥개석(屋蓋石)이 더 두껍긴 하지만 전체적인 구성과 조형방식에 있어서는 유사성이 크다. 옥개석이란 탑신의 각 층 사이에 놓여 있는 지붕 모양의 돌을 지칭한다. 다만 상층기단 한 면의 면석이 2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중리 삼층석탑보다 시기적으로 앞설 가능성도

10)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이천시지』 2권, 2001, 389~390쪽.





이천 중리 삼층석탑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6호)



천홍사지 오층석탑(보물 제354호)



관고리 삼층석탑



안흥사지 오층석탑



관고리 오층석탑(향토유적 제5호)



있다.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에 조성된 탑으로 추정된다. 높이는 5.9m이며, 상륜부도 일부 남아 있다.

이천시 향토유적 제5호로 지정되어 있는 관고리 오층석탑은 고려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탑으로 현재 설봉공원 내에 자리 잡고 있다. 본래 부근 받 한가운데에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던 것을 1978년 현재의 위치에 복원한 것이다. 현재 상륜부와 2층 이상의 탑신석<sup>塔身石</sup>은 없어지고 기단과 1층 탑신 5개의 옥개석만 남아 있다. 탑신석이란 탑신의 바깥쪽 각 면을 구성하고 있는 넓적한 돌을 지칭한다. 본래의 높이는 8m가량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4.3m에 불과하다.

영월암 석탑(좌)  
내원사 석탑(우)



관고리 삼층석탑은 관고동 양정여자중고등학교 교정에 흩어진 채 방치되던 것을 복원한 것으로 고려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탑의 높이는 3.2m인데 기단과 상륜부가 모두 망실되고 3개 층의 탑신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탑신석과 옥개석이 시각적으로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석탑의 부재일 가능성도 있다.

이천시 향토유적 제14호 영월암 석탑은 영월암 경내에 있는 석탑으로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래는 옥개석 1개, 탑신석 1개, 기단의 일부가 방치되

던 것을 1981년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복원한 것이다. 방치된 채 전해지던 부재들의 표현 방식을 통해 고려시대의 탑으로 추정된다.

내원사 석탑은 마장면 내원사 앞쪽에 위치하는데 전체적으로 파손도 심하고 망실된 부분도 많아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탑이다. 전체 탑을 지탱하는 지면에 해당되는 지대석과 2·3층의 옥개석 외에 나머지는 후대의 어느 시점엔가 새로 만들어 조합한 것이다. 1층의 옥개석도 본래의 것이 아니다. 3층의 옥개석과 2층 옥개석 사이의 비례가 맞지 않아서, 아마도 본래 2층 옥개석이 1층 옥개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원래 있던 2층 옥개석이 망실된 셈이다. 원래의 부재인 옥개석 2개를 통해서 볼 때 고려시대 중기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sup>11</sup>

### 3. 불교의 성지 : 사찰

이천에는 유서 깊은 사찰寺刹로 영월암映月庵·영원사靈源寺·신흥사新興寺 등이 있다. 물론 현재 사찰의 모습은 조선시대와 근대에 걸쳐 형성된 것이지만 사찰의 창건 시기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시대는 불교 억압의 시대였지만 17세기부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임진왜란 기간 동안 불교계와 승병僧兵들이 전쟁에서 커다란 공을 세웠고 이는 불교에 대한 국가적 대우를 바꾸어 놓았다. 그 결과 불교는 18세기부터 다시 부흥하게 된다. 파괴된 유명 사찰들이 복원되기도 했고, 전국에 수천 개의 작은 사찰들이 새롭게 생겨났다.<sup>12</sup> 영월암·영원사·신흥사의 경우도 이러한 조선 후기 이후 불교 중흥의 분위기에 힘입어 창건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천시 향토유적 제14호로 지정되어 있는 영월암은 통일신라시대에 화엄종을 연 의상義相, 625~702이 창건한 것으로 전해 진다. 조선시대의 기록에 따르면 영월암의 본래 이름은 북악사北岳寺였는데 1774년영조 50 사찰을 보수·확장하는 중창불사重創佛

11)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이천시지』 2권, 2001, 392쪽.

12) 김봉렬, 『불교건축』, 솔, 38쪽.

영월암 전경(향토유적  
제14호)



영원사 대웅전



신흥사 종각



事가 이루어지면서 현재의 이름을 지니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20세기 들어서도 1911년·1937년·1941년 각각 수리·보수 작업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 이를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sup>13</sup> 영월암은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을 모시는 대웅전大雄殿, 아미타불阿彌陀佛을 모시는 아미타전阿彌陀殿, 토착신인 산신山神·칠성七星·독성獨聖을 모시는 삼성각三聖閣, 범종梵鐘을 안치한 종각鐘閣, 승려가 거처하는 요사채素舍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웅전의 경우 조선시대에 특히 유행한 닻에 사찰 중심 건물의 대표 격이 되었는데 영월암도 그러한 시대적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영원사는 638년신라 선덕여왕 7 해호선사海浩禪師에 의해 개창되었는데 당시의 이름은 영원암靈源庵이었다.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동안 소실消失·창건·중건重建이 몇 차례 이루어졌으나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면서 완전히 쇠락했고, 1968년 주지 이선헌 비구니가 법당을 수리하고 요사채를 추가로 지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백사면 원적산에 있는 영원사는 봉은사奉恩寺의 관리를 받는 작은 절인 말사末寺였다고 하며, 1825년순조 25 김조순金祖淳, 1765~1832의 기부를 통해 중건되었다고 한다.<sup>14</sup>

김조순은 정조正祖의 신임을 받았던 문신으로 딸이 순조의 비妃로 책봉되어 국구國舅가 되면서 위세가 더욱 커졌던 인물이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30년간 순조를 보좌하면서 19세기에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안동김씨 세도정치 of 기반을 닦기도 했다.<sup>15</sup> 이처럼 조선 후기 핵심적 인물의 후원에 의해 중건된 사찰이니 만큼 영원사의 의미가 적지 않았던 셈이다. 18~19세기에는 서울 근교와 경기 권에 왕족과 부유한 도시민들이 후원하는 원당사찰願堂寺刹이 많이 생겼는데 영원사 역시 유사한 성격을 지녔던 것이다.<sup>16</sup> 영원사는 대웅전과 약사불藥師佛을 모시는 약사전藥師殿·요사채·종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밖에 식당과 요사채를 겸하는 보적원이라는 건물도 있다.

신흥사는 설성산에 위치하는데 이곳의 전설을 통해 볼 때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신라시대에 이미 원형에 해당되는 사찰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있다. 20세기 전반에

13)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이천시지』 2권, 2001, 370~371쪽.

14)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이천시지』 2권, 2001, 375쪽.

15) 유봉학, 「楓阜 金祖淳 연구」, 『한국문화』 19,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7, 251~307쪽.

16) 김봉렬, 『불교건축』, 솔, 137쪽.



편찬된 『태고사법太古寺法』에 따르면 현재의 신흥사는 설성산성 옛터에서 위치를 옮겨 1918년경 지은 것이라고 한다. 1944년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무너졌던 것을 바로 다음해에 재건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sup>17)</sup> 신흥사는 대웅전, 산신을 모신 산령각山靈閣, 천불전千佛殿, 요사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불전이란 어디에나 부처가 존재하고 누구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천불사상에 근거한 천불을 모시는 공간이다. 신흥사의 산령각과 영월암의 삼성각은 조선 후기 이후 고유의 신뿐만 아니라 토착신도 모셨던 당시 불교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산령각에 모시는 산신과 삼성각에 모시는 산신·칠성·독성은 모두 본래 민간의 신들이었다.

#### 4. 향교 앞 오층석탑 환수운동



불법으로 유출돼 일본  
오쿠라 슈코칸에 있는  
향교 앞 오층석탑

고려시대의 탑으로 추정되는 6.48m 높이의 향교 앞 오층석탑은 현재 일본 오쿠라 슈코칸[大倉集古館]에 소재하고 있다. 향교 앞 오층석탑은 안흥사지 오층석탑과 전반적인 구성 및 표현방식이 상통하므로 유사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다만 기단의 면석이 2개로 이루어져있는 안흥사지 오층석탑과 달리 향교 앞 오층석탑의 경우 기단이 1개의 면석으로 이루어진 축소된 형태이므로 상대적으로 늦게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래 이천향교 앞 폐사지에 있던 것을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옮겨 갔다가 1918년 조선총독부에서 오쿠라 슈코칸에 기증하는 형식으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조선총독부의 1918년 고적조사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본래 오쿠라 슈코칸의 주인인 오쿠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郎]는 평양에 있던 칠층석탑을 옮겨가려고 하였으나 그 탑이 주민들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어 힘들어지자 그 대신에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이미 옮겨져 있던 향교 앞 오층석탑을 대신 가져갔던 것이다. 이는 오쿠라 기하치로

17)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이천시지』 2권, 2001, 377~378쪽.

가 조선총독부 총독 테라우치 마사다케[寺内正毅]의 심복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sup>18</sup> 향교 앞 오충석탑이 일본으로 가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공공연히 한국의 문화재를 도굴·약탈·수집하던 상황 속에 벌어진 일이었던 것이다.

향교 앞 오충석탑은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된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불법 해외 유출 문화재의 반환 및 환수를 위한 국제적인 협약이 존재하긴 하지만 법적효력과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15만 6,203점의 문화재가 유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20세기 초 한반도가 세계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던 시기에 문화재가 대거 빠져나갔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재 반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2013년까지 5,139점의 문화재를 돌려받은 바 있다. 1866년 병인양요[丙寅洋擾]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 가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이던 것을 145년만인 2011년 되찾아온 유명한 외규장각의궤[外奎章閣儀軌]는 대표적인 환수의 사례이다.

오충석탑 환수운동 역시 이러한 불법 유출 문화재 환수를 위한 우리나라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이천시는 향교 앞 오충석탑을 되찾아오기 위해 시민과 31개 시민단체의 지원을 토대로 2008년 8월 ‘이천오충석탑환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2009년에는 이천아트홀 광장에 ‘이천오충석탑이 돌아올 자리’를 준비하였으며 석탑 반환 요청 서명운동을 통해 전체 이천 시민 55%에 달하는 10만 9,017명의 서명을 받았고, 이 서명부를 현재 소유자인 오쿠라 재단에 전달한 바 있다. 그렇지만 오쿠라 재단의 경우 다른 문화재를 대신 준다면 반환할 수 있다는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는 등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오고 있어 진척이 매우 더딘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후 지난 7년여의 시간 동안 향교 앞 오충석탑에 대한 연구와 국제학술 심포지엄, 사생대회, 역사문화기행 등 환수를 위한 기반이 되는 간접적 활동과 국회·문화재청과 연대하여 환수의 방법을 모색하는 직접적 활동을 병행해 왔다. 다양한 경로로 27차례에 걸쳐 오쿠라 재단에 반환 협상을 시도한 일이나 일본 내 반환 활동 시민단체와 연대를 모색했던 일은 그러한 노력의 결실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9월에는 1918년 일본으로 건너간 향교 앞 오충석탑이 100년 만에 이천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을 담은 노수민 작가의 소설 『그대 돌아오는 길』이 출간되기도 했다.

18)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이천시지』 2권, 2001, 394~395쪽.

한편 향교 앞 오층석탑은 2011년 3월 1일의 동일본대지진 때 탑 기반부와 3층·4층 모서리가 떨어져 나가고, 4층·5층이 오른쪽으로 25cm 뒤틀리는 등 손상이 일어나 안타까움을 더한 바 있다. 오쿠라 재단은 원래 향교 앞 오층석탑을 세워 놓았던 오쿠라 호텔이 리모델링에 들어가면서 2015년 탑을 별도의 창고로 해체하여 옮겼고, 2019년 리모델링이 끝나면 다시 세울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해체한 현 시점이 환수의 최적기로 다시 탑이 세워지면 환수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석탑이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다가 환수된 대표적인 사례로 고려시대 경천사 지십층석탑의 사례가 있다. 경천사지십층석탑의 경우 1906년 일본인 고관 다나카 미쓰아키(田中光顯)가 개성 부근 개풍군에 있던 것을 분해하여 불법 반출했었다. 당시 경천사지십층석탑은 기차로 인천항까지 옮겨진 후 배편으로 도쿄의 다나카 미쓰아키의 집으로 옮겨졌다. 다나카 미쓰아키는 탑이 고종황제의 하사품이라며 꾸몄지만 탑이 불법 해체되어 반출되었음이 『대한매일신보』 등의 신문을 통해 금방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일본에서도 다나카 미쓰아키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졌고 서양언론에서도 이를 비판적으로 다루며 항의가 거세지자 이에 굴복하여 1919년 경한국으로 반환하게 되었다.

경천사지십층석탑이 환수된 것은 약 100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불법적 반출 사실을 대대적으로 공론화하고 홍보하는 것이 환수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준다. 향교 앞 오층석탑의 경우도 국내는 물론 일본 현지와 해외에 불법 반출 사실을 자세히 소개하고 알림으로써 오쿠라 재단이 탑을 소유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떳떳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재라도 법적 강제성을 통해 반환토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처럼 상황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환수의 정당성·당위성을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인지시키는 것이 현재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03

백년을 넘어  
교육 천년대계로







허홍범 | 추사박물관 학예연구사

### 제3장 백년을 넘어 교육 천년대계로

#### 1. 이천교육의 뿌리, 이천향교<sup>1)</sup>

전국의 각 지방에 학교가 설립·운영된 것은 과거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고려 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1127년인종 5 3월에 조서를 내려 州마다 학교를 세워 교육의 길을 넓히라고 한 것이 향교의 기원이다.<sup>2)</sup> 향교는 공자孔子를 비롯한 선현에 제향을 지내는 기능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이후 향교 설립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고려시대에 세워진 향교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무신집권기와 몽골·왜의 잇단 침략으로 향교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다가 고려 말에 지방관과 유림들의 노력으로 그 기능을 회복해 갔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에 설립되기 시작한 향교는 조선시대 들어 일읍일교一邑一校의 원칙에 의해 전국적으로 세워졌다. 이는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채택한 성리학을 일반 백성에게 보급하기 위한 조선 왕조의 필요성에서 기인한 결과였다. 일찍이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향교에 생도를 더 두고 강학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으며,<sup>3)</sup> 태종은 학교의 흥폐 여부를 수령의 고과기준으로 삼는 등 향교교육을 중요시하였다.<sup>4)</sup> 또한 각 향교에 토지와 노비를 지원함은 물론 유교적 이념을 갖춘 관인을 중앙에서 파견함으로써 교육진흥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이천향교는 1402년태종 2에 감무監務 변인달邊仁達이 처음 건립하여 600년이 넘는

1)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이천시지』 2권, 2001.

2) 한편 고려 태조 왕건이 930년에 서경(西京)을 방문하여 세운 ‘학원(學院)’을 고려시대에 건립된 최초의 향교로 이해하기도 한다(강대민, 『한국의 향교』,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16쪽). 그러나 이것은 태조의 서경 중시사상에서 비롯된 특별한 조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3)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28일.

4) 『태종실록』 권12, 태종 6년 12월 20일.





	1
2	3
	4

1. 이천교육의 뿌리, 이천향교 전경
2. 제향 공간인 이천향교 대성전
3. 강학 공간인 이천향교 명륜당
4. 이천향교 홍살문과 외삼문

역사를 지냈다. 권근權近이 지은 「이천신치향교기利川新置鄕校記」에 보면, “기사년창왕 원년. 1389에 현감 이우李愚가 부임하여 은혜로운 정사를 펴서 유망했던 백성들을 모으고는 개연히 학교를 일으키는 데 뜻을 두었다. 비로소 안흥정사安興精舍에 생도를 모으고 학장을 두어 가르치고 날마다 부지런히 하였다. 기명과 물자, 양식을 모두 넉넉히 하도록 힘쓰며 장차 터를 보아 학사를 세우려 하였으나, 그때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 치세하는 시기였으므로 미처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교체되었다” 라고 하여 고려 우왕 때 현감 이우가 안흥정사를 빌어 처음 세운 학교가 이천향교의 전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1401년태종 1에 변인달이 이천 감무로 부임해 와서 안흥정사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중의 집을 학교로 삼을 수는 없다” 고 하면서 향교 지을 곳을 물색하였는데, 읍내 북쪽으로 1리쯤 떨어진 두 물줄기가 합류하는 곳에 터를 정하니, 주변이 여러 산으로 둘러싸여 형세가 그림 같았다고 한다. 백성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 공무의 틈을 내어 이졸들을 부려 산에서 재목을 베고, 향도香徒들을 모아 실어오게 하는 등 날마다 자신이 직접 공역을 감독하였다. 부임한 이듬해인 임오년 1402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완공되었으므로 8월 상정에 나아가 석전釋奠의 예를 거행했다.

향교의 명륜당과 동·서재는 교육을 행하는 공간이다. 명륜明倫은 인륜을 밝힌다는 뜻으로 『맹자』에 “학교를 세워 교육을 행하는 것은 모두 인륜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명륜당은 교육장소인 동시에 교관의 숙소였기 때문에 중앙에 대청을 두고 좌우에 온돌방을 두는 형태를 취하였다. 동·서재는 교생들의 기숙사이며 명륜당을 중심으로 양쪽에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평민 이상의 신분이 향교에 입학할 수 있었는데, 양반 교생은 동재에 머물고 평민들은 서재를 사용하는 등 건물 사용에도 신분상 구별이 존재하였다. 동·서재는 건물 전체가 방이거나 가운데에 대청을 두고 좌우에 온돌방을 두기도 하였다.

건립 당시 이천향교의 건물 배치가 어떠했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경사진 구릉 위에 터를 잡은 형상으로 볼 때 건립 초부터 이천향교는 맨 위에 배향공간인 대성전大成殿을 두고 측면 좌우에 동무와 서무를 두었으며, 그 아래 외삼문 밖에 강학공간인 명륜당明倫堂을 배치한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현재와 같은 구조였을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천향교는 여러 차례 중수과정을 거쳤다. 우선 기묘사화로 파괴된 후 이천에 우거했던 모재<sup>慕齋</sup> 김안국이 지은 「이천중수향교기<sup>利川重修鄉校記</sup>」를 보면 1521년<sup>중종 16</sup>에 한 차례 중건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후로도 1653년<sup>효종 4</sup>, 1786년<sup>정조 10</sup>, 대한제국 시절인 1906년에도 중건된 기록이 보인다. 6·25전쟁으로 동·서무가 모두 소실되어 그 후 다시 세워지고, 1997년 이천시립도서관을 건립하면서 도서관 진입로가 측면을 지나가면서 오늘의 모습이 되었다.

1760년<sup>영조 36</sup>에 나온 『여지도서』 단묘조를 보면 당시의 이천향교는 대성전 6칸, 동·서무 각 3칸, 명륜당 6칸 외에도 제관방 3칸과 동·서재가 각각 4칸이 있다고 하였다. 현재의 향교건물은 동·서재와 제관방이 없어지고 대성전과 동·서무, 명륜당 외에 부속건물인 관리사 1동이 있다. 대성전은 겹처마 맞배지붕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앞면에 퇴를 두어 개방하였다. 명륜당은 홑처마 맞배지붕의 6칸 규모로 중앙에 대청을 두고 좌우로 온돌방을 두었다. 대성전과 동·서무를 둘러싼 담장과 외삼문이 있고, 명륜당을 외삼문 밖에 두었다.

향교교육의 목적은 인재양성과 지방민 교화였다. 즉, 향교교육을 통하여 유교 통치체제에 필요한 관료 자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통치체제의 정치이념에 입각하여 백성을 교화하고자 한 것이다. 반면에 피지배층은 향교교육을 거쳐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신분상승’의 꿈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에 향교교육은 생원·진사시의 시험과목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교육과정은 소학·사서·오경·성리대전·삼강행실·이륜행실·효경·심경·근사록 등의 경서와 통감을 가르쳤다. 향교교육의 목적이 유교적 이념에 투철한 관인<sup>官人</sup>을 양성하는 한편 유교윤리를 널리 보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과에서도 유교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향교에서의 수업방식은 교관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개인별로 독서한 것을 교관 앞에서 강하고 의문 나는 것을 질의하는 개별학습이며, 학습내용에 통달해야만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학습방식이었다.

## 조선 초기 향교의 교과

구분	교재
기본 교과	삼강행실, 효경, 소학, 문공가례(文公家禮)
필수 교과	4서 : 논어, 맹자, 대학, 중용 5경 : 서경, 시경, 역경, 예기, 춘추좌전(春秋左傳)
성리학 교과	근사록, 성리대전, 성리군서(性理群書)
역사 교과	통감류 : 통감강목, 통감절요, 통감훈의
제술 교과	고문진보(古文眞寶), 문선(文選), 초사(楚辭), 고부(古賦), 유문(柳文), 한문(韓文)

교관은 교수·훈도·교도·학장이라고 했다. 교생의 정원은 행정구역 크기에 따라 차등을 두었는데, 부府·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 90명, 도호부都護府 70명, 군郡 50명, 현縣 30명으로 규정되어 있다.<sup>5</sup> 교생의 입학연령은 지역에 따라 15~20세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교육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대체로 40세까지는 학생의 신분을 가질 수 있었다. 교생은 입학과 동시에 군역이 면제되었으며, 과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이천향교는 이천현이 도호부로 승격되는 1444년<sup>성종 26</sup> 이후부터 예에 따라 관현으로 교수教授 1인을 두고 교생 정원은 70명이었다.

15세기 내내 전국적으로 향교의 수와 교생의 정원수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그러나 지방에서 유학교육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는 10% 미만이었으며, 교생의 생원·진사시 합격률도 매우 낮았다. 즉, 향교 교생들의 신분상승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에 국가에서는 지방교육 진흥을 위해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거나 시취試取 시험을 보아 인재를 뽑음을 실시해 그 지역의 교화를 진작시키기도 하였다. 1490년<sup>성종 21</sup> 성종은 영릉에 제사를 지낸 후 이천·여주·양지·용인·광주廣州의 주민들에게는 그해의 전조田租를 절반으로 감하고, 여주향교와 이천향교에 각각 쌀 30석을, 용인향교에는 20석을 내려주어 유생들의 학과를 권장하는 바탕으로 삼게 하였다.<sup>6</sup> 또한 영릉까지 함께한 이천 교생을 본 후 시취를 실시하게 하였다.<sup>7</sup> 이때 시험에 합격한 이들은

5) 『경국대전』 권3, 예전 생도.

6) 「어가가 머문 땅의 백성들은 전조를 감해 주고 여주 등의 향교에는 쌀을 내리도록 하다」, 『성종실록』 245권, 성종 21년 윤9월 15일 갑오.

7) 「영의정 윤필상 등과 의논하여 인제 2·3인을 뽑아 생원 진사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하다」, 『성종실록』 245권, 성종 21년 윤9월 15일 갑오.

생원이 되었는데, 여주에서 3인, 이천에서 1인이 뽑혔다. 그러나 “그 인물이 국가에서 시취한 자와 같지 않아서 감히 생원으로 자처하지 못하고 거관居館, 유생이 성균관에 거처하면서 공부하는 것하지 않게 되었다”<sup>8)</sup>는 내용으로 볼 때 각 고을에서 실시된 시취를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중종이 1528년중종 23 여주향교에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할 때 다시 시취를 실시하였다. 처음에는 향교의 치부置簿에 기록된 자를 대상으로 시취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이렇게 제한하면 쓸 만한 사람을 얻을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모든 토착인 유생이 시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이때 시취 참가자격을 확대하게 된 주요 이유는 “경기의 훈도訓導는 거의 다 용렬한 무리이므로 배울 만한 자가 적어서, 훈도에게서 수업하기를 부끄러워하고 혼자 글을 읽거나 관학館學, 성균관과 사부학당에 취학就學하므로 향교의 치부에는 쓸 만한 자가 적”<sup>9)</sup>었기 때문이었다. 즉 이천을 비롯한 경기지역 향교에 있는 훈도의 학문적 수준이 높지 못해 지방 유생들이 혼자 수학하거나 성균관 또는 사부학당에서 취학하는 것을 선호했다는 것이다.

교관은 외관직으로서 무록관직無祿官職이므로 녹봉은 없었고 식료를 받았으며 그 외의 훈도 등에게는 식사 정도만 제공되었다. 승진과 대우에서도 중앙의 관원과 비교하여 가장 낮게 취급되었으므로 교관으로 부임하는 것을 싫어하였고 생계 수단 정도로 여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15세기 후반부터 교관의 질과 사기는 점점 떨어졌고, 16세기에 더욱 심해져 연산군과 중종 재위 무렵부터 사족들이 향교를 빠져나가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이는 계속적인 교관 파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국가에서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즉 조선 초기 향교교육은 지배층의 ‘지방민 교화’ 목적에 더 부합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집권층의 지배질서가 안정을 찾게 된 15세기 말부터 향교의 교육적 기능은 점차 상실되어 갔고 조선 중기 이후 향교는 문화적·정치적 기능만 남게 되었다. 그리고 향교를 대신해서 서원이 지방교육을 담당하였다.

8) 「김동난의 일과 거동 때의 시취 등에 관해 의정부와 논의하다」, 『중종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13일 임오.

9) 「김동난의 일과 거동 때의 시취 등에 관해 의정부와 논의하다」, 『중종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13일 임오.

## 2. 김안국의 향촌교화와 ‘괴정육현’의 교유<sup>10)</sup>

### 1) 모재 김안국의 이천 우거와 향촌교화

김안국(金安國, 1478~1543)은 조광조와 함께 김굉필에게 도학적 학문을 이어받아 개혁 정치를 하려 했던 중종 대 사림파의 유종(儒宗)이다. 본관은 의성, 자는 국경, 호는 모재(慕齋)이다. 아버지는 참봉 김연(金連)이고, 어머니는 양천허씨(陽川許氏)이며, 사재(思齋) 김정국(金正國)이 그의 아우이다. 1501년(연산군 7) 생원시·진사시에 합격했고, 1503년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로 벼슬을 시작한 뒤 홍문관박사·부수찬·부교리 등을 지냈다. 이어 사가독서하고, 1507년(중종 2)에는 다시 문과 증시(重試)에 급제, 지평·예조참의·대사간·공조판서 등을 지냈다. 1517년 경상도관찰사로 있을 때 각 향교에 『소학(小學)』을 나누어 가르치게 하고, 향촌 교화활동을 하면서 생원들을 대거 천거하는 등 실천주의자의 면모를 나타내었다. 『이륜행실도언해(二倫行實圖諺解)』와 『정속언해(正俗諺解)』 등의 교화서를 간행·보급했으며, 향약을 시행하도록 해주자학적 향촌질서의 수립에 힘썼다.

그러나 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가 사사되었을 때 김안국도 파직되었다. 그 뒤 1520~1537년에 이천의 주촌(注村)과 여주의 폐천령현(廢川寧縣) 별장에서 은거하면서 후진들을 가르쳤다. 대개의 지배층 관료가 그러했듯이 김안국도 재지(在地)의 사회경제적 기반 위에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과 교유하고 학문을 강론하였다. 김인후(金麟厚)·유희춘(柳希春) 등 『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에 실린 그의 문인 44인 중 상당수는 이 시기에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 『동유사우록』에 따르면 이천·여주 퇴거기에 박란·이오·김기·유충흥·박염, 함경도 길주의 박희령·박한로·함경충, 김해의 홍언평·임사영 등은 학업을 위해 타지에서 김안국을 찾았던 인물이다. 이들은 길주나 김해 등 원지에서 와서 3년간이란 긴 기간을 사제가 함께 기거한 경우도 있었다.

10) 허홍범, 「김안국의 이천·여주 생활과 ‘괴정육현’의 교유」, 『이천시지』 1권,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178~194쪽 참조하였다.



모재 김안국 신도비  
(설봉서원 제공)



퇴거기 그의 향촌교화는 재관在官시기와는 달리 퇴거자로서의 모습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데, “향음이나 향회에 참석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내용은 이를 잘 보여 준다. 또한 향교나 역驛의 중수기와 누정기를 적거나 가요歌謠를 지어 성리학의 흥학興學을 도모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오빈·봉안양역중수기」, 「이천중수향교기」, 「문화현이치기」, 「애련루기」, 「수원교생의 가요를 대작함」, 「이천교생 가요」, 「안동망호루기」, 「양성현중수향교기」, 「사액여주영빈관기」, 「양지현동헌중수기」 등을 썼다. 이 중 「이천향교중수기」에서는 ‘교학敎學 일으키는 한 가

지 일은 왕정王政의 대단大端’ 이라고 교학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평상시에 사마제군司馬諸君들에게는 학교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유생儒生들이라고 강조하였다.

당시 모친을 위해 3년간 여묘살이에 사당을 지어 단청까지 하고, 삭망에 반드시 제사를 모셔서 향당鄉黨의 칭찬이 자자한 공번좌孔番佐라는 사천私賤이 있었다. 이에 김안국은 “이러한 순효純孝는 사대부로도 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천예賤隷로서야 가당키나 하겠는가” 라고 하여 그를 칭송하는 글을 부체에 써 주었다. 김안국은 효를 ‘권장할 권한이 없음이 한’ 이라고 할 정도로 향촌교화에 많은 열의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인근의 민인을 위하여 참의 홍자미洪子美에게 이웃 병정兵丁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청탁하기도 하였는데, 홍 참의는 병정을 용서하려고 그와 친숙한지를 김안국에게 물어왔다. 김안국이 지체 없이 궁촌窮村에서 물고기와 뿔감을 구하는 것은 병정 덕분이라고 화답한 결과 “노병老兵이 면죄되었으므로, 술을 걸러 감사한 뜻을 표했다” 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이천부의 방檄을 보고 사람을 잡아 가서 지체한 죄를 물겠다고 하였기에 격문檄文의 뒷면에 기일을 어긴 죄를 잠시 늦추어 달라고 써서 성주城主에게 보내고 그 백성의 용서를 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그가 퇴거 중에도 여전히 향촌의 구체적인 사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김안국은 40대 초반부터 50대 말에 이르는 18년간 이천과 여주에서 퇴

거하며 사람과 중 누구보다도 성리학적 사유에 입각하여 실질적인 향촌교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한 인물이었다.

## 2) 육괴정과 ‘괴정육현’의 교유

김안국이 이천에 퇴거하였을 때 지금의 백사면 도립리 지정池亭에서 여섯 선비들이 교유하였다. 이들을 ‘괴정육현槐亭六賢’이라 하는데 김안국을 비롯하여, 성담령成聃齡, 강은姜潁, 엄용순嚴用順, 오경吳慶, 임내신任蘊臣 등이다.

성담령은 신둔면 남정리의 창녕성씨 입향조이다. 단종 복위사건에 연루된 성삼문과 사촌간인 그는 형제가 몰살당하고 부녀자가 노비로 하천下賤되는 일을 겪은 후 진사시에 합격하고도 불사不仕의 가통家統을 본받아 벼슬을 단념하고 이천 수출리현수평리에 내려와 은거하였다. 후에 마을의 식수가 귀하므로 인근 남정골로 거처를 옮기고 마을 남쪽에 ‘박우물’을 파게 하여 식수난을 해결하였다. 김안국은 부친 김연과 같은 때에 과거에 급제한 성담령을 부친의 예로 대했다고 한다.

강은은 1510년중종 5에 생진과에 합격하고, 1519년중종 14 기묘년에 천거과薦舉科에서 천거되었으며, 곧 한림翰林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기묘사화로 천거과가 혁파되자, 이천 호암산의 남쪽에 정자를 지어 규정奎亭이라 이름하고 성리학을 닦고, 성학聖學을 연구하였다. 그 후 1540년에 공천公薦으로 예빈시참봉에 제수되고, 1545년인종 1에는 전적典籍에 보임되었으나 사은謝恩하고 돌아와 은거하였다.

엄용순은 갑자사화로 피화된 선공감부정 엄훈嚴訓의 아들이다. 그는 천성이 어질고 의를 숭상하며 학문에 조예가 깊었다. 중종 대에 두 형인 엄용관嚴用寬·엄용공嚴用恭과 함께 사마시에 급제하였다. 엄용순은 부친의 묘가 있는 백사면 도립리에 은거하였는데, 이천으로 낙향한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그는 도립리에 지정육괴정을 지어 괴정육현이 교유하는 데 기여한 인물이다. 모친 장씨가 죽은 뒤에는 3년간 한 번도 집에 가지 않고 여묘살이를 하여, 1540년 경기관찰사 정만중이 장계를 올려 ‘마땅히 정표旌表하여 권장’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평상시에 효성이 지극하였다.

오경이 거주한 곳은 신둔면 장동2리하남촌이다. 조부 오순과 부친 오예손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그의 할머니가 손자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와 정착하였다. 임내



괴정육현이 교유한 백사면 도립리의 육괴정



육괴정 현판



김안국의 『모재집』

신은 퇴계 이황의 문인으로, 1538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이래, 여러 관직을 거쳐 승정원좌승지까지 오른 인물이다.

괴정육현의 정치적 성격은 ‘둔세<sup>遁世</sup>’ 한다거나, 향촌에 낙향 또는 은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안국과 강은은 기묘사화 피화인물이며, 성담령·엄용순은 낙향한 경우이고, 오경은 사마시 합격 후 둔세한 경우이다. 다만 임내신의 경우에는 괴정육현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데 종종 말년에 관계<sup>官界</sup>에 진출한 경우이다. 그러므로 그는 김안국이 죽골이나 이호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괴정육현’ 간의 교유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 후 종종 말년과 명종 대에 중앙에서 현달하였기 때문에 괴정육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괴정육현은 북하천을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에 거주하여 공간적으로 자주 내왕할 수 있는 거리에 분포하고 있었다. 김안국이 거주한 부발읍 죽골을 제외하면, 괴정육현 중 4명이 원적산 자락의 비교적 완만한 구릉성 산지에 거주하였다. 강은은 죽골과 북하천을 사이에 두고 김안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우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냇가를 낀 경관이 좋은 위치에 우거처를 마련하였음도 공통적이다.

육괴정을 중심으로 괴정육현이 교류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백사면 도립 1리에 있는 육괴정은 현존하는 중수기에 의하면, 괴정육현의 교유 이후 세월이 지나는데 연못이 메워지고 6그루의 느티나무 중 세 그루가 고사한 이후 1741년, 1887년, 1936년 3차에 걸쳐 중수되었다고 한다.

『모재집』에 의하면, 육괴정은 처음에는 지정<sup>池亭</sup>으로 불렸다. 지정은 김안국이 여주 이호로 우거처를 옮긴 해, 즉 1528년<sup>중종 23</sup> 봄에 지은 것이다. 따라서 육괴정의 명칭은 처음에는 지정으로 불리다가, 후에 엄용순의 수모연<sup>壽母宴</sup>에 김안국을 비롯한 향반들이 매년 모이면서 육괴정으로 변해 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오경은 1531년 사마시 합격 후 ‘둔세<sup>遁世</sup>의 고상<sup>高尚</sup>한 뜻’으로 낙향하였다. 따라서 괴정육현이 본격적으로 교유하기 시작한 시점은 1530년경으로 보인다. 이후 이들은 김안국이 재서용될 때<sup>1538</sup>까지 약 9년간 교유하였다.

괴정육현의 구성으로 볼 때 성담령은 주로 김안국과 교유하다가 1523년 별세하였다. 임내신은 1530년 시점에 겨우 18세에 불과하였으며, 그 후 1538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러므로 임내신은 종종 말년-명종 대에 비교적 현달하였기 때문에 ‘괴정육현’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괴정육현은 그들이 교유한 당대에 붙여진 명칭이 아닌 듯하다. 적어도 김안국이 사망<sup>1543</sup>한 1540년대 이후에 이 지역에서 여섯 선비들의 교유를 기려 ‘괴정육현’으로 부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괴정육현’은 ‘형성되어 간’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괴정육현은 대체로 곤궁을 근심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즐기면서 성리학자가 추구하는 정치적 현실이 도래하기를 기대하며 ‘군은君恩’이 쉽게 미칠 수 있는 이천·여주 등의 근기<sup>近畿</sup>지방에 터를 잡고 살았다. 그러므로 기묘사림인 김안국과 강은, 정치적 이유로 은거한 성담령, 기묘사화 후 서책과 거문고를 즐긴 엄용순, 둔세의 고상한 뜻으로 낙향한 오경 등 괴정육현은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에 걸친 정치적 변동의 와중에서 낙향이나 우거·퇴거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자기 현실을 살아간 지역 사류간의 교유였다고 하겠다.

한편 괴정육현의 교유 이후에 육괴정은 “매일같이 동자들이 모여 아침저녁으로 학업을 열어” 이천지역의 사학<sup>私學</sup>으로 명맥을 유지해 왔다. 근대에 와서는 일제 말기 부터 1946년까지 육괴정은 지역 사학의 하나로 영월엄씨 문중의 서당 역할을 하였다. 해방 후 영월엄씨 종중은 종중답의 수익으로 문중에서는 훈장의 식대 및 학채<sup>學債</sup>를 부담하여 육괴정에서 서당을 운영하였다. 해방 당시에 이 지역에서 한학을 수학한 최학기·이종덕·이종태 등이 서당의 훈장으로 1년 정도씩 훈학<sup>訓學</sup>하였으며, 당시 학동은 30명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괴정육현의 후손들은 육성회를 조직하여 40여 년 전부터 4월경 1년에 한 차례씩 육괴정에 모여 육현의 가르침을 기리고 있다.

### 3. 성현의 학문과 덕행을 가르치며 인재를 양성한 설봉서원<sup>11</sup>

우리나라의 서원은 ‘사화<sup>士禍</sup>의 아들이자 당쟁<sup>黨爭</sup>의 아버지’라 표현되기도 한다. 사화는 1408년<sup>연산군 4</sup>부터 1545년<sup>명종 1</sup>까지 47년간 4차례나 터졌는데, 이때 희생

11)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이천시지』 2권, 2001.



설봉서원 전경(설봉서원 제공)

된 선비가 180여 명에 달하였다. 이들 피화자<sup>被禍者</sup>들은 대개 당세의 명유<sup>名儒</sup>였다. 초창기 서원 향사자들의 대부분이 이때 피화된 명현들이었고, 뒷날 서원의 자리는 그들이 강도<sup>講道</sup>하던 곳이었다. 즉, 서원의 발생은 바로 도통<sup>道統</sup> 확립을 모색하는 사림 정신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빈번하였던 사화는 이들 사림들이 추앙하는 도학자를 탄생시키는 시금석의 역할마저 부여하였다. 이처럼 ‘세란실학<sup>世亂失學</sup>’ 하게 될수록 선비들은 더욱 도통의 연원을 확립코자 하였으며, 사화가 창궐하면 할수록 뜻 있는 선비는 산림<sup>山林</sup>에 은거하였다. 그들은 곧 재야 유생들이 의지하는 바가 되었다. 따라서 사화는 학문의 지방 분산화를 촉진하였던 것이다.

설봉서원은 1564년<sup>명종 19</sup>에 처음 건립되었는데, 전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세워진 서원 중 하나이다. 즉,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인 백운동서원<sup>1543년 건립</sup>과 불과 21년

설봉서원 추향제  
(2017)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설봉서원 강  
당 명교당, 사당 상현  
사, 옛 설봉서원 터에  
세운 설봉서원유허비,  
외삼문 양현문(설봉서  
원 재공)



차이밖에 나지 않으며, 경기도 내에서는 가장 먼저 세워졌다. 이처럼 이른 시기에 이천에 서원이 설립된 데에는 모재 김안국이 이천에 우거하며 펼친 교화활동, 그리고 그와 교유하며 성장한 재지사족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천부읍지』 단묘조에 보면 설봉서원은 처음 건립 시에 삼현사<sup>三賢祠</sup>라 불렀고, 가정갑자<sup>嘉靖甲子</sup>. 명종 19에 이천부사 정현이 부 동쪽 안흥지 위에 처음 건립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인 1592년<sup>선조 25</sup>에 부에서 서쪽 2리 지점인 설봉산 밑으로 이건하고 이때부터 설봉서원이라 불렀다고 한다. 설봉서원의 처음 명칭을 삼현사라고 했던 것은 서희<sup>徐熙</sup>, 이관의<sup>李寬義</sup>, 김안국<sup>金安國</sup> 세 인물을 제향했기 때문이다. 그 후 최숙정<sup>崔淑精</sup>을 추배했는데 추배한 시기와 경위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나 대략 철종연간으로 추정된다.

고려 성종 대 인물인 서희가 이름난 유현<sup>儒賢</sup>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설봉서원에 제향된 것은, 그가 과거 급제한 문관의 신분으로 벼슬길에 올라 나라를 위해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관의는 성종 때 사람으로 초야에 묻혀 살면서도 학문이 뛰어나 이름을 떨쳤으며, 김안국은 이천 출신은 아니지만 기묘사화 이후 이천 죽골<sup>죽발</sup>을 족당리로 내려와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향촌 교화에도 앞장섰다. 성종 때 문신인 최숙정은 부제학을 지내고 시문으로 이름났다. 『이천읍지』에 보이는 설봉서원은 사우<sup>祠宇</sup> 3칸에 강당 4칸으로 단출한 규모였고, 원래의 위치는 지금의 경충국도에서 설봉공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안쪽이었다. 그러나 설봉서원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사액서원이 되는 데는 실패하였으며, 그 결과 1871년 흥선대원군의 사원철폐령으로 폐지되고 말았다.

서원이 없어진 후 그 자리에는 사현의 위패를 묻은 커다란 봉분을 대신 만들어 놓았는데, 근처에 허리가 동강난 하마비<sup>下馬碑</sup>가 남아 있었던 탓에 ‘말무덤’이라 불리게 되었다. 1970년대 초 다시 무덤이 있던 자리에 현충탑을 세우고 구석에 유허비를 세워 놓았다가, 설봉공원 충효동산에 현충탑이 새로 건립되면서 지금은 빈터만 남아 있다. 설봉산 주봉 기슭에 울창한 숲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현재의 설봉서원은 2007년에 복원된 것이다. 건물구조는 정면에 우뚝 솟은 양현문<sup>仰賢門</sup>을 들어서면 중앙에 강당인 명교당<sup>明敎堂</sup>이 자리 잡고 있으며, 명교당 뒤 상단에는 사현을 모신 상현사<sup>尙賢祠</sup>를 두고 좌우로는 동·서재인 삼성재<sup>三省齋</sup>와 구사재<sup>九思齋</sup>를 배치하였다. 명교



당 좌우로는 전사청典祀廳과 양사재養士齋가 규모 있게 들어서 있고, 건물 전체를 낮은 담장으로 둘렀다. 서쪽 담장 넘어는 해 묵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 운치를 더해 준다.

서원은 조선시대 사립교육기관으로 학문발전, 유학진흥, 사회교화 등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서원 원생들의 입학자격은 각 서원마다 조금씩 다른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원칙적으로 신분상의 개방성을 띠고 있었다. 서원의 교육은 학문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문 그 자체의 탐구와 연마를 강조하였다. 성균관에 준하여 생원과 진사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외의 지원자들은 학문과 덕행을 고려하여 입학시켰는데, 이는 서원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교육의 목적은 국가에 유위有爲한 선비를 양성하는 데 있었으며, 과거시험을 통해 관리가 되는 것은 부차적이었다. 교과내용은 『소학小學』과 사서오경四書五經을 필수교과로 하였으며, 독서의 순서는 『소학』·『대학』·『논어』·『맹자』·『중용』·『시경』·『서경』·『역경』·『춘추』로 하였다. 교수방법은 배운 글을 소리 내어 읽고 문리文理를 문답하는 전통적인 강講을 통해 이루어졌다.

서원은 사립교육기관일 뿐만 아니라 지방 사람들의 집합소로서 공론의 형성 기관이자 교화기관으로서 큰 몫을 담당하였지만 정치와 관련되어 문벌대립과 당쟁에 휘말리는 폐단이 발생하기도 했다.

#### 4. 백년의 기억을 간직한 이천초등학교<sup>12</sup>

##### 1) 일제강점기 학교교육과 학교생활

식민지시기에 들어서면서 일제의 공교육체제 강화에 따라 전국의 모든 군과 면에 한 개 이상의 초등교육기관을 수립한다는 이른바 ‘일군일교一郡一敎’, ‘일면일교一面一敎’ 정책이 추진되면서 기존 조선의 사립교육기관들이 대대적으로 공교육체제에

12) 이천초등학교총동문회·이천초등학교, 『이천초등학교백년사』, 2011.

편입되었다.

이천초등학교는 1911년 5월 17일 근대 초등교육기관인 ‘사립이천보통학교’로 설립·개교하였고, 개교 9개월 만인 1912년 2월 15일 국가로부터 정식 교육기관인 공립학교로 편입·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이천초등학교는 이천지역 최초의 인가받은 근대적 공교육기관으로 첫 발을 내딛었고, 여전히 현존하고 있다.

이천공립보통학교의 개교를 필두로 약 2개월 후에 장호원공립보통학교가 개교하게 된다. 이후 일제강점기 이천지역에는 10여 개의 학교가 추가로 설립·개교하였다. 일제강점기 이천지역 보통학교의 현황은 표와 같다.

일제강점기 이천지역 보통학교 설립 현황

학교명	소재지	개교일	학교명	소재지	개교일
이천	이천면 창전리	1911.05.17	율면	율면 오성리	1934.05.01
장호원	장호원면 장호원리	1911.07.14	신둔	신둔면 수광리	1935.12.01
죽남(설성)	설성면 행죽리	1921.09.13	호법	호법면 후안리	1935.10.14
신갈	모가면 신갈리	1921.03.31	이황	장호원면 이황리	1941.04.01
오천(마장)	마장면 오천리	1920.05.14	송곡	모가면 송곡리	1941.06.30
백사	백사면 현방리	1921.05.16	가산	부발면 가산리	1936.04.15
부발	부발면 무촌리	1933.06.15	장천	설성면 장천리	1944.04.01
대월	대월면 초지리	1933.06.14	표교	마장면 목리	1944.04.01

일제가 학력에 따른 고용·임금상의 차별을 제도화하면서 1920년대 이후에는 극심한 입학난이 야기되었다. 1921년 보통학교 신입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일제는 효율적인 식민지 교육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학교시설과 증축에 조선인들을 적극 참여시키고자 하였다. 식민지 초기에는 가급적 공립학교에 자식들을 보내려하지 않아 경찰이 거의 강제적으로 학생모집에 나섰지만 공교육체제가 안정화되면서 보통학교 입시가 본격화되는 1920년을 넘어서면서 이천공립보통학교의 지원자 수와 입학생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1920년경 이천공립보  
통학교(이천초등학교)  
교사들



일제강점기 이천지역  
최초의 공교육기관 이  
천공립보통학교(이천  
초등학교) 전경(1930)



일제강점기 이천초등  
학교 수업 모습(1930)



## 일제강점기 이천공립보통학교 입학생 현황

단위: 명

연도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지원자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66	24	260	44	440	84	571	129	519	73	310	70	345	64
입학자	66	24	208	26	404	78	456	117	428	67	302	68	317	61

이러한 학생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교원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공립학교의 교장은 일제강점기 전체를 통해 일본인이 독점하였으나, 교사<sup>훈도</sup>의 경우 조선인이 더 많았는데, 이 역시 일본인 교사로 충원하기에는 학급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이천공립보통학교 개교 초기인 1912년에는 교장과 훈도 각 1명씩에 불과했으나, 1915년에는 교원이 4명으로 증가하였고, 1923년에는 10명, 1926년에는 12명으로 늘어났으며, 1930년에 15명으로 증가한 이후 해방이 되기까지 계속하여 교원수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1938년 4월 「조선교육령」 개정에 따라 공립보통학교는 일본인의 학교명인 심상소학교로 바뀌었다. 동시에 대부분 4년제에서 6년제로 바뀌었으며, 학교에서 일본어 상용을 강제하였다. 이와 함께 이천공립보통학교는 일본인 이천공립심상소학교에 이름을 빼앗기고 이천제일심상소학교로 바뀌었다. 이천심상소학교는 다시 1941년 4월 1일 「조선교육령」 개정에 따라 공립국민학교<sup>公立國民學校</sup>로 이름을 바꾸게 되어 이천제일공립국민학교가 되었다.

개교 당시 교사<sup>校舍</sup>는 단층으로 운동장 서편에 치우쳐 위치해 있었고, 1921년 5월에 운동장 동편에 5개 교실 규모의 교사를 준공, 이어 1923년에는 목조 2층 교사가 신축 준공되면서 개교 당시 교사는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1932년에는 본관과 동편 교사가 만나는 부분에 창고 및 화장실이 들어섰으며, 1942년에는 본관 교사 후면에 교실 2칸 규모의 연와조 교사가 새로 들어섰다. 이 연와조 교사는 해방 후인 1946년에 교실 4칸 규모로, 이어 1948년에는 교실 5칸 및 화장실을 갖춘 규모로 증·개축되었고, 1948년 7월 30일 개축과 함께 운동장 동편으로 길게 있던 1921년 준공 교사가 이리로 이전하게 된다.

일제의 식민지 교육목표는 식민지배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재생산하는 데 있었다. 일제가 요구한 식민지 조선의 인적자원은 주로 단순 기능적이거나 하위 실무 담



이천초등학교 제23회  
졸업사진(1930)



당자 층이었기 때문에 교육체계도 초등교육 중심으로 짜였다.

이 시기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사회 of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 기능하였고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았다. 이천지역의 체육행사는 대부분 학교를 중심으로 개최되었는데, 가을에 운동회를 개최했으며 이러한 운동회는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참석하는 대중행사로 치러졌다. 학생이 있는 집은 대부분 참석하여 이전에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지역 민간의 교류를 가지게 되었고, 농촌지역의 중요한 일상생활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변변한 대중집회 공간이 부재했고 장날이 아니면 인근 주민이 함께 모일 기회도 별로 없었던 고립적이고 폐쇄적이던 농촌생활이 학교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움직이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입학식, 졸업식, 원족소풍 등의 학교행사는 학부모와 가족이 참여하는 대중행사로 치러졌고, 자연스럽게 학교는 지역민 일상생활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천공립보통학교 졸업식은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지역민들이 대면하는 자리가 되었는데, 이는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영역이 되었음을 보여 준다.

한편, 학교의 등하교 시간은 농촌사회의 자연적이었던 시간리듬을 엄격하고 치밀한 근대적 시간 리듬으로 바꾸는 역할을 했다. 체육행사는 이후 새로 학교가 설립되면서 학교별 대항으로 치르기도 했는데 이러한 양상은 학생들의 정체성 형성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했다. 자신이 소속된 학교와 다른 학교를 구분함으로써 스스로의 위치와 정체성을 확인하게 만들어 사회질서에 걸맞은 자아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도 했다. 학교 친구는 이제 학생들의 중심적 인간관계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신분이나 성씨보다 오히려 동창이라는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이천초등학교는 이천지역에 최초로 설립된 근대식 공교육기관으로 일제강점기를 포함해 길고 어려웠던 시간 내내 이천의 학교교육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오늘날 이천지역 교육의 모태가 되었다.

## 2)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의 학교교육과 학교생활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식민지시대 교육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은 미군정의 주도로 1945년 9월 16일 조선교육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되었다. 미군정 학무국은 일반명령 제94호를 통해 같은 해 9월 24일부터 초등학교 수업을 개시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천국민학교는 미군정의 지시에 의한 재개교 한 달여 만인 10월 1일이 되어서야 임덕재 교장이 부임한 것으로 보아, 이 시기가 행정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1948년 7월 선포된 『대한민국헌법』에 교육에 대한 조항을 넣음으로써 민주주의 교육과 공교육의 2대원칙을 명시하였다. 이어 정부는 새로운 교육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법」을 제정하여 1949년 12월 31일자로 공포하였는데, 이 안에는 헌법 제16조에 근거한 우리나라 교육의 이념·목적과 함께 교육행정체제, 교육기관의 계통, 장학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또한 의무교육제도, 학제, 교육자치제도, 지방교육 재정, 교원, 각급학교 교육과정의 외적 기준, 교과서, 장학금 등에 이르기까지 교육 전반에 걸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 이천국민학교의 규모를 보면, 1946년 7월에는 제1회 졸업생만을 배출한 채 1944년 4월에 설치되었던 2년 수학 연한의 본교 고등과가 폐지되었으며, 당해 연도에 32학급으로 편성되었다. 이어 이듬해 1947년에 36학급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 규모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1946년에는 교실 두 칸 규모의 벽돌조 건물이 본관 뒤에 지어졌으며, 1948년에는 일본인이 다니던 심상소학

교를 접수하여 본교 분실로 사용하였고, 이어 운동장 동편 교사를 벽돌조 교사의 뒤편에 이전하여 교실 5개를 추가 확보한 사실은 이천 시내의 유일한 초등교육기관으로서 급속히 커지는 학교 규모를 반증한다.

한편 6·25전쟁으로 학교 건물들이 전부 소실되고 중공군이 개입함에 따라 이천국민학교는 휴교하게 되었다. 1950년 10월 정부의 재개교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에 재개교를 한 것도 학교 건물과 교육 비품의 망실로 사실상 개교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2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휴교를 맞이하게 되었고 1951년 9월에 가야 다시 수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전시 중 30학급 내외로 반을 편성하였는데, 여전히 남녀를 구별하여 반을 편성하였고, 각 학급은 80명 정도로 과밀했다. 1~3학년은 함께 모여 수업하기도 하였다.

1950~1980년대 이천국민학교이천초등학교 졸업 현황

단위: 명

졸업 회차	졸업일	졸업생수			졸업 회차	졸업일	졸업생수		
		남	여	계			남	여	계
38	1951.08.20	168	83	251	57	1970.02.12	138	146	284
39	1952.03.26	187	94	281	58	1971.02.13	185	145	330
40	1953.03.28	187	111	298	59	1972.02.8	147	152	299
41	1954.03.23	178	103	281	60	1973.02.14	165	146	311
42	1955.03.18	194	106	300	61	1974.02.20	154	172	326
43	1956.03.19	150	95	245	62	1975.02.14	167	146	313
44	1957.03.20	78	66	144	63	1976.02.16	157	151	308
45	1958.03.15	60	72	132	64	1977.02.14	150	166	316
46	1959.03.16	92	52	144	65	1978.02.14	159	147	306
47	1960.03.04	123	109	232	66	1979.02.14	163	136	299
48	1961.03.18	89	82	171	67	1980.02.14	126	146	272
49	1962.02.15	69	72	141	68	1981.02.18	146	149	295
50	1963.02.13	88	45	133	69	1982.02.15	153	149	311
51	1964.02.08	79	73	152	70	1983.02.15	158	153	311
52	1965.02.09	152	132	284	71	1984.02.15	195	168	363
53	1966.02.05	101	94	195	72	1985.02.15	188	170	358
54	1967.02.13	140	84	224	73	1986.02.14	200	210	410
55	1968.02.06	132	142	274	74	1987.02.12	226	213	439
56	1969.02.05	159	125	284	75	1988.02.11	183	225	408

전쟁 이후 이천 교육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특히 학교수의 증가를 훨씬 능가하는 속도로 학급수와 학생수가 팽창하였다. 그러나 이에 부응할 정도로 교육 여건이 개선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유자격 교원의 증원, 교실 증축, 교육기자재 확충 등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정 형편상 획기적인 개선을 이룰 수는 없었다.

1970년대까지도 학생들은 한 학급 학생이 60명을 넘어서는 과밀 학급, 이른바 ‘콩나물교실’에서 수업을 받았다. 일제강점기 건물인 동편 교사를 뜯어 옮긴 5칸 규모의 교실이었기에 2,000명 내외의 많은 학생수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이로 인해 특별실을 사용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이 시기 이천국민학교는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교육 연구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1973~1987년 7개년에 걸쳐 각종 연구·시범학교를 수행하면서 교육정책은 물론 첨단 과학교육 도입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1979년에는 2개년에 걸쳐 역시 경기도교육위원회로부터 자연과 연구학교로 지정을 받아 활동하면서 종합교재원과 동물사육장을 신축하였고, 1985년에는 이천군교육청으로부터 컴퓨터교육시범학교로 지정받아 이천에서는 처음으로 컴퓨터반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 3) 1990년대 이후 학교교육과 학교생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화는 시대의 흐름으로 부각되었으며, 이와 함께 각국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개혁의 목표를 수월성 제고에 두고 이를 위하여 교육운영의 중앙집권화 및 관료주의를 탈피하여 시장경제 원리를 교육운영의 기본원리로 채택하였다.

1995년 5월 31일 정부는 ‘세계화·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신교육체제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자아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체제의 기본특징은 학습자 중심교육, 교육의 다양화,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교육의 정보화, 질 높은 교육 등이다.



제6차 교육과정기 중 교사 자율교육 혁신운동으로 시작된 열린교육과 구성주의 교육관을 바탕으로 한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법」 제155조 1항에 따라 고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었다. 또 제7차 교육과정은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만들었으며,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과 태도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개정되었다.

한편, 이천지역은 1990년대 중반 시세市勢의 확장과 더불어 증포동, 송정동을 필두로 시내권 외곽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한내·안흥·송정·증포초등학교 등 신설 초등학교가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신설 아파트 거주를 선호하는 젊은 학부모층의 이주로 인하여 이천초등학교의 학구와 학령인구는 대폭 줄어들었다. 상대적으로 이천초등학교는 구 시가지의 재래 단독주택과 시장에 인접해 위치한 특성상 인구밀도는 자연히 낮을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연도별 이천국민학교이천초등학교 학급편성 및 졸업생수

단위: 개·명

연도	일반학급	특수학급	병설 유치원	졸업일	졸업생수			
					남	여	계	누적
1990	76(61)	2	1	2. 15	240	239	479	15,602
1991	66	2	2	2. 12	233	248	481	16,083
1992	64	2	2	2. 14	312	268	580	16,663
1993	64	3	2	2. 12	256	226	482	17,145
1994	64	4	2	2. 15	269	245	514	17,659
1995	57	2	3	2. 15	263	264	527	18,186
1996	58	2	3	2. 11	239	263	502	18,688
1997	60	2	3	2. 14	241	219	460	19,148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대에는 저출산의 여파가 학령아동에 이르러 2000년 2,736명이었던 학생수는 10년 만에 1/3 수준으로까지 줄어들었다. 이러한 저출산의 여파는 적어도 향후 수년은 지속되리라는 예측과 함께, 규모면에서 작은 학교를 지향하는 정책 추세가 더해져 구시가지 개발계획 등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이천초등학교 학생수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운동장에서 야외수업 중인 이천초등학교 학생들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초등부  
우승을 차지한 이천초등학교 여  
자축구부

## 2000년대 연도별 이천초등학교 학급수 및 학생수

단위 : 개·명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학급수	61	56	49	48	46	48	46	45	42	40
학생수	2,724	2,377	2,152	2,090	1,980	1,937	1,773	1,621	1,481	1,302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규모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활동은 오히려 활발히 이루어졌다. 2001년에는 불모지였던 한국 여자축구의 전기를 마련하는 초등학교 여자축구부를 처음 창단하였고, 2003년에는 이천시 최초이자 전국적으

로도 학교단위에서는 선두주자로 부설 지역공동 영재학급을 개설하였으며,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경기도지정 교과 특성화학교를 운영하였다. 2009년에는 경기도 내 5개 학교와 함께 그간 축적된 학교도서관 운영프로그램을 기저로 지역주민을 위해 저녁 9시까지 도서관을 개방하여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달빛도서관 야간 개방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2009년 처음으로 방과 후에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한 저학년 학생들을 저녁 6시까지 보살피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등 보육교실을 설치하였으며, 2010년에는 종일 돌봄보육교실을 1실 더 설치하여 저녁 9시까지 맞벌이로 인해 보호자가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을 돌보았다. 이 역시 이천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2011년에도 계속되어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되는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보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돌봐주는 ‘온종일 보육교실’ 1실을 더 설치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2007년부터 격주로 토요일에 휴업을 하는 부분적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되면서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에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학생들을 모아 학교에서 다양한 대체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토요 틈새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2009년과 2010년에는 개교 100주년에 즈음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을 표방하며 여러 노력을 경주하였다.

## 5. 여성 중등교육의 출발지, 양정여자중 · 고등학교<sup>13</sup>

### 1) 매일학교에서 양정여학교로

이천지역은 1896년부터 기독교 미감리회(美監理會) 선교사가 선교를 시작하여 1899년에 최초로 이천군 마장면 덕평리에 교회를 세웠다. 또한 이천읍내에는 1901년부터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어 1902년에 이천감리교회가 세워졌다. 이들 초대 교회들은 대개 구국적인 차원에서 기독교신앙을 전파함과 아울러 신문화교육을 통해 민

13) 양정60년사편찬위원회, 『養貞六十年史』, 2006.



새로 지은 교사(校舍)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양정여학교 교직원과 학생들(1928)



일제강점기 이천양정학교 수업 모습(1930)

죽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각 교회에서는 예배를 보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 외에 한글과 산수를 가르치고 변화하는 세계 정세도 깨우쳐 주었다.

그러다 1903년에는 이천읍 소녀들을 위해 미국 감리교 여선교부에서 ‘매일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천 여성교육의 시작이며, 양정여학교의 모태가 되었다. 당시 매일학교는 다른 지방에서 학생들이 찾아올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1910년 5월 3일 미감리회 여선교부에서는 구한국 학부 대신으로부터 사립 ‘양정여학교’ 인가를 받아냈다. 이로써 매일학교는 4년제 소학교인 양정여학교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양정여학교는 처음에 이천읍사무소 자리에 설립되었다가 1924년 미국인 크렌크 부인의 특지<sup>특조</sup>로 교사<sup>校舍</sup> 건평 42평을 이천읍 중리, 예전의 이천중앙감리교회



예배당 구내에 건축하고 이전하였다. 그 뒤 1928년에 다시 미국인 크렌크 부인의 특지로 교사를 2층으로 증축하여 80평의 건물이 되었고, 학제도 6년제로 개편되었다.

이렇듯 발전을 거듭해 가던 양정여학교는 1938년 5월 13일에 일제로부터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6회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를 당하게 되었다. 양정여학교가 폐교당한 3년 뒤인 1941년 12월에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양정여학교의 건물과 부지(敷地)는 식민지 내의 적국재산이라 하여 압수되었다. 그 뒤 1942년경 경방단(警防團)에서 교회 구내에 있던 전 양정여학교의 건물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에 김동옥 목사는 “아무리 적산건물이라도 애초에 교육기관으로 지어졌던 건물이니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 건물에 무산(無産) 아동을 위한 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백방으로 운동을 하며 온갖 노고를 다했다. 이에 매우 강압적으로 양정여학교의 건물을 쓰겠다고 나섰던 경방단도 계획을 포기하였다.

이때 김동옥 목사는 학교설립을 위해 ‘양정학원’이란 이름으로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양정’이라는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육학원(旭學院)’이란 이름으로 재차 신청서를 내어 인가를 얻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1943년 7월 2일에 육학원을 열고 학생을 모집하였는데 무려 200여 명에 달하는 무산아동들이 몰려들었다.

양정여학교 건물에서 어렵게 시작된 육학원은 1945년 3월 1일에 일본인들이 이천농업중학교를 세우겠다고 건물을 비우라는 통지를 보내옴으로써 관권(官權)에 끝까지 대항하지 못한 채 축출되고 말았다. 하루아침에 배움의 터전을 잃은 육학원이었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고 예배당 밑에 있는 사경회 지방기숙사 건물을 수리하여 그곳으로 장소를 옮겼다. 해방 후 육학원은 초급중학교인 양정여학교로의 개편을 위해 학생 모두가 이천제이국민학교에 편입되면서 해산되었고, 교사를 점령했던 이천농업중학교를 축출하고 그 자리에는 1946년 10월 15일 이천양정여자초급중학교가 설립되었다.

## 2) 해방 후 1950년대 양정여학교의 재건과 중고등학교 설립

1946년 9월 1일 육학원이 설립되었던 장소에는 초급중학교로 양정여학교가 재건되



중학교 4학년과 3학년이 동시에 졸업한 양정학교 제3회 졸업 기념사진(1951.8.27)



초기 백합사로 사용했던 이천양정여자학교 사택

었다. 이는 양정여학교가 1938년 5월 13일에 신사참배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폐교된 지 8년 만의 일이다. 이로써 양정여학교는 초급중학교로 다시 그 계통을 잇게 된 것이다.

이천양정여자초급중학교를 설립한 1946년 9월에 처음으로 학생을 선발하였다. 대상은 주로 국민학교 6학년을 졸업한 여학생으로 하였는데, 모두 39명이 선발되었다. 그리고 1946년 10월 15일 개교식과 함께 제1회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이때 입학한 학생들은 1949년 7월 12일에 졸업을 하게 되었다.

이천양정여자초급중학교의 설립취지는 1903년 3월 9일에 설립되었다가 1938년 5월 13일에 폐교당한 ‘양정여학교’를 부활시켜 이천지역의 뒤떨어진 여성교육을

신장시켜 보려는 데 있었다. 나아가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여성교육을 통해 광복의 날을 맞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필요로 하는 인물을 양성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었다.

당시 양정여학교 교사<sup>校舍</sup>는 너무 협소한데다 기숙사도 개인주택을 매입한 것이어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래서 교사를 증축하고 기숙사도 새로 지을 겸 학교 건물 옆의 터를 매입해 증축설계를 했다. 또한 관고리 산 밑에는 외딴 집 한 채가 있었는데 이것을 교사주택으로 매입하였다. 그러나 얼마 뒤에 일어난 6·25전쟁으로 학교 증축과 기숙사 건축이 진행되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기존의 학교건물마저 소실되고 말았다. 학생 8명이 폭격으로 사망했고, 교사로 근무하던 이회돈 선생과 서무를 맡아 보던 박동용 선생이 폭사하는 비운도 당했다. 또한 교사 1명은 행방불명이 되었으며 2명은 부역자로 활동하다 이 가운데 1명은 폭사하고 다른 한 명은 구금되었다.

1950년 6월 1일에 「교육법」의 변경으로 3년제 여학교가 4년제로 변경되면서 양정학교도 4년제 여학교로 개편되었다. 즉, 종래의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었던 연한이 중학교 4년, 고등학교 2년으로 학제가 바뀐 것이다. 그러나 이듬해 1951년 다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제3회 졸업식은 중학교 4학년과 3학년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제3회 졸업식은 1951년 8월 27일 천막에서 거행되었는데, 학제 개편에 따라 당시 중학교 4학년을 마친 학생들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졸업생이 되었고, 9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가 설립되었다.

전쟁이 채 끝나지도 않은 어려운 시기에 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 하나는 당시만 해도 이천에는 고등학교가 없어 이천양정여자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더 이상 진학할 곳이 없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이유는 피난민 중에서 고등학교 학령에 이른 사람은 피난지 소재 고등학교에 등록하여 공부한 뒤 그 이수증을 가지고 원적교에 가면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문교부에서 훈령<sup>訓令</sup>을 내렸음에도 이천지역에는 고등학교가 없어 피난민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몇 가지 이유에서 설립된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는 9월에 학생을 모집하여 10월 15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또한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가 설립됨에 따라 1952년 9월에는 재단명이 재단법인 양정여자중학교에서 재단법인 양

정학원으로 변경되었고, 그해 12월에는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가 인가되었다.

이천양정여자중학교를 재개교한데 이어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를 개교하기는 했으나 교실이 문제가 되었다. 1951년 12월 초순에 60평가량의 흙벽돌집과 가교사가 완성되었다. 60평 건물의 가운데를 칸막이로 막으니 30평 크기의 교실 2개가 마련되었다. 물론 2개의 교실은 학교가 필요로 하는 교실 숫자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으나 가교사는 1·4후퇴로부터 수복 후 이천지역에서는 맨 처음 재건된 건물이었다. 흙벽돌로 지은 임시교사로 늘어나는 학생들을 모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으므로 교사를 넓게 지을 수 있는 학교부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천읍을 중심으로 심사숙고한 끝에 관고리 90번지 일대가 양정의 신교지로 확정되었다.

한편, 이 시기는 제1차 교육과정기<sup>1955~1962년</sup>에 해당하는데 제1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현실생활을 개선·향상시킬 사회개선의 의지를 목표로 삼았다. 필수과목 분량의 최소화 및 반공교육, 도의교육, 실업교육을 강조하고 특별활동시간을 배정하였다. 교과목을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공동목표 달성과 학생 개개인의 개성신장을 동시에 추구하였으며, 인문계고등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의 교과구성에서 필수교과는 동일하게 하고 선택과목은 달리 구성하였다. 또한 도덕과목을 새로 신설하여 주당 1시간씩 필수과목으로 배정해 반공교육을 강조하였다.

당시 실시한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필수교과로 국어(1)·사회일반사회/도덕/국사·수학·과학·체육·음악·실업·가정과목이 있었으며, 선택교과로 국어(2)·사회세계사/지리·수학해석/기하·과학물리/화학·체육·음악·미술·영어·성경·기도회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전문화된 교과과정을 통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고 교육 전반 활동을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실시함으로써 선량한 품성과 세계 형제애로서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또한 1958년에 준공된 생활지도관인 백합사에서 생활실습을 통해 의식주 및 기타 문화생활에 관한 과학적지식 및 기능을 연마할 수 있었다. 학도호국단과 특별활동교육이 일원화되어 창단된 학도호국단은 그 산하에 학생자치회와 운영위원회가 있었다. 또한 학예부문예반/웅변반/미술반/사생반, 과학부물상반/생물반, 음악부합창반/성악반/기악반/밴드반, 규율부, 후생부, 체육부 등 각 부서가 편성되어 학생들의 과외활동을 통하여 개성을 발전시키고 자치능력을 배양하며 애국학생단체로 역할을 하였다.



### 3) 1960~1980년대 교육의 변화

제2차 교육과정기<sup>1963~1973년</sup>의 가장 큰 변화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중학교 입시제도 폐지와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예비고사였다. 1968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예능계와 체육계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시험에 앞서서 대학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대학입학 예비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특색은 학급편성의 다양성이다.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에서 이천양정여자종합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학년별로 보통과 2학급, 상업과 1학급, 가정과 1학급을 두어 총 12학급을 운영하였다. 이렇게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선발·편성된 학급으로 학습내용도 그 폭과 심도를 달리하여 상급학교 진학뿐만 아니라 취업을 결정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실무기능을 습득시켰고, 또한 현명한 경제생활인을 육성하는 데도 주력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기<sup>1974~1980년</sup>을 앞둔 1972년 12월 8일에 상업과 학급을 1학급씩 더 증설하여 학년별로 보통과 2학급, 상업과 2학급, 가정과 1학급 등 총 15학급으로 학교규모가 확대되었다. 이어 1975년 보통과 3학급, 상업과 3학급 등 총 18학급으로 증설되었으며, 다시 1979년에는 보통과<sup>인문과정</sup>, 직업과정으로 나뉘는 3학급, 상업과 6학급 등 총 27학급으로 학급이 대폭 증설되었다. 교육과목 편제에서의 변화로는 사회과목에 속해 있던 국사와 국민윤리<sup>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과목</sup> 과목이 독립 교과목으로 분리되어 보통과와 상업과 모두 필수교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편성하고 반공교육의 방법을 전환해 민족주체성에 입각한 자주 발전사관을 확립하도록 하였다.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부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1983년부터 상과반 학생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하였다. 컴퓨터교육으로 상업과의 상업계산과 타자과목의 이수단위를 축소하고, 대신 정보처리기능사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상업과 6학급을 상업과 2학급, 회계과 2학급, 정보처리과 2학급으로 나누고, 각 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 필수과목과 전문 선택과목을 다르게 편성·운영하여 학생들이 사회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실무능력을 배양시켰다.

5차 교육과정<sup>1988~1991년</sup>의 특징은 ‘지역화’와 ‘효율성’을 강조한 점이다. 기초 교육 강화와 정보화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건강인·자주인·창조인·도덕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았다. 기준단위제의 실시로 학교장의 운영재량권을 대폭 강화시키려 하였으나 실제로는 교육과정의 구체적 사항 일체를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결정하여 제시하는 중앙관리형 교육과정으로 시·도 및 각 학교는 교육과정의 선택·결정의 재량이 거의 없었으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시·도의 지침과 학교 교육과정의 기능을 도맡았다. 편제상의 특징으로는 교육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학습부담을 경감시키려 했으나 실제 생활 및 문화와 유리된 내용이 많았다. 또한 학습량과 수준이 적정하지 못하여 학생의 부담이 오히려 가중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컴퓨터교육을 위한 정보산업과목을 신설하였으며, 경제 교육 내용을 보완하여 강조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4) 1990년대 이후 교육의 변화

1995년 대통령자문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안<sup>1995.5.31</sup> 발표 이후 8월에 교육과정특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세계화·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맞는 자율적·창의적 인간육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개정이 시작되었다.

이에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교육청과 학교 및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천해 가는 교육과정, 학교 교육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학습자의 학습능력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차별적·선택적 교육을 제공한다는데 근본적인 의의를 두고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국민공통 교육단계와 11~12학년에 편성된 고등학교 2~3학년 단계의 2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는데 영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희망을 고려하여 수준별 수업을 시행하고 있다.

수준별 교과목의 특징상 교육단계의 특징에 따라 단계형, 심화보충형, 그리고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편성된다. 1학년 영어·수학과를 수준별로 상·중·하반으로 나누어 이동수업을 하였고, 심화반과 기초반을 편성하여 보충·심화수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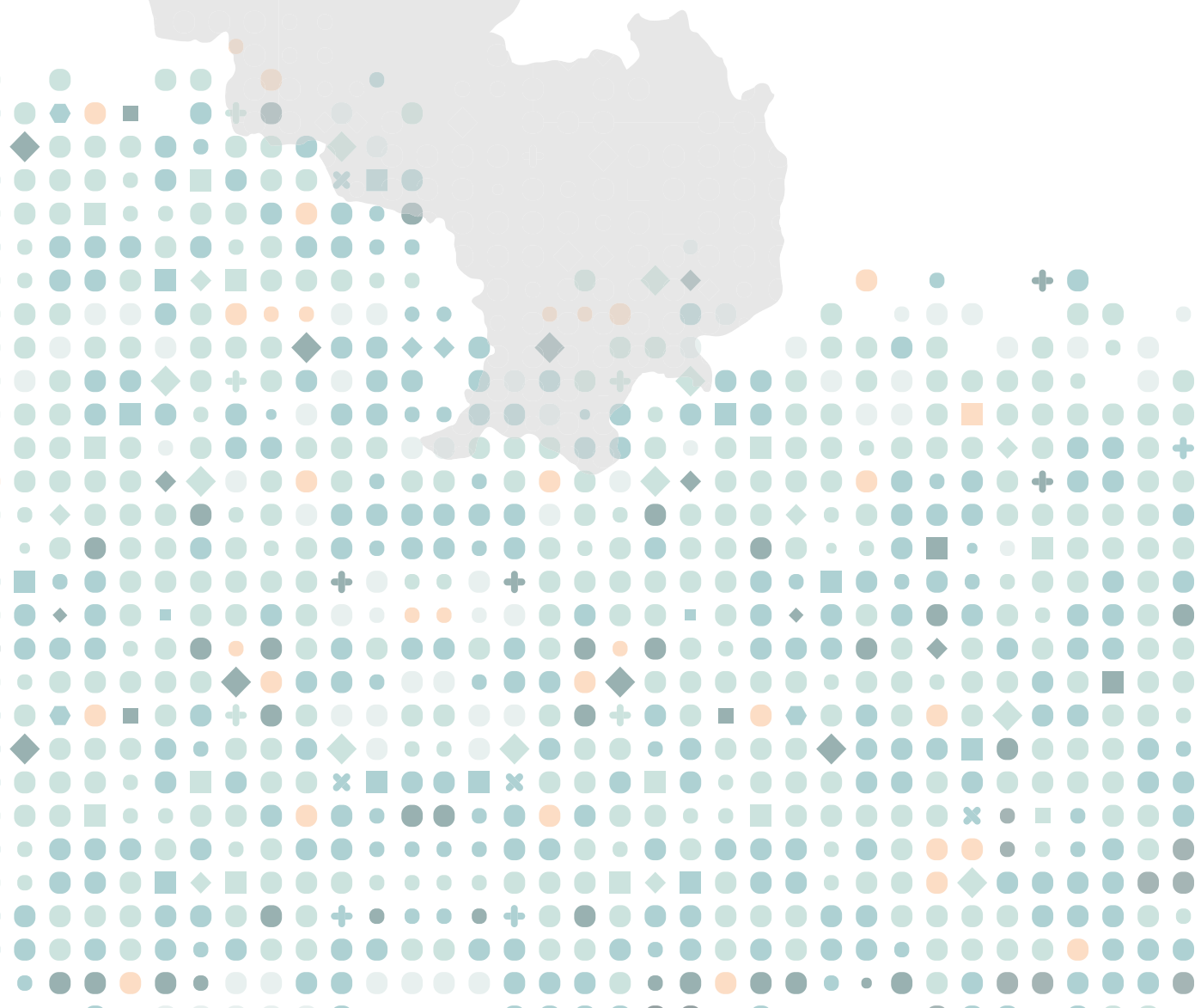
이천시청을 방문해 조병돈 시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이천양정여자고 3학년 학생들 (2016)

록 편성하였다. 한편 고등학교의 교명이 2001년 3월 1일부로 이천양정여자종합고등학교에서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로 변경되었다. 이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새천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교과개편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2000년 8월 24일 정식으로 교명 변경과 관련된 학칙 변경을 경기도교육청에 신청하였고, 내용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심사 후 그해 11월에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2001학년도부터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함과 동시에 실업계열학과를 개편하였다. 이는 장기적으로 실업계열학과를 모두 폐지하고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2001학년도부터 학과개편과 감축을 계속하여 2006학년도부터는 실업계열 학급이 전혀 없는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 및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 26일에 본관 앞 운동장 부지에 신관 교사를 착공하였다. 아울러 2003학년도 신입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적 기반시설을 2월에 마련하고 2003년 3월 2일 입학식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기타 부대시설을 포함한 모든 공사는 2003년 4월 16일에 마치고 이날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또한 본관 건물은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조화로운 인간교육과 진취적이고 능력 있는 여성인재를 육성하는 데 한층 더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운영하고 있다. 또한 11, 12학년에 편성된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일반계고등학교의 경우 선택과목 중 보통교과에 교과군 개념을 도입하여 ‘인문과학, 사회과학, 기술, 예·체능, 외국어 교양’ 등의 5개 과목군으로 구분하여 각 과목군에서 1과목교양과목군에서는 2과목 이상 이수도록 하되 과목군별로 복수로 과목을 개설하여 균형적인 이수를 도모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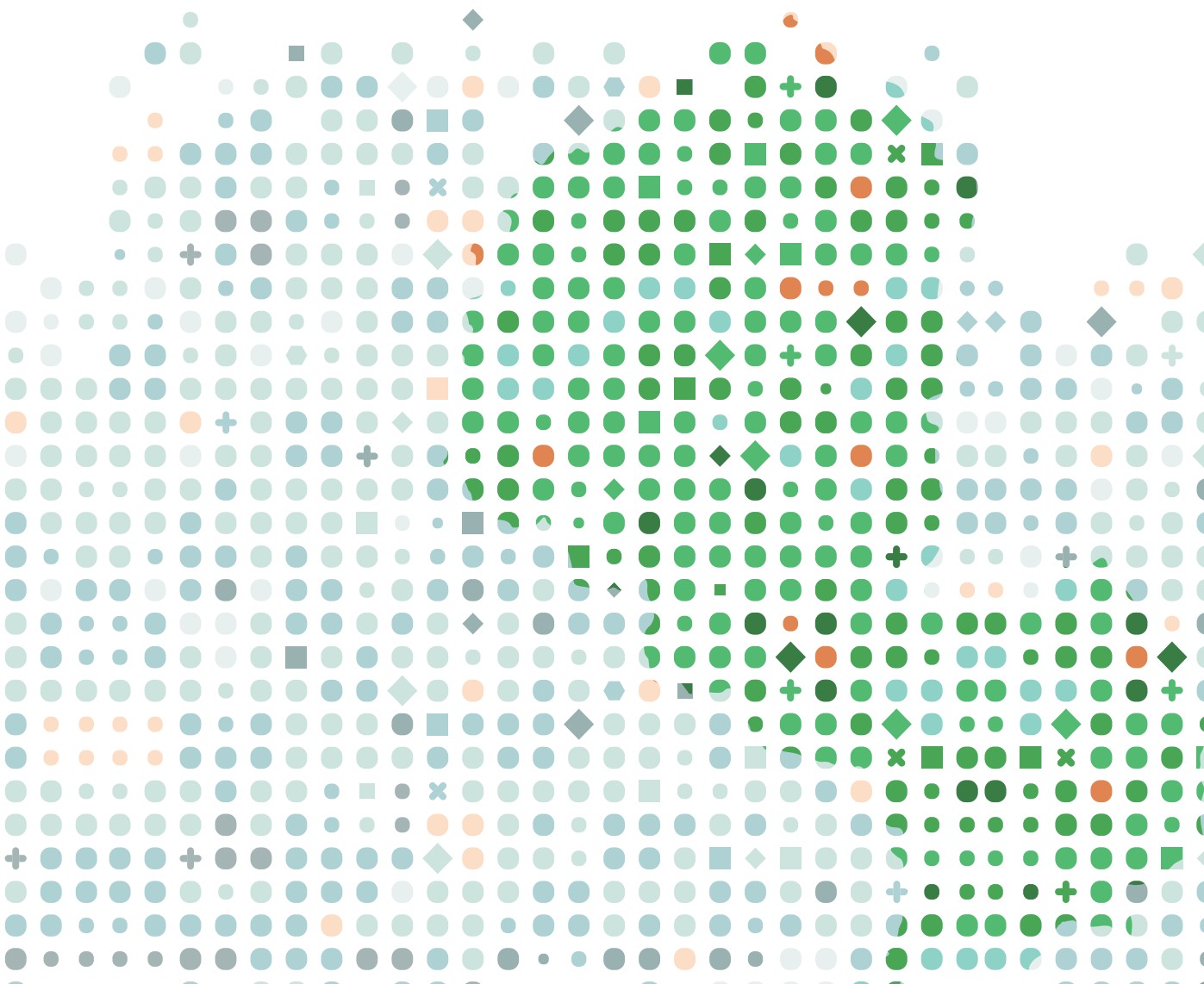
# 전통에 담긴 삶의 흔적





# 5편

---



01

# 삶의 양식, 민속





유선영 |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연구원

## 제1장 삶의 양식, 민속

민속(民俗)이란 민중들의 삶의 방식으로, 인간의 삶에 기본이 되는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양식·신앙·공동체생활 등 인간의 전반적인 생활사를 모두 다루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천의 민속에 대해서는 2001년에 간행된 『이천시지』에서 다룬 바 있는데, 이천지역의 생산풍습·생활문화·민간신앙·의례·세시풍속·민속놀이·구비전승 등 다양한 영역을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또한 이천문화원에서는 이천지역을 11개 행정구역으로 나뉘 각 지역의 문화유적과 구비전승 자료 및 민속자료를 소개하는 보고서를 발간<sup>1)</sup>하였다. 이는 이천 전 지역의 문화유적과 민속을 전수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흔히 민속이나 전통을 논할 때 과거의 원형만을 전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민속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늘 한 가지 모습으로 정형화 되어 있지 않다. 삶의 방식은 지리적 환경, 시대, 문화, 가치, 그리고 타 공동체와의 교류 등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민속이 살아 있다는 것은 소멸과 생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과거의 원형을 기반으로 새롭게 발전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도 있다. 안타깝게도 유래 없이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농촌의 해체 등을 겪으면서 우리 민속은 전승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는 이미 소개한 이천지역의 민속 문화를 다시 소개하기 보다는 어떤 민속이 지속적으로 전승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 민속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천지역에서 현재 전승되고 있는 마을신앙, 그리고 이천지역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의 현 전승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천문화원에서 백사면(1996)·율면(1997)·설성면(1997)·마장면(1998)·부발읍(1998)·장호원읍(1999)·신둔면(2000)·호법면(2001)·모가면(2002)·대월면(2002)·도심권(2016) 등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문화유적과 민속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1. 마을신앙

### 1) 이천의 마을신앙 현황

2001년 간행된 『이천시지』 3권 민속과 구비전승에서는 마을신앙을 크게 동제·성황제·우물고사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본고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나 제사를 받는 신격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개인이 아닌 마을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하나의 표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이천지역 18개 지역에서 마을신앙이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한 표를 보면 이천지역에서 지내는 마을제사가 2001년 18곳에서 2017년 6곳으로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을 공동제의를 지내지 않게 된 이유로는 공동체의 연대 약화, 기독교의 확대, 인구 감소 등을 꼽을 수 있다. 과거에는 마을마다 마을을 지켜주는 당산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마을의 안녕과 복을 비는 당제가 성행하였다. 또 일반 가정집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집집마다 성주·터주·삼신 등의 가정신을 모시고 안택고사를 드렸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산업화·도시화 등을 겪으면서 전통신앙은 미신으로 치부되고 타파해야 할 전근대적 잔재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의 교세가 빠르게 성장한 것도 우리 전통신앙이 쇠퇴하게 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과거에는 집성촌을 이루며 친인척들이 한 마을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마을일이 집안일이었고 서로 돕고 함께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여 살던 친인척들이 외지로 나가 농촌 인구수가 줄어들었고, 외지에서 들어온 이주민들은 마을에는 살되 마을공동체에는 들어오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과거에는 마을 공동제의와 각 가정에서 지내는 고사가 겹치면 마을이 우선이기 때문에 마을제의가 끝난 후 이장이 방송을 통해 이를 알리고 각 가정에서 고사를 지냈다. 나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마을의 안녕과 평안이 우선시되었기 때문이다.

## 이천지역 마을신앙 전승 현황

지역		명칭	2001 <sup>2</sup>	2017 <sup>3</sup>
백사면	현방리	산신제	○	×
	내촌리	산제	○	최근 새로 길을 내면서 서낭탱이에 지냄
	도립리	산신제	○	×
	상용리	서낭제	서낭당이 남아 있음	○
율면	고당리	동제	× (최근 중단)	× (20여 년 전 중단)
	자오리	성황제	○	
	총곡리	성황제	○ 매년 정월 이렛날 (과거 음력 1월 14일)	
설성면	수산리	노성산 산신제	○	× (3년 전까지 지냄)
	대죽리	노성산 산신제	○	× (20여 년 전 중단)
	장천3리	우물고사	○	× (10여 년 전 중단)
마장면	관리	양각산 산신제	○	○
	목리	산신제	○	× (2016년까지 전승)
	회억리	대동제 · 산제	○	○
	목리	산신제(영보사)	○	
	이치2리	부락제	○	× (25년 전까지 전승)
	표교1리	부락제	○ (신설)	×
	오천리	당고사 · 샘우물고사	× (1960년대 까지)	×
부발읍	산촌리	산신제	○	○
	무촌리	산신제	×	×
신둔면	지석리	정개산 산신제	○	○
	수남리	응봉산 산제사	○	×
	용면리	당고사	× (근래까지)	
호법면	매곡리	정제사	○	○ (과거 매곡1리 전체 에서 모셨으나 2017 년부터 안마늘에서 만 따로 모심)

2)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이천시지』 3권, 2001. 제3장 민간신앙 제2절 마을신앙 부분 내용 및 도표 참조.

3) 각 마을 이장과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함.

마을 공동제의를 사라지는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로 농촌의 고령화와 세대 간의 단절을 들 수 있다. 실제로 마을 공동제의를 더 이상 지내지 않게 된 이유를 설명할 때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할 사람이 없어서’이다. 특히 이천지역에서는 동제의 한 형태인 산제를 많이 지내는데 산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 보통 제물로 돼지나 소·떡·나물·메·술 등을 올리는데, 산제에서 사용할 제물이나 도구 등을 산으로 가지고 올라가려고 해도 마을주민들이 대체로 고령화되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 게다가 마을주민 중에 젊은 사람이 있는 마을에서도 ‘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마을 젊은이들은 관심이 없고 연장자 중심으로 할 줄 아는 사람 몇몇에 의존해서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승이 중단되고 있다.

## 2) 부발읍 산촌리 산신제

부발읍 산촌리에서는 1년에 한 번 마을 공동제인 ‘산제사’를 지내고 있다. 산촌리에서 산제사를 언제부터 모셨는지 알 수 있는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조태수<sup>4</sup>이 장에 의하면 산촌리에서 제사를 지낸 것은 한양조씨가 산촌리에 입향하면서부터라고 한다. 조태수 이장은 산촌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산촌리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산제사가 중단된 것을 본 적이 없다.

산제사를 지내는 날은 보통 음력 10월 초하루에서 초사흘 사이로 잡는데, 동네 어르신들 중에 책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날을 택한다. 2017년에는 9월 중순에 10월 초하루로 날을 잡았다. 필자가 조사를 간 11월 13일음력 9월 25일에 이미 날을 받아 놓았지만 아직 마을주민들에게는 공표하지 않았다. ‘날을 잡았는데 마을사람들에게 왜 발표를 하지 않냐’는 질문에 산제사 날을 공표하면 마을 전체가 누리고 비린 것을 삼가고 조심해야 하는데 산제사 시일이 너무 멀면 조심하기가 어려워서 이장과 동네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르게 한다고 하였다. 날을 잡아 놓고도 동네에서 장례가 나면 장례를 치르고 나서 다시 2~3일 안에 날을 받아서 지내게 된다. 예전에는 날을 잡고 난 이후에는 외부사람들이 마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 지금은 시대가 변하여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다고 한다.

4) 조태수(남, 1950년생, 부발읍 산촌리 거주, 현 산촌리 이장).

산신제는 산중턱에 있는 제단에서 지낸다. 과거에는 자연석 너럭바위만 있었는데 마을사람들이 제단을 만들어 너럭바위 앞에 설치하였다. 과거에는 산신제를 지낼 때 필요한 물건을 매번 가지고 올라가야 했는데, 지금은 동네에 사람이 많지 않고 매번 짐을 옮기는 일이 쉽지 않아 컨테이너를 산중턱에 놓고 산신제를 지낼 때 사용하는 옷이나 그릇 등의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 제단에서 마을 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우물이 하나 있는데,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우물이다. 6개의 쇠막대기가 우물을 둘러싸고 있으며, 큰 반원모양의 돌뚜껑으로 덮여 두었다. 평상시에는 사람의 손을 타지 않게 돌뚜껑을 쇠줄로 감아 둔다.

산촌리에서는 산신제를 주관하는 사람을 ‘화주’라고 하는데, 깨끗한 사람으로 선정한다. 화주는 집에 어린아이가 없고 너무 젊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두 내외가 깨끗한 사람으로 선정하여 부정을 피한다. 화주 이외에도 이장, 반장 4명, 새마을지도자 1명, 주민 2명 정도가 함께 산신제를 준비한다. 여자들이 산신제에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산촌리 산신제 제단



현재 사용하지 않는 산촌리 우물



산신제 하루 전날 화주와 반장, 새마을지도자, 산신제를 도와줄 주민 2명이 함께 산에 올라가 제단과 우물을 청소하고 제단 주위를 환하게 밝힌다. 과거에는 산제사 터를 청소하고 황토를 깔고 임줄을 매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터 주위에 임줄 매는 것과 황토를 놓는 것은 하지 않고 우물 주위에만 임줄을 맨다. 임줄은 이장이 원새끼를 꼬아 준비한다. 화주는 청소한 우물의 물을 길어 조라술을 담아 제단 옆에 두고, 이장은 제물로 사용할 돼지를 찾아온다. 과거에는 검은 통돼지를 제물로 사용하였지만 요즘은 구하기 어려워 인근의 농장에 3~4개월 전에 미리 산신제 제물로 사용할 돼지를 깨끗하게 키워달라고 부탁하여 산신제 전날 찾아오고 있다. 예전처럼 검은 통돼지를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옷돈을 주고서라도 구별하여 깨끗하게 키운 돼지를 구해오는 정성을 들인다. 또한 마을사람들은 산촌리를 지켜주는 산신령이 여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탉지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구해 온 돼지는 발톱을 모두 제거하고 통으로 제단 위에 바친다.

내가 우스갯소리 하면 우리 산신령님이 여자 분이시래. 그래서 그 돼지를 수놈을 쓰요.

산신제는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지내는 것이 보통이다. 화주와 일행이 산에 올라가서 제물을 차리고 술을 따라 올리고 축문을 읽은 후 절을 올린다. 축문은 과거에 써 놓은 것을 이장이 보관하고 있다. 예전에는 축문을 쓸 줄 아는 어른들이 계셨지만 지금은 축문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없어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제일 간직하는 게 이거축문예요.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거를 안 가지고 올라가.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올라가. 이거 잃어버리면 아주 참 난리나. 쓸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문도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고, 세상이 다 그렇게 변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축문은 이장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축문 원본에는 정해년丁亥年이라 기재되어 있다. 2001년에 간행된 『이천시지』에 소개된 축문은 임신년壬申年이라 연도는 다르지만 전체적인 축문의 내용은 한두 글자를 제외하고 동일하다.

산신제를 지낼 때 올리는 제물로는 돼지 한 마리와 조라술이 전부이다. 『이천시

지』에 소개된 산촌리 산신제에서는 돼지 이외에도 메·과실·포·편·나물 등을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조태수 이장은 통 돼지 이외에는 어떤 제물도 사용하지 않으며, 과거에도 메나 과일 등을 올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산신제를 지낸 후 5시쯤 화주와 이장의 아내가 제단으로 올라와 제물로



산촌리 산신제 축문

사용한 돼지로 순댓국<sup>5</sup>을 끓이고, 이장은 마을주민들에게 방송을 통해 산신제가 끝났음을 알린다. 마을주민들은 산제사 터로 올라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에게는 돼지를 동일하게 나누는 것으로 산제사가 끝난다.

산촌리 주민들은 여전히 산신제를 신성하게 여기고 있다. 산제사 날짜가 잡히고 이를 주민들에게 공표하면 제의를 주관하는 화주 이외에 마을주민들도 살생을 피하고 비린 음식을 먹지 않으며 몸가짐을 조심한다. 가끔 대동회에서 산신제를 그만 지내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산신제를 지내지 않으면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 생각해 선불리 산신제를 중단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특히 못 없애는 이유 중에 최고의 하나는 옛날부터 우리 노인네들이 해 오던 것이라. 근데 내가 이장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가끔 젊은 애들은 총회할 때 회의 석상에서 그런 얘기도 나와. 뭐 이렇게 그만 하자 하자. 근데 이장은 그런 거를 안 하는 게 좀 꺼시렁거리지 꺼려지지. 저거 저 이가 이장 할 때 산신제 없애서 동네에 분란이 났다고 그러면 그거 듣기 싫잖아.

마을에서는 산신제에 얽힌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산신제에서 사용한 조라술 술병을 발로 차 벌 받은 사람 이야기, 산신제를 지내지 않으면 야생짐승들이 울어서 동네사람들이 불안해 살 수 없었다는 이야기 등이 전해지고 있다. 이 이야기

5) 조태수 이장 내외는 순댓국이라고 불렀으나 실제 돼지의 내장을 이용한 순대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조사자가 재차 순대를 직접 만드는지 물었을 때 '내퐁국'이라고 대답하였는데, 돼지의 피와 내장을 이용해서 만드는 내포(內包)탕이라고 하였다.

들은 산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산신제를 지내지 않으면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산촌리 마을사람들의 산신에 대한 신앙심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고, 산신에 대한 신앙심을 요구하는 메시지도 하다. 현재 이천의 많은 지역에서 산신제 전승이 중단되었으나 산촌리에서는 지속적으로 전승되는 데는 마을주민들의 산신제에 대한 믿음이 큰 역할을 하였다.

## 2. 200년 넘게 전승되어 온 용면리 용줄다리기

### 1) 이천의 줄다리기

줄다리기는 우리나라 전역에 널리 퍼져 있는 민속놀이로, 특히 한강 이남에서 성행하였다. 이천지역에서도 정월대보름에 널리 성행하였는데, 특히 이천지역의 줄다리기는 규모가 크고 성대한 것으로 유명하다. 1921년 3월 20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이천시에서 실시한 줄다리기에 참여한 인원이 6,000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천의 대규모 줄다리기는 1920년까지 전승되다가 일본이 사상자 발생을 핑계로 금지하여 볼 수 없게 되었다.<sup>6)</sup>

이천지역의 대표적인 대규모 줄다리기로는 용면리 용줄다리기와 단월리 단드래줄다리기, 그리고 모가면 갈매울줄다리기가 있는데, 이들은 200여 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교적 최근<sup>7)</sup>까지 전승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단드래줄다리기와 갈매울줄다리기는 전승이 중단되어 이천지역에서 볼 수 있는 대규모 줄다리기는 용면리 용줄다리기가 유일하다.

용면리龍眠里에서 전승되는 줄다리를 ‘용龍줄다리기’라고 한다. 용면리 마을

6)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이천시지』 3권, 2001, 313~315쪽.

7) 홍순석(『이천지역 민속문화와 문화환경』, 2005)은 2005년까지 전승이 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2017년 현지 인터뷰에서 각 마을(단월리·진가리) 이장들은 2000년 이전에 전승이 중단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이천시 대월면 문화유적·민속보고서』(2002)에는 단드래줄다리기는 1980년에 재현되어 지속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천시 모가면 문화유적·민속보고서』(2002)에는 갈매울줄다리기는 1990년대 초기까지 매년 실시하였으나, 김용산 상쇠가 작고한 후로 중단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2000년을 전후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용면리 「용줄다리기 전래비」(왼쪽)와 용줄다리기 유래(위)

회관 앞에 있는 「용줄다리기 전래비」에 따르면 용줄다리기는 잠을 자는 용을 깨운다는 의미이며, 200여 년 이상 된 것이라 한다. 용면리 용줄다리기는 과거에는 매년 정월대보름에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격년마다 시행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같은 격동의 시기를 지내면서도 용줄다리기의 전승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었다.

**조사자** : 혹시 중간에 용줄다리기가 중단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조만복**<sup>8)</sup> : 그런 적은 없어요. 계속 했지. 한 해 건너씩,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약 한 200년 전이라고 하는데, 200년 더 됐지. 그냥 옛날부터 꾸준히 내려온 건데.

**조사자** : 그럼 6·25때도 계속 줄다리기를 하셨어요?

**조만복** : 그때도 계속했지. 안 함 안 된다고, 사람 다치고 한다고 계속 했지.

어려운 시절에도 용줄다리기의 전승이 끊이지 않은 데에는 용줄다리기가 가지고 있는 제의적 성격이 큰 역할을 하였다. 벼짚을 거두어 줄을 드린 후 암줄과 수줄을 결합시켜 놓고 고사를 지낸 후 줄다리기를 시작하며,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성이 늘 이기는 놀이라는 점에서도 제의성을 발견할 수 있다. 마을주민들은 용줄을 풍요 및 안녕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놀이가 끝나면 용줄을 잘라 자기 논에 뿌

8) 조만복(남, 1939년생, 신문면 용면리 노인회장).



리며 한 해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한다. 또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집, 딸만 낳고 아들을 낳지 못한 집에서 용줄을 가져가기도 하였다.

용줄다리기는 ①벗짚거두기, ②줄드리기, ③진잡이, ④결전, ⑤달집태우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용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벗짚은 보통 대보름 2~3일 전부터 두레패를 대동하여 집집마다 다니며 거둬들인다. 각 집에서는 벗짚을 준비하고 고사반쌀·술·안주 등의 음식으로 작은 상을 차려 두레패를 맞이하는데, 벗짚이 없는 집에서는 곡식이나 돈으로 대신하였다. 마을에서는 돼지를 잡고 음식을 준비하여 이미 마을에는 잔치가 열린다. 최근 농사를 짓지 않는 주민의 비율도 많아지고, 콤바인combine을 이용하기 때문에 벗짚을 거두기에 어려움이 있어 10여 년 전부터는 벗짚을 구매하고 있다. 벗짚을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두레패 놀이는 상황에 따라 하거나 놀이 없이 줄다리기만 하기도 한다. 이천 신둔면 용면리 줄다리기 보존회에서는 옛 방식을 살려 걸립粒을 매년 하려고 한다. 다만 대보름 2~3일 전에 하던 것을 대보름 당일 낮에 하고, 많은 집을 방문하기 보다는 희망하는 몇몇 집을 방문하는 것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다.

거둬들인 벗짚을 이용해 줄을 만드는 것을 ‘줄 드린다’고 하는데, 동네사람들만 참여하여 줄을 만들어, 암줄은 마을입구에 두고 수줄은 150m 떨어진 곳에 둔다. 과거에는 암줄은 마을입구에, 수줄은 상촌에 두었으나 인원이 줄어 무거운 줄을 멀리서 옮기기 어려워 장소를 바꾸게 되었다. 두레패와 마을주민이 두 패로 나뉘 각각 암줄과 수줄을 모셔오는 것으로 줄다리가 시작된다. 남자와 여자 편으로 나누고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는 여자 편, 결혼한 남자만 남자 편이 되어 줄다리를 하는데, 여자 편이 이겨야 풍년이 들기 때문에 한 번도 남자 편이 이긴 적이 없다. 줄다리가 끝나면 미리 만들어 두었던 달집에 소원지를 끼우고 달집태우기를 하고 남녀노소 모두 나와 춤을 추며 논다.

## 2) 이천 신둔면 용면리 용줄다리기 보존회

### 용줄다리기 보존회의 창립과 운영

이천 신둔면 용면리 용줄다리기 보존회(약칭, 용줄다리기 보존회)는 2018년 1월 5일에 창



용줄다리기 줄드리기



여장을 한 기수와 압줄

립총회를 열어 발족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 이천 용줄다리기 보존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차 회의를 통해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보존회 명칭을 ‘이천 신둔면 용면리 용줄다리기 보존회’로 정하였다.

지금 정식 명칭이 당초에는 그냥 용면리 용줄다리기라고 했었는데, 이게 또 용면리 마을주민 가지고는 다 인원 충당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신둔면 차원의 인력 보강 차원에서 신둔면으로 대상을 확대했어요. 그리고 명칭도 ‘이천 신둔면 용면리 용줄다리기 보존회’ 이렇게 이름을 길게. 약칭으로는 이천 용줄다리기 정도로. 용면리 사람들 봤을 때는 신둔면자를 안 넣어도 이천의 용면리인 걸 아는데 또 용면리 이외의 사람들은 그럼 자기들도 참여하는데 동기부여 그런 게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그럼 신둔면을 넣자 그래서.<sup>9)</sup>

보존회의 명칭에서 용줄다리기 전승주체의 범위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다. 과거 용면리 마을은 85호 정도였는데, 집집마다 인원이 많아 용줄다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300~400명 이상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각 집마다 인원수가 줄고 고령화 되어 용면리 주민만으로 대규모 줄다리기를 진행할 수 없고, 용줄다리를 할 때는 용면리 인근의 마을주민들이 다 같이 함께 놀이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천 신둔면 용면리 용줄다리기 보존회’로 명칭을 정하였다. 용줄다리기 보존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 20인, 감사 2인, 부장 4인(전수부·교육부·회원관리부·홍보부, 사무국요원 2인(사무차장·재무담당

9) 윤재홍(남, 1959년생, 이천 신둔면 용면리 용줄다리기 보존회 회장).

당, 회원정회원·준회원·미성년회원으로 구성되었다. 회장에는 윤재홍, 부회장에 김학돈, 사무국장에 김학길, 감사에 강진구·홍성근이 선출되었다. 2017년 12월 현재 정회원은 2015년 경기도민속예술제와 2017년 전국민속예술대회 참가원이며, 본 대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함께 연습한 회원들도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추진 중이다.

용줄다리기 보존회는 용줄다리기의 원형을 찾고, 활발하게 전승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보존회 정관에서는 설립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다음과 같은 설립 목적을 갖는다.

- 1) 우리 지방의 민속놀이인 용줄다리기의 원형을 찾고, 계승·발전시킨다.
- 2) 이천 신둔면 용면리 용줄다리기를 상시 공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 3) 이천 신둔면 용면리 용줄다리기를 이천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정착시키고, 모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도록 확산시킨다.
- 4) 이천 신둔면 용면리 용줄다리기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우리 것을 아끼는 마음을 고양한다.
- 5) 이천 신둔면 용면리 용줄다리기를 통하여 이천 시민으로서의 동질성을 공고히 하고, 문화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6) 이천 신둔면 용면리 용줄다리기가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수회관과 상설 놀이공연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 용줄다리기 보존회의 활동

용줄다리기 보존회는 용줄다리기의 전승활동뿐 아니라 용줄다리기의 이론적 연구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용줄다리기를 알려 용면리 용줄다리기가 이천의 대표적인 민속이 되도록 하는 한편, 무형문화재 지정을 통해 전수회관 및 상설 놀이공연장을 조성하고자 한다.

윤재홍 회장은 용줄다리기 보존회에서 추진할 활동을 ①용줄다리기의 전승활동 ②이천시 대내외 홍보활동 ③연구 및 교육활동 ④ 문화재 지정 추진활동 등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용줄다리기 보존회는 용줄다리기의 원형을 찾고 계승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 용줄다리기 보존을 위한 전승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격년제로 진행되던 줄다리기 행사를 원래대로 매년 실시할 계획이며, 줄다리기와 함께 진행되던

두레패 놀이와 달집태우기를 비롯한 민속놀이도 함께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용면리 마을주민과 신둔면 주민으로 전승의 주체를 확대하여 대규모 줄다리기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둘째, 도자기엑스포·쌀문화축제·세계도자비엔날레 등 이천시에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용줄다리를 재현함으로써 용줄다리를 이천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용줄다리가 이천의 대표민속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천 시민의 단합과 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인 대회나 행사에 참여하여 용줄다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에도 힘쓰고자 한다.

셋째, 용줄다리에 담긴 의미를 탐구하는 활동 및 후세대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용줄다리의 지속적인 전승을 위해서는 용줄 제작법이나 놀이방법 등을 후세대에 교육하고, 어린 시절부터 친숙한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넷째,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전수회관이나 상설공연장을 마련하는 활동이다. 문화재로 지정받음으로써 용줄다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전수회관과 상설공연장을 마련하여 용줄다리 전승과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고 상설공연을 제공함으로써 이천 시민이나 이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천의 대표적인 민속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 3. 액운을 물리치는 거북놀이

#### 1) 이천거북놀이 전승 현황

거북놀이는 이천을 중심으로 충청도와 경기도 내륙지역에서 주로 전승되었으며, 이천지역에서는 일제강점기까지 마장면·대월면·설성면·호법면·장호원·신둔면·백사면·율면 등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전승되었다.<sup>10)</sup>

10) 김종대·이승수·임장혁, 『이천거북놀이』, 민속원, 2006, 47~48쪽.



이천거북놀이  
에 사용되는 거북이



거북놀이는 추석날 밤에 노는 놀이로 거북이를 앞세워 마을의 집집마다 다니며 액운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이는 제의적 성격을 가진 대동놀이이다. 놀이패의 편성과 놀이방법은 전국적인 전승을 보이는 지신밟기와 유사한데, 일반적인 지신밟기가 정월에 연행되는 것과 달리 추석에 연행된다는 점과 수수잎을 이용해 만든 거북이와 질라아비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보인다.

거북놀이를 위해서는 농기·영기·용기 등의 깃대잡이와 거북이·질라아비·양반·머슴·여종 등의 등장인물이 필요하며, 농악대는 상쇠·부쇠·징·북·장고·소고·호적 등으로 구성된다. 거북이의 수나 농악대의 편성에 따라 놀이에 참가하는 인원수는 달라질 수 있다. 실제 마을에서 놀이가 연행될 때는 30여 명 정도의 인원수로 충분하지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와 같은 대회 출품을 위한 놀이에서는 규모를 확대하여 50여 명 정도가 참여하기도 한다.<sup>11)</sup>

이천거북놀이는 거북이를 앞세운 놀이패 일행이 신명을 돈우며 연회를 시작한다. 놀이는 길놀이·장승굿·우물굿·마을판굿·문굿·터주굿·조왕굿·대청굿·마당놀이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11) 김종대·이승수·임장혁, 『이천거북놀이』, 민속원, 2006, 53~54쪽.



이천거북놀이 질라아비



이천거북놀이 깃발①



이천거북놀이 깃발②



이천거북놀이 길놀이



이천거북놀이 마당놀이

이천거북놀이보존회  
연습실이 있는  
공간다락



## 2) 이천거북놀이보존회의 활동과 과제

### 이천거북놀이보존회의 창립 및 운영

1960년대 이후 전승이 중단되었던 거북놀이는 1972년 대월국민학교 김종린 교감과 민속학자 심우성 씨가 발굴·재현하여 오늘날 이천의 가장 대표적인 민속놀이가 되었다.<sup>12)</sup> 1978년에는 유광렬 씨를 회장으로 김종린·박봉우 씨를 진행위원으로 한 ‘이천군 거북놀이보존회’를 창립하여 제1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 문화공보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그 후 1982년에는 최의상 씨를 추진위원장, 이상현 씨를 총무로 한 ‘대월면 초지리 거북놀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후 1985년 제2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하여 문화공보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그러나 1978년 창립된 이천군 거북놀이보존회와 1982년 결성된 대월면 초지리 거북놀이 추진위원회는 대회 출전을 목적으로 한 단체로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자연 해체되었고, 1986년부터 1993년까지 대월초등학교 거북놀이반에서 군민의 날 거북놀

12)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이천시지』 3권, 2001, 323쪽.

이 공연하며 명맥을 유지하였다. 그러던 중 김양원 씨가 배영고등학교현 울면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북놀이를 전수해 1999년 제6회 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금상을 수상하였다. 이를 계기로 배영고등학교의 학생과 졸업생 및 이천문화원, 이천의 국악인들을 중심으로 2001년 10월 13일에 김양원 씨를 회장으로 하는 이천거북놀이보존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박연하 사무국장은 이천거북놀이보존회 창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저희 초대 회장이님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지금은 평택농악 전수 조교시거든요. 김양원 선생님이라는 분이. 지금은 울면고등학교로 됐는데, 예전에는 배영고등학교였어요. 1999년도에 그 친구들이 전국민속예술제에서 금상을 받았어요. 그때가 저희가 이천으로 내려온 지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자리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때인데, 그 학교 선생님이 애들을 농악을 가르친다고 해서 한 번 찾아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애들이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게 됨으로써 그걸 계기로 그럼 보존회를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존회를 만들면서 저희랑 김양원 선생님이랑 학교 애들, 졸업생하고, 그리고 이제 풍물하시는 문화원 소속패 그런 팀들이만 들어보자고 해서 여러 팀들이 모여서 만들었죠.

초기에 만들어진 두 단체는 비록 지속적으로 운영되진 못하였지만 이천의 거북놀이 재조명되게 하는 데에 공헌했다. 두 단체가 대회 출전을 위한 단체였다는 점에서 이천거북놀이가 재현되고 전승되는 데에 민속예술경연대회가 큰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회라는 것들이 왜 좋으냐면요, 예산이 나와요.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오니까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종린 선생님이 대회를 목적으로 78년도에 한 번 만들었고 83년도에 만들었어요. 보통 대회를 목적으로 하는 보존회를 만들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기는 하는데 힘이, 이제 자금력이 딸리니까 구심력도 사라지고 이래서 자꾸 사라지죠.<sup>13)</sup>

인위적이거나 이런 민속경연대회를 통해서 민속보존이 될 수 있죠. 이천거북놀이 재현과 복원은 민속놀이를 살려내기 위한 정책들과 시기적으로 잘 맞았던 거 같구요.<sup>14)</sup>

13) 박연하(남, 이천거북놀이보존회 사무국장).

14) 이일규(남, 1968년생, 이천거북놀이보존회 이사).



이일규 이사는 이천거북놀이보존회가 활발한 전승과 활동을 하게 된 요인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첫째, 민속경연대회와 같은 국가정책. 둘째, 거북놀이를 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는 보존회 내부의 목표의식. 셋째, 거북놀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 넷째, 나와 남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제의적 성격. 다섯째, 거북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여섯째, 이천거북놀이의 연행시기이다.

이천거북놀이보존회는 2001년 창립 이후 꾸준히 대내외 행사에 이천거북놀이 공연을 선보이며 알렸다. 또한 이천지역의 거북놀이에 대한 민속조사를 실시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거북놀이의 역사적 재구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천거북놀이의 예술성과 역사성을 인정받아 2010년 6월 8일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보존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70여 명이며 이수자는 24명이다.

이천거북놀이보존회는 창립초기부터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입상하여 도비와 시비로 예산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단체를 위한 예산지원이 중단되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천거북놀이가 이천을 대표하는 민속놀이로서 전승가치가 있다는 시의 판단에 따라 이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고, 보존회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일정 부분을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재 전승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 이천거북놀이보존회의 활동

이천거북놀이보존회에서는 이천의 거북놀이를 알리고 전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상설공연을 통해 이천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거북놀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천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거북놀이를 알리고 있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공연의 일환으로 이천의 각 마을에서 시연행사를 열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펼침으로써 거북놀이를 후대에 전승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보존회의 주요활동 중 첫 번째는 전승활동이다. 이천거북놀이는 1960년대 전승이 중단되었던 것을 복원한 것으로 이천의 각 마을에서 주민들 단위로 전승되기보

다는 이천거북놀이보존회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 따라서 이천거북놀이의 전승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존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천거북놀이 전수자들의 기량을 발달시키기 위해 회원 워크숍, 심포지엄, 동·하계 전수활동 등을 펼치는 한편, 호법면 거북놀이 민속조사, 이천거북놀이 기초조사 등을 통해 이천거북놀이의 원형과 역사성 등에 대한 탐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활동은 공연을 통해 이천거북놀이를 알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설공연 및 대내외 초청공연, 관내 문화 소외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거북놀이 공연을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민속촌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지속적인 공연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국내의 각종 축제와 행사에 초청되어 공연하고 있다. 이천은 쌀문화축제·도자기축제·세계도자비엔날레·장호원복숭아축제 등 많은 축제를 개최하고 있어, 공연을 통해 축제장에 모인 많은 관광객들에게 이천거북놀이를 알리고 있다. 이천거북놀이보존회에서 관내 및 외부에서 하고 있는 공연은 표와 같다.

#### 이천거북놀이보존회에서 진행하는 공연

관내 공연	관외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왕건축제</li> <li>• 세계도자기 엑스포</li> <li>• 설봉산 대보름맞이</li> <li>• 장호원복숭아축제</li> <li>• 이천도자기축제</li> <li>• 이천시민의 날</li> <li>• 이천햄쌀축제</li> <li>•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li> <li>• 거북놀이축제</li> <li>• 해맞이 행사</li> <li>• 이천평생학습축제</li> <li>• 찾아가는 문화활동</li> <li>• 무형문화재 공개행사</li> <li>• 자재방아마을 가을걷이 한마당축제</li> <li>• 설봉문화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드컵 축하공연</li> <li>• 한국민속촌 한가위 공연</li> <li>• 한국민속촌 신정맞이</li> <li>• 한국민속촌 구정맞이</li> <li>• 한국민속촌 대보름맞이</li> <li>• 전국평생학습축제</li> <li>• 국립국악원 초청공연</li> <li>• 한국도로공사 초청공연</li> <li>• 국립국악원 단오맞이</li> <li>• 2009년 경기도 체육대회 개막식</li> <li>• 영통청명단오제</li> <li>• 이천시브랜드홍보(잠실 롯데백화점)</li> <li>• 광복70년 국민대화합축제</li> <li>• 경기도무형문화재대축제</li> <li>•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li> <li>• 남사당마우덕이축제</li> </ul>

거북놀이는 마을공동체가 집집을 다니며 풍물을 연주하며 복을 빌어주는 형식의 대동놀이이다. 짧은 공연 형식에서 거북놀이의 전모를 보여주기가 어려워 이천거북놀이를 홍보하는 성격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천 쌀문화축제나 거북놀이축제에서는 이천거북놀이를 제대로 볼 수 있다. 특히 2004년 시작된 이천거북놀이 축제는 올해로 14회를 맞았다. 2017년에는 축제 전 스무 가족의 신청을 받아 1박 2일로 진행하였다. 축제에 신청한 가족은 텐트를 치고 입소하여 행사에 참가하였다. 축제에서는 거북이와 거북이 깃발 만들기 체험, 거북놀이 사설 배우기, 참가자가 만든 거북이 콘테스트, 풍등 날리기, 음악회, 빗섬만두 빗기 등을 하였다. 특히 참가자들이 직접 거북이와 깃발을 만들고, 거북놀이에 사용되는 사설을 배우는 시간이 있어 거북놀이 공연을 보는 것과는 다른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교육활동이다. 마을에서 거북놀이 연회가 중단된 지 50년 이상 되어 청·장년들은 거북놀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보존회 회원들도 대부분 연령대가 높다. 거북놀이의 지속적인 전승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양성해야 한다. 특히 이천거북놀이의 시발점이 된 대월초등학교는 이천거북놀이 특성화학교로 지정되었다. 이천거북놀이보존회에서는 대월초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방과 후 활동을 통해 이천거북놀이 전수활동을 펼치는 한편, 관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북놀이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도 학생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

### 이천거북놀이의 지속적 전승을 위해

과거의 공동체가 해체되고, 생업에 변화가 생겼으며, 외래문물이 들어오면서 삶의 양식 전반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도시화·현대화 과정에서 많은 민속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천을 대표하는 거북놀이의 예술성을 알아본 선각자들이 있어 이천거북놀이가 복원될 수 있었다. 이천거북놀이의 지속적 전승에 대한 고민은 보존회의 끊임없는 주제이다. 박연하 사무국장은 앞으로 이천거북놀이의 활성화를 위해서 ①현대와의 접목 ②보존회의 자율성 ③보존회의 체계 재정비 ④이천지역 타 민속의 개발 등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이천거북놀이 시대의 흐름에도 지속적으로 전승이 되기 위해서는 현대적 접목이 필요하다. 마을공동체가 마당에서 놀던 거북놀이를 예전 연회 방식대로만 향유해야 한다면 주거형태가 달라진 오늘날 거북놀이의 연회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전통을 보존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현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작업을 작년부터 시작했죠. .... 이게 원래 공동체 민속놀이잖아요. 현대에 맞는 공동체하고 어떻게 결합을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오랜 세월이 걸릴 거 같아요. 다시 마을로 들어간다는 거는 그분들 **마을본**하고 친화력도 생겨야 되고, 그분들도 거북놀이보존회를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고. 그래서 올해 추석 때부터 마을을 도는, 원래 거북놀이가 마을을 돌면서 같이 놀아보자는 취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캠프 이런 쪽이다 보니까 시설이 된 동네 위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캠핑을 접고 마을하고 미리 얘기해서 마을공동체랑 연합해서 하는 거북놀이를 하려고 해요.

이천거북놀이보존회의 목표는 거북놀이가 활성화되어 예전처럼 각각의 마을 단위로 활발하게 향유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단기간 내에 가능하지 않다. 이를 위해 상설공연이나 초청공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천거북놀이를 알리고, 지역 내에서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통해 거북놀이가 마을단위로 활성화 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에는 상설공연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월 4회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둘째, 이천거북놀이보존회의 자발적인 활동이 지속되어야 한다. 보존회 결성과정과 문화재 단체로 지정받는 과정에서도 특정단체나 기관의 지원보다는 보존회 회원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이 주가 된 것처럼 회원들이 스스로 활동하는 단체일 필요가 있다.

셋째, 보존회 체계가 재정비 되어야 한다. 2001년 창립 당시에는 문화재 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장을 위시한 사무국만 있었고, 2010년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2014년 24명이 이수자 발급을 받았다. 현재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전수조교가 없으나, 보존회가 창립된 지 20여 년이 되어 가고 있어 무형문화재 단체로서의 체



계를 갖추어 시기가 되었다. 이러한 체계를 갖추는 것은 대외적으로 이천거북놀이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 되며, 내부적으로는 보존회의 질서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넷째, 용면리 용줄다리기, 율면 정승달구지, 재도듬놀이, 지석리 산신제 등의 이천지역 민속들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민속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민속을 활성화시켜 이천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게 한다면, 이천거북놀이 전승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02

## 언제나 정겹고 활기찬 전통시장



채기순 | 자유기고가 · 이천문화원 편집위원

## 제2장 언제나 정겹고 활기찬 전통시장

### 1. 우리나라 시장의 역사와 이천의 5일장

시장에 갔다. 언제나 그렇듯 상인들의 고함소리와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부산스러움이 가득하지만 웬지 모르게 시장의 이런 정신없음이 좋다. 푸른 바다향이 날 것 같이 싱싱한 고등어도 사고 소담스런 굴도 사고, 방금 나온 뜨끈뜨끈한 두부랑 짹짹하게 구운 김도 세 봉지 샀다. 거기에 시장상인들의 인심까지 두둑이 더해져 장바구니는 금세 무거워졌다.

요즘은 대형마트나 인터넷쇼핑의 편리성에 밀려 재래시장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마트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활기와 재미가 시장에는 넘쳐난다. 별 좋은 날 시장을 걸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막 튀겨내는 수제어묵을 구경하기도 하고 비록 사진 않아도 신발가게나 모자가게에서 ‘골라 골라’로 시간을 보내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 찜빵가게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춘 기억들, 이런 기억은 어찌 보면 흔하고 평범하지만 이제는 일상의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사이에 언제나 사람이 있었다. 농사를 짓고 물건을 만드는 분들의 노고가 배어있고 또 그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삶이 녹아 있다. 여기에 물건을 사러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시장의 활기는 늘 사계절을 품어 흘러넘치고 북적이는 게 아닐까.

시장은 열리는 방식이나 일정, 지역, 거래되는 물건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다. 이천 시내의 2·7일, 장호원읍의 4·9일처럼 5일마다 장이 열리는 것을 5일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천지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장이 열리는 것을



정기시장이라고 하고, 지정한 시기가 아닐 때 열리는 시장을 부정기시장이라고 한다. 또 관고전통시장처럼 늘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것을 상설시장이라고 하는데 상설시장은 사람의 왕래가 많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점포를 중심으로 형성된 시장을 말한다.

경시<sub>京市</sub>와 향시<sub>鄕市</sub>는 시장이 열리는 지역에 따라 구분한다. 한자로 서울 경<sub>京</sub>시를 쓰는 경시는 서울 부근의 시장을 말하고, 시골 향<sub>鄕</sub>자를 쓰는 향시는 시골의 시장을 뜻하는 것인가 했다. 문헌상 시장에 대한 역사의 기록은 『삼국사기』에 나온다. 『삼국사기』에 “처음으로 서울에 시장을 열어 사방의 물자를 통하게 하였다(初開京師市以通四方之貨)”라는 말이 있다. 490년신라 소지왕 12에 당시 신라에서 ‘경시<sub>京市</sub>’를 개설하였고, 509년신라 지증왕 10에는 ‘동시<sub>東市</sub>’를 설치하고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시전<sub>市典</sub>’을 두었다. 시장을 관리·감독하였다니, 지금으로 말한다면 중소벤처기업부 정도의 부처가 아니었을까?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신라였으니 경시의 경<sub>京</sub>은 지금의 서울이 아닌 경주이며 향시는 그 주변 지방의 시장을 뜻한다.

또한 시장은 상품이 거래되는 종목에 따라 일반시장과 특수시장으로 나뉜다. 특수시장으로는 한약재 등을 파는 약령시장, 수산물을 파는 어시장, 소와 가축류를 판매하는 우시장 등이 있다. 현대에 와서는 새벽시장의 대명사 의류도매시장이나 절화류<sub>生花</sub>를 판매하는 꽃시장이 특수시장이라 볼 수 있다.

조선시대 기록에서는 시장과 관련된 정보를 다수 찾을 수 있다. 지금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배우지만 필자가 중학교 다닐 적 국사시간에 배웠던 대동법이나 육의전·금난전권·보부상·거상 등을 통해 시장을 알 수 있었다. 더 친근하고 쉽게는 조선 후기 거상 임상옥을 다룬 「상도」라는 TV드라마나, 미천한 기생의 신분이었지만 탁월한 장사수완으로 거둔 재산을 기근으로 허덕이는 제주 도민들에게 베풀었던 김만덕에 관한 역사드라마에서도 알 수가 있다. 또 ‘종로에서 뽕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속담은 앞서 말한 기세등등한 육의전의 상인들에게 물건을 사러 가서는 제대로 흥정도 못 붙이고 봉변당하고는 한강 마포나루의 비공식 시장의 상인들에게 그 화풀이를 한다는 데에서 생겨난 속담이라고 한다. 이처럼 굳이 어려운 역사책까지 들춰내지 않아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시장의 역사나 옛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이천의 옛 시장은 어땠을까? 지금의 5일장은 관고재래시장 주변과 이천성당 앞 복개도로 주변으로 5일에 한 번씩 장이 열리는데 언제부터 장이 열



렸는지 궁금하다. 정확한 문헌기록은 없지만, 1770년<sup>영조 46</sup>에 완성하여 조선의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 대해 정리한 일종의 백과사전 같은 책인 『동국문헌비고』에 이천의 시장에 대해 나온다. 현재 이천 5일장의 시초인 읍내장은 2·7일에 열렸고, 대월면 군량리에서는 5·10일, 사음동의 판교장은 3·8일, 그리고 읍면 산성리의 돌원장은 읍내장과 같은 2·7일에 열렸다. 또 예전에는 장해원장이었던 지금의 장호원장은 4·9일에 장이 열렸다.

이천의 시장 중 흥미로운 것은 판교장과 돌원장이다. 조선시대 한양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로 중 하나로 한양에서부터 부산까지 이르는 영남대로가 있다. 영남길이라고도 부르는 이 길은 경기도 6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 경기도에서는 영남길 중 한양과 경기도의 경계인 달래내고개<sup>청계산 옛길</sup>를 시작으로 읍면 어석리까지 이르는 영남로를 경기옛길이란 이름으로 코스로 개발하였다. 각 지역마다 전해 내려오는 민담·설화·문화·지명유래 등을 묶어 스토리텔링 하였는데, 영남로 10코스에 바로 돌원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충청도와 이천 경계의 석원마을은 돌이 많은 곳으로 돌안·돌원이라고도 불렀는데, 돌원마을 앞으로 역로가 지나갔고

『1872년 지방지도』 「음죽현지도」에 표기된 돌원장시(石院場市)

역의 이름을 석원<sup>石院</sup>이라 한 것도 돌이 많은 지명의 유래에서 비롯된 것이다. 울면 산성리의 돌원장은 『대동여지통고』<sup>1834</sup>에서는 빠졌다가 1871년<sup>고종 8</sup>에 편찬된 『이천읍지』에 다시 등장한다. 또한 성남의 판교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음동의 판교장은 『임원경제지』<sup>1830</sup>까지 기록으로 나오다가 그 후에 사라진다. 『이천부읍지』에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지금의 마장면 오천리의 오천장과 사라졌던 돌원장이 다시 등장한다.

시장의 발달과 소멸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역驛·참站·원院 등 물자를 이동하는 교통로와 연관된다. 역참이 없어지면 그 주변에 있던 시장도 없어지거나 인접한 시장으로 흡수되곤 했다. 판교장은 수광리와 사음동을 경계 짓는 신둔천이 있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많아 한때 큰 위세를 보였으나, 영남대로의 기능변화에 따라 운명을 달리했다. 즉,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영남대로는 행정통신로와 상업로, 일본 사신들이 이용하는 국가 대동맥이었으나 영남대로 상에 있던 충청감영<sup>충주</sup>과 경상감영<sup>상주</sup>이 각각 공주와 대구로 옮겨가면서 중심 교통로가 상주-충주-광주<sup>경기도</sup>에서 대구-추풍령-천안-수원으로 이동하였다. 대신 기존 영남대로는 시장이 발달하면서 상품유통로의 기능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이천지역에는 판교장-읍내장-군량장-장호원장이 열렸다. 이러한 영남대로의 기능변화와 시장의 개설은 자연스럽게 남한강수운을 통한 물자유통과 결합되어 갔다.

조선시대 육로는 행정·군사적인 기능이 컸지만 대량의 곡물이나 소금·목재를 한양으로 수송하거나 해안의 어염<sup>생선과</sup> 소금과 내륙의 특산물을 교환하는 것은 뱃길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천 역시 이포를 통해 남한강과 연결되면서 읍내장의 상권이 점차 확대되었다. 참고로 이천에는 배증개·배진개가 있는데, 생산된 쌀을 싣고 뱃짐을 다시 맨다는 뜻의 뱃짐피에서 변형된 지명으로 지금의 증포동이다. 한편, 판교장은 읍내장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가 하루 차이로 장이 섰고, 남한강에 이르려면 읍내장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결국 자연스럽게 읍내장에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천지역 5일장은 이천 관고시장일대에서 열리는 이천장과 이천 남부권의 장호원 5일장이 남아 있다. 규모나 거래 금액으로 보면 지금은 이천장이 훨씬 크지만 1914년 당시에는 장호원시장이 한강유역에서 파주 봉일천장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었다 한다. 장호원장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던 것은 장호원이 충주에서 서울로

### 문헌상에 나타난 이천지역 5일장의 변화

지역 \ 문헌	동국문헌비고 (1770)	임원경제지 (1830)	대동여지통고 (1834)	이천부읍지 (1871)	조선지리지자료 (1917)	성공수산통계 (1931)
이천부	읍내장 군량장 판교장	읍내장 군량장 판교장	읍내장 군량장	읍내장 군량장 오천장	읍내장 주박장 가동장 오천장	읍내장 현방장 오천장 장호원장
음죽현	장해원장 <sup>1</sup> 돌원장	장호원장	장호원장	장호원장 돌원장	장호원장	

비고 : 읍내장(2·7일), 군량장(5·10일), 판교장(3·8일), 장해원장(장호원장, 4·9일), 돌원장(2·7일), 오천장(3·8일), 주박장(호법면 주박리, 3·8일), 가동장(모가면 진가리, 5·10일), 현방장(3·8일)

가는 유일한 길이었으며, 조선 후기 5대 하항(河港) 중 하나였던 목계나루에서의 배들이 청미천에 이르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장호원에 위치한 청미천 포구에는 큰 범선이 새 우짖과 소금을 싣고 며칠씩 머물며 곡식과 물물교환을 했으며, 장호원일대의 기름진 땅에서 거둔 쌀과 곡식을 모아 여강(남한강)과 양평을 거쳐 서울로 향했다.

해방 전인 1945년 전까지만 해도 장호원장은 대구 서문시장, 충남 강경장시와 더불어 3대장시라 불릴 정도로 거래량과 장꾼들이 많았다고 한다. 장호원에 인접한 울면·설성면을 비롯한 여주시 가남면·점동면, 충청북도 음성 감곡면, 제천, 충주 노은면·양성면·엄정면, 강원도 원주 귀래면·문막읍, 경기도 안성에서도 장꾼들이 모여들었다. 문헌에서도 나타났듯이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의 이천군 읍내 시장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당시 이천군 읍내시장의 연 거래액이 12만 4,190엔인데 비해 장호원장의 거래액은 15만 1,820엔이었다. 상거래가 활발하면 당연히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법이다. 1789년에 작성된 『호구총수』에 이천장이 있는 이천부의 인구는 1789년에 2만 5,338명에서 1907년에 2만 1,524명으로 감소하였고, 장호원장이 있던 음죽현의 인구는 7,865명에서 1만 3,064명으로 2배 정도 증가하였다. 육로나 뱃길 교통의 요충지였던 장호원은 일제강점기인 1913년 조선총독부가 치도공사계획을 세워 이천-강릉 간 도로를 개설하고, 1930년 12월 여주지역의 쌀을 수탈할 목적으로 수역선이 개통되어 이천 읍내장이 육로의 중심이 되어 뒤흔들리게 된다.

그렇다면 옛날 이천의 시장에서는 어떤 물건들이 거래가 되었을까? 『임원경제

1) 『동국여지승람』에 현(縣) 동쪽 13리 지점에 장해원(長海院)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1899년 발행된 『이천읍지』에는 장해원의 명칭이 장호원(長湖院)으로 변경되어 있다.





이천관고시장에서 2·7일장으로 열리는 이천장

해방 전 3대 장시의 하나로 4·9일장인 장호원장



지』에 보면 이천 읍내장에서는 쌀의 고장인 이천답게 질 좋은 쌀과 면포·마포·어염·생선·소금·과일·옹기·소가 있었고, 장호원장도 읍내장과 마찬가지로 쌀·면포·마포·어염·과일·옹기·담배·소가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국여지승람』에 이천의 특산품으로 백옥과 도자기가 나오지만 일반 장시의 거래품목으로는 등장하지 않는다. 아마도 도자기가 왕실이나 지체 높은 양반들이 쓰던 그릇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물품을 사고파는 시장에서 거래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추정해본다.

## 2. 엄마가 생각나는 추억의 시장

‘장날’과 ‘시장’이라는 두 단어를 떠올리면 굴비 위듯이 함께 따라오는 것들이 있다. 만원버스, 보따리, 쌀, 보승루와 짜장면, 소풍, 전과, 운동화, 설탕이 가득 묻은 단팔 도넛, 그리고 엄마……. 아직은 추운 봄날, 노랗게 개나리가 피고 산에 연분홍 진달래가 필 때면 동네 뒷산으로 봄 소풍을 가곤 했다. 언제나 그렇듯 화판에 도화지를 두어 장 꽃고 12색 왕자표 크레용을 넣은 가방을 메고 소풍을 가면, 빨간 포대기로 동생을 업은 엄마는 찬합에 분홍색 소시지와 오독오독 새콤하게 씹히는 단무지로 찐 김밥을 보자기로 싸서 따라 오셨다. 김밥은 지금이야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24시간 손쉽게 사다 먹는 음식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소풍이나 운동회처럼 특별한 날에만 먹었던 귀한 음식이었다.

돈이 참 귀했던 어린 시절, 엄마는 향아리에서 쌀을 퍼서 장날에 맞춰 시장에 가셨다. 신발도 사야하고 멜빵치마에 받쳐 입을 흰 스타킹도 사야 했다. 학기 초가 되면 숙제한다고 동아전과나 표준전과, 또 수련장이라고 불렀던 기다란 문제집을 살 때도 엄마는 쌀 향아리에서 쌀을 퍼서 면포자루에 담았다. 엄마가 장날 맞춰 시장에 다녀오면 엄마보다 장바구니를 대신했던 보자기를 풀어보는 설렘. 어찌다, 가끔씩 엄마를 줄라 시장에 가면 콩나물시루처럼 뽐뽐한 만원 버스는 북하천을 지나 지금의 서울외과 앞에서 사람들을 내린 다음 관고동 차부가 종점이었던 곳으로 향했다. 현재 관고동 알파오메가 자리가 이천터미널이었던 셈이다. 영창로 동성약국 앞





어린 시절 추억을 불러오는 시장의 분석

홍농종묘와 경희한의원 자리가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타는 터미널이었고, 알파오메가 자리는 서울이나 수원 등 외지로 나가는 시외버스터미널이었다.

시장의 모든 것들은 어린 나에게 온통 신기하고 볼 것 투성이었다. 자칫 정신 놓고 한눈을 팔았다가 엄마를 잃어버릴까 봐 엄마 뒤통무니를 따라 종종걸음을 걸었다. 차부 주변에는 신발가게 · 옷가게 · 정육점 · 약국이 있었다. 영창로 길 건너 동성약국 골목에는 이천공설시장이라고 커다란 글씨가 걸렸고, 그 골목을 시작으로 옷 · 커튼천 · 이불 · 과일 · 건어물 · 고등어 · 전이 즐비했다. 참깨 · 들깨를 볶는 냄새와 고소한 기름 짜는 냄새가 온 골목을 가득 채우는 기름가게, 낫이랑 호미를 팔았던 철물점, 말표 · 기차표 신발을 샀던 신발가게, 하이타이 가루비누, 다이알 세숫비누와 옥춘사탕과 제사 때 어물을 샀던 생활용품 가게가 난전 골목 사이에 있었다. 지금의 YMCA착한가게 주변으로 기억되는 장소에서는 흑염소 · 닭 · 강아지를 파는 가축시장이 열렸다.

지금이야 집에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있는 가정이 적지 않지만, 그 당시 유일한

이동수단이었던 버스는 언제나 사람이 많았다. 특히 장날이면 앉아 가는 건 고사하고 몸을 구겨서라도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가서 장을 봐야 했기 때문에 불편함은 당연한 것이었다. 서울외과에서 한차례 사람들이 내렸고, 동성약국 앞 차부가 종점이니 사람들이 모두 내렸는데, 버스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린 아줌마들이 달려들어 ‘저 보따리 내 거’, ‘파란 거 는 내 거’ 하면서 이른바 ‘짬’이란 걸 했다. 어렸을 때 나는 너무나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아줌마들의 눈빛과 악다구니가 무서웠지만, 나이를 먹고 보니 치열하게 살았던 엄마들을 이해를 넘어 존경하게 된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기억에는 없지만 어린 시절 바나나 다음으로 귀했고 먹고 싶었던 음식 중 하나였던 짜장면 집이 공설시장 안에 있었는데, 보승루라고 하는 중국집이었다. 듣기로는 식당주인이 화교란 말도 있는데, 아마 나를 포함한 토박이 이천사람치고 보승루에서 짜장면과 우동을 안 먹은 사람이 없을 만큼 50년은 족히 넘지 않았나 싶다.

### 1) 그 많던 소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천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촌지역이다 보니 농가에서 소는 가족 이상의 식구처럼 살뜰하고 귀히 여겼다. 지금이야 트랙터와 경운기 등의 농기계를 농사를 짓지만 예전에 농가에서 소는 논밭을 갈거나, 추수한 곡식을 운반할 때 짐을 나르는 이동수단이기도 했다. 새벽녘 엄마가 일어나 식구들 아침을 준비하면 아버지는 손수 가마솥에 썰어놓은 여물에 미강을 넣고 쇠죽을 끓이셨다. 때때로 여름에는 소를 몰고 풀이 많은 곳へ 가서 배불리 실컷 풀을 먹을 수 있게 했고, 겨울에는 춥지 말라고 짚으로 엮은 옷을 소 등에 엮어주기까지 했다. 이렇게 소는 농가에서 농사일로 꼭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 다니는 언니나 오빠의 등록금이나 갑자기 식구가 아파 병원에 입원하는 등 뜻하지 않은 일로 큰돈이 필요할 때 현금할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이었다. 그렇다고 집집마다 소를 키운 것은 아니어서 소를 기르는 집을 부잣집이라 했고, 소가 없는 집에서는 농번기 때 품삯을 내며 논밭을 갈았다.

『임원경제지』에 이천장과 장호원장의 주요 거래품목으로 소(牛)가 기록될 만큼 이천은 소의 거래가 활발해 우시장이 따로 열렸으며, 현대에 와서도 전국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우시장이 정기적으로 운영돼 강원 횡성, 경남 창녕, 전북 정읍 등





1910년대 이천우시장(사카이 마사노스케, 『화성지영』, 1915)



2017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이천한우

2000년대 이천우시장(2007)



모든 지역마다 자기네 한우가 최고라고 입씨름을 한다. 2013년에 ‘임금님표 이천한우’라는 브랜드를 출범시켜 2017년 3월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이천한우의 고장 이천에도 우시장이 있다. 이천축협에서 주관하는 송아지 경매시장이 매월 22일 오전 8시에 이천시 진리동 우시장 부지에서 개장된다.

한편, 현 관고동 주민센터 앞에 우시장이 있다가 이천터미널 자리로 한 차례 옮겼고, 1964년 7월 17일 현 진리동으로 다시 이전했다는 것 외에 이천 우시장에 대한 기록은 찾기 힘들다. 따라서 최초의 우시장 위치나 거래 두수, 크게 번성했던 시기, 현 진리동 송아지 경매시장이 열리는 자리로 옮겨 가게 된 경위 등은 알 수가 없으며, 다만 진리동 우시장 건물은 1982년 2월 16일 건축됐다는 정도가 확인된다.

이천읍내장과 장호원장의 우시장은 조선시대 거래 품목에도 오를 정도로 유명했으니 우시장의 역사 또한 오래되었으리라 짐작해본다. 이천과 장호원의 우시장이 활발했던 것은 한양부터 부산 동래까지 이르는 길인 영남대로의 길목이기 때문이었다. 특히 장호원에 우시장이 서면 안성과 용인, 그리고 멀리는 영남지방에서 영남대로를 통해 문경새재를 넘어 소장수 상단들이 몰려들었다. 멀리서 온 소들을 인수받아 남한강 뱃길을 통해 한양으로 가기도 했는데 먼 길을 오는 것은 사람도 그랬지만 소에게도 힘든 일이었다. 지금처럼 길이 좋지 않아 질척거리는 길을 사람만큼 귀히 여겼던 소에게 쏘신을 신겨 왔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그 옛날 우시장의 풍경을 살짝 엿 볼 수 있는 시를 한번 옮겨보자.

한양이라 오백릿 길/ 찾아가는 황소떼./ 두루마기자락 허리에 찌른/ 터벅대는 소몰이꾼.

저것이 문경 새재/ 서러운 서른 굽이/ 박달나무 젖은 이슬/ 키장수 체장수 눈물일까. 봄바람 타고 올라왔다/ 찬바람에 묻어 돌아가는/ 안동 영해 청상과수/ 한 맺힌 눈물일까.

저 고개 넘으면/ 새 세상 있다는데./ 우리끼리 모여 사는/ 새 세상 있다는데……

— 신경림, 『새재』(부분), 창비, 1979 —

현재 장호원 우시장은 정확히 말하자면 충청북도에 있는 우시장이다. 충청북도 이라고는 하나 청미천과 다리 하나를 경계로 경기도 이천시와 충청북도 음성군의

로 나날 뿐, 예전에도 지금도 같은 생활·문화권이니 행정구역상의 주소는 큰 의미가 없다. 농협중앙회 장호원지점을 기점으로 청미교까지 이르는 길은 옛 시장터로 1937년 오남리 장터로 옮기기 전까지 최전거리였다고 한다. 그리고 새롭게 옮긴 오남리 장터를 신시장 또는 새장터라고 했다.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에도 5일장과 우시장이 있었는데 장호원장과 같은 4·9일장이었다. 임오군란을 피해 감곡면 왕장리 민옹식의 집으로 피신한 명성황후가 시끄러운 장날 소음에 놀라자 무소불위 세도가답게 민옹식이 장을 물리란 말에 감곡 왕장리 5일장은 잠시 중단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우시장이 장호원에 있었다. 장호원 우시장은 일찍이 수원 우시장에 버금갈 정도로 경기도에서 큰 장세를 자랑하여 충청북도 충주와 음성군, 그리고 괴산군의 소까지 물려드는 곳이었다. 그런데 해방 후 감곡의 이경화가 시장변영회를 조직하여 장호원의 우시장을 음성으로 끌어들여 했다. 청미천을 사이에 두고 갈라선 음성군 감곡면 주민들이 장호원으로 통하는 길목을 가로막고 충청북도의 소들을 청미천 북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맞서 장호원 주민들도 충청북도 사람들이 서울로 갈 수 없게 가는 길목을 막아서는 등 갈등을 빚었다. 그러다가 주위의 주선으로 겨우 진정되었고, 장호원 우시장은 결국 1977년에 음성군 감곡면 오행리<sup>오향리</sup>로 옮겨가 감곡가축시장이 되었다.

청미천을 사이에 두고 다리 하나만 건너면 경기도 이천과 충청북도 음성으로 나날 뿐 생활·문화·풍습 등 큰 차이 없던 음성주민들의 부단히 장시를 끌어들여 했던 노력이나 갈등은 옛날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다. 2014년 중부내륙철도의 역사 설치로 인해 장호원역으로 할 것인지 감곡역으로 할 것인지 갈등을 겪던 감곡면 주민들은 장호원 상권 불매운동을 펼쳤고, 생활·경제 독립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기존 4·9일의 장날을 2014년 12월부터 3일과 9일로 변경하였다.

## 2) 이천 최초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앙시장

주상복합 건물인 옛 중앙시장은 현재 중리동의 라온팰리스 자리에 있었다. 우리 아이 세대들이 기억하는 이천 최초의 주상복합건물로 1979년 분양되었으며, 1·2층은 상가, 3·4층은 주거공간이었다. 이천지역에 현대1차아파트가 생기기 전까지 유



이천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인 중앙시장 철거 전(1990, 이규상 제공)

일하게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고층의 주거공간이었다. 아파트란 말도 생소했던 그때 1층 내부와 외부에 여러 업종의 상점들이 생겼고, 이때 중앙시장이 형성되었다. 그러다가 1984년 관고동의 차부버스터미널가 지금의 중리동으로 이전하면서 중앙시장이 급성장하고 반대로 관고시장은 쇠락하게 된다.

이천에는 관고전통시장, 장호원신시장, 사기막골 도예촌시장 등 3개의 전통시장이 있다. 그중에서 관고전통시장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관고시장은 관고 재래시장(在來市場)이라고도 불린다. 있을 재在, 올 래來, 저자 시市, 마당 장場, 펼쳐진 마당에 있을 건 다 있는 시장? 여느 재래시장이나 그렇듯 왁자한 흥정이 있고 호쾌한 웃음이 있고 덤이라는 인심이 있다. 현재 이천시의 중심시장은 누가 뭐래도 관고시장이다. 과거 이천의 읍내장이 섰던 곳도 관고시장이었으니 이천 시장의 명맥을 잇는 대표 시장이라 해도 무방하다. 이천시청 기업지원과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관고시장은 1930년에 개설되었고, 전통시장 중에서 인정시장으로 구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상시운영 매장면적의 합계가 1,000㎡일 때 인정시장으로, 3,000㎡ 이상일 때는 등록시장으로 분류된다. 1930년에 개설되었다고는 하나 지금의 위치에 형성된 것은 1969년 말에서 1970년대 초반 사이다. 1969년에 이천군에서 관고시장 뒤편 놀이터 자리에 공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공원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주변에 있던 노후건물을 철거했다. 빈터였던 공원 주변으로 한두 개의 노점이 생겼고,



당시 터미널이었던 차부가 지척이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발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집필을 하던 중 찾은 자료에 의하면 1984년 동성약국 골목을 중심으로 공설시장이 개설되고 버스터미널이 폐쇄되어 관고시장은 존속이 위태로울 만큼 힘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업종마다 차이가 있었는지 필자가 만난 상인 김기녀<sup>2</sup>의 대답은 달랐다. 당시 터미널이었던 차부가 인근이어서 돈을 셀 수 없을 만큼 장사가 잘 되었고, 터미널이 폐쇄된 이후에는 이전만큼은 아니었지만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렵지는 않았다고 한다. 대부분 단골손님이어서 터미널이 이사를 갔더라도 찾아와 신발을 구입했다고 한다.

업종과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재래시장의 위기는 주부들의 장보기 형태가 재래시장에서 대형마트로 바뀌면서부터이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며, 비가와도 깨끗하고 쾌적한 중·대형마트로 장을 보러 가게 된 것이다. 물건도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고 종류별로 찾기 쉽게 진열되어 있으며, 느지막이 장을 보러 가도 되고, 물건을 사러 갈 때나 사고 난 뒤 바로 차에 실을 수 있는 넓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마트를 선호하게 된다. 거기에 각종 이벤트 행사와 할인 행사까지 있으니 경쟁에서 전통시장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천의 전통시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전국 모든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천의 경우도 이마트가 2000년 5월에 개점할 당시 이천 시내의 마트 중에서 가장 매출이 좋았던 하나로마트가 큰 타격을 입었을 정도였다.

관고전통시장 상인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자구책을 마련했고, 그 방안의 하나로 비나 눈이 오면 우산을 쓰고 장을 봐야하는 불편함으로 발길이 뜸해지는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비가림막을 설치한 것이다. 비닐하우스처럼 지붕에 파이프 골재를 설치하고 천막을 씌우는 비닐하우스의 형태였다. 이후 정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만들어졌다.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움직임에 발맞춰 이천에서는 장호원전통시장이 2004년에 가장 먼저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었다. 2006년에는 사음동 사기막골이 사기막골도자기시장으로 등록되었고, 관고시장은 2007년에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었다.

2) 김기녀는 현재 관고시장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한다. 1982년부터 현재의 장소에서 남일화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10년 전에 다람쥐슈즈라는 이름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천농협 하나로마트  
확장 개장식(2014)



하나로마트의 전신 농  
협연쇄점 1호의 문을  
연 장호원농협 이재영  
조합장

### 3) 그 시절 이천 최대의 마트였던 이천농협연쇄점

2000년 5월 이마트가 이천에 개점하기 전 대형마트 못지않은 인기와 사랑을 받고, 높은 매출을 자랑했던 곳이 바로 이천농협 하나로마트로, 그 전신인 이천농협 연쇄점이 1973년 개점하였다. 농협중앙회 생활물자사업소에서 공급받는 물건만으로는 다양하고 품질 좋은 물건을 구비할 수 없어서 자체구매사업을 통해 다양한 거래처를 교섭하여 품질 좋은 물건을 입고하여 초창기에 이천주민들에게 많은 사랑

을 받았다. 지금이야 이천에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가 많이 있고, 곳곳에 편의점도 있지만 필자가 기억하는 예전에는 농협연쇄점이 시내에 있어 그나마 장을 보기 편리했다. 1984년 이천터미널의 이전과 태극당과 길 건너 양정빌딩 앞 부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이 편리했던 것도 한몫 했고, 주변에 농협중앙회·지역농협·국민은행·신한은행 등의 은행과 시내 중앙통이었던 것도 큰 역할을 했던 것 같다. 특히 설과 추석 등 명절 대목장에는 5일장 못지않게 이천농협 하나로마트도 매우 붐볐던 시절이었다.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하나로마트의 전신인 농협연쇄점 1호점이 장호원농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970년 1월 31일 농협중앙회 장호원지소에 농협연쇄점을 처음으로 열어 농가의 생활필수품을 시중가격보다 싸게 구매·공급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천의 이재영 이천농협군 조합장이다. 그는 50여 년 전 유통과 판매에 있어 혁신적이고 선구적인 생각을 했고, 농협 및 농촌운동을 함께하여 농민들의 생활개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으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국민훈장을 받아 대한뉴스에도 나왔다. 지금은 하나로마트가 시골 읍면은 물론 섬까지 전국 곳곳에 대형마트 또는 작은 가게 형태로 문을 열고 은행업무와 함께 생활물품을 유통하고 있는데, 그 시발점이 장호원농협이라는 점은 기억해야 할 우리 이천의 역사이자 시장의 역사이며,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3. 이천의 시장이 달라지고 있다.

#### 1) 지붕을 덮어 아케이드가 된 관고재시장

관고시장의 상인들은 비가림 그늘막을 설치하고 시장의 판로를 모색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펼쳤다. 때마침 정부에서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2004. 10. 22. 법률 제7235호를 제정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12. 12. 11.으





로 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했다.

2009년 관고시장은 시비·도비·국비 등을 지원 받고 상인회의 자부담을 보태 어 하우스 형태의 비가림 그늘막을 걷어내고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시작하였다. 순차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였고, 화장실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공간으로 변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점포 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 신청하여 마케팅 전문가 국민대학교 황보운 교수의 조언으로 간판도 바꾸었고, 소방시설의 교체와 배수시설의 보완, CCTV 설치 등 시설 현대화에 적극적으로 매진하였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7년 7월 ‘관고전통시장 제1기 점포대학’을 열었다. 점포대학에서는 손님응대와 경영기법·세무 등의 교육을 실시했으며, 점포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점포 내 환경개선사업으로 상품진열법 등을 교육해 상인들의 높은 참여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사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관고시장 상인회는 이천시의 전통시장 살리기나 정부의 정책 공모사업을 홍보할 때마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응모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점포대학도 2017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영혁신 및 환경개선사업에 채택된 결과였다.

이천문화원과 관고시장 상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내 생애 첫 술잔’ 행사



이런 노력의 결실로 관고시장은 2014년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한 ‘2014년 온 국민이 단골이 되는 매력 넘치는 시장 만들기 캠페인’에서 최우수 시장으로 선정되었다. 시장을 물건만 거래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왁자한 흥과 멋이 흐르는 공간으로 만들고, 즐겁고 볼거리가 많은 문화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에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사물놀이를 공연하였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최하는 골목상권 살리기 문화행사를 해마다 추진하고 있다. 이 행사에서는 가수와 개그맨, 평양민속예술단의 공연이 열려 상인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호응과 사랑을 받고 있다. 또 2017년 7월에는 도깨비야시장을 열어 먹거리와 공연으로 손님들을 불러 모았고, 이천문화원과 공동으로 ‘내 생애 첫 술잔’이란 문화행사를 주관하여 시장이 문화의 공간으로도 손색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 2) 또 하나의 전통시장, 사기막골전통시장

앞서 언급한 이천 판교장의 명맥이 흐르던 곳이어서 그랬을까. 1978년에 개설된 사기막골전통시장도 어느덧 40년이 넘는 시장이다. 이천이 쌀과 함께 도자기로 유명하다는 것은 16세기 초반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알 수 있다. 지금도 이천과 여주·광주에서 같은 시기에 도자기축제가 열리고 있다. 생활자기로 유명한 곳이 여주이고, 광주는 옛날부터 왕실에 도자기를 구워 진상하였던 분원이 있던 곳이니 광주와 여주 사이에 있는 이천이 도자기로 유명해진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다.

이천의 도자기공장은 신둔면 수광리 일대에 가장 많지만 사음동 사기막골도 그에 못지않다. 1976년 문을 연 청파요와 함께 고암요·여산요가 있는데, 작품도자기라고도 일컫는 전통도자기를 등가마와 오름가마로 구웠다. 지금의 사기막골전통시장은 도자공방과 판매점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40여 년 전 이곳에 흙으로 등가마를 짓고 도자기를 구우며 터를 잡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천의 도자기시장이 되살아 난 것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계기로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부터다. 또한 1990년대에는 신둔면의 전통요 공장이 점차로 공방과 판매

점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시장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교통의 편리함이듯이 사기막골도 마찬가지다. 사기막골전통시장은 서이천IC에서 5분 거리, 서울에서 이천으로 향하는 3번국도변에 위치하여 접근이 용이하다. 또한 설봉산 자락과 도예촌 주변으로 한가롭게 물이 흐르는 개울의 고즈넉한 풍경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나무와 숲이 있는 설봉산이 바로 앞이라 꽃이 피고 지는, 잎이 나고 무성해지는 사계절의 변화를 볼 수 있으며, 산새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는 발걸음을 느리게 하여 각자 개성 넘치는 작가들의 공방과 판매점을 천천히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2006년 이래 사기막골전통시장 상인회에서는 주차장과 가로 정비를 하는 등 관고시장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시장발전에 참여했고, 그로인해 2016년에는 경기행복시장에 선정되었다. 2017년에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2017년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000만 원의 예산도 지원받았다. 이 예산으로 LED가로등을 설치하여 주위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봄·가을 도자기축제와 쌀축제 때는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매출을 높이고 있다. 이천시에서도 일부 예산을 지원하여 홍보 전단지과 안내책자를 만드는 등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필자가 2017년 8월 사기막골을 방문했을 때 만났던 공방 바오의 유지선 씨는 남편이 그릇을 만들고 판매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주변 공방과 또래의 젊은 작가와 매주 토요일에 프리마켓을 열고 있다. 주전자만 남은 다기세트나 잔이 부족한 세트 상품 등, 할인상품을 선별하여 프리마켓에 내놓아 소비자와 공방 모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판매는 많을수록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도 프리마켓에 참여하는 주변 공방 작가 및 상인들과 서로 빈대떡을 구워 먹으며 놀이 삼아 한다고 한다. 참고로 매주 토요일 프리마켓은 상인회 전체 상가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는 좀 더 많은 전통시장 내 상가들이 프리마켓에 참여한다고 한다. 한편, 유지선 씨는 2018년 새롭게 개장하는 도자예술촌 에스파크로 인해 사기막골전통시장이 위축될까 걱정된다고도 한다. 전통시장의 새로운 판로와 활성화가 절실한 이때, 양평의 리버마켓, 서울 연남동 동진시장, 대학로 마르쉐장터 등 전국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터처럼 지역문화와 결합된 다양한 볼거리·먹을거리·살거리

를 마련하고 있다. 즉,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는 장터들을 참고하여 프리마켓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자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 3) 대를 이어 판매하는 상인과 대를 이어 구매하는 소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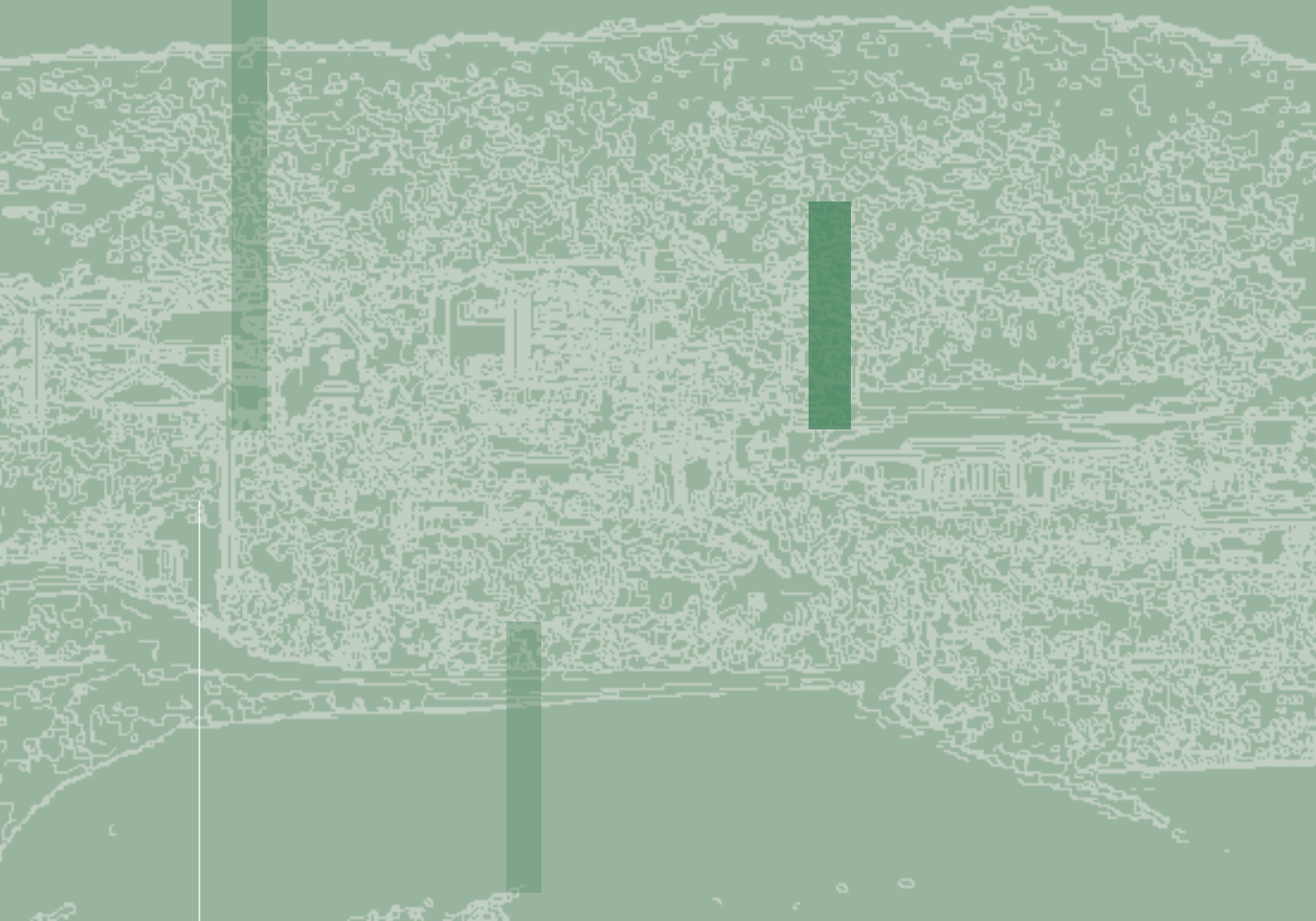
이천에는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기존의 전통시장 이외에도 다양한 시장들도 상인회 등을 조직하여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천중앙통상인회, 라온팰리스 뒤쪽과 남천공원 주변 상가들의 남천상가상인회, 부발읍 아미리 하이닉스상가의 하이닉스상인회가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신일·수림·동양파라곤·동양아파트 등 송정동에 여러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면서 생긴 송정동상가상인회가 새로운 이천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유럽이나 일본에는 수백 년 가업을 잇는 기업과 가게들이 많고,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3대가 가업을 이어 100년이 넘는 가게와 식당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업을 잇는 가게가 그리 많지 않다. 관고전통시장에는 산천청과·다람쥐슈즈·협동족발·삼미분식 등 4개 점포가 2대 째를 잇는 가업승계 상점으로 선정됐다. 급변하는 경제와 사회 환경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 가업을 잇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이들의 선정 소식이 반갑다. 어렸을 적 시장에서 엄마가 샀던 짜지 않고 씹스러운 맛의 고등어를 사서 저녁식탁에 올리고, 엄마가 거래했던 신발가게에서 슬리퍼를 사고, 속옷가게에서 내 아이의 내의와 양말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소비자가 대를 이어 장을 보고 물건을 파는 상인들도 대를 이어 장사를 할 수 있으려면 상인과 소비자,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까지 서로 협력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다. 정부에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를 개정하고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상인들에게 실시한 교육도 중요하듯이 상인 역시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을 발판 삼아 여러 방면으로 자구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늦은 오후 슬리퍼를 끌고 장바구니 하나만 들고 가면 많은 먹거리와 덩과 인정이 있는 시장, 이천의 전통시장을 비롯한 여러 시장이 건재하고 발전되기를 희망해 본다.

# 03

## 전통마을과 주민들







유선영 |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연구원

## 제3장 전통마을과 주민들

### 1. 모가면의 산골 동네 산안마을

과거 전통적인 농촌마을은 공동체성이 강했다. 한 마을에 몇몇 성씨가 집성촌을 이루며 살았기 때문에 마을일과 집안 일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공동체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도 개인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을 공동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주로 대규모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에 종사한 것도 마을단위 공동체의 성격을 강하게 만들었다.

‘산내리는 조선 중종 때 우의정을 지낸 권균(權鈞)이 묘를 쓴 이후 호수가 늘어나 산안에 마을을 이루어 산내리(山內里), 산안마을이라 한다’<sup>1)</sup>는 유래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듯이, 권씨 집성촌으로 마을주민 중 권씨 집안이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산안마을이라는 이름답게 근 20여 년 전 2차선 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타 마을과의 왕래가 많지 않던 산골마을이었다. 권순탁<sup>2)</sup> 씨는 권균의 17대손으로 산내리에서 나고 자랐는데, 산내리를 이전의 ‘오지 중 오지’, ‘하늘 아래 첫 동네’ 였다고 회고한다.



산안마을 안내판①

1) 모가면사무소(<http://www.icheon.go.kr>).

2) 권순탁(남, 1960년생, 현 산내리 이장).

17~18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이천의 오지였어요. 이차선 도로 뚫리기 전까지만 해도 이천의 오지여서 마장면 갈리·모가면 산내리가 이천의 오지로 이름이 났었죠. 그래서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외지 분들이, 일단은 교통이 불편하니까 안 오셨고, 동네 분들만 사시고 그랬는데, 외부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된 거는 이차선이 뚫리게 되면서 2000년도 한 분, 두 분 들어오게 됐어요.

집성촌을 이루는 마을주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타 마을과의 왕래가 적었던 산내마을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성격을 보인다.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인구수가 급속히 감소하고 고령화되어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경우가 많다. 외지인들의 비율이 높아지면 원주민과 이주민이 이원화되어 대립하거나, 원주민들은 기능이 약해진 공동체를 겨우 유지하고, 외지인들은 마을과 무관하게 개별적인 생활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지에서 들어온 주민들이 하나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어 원주민들이 소외되는 경우도 있다.

산내리는 20년 전 세대수 30호가 안 되었지만 지금은 88세대로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였다. 현재 산내마을 거주자 중 30%가 마을에서 대대로 살던 원주민이며, 나머지 70%는 외부에서 이주해 왔다. 즉, 원주민보다 타지에서 들어와 정착한 주민의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마을주민 구성에 있어 이주민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산내리는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원주민과 이주민이 대립하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구성원들에 맞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인구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마을공동체의 기능이 약해진 상황에서 외지인들이 들어와 전과는 다른 활동을 펼쳐 마을에 생동감이 넘치게 된 것이다. 산내리만이 해체되어 가는 농촌마을의 정답이 되지는 않겠지만, 전통적인 마을에 외지인들이 들어와 원주민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산내마을의 사례를 통해 공동체성을 상실해 가는 전통적인 농촌마을이 새롭게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현재 산내리마을의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 모임인 대동회를 중심으로 펼치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산내리마을공동체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산내리의 공동체

### 1) 산내리에 오면 산내리 법을!

산내리의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는 대동회로, 연 1회 마을회관에서 공식적인 회의를 한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회원이 되어 이장과 마을 임원을 선출하고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그 구성과 역할은 다른 마을의 대동회와 대동소이하다. 공동체성을 상실한 마을일수록 대동회에 참여하는 주민의 비율이 낮고, 그 역할도 미미하다. 반면 공동체성이 강하거나 다른 마을에서는 볼 수 없는 특수한 사업이나 행사를 하고 있는 마을은 대동회에서 그 사업이나 행사를 전담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마을에 공동제의를 모시거나 특화된 전통놀이 등을 전승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것들을 대동회에서 주관하기도 한다.

산내리마을의 대동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과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대동회 정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을정관은 회원의 자격, 임원의 구성과 역할, 대동회에서 처리하는 안건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을 통해 마을공동체에서 주로 하는 일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의 특수성도 발견할 수 있다.

산내리에서 현재 소장하고 있는 정관은 2010년과 2015년, 2016년에 개정한 것이다. 마을에 들어와 사는 외지인의 비율이 높아져 정관 수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sup>3)</sup> 몇 차례 개정하였다.

3) 권순탁, “(정관율) 요 근래 몇 년에 한 번씩 수정을 계속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우리 옛날부터 토박이들만 살 때하고 이사 오신 분들이 늘어나다보니까, 환경이 바뀌다보니까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정관도 수시로 그때그때 많이 바뀌더라구요.”





산내리마을 전경



산내리마을회관

### 〈2010년 산내리마을 정관 제2장 회원〉

제7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이라 함은 과거에 신입조를 내고 현재 연말에 리세를 납부하는 세대와 앞으로 마을에 이주하는 만 20세 이상 세대주로 구성한다.

제8조 (정회원)

- 1) 본회의 정회원은 산내리 새마을회에 5년 이상 거주자로서 세대를 대표하는 세대주로 한다.
- 2) 정회원 가입 절차는 별도로 규정한다.

제9조 (준회원)

- 1) 준회원은 산내리에 1년 이상 거주자로서 세대를 대표하는 세대주로 한다.
- 2) 준회원 가입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1) 본 회의 임원선거권 및 피선거권
- 2) 단, 준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 3) 회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4) 회원은 세대주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회의에 불참시에는 만 20세 이상의 직계가족이 대리 참여 및 투표할 수 있다.

### 〈2016년 산내리마을 정관 제2장 회원〉

제7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본회의 회원은 주민등록지를 산내리로 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신입조를 납부한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한다.
- ② 1가족을 이루면서 2세대주 이상일 때는 1세대주로 인정한다.
- ③ 실제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직계 가족은 세대주를 대리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임원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제반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

산내리 대동회 정관은 2010년, 2015년, 2016년에 개정되었다. 각 정관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눈에 띄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대동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의 구성 등이다. 먼저 2015년 정관에서 회원의 자격이 달라진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에는 회원을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고, 정회원은 ‘산내리에 5년 이상 거주자로서 세대를 대표하는 세대주’, 준회원은 ‘산내리에 1년 이상 거주자로서 세대를 대표하는 세대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2015년 정관의 제7조 회원조에는 정회원과 준회원의 구분이 없어졌으

며, 회원의 자격이 ‘5년 이상 거주자’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0년 정회원의 자격이 5년 이상, 준회원이 1년 이상 마을 거주자이고,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었던 것과 비교할 때 파격적인 개정이라 할 수 있다. 2010년에는 1년 이상 5년 미만 산내리 거주자는 준회원의 자격을 갖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했으나, 2015년에는 6개월 이상 거주자가 대동회의 회원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된 것이다. 이는 외지에서 들어온 이주민들을 마을의 공동구성원으로 인정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며, 이주민 스스로 마을에 주인 의식을 갖고 공동체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방법이다.

대동회 회원의 자격을 변경함으로써 외지에서 이주해 온 주민들은 실제 마을의 대소사에 있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마을공동체의 대표 후보가 되거나 대표 선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의 변화는 2010년 정관 ‘제9장 회원 가입 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회원가입 규정에는 정회원과 준회원의 자격, 입회 심사방법 등이 상세하게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회원의 가입규정에 대한 조항에서는 2015년 정회원과 준회원의 구분을 없애고, 6개월 이상 거주자를 회원으로 변경하면서 기존의 입회심사 규정 등을 삭제하여 이주민에 대한 회원자격 부여를 용이하게 하였다.

2010년 정관에 구성된 임원은 여느 대동회 임원 구성과 별다를 것이 없다. 회장·부회장·노인회장·부녀회장·새마을지도자·감사·개발위원 6인·총무로 구성되는데, 개발위원은 마을을 지리적으로 구획하여 각 지역의 대표를 뽑은 것이다. 개발위원 중 1명은 부회장으로 선출하고 이장 유고시 이장을 대리하도록 하였다.

2015년에는 감사가 2인으로 증원되었고 개발위원 중 선출하던 부회장직이 사라져, 회장 유고 시 새마을지도자가 회장을 대리하도록 하였다. 임원의 체제는 2016년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 2016년에 새롭게 볼 수 있는 변화는 임원에 대동회 산하기관의 장이 포함된 것이다. 현재 대동회 산하기관으로 산내리도서관과 마을지편찬위원회가 있어, 도서관장과 마을지편찬위원장이 임원에 포함되어 있다. 산내리는 앞으로 주민들을 하나로 묶고, 주민들의 문화·복지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산하기관은 유동적으로 새로 추가될 수 있다.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임원 구성의 변화는 표와 같다.

## 연도별 산내리 대동회 임원 구성

구분	2010	2015	2016
회장	1	1	1
부회장	1(개발위원 중 1인)	×	×
노인회장	1	1	1
부녀회장	1	1	1
새마을지도자	1	1	1
감사	1	2	2
개발위원	6	6	6
총무	1	1	1
도서관장	×	×	1
마을지 편찬위원장	×	×	1
임원수	12	13	15

과도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좋은 게 뭐냐면 다른 데는 들어보면 이사 와서 적응을 못 해서 집 팔고 이사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보면 이사 온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의식을 갖고 관여를 못 하는 거예요. 마을 일에. 또 동네에서 배척을 해, 이사 온 사람들을. 근데 산내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또 그게 안 돼. 왜냐면 수적으로다가 한 8:2가 되니까.

이사 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좀 거리감이 있는데 막상 살고 보니까 공기 좋지, 환경 좋지, 또 자기가 듣던 것 보다 생활하는데 불편한 게 없고 동네사람들한테 따돌림이라든가 배척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아, 여기는 살만한 동네구나’ 자연히 동화가 되고, 그런 분들이 되려 산내리는 앞으로 오염 안 되고 덜 개발되고 자연상태를 잘 보존해서 동네를 이렇게 이어 갔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이제 더 조언을 하고 의견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가서는 ‘아, 내가 계속 여기서 살까 뭐할까’ 그러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데, 여기는 살아보니까 이제 살만하고 내가 여기를 떠날 곳이 아니고 계속해서 생활할 곳이다 그런 마음들을 가져요.

그러니까 동네 무슨 행사라든가 그러면 참여들 꼭 하시고 하다못해 복놀이이라든가, 누가 이사 오시는 분들이 뭐를 인사로 내고 이러시면 식사를 하면 그걸 또 와서 거들면서 봉사하시고 같이 식사도 나누시고 많이들 참여하세요. 그리고 수시로 동네를 이렇게 가꿔 나갔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이제 더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그래서



동네 이거 도서관도 생기고 마을지편찬위원회도 생기고 그랬죠…….

우리 동네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동네는 개발위원이나 뭐 이런 거 이사 온 사람들 안 시켜요. 그리고 그분들 다른 동네 가면 회관에도 잘 못 나가. 워낙 수가 안 되고 가면 서먹서먹하니까 안 나가는데, 우리 동네는 회관에 오면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니깐 자동으로 다 회관에 자주 나오고, 와도 다 외지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야. 뭐 한 달이 됐든 일 년이 됐든.

현재 산내리마을 임원은 15명인데, 노인회장 · 이장 · 부녀회장 · 개발위원 2명만 토박이고 나머지는 이주민이다. 15명의 임원 중 토박이 5명, 이주민 10명으로 이주민의 비율이 더 높다. 산내리에서는 이주민이 더 이상 방관자나 내부에 속하지 못한 이방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을을 이끌어 가는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마을지편찬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석제<sup>4</sup> 씨는 산내리가 지금처럼 깨끗한 마을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마음속으로만 산내리가 지금의 모습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석제 씨는 마을주민들이 모두 마을의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고자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개발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마을에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고 이 공간을 통해 마을주민들 스스로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마을의 환경을 지켜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것, 마을을 지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운동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산내리마을에서 걱정하는 것은 외부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적절한 선에서 균형을 잡고 하는가 그게 제일 관건이죠. 앞으로 우려하는 바는 생산이다, 이해 · 이익이다 이런 문제가 개입이 돼서 개발이라는 탈을 쓰게 되면 주어진 청정환경은 파괴거든요. 그런 거를 소극적으로는 방어해야 할 일이고, 적극적으로

4) 조석제(남, 모가면 산내리 거주).

는 평생학습센터를 세우고, 평생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고 교육하고 그게 중심이 돼서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관여도 하고 면역력을 키워야 하죠.

청정자연이라는 메리트를 지키는 운동이 확산될수록, 그게 일종의 면역력처럼 생기면 엉뚱한 세력, 엉뚱한 이해관계, 엉뚱한 욕심 이런 것들이 유입되는 걸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역사문화 환경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평생학습센터를 짓고 지속적으로 교육과 활동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요.

산내리마을을 유지하고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비단 조석제 씨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니다. 산내리를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담론이 주민들에게 형성되어 있고 ‘개발’이라는 이익과 상충할 때도 마을의 자연환경을 지킬 힘을 얻을 수 있게 이미 산내리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산내리 대동회 정관에는 다른 마을 정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마을의 보존과 주민참여’에 관한 조항이 있다.

#### 제7장 마을의 보존과 주민참여

- 제32조(마을 보존) 마을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제33조(주민 참여) 본 회의 발전과 마을조성을 위한 환경정리 작업에는 모든 마을주민이 참가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환경 정리비를 내야 한다.
- 제34조(자격 제한 및 재산 분배) 인근 마을과 유사한 지역개발이나 공장 유치 등 특수한 사례발생시, 개인의 이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 있다.
- 제35조(건물 신축이나 토지개발 등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
- ① 산내리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토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이장에게 그 내용과 범위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 ② 이장은 건물 신축이나 토지개발 사실을 마을회관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고, 제32조에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인근 회원의 민원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③ 총회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이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처리한다.

제7장 마을의 보존과 주민참여 조항은 2010년 정관에는 부칙으로 제정되었던 부분인데, 35조를 새로 추가하여 건물신축과 토지개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투기의 목적으로 마을에 전입하는 행위, 환경이나 마을 분위기를 해치는 시설의 설립이나 개발을 제재하고 있다. 정관에 마을의 보존과 주민참여 조항을 추가하고, 별도

로 ‘산내리마을 보존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이 규정에는 산내리 사람들이 지향하는 마을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내리마을 보존 규정

2015년 12월 20일 제정

제1조(근거) 산내리마을 보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천시 도시개발조례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산내리마을 정관 제32조(마을보존)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산내리에서 이루어지는 대단위 조성사업, 2세대 이상의 택지개발 및 분양, 공동주택 건축, 대규모 가축사육 등으로 인하여, 마을 자연경관과 환경, 문화유산유적 등이 훼손되거나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3조(예외) 1세대가 거주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단독주택의 신축·증축 및 개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전주민협의) 사업자는 산내리에서 제2조에서 정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첨 양식(사업시행계획 자료)을 작성하여 이를 산내리 대동회에 제출하고, 주민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마을의견수렴) 산내리 이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임원회의 또는 대동회에 상정하고 주민의 의견을 모아,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제6조(최종협의) 사업자는 마을 대동회로부터 통보받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원만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2조와 3조의 내용을 보면 산내리 주민들은 지나친 개발로 인해 산내리가 도시화되는 것을 지양한다. 이 규정은 대단위 조성사업, 2세대 이상의 택지개발, 대규모 가축사육 등에 적용하고, 1세대의 거주용 신축과 증축 및 개축에 대해서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거주목적을 위한 건축이나 증축·개축이 아닌 상업이나 매매를 위한 신축·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조·5조·6조에서는 사업자의 건물신축이나 토지개발에 대한 것을 다루는데, 사업자가 마을 내에 건물을 짓거나 토지를 개발할 경우, 임의로 개발하지 않고 사전에 사업시행계획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마을개발에 관한 문제는 마을주민들 간에도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마을 대동회를 통해 마을을 보존하고 개발을 규제하는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주민들 간 충분한 의사소통과 의견수렴 없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 2) 산내리의 공동체 활동

### 산내리 사랑방 '작은도서관' 운영

산내리 작은도서관은 2016년 2월 2일에 마을회관 2층에 개관하였다. 당초 개관할 당시 1,200여 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마을주민들의 기증으로 2017년 현재 2,3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 산내리 작은도서관 헌장

우리는 오늘 산내리 주민의 뜻과 정성을 모아 작은도서관을 개관한다. 이곳은 책을 통하여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바라보고 시간 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간이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또한 책은 사람을 만든다. 책을 통하여 우리의 지식이 자라고 우리의 안목이 새로워진다. 어린이에게는 다가올 미래를 상상하게 하고, 청년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며, 어른에게는 삶을 관조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도서관에서, 우리의 이웃과 동행하면서, 마을 환경을 보존하고, 역사문화를 계승하는 현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

1. 산내리 작은도서관은 주민 모두가 주인이 되어 책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
2. 산내리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고 활용하는 사랑방이 되어야 한다.
3. 산내리 작은도서관은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그것을 통해 과거 · 현재 · 미래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2016년 2월 2일  
산내리 주민일동

산내리 작은도서관은 상주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없다.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도서관이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모두 함께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서관은 개방되어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대여하고 싶은 책은 도서관에 마련된 도서대출장부에 스스로 대출일자와 서지사항을 기재한 후 자유롭게 대여할 수 있다. 산내리 작은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서들 중 상당수는 마을주민들이 기증한 것인데, 이는 산내리 주민들이 마을 도서관에 가지고 있는 애정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산내리 작은도서관 개관식

산내리 작은도서관은 책을 보거나 공부만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아침에는 마을주민들이 모여 국선도를 배우며 심신을 단련하고, 오후에는 임원회의의 장소가 되는 등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마을 대동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주요 공지사항이 있을 때도 마을회관과 도서관 등에 게시하여 대동회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회의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로운 분위기는 산내리 작은도서관 현장에도 명시되어 있다. 산내리 주민들에게 산내리 도서관은 주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 ‘마을의 사랑방’,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학교’ 다.

### 환경정비사업

모가면에서 산내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경리와 진가리에서 큰고개 방향의 진입로를 통과해야 한다. 이 진입로는 주로 산내리마을 사람들이 통행하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약 2.5km 정도 되는 마을진입로의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연 3회에서 4회 정도 실시하고 있다.

환경정비사업은 산내리에서 전통적으로 하던 사업인데 2010년부터는 정관에 회원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다. 마을주민은 누구나 마을 환경정비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불참 시 환경 정리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정비사업은 오래전부터 시행되던 사업이지만 과거에는 참여 인원이 10~15명으로 참여율이 높

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50여 명이 참석하고 있다.

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날짜를 임원회에서 결정해 고지하면 마을주민들은 각 낫·삽·예초기·경운기·트랙터 등 필요한 도구를 준비해 모인다. 주요활동으로는 마을 쓰레기 줍기, 잡초 제거, 가지치기, 비료 주기 등의 활동이다. 부녀회에서 간식을 준비하여 나눠주고 점심식사를 준비해 회관에 모여 식사를 하며 뒤편이를 한다. 이 사업은 마을주민들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마을 전체를 살피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 기회를 통해 주민들은 마을환경을 위한 개선점 등을 논의할 수 있다.

### 산내리 전통모임

산내리는 전통적으로 대동회 때 한두 집이 돌아가면서 마을주민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데, 새로 이사 온 주민이 있을 경우에는 신입식이라고 하여 이사 온 사람이 음식을 장만한다. 일 년 중 마을주민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을 선택하여 음식을 대접하며 주민들에게 인사하기 위한 것이다. 대동회 때 각 가정에서 돌아가며 음식을 준비하고, 신입식을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마을주민들이 좋은 풍습으로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전승하고 있다. 이러한 풍습은 새로 입주한 이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마을주민들과 어울리는 계기가 되어 산내리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대동회 이외에도 산내리에서는 노인회와 부녀회 등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노인회는 마을 어른들의 여가활동모임·봉사활동·체력단련 등의 활동을 하고, 마을의 대소사에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부녀회는 여성들의 모임으로 마을의 대소사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마을의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마을회관에서 먹을 김장을 준비하는 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산내리에서는 양력 1월 1일에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마을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며 고사를 지낸다. 원래 고사는 서낭당에서 음력 1월 1일에 지내던 것인데 서낭당고사의 전승이 중단된 것은 50년 이상 된 것으로 보인다. 서낭당에서 고사를 지내는 전통은 끊어졌지만 마을에 한 해 동안 나쁜 일이 생기지 말라는 의미로 회관에서 고사를 지내고 있다. 현재 마을회관에서 지내는 고사는 마을의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제례의 성격도 있지만, 새해 첫날 주민들이 함께 모여 서로 덕담을 나누고 친목을



산내리마을 환경정비사업①



산내리마을 환경정비사업②



부녀회 모임



주민들이 모여 마을 김장하는 모습

하고자 하는 의미가 크다. 고사는 다양한 제수를 준비하지 않고 복어·술·찰떡 정도를 준비하여 간단하게 지내고, 고사를 지낸 후 떡국을 먹는다.

과거에는 음력 5월 5일 단오를 맞아 해나무 앞 공터에 모여 그네뛰기와 씨름 등의 민속놀이를 즐겼다. 쭉떡 등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나무 밑에서 더위를 식히고 이야기를 나누며 명절을 보냈으나 현재는 전승이 중단되었다.

산내리는 개울가에 가재·뱀장어·구구락지<sup>종태미</sup> 등이 많아 모내기 전후로 동네사람들이 모여 천렵을 자주 하였다. 천렵 때는 주로 그날 잡은 물고기 등을 끓여 먹지만, 때로는 돼지를 잡아 큰 잔치를 열기도 했다. 단오풍습과 천렵은 전승이 중단되었고, 한여름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복에는 삼계탕이나 수박·참외 등의 음식을 먹는 복놀이는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 낭만이 있는 산내리

2017년 처음으로 산내리에서는 마을주민들이 즐기기 위한 벚꽃축제를 열었다. 이 벚꽃축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함께 봄의 여유를 즐기기 위한 행사로 진행되었다. 마을입구에 “산내리 벚꽃 길을 즐겨보세요, 산내리 벚꽃 길을 걸으며 봄과 얘기하세요”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고, 천막을 치고 노래방기계를 설치해, 마을주민들이 술과 음식을 즐기며 벚꽃 핀 산내리마을 풍경을 배경으로 노래 한 자락씩 뽐내는 시간을 가졌다. 부녀회에서는 막걸리와 부침개를 대접하고 불고기 판매의 수익금으로 부녀회 기금을 마련하였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삼삼오오 모여 마을 끝에서 삼거리까지 담소를 나누며 벚꽃 길을 즐기고 사진을 찍었다. 처음 실시한 행사에 마을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다음 해에는 인근 마을까지 확대하여 함께 즐길 예정이다.

산내리에서는 마을주민 공동 관광과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관광과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한 해에는 관광을 가고 한 해에는 체육대회를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활동은 주민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활동에는 ‘산내리 작은음악회’가 있다. 산내리는 이천의 남쪽지역으로, 문화시설이 시내를 중심으로 한 북쪽지역에 집중되어있어 문화시설이 빈약한 편이다. 이러한 문화 약소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주민들은 작은 음악회나 영화상영 등의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 하나의 역사 만들기, 산내리마을지 편찬사업



산내리마을지 편찬회의

2016년 6월 대동회에서 마을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산내리마을지 편찬을 기획하고 진행 중에 있다. 산내리마을지에는 산내리마을의 역사·인문지리·자연지리·지세 형성풍속·문화민속·교육·종교 등을 모두 담아 산내리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이를 위해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에는 혼례·출산·제사 등의

의례에 관한 습속, 날씨가 길흉화복을 점치는 방법, 금기시하는 풍속, 민간요법, 구비 전승되는 이야기, 산내리에서 전승되는 놀이, 가정신앙, 지형지물이나 산업, 동식물, 소장하고 있는 사진이나 문서 등이 포괄적으로 담겨있다. 또한 마을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구술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구술 녹취록의 내용은 산내리에 한정하되 과거 산내리 가옥의 구조, 마을회관 건립 경위, 6·25 무렵 산내리의 풍경, 세시풍속, 과거 큰 자연재해와 관련된 이야기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각 개인의 기억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 한 사람의 기억을 무조건 자료로 활용하기보다 전체 구술회의를 기획하여 교차 검증을 하였다. 설문조사·구술녹취·공동구술 회의를 하여 사라져가는 산내리의 과거 생활상을 밝히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마을지 편찬을 통해 산내리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김기홍 씨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을지 편찬을 통해 마을주민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산내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한 거 아니야. 구술에 참여했고, 서랍장 다 뒤져서 자료를 갖고 오고, 사진도 찾아오고, 다 참여를 한 거야. 이사 온 사람들이 글 좀 쓴다고 다 한 게 아니고, 공동체가 다 참여하게 되는 거야. …… 마지막에 편집후기가 됐든 어디든 우리 후대들, 우리 2세들의 역할을 주려고 그래. 너희도 이 렇게 해라, 그리고 정기적으로 개정판을 내라.

마을주민들이 마을지를 만든다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자의 방식대로 참여하고 그것이 결과물을 만들어 낼 때, 공동체성이 짙어질 수 있다. 특히 마을지

는 마을의 역사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이야기이다. 마을에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들이나 불과 몇 년 전 새로 산내리에 이주한 사람이나 모두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냄으로써 공동체성을 공고히 할 수 있다. 마을주민들이 모여 산내리를 추억할 때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추억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마을지에는 원주민들의 이야기만 담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 이주해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다. 이주민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산내리에 오게 되었고, 앞으로 산내리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하는 내용이 담긴다. 원주민과 이주민들이 각각 ‘당신들의 삶’이라 여기던 생활·풍습 등이 마을지를 통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산내리마을지 편찬사업은 원주민과 이주민이 동일한 역사를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3) 산내마을 공동체의 특징

#### 청정한 마을

산내리마을의 첫 번째 특징은 ‘청정한 마을’ 지향이라 할 수 있다. 산내리 작은 도서관 관장직을 맡고 있는 김기홍<sup>5)</sup> 씨는 2006년에 퇴직하고 오래전부터 꿈꿔오던 전원생활을 준비하여 산내마을에 터를 잡았다. 그는 산내마을에 터를 잡기 전 11개월 간 새로운 삶을 꾸려나갈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전국 각지를 여행하고, 전원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서적을 탐독하기도 하였다.

김기홍 씨가 산내마을에 정착하게 된 계기는 택리지의 영향이 크다. 택리지에 소개된 양택을 보면 첫째가 지리와 생리, 둘째가 인심, 셋째가 경관이다. 김기홍 씨가 본 산내리는 택리지에서 말하고 있는 양택의 조건을 다 갖추었다.

첫째 풍수지리적으로 지나치게 비탈이 심하거나 계곡이 깊으면 사람들이 살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산내리는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의 포란형이라 주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마을사람들이 아늑함을 느낄 수 있다. 둘째, 산내리는 원래 정착해 살고 있던 마을주민들의 성품이 온순하고 어질다. 김기홍 씨는 마을지 편찬작업을 위해 마을주민들의 생애를 인터뷰 하였는데, 산내리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5) 김기홍(남, 1957년생, 모가면 산내리 거주).

산안마을 안내판②와  
산안마을의 마국산 자연생태 안내판



마을주민들의 성품이 어질어 어려운 시절에도 동네사람들끼리 서로의 필요를 채워 주어 남의 동네에 곡식을 빌리러 다니지 않았다는 말을 인용하며 산내리 주민들의 성품을 설명한다. 셋째로, 산내리는 환경을 잘 보존하여 ‘청정한 마을, 따뜻한 마을’이라는 슬로건이 참 잘 어울리는 동네이기도 하다. 인근 마을에 축사나 창고형 건물들이 많은데 비해 산내리는 대규모 목축이나 산업시설이 없어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다.

### 따뜻한 마을

산내마을의 두 번째 특징은 ‘원주민과 이주민의 조화’다. 생활방식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농촌과 도시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집단의 구성, 구성원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크고 작은 마찰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마찰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원래의 공동체와 새로 들어온 이주민이 서로 조화되지 못하고 갈등이 깊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원주민과 이주민의 조화가 쉽지 않은 현실에도 산내리마을은 현재 원주민과 이주민이 조화롭게 공동체를 이루며 정체되었던 지역사회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여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흥미롭다. 김기홍 씨는 원주민과 이주민의 원만한 공동체 형성이 성공할 수 있었던 첫째 이유를 산내리 원주민들의 성품으로 꼽는다. 그리고 뒤이어 이야기하는 둘째 이유는 이주민들의 태도와 역할이다. “박힌 돌을 닦하지 말라. 굴러 온 돌의 역할이 있다” 이것이 김기홍 씨가 산내리에 들어오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은 원주민들의 삶과 생활방식을 존중하고 이해하려

고 해야 하며, 자신이 그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반이 노령화로 접어들고 있는데, 시골마을의 노령화는 도시보다 훨씬 급속도로 진행되어 마을을 이끌어갈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공동체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데, 외지인들이 마을의 이방인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면 마을은 젊어질 수 있다.

동네 이사 오신 분들이 뭐 직업이 다양하고 이러니까 하루 이틀만 그 분들과 정보 교환하고 수집하면 해결이 안 될 게 없을 거 같아요. 각양각색의, 각계각층의 그런 거를 이끌어 가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장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분들이 다른 동네에 이사를 갔으면 그게 사장이 되는 건데. 또 좋은 게 뭐냐면 그분들이 와서 노하우를 동네사람들 또 동네에 맞게 접합한다는 게 그 분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좋은 환경을 보존했다는 거. 그 토대 위에 그분들이 이제 와서 그렇게 술선수범해서 나서서 정말 지금 상태에서 점점 더 발전하지.

실제로 산내리는 마을을 이끌어가는 대동회 임원의 2/3가 외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 몇몇 성씨를 중심으로 집안이 모여 살며, 비슷한 직업에 종사할 때와는 다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마을 구성원들이 마을의 대소사에 대해 의견을 내놓고 결정을 하다 보니 마을은 과거 해 오던 사업이나 일들만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이나 일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사업들도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하여 활기를 띄게 되었다.

### 변화하는 마을

산내마을의 세 번째 특징은 마을공동체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을주민 중 외지인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마을공동체 운영방식으로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을 때, 산내마을은 적극적으로 새로 이주해 온 주민들과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정관을 수정하여 외지인들이 방관자에 머



물지 않고 마을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동체 활동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만을 고수하지 않고 현재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활동을 마련하였다. 서낭당 고사를 복원하여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면서도 낱짜와 장소를 변경하여 신년하례식의 의미를 강조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시켰다. 과거에는 공동체모임이 세시풍속과 농업과 관련된 활동이 중심이 되었으나, 현대에 세시풍속이 약화되고 생업이 다양하게 바뀌고 문화적 요구가 달라진 점을 고려하여 벚꽃축제, 작은음악회, 도서관 운영, 마을지 편찬 등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였다. 그러면서도 행사의 제일 큰 목적을 마을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화합에 둔 것이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산내마을은 마을주민들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마을주민 전체가 원하는 마을의 모습을 만들었고, 의견을 정관에 반영하여 공식적인 힘을 갖게 하였다. 마을주민들이 공동의 목표를 갖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타 마을에서도 공동체를 생기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구성의 변화를 인정하고, 원주민과 이주민 공동의 관심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살아 온 환경과 생활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필요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공동체활동이 이루어져야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마을공동체의 활동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하여 여러 모임과 행사를 만들고, 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주민의 화합을 도모해야 한다. 산내마을에서 실행하고 있는 마을지 편찬 사업, 환경정비사업, 벚꽃축제, 도서관 운영 등은 각 사업 자체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마을주민들을 하나로 만들고 지속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각 마을에서 주민의 필요를 채워주는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시행하여 공동체가 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집필위원(가나다순)

김종연 | 이천고등학교 교사  
서영일 | 한백문화재연구원 원장  
신배섭 | 문학박사, 이천문화원 이사  
양경직 |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유선영 |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연구원  
이선민 | 이천문화원 문화사업팀장  
이인수 | 이천향토사연구회 회장  
장준구 | 이천시립월전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성균관대학교 미술학과 겸임교수  
채기순 | 자유기고가, 이천문화원 편집위원  
최석재 | 여행작가, 이천시역사문화연구회  
최의광 | 이천문화원 이사, 공주대학교 겸임교수  
허홍범 | 추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시민을 위한

## 이천시지 ①

### 테마로 보는 이천의 문화

발행일 2018년 5월 31일

발행처

이천시지편찬위원회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163번길 19(관고동)

전화 (031)635-2316, 635-2318 / cc467ic@hanmail.net

디자인 · 제작

홍익문화인쇄사

서울 중구 수표로 23 인농빌딩 104호

전화 (02)2274-8110 / www.hongeeg.com

---

© 이천시 · 이천문화원

발간등록번호

ISBN 978-89-87738-13-0

ISBN 978-89-87738-12-3(세트)